









# 문화정책의 (재)구성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다

##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모니터링 지표

기본 원칙	<p>국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구축하고 시행하여 그들의 주권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입각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과정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p>	<p>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 있어 공평한 접근과 개방 및 균형을 독려한다</p>	<p>지속가능한 개발이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을 가짐을 인식한다</p>	<p>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창작과 유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인권과 표현, 정보, 의사소통의 기본적 자유를 존중한다</p>																						
목표	 <p>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p>	 <p>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p>	 <p>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p>	 <p>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p>																						
2030 지속가능 발전목표	   	  	 	 																						
예상 결과	<p>국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 생산, 유통 및 다양한 문화활동의 접근성을 지원하고, 문화를 위한 정보에 입각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한다.</p>	<p>국가의 정책수립과 실행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흐름을 촉진시키고, 전 세계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포함하여 이들의 이동성을 증진시킨다</p>	<p>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과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전략적 차원에서 통합한다.</p>	<p>인권과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국제 및 자국 법률을 시행하고, 양성평등과 예술적 자유를 증진시킨다</p>																						
모니터링 영역	<table border="1"> <tr> <th>문화·창의분야</th> <th>미디어 다양성</th> <th>디지털 환경</th> <th>시민사회와의 협력</th> </tr> </table>	문화·창의분야	미디어 다양성	디지털 환경	시민사회와의 협력	<table border="1"> <tr> <th>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th> <th>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th> <th>조약 및 협정</th> </tr> </table>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조약 및 협정	<table border="1"> <tr> <th>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th> <th>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th> </tr> </table>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table border="1"> <tr> <th>양성 평등</th> <th>예술의 자유</th> </tr> </table>	양성 평등	예술의 자유											
문화·창의분야	미디어 다양성	디지털 환경	시민사회와의 협력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조약 및 협정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양성 평등	예술의 자유																									
핵심 지표	<table border="1"> <tr> <td>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td> <td>미디어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td> <td>디지털 창의성, 기업 및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td> <td>시민사회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td> </tr> <tr> <td>정책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다수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함</td> <td>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td> <td>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td> <td>국가 및 세계적 차원의 협약의 이행에 대해 시민사회가 관여함</td> </tr> </table>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미디어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디지털 창의성, 기업 및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시민사회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	정책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다수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함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국가 및 세계적 차원의 협약의 이행에 대해 시민사회가 관여함	<table border="1"> <tr> <td>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내외 이동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td> <td>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국제적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td> <td>협약에 근거한 통상 및 투자 협정 또는 그 목적의 이행</td> </tr> <tr> <td>운영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요하게 고려한다.</td> <td>정보 시스템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흐름을 평가한다</td> <td>기타 협정, 선언, 권고 및 결의안 등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에 의거하며,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도록 한다.</td> </tr> </table>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내외 이동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국제적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협약에 근거한 통상 및 투자 협정 또는 그 목적의 이행	운영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정보 시스템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흐름을 평가한다	기타 협정, 선언, 권고 및 결의안 등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에 의거하며,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도록 한다.	<table border="1"> <tr> <td>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한다</td> <td>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한다</td> </tr> <tr> <td>정책수립과 실행은 문화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지원한다</td> <td>해외 개발 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창조 분야(creative sectors)를 강화하도록 한다</td> </tr> </table>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한다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한다	정책수립과 실행은 문화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지원한다	해외 개발 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창조 분야(creative sectors)를 강화하도록 한다	<table border="1"> <tr> <td>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수립과 실행</td> <td>창작, 표현 및 문화생활 참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td> </tr> <tr> <td>모니터링 시스템은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참여 및 접근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다.</td> <td>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td> </tr> </table>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창작, 표현 및 문화생활 참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참여 및 접근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다.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미디어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디지털 창의성, 기업 및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시민사회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																							
정책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다수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함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국가 및 세계적 차원의 협약의 이행에 대해 시민사회가 관여함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내외 이동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국제적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협약에 근거한 통상 및 투자 협정 또는 그 목적의 이행																								
운영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정보 시스템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흐름을 평가한다	기타 협정, 선언, 권고 및 결의안 등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에 의거하며,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도록 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한다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한다																									
정책수립과 실행은 문화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지원한다	해외 개발 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창조 분야(creative sectors)를 강화하도록 한다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창작, 표현 및 문화생활 참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참여 및 접근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다.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행동	<p>정책실행기관의 전략적인 결정    •    인지도 제고    •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육성    •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정보 및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공유    •    정책 분석, 벤치마킹 및 모니터링 보장    •    글로벌 리포트의 작성          역량 및 기술 강화    •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제공    •    프로젝트 자금 지원</p>																									

# 문화정책의 (재)구성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다



2022

2023년 발행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한국문화관광연구원(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 UNESCO and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23

ISBN 978-92-3-000196-4



이 출판물은 Attribution-ShareAlike 3.0 IGO (CC-BY-SA 3.0 IGO) 라이선스에 따라 Open Acces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사용자가 이 출판물의 내용을 활용하게 되면, 유네스코 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https://en.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의 사용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문: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Addressing 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

2022년 유네스코 발행

이 출판물 전반에 걸쳐 사용된 국가, 영토, 도시, 지역 또는 해당국의 법적 지위 등의 명칭과 자료의 표시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어떠한 의견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출판물에 서술된 아이디어와 의견은 저자의 의견입니다. 저자들은 유네스코에 소속된 이들이 아니며 기구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출판물에서 별표(\*)가 표시된 이미지는 위에 언급한 CC\_BY\_SA 라이선스에 속하지 않으며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표지 사진: © Enrique Larios, The Lovers, 2019\*

그래픽 디자인 및 표지 디자인: Corinne Hayworth

인포그래픽 디자인: Interior of Africa

한국어 번역감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어본 인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출판물은 스웨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어 번역본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다

문화·창의분야는 전 세계 GDP의 3.1% 및 전체 고용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05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미화 3,891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분야는 비교적 최근에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부문이 되었다. 그러나 당면한 지속 과제가 많으며 공공 및 민간 투자에서 종종 간과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문화·창의분야는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로 2020년 한 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문화에 대한 공공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해 왔고 문화·창의분야 직업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규제가 부족하다. **문화 엔터테인먼트에서**

**여성 인력의 채용률이 높지만(48.1%) 성평등은 요원한**

**상태다.** 또한 2030 어젠다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국가 리포트의 13%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화 분야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크며 선진국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주도하며 전체 문화 서비스 수출의 95%를 차지한다.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그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는**

**국내외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없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전지구적 공공재로서의 문화의 가치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소중히 간직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의 (재)구성: 전지구적 공공재로서의 문화를 바라보다』는 2030년과 그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창의적인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수준의 새로운 경향을 조명하는 통찰력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한다.

문화·창의분야의  
비중

**3.1%** 전 세계  
GDP의

그리고 **6.2%**  
전체 고용의



# 머리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문화계에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창작과 공유의 장소였던 전 세계의 박물관, 영화관, 극장, 콘서트홀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 창작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10% 이상, 즉 10억 유로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많은 예술가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고, 창의적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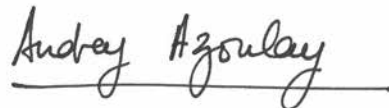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문화와 창의, 그리고 유네스코 협약이 보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청년층을 고용하고 혁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육성하는 이 분야의 번영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전지구적 위기에서 우리는 문화와 창의성이 갖는 힘을 절감합니다. 문화와 창의성은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가갈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회복 정책에 문화의 정당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로 부각된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유네스코가 주최한 리질리아트(ResiliArt) 토론회에서 전 세계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일정 수준의 안정을 제공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공정한 가치 사슬,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화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문화정책의 (재)구성: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다』의 제3판은 문화와 창의 관련 필수 데이터를 모은 보고서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고유의 도구입니다. 이 보고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해로운 지리적, 성별 및 디지털 불평등을 점검합니다. 2005년 협약에서 권고한 특혜조치를 선진국이 여전히 잘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결과, 이 보고서는 문화상품과 서비스 유통에서 여전히 불균형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51개 당사국에 의한 2005년 협약의 목표 및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대중적 조치에 대한(public action)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혁신의 원천으로서 다양성과 창의성의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공공 영역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광범위한 문화 이니셔티브, 규정 및 정책의 개발을 통해 정부와 문화 관계자들을 돕고, 고위급 수준의 국제 교류에서 증가하는 문화의 역할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 11월과 2020년 4월에 두 차례의 문화부 장관 포럼을 개최하고 G20의 첫 번째 문화 장관 선언문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 (MONDIACULT)'를 2022년에 개최하여 정치적 의제의 최우선순위에 문화를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 모든 다양성에서 문화는 진정한 공익으로 자리매김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문화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아졸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 글로벌 리포트 팀

## 출판 국장

에르네스토 오토네, 문화사무총장보

## 수석 편집자

Jordi Baltà Portolés

## 코디네이터

Berta de Sancristóbal

## 편집팀

Florisse Hendschel

Ioana-Maria Tamas

Caroline Ullerup

## 편집 위원회

Luis A. Albornoz, Mauricio Delfín, Lydia Deloumeaux, Véronique Guèvremont, Yarri Kamara, Magdalena Moreno Mújica, Ojoma Ochai, Meredith Okell, Josep Pedro, Anupama Sekhar, Mikael Schultz, Anna Villaroya Planas and Sara Whyatt.

## 외부 검토

Areej Abou Harb, Tsveta Andreeva, Javiera Atenas, Mira Burri, Bridget Conor, Milena Dragičević Šešić, Ayodele Ganiu, Marisa Henderson, Belén Igarzábal, Avril Joffe, Patrick Kabanda, Alfons Karabuda, Octavio Kulesz, Helena Nassif, Justin O'Connor, Milica Pesic, Janina Pigaht, Eduardo Saravia, Abeer Saady, Amy Shelver, Michelle Zang and the 2005 Convention Civil Society Global Coordination Group.

## 내부 검토 위원회

Denise Bax, Guilherme Canela De Souza Godoi, Benedetta Cosco, Nigel Crawhall, Dafna Feinholz, Damiano Giampaoli, Amina Hamshari, Maksim Karliuk, Paola Leoncini Bartoli, Pablo Guayasamín Madriñán, Saorla McCabe, Rion McCall Magan, Anne Muller, Qiaobo Ni, Marissa Potasiak, Emmanuelle Robert, Jamila Seftaoui and Konstantinos Tararas.



# 감사의 말

『문화정책의 (재)구성: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다』의 제3판은 다음과 같은 많은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 덕분에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Toussaint Tiendrebeogo가 이끄는 유네스코 본부의 문화적 다양성 분과, 그 중에서도 특히 Caroline Bordoni, Xiaoyang Duan, Yuliya Ivankevych, Herim Lee, Laurence Mayer – Robitaille, Melika Medici Caucino, Jorge Navarro de Julián, Laura Nonn, Floor Oudendijk, Julie Pilato, Gabrielle Thiboutot, Reiko Yoshida, Ahmed Zaouche, Zhehao Zhao, 팀 인턴Francesca Germani, Antoine Sauvageau – Audet 및 Luis Zea Mares에게 감사드립니다.

번 오웬스 파트너스 컨설팅(Burns Owens Partners (BOP) Consulting)의 Richard Naylor와 팀원 Marta Moretto, Yvonne Lo와 Douglas Lonie는 이 보고서 제작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4년제 정기보고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1차 및 2차 추가 데이터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며, 각 장을 검토할 때 편집팀과 위원회에 한결같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019년 6월에 만나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의 관련성과 연구 결과의 폭넓은 수용, 각 분야의 관련자들의 연구와 조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리포트 제3판을 구체화하는데 심사숙고해주신 Quafa Belgacem, Mylène Bidault, Laurence Cuny, Khadija El Bennaoui, Brenda Fashugba, Andrew Firmin, Adriana González Hassig, Nathalie Guay, Daves Guzha, Eddie Hatitye, Iman Kamel, Balufu Bakupa Kanyinda, Christine M. Merkel, Delphine Pawlik, Jad Shahrour, Julie Trébault, Sophie Valais and Charles Vallerand께도 감사드립니다.

Alhanouf Almogbil, Camille Apprèderisse, Barbara Blanchard, Moe Chiba, Lindsay Cotton, Thomas De Clercq, Coryn Lang, Laura Frank, Anthony Krause, Michel López Barrios, Matilda Machimura, Karalyn Monteil, Samaa Moustafa, Adelaida Shabanaj, Ingrid Pastor Reyes, Rochelle Roca – Hachem 등 유네스코 전현직 직원분들의 기여와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리포트는 Helen Connor, Noé Nougboode, Emmanuel Pivard, Yvonne Rwabukumba, Najet Saafi, Djorogo Christian Tanon와 Yael Thomas의 값진 도움이 없었다면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네스코 번역 서비스팀은 인내와 헌신으로 이 원고를 편집하고 교열했습니다.

리포트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담당한 Corinne Hayworth와 인포그래픽을 제공한 Interior of Africa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최고의 작업으로 훌륭한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는 스웨덴 정부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이 글로벌 리포트 문화정책의 재구성 제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 목차

머리말	5
감사의 말	7
목차	8
그림, 글상자, 표, 메시지 목차	10
서론 · 전지구적인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다 에르네스토 오토네 R.	15
코로나 19: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있어서 힘겨운 시간 조르디 발타 포톨레스	31



## 목표

### 1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39

제1장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창의분야의 구축 막달레나 모레노 무지카	43
제2장	미디어에서의 다양한 의견 보장 루이스 A. 알보르네스	69
제3장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창의산업을 포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오조마 오차이	91
제4장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개방 마우리시오 델핀	117



## 목표

### 2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139

제5장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이동성 재해석 아누파마 세카르	143
제6장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적인 흐름: 여전히 일방적인 무역 리디아 들루모	163
제7장	다양성 보호: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타당한 공공의 정책목표를 여전히 추구할 수 있는 여지의 존재 베로니카 게브르몽	183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205

제8장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잠재력 ..... 209  
야리 카마라



**목표 4**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237

제9장 성평등: 한 걸음 전진, 두 걸음 후퇴 ..... 241  
안나 비야로야 볼라나스

제10장 창작의 자유 지키기 ..... 263  
사라 와이어트

**부록** ..... 287

집필자소개	288
방법론	293
협약	297
약어	307
참고문헌	311

# 그림, 글상자, 표, 메시지 목차

## 그림목차

그림 1.1	2010~2019년 '문화 서비스'와 '방송 및 출판 서비스'에 대한 평균 정부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47
그림 1.2	협약에 따른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문화 거버넌스	48
그림 1.3	부처 소관별 부처간 협력 정책 및 조치	49
그림 1.4	문화정책의 수립을 위한 분권화된 책임을 가진 지역별, 도별 지방자치정부, 행정부	52
그림 1.5	선진국/개발도상국별, 유형별 예술 및 문화·창의분야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59
그림 1.6	문화 영역별 예술 및 문화·창의분야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59
그림 1.7	전체 고용에서 문화 분야 고용의 평균 비중	61
그림 1.8	문화·창의분야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근 4년간 시행된 구체적인 조치 및 프로그램	62
그림 1.9	지난 4년간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거나 문화 정책을 평가한 통계부서 또는 연구기관	64
그림 2.1	민주주의 쇠퇴의 15년	72
그림 2.2	시청각 미디어 관련 자국 콘텐츠 규제를 가진 당사국	78
그림 2.3	시청각 미디어의 언어 쿼터	83
그림 2.4	독립 미디어 규제 기관의 존재	86
그림 3.1	기본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인구 비율	97
그림 3.2	2020~2021년 대륙별 깃허브(GitHub) 실제 사용자	98
그림 3.3	2020~2021년 깃허브 사용자 증가	98
그림 3.4	디지털 이슈에 관한 협약 이정표	101
그림 3.5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	106
그림 3.6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디지털 창의성과 역량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108
그림 4.1	분야별 예술가와 문화분야 종사자를 대표하는 전문단체 및 노동조합	120
그림 4.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시민단체의 커뮤니케이션, 지지 및 기금 마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공공 기관에서 조직하거나 지원하는 교육 및 멘토링 기회	121
그림 4.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지원하는 공적 자금 조달 계획	124
그림 4.4	광범위한 영역별 자금조달 유형	125
그림 4.5	열린 시민공간의 더 나은 결과 도출	125
그림 4.6	유형별 시민단체의 활동 보고	134
그림 5.1	예술가와 문화분야 종사자들의 국내외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	146
그림 5.2	13개 주요 미술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의 출신지	151
그림 5.3	13개 주요 미술 비엔날레 참여 작가의 선진국/개발도상국 비율	152
그림 5.4	개발도상국/선진국별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가능한 평균 국가 수	152

그림 5.5	지역별 여권 소지자가 입국 가능한 평균 국가 수	153
그림 5.6	2020년 트랜스아티스트 플랫폼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위치	158
그림 6.1	2005-2019년 개발도상국의 문화상품 수출(미화 10억달러)	167
그림 6.2	2014-2019년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총유입 (미화 백만달러)	168
그림 6.3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수출 점유율의 최근 정체	168
그림 6.4	2005-2019년 선진국 간 문화 상품 수입	170
그림 6.5	2005-2019년 개발도상국 간 문화 상품 수입	170
그림 6.6	2006-2019년 전체 무역량에서 문화서비스 수출, 총 무역량, 점유율	172
그림 6.7	문화분야별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최혜국 적용 관세-증가관세 평균	174
그림 6.8	2005-2018년 공적개발원조 및 라디오/텔레비전/인쇄 매체 무역원조	176
그림 6.9	개발 수준에 따라 이행되는 수출전략 및 조치의 개요	179
그림 8.1	협약에서 제시하는 문화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의 비율	212
그림 8.2	기대 성과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에의 문화의 포함 정도	214
그림 8.3	200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지출된 총 공적개발원조의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비율	226
그림 8.4	2018년 10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227
그림 8.5	최빈국에 대한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 2004-2018	227
그림 8.6	2018년 10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227
그림 8.7	2007-2020년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의 기여(미화 백만 달러)	228
그림 8.8	2007-2020년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 가장 기여가 큰 국가	228
그림 9.1	당사국들이 4년마다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의 비율별로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 및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의 진행상황	244
그림 9.2	지난 4년간 지역별 문화 생활에 있어 여성의 전면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또는 조치들	244
그림 9.3	협약 당사국의 국립 예술/문화위원회 기관장의 남녀 성비	246
그림 9.4	2019년 주요 영화제의 여성 수상자 및 여성 심사위원 비율	251
그림 9.5	2020년 미디어 보조금의 성별 균형	251
그림 9.6	2018년-2020년 20개 국제 아트 비엔날레에 있는 여성 예술가 및 큐레이터 비율	253
그림 9.7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과 여성의 문화생활 참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역별 정기적 데이터 수집 및 배포	256
그림 10.1	예술적 자유와 관련하여 보고된 조치의 유형	266
그림 10.2	2018년-2020년, 예술적 자유에 대한 공격	268
그림 10.3	예술적 자유에 대한 폭력과 제한 관련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단체	270
그림 10.4	지난 4년간 위협에 처하거나 망명 중인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이 개발하거나 지원한 이니셔티브들	273
그림 10.5	2017-2020년에 예술가의 지위를 고려한 경제적 조치를 채택하거나 개정한 국가	277
그림 11.1	글로벌 리포트 제3판을 위해 4년제 보고서(QPR)의 개요	293

## 글상자 목차

글상자 1.1	국가 정책 담론에 포함된 문화 - 전체 정부 차원의 접근	50
글상자 1.2	참여 정책 모니터링: 정책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	54
글상자 1.3	양질의 근무 조건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통합적 접근법	63
글상자 1.4	지식 생산 및 공유에 대한 지역적 관점	66
글상자 2.1	미디어 소유권 모니터	73
글상자 2.2	CBC/라디오 - 캐나다 - 다양성, 포용성 및 반인종주의	74
글상자 2.3	지역사회 라디오의 설치, 방송 및 운영 정책	76
글상자 2.4	우간다 - 방송 미디어에 있어서 지역 콘텐츠의 증가	79
글상자 2.5	우리의 세계를 공정하게 대표하는 미디어 콘텐츠 - '50:50 평등 프로젝트'	85
글상자 3.1	문화·창의산업의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 및 제조업체	95
글상자 3.2	아랍에미리트 문화 어젠다와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31	104
글상자 3.3	코로나19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Stay at Home)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창의적 분야에 대한 이집트의 지원	107
글상자 3.4	일렉트릭 사우스(Electric South)	108
글상자 3.5	유럽연합 창작자의 공정 보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보기	111
글상자 3.6	프랑스어권 문화 콘텐츠의 온라인 발견용이성에 대한 프랑스-캐나다 퀘벡 공동보고서	113
글상자 4.1	예술가 지지 - 창의성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121
글상자 4.2	니제르의 시민참여 지원	124
글상자 4.3	열린 정부 관행의 지도작성 및 문화적 어젠다와 연결	127
글상자 4.4	리질리아트 - 예술가를 위한, 예술가에 의한 국제적 움직임	130
글상자 4.5	정기 보고를 통한 참여 정책 모니터링 활성화	132
글상자 5.1	알제리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쟁점 비자 신청 프로세스 촉진	147
글상자 5.2	공적 자금 지원 이동성 프로그램 평가	148
글상자 5.3	Wijhat - 아랍 지역의 이동성과 예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 자원(AI-Mawred AI-Thaqafy) 프로그램	157
글상자 5.4	지역 이동 자금 지원 지형도	159
글상자 6.1	카리브해 국제 창의 교류(FCEC)	166
글상자 6.2	인도네시아 파트너십 프로그램 - 출판	173
글상자 6.3	베를린 국제영화제 세계 영화 기금 - 국제 공동 제작 및 시장 접근 지원	177
글상자 6.4	와가두구 필름랩	180
글상자 7.1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서 디지털 문화상품의 이중성 고려	192
글상자 7.2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 및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196
글상자 7.3	문화 협력의 일환으로 우대조치	202
글상자 8.1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보루로서의 문화	214
글상자 8.2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 개발 무기	215
글상자 8.3	문화·창의분야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218
글상자 8.4	토착민의 목소리에 플랫폼을 제공하기	223
글상자 8.5	유럽 연합 - 개발 및 협력에 있어 문화를 주류화하기	226

글상자 8.6	코로나19가 국제적 문화 협력에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는가. ....	229
글상자 9.1	소마 북카페 독서 이니셔티브. ....	245
글상자 9.2	호주예술위원회, 여성 예술가들에게 투자 ....	247
글상자 9.3	핀란드 교육문화부의 성평등 정책. ....	250
글상자 9.4	우선순위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평가 - 칠레 ....	257
글상자 9.5	몬테네그로의 문화계 LGBT 전략. ....	258
글상자 10.1	예술적 자유와 관련된 UN 제도 ....	267
글상자 10.2	스웨덴의 예술가에 대한 혐오 표현 및 위협 대처. ....	268
글상자 10.3	지역별 인권 규범에서의 예술적 자유. ....	272
글상자 10.4	독일 -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지원하는 여러 이니셔티브. ....	274
글상자 10.5	대한민국의 예술인 복지법. ....	278

## 표 목차

표 2.1	방송편성의 콘텐츠 다양성을 촉진하는 정책 및 조치. ....	78
표 2.2	시청각 서비스를 위한 자국 콘텐츠 쿼터. ....	80
표 2.3	미디어 규제 당국이 실시하는 모니터링 영역. ....	87
표 2.4	미디어 규제 기관의 책임. ....	87
표 3.1	분 동안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데이터의 량, 2016년과 2021년. ....	94
표 3.2	매달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16~64세 인터넷 사용자(2020년 3분기) ....	95
표 3.3	음악 분야 상위 20개 디지털 유통사(혼합 시청각 서비스 포함), 2020년. ....	99
표 3.4	세 가지 분석 프레임워크의 상호 관련성: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에 관한 개방형 로드맵,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	103
표 6.1	2004~2019년 분야별, 발전수준별 문화 상품의 흐름. ....	169
표 7.1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	187
표 7.2	2017년~2020년 서명된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 조항 개요. ....	189
표 7.3	2017년~2020년 서명된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의 2005년 협약 및 문화 관련 조항에 대한 참조 개요. ....	191
표 7.4	2017년~2020년 채택된 제도 중 2005년 협약과 그 목적 또는 원칙을 설명하는 사례. ....	197
표 8.1	협약 이행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발전시키는 고무적인 방법들. ....	230
표 10.1	전 세계 예술가의 지위법. ....	277

## 메시지 목차

<b>크리스토퍼 베일리(Christopher Bailey)</b> 세계보건기구 예술 및 보건팀장.....	51
<b>압둘라 샤히드(Abdulla Shahid)</b> 제76회 유엔 총회 의장.....	55
<b>누라 알 카아비(Noura Al Kaabi)</b>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 장관.....	60
<b>이르마 라티아니(Irma Ratiani)</b> 크리에이티브 조지아 국장.....	65
<b>노엘 큐런(Noel Curran)</b> 유럽방송연합 사무총장.....	75
<b>벨라 바야리아(Bela Bajaria)</b> 넷플릭스 글로벌TV 부사장.....	81
<b>황희(Hwang Hee)</b>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05
<b>이본 차카 차카(Yvonne Chaka Chaka)</b>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부회장.....	110
<b>무나 알-바더(Muna Al-Bader)</b> 시각예술가/큐레이터.....	123
<b>니나 오불렌 코르지네크(Nina Obuljen Koržinek)</b> 크로아티아 문화부 장관.....	129
<b>자페스 카와구치(Japheth Kawanguzi)</b> 우간다 Creations Limited 팀장.....	133
<b>포은 프림(Phloeun Prim)</b> 캄보디아 리빙 아츠 전무이사.....	155
<b>아브라함 비센테(Abraão Vicente)</b> 카보베르데 공화국 문화·창의산업부 장관.....	175
<b>레페카 그린스팬(Rebeca Grynszpan)</b>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193
<b>타마라 코테브스카, 류보미르 스테파노프(Tamara Kotevska and Ljubomir Stefanov)</b> 수상작 다큐멘터리 영화 〈허니랜드〉의 감독.....	213
<b>주타 우르필라이넨(Jutta Urpilainen)</b>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 파트너십 위원.....	216
<b>알렉산드라 잔타키(Alexandra Xanthaki)</b>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220
<b>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박사(Dr Claudia Sheinbaum Pardo)</b> 멕시코시티 시장.....	225
<b>얄릿자 아마리시오 마르티네즈(Yalitz Aparicio Martínez)</b> 배우, 유네스코 원주민 친선대사.....	249
<b>지넷 구스타프스도터(Jeanette Gustafsdotter)</b> 스웨덴 문화부 장관.....	255
<b>환 페르난도 벨라스코(Juan Fernando Velasco)</b> 싱어송라이터이자 전 에콰도르 문화부 장관.....	271
<b>아이린 칸(Irene Khan)</b> 의견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279
<b>로저 아사프(Roger Assaf)</b> 배우 겸 연극 연출가.....	281
<b>가이 라이더(Guy Ryder)</b> 유엔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282



서론

전지구적인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다

에르네스토 오토네 R.



## 지속적인 성찰의 가치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는 현재 150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 처음 출판되었다. 이 출판물은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유엔의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협약의 전문에는 국가 및 국제 개발 정책과 국제 개발 협력의 전략적 요소로서, 문화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협약의 목적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문화와 개발 간의 연관성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연관성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자국 및 국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리포트 제3판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세계에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온지 2년여 만인 2022년 2월에 출판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판은 협약의 비준이 국가 및 국제문화 정책에 영향을 주어, 문화적 표현이 더욱 다양해지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제3판은 협약 당사국들이 더욱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발전과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의 맥락에서,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촉구한 '행동을 위한 10년'에 대한 응답으로, 문화·창의 생태계에 대한 해법과 도전과제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문화·창의 분야가 여러 국제 문제들과 연결되어 진행되는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악화일로에 있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은 빈곤, 성차별, 기후 변화, 자국 및 국가 간의 불평등이 있다.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단위를 다룬 이 보고서는 또한 문화정책, 예산, 제도 및 거버넌

스 메커니즘의 동향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개인 차원에서 협약의 지침과 원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 미디어, 노동 조합 및 민간 부문이 가지는 역할을 분석한다. 이 원칙에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모든 문화에 대해 평등한 존엄성과 존중, 개발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보완성이 포함된다.

##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진화하는 체계

2015년 유네스코는 협약의 기본 원칙으로 도출한 4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그 목적은 정책 실행을 위한 핵심 영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및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해당하는 4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펼치고, 이러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문화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을 마련한다(협약의 기본 원칙 2번 관련).
- 전 세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 **균형잡힌**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기본 원칙 7번, 8번 관련).
-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표현에 필요한 수단을 만들고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의지를 갖는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문화적 측면이 상호보완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속가**

**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화를 통합시킨다(기본 원칙 4번, 5번, 6번)

-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모든 문화에 대한 평등한 존엄성과 존중을 인정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기본 원칙 1번, 3번).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4가지 목표는 조치가 필요한 정책 영역을 나열하는 11개의 모니터링 영역으로 분류된다. 각 모니터링 영역에는 관련 검증 수단과 함께 두 개의 지표가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약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정책 결정을 알리고, 데이터 및 정보 수집을 안내하는 동시에 협약 및 협약의 이행 범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역동적인 도구로 설계되었다. 이전 판에서 언급했듯이, 프레임워크는 현장의 현실과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의 등장에 맞게 진화하고 조정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 리포트 제2판, 『발전을 위한 창의성 증진: 문화정책의(재)구성』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파악된 지표 및 검증 수단의 실행 가능성을 테스트했다. 제2판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어떻게 그리고 왜 적합한지, 협약이 2030 어젠다를 위한 운영 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시도했다.

제3 판 이전에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일련의 조정과정을 거쳐 3개 모니터링 영역의 제목이 변경되었다.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더 이상 '문화정책', '공공 서비스 미디어', '국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창의분야', '미디어 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고 지칭한다.

미디어 다양성의 경우 관련 행위자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조치를 잘 기록하기

위해 모니터링 영역의 범위를 공공 미디어 서비스에서 모든 미디어 서비스로 확대했다. 문화·창의분야의 경우 문제는 모니터링 영역의 범위를 더 잘 정의하는 것이었다. 유산 정책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화정책은 이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는다. 또한 정책 또는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와 함께 해당 분야의 구조, 기능 및 거버넌스가 평가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도입한 광범위한 정책 및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시리즈 제목을 변경했다.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11개 영역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 표현을 육성 및 쇄신하고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문화정책'으로 포괄되는 정책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 시리즈의 새로운 제목 '문화정책의 (재)구성'은 그러므로 그러한 정책의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한 영향을 언급한다.

### 국가 차원의 정기 보고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당사국들이 4년제 정기보고서(QPR)'를 제출했다. 이전 판과 비교했을 때 『문화정책의 (재)구성: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다』의 방법론적, 개념적 변화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정기보고서가 대부분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7차 회의에서 당사국 총회는 정보 공유 및 투명성에 관한 제 9조에 대한 운영 지침을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지표와 검증 수단의 핵

1. 협약 당사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4년마다 이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심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엄격하게 일치하는 정기보고서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다. 첨부된 방법론적 주석에서 설명했듯이 이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량적 분석의 대부분은 당사국들의 응답 내용을 기초로 한다. 국가 정기보고서로 이어진 참여형 정책 모니터링 과정의 대부분은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라 진행되었다.

4년제 정기보고서(QPR)의 프레임워크를 조정하여 협약의 적용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채택한 정책 및 조치를 보다 총체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4년제 정기보고서에는 시민사회가 시행하는 조치에 대한 새로운 장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참여적인 정보 수집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이 새로운 도구는 2020년부터 당사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2019년 이후 제출된 보고서의 77%에는 시민단체가 수행한 조치 또는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었다. 이는 특히 11조를 통해 협약에서 시민사회에 부여된 중요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많은 이해관계자의 기여에 달려 있다는 이해와 부합한다.

### 코로나19가 출판 일정에 미친 영향

제3판은 원래 2021년 6월에 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사국의 4년제 정기보고서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에 대한 분석적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보고서는 전 세계의 반향을 일으킨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각 국가의 정기보고서 준비 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2020년 정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11월 1일로 연장되었다. 이를 통해 78개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또한 편집팀은 2022년 2월 최종 출판을 1년 앞둔 시점까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 지속적인 데이터 격차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본 4년제 정기보고서는 2020년 11월 1일 기준 당시 149개 협약 당사국 중 63% 국가에서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는 이전 보고서에 비해 55%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그 이전 보고서는 4년이 아닌 2년 동안의 경과만을 분석했다. 이렇게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외에도 이 보고서 중 19개는 이전 판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국에서 나온 것들이 있다. 출처의 다양화가 지역 간 비준률의 불균형을 상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다. 또한 보완 연구(특히 비정부 출처)가 본 판의 분석을 풍부하게 하는 반면, 당사국이 공유하는 정보의 중요성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번 판의 정량적 데이터 수집은 개선되었지만 정량적 및 통계적 데이터는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정기적인 보고 형식의 핵심 질문 접근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극복되었으며, 이에 따른 응답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특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정확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 데이터에 관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얻기가 여전히 어렵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문화·창의분야의 비중, 문화·창의분야의 고용 비중(분야별, 성별 또는 계약상 구성별로 세분화) 또는 여성 예술가와 문화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총 공적 자금의 비율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는 문화·창의분야의 건전성, 기존 정책 및 조치의 영향,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의 연계를 평가하고 미래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문화·창의분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지표는 문화·창의 분야와 2030 어젠다에 대한 기여도를 질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및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 고용, 성평등 또는 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모두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포함됨)과 같은 영역에서 모든 국가가 해당 분야의 경과와 단점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국제적인 지표가 부족하다.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는 문화·창의 분야에 대한 국제 지표를 개발하고, 회원국의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방법론을 생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30 어젠다 및 그 이후의 개발 목표에 대한 분야의 기여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글로벌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 협약의 목적을 향한 경과에 대한 간략한 개요

이 보고서의 각 장에서는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각 영역에서 현재 정책 및 규제 환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며, 협약의 목표를 향한 경과를 분석한다. 또한 주요 도전과제를 강조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안한다. 서론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경과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4가지 목표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이 매워야 할 격차(공백)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다.



© Reena Kallat, *Woven Chronicle*, 2015, electrical wires, speakers, circuits boards, 10 min single channel audio\*



목표 1 ·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4 **질 높은 교육**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모니터링 영역	지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검증 수단
문화·창의 분야	1.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8.3 8.3 4.4	1.1 통합된 전략과 프레임워크 1.2 부문별 법과 정책 1.3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가정신 조치 1.4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2. 정책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다수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함	16.6 16.7 16.7	2.1 문화 관련 역량과 예산이 있는 부처 2.2 부처간 협력 2.3 분권형 책임 2.4 정보 시스템과 통계
미디어 다양성	3. 미디어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	16.10	3.1 미디어 자유 3.2 미디어 책임 3.3 미디어 모니터링 3.4 미디어 소유권
	4.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4.1 문화적 의무가 있는 공공 서비스 미디어 4.2 편성에서 콘텐츠 다양성 4.3 미디어 자국 콘텐츠 인센티브 4.4 데이터와 정보의 트렌드
디지털 환경	5. 디지털 창의성, 기업 및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4.4	5.1 디지털 산업의 다양한 행위자 5.2 산업과 기관의 디지털 전환 5.3 디지털 창의성과 역량
	6.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6.1 자국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6.2 디지털 리터러시 6.3 데이터와 정보의 트렌드
시민사회와의 협력	7. 시민사회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	17.17	7.1 시민단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7.2 시민단체의 구조화 7.3 시민사회의 시민단체를 위한 훈련과 멘토링 7.4 시민단체 자금조성
	8. 국가 및 세계적 차원의 협약의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여	17.17 16.7	8.1 공공기관과의 정책 대화 메커니즘 8.2 정책 설계과정에 참여 8.3 시민단체 인센티브 8.4 협약의 의사결정기구의 업무에 참여



## 목표 1

###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문화를 위한 거버넌스는 문화·창의분야를 형성하는 규범적 프레임워크, 공공 정책, 기반 시설, 제도적 역량 및 프로세스를 아우른다. 협약에서 거버넌스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능하도록 모든 행위자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매개변수는 4개의 모니터링 영역을 통해 보고서에 의해 측정된다.

- **문화·창의섹터:** 해당섹터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또는 팔길이 기구의 참여 수준뿐만 아니라 해당 섹터를 구성하는 전략적, 법적, 정치적 프레임워크(고용 및 훈련 측면 포함)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 전반
- **미디어 다양성:** 협약의 서문은 미디어의 다양성을 사회 내에서 문화적 표현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인식한다. 이 영역은 미디어의 자유, 책임 및 모니터링 수준과 미디어 소유권 다원성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미디어의 다양성을 측정하고, 편성에서 콘텐츠 다양성과 관련 인센티브를 평가하여 미디어의 다양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 **디지털 환경:** 2000년대 초반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여 협약은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이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도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불균형을 높이는 위험을 인식한다. 이 모니터링 영역에서 다양성은 관련된 행위자의 다양성(그리고 그들이 디지털 창의성 및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받는

지원)과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통해 측정된다.

- **시민사회와의 협력:** 당사국들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식한다. 따라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파트너십의 질, 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모니터링 영역은 훈련, 자금 지원 및 환경 조성 측면에서 시민사회에 제공되는 지원과 국가 및 글로벌 차원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참여에 중점을 둔다.

이 글로벌 리포트 제3판에 제시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경과들을 보여준다:

- 지난 몇 년 동안 협약은 문화·창의분야의 정책 변화를 도모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며,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더욱이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부처 간 협업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대세가 되면서 보다 통합된 정책이 가능해졌다.
- 공공 당국은 정책결정 과정을 보다 정기적으로 시민단체에 알리고 협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새롭고 때로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열어준다.
-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국 콘텐츠 쿼터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일반적인 조치이다. 개별화된 서비스가 대두되자 기존의 규정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문화 가치 사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2020년의 광범위한 봉쇄로 디지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세

계 모든 지역의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부는 문화 분야를 위해, 회복력 있고, 정보에 입각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와 시스템 마련을 위해 많은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은 더욱 악화되면서 문화·창의분야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가리키고 있다.
- 자금조달은 시민단체(CSOs)가 문화정책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하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다. 공동으로 공공 기관과 정책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다소 제한적이며 대화 및 협의의 메커니즘을 넘어서 확장되어야 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불충분한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소유권의 지속적인 집중, 지역 콘텐츠 부족으로 기존 쿼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허위 정보가 늘어나면서 정보의 자유와 미디어의 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 일부 국가만이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사용 및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발견용이성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연결성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은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확대하고 디지털 창의경제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자들의 다양성을 제한한다.



목표 2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 있어 공평한 접근과 개방 및 균형을 독려한다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0 불평등 감소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모니터링 영역	지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검증 수단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9.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10.7 10.7	9.1 국외 이동성 9.2 자국 이동성 9.3 이동성 정보 시스템
	10. 운영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요하게 고려함		10.1 이동성 기금 10.2 문화 행사 및 교류 시설 10.3 개발도상국 간 이동 프로그램 10.3 시민단체 이동성 이니셔티브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11.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국제적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10.a 8.a	11.1 전문가 전략 및 조치 11.2 우대조치 이행 11.3 무역 원조
	12. 정보 시스템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흐름을 평가함	17.11 17.11 10.b	12.1 문화 상품의 가치, 근원, 방향 12.2 문화 서비스의 가치, 근원 방향 12.3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조약 및 협정	13. 협약에 근거한 통상 및 투자 협정 또는 그 목적의 이행	10.a	13.1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별한 현황 13.2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상품과 관련한 문화 조항 13.3 우대조치 조항
	14. 기타 협정, 선언, 권고 및 결의안 등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에 의거하며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도록 함		14.1 협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협정 14.2 협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선언, 권고, 결의안





## 목표 2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 있어 공평한 접근과 개방 및 균형을 독려한다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협약의 목표는 문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흐름과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가간 이동성에도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기존 불균형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그 반작용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에게 조치를 적용하고, 상호보완하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우대 조치에 관한 협약 제16조의 이행으로 설명된다. 제16조의 영향은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문화분야 종사자, 문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선진국의 제도적 법적 프레임워크와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우대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모니터링 영역에서 경과와 도전과제를 측정하고자 하며, 특히 우대조치의 이행에 주목한다: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특히 개발도상국출신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국내외 이동성을 지원하는(정부 및 비정부) 정책, 조치 및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전 세계로 유통하는데 공평한 접근, 개방성 및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예: 수출 전략)와 지원(기술 및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측정한다.

- **조약 및 협정:** 무역 및 투자 측면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문제 또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영역을 고려해, 다른 국제포럼에서도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홍보하고(제21조), 이 협약과 다른 조약 사이의 상호지원을 증진하는 데 있어 각 당사국의 추진경과를 평가한다(제20조).

이 글로벌 리포트 제 3판에 제시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경과들을 보여준다.

- 점점 더 많은 국가(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문화정책 전략 및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예술을 국제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예술가의 국외 이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충분한 공공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훈련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 격차를 메우는 등 이동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문화 서비스는 여전히 총 무역 서비스의 2% 미만을 차지하지만 200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문화 서비스의 글로벌 수출액은 두 배 증가한 미화 1,174억 달러이다.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는 2019년 479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가치가 70% 증가한 가장 큰 문화 서비스 부문으로 남아 있다.
- 2017년~2020년에 체결된 무역 협정의 3분의 2에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채택된 최소 40개의 다자간 및 지역간 기구(대부분 구속력 없음)는 협약 또는 그 목적과 원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후자의 대부분의 내용에 문화와 디지털 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데 여기에는 새로 채택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증가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남아있는 중요한 도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우대조치 조항은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동성 지원 계획에서 우대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긍정적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유발하는 몇 가지 조치 제외),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협약 당사국인 선진국이 체결한 양자 및 지역 무역 협정에는 우대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문화 상품의 글로벌 흐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는 지난 3년 동안 정체되었다. 세계 무역은 개발도상국의 문화 서비스에 개방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의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 대한 무역 원조가 부족하며, 그 결과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에 지속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창의분야의 전반적인 역량을 제한한다.



목표 3 ·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모니터링 영역	지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검증 수단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	15.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함	8.3 17.14	15.1 국가개발계획에서 문화·창의분야 15.2 계획 및 이행 시 공공 문화 단체 15.3 국가개발계획과 전략의 평가
	16. 정책 수립과 실행은 문화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지원함		16.1 문화 기반 재생 계획 16.2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참여와 접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17.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들을 포함함	17.2	17.1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에서 문화·창의분야 17.2 문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17.3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의 평가
	18. 해외 개발 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창의분야를 강화함	17.9 17.9 17.9	18.1 문화정책 설계와 이행 지원 18.2 문화 영세/중소기업 발전 지원 18.3 예술가와 창작에 대한 지원



### 목표 3

##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화를 통합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또한 협약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해 강조된 바와 같이 문화적 차원의 인식과 통합을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화를 통합하는 것은 국내의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및 국제 협력 전략에 대해 참여방식을 구체화하고, 구현 및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특별한 조정 메커니즘의 문화 단체에도 적용되며 문화·창의분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전용 예산을 할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충분히 연구된 영역이 아니긴 하나, 기후 행동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화 및 창의성의 기여는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의 단편적인 점들을 연결하여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차후 시급한 우선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핵심 구성 요소에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역량과 기술 강화, 선진국-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North-South-South) 및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과 지식 이전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2 가지 모니터링 영역에서 경과와 도전과제를 측정하고자 한다:

-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문화·창의산업이 정책 및 계획에서 전략적 행동 영역으로 인식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문화 자원의 분배에서 영토 및 사회적 형평성을 모니터링하여 문화 생활에 대해(특히 취약집단을 위한) 포용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 개발 협력 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이 전략적 행동 방침 영역으로서 어떻게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문화·창의산업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창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역량을 강화하는지 평가한다.

이 글로벌 리포트 제3판에 제시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경과들을 보여준다

- 국가개발계획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은 특히 문화, 사회, 경제 개발 결과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문화의 기여를 널리 인정한다.
- 도시에서 문화와 창의성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가치와 사회적 결속을 높이며, 문화 생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 문화 및 창의성 개발 협력에 대한 다자간 기구와 새로운 공여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선진국-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및 개발도상국 간 협력과 같은 이웃 간 교류 및 지식 이전을 촉진하는 협력모델이 보편화되어 지역 차원에서 상호 학습 및 소유권을 증진한다.

그러나 향후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문화적 어젠다를 증진하려면 상당한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에서 개발 성과에 대한 문화·창의산업의 구체적인 기여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부문 간 조정 메커니즘은 문화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의 종합적 실행을 방해한다.
- 기후 행동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절실히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문화와 창의성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들은 인식, 전문성,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후 전략과 환경 정책에서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

- 2018년 문화 및 여가 부문에 투입된 공적개발원조의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불황으로 향후 몇 년 간 감소가 예상된다.
- 협력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개발도상국의 문화 영세 및 중소기업이 지역의 문화 생산을 늘리는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 더욱이 체계적인 평가가 부족하고 기존 평가 보고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화개발 행위자의 지식을 활용하고 증거 기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목표 4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5 양성평등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모니터링 영역	지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검증 수단
성평등	19.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을 증진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5.c 5.5	19.1 성평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19.2 문화 생활에서 여성 참여 지원 19.3 여성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지원
	20. 모니터링 시스템은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참여 및 접근 수준을 평가함	5.5	20.1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수준 20.2 여성의 문화 생활 참여 수준
ARTISTIC FREEDOM	21. 창작, 표현 및 문화생활 참여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16.10	21.1 예술적 자유의 법적 인식 21.2 예술적 자유 위반 사례 모니터링 21.3 위협에 처해있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보호
	22.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22.1 공적 자금 지원 제도의 투명성 22.2 사회적 보호 22.3 경제적 권리



## 목표 4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은 표현, 정보 및 의사 소통의 자유와 개인이 문화적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협약의 제1 기본원칙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고 불가결한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특히 성평등과 예술적 자유에 중점을 두고 문화·창의분야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의 경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모니터링 영역에서 경과와 도전과제를 측정하고자 한다:

- **성평등:** 목적은 적극적인 기여자(창작자, 제작자 및 의사 결정자) 및 관객으로서 여성의 문화 생활 참여 수준, 이 분야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 문화 및 미디어 부문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성평등 통합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 **예술적 자유:** 목적은 법적보호체계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보호, 예술가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보호의 측면(특히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1980년 권고안에서 언급했듯이 창작 작업의 성격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특별 계획을 통해)에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글로벌 리포트 제3판에 제시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경과들을 보여준다:

- 당사국들이 높은 비율로 문화·창의산업 분야에서의 성평등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하듯이 성평등은 문화·창의산업의 우선 과제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4년제 보고서는 또한 시민단체가 성평등을 위한 혁신적 조치를 추진하고, 여성 예술가와 창의 분야 종사자의 역할을 구축하며,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 당사국들은 특히 예술가의 사회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일반 고용자에 적용되는 것과 일치하도록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고용 보호를 제공하려고 시도해왔다(당사국의 절반이 예술가의 지위 향상 조치를 보고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정한 근무 환경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특성의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 문화 및 인권 지지자들과 시민단체는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제공을 포함하여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지지하는 일에 더욱 밀접하게 관여한다.

그렇지만 문화·창의분야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

- 문화 및 미디어 부문의 여성에 관한 데이터가 심각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은 리더십 직책에서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공적 자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업무에 있어서 남성보다 덜 인정받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불균등한 영향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 전반적으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예술가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아직 마련하거나 개정하지 않았다. 소수의 국가만이 소득 보호 또는 경력 전환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했지만, 2020년에도 여전히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보호법과 관행 사이의 단절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보호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보호법을 위한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과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고작 절반이 넘는 당사국들만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거나 위반 및 제한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 전망: 전지구적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글로벌 리포트의 최신판 발간 이후로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의 핵심으로서 문화정책 개혁은 점점 더 범위를 넓히고 있다. 199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개발을 위한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 회의 이후 21년이 지난 2019년 11월 유네스코는 제40차 총회를 앞두고 문화부 장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용을 위한 문화 및 창의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그 자리에서 멕시코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이후 40년이 지난 2022년에 문화정책 관련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제212차 회의에서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의 소집을 위임했다.

이러한 기세는 2021년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창의경제의 해'로 선언하는 유엔 총회, 유네스코 문화 2030 지표 및 2021년 7월 G20 로마 지도자 선언 등 여러 글로벌 정치 과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로마 선언은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맥락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한 정책 분야 중 하나로 문화를 확고히 확립했다. 특히 선언문은 경제와 사회의 회복력과 재생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동력이자 핵심 행위자로서의 문화·창의분야 전문가 및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용, 사회 보호, 디지털화 및 비즈니스 지원 조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엔 차원에서 2021년 5월 유네스코는 유엔 시스템 전반에 걸쳐 문화가 지속가

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바를 활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전반의 행동의 일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 기관 플랫폼(Inter-Agency Platform on Cultur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출범시켰다. 이는 고용 및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교육 및 성평등과 같은 전통적인 개발 분야에 대한 문화와 창의성의 기여를 최적화하기 위한 협력적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개발 공동체 내 인식을 제고하라는 글로벌 리포트 이전판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로의 여정을 통해 플랫폼은 불평등 감소(지속가능발전목표 10), 기후 변화 대응(지속가능발전목표 13),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지속가능발전목표 16) 등 문화의 기여가 확대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영향 평가 및 국가 복구 계획의 맥락에서 UN 국가 팀(UN Country Team)의 공동 행동을 안내하고 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내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문화·창의분야의 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참여적 문화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시민사회와의 대화 강화, 접근성 향상과 관련하여 전 세계 국가의 많은 정책,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동일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화에 전념하는 공적개발원조 또는 무역 원조의 비율이 낮다는 것과 예술가 및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 또는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타난다. 제8장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잠재력'에서 127개국의 국가개발계획과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에 문화를 포함해서 예상되는 결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적게 추구되고 있는 것이 환경적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산발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관행과 노하우에서 적절한 대응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창의성을 적용하고, 특히 디지털 전환에서 문화·창의산업의 환경적 책임을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 8장과 이번 판은 일반적으로 개발 도전과제에 비추어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정책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국가, 정부간 기구와 UN 시스템의 조직, 관련 비정부기구 및 기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문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UN 결의안 A/C.2/76/L.42(2021)의 이행을 위한 견고한 출발점을 나타낸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 모든 수준의 경제, 사회 및 환경 개발 정책 및 전략에서 보다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의 통합 및 주류화를 보장하고,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의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을 위한 추가 자원을 동원한다(제8장).
- 모든 성별이 평등한 접근과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의사결정 직책을 맡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제9장)
- 특히 창의성, 혁신 및 기업이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적절한 경우 역량 구축을 증진한다. 문화 기관과 문화·창의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기술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지속되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한 문화·창의분야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킨다(제1장).
- 문화 생산 및 소비 범위 확대와 협약의 조항들을 고려하여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지 시장의 출현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그러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시장에 대한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접근성을 촉진한다(제6장).

■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에 대한 다양성과 접근성을 증진한다(제3장).

이 판에서 제시한 분석과 트렌드 및 격차는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에서 정점에 이르게 될 정책 대화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창의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문화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전과제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세계 전 지역의 사례와 관련 성찰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양질의 일자리 기회, 성평등,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회복탄력성이 있고 번성하며 포용적인 문화·창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수렴하는 결과 및 도전과제들을 강조한다.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목표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기술한 조치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증진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된 조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창작자와 참여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문화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 평등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UN 사무총장의 보고서인 <우리의 공통 어젠다>에서 제시한 12가지 약속의 일부로서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들은 특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계약', '기본적인 의료 및 소득 보장을 포함한 보편적인 사회 보장의 새로운 시대', '디지털 포용성'을 통해 누구도 뒤처지게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UN, 2021*b*).

이 협약은 서문에서 문화다양성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기념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인류의 공동 유산이자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구성하는 인류 고유의 특성임을 확인한다. 협약 당사국이 4년마다 유네스코에 자국 및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역, 국가, 권역 및 국제 수준에서 다양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및 조치의 수와 다양성은 또한 다양성이 한 국가의 단독 조치만으로는 적절하게 보장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이 다양성에 접근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러 수준에서의 노력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4년제 정기보고서에 포함된 조치들에 기초해 볼 때 당사국들이 국제적 수준보다 국가적 수준에서 협약의 목표를 증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문화 교류(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 또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측면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원되는 노력은 더 적다. 이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가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핵심이라는 데 대한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인식과 그에 따른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국제 질서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 이를테면 불평등, 갈등,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 끊임없는 전지구적 도전과제로 인해 각국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UN 사무총장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와 무엇이 '이를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인가'에 대해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간주될 수 있는 국제적 관심 영역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건강, 정보, 경제, 과학, 디지털, 평화 등 단독으로 어느 한 국가에 제공될 수 없고 [...] 인류 전체를 위해 '사회 전체에 제공되고 혜택을 주는 상품 및 서비스'를 뜻한다(UN, 2021*b*). 글로벌 공공재는 비경쟁적으로 소비되어야 하고, 어느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러한 혜택은 지리적 범위, 사람(모두에게 이익) 및 세대(현재와 미래) 측면에서 거의 보편적이다.

이 보고서는 창의성이 전 세계 사회와 개인이 참여하는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오늘날의 창의성이 내일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주장한다. 문화는 제도나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상상력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자 기본적 자유이다. 따라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류로서 우리의 복지와 생존이 달려 있는' 공통의 목표인 것이다(UN, 2021*b*).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이 정책 대화를 통해 문화를 전지구적 공공재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리포트는 그러한 성찰에 기여하고자 한다. 창의성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자와 지식의 다양성은 이러한 대화에 다양한 규모와 자원 역량을 가진 행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의 불균형과 불평등(부분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인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창출 및 공급에 있어 정당성, 포용성 및 평등을 보장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위기 상황에서 문화가 회복탄력성, 연결 및 복구를 위한 주요 자원이라는 것을 사회에 가르쳐준다(창작자, 제작자 및 관객을 위한 참여 형태가 유동적일 때도 말이다). 또한 '신뢰

할 수 있는 정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가의 중요성'을 밝혔다(UN, 2021b). 문화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현상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하는 전지구적 공공재이다. 이는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과 그 전에 유네스코의 기준 설정제도를 채택했던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열망이었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 내, 사회 간, 세대 간 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지구적 합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 Alina Grubnyak / Unsplash.com



# 코로나 19: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있어서 힘겨운 시간

조르디 발타 포틀레스\*

\* 연구자 및 컨설턴트, 트랜짓 프로젝트



## 서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세계화가 문화다양성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2005년에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협약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개인과 사회를 위한 문화창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는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가 커져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사회를 진정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창의분야의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현 문화미디어부 장관 니나 오불리엔이 말한 바와 같이, 협약의 채택은 '시작에 불과하고 끝이 아니며, 그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각 조항이 현실 세계의 상황과 도전에 대응하여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Obuljen, 2006)

이전에도 많은 나라들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다양성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전대미문이다. 이는 코로나의 전지구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기존의 경향을 가속화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 팬데믹이 극단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도전을 해결하고 이 협약이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 새로워진 의미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게 하려면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우려가 이 글로벌 리포트의 배경이 되었다. 이 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몇 년을 위해 중요하다.

## 문화·창의분야에 미치는 영향: 1차 조사

2019년 후반부터, 특히 2020년 초반 몇 달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시설들이 폐쇄되고 행사가 취소되었다. 문화 관련 작업의 대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었다. 나라간 이동은 멈췄고 관객의 구매력은 떨어졌다. 본 글로벌 리포트와 기타 보고서에 기술된대로(ILO, 2020a: IDEA Consult et al., 2021) 이는 경제적 수입의 감소와 문화·창의분야 고용의 손실로 이어졌다. 1차 추산에 따르면 문화·창의분야에서 2020년 미화 7천5백억 달러의 총 부가가치가 줄어들었고, 최소 천만 개의 직업이 사라졌다.

데이터를 제출한 나라에서 문화·창의산업의 수입은 2020년 20~40퍼센트 가량 감소했고, 문화·창의산업은 국가 경제의 감소를 이상으로 실적이 떨어졌다. 따라서 이전의 어떤 위기보다 더 심각한 타격이 지속되었다(BOP Consulting, 2021).

1차 추산에 따르면  
문화·창의분야에서  
2020년 미화 7천5백억 달러의  
총 부가가치가 줄어들었고,  
최소 천만 개의  
직업이 사라졌다

공적 자금 조달의 감소와 문화 노동자의 불안정성 증가는 고용과 소득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착화된 성별 및 지역적 불평등의 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Banks and O'Connor, 2020).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화가 창작, 생산, 분배 및 문화적 표현에의 접근성에 있어 중심이 되면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

었다.

그 결과 온라인 다국적 기업은 입지를 공고히 했고 인터넷 접근성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UNESCO, 2020f). 그와 동시에 많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틈새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상 기회를 포착하여 디지털 영역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이는 이전에 비교적 시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국내외 관객과의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냈다(BOP Consulting, 2021). 팬데믹 기간 동안 수행된 디지털 실험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관련 기관이 상황마다 기술인 필사적 노력을 넘어서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문화·창의분야가 회복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공적 자금 조달의 감소와  
문화 노동자의 불안정성 증가는  
고용과 소득의 붕괴로 이어졌다

여러 면에서 디지털화의 여정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작업이지만 때로 관객과 예술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디지털 결과물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라이브 및 공연 소득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창작자를 위한 전 세계 로열티 징수의 감소는 일부 시장에서 디지털로의 상당한 이동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지만, 디지털 수익은 세계 전체 징수의 4분의 1을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그 소득원이 전반적인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다(CISAC, 2021).

게다가 이 분야의 디지털화 가속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대두되었다. 이는 저작권 문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검열, 불공정한 경쟁, 창작자에게 부당한 보수를 제공하는 수익창출 모델, 불평등한 접근성, 디지털 환경 발자국 등이다.

라이브와 디지털 등으로 표상되는 하이브리드 창의성의 미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당사국 총회가 채택한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에 관한 개방형 로드맵은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새로운 잠재력을 제공한다. 팬데믹이 전개되면서 많은 사회와 정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 표현, 향유, 결속 및 웰빙의 방식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지속가능한 형태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않았으며 당시 UN 문화권 특별보고관 카리마 베논이 말한 바와 같이 일종의 '기본적 역설', 즉 문화적 표현의 의미는 강조되지만, 예술과 문화의 생산하는 사람들은 점점 활동하기 어려워짐을 느끼는 상황이 부상했다. 궁극적으로 이는 문화·창의 조직의 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문화적 권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Bennoune, 2021). 따라서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약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지침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팬데믹에 직면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 및 지방 정부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문화적 표현의 가용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문화 주체에 대한 규제 의무의 일시적 완화, 미디어를 통한 국가 문화 콘텐츠 홍보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명확한 리더십(사회에서 문화가 갖는 중심적 위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예산 할당을 포함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했다.

###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적 도전 해결의 필요성

문화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주목은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힘겨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화·창의분야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정보화 격차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평가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불균등한 습득, 성 불평등, 노동 불안정,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존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며, 문화·창의분야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 분야의 다양한 기여를 활용하기 위한 개발 정책을 수용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도전 중 일부는 다른 전문 분야 및 사회 집단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교차정책, 즉 더 광범위한 복구정책과 프로그램에 문화·창의분야를 포함할 것과 문화 및 기타 부문에 관여하는 시민단체 간의 대화 및 협력 강화를 요구한다. 또한 문화 분야의 특정적 요구(조직 모델, 훈련 필요 및 이동성의 도전 포함)는 협의 과정과 문화 및 기타 분야의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OECD, 2020a; UCLG Culture Committee, 2020; Sargent, 2021). 이러한 도전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식별된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고, 해당 분야에서 특징적이거나 고도로 다양화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정교한 정책 대응을 설계하게 한다.

위기는 문화·창의분야의 모든 고용 모델을 포괄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과 최저 임금에 대한 요구를 불러왔다.

전 세계의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은 위기 상황이 끝나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에 적용가능하다. 여기에는 직업적 지위에 관계없이 영리 기업, 비영리 조직, 문화·창의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문화·창의 생태계를 전체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포함된다(Sargent, 2021). 위기는 문화·창의분야의 모든 고용 모델을 포괄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최저 임금에 대한 요구를 불러왔다. 실제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창의경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를 위해 설계된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도 그러한 노동자 중 상당한 비율은 보장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연결성의 향상, 창작자, 문화 부문 종사자 및 단체의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화, 다양한 범위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근의 확대 등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커뮤니티의 상호 연결성과 전지구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의 기원은 인간에게 있으며, 그 영향은 특정 형태의 생산, 무역, 소비, 이동성 및 환경 변화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특히 IPBES, 2020 참조).



© Sasha Zaitseva, Eden Mask, 2021, Paris, France\*

팬데믹은 문화·창의분야가 제공하는 회복력, 연결성 및 삶의 질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광범위한 사회 변화에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많은 사회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행사의 불평등, 문화, 건강 및 삶의 질 간의 연계, 문화·창의분야가 환경적 도전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Fancourt and Finn, 2019; Julie's Bicycle, 2020; Kantar Public, 2021; Anheier et al., 2021).

문화다양성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고(2.6조) 지속가능한 발전 정

책에 문화를 통합하려는 약속(13조)이라는 측면에서 협약의 종합적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글로벌 리포트의 기반이 되는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여러 세부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와 같은 전지구적 도전과 협약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문화정책의 전통적인 범위를 초월함으로써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광범위한 사회적 도전 간의 상호 의존성을 탐구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바람직한 거버넌스, 지역 통합 및 평화를 포함하는 아프리카 연합(AU)의 주요 변화 성과를 달성하려면 협약과 아프리카 연합

(AU)의 어젠다 2063을 상호 연계하여 파악해야 한다. 협약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영감을 주는 훌륭한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다.

▼

팬데믹은  
문화·창의분야가  
제공하는 회복력, 연결성 및  
삶의 질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적 연대, 협력 및 개방

이 협약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원칙(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과 개방과 균형의 원칙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전 세계의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이 포함된다(2.4조 및 2.8조). 또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우대조치를 승인할 것을 약속한다(제16조).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의 증가로 이전보다 개발도상국-선진국 간 이동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팬데믹은 또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와 나라간 이동 및 교환에 반대하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의 심화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문화 협력에 대한 약속의 확대와 다양한 문화 표현에 대한 개방성이 필수적이다.

문화·창의분야에서는  
2020년 4월  
유네스코가 주최한  
130명의 문화 장·차관  
온라인 회의 등  
국제적 대응이 대화의  
장의 형태로  
펼쳐졌다

실제로 전지구적 위기 상황인 팬데믹은 단일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류의 상황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문화·창의분야에서는 2020년 4월 유네스코가 주최한 130명의 문화 장·차관 온라인 회의나, 2021년 7월 로마에서 열린 제1회 G20 문화장관 회의 등 국제적 대응이 대화의 장의 형태로 펼쳐졌다. 아프리카 연합, 카리브공동체(CARICOM), 유럽연합(EU) 및 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 같은 조직이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채택하면서 지역적 대화도 강화되었다. 지방 정부와 시민단

체의 네트워크는 정보를 수집 및 배포하거나, 팬데믹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찰을 장려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 및 활동을 이끌었다. 유네스코에 의해 출범된 리질리아트(ResiliArt)는, 문화·창의분야가 팬데믹과 어떻게 고투를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토론이다. 이 운동은 교류와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 종사자들간의 결속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연대, 협력 및 개방이라는 협약의 기본 원칙에 대한 향후 이행의 맥락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물리적 이동보다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이동이나 가상 모임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조치 원칙과 적절한 예산 할당을 바탕으로 예술가 및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 문화정책이 자국 내 및 세계 수준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글로벌 리포트의 이번 판과 이전 판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국제 개발 정책에서 문화 영역에 할당된 제한된 자원이 시급히 늘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 및 국제 조세 개혁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다른 국제 포럼을 통해서도 진흥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21조에 명시). 다른 협정들을 논의할 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갖는 잠재적 영향뿐만 아니라 문화·창의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거버넌스 및 정보 시스템

코로나19 팬데믹의 전지구적 영향 이면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 상황이 많다. 글로벌 리포트는 초기 동향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제시하지만, 상황이 진화함에 따라 지역, 국가 및 권역 수준에서 특정 도전과 가능

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일련의 정교하고 포괄적인 정책 대응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참여적 협의와 정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에 대한 개방성이 점차 중요해진다. 지역 및 지방 단위 정부의 개입과 필요한 경우 분권화를 촉진하는, 보다 통합된 다층적 거버넌스 접근 방식은 정책과 조치가 해당 분야의 요구에 최대한 들어맞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리포트는 당사국이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지구적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관련 정책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리포트가 출간된 시점에도 팬데믹은 지역차가 있을 뿐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또한 국가별 및 국제적 수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치에 관해 당사국이 제출한 정기보고서는 이 보고서의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되었는데, 2017년 6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수집되었다. 가장 늦게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조차도 그 위기가 그들의 문화·창의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일부 분야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얻는 데는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사는 부분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 수년에 걸친 여러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문화정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은 협약의 이행과 그 궁극적인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UNESCO, 2017).

이 위기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그리고 문화와, 사회에서 그 문화의 위치에 대한 연구 및 분석에 있어서의) 개선이 다음과 같은 것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위기가 미치는 영향의 측정과 이해, 문화가치의 평가, 문화 및 관련 분야에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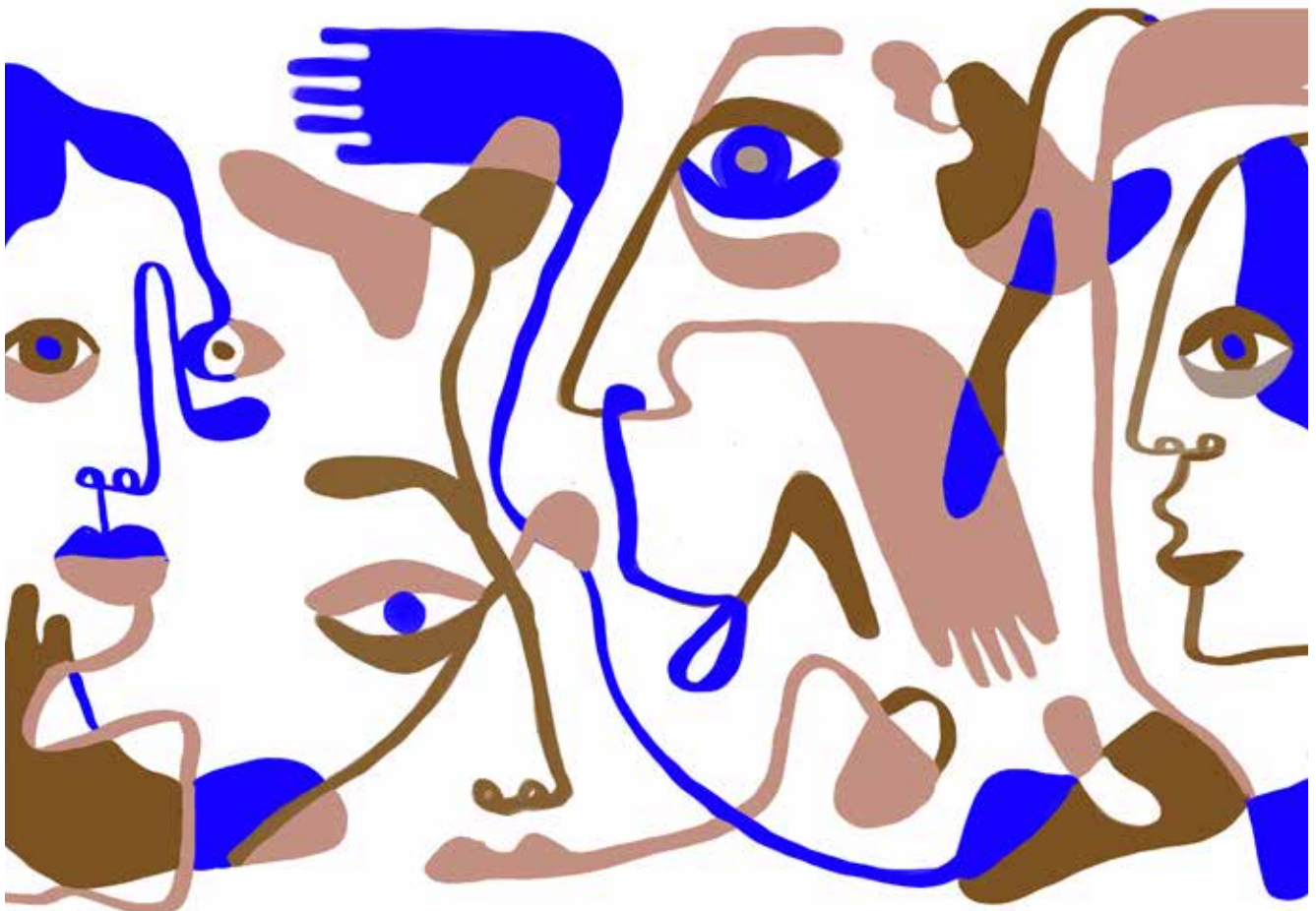
**최종 발언:**  
사회에서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의 자리에 대한 재고

글로벌 리포트의 이번 판 작업은 코로나 19 위기가 시작되던 2019년 말에 시작되었다. 팬데믹은 전 세계의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에 엄청난 규모의 전반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생명과 인간 관계의 손실을 가져왔다. 인간은 배려와, 더 높은 수준의 상호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인간이 건강 및 삶의 질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 비상 사태에 대한 증거와 인식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또 우리가 인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활발해지고 있다(UNDP, 2020).

이 검토에는 인류의 유산이자 핵심 자산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더 심화된 인식과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변화의 방식을 표현하고 재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창의성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는 바로 문화를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함의를 지닌 전지구적 공공재로 간주하여야 함을 정당화시키는 몇 가지 근거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문화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문화에 대한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적 문화정책의 수립은 공공재로서의 문화를 더욱 강화한다. 그러나 전 UN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 '코로나19, 문화 및 문화권'에서 언급했듯이 회복력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논의는 전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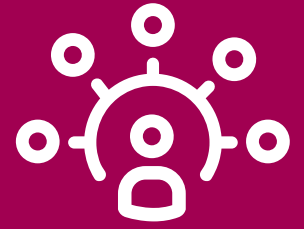
에 달려 있다. 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생존에 급급하게 되어 다른 경로의 커리어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Bennoune, 202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혁신하고 강화하는 능력(지역 및 전지구적 도전에 바탕을 둔)은 여기에 특히 연관성이 깊다. 이 글로벌 리포트에 포함된 장들은 지속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계속적 대화의 일부로서 이 분야의 현재의 일과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에 대한 초기 성찰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Rocca Luis César, Daydreaming, 2020, Méx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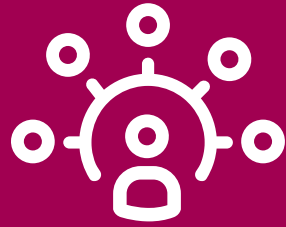






목표 1

#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 목표 1

#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국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구축하고 시행하여 그들의 주권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입각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과정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 생산, 유통 및 다양한 문화활동의 접근성을 지원하고, 문화를 위한 정보에 입각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한다.

4 질 높은 교육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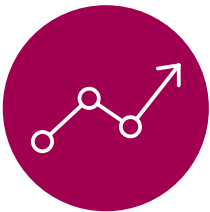


문화·창의분야

미디어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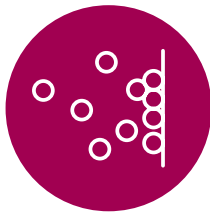
디지털 환경

시민사회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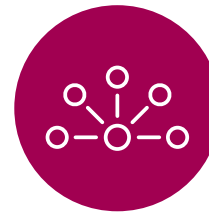
경과

- 부처간 협력과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문화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더욱 통합된 정책이 수립됨
- 공공-시민 간 대화를 위한 공간이 열리고 있음
- 여러 국가에서 자국 콘텐츠 보호와 지역 언론 매체에 대한 지원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음
- 코로나19에 의해 촉발된 문화·창의 산업에서의 디지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노력이 진행됨



도전

- 문화에 대한 공공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함
- 시민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은 물론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여전히 드뭄
- 미디어 독점과 더불어 일부 사회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과소대표성(under-representation)과 잘못된 인식은 미디어 다양성과 자유를 위협함
- 디지털 환경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규제와 기술 격차는 불평등을 증가시킴



권고 사항

- 모든 단계에서의 혁신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횡단적 협업을 조성함
- 목표 예산을 할당하고 투명하고 참여적인 구조를 유지함
- 지역사회 미디어를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며, 총체적인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함
-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고 온라인에서 콘텐츠의 발견용이성을 촉진함



데이터 요구사항

- 문화·창의 산업의 GDP 기여도와 문화고용통계
-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에 대한 표준화된 공개 데이터
- 미디어 소유권 및 인력,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수준에 대한 데이터
- 디지털 미디어, 매출, 저작권 및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대한 접근



#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창의분야의 구축

막달레나 모레노 무지카

## 핵심 발견

- ▶▶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문화정책의 수립과 입법을 위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며 유연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위기의 시기에,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 참여적인 문화거버넌스에 있어-특히 시민사회 및 다양한 수준의 정부 참여의 측면에서-상당히 개선적인 모습이 본 협약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체계에 의해 확인되었다. 반면 범정부적 측면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접근은 느리게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 및 기관 사이의 교차 협업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문화에 대한 공공 투자는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이는 특히 위기 시 문화·창의분야의 탄력성과 지속가능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 ▶▶ 문화 및 창의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지역별, 그리고 문화 분야 간-특히 디지털 기술 및 문화 경영 분야-격차는 여전히 크다.
- ▶▶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경제적 기회 창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취약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및 웰빙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 비록 데이터 수집과 문화정보 시스템의 개발(특히 협약의 모니터링 체계로 촉진된) 분야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문화·창의 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 공백을 채우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은 아직도 계속 중이다.

1. 연구조교 메레디스 오겔의 공헌에 힘입어 작성함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은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를 위한 로드맵이다

### 경과

#### 경제적 영향

문화와 창의산업 분야는 세계 경제에 막대하게 공헌하고 있음



**3.1%**  
전세계 GDP



**6.2%**  
전체 고용

#### 통합 정책



문화는 정책 전반에 걸쳐 점점 더 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부처 간 대화를 위한 영구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음



거의 **80%**

당사국들은 분권화 된 문화 정책 구조를 구축함

### 도전

#### 공공 투자



문화에 대한 공공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감소해 음

#### 교육



교육, 훈련 및 고용 기회 있어서 불일치가 발생함

문화경영(Cultural management) 분야는 고등교육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음

#### 정책 우선순위

##### 최고 관심분야



영화/시청각 예술



음악



공연 예술

##### 최하 관심분야



미디어 아트



디자인

####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기준, 전 세계 **1천만** 세계적인 일자리 감소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했지만 취업 기회와 수익의 분배는 여전히 불균형 상태



지속적인 데이터 공백은 투명성과 정보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을 방해함



#### 정부 전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다단계 협업을 통해 문화에 대한 전(whole) 정부적 접근법 함양



#### 취업 기회

통합된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 보유



#### 공공 투자

공공 투자 증가 및 관련한 구조 구축에 지원



#### 데이터

사용가능한 데이터 활용과 새로운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투자

### 권고 사항

## 핵심 지표

문화·창의분야의 역동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정책 수립 과정 공유와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 서론

2021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 경제의 해로 지정되었고, 이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 이 시기 '행동을 위한 10년'이 발표되고 UN의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를 위한 목표를 지향함에 따라 미래를 위한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특히 대규모 사회통제 기간 중에- 창의성의 힘에 의해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경제의 해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창의적 생태계를 복원하고, 나아가 더 훌륭하게 재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창의적 생태계의 주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공적인 플랫폼 중 하나인 리질리아트(ResiliArt)는 온라인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고충과 회복력을 파악하기 위한 2020년 4월 15일 유네스코가 시작한 글로벌 움직임이다(이 이니셔티브 및 그에 따른 결과로 나온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내역은 4장 참조).

볼칸 보즈키리 유엔총회 의장이 유네스코와 손잡고 2021년 5월 개최한 '문화와 지속가능발전 국제 포럼'은 역동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팬데믹 이후 회복에 활용하는 등 문화·창의분야의 역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이 분야들을 재건하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힘을 모아 분야별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는 공공 정책 영역에서 보다 강력한 문화의 통합을 보장하고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에 관한 전지구적 정책 대화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경제 및 문화적 발전의 상호보완성을 인지하는 유일한 국제 표준 문서로서, 행동을 위한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당사국들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동원되며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2021년 7월 31일 G20 국가 중 이탈리아 의장의 주관하에 개최된 문화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장관급 성명서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경제 성장을 위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친 문화와 창의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021년 10월 31일 로마 G20 정상 선언은 이러한 인식을 지지함과 동시에, 고용, 사회 보호, 디지털화 및 사업 지원 조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문화 분야를 포함한 노동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가 조직한 세계

창의경제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Creative Economy)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창의경제 의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위기 상황을 포함하여 이기주의의 장벽을 가로질러 모든 레벨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의 원칙이 어떻게 활성화되었는지 보여준다. 앞으로,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는 공공 정책 영역에서 보다 강력한 문화의 통합을 보장하고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에 관한 전지구적 정책 대화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 급변하는 문화 지형

이 협약을 15년 동안 시행하며 얻은 한 가지 교훈은 문화·창의분야는 문화 정책 담당자들만의 관심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책 시행 환경의 현저한 변화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 코로나 19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는 문화·창의 분야의 문제점을 노출 및 가중시켰다. 팬데믹은 문화 참여 및 문화 콘텐츠 소비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변형시켰다. 문화·창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및 기관들의 취약성을 비롯한 기존의 다양한 문제점들 또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유네스코는 문화부 장관 온라인 회의, 2020년 4월 개최된 지역 정부간 기구 및 개발 은행 회담, 리질리아트 운동 등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팬데믹이 문화·창의분야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검토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범정부적 접근과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참여적 리더십을 통해서만 더 나은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및 환경 문제를 부각시켰으며, 이는 문화 및 창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적응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정부들이 기후 완화 및 적응 전략을 도입하고 국제적인 세부목표와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기후 위기는 문화·창의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협약 당사국들의 문화정책에 이를 포함시키려는 진전의 기미가 보인다.

창의성과 혁신은 문화·창의분야에 내재된 특성이다. 이는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다. 범정부적 접근과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참여적 리더십을 통해서만 더 나은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와 창의성을 위한 정책들을 재구성하는 당사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장은 이들 분야의 미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검토한다.

## 통합 정책의 수립: 큰 그림 보기

### 로드맵으로서의 협약

협약 채택 이후 문화정책 발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 협약의 다양한 역할과 관련된 강력한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2018년 글로벌 리포트가 발표된 이래 협약은 계속해서 로드맵과 안정화에 역할을 해왔다. 협약은 통합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차질 발생 시 유연한 정책 재정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구조적인 정책 변화와 정책 논의의 기반이 됐다.

전반적으로 협약은 문화 영역에서 포괄적인 공공 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장려한다. 협약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유연성으로, 정책을 국가적 맥락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협약이 특히 보다 폭넓은 공공 정책 토론과 고려 사항과 관련된 방식으로 문화정책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더 나아가 전체 가치 사슬 통합에 기반해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협약의 접근방식은 예술가와 창작자뿐 아니라 생산자, 유통자, 관객까지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콘텐츠의 생산과 보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창의분야를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정부의 심층적인 시민사회 참여 독려 및 공동 제공,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응집력 있는 협력 도구로서 협약을 활용하는 지역 간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캐나다의 반인종차별주의 전략(2019-2022)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본토 실행 계획(캐나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과 같은 국가 차원의 계획에 대한 적용에 이르기까지 협약을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이 협약을 문화 가치 사슬 전체에 걸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보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같은 정책 시행의 가시적 결과가 협약 덕분에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협약은 때로는 문화 범위 안팎으로 존재하는 기존 정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사실상 비준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일련의 책임을 위임하고 그 중 일부는 법적 구속력을 지님에 따라, 협약은 때로는 문화 범위 안팎으로 기존 정책의 보다 광범위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최근 사례로 짐바브웨는 2019년 실시한 주요 입법 개혁 중에 새 문화·창의 산업 발전 전략 5개년 계획을 채택했다. 이는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술 및 문화 단체와 더 방대한 커뮤니티 사이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육성한다. 그 목표는 문화 산업 전체의 발전과 그보다 더 크게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데 있다. 그와 동시에 짐바브웨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을 따라잡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여기에는 정보 접근법 및 사생활 보호법 폐지(2002년)와 명예 훼손죄(2016년) 폐지 등과 같은 정보의 자유 법안 채택이 포함됐다. 이러한 법률 제도의 변화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정보의 보다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했다.

일부 당사국들은 협약이 문화·창의분야의 입법 구조를 능률화시키는 안정적 도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한다. 아제르바이잔은 문화 분야의 모든 주요 법률 및 정책 문서에서 협약의 원칙을 주요하게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바베이도스는 협약과 그 보고 체계를 참여 정책 검토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여, 이를 통해 문화체육청소년부와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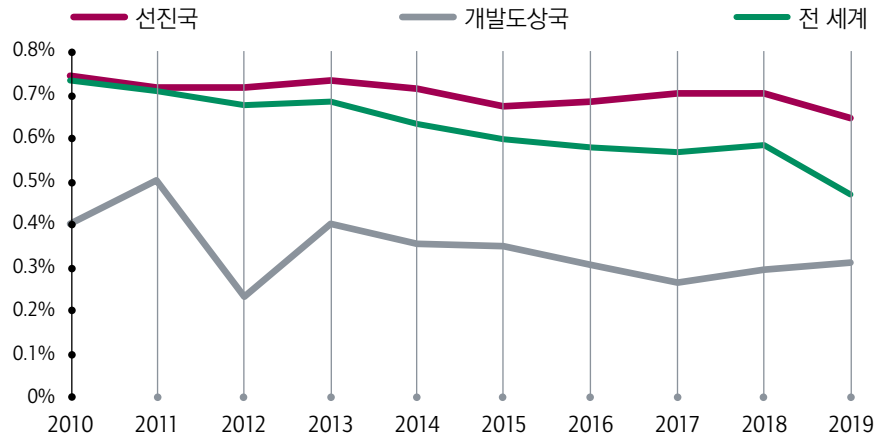
이다. 니제르에서는 정부가 문화 담당 부처를 협약에 맞게 개편하고 그 원칙을 국가 문화정책 선언의 전문에 포함시켰다. 이 선언은 창의성 증진과 창작의 자유,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장한다.

이러한 안정화의 효력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유효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문화를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하는 협약의 목표에 고무되어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분권화된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커뮤니티 및 도시와 지방을 포함하고 정책 논의에서 협약의 주요 초점을 명시하는 로드맵의 수립은 문화 거버넌스를 분권화시키는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팔레스타인 문화부는 문화·창의분야를 개발하고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초안을 참여적 과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이는 협약의 구성 내용들을 활용한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협약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여적 거버넌스와 정책 개발을 위한, 공인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협약은 문화·창의분야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메커니즘을 조정함으로써 타당성을 유지해왔다. 디지털 변혁(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 관련 이슈(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팔레스타인), 보건 및 웰빙(호주, 리투아니아, 아랍에미리트) 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부르키나파소, 칠레, 독일, 말리, 멕시코)을 해결하는 프레임워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문화·창의분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예술의 효과 대한 연구가 2000년 초반 이래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는 WHO 유럽 지역에 초

그림 1.1

2010-2019년 '문화 서비스'와 '방송 및 출판 서비스'에 대한 평균 정부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2000년과 2019년 사이의 기간에 최소 5년 이상 데이터를 제출한 국가만 고려함.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BOP Consulting(2021).

점을 맞춰, 건강과 웰빙 증진에 있어 예술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들을 요약해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예방, 관리 및 치료의 관점에서 예술이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 모두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을 보여줬다(Fancourt and Finn, 2019). 향후 몇 년 동안, 유네스코와 WHO의 협력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문화와 창의성의 기여를 조명할 뿐 아니라 문화와 창의성이 지닌 치유력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정책 해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 문화·창의성에 대한 공공 투자

문화·창의분야와 그 산업은 빠르게 진화 중이다. 그 고속 성장은 이 분야를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처로 부각시켰다. 공식 통계를 종합해 보면 문화·창의 산업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로 추정된다. 이들 산업의 특성상 비공식적 기여도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가 전체적인 상황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분야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연합(EU)에서만 이 분야 산업의 총 수익 성

장률은 거의 17%로 추정된다(EY Consulting, 2021)<sup>1</sup>.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문화·창의분야의 정부 지출 추이(그림 1.1)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에서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문화 관련 공공 예산이 가장 낮은 아프리카와 대조적으로 서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가장 높은 투자를 보고하고 있어 지역별로 불균형한 공공 지출이 었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분야를 희생시켜가며 일부 문화적 표현의 증진과 보호에만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창의분야에서의 경제적 조건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국가 문화 예산이 예외적으로 증가했던 팬데믹 시기는 이러한 불균형을 명백하게 악화시켰다.

1. 73개 협약 당사국들과 4개 비당사국들을 포함한 77개국의 GDP에서 문화·창의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출처에는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4년제 정기보고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통계청(Eurostat)의 데이터 및 필요한 경우 기타 데이터가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와 창의성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책, 법률 및 규제환경 조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문화, 창의 및 기타 부문의 상호보완적인 강점뿐 아니라 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까지도 기반으로 해야한다.

### 문화 가치 사슬 통합 정책

최근 몇 년 간 협약은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문화 창의 생태계를 조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이전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에서도 입증되었듯, 한때 선형적이었던 문화 가치 사슬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모델로 전환되었다(UNESCO, 2018). 가치 사슬의 각 마디(창작, 생산, 유통 및 접근)는 그 상호연결성 및 디지털적 의미와 함께 정책 및 규제 체계의 개발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전환은 또한 무역, 노동, 교육, 혁신, 복지, 보건, 산업 또는 환경과 같은 다른 범위와 분야들을 포함하고, 이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기회를 제공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문화 및 정책 운영 환경에 대응하여 통합적 정책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구현하는 여러 방법에 관한 많은 사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정한 영역, 분야 또는 주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적 권리, 교육, 경제 발전, 사회적 결속과 같은 기타 맥락 및 우선순위 정책들과 연결될 수도 있다.

개혁과 주요 정책 검토를 통한 입법적 방법을 멕시코에서 찾을 수 있는데, 멕시코 정부는 문화 콘텐츠 및 상품의 생산, 보급, 유통과 향유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는 문화 경제의 발전 및 더 큰 혁신을 위한 도구들을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 최근 몇 년간 이뤄진 두 가지 주요 규제 개혁은 이러한 접근을 뒷받침한다. 문화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일반법(2017)과 일반법에 관한 규정(2018)의 채택은 멕시코의 문화·창의분야와 관련한 법체계를

공고히 했다. 문화적 권리 행사를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한 이 법률들은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정과 사회 부문의 참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코스타리카에서는 제1차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가정책(2014-2023)이 현재 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의 주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모두를 위한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방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약자 우대정책 및 사회 통합 어젠다, 그리고 디지털 및 혁신 어젠다로 보완되었다.

다른 당사국들은 교육, 관객 훈련 및 문화 참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평등한 문화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창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예술과 문화를 창작, 제작 및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도구들은 또한 적극적인 시민권을 지원하고 더 큰 공동체 의식을 촉진한다. 에콰도르에서 시행한 관객들을 교육하고 자극시키기 위한 정책 개혁의 거시적인 접근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에콰도르 교육부는,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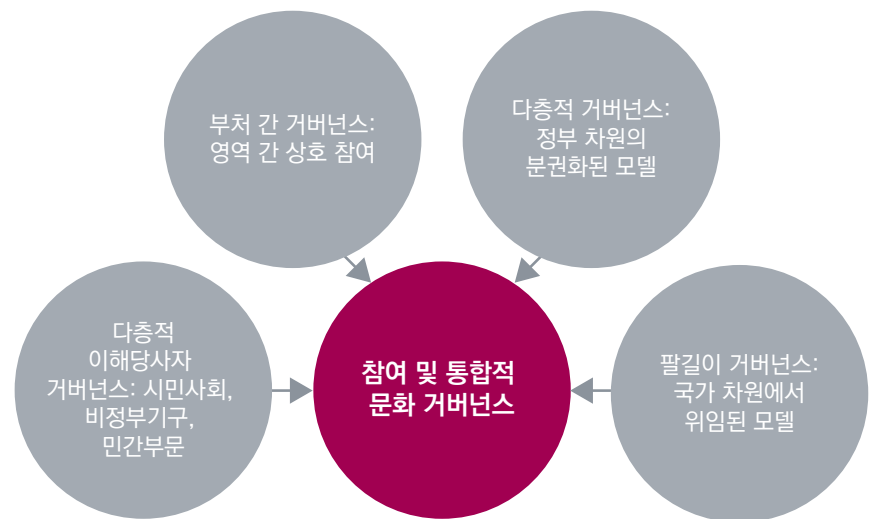
화예술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적 기술 및 표현력 강화는 물론 문화적 권리와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비판적 관객 교육도 강화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협약은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문화·창의 생태계를 조직하는데 특히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대체로 문화적 표현에 대한 거시적 접근 추세는 최근 몇 년에 걸쳐 더욱 공고해졌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부처 간 조정, 학제 간 협력을 포함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림 1.2

협약에 따른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문화 거버넌스



출처: Moreno(2021).

##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 및 통합적 접근들

참여 과정은 통합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다(그림 1.2). 이는 협약의 핵심으로 다수의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문화정책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중심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는 모든 과정에서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표적 의사 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6.7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자료들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높은 수준의 참여 거버넌스를 성취했으며, 여기에는 2018년 글로벌 리포트가 권고한 바와 같이 여러 부처, 다른 수준의 정부<sup>2</sup> 및 시민단체(CSOs)가 참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또 다른 공통적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팔길이 원칙에 기반한 모델의 가치인데,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정부가 권한을 준 기관에 위임했지만, 그 제도적 거버넌스와 운영은 완전히 자율적이거나 혹은 준자율적인 형태를 가진다.

### 부처 간 거버넌스: 영역 간 상호 참여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영역 간 참여는 문화·창의분야를 책임지고 있거나, 위임 및 양도할 수 있는 부처(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당사국들은 그러한 기관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투명한 기관을 만들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6.6에 기여하고자 한다.

문화와 창의성 분야는 부처 간 협의에서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당사국 중 93%는 규제 프레임워크, 분야별 법률,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활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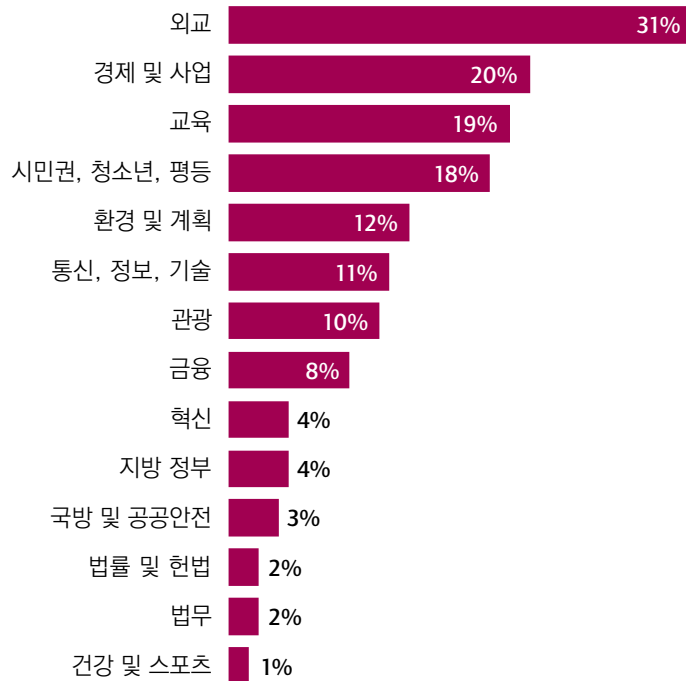
의 내용과 관련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 및 조치 중 이들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부처가 하나 이상 참여한 경우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시사하며,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다른 부처 및 정부 기관과의 잠재적인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기술 및 재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문화와 관련한 부처와 다른 부처 간 협력은 주로 외교 업무 영역(31%)과 경제 및 비즈니스 영역(20%)에 이어 교육(19%)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그림 1.3). 이러한 추세는 국가들이 주로 외교, 무역, 산업과 관련하여 특히 창의경제의 맥락에서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 미주개발은행(IADB)은 출판물 <오렌

지 경제: 무한한 기회>에서 문화·창의분야의 가치를 고용, 문화적 가치, 사회적 영향 및 웰빙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의 오렌지 경제 모델(콜롬비아, 온두라스,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개발의 경우 아이디어를 문화상품과 서비스로 변환하는데에 다양한 영역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의 문화·창의 생태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글상자 1.1).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과 수행은 정보통신, 산업과 무역, 건설, 금융, 기획 및 투자를 포함한 영역 전반을 가로지르는 파트너십을 포함했다.

그림 1.3

부처 소관별 부처 간 협력 정책 및 조치\*



\*문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처는 포함하지 않음(예: 문화부).

출처: BOP Consulting(2021).

2. 다층적 접근은 두 개 이상의 정부 레벨(국가, 지방, 시 등)을 포함하는 정책 과정을 의미한다.

## 글상자 1.1 • 국가 정책 담론에 포함된 문화 - 전체 정부 차원의 접근

문화가 전반적인 국가 전략에 포함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및 아일랜드의 사례는 범정부적 접근법의 우수한 사례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최고 권력자, 담당부처가 포함되어 국가 정책 분야에서 문화의 접근성 증대 논의
- 문화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문화적 권위자의 참여
- 모든 영역에서 문화 활동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할당
- 2030년 어젠다 세부목표나 기타 국가 목표 등과 같은 중장기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

2018년 콜롬비아는 오렌지법을 제정하고 오렌지 경제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문화적 이니셔티브와 상품 개발을 보장하고 장려하였다. 오렌지 법의 시행을 조율하는 위원회는 7개 부처(통신, 문화, 내무, 재무, 신용, 노동 및 관광 무역)와 전국 단위의 5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은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획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문화·창의 벤처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전략적 문화·창의 프로젝트 투자자에 대한 감세, 창의분야 근로자들이 임의적으로 연금 기금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상당한 자본 보조금이 포함된다.

이와 비슷하게 인도네시아에서는 2019년 창의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담 공공 서비스기관을 설립하여 이 분야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자 '창의경제에 관한 법률 제 24호'를 채택했다. 이 법률은 또한 문화 창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창작, 생산, 유통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문화 실무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정부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15년 개설된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로, 위의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책임진다. 이 부처는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문화·창의 분야에서 다층적 거버넌스를 위한 교차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부처는 교육과 문화, 종교 문제, 연구 및 기술, 보건, 사회 문제, 지역 개발 및 포용, 그리고 성평등,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에 걸친 7개 부처의 업무들을 조정한다.

문화정책에 대한 전정부적 접근의 또 다른 사례는 2020년 관광, 문화, 예술, 게일어사용,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부에서 출판한 〈아일랜드의 문화 2025〉이다. 이는 '창의적인 아일랜드(Creative Ireland, 2017-2022)'를 기반으로 하는데 청소년이나 비정규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예술, 문화, 창의성의 프리즘을 통해 획적 정부 안건을 다루는 범정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2020년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창출하고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이러한 접근법이 유용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문화·창의 격려 기금으로 미화 45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노인들의 고립과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창의 프로젝트에 미화 6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고 보고했다.

출처: Colombia QPR, Indonesia QPR, Ireland QPR.

경제적 성과 이외에도 부처 간 정책 협력은 때로는 양질의 학습 경험, 포용력, 커뮤니티 강화를 포함한 문화와 창의성의 사회적 성과 증진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첫 번째 문화 액션 플랜인 '창의성과 커뮤니티'는 이 지역 주민과 캐나다 원주민인 미크마크족 사이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계획은 1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협력이 한데 모여 설계되었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은 때로는 문화와 창의성의 사회적 성과를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기도 한다.

창의성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는 핀란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문화 종사자들과 함께 사회보건부와 손잡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 정책은 모든 정부부처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특히 교육문화부가 지급하는 모든 운영 보조금에 성평등 조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부처 간 협력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트렌드는 문화와 창의성 분야의 꾸준한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자메이카의 문화·창의 산업 위원회인 자메이카 크리에이티브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2013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2018년에 활동을 재개한 뒤 정책의 수립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예산과 직원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 부서 및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보장하며, 특히 문화·창의산업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과 협의를 추진하는 임무를 도맡고 있다.



## 다중 이해당사자 거버넌스: 시민사회 및 기타 행위자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다중 이해당사자의 접근은 협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며, 문화 생태계 전반의 행위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장려한다.

기관 단위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 지난 몇 년 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원주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가적 협의를 통해 2017년 문화유산부를 창설한 칠레에서 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새로운 부처는 개인과 커뮤니티가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창작, 향유,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시민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공공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시민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공 문화기관(더 넓게는 문화분야)의 진화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당사국들은 문화정책의 초기 설계를 같이 하는 수준을 넘어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대해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 모니터링, 문화·창의분야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시행하는데 더욱 초점을 모으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 에티오피아, 독일, 아이슬란드, 케냐,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대한민국, 르완다, 슬로바키아, 우간다 등의 사례에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비정부기구와 협회에서부터 노동조합, 연합 또는 개인 문화 실무자 및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정책 사이클 전반에 걸쳐 주인의식을 조성하고, 문화·창의분야의 요구와 잠재력에 따른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정책 대응을 보장한다.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4장 참조.



© Anurith Premakumar / Unsplash.com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한 예술가들은 인구통계학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계층이다(예술계의 상당수는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그들의 작품을 상연하거나 창작한다).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 메시지를 강화하고 잘못된 정보와 싸우는데 창의 분야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불안, 슬픔, 고립의 시기에 우리는 예술 활동(때로는 즉흥적으로 온라인 상에서)을 통해 서로의 유대를 강화했다.

창의경제의 선순환에서부터 인간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지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대한 가치에 이르기까지, 예술을 위한 지지와 투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견해는 많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한 분야는 건강에 대한 예술의 유익성이다. WHO의 획기적인 보고서 <건강과 웰빙 증진에 예술이 기여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가 출간되면서 예술을 효과적인 의료 메시지로만 보는 수준을 넘어선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다. 이 보고서는 음악, 영상 예술, 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창의적 표현이 신체적 상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또한 사회적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한다. 갈수록 성장하는 전 세계 연구 기관들의 네트워크는 예술에 기반한 효과적인 개입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에 해당하는 미적 경험을 신경학과 생화학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의 잠재적 영향은 매우 유망하며, 개인 및 지역사회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예술에 대한 국가 투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충분한 근거를 몇 년 내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협력에 나선 WHO와 유네스코는 문화부 및 보건부와 대화의 통해 예술이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자금 지원 및 정책 시행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희망은 창의적인 행동에 있기 때문이다.

### 크리스토퍼 베일리

예술 및 보건팀장, 세계보건기구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와 시민 참여의 중심에는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이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 및 워킹그룹과 같은 영구적인 메커니즘이 당사국들 사이의 표준 관행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로코와 세네갈은 참여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했다. 부르키나파소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부처간 위원회를 설립해 문화 관련 다수의 이해당사자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하고 있다. 확립된 시민단체 협의 및 참여 메커니즘에 의해 보다 신속한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한 경향이 있다.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 간의 파트너십은 문화·창의산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개입 유형이다. 특히 창의경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와의 협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앞서 발간된 글로벌 리포트는 주로 선진국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 상품 및 활동에 접근하기 위해 민간 파트너십을 사용하는 사례를 강조했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메커니즘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창의 생태계 내에서 대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고, 경제 발전에 대한 문화·창의분야의 기여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혁신을 촉진한다. 바베이도스는 정책 프레임워크(문화산업발전법)를 제정해 민간파트너십을 장려했고, 칠레는 상공회의소, 문화유산부, 그리고 민간부문으로 구성된 민간연합을 출범시켜 자국 최초의 창의경제 시장을 창출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지원 신청 건수가 매년 3분의 1 이상 증가했고, 신규 사업 거래가 많이 성사되어 이 네트워킹 플랫폼이 창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그리고 전략적 포지셔닝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 간의 파트너십은 문화·창의산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개입 유형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네스코와 세계은행이 코로나19 기간과 그 이후 회복과 발전의 일환으로 도시 문화·창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합동 이니셔티브에 착수하며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2021년 5월에는 실행을 위한 도시, 문화, 창의성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다(UNESCO and World Bank, 2021). 이 문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도시경쟁력,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창의산업의 동력을 활용하는 도시를 지원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기본 원칙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 문화, 창의성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다. 국제학 연구와 전 세계 9개 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이 프레임워크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광범위한 행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문화·창의산업의 혁신적 영향이 다양한 수준의 정부(지역정부 포함)와 다양한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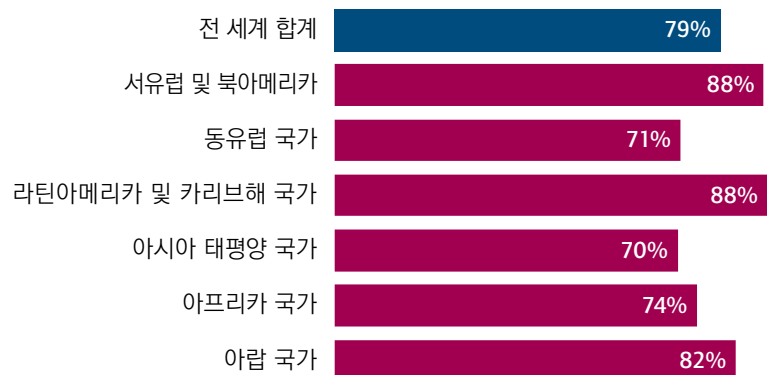
의 이해당사자(민간 부문 포함)와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다층적 거버넌스: 분권화된 계층 모델

협약이 포괄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기존 정부의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효과적인 책임 분배가 요구된다. 세상에는 다양한 공공 거버넌스 모델이 존재한다. 그 모델들은 연방, 중앙, 지역(regional), 주(state) 및 지방(provincial)에서부터 주정부(governorates), 토후국, 강통(canton), 도시 및 지방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정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당사국들은 일종의 분권화된 형태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당사국 중 거의 80%가 각자 문화정책 수립을 책임지는 기초, 광역의 정부 또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 분권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유럽,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이다(88%). 아랍 국가 역시 상당한 수준의 분권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82%의 응답자들이 문화와 관련된 분권화된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그림 1.4).

그림 1.4

문화정책의 수립을 위한 분권화된 책임을 가진 지역별, 도별 지방자치정부, 행정부직



출처: BOP Consulting(2021)

국가 거버넌스 구조와 관계없이 분권화되고 다층적인 정부 참여와 협업은 관련 원칙들을 공유하고 보완전략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창의분야의 정책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장애인들이 예술과 문화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 예술 및 장애 전략(the National Arts and Disability Strategy, NADS)의 설계와 구현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이는 주(state) 및 지역 정부 예술문화 장관으로 구성된 문화 장관 회의(MCM)의 프레임워크와 예술 및 장애 분야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연례 문화 장관 회의를 통해 정부는 일관된 정책 및 계획 접근 방식을 지향하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접근 방식을 표준화한다. 문화 생활을 성공적으로 개선시킨 이 전략은 호주 정부, 주(state) 및 지역 예술 기관과 국립 장애인 지원 기관 사이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다층적 정부 참여의 분권화된 모델의 비슷한 예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말리에서는 분권화를 위한 지원 부서를 지역 당국과 시민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지역개발계획에 문화·창의 분야를 포함했다. 현재까지 35건의 부르키나베 공동 개발 계획이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은 물론 문화 예술 분야를 다루고 있다.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 또한 개발되었고, 여러 도시 공동체가 문화 부시장 직위를 새로 만들었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및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다층적 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분권화된 계층 모델을 통해 각 국가는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책 이슈 및 동향에 대해 광범위한 이해당사자 네트워크와 활발한 대화를 유지하고 지식과 자원 공

유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지역 차원의 참여적 정책의 수립 방법을 실험 및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 방법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에서는 2018년에 승인된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 발전 모델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 수준으로 양도하고 예술과 문화를 위한 기금을 지역 수준으로 분배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를 위해 10개의 지역예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각 위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 대표 2명(공직자 1명, 지역창작계에서 선출된 1명)이 포함돼 있어 지역 수준의 문화사업 담당자들의 활동이 증가했고 주요 자금 지원 기관으로서 리투아니아 문화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

국가 거버넌스 구조와  
관계없이 분권화되고  
다층적인 정부 참여와 협업이  
문화·창의분야의  
정책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을 개선할 수 있다

페루는 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문화 담당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업무, 지식 생산 및 개인 대 개인 사이의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페루의 문화 산업 및 예술에 관한 공공 관리 회의는 수도 리마에 새로 설립된 지방자치 행정부와 지역 간 조정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발전계획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튀니지는 2016-2020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문화 행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등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민간 부문이 문화 후원 및 민간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참여할 수 있었다. 2020년 보건 위기에 직면하여 문화부는 문화후원에 관한 법률이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근거로 문화 회복기금(Fonds Relance Culture) 설립을 도모했다.

가장 일반적인 분권화 모델 외에도, 일부 당사국들은 하위 국가 정부와 행정부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과 조치를 보고했다. 이와 같이 책임이 분권화되고 위임된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웃사회 예술(Arte en Barrios)이나 문화 패스(Pase Cultural)와 같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에서는 문화·창의분야를 위한 국제 투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도시와 지방의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체계 안에서 행정구역을 설계하는데, 이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며 지역 시민단체와 협력 아래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와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분권화는 문화 거버넌스의 참여 모델, 모든 범위의 공공 정책을 가로지르는 문화에 대한 횡단적 접근,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최적화된 방식으로 통합되는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그리고 전국적 차원에서(특히 문화·창의분야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서 정책을 알릴 수 있는 더 큰 수준의 혁신에 도움이 된다.

**팔길이 거버넌스:  
국가를 대표하는 모델**

팔길이 기관들은 보통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고 투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며, 문화 거버넌스에서 핵심 실행 및 자문 역할을 한다. 적어도 이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정부 부처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문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해준다. 전문

기관으로서 분야 관련 이슈에 대한 정통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역량과 기술 분야 발전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시민사회의 참여(특히 공공 지출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동료 평가 모델을 통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팔길이 기관들은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고 투명한 기관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 목표 16.6을 직접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예술위원회라고 알려진 팔길이 기관 모델은 옛 영연방 국가, 북유럽 국가 및 동유럽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을 위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당사국(54%)이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정부 기관을 최소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중동 및 서유럽 등 많은 국가의 정

부들은 시민사회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예술과 문화 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그들은 팔길이 원칙 없이 운영되거나 자문 역할만 하는 정부 부처로 남아 있는 경향이 있다.

팔길이 원칙의 기관은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구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협약을 실행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팔길이 원칙 기관에 위임했다. 스웨덴의 스웨덴 예술위원회와 감비아의 국립문화예술센터와 위원회가 그 예이다.

팔길이 원칙을 채택한다는 것은 종종 이러한 기관들의 운영, 정책 및 행정 사이클이 정부의 행정 사이클과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중앙 정부와 협력 관계인 동시에 문화 분야 관련 기관으로서 문화 공공 거버넌스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창의분야를 위한 공공 지원금

지출을 책임진다. 이들의 입지와 기민한 조직 구조는 종종 주요 정부 이니셔티브와 개혁을 전달하고, 운영 비용 대비 프로그램 성과를 고려할 때 높은 효율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기관의 이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구제 및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때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앙 정부를 대리해 긴급 재정 지원 지출을 수행했기 때문이다(불가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나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스웨덴,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영국, 짐바브웨 등).

### 거버넌스의 역량 구축

지속적인 참여 거버넌스에는 대화를 위한 전용 공간뿐 아니라 교류를 구축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협약 제1조에 나와 있듯이 협약의 목적 중 하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약은 유네스코에 당사국들의 역량 구축과 전문성 강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제19조).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준 역량 구축을 위한 당사국, 유네스코 및 기타 국제 또는 지역 기관들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으며, 정책 모니터링, 정보 및 지식 공유 및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 동등계층 간 교류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었다.

### 글상자 1.2 • 참여 정책 모니터링: 정책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

세네갈에서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설계 및 문화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협의체를 결성했다. 4년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협의체는 이 과정에서 실행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핵심 구성원들은 상부 단체의 행위자들에 대해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됐다. 협약이행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이전 활동 모니터링 및 보고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또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참여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제도적 취약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네갈은 문화·창의분야에서의 국가의 성과와 도전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문화정책 전망기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미래 정책 발전을 알리는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세네갈은 지역 문화 관계자들과 함께 데이터 수집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워크숍을 조직했다. 이 나라는 더욱 분권화된 접근법을 채택하여 참여 문화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스웨덴이 지원하는 참여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도 유사한 결과를 성취했다. 예를 들어 몽골은 80명의 전문 인력들을 훈련시켜 협약의 목표에 반하는 국가 문화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여 결국 독립적인 문화부를 만들었다. 이는 2020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던 영화예술진흥법(2019년) 초안을 포함한 문화 분야에서 의미심장한 발전을 가능케 했다.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보고는 투자의 영향이 개별 프로젝트 및 관련 교육 기간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보고는 투자의 영향이 개별 프로젝트 및 관련 교육 기간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상자 1.2).





© Tapio Haaja / Unsplash.com

# 인

류 문명이 발전하는 데 문화·창의산업은 필수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이 산업들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개발할 권리를 부여하고 포괄적 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을 가져왔다. 제대로만 조성된다면, 창의경제는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구조적 경제 개혁, 사회경제적 진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문화·창의 산업의 잠재력은 2030년 지속가능발전 어젠다를 통해 인정받고 있다.

문화·창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5-29세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분야의 고용은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문화·창의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 생계, 예술 활동을 위한 이동, 시장 접근성, 예술적 자유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로 인해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사이의 가치 사슬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높았던 공예 분야는 대규모 침체를 겪었다.

문화·창의경제가 미래의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예술가 지원 기관들과 협력하고, 해당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며, 디지털화의 발전과 혁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는 창의경제의 회복력과 성장을 지원할 뿐만 교육 및 의료와 같은 다른 분야의 혁신도 이끌어낼 것이다.

인간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는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위한 필수 가치이다. 창의 분야는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고취시킨다. ‘희망 의장 (Presidency of Hope)’은 오래 지속된 질병과 절망이 지나간 이후에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나는 이 시기적절한 출판물을 내놓은 유네스코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인류와 지구의 번영을 위해 이 세상을 재건해야 할 것이다.

## 압둘라 사히드

제76회 유엔 총회 의장

\*유네스코의 ‘코로나19에 직면한 문화·창의산업 연구: 경제적 영향 전망’에 의하면 4,840만 개 이상의 정규직 혹은 이에 준하는 일자리가 있다.

바베이도스, 칠레, 이라크, 감비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창의분야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와 전략이 채택, 수정, 입안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창출의 증가는 창의 생태계의 요구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에 대한 대응을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참여적 거버넌스의 영향을 반영한다. 이처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더 많은 당사국들이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의심의 여지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동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것 또한 세계 또는 지역 단위로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동료간 학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해 주어 고려할 가치가 있다.

### 분야별 법률 및 정책: 영화, 시청각, 및 음악을 중심으로

문화 가치 사슬 전체를 고려하는 정책은 문화·창의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 특정 문화 영역(예: 음악, 영화, 시각예술 등)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사실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개혁이 항상 모든 문화 영역에서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실령 가능하더라도, 각 분야는 그에 맞는 고유의 실행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야만의 과제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장은 전 세계 정책 수립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두 분야, 영화 및 시청각 그리고 음악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당사국들(97%)이 지난 4년간 문화 창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부문별 법률 및 정책 전략을 수정하거나 채택했다고 보고했지만, 분야 간에 현저한 격차가 드러났다. 새로운 규범이 가장 집중적으로 생긴 분야는 영화 및 시청각, 음악 및 공연예술(각각 28%), 시각예술(27%), 출판(21%) 순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디어 아트

(19%)와 디자인(13%) 분야는 그에 미치지 못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 영화 및 시청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되는 창의산업은 더 규제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영화 및 시청각 분야도 마찬가지다.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나는 상황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을 지원하는 수출 전략 및 조치와 양립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영화 및 시청각 분야의 수출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66%).

새로운 규범이 가장 집중적으로 생긴 분야는 영화 및 시청각, 음악 및 공연예술(각각 28%), 시각예술(27%), 출판(21%) 순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디어 아트(19%)와 디자인(13%) 분야는 그에 미치지 못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최근 몇년 사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케냐, 파라과이, 페루,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는 영화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정책, 계획 및 기타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거나 채택하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에서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영화 정책(2017)'이 채택되어 이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심을 보여준다. 이 정책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영화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만 약 57편의 장편 영화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장비 과세, 유통 인프라, 불법복제 퇴치 등의 영역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것을 포함한 여러 장애물로 인해 이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네스코는 유럽연

합의 지원을 받아 에티오피아가 정부, 전문단체, 민간 분야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에티오피아 영화연구소 설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정책 실행을 지원해왔다. 후자의 경우, 영화 전문가들의 역량을 구축하고,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도 비슷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영화연구소 설립을 포함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유네스코와 유럽연합이 지원하고 있다.

이전 글로벌 리포트에서 자국 영화 제작에 대한 정기적인 직접 지출은 모든 선진국(93%)에서 보편적이지만, 개발도상국(31%)의 경우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UNESCO, 2018). 영화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는, 공적보조금부터 전용펀드까지, 그리고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자국 창작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메커니즘의 도입을 보고하는 당사국의 대부분은 선진국이다(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러나 최근 코스타리카, 말리, 멕시코 또는 시리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일부 지원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한 해에만, 멕시코는 EFICINE 재정 지원금을 통해 59개의 국가 영화 제작 투자 프로젝트와 29개의 영화 배급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문화부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지원금은 픽션,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사후 제작 및 배급을 지원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공헌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화 제작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유네스코가 처음으로 실시한 아프리카 54개국의 영화 및 시청각 산업 분포도 조사는 이러한 역동성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 모델을 드러냈다. 이러한 산업들의 잠재성은 아직 대부분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산업들이

연간 미화 20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2,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한다.

아프리카의 영화 및 시청각 산업은 현재 약 5백만 명을 고용하여 미화 50억 달러 상당의 GDP를 창출하고 있다. 수단, 잠비아, 짐바브웨를 포함해 7개국 이상에서 영화 정책 초안을 작성했으며, 다른 많은 나라들은 기존 체계를 발전시켰다(UNESCO, 2021c). 지역 플랫폼과 공공-시민 사회 파트너십이 활력 있는 산업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면서, 다른 혁신적 방식의 영화 창작 및 제작이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유네스코가 처음으로 실시한 아프리카 54개국의 영화 및 시청각 산업 분포도 조사는 다양한 경제 모델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제1회 튀니지 국립 촬영 센터의 프로그램 SENTOO(2019)는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로코, 니제르, 세네갈 및 아프리카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영화 분야의 창작 및 제작을 지원하고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마그레브 국가들 사이의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 공동 제작을 조성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에서의 집필 레지던시, 제작 및 공동 제작 워크숍, 개발 보조금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다. SENTOO는 지역 수준의 협업 및 자원 통합의 혁신적인 사례이다. 2021년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리, 모로코, 세네갈, 토고 및 튀니지 출신의 작가와 감독들이 모여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해외 제작 인센티브 또한 보편화 되었다. 기존의 공동 제작 협의 외에도 이러한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간소화된 공동 제작 제도 또는 전용 인프라(사이프러스, 핀란

드, 모리셔스,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당사국들은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위한 촬영지로서 자국의 잠재력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통에 대한 공공 투자는 여전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주요 디지털 플랫폼이 가치 사슬의 모든 분야와 연계하기 위해 분투하는 현 시점에서 자국 제작 영화의 보급과 관객들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3장 참조).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채택을 향한 기존 추세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소비 증가의 혜택을 받아,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과 틈새 서비스가 전통적인 방송사와 유료 TV 서비스 공급을 넘어 서게 되었다(BOP Consulting, 2021). 이는 재정 손실, 현장 촬영의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나 기타 보건 규제, 국내외 이동의 제한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장애물과 더불어 산업 환경 영향에 대한 대처, 스크린 안팎의 다양성 부족, 그리고 성차별과 같이 규제 개혁이 요구되는 기존 이슈가 지닌 문제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각각 8, 2, 9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영화 및 시청각 분야의 현황에 대한 전 세계 및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어쨌든, 정책수립자들이 산업 적재적소에 알맞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유럽의 경우 '시청각 분야는 2019년 대비 2020년 수입이 10% 이상 감소했고, 주문형 서비스를 제외하면 감소폭은 15%에 육박한다'고 추정한다(Cabrera Blázquez et al., 2021). 걱정스럽게도 영화와 시청각 분야에 대한 향후 공공 투자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서비스 방송사, 영화 자금 및 간접 제작 인센티브는 공공 지원금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정

부가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인한 부채를 변제할 경우 예산 삭감에 직면할 수 있다 (Cabrera Blázquez et al., 2021).

### 음악 분야의 창작활동 및 공정한 수입 분배에 대한 제한적 지원

대형 음반사에서부터 다양한 인디씬에 이르기까지 음악 분야는 디지털 영향 아래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2019년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5년 연속 전 세계 음반 수입 성장률이 8.2%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 세계 음반 시장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는 디지털과 스트리밍 수입이 지속적으로 성장중이다. 코로나 이전의 실제 공연 및 공연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스트리밍, 다운로드 및 기타 디지털 수입(68% 대비 각각 20% 및 1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IFPI, 2020).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지속적으로 스트리밍 가치 격차<sup>3</sup>가 확대되었으며, 라이브 공연이 예술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작자, 제작자 및 배급사 간의 수입 점유율은 여전히 매우 불평등하게 남아 있다. 이는 2021년 짐바브웨 국립예술위원회가 실시한 음악 분야의 상황 분석으로도 입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짐바브웨 국민 중 34%가 스트리밍을 통해 음악을 주로 소비하는 반면, 소비자의 27%만이 스트리밍 플랫폼을 유료로 구독하고 있으며, 음악가의 68%는 전년도에 스트리밍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신고했다. 다만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광고를 통해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트리밍 가치 격차의 원인은 예술가, 제작자와 배급사 간의 불평등한 수입 분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스트리밍 가치 격차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 음악 콘텐츠를 통해 얻는 가치와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창출하는 수입 사이의 불균형으로 이해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음악 산업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라이브 공연 스트리밍의 수입이 실제 라이브 공연 수입의 최대 30%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Concerts SA, 2020). 이는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와 정책 대응을 주로 디지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분야에 대한 정책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코로나 이전의 정책은 주로 음악 교육(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칠레, 스위스) 혹은 교육과 멘토링(엘살바도르, 아이슬란드, 인도)에 집중되었다. 모리셔스와 르완다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로운 교육강좌와 교육과정도 신설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민관 파트너십의 결과로 문화부 산하 새 국립 음악 기관이 설립됐는데, 이는 프랑스 음악 분야의 국내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허브로서 가능하다. 음악 창작, 제작, 배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더욱 적었다. 아이슬란드는 음악 녹음 및 출판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고, 인도와 크로아티아는 지정 보조금을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음악 프로덕션 회사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캐나다를 제외하면 어느 당사국도 음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초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퀘벡 문화통신부는 여러 전문 협회들과 협업하여 시행한 음악 실행계획(Plan d'action pour la musique)을 통해 퀘벡 음악 기업들의 수입을 안정시키고 사운드 레코딩과 공연 제작에 대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덱싱 도구를 사용하여 음악 메타데이터의 공통 기반을 만들어냈다.

음악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들은 주로 교육(콜롬비아, 키프로스, 에티오피아, 티모르-레스테)

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이후 지원금(에콰도르, 안도라)과 네트워킹(콜롬비아, 모리셔스)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네갈의 경우 공공-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문화 센터에서 녹음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음악 제작을 지원한다.

예술가들은 할인된 금액으로 수도 다카르 외곽에서 고급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단위 음악 제작 수준도 한층 향상됐다. 또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음악 녹음 및 스튜디오 매니지먼트 교육을 실시하며 음악 산업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문화·창의분야 성취

#### 교육 및 훈련: 인재 유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 창의성 및 교육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 이들은 유아기부터 고등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들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고용에 대한 문화·창의분야의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교육 및 육성한 후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적 접근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예술 교육은 창의성과 혁신을 도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유망한 진로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

예술교육은 창의성과 혁신을  
도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유망한 진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당사국들은(83%)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세부목표 4.4에 따라 예술과 문화·창의분야의 기술, 직업 교육과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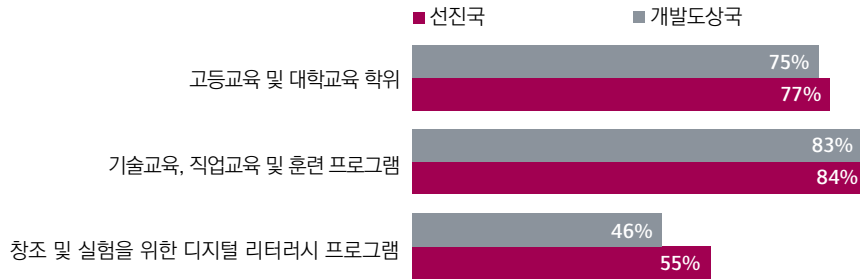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 활동, 전문적 직업 기술을 포함해 취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고등교육의 및 대학교육 학위 역시 당사국들(76%)에 다소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창조 및 실험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불과 49%의 당사국에서만 실시되어 매우 다른 상황을 연출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여전히 문화·창의분야의 도전과제로 남아 있으며, 미래 세대가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분리해서 볼 경우, 유형에 상관없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편차가 거의 없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그림 1.5). 편차는 지역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서유럽과 북미(75%) 및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65%)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강조되는 반면 아시아, 태평양 및 아랍 국가의 경우 당사국들 중 30%만이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고한다. 대학 학위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면(그림 1.6), 대다수의 당사국들은 시각예술, 공연 예술 및 음악 분야의 대학 학위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판과 미디어 아트에 관한 유용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더욱 현저한 격차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당사국들이 제공하고 있다. 정책 및 조치를 적용하고 보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시청각 예술 분야 프로그램은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자국 기반의 인재들이 글로벌 영화 및 TV 산업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문화 경영 지분이 적은 것도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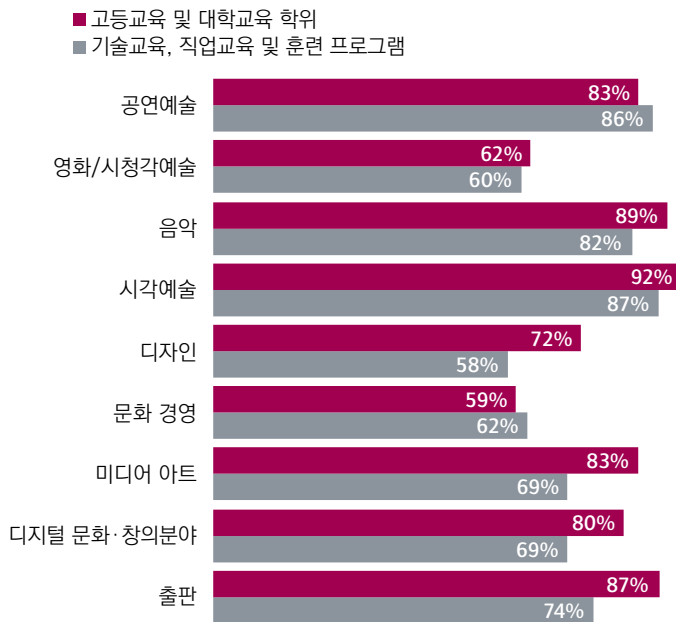
선진국/개발도상국별, 유형별 예술 및 문화·창의분야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출처: BOP Consulting (2021).

그림 1.6

문화 영역별 예술 및 문화·창의분야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출처: BOP Consulting(2021).

특히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를 원한다면 다음 세대의 정책수립자들과 관리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비정규 및 일상 학습 또한 필수적인 문화 창의 역량 개발에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자 고비용에 기회가 제한된 정규 교육 대신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정규

교육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르텔 연합(Fédération du Cartel, Cartel Federation)으로 알려진 5개 극단 그룹이 운영하는 상설 극장 입문 워크숍(Atelier permanent d'initiation au théâtre, Permanent Theatre Initiation Workshop)은 슬램 집필(slam writing) 레지던시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보보디올라스의 전국문화주간(Se-maine nationale de la culture, Na-

tional Culture Week) 오프 프로그램에서 작품의 공개 공연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2019년 유럽평의회 의회 결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비정규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보통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결과 의회는 젊은 이들이 다양한 학습 환경을 통해 예술, 문화, 창의 활동으로 습득한 역량을 유럽에서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유네스코 미래교육 국제위원회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기관과 같은 공식적인 환경을 넘어 학습의 장을 확대하고, 관련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 예술단체, 그리고 문화·창의산업이 참여하는 분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1).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를 원한다면 다음 세대의 정책수립자들과 관리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당사국들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보고서들이 대체로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나라들이 현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역량 확보와 같은 지속적인 과제를 지적했다. 에스와티니는 초등학교에 연극, 무용, 음악, 시각예술 교육 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에서 예술 교육자들을 위한 훈련 시설과 고등 교육 수준의 예술학과 설치의 중요성을 실현할 공인된 교육자들이 부족해 난관에 봉착했다. 스웨덴 예술 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술교육자 선발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다.



© Victor / Unsplash.com

## 지

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 발전을 추진하면서 문화·창의산업의 거대한 잠재력을 목격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도전은 창의경제가 번성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봉쇄 기간 동안 문화·창의 콘텐츠로 눈을 돌리면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통해 이 분야가 가진 지극히 중요한 역할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전 세계 예술가, 창의적 전문가, 실무자, 시민들이 앞장서 주도한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문화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문화·창의산업이 더 높은 고지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은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교육 간의 시너지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창의경제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문화·창의산업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영향력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데이터는 여전히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문화 경제를 지원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이끌어낼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문화 영역에 걸쳐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맥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디지털 영역에서 창의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야심 찬 여정에 착수했다. 창작부터 향유에 이르기까지, 창의 가치사슬의 전 단계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창의산업의 미래는 밝으며, 문화를 국제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사람의 열망에 부응하는 창의경제를 집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 누라 알 카아비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 장관

관련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그 진로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문화·창의분야의 교육, 훈련 및 고용의 관계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에 따르면 가용한 데이터가 있는 OECD 국가 중 3분의 1에서 예술 및 인문 분야 고등교육 졸업생들이 상위 중등교육만 받은 졸업생들보다 수입이 적다(OECD, 2021c). 분석 대상 15개 국가에서 예술 및 인문계 졸업생은 분석 대상인 9개 연구 분야 중 가장 낮은 급여수준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또한 '전공 분야와 최종 직업이 일치하지 않으면 낮은 임금수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예술과 인문학 전공자의 70% 이상이 다른 분야에서 평균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OECD, 2021c).

예술과 인문계 학생들의 수입과 진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문화·창의분야에서 채용되는 프로필과 기술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창의적인 인재를 보유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팬데믹 영향 하의 고용 시장에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장래성이나 소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 및 문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졸업생 수에 비해 일자리가 적은 노동 시장, 혼란스러운 직업 환경, 급격한 기회의 감소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 결과 영구적인 인재 손실과 문화·창의분야에서 경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한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유럽 연합통계청에 따르면 문화 관련 분야에서 공부하는 유럽연합의 모든 고등교육 학생 중 여성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함에 따라, 이러한 불일치는 성평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Eurostat, 2020). 문화·창의분야의 성평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

문화 분야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예술가와 창의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이슈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문화·창의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수정할 정책수립자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창의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이들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고용의 다양성 인식

문화·창의분야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는 대체로 노동 인구 내에서 안정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업데이트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14년 세계 고용 데이터는 문화와 관련된 고용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보여준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50개국에 걸쳐 문화·창의분야가 전체 고용의 평균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5.8%, 개발도상국의 경우 6.9%를 차지한다(그림 1.7).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창의분야의 파트타임 노동 비율(22.1%)은 전체 노동인구에서의 파트타임 비율(26%)보다 낮지만(UIS,

2016<sup>4</sup>), 개발도상국 고용자들의 경우 선진국(17.4%)에 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에 달한다(34.1%). 반대로 OECD 데이터에 포함된 국가에서 문화 관련 직종의 임시 근무 수준은 전체 노동 시장(11.4%)보다 높게 나타난다(15.4%). (OECD, 20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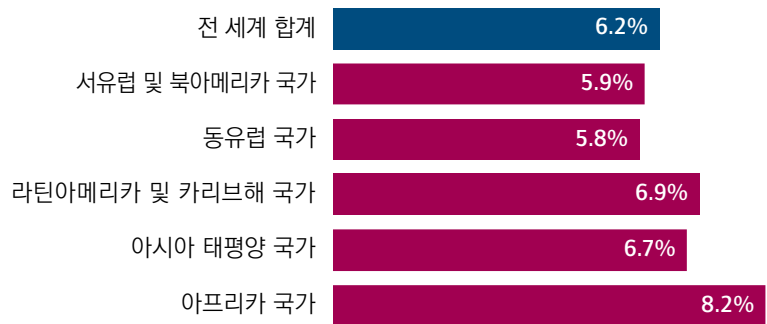
노동 시장은 특정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외적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정부는 생산적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의 형성 및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세부목표 8.3에 따라 이들 시장을 가능한 한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68%에 달하는 당사국들의 주요 관심사는 문화·창의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및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선진국에서는 81%나 보고된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경우 63%에 그쳤다.

4.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와 상호 검증(2015년 데이터 111개국에 제공). 참고 링크 <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source=2&series=SL.TLF.PART.ZS&country=>

그림 1.7

전체 고용에서 문화 분야 고용의 평균 비중



출처: UIS (2016) / BOP Consulting(2021)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중 94%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데 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50%, 아랍 국가들은 55%만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여 지역에 따른 대비가 크게 두드러진다(그림 1.8). 중소 문화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프로그램을 보면, 개발도상국(75%)과 선진국(77%) 사이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당사국들의 정책 접근법의 차이는 또한 시행된 조치와 프로그램의 유형에도 반영된다.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으며, 개발도상국(26%)에 비해, 선진국(62%)에서 훨씬 더 많이 도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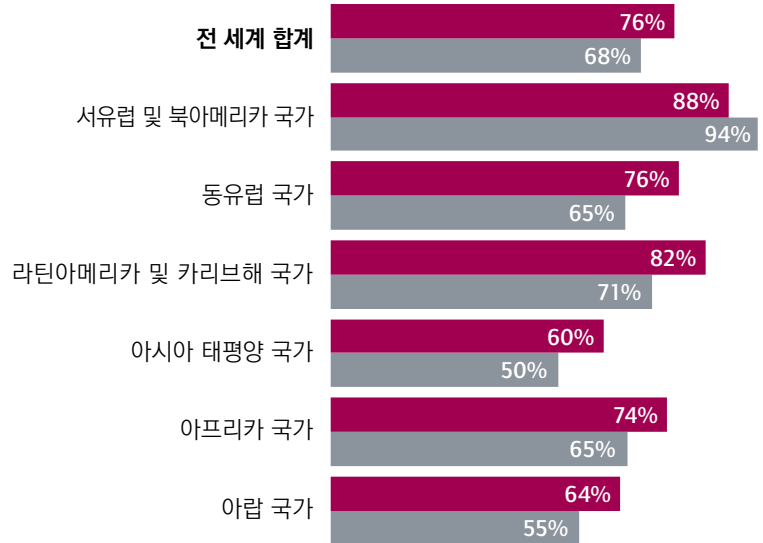
이들은 세금 우대(15%)와 전략 및 개발 계획(15%)도 도입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사업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 및 육성기관 설치를 선호하는데(28%), 페루와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이 좋은 사례이다. 생산부에서 편성하는 공동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페루는 다양한 단계에 걸쳐 혁신적인 벤처 기업에 초기투자자본을 제공했으며, 탄자니아 시민단체인 문화발전 동아프리카(Culture and Development East Africa)는 창의경제 육성기관과 액셀러레이터(Creative Economy Incubator and Accelerator)를 설립, 거의 100명의 기업가에게 디자인, 음악 및 영화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기술을 제공했다. 전략 및 개발 계획(14%), 세금 우대(9%),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9%) 등도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었다. 일단 중요한 경기 부양책과 긴급 자금 지원이 마무리되면, 그러한 조치들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창의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은 창의 분야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베이도스, 중국, 자메이카, 우루과이와 같은 일부 당사국들은 이 이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불가리아에서는, 노동사회정책부가 문화부 및 불가리아 배우 노조와 협력하여,

그림 1.8

문화·창의분야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근 4년간 시행된 구체적인 조치 및 프로그램

- 중소기업 형성 및 성장 장려
- 문화·창의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Source: BOP Consulting (2021).

극장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멜포메나(Melpomena)’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극 분야 경력을 소유한 미취업자에게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며, 급여와 사회보장 지원이 최대 12개월까지 유지된다.

문화·창의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데이터로 파악 가능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여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졌다(BOP Consulting, 2021). 유네스코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문화·창의산업의 총 부가가치가 약 7,500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는 이 분야 일자리 1,000만 개 이상의 손실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체로 불안정하거나 계약 자체가 부재한 직업적 특징으로 인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2020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의 기술 수요를 살펴본 결과, OECD는 해당 분야에서 취업자 수

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으로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을 꼽았으며, 5월과 8월에 ‘이 분야의 온라인 구인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60%에서 80%까지 감소했다’고 언급했다(2021a).

현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에 있는 다양한 종사자들에 대한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문화·창의 분야의 취업기회는 계속 부진한 상태로 머물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은 더욱 역설적으로 변했다. 현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에 있는 다양한 종사자들에 대한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문화·창의분야의 취업기회는 계속 부진한 상태로 머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수립자들은 전체적인 문화적 가치 사슬을 고려해 교육, 훈련 및 일자리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을 보장해야 한다. G20 문화장관회의의 로마 선언문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신호를 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의성, 디지털, 기술, 관리, 접근성 관련, 중재 및 환경 관련 새로운 역할을 갖춘 문화·창의적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운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사회와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스트리밍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증가를 고려하여 기회와 수입의 분배를 중요한 당면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문화·창의분야의 생존력과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게다가 다양한 문화 고용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편익을 법적으로 안정되게 도입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삶의 질과 적합한 일자리

문화 예술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급여 수준이 높은 고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 보장 및 복지는 물론 양질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창의 생태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늘이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예술에 대한 가장 큰 보조금은 정부, 후원자 또는 민간 부문이 아니라, 무급 또는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예술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Neil, 2019). 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10장을 참조.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공통적인 어려움과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장시간 혹은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프로젝트별 계약, 막판에 확정하거나 취소하는 불합리적인 업무 구조,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압박 속에서의 작업,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운 환경 등이 그 예이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비공식적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을 통해 일하는데 여기에는 노동에 대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보수(그리고 심지어 비급여), 축소되거나 아예 부재하는 퇴직 연금, 사회안전망이나 병가 부족 등과 같이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계약 조건 등이 포함된다. 예술가의 웰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호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44%가 보통에서부터 심각한 수준의 불안감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15%가 보통에서부터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다(Van den Eynde et al., 2016).

이러한 특성이 문화 관련 고용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상황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정신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발생가능한 모든 불안정한 요소를 확인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 대응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글상자 1.3). 이런 맥락에서 아일랜드는 2020년 예술과 문화 회복에 대한 일련의 권고안을 통해 이 이슈를 선도해 왔다.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장시간 혹은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프로젝트별 계약, 막판에 확정하거나 취소하는 불합리적인 업무 구조,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압박 속에서의 작업,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운 환경 등 공통적인 어려움과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여섯 번째 권고사항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공통되고 특수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전문적인 복지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Arts Council of Ireland, 2020a). 2021년 아일랜드는 정부의 국가 경제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사회 보호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예술가를 위한 기본 소득 보장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문화부와 노동부가 참여한 결과 코로나19 비상사태 때 제정된

### 글상자 1.3 • 양질의 근무 조건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통합적 접근법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계속해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 노동자의 사회 보장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코로나 이전에 권장했던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8년에 프리랜서 예술가들을 위한 특별 신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분야 간 다수의 이해당사자들과 접촉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퇴직, 장애보험, 건강보험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보험 기여금은 창의 활동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기본적인 사회 보장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창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권리는 크로아티아 프리랜서 예술가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은퇴 및 건강보험 담당 공공기관과 조율해 문화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통합적 접근법을 선택, 사회보험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예술가들의 권리와 직업 경력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조치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미화 2,2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이 배정되었다.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도입되었으며,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평등한 관행과 표준계약서를 위한 법률 상담도 병행되었다. 산재보험에 대한 예술가 납입금이 지원되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이 종합 지원 시스템은 단순한 재정적 혜택을 넘어선다. 이 시스템은 또한 예술가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 조건을 통해 스트레스의 근원을 제거하고 창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정신 건강에도 기여한다.

출처: Croatia QPR.

규정들이 2021년 8월 정식으로 법률화되었다. 사회보장 개혁 중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 이 분야 종사자들의 사회 보호 수준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스템을 통해 지급 일당을 산출할 때, 자격기간 전 12개월(자격기간 전 4주 대신) 간의 소득에 기초하도록 바뀌었으며, 병가 중 급여의 경우 질병이 발생하기 전 해의 1월 1일 이후 엔터테인먼트 근로자 연금 기금 최소 40일 납부를 전제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예전의 100일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 데이터 활용

데이터 수집과 정보 공유는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인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영향 평가를 개선할 수 있다. 나아가 보다 나은 정책 결정,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9조는 당사국들의 정보 공유 및 투명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데이터 수집과 정보 공유는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인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영향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결정,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 실린 당사국들의 보고에 따르면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수집은 지속적으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사국 대부분(69%)은 통계청과 연구기관들을 통해 지난 4년간 이러한 부문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문화정책을 평가했으나 이 수치는 선진국(87%)과 개발도상국(60%) 간의 불균형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 그림 1.9에 나타나 있듯이 지역 간 격차 또한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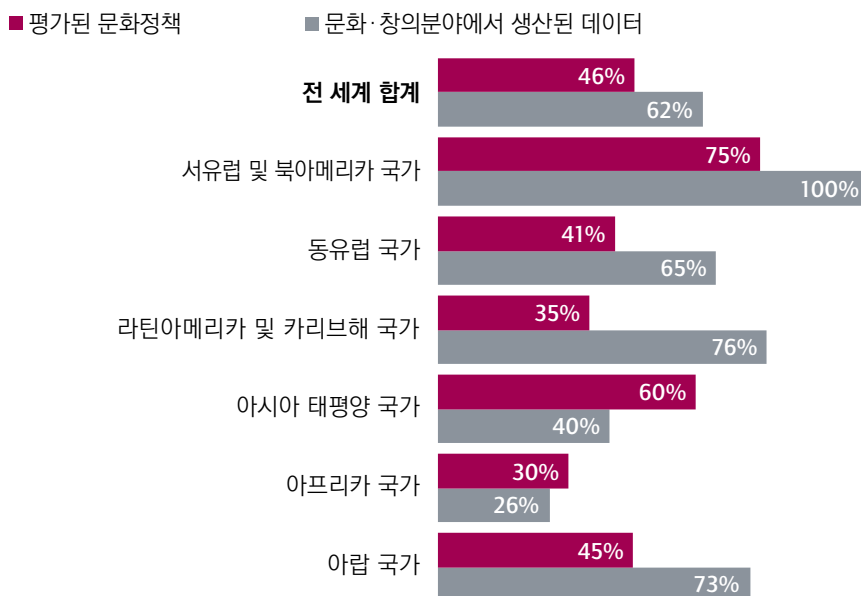
이는 문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하고 지식 관리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역량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 부문으로는 예술가와 창작자의 데이터베이스, 로열티와 저작권 관련 데이터, 문화 고용, 정확한 GDP 기여도, 문화 참여 및 소비 수준, 문화·창의분야의 환경 영향 종합 평가 등이 있다.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다른 관련 분야에서 이미 진행 중인 데이터 수집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함으로써 광범위한 정책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얻어야 한다. 또한 수집 전략과 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의 시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과 문화정책 평가와 관련해서는 5가지 핵심 요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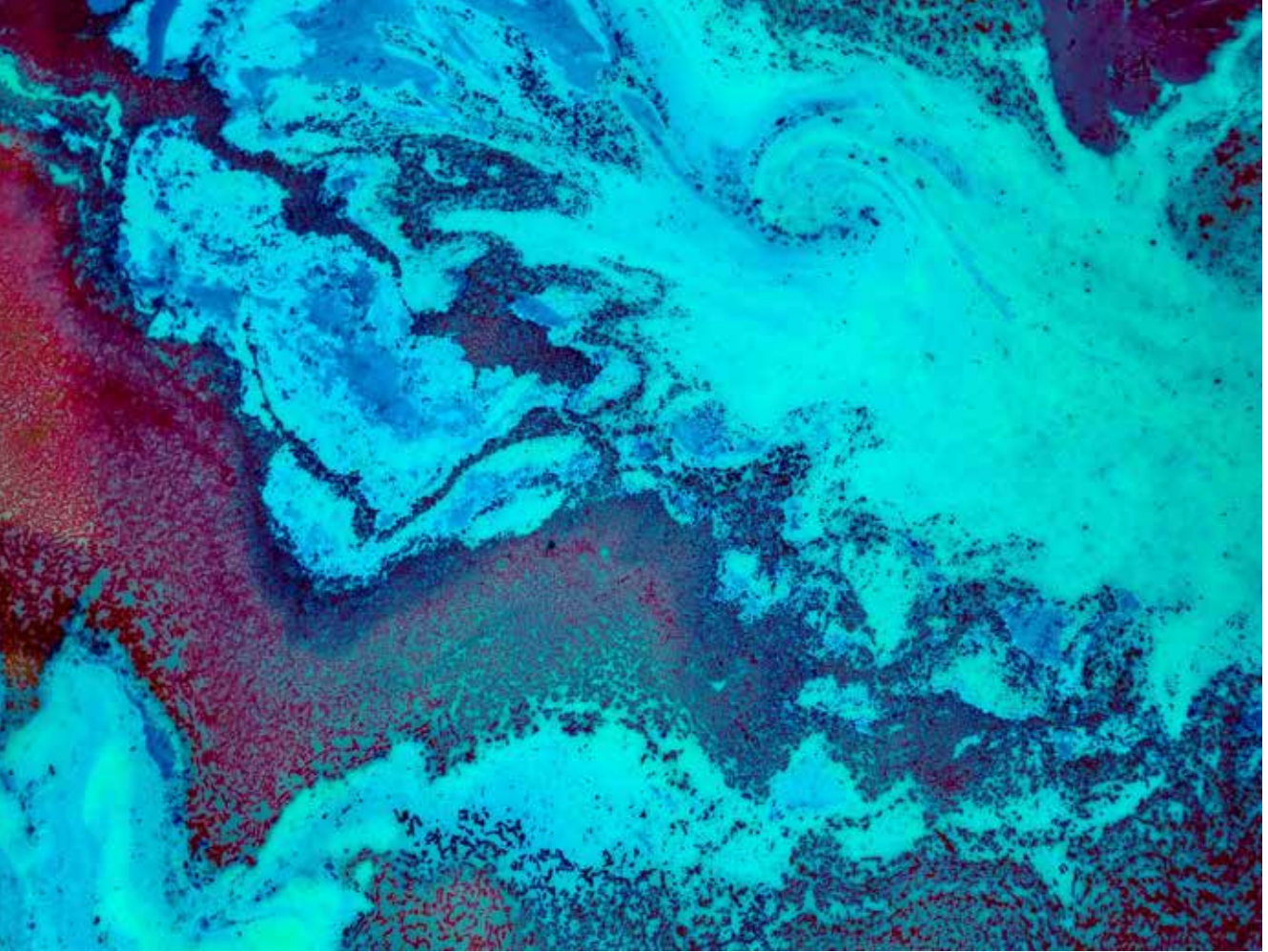
■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표준화의 지속적인 미흡.** 글로벌 표준화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 2020년 협약 사무국이 도입한 개정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협약에 대한 국가별 보고 및 모니터링을 간소화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선을 만들었다. 유네스코의 '문화 2030 지표' 역시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계속되는 도전은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잘 평가하고자 문화·창의분야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일관된 데이터 수집을 체계화하기 위해 당사국, 시민사회, 연구기관, 유네스코 및 기타 기관 사이의 지역적, 세계적,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림 1.9

지난 4년간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거나 문화정책을 평가한 통계 부서 또는 연구기관



출처: BOP Consulting(2021)



© Joel Filipe / Unsplash.com

# 우

리의 문명은 항상 도전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어느 때보다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은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혼란 속에서 결속, 연민, 문화 그리고 예술은 인류를 긍정적인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문화정책은 세심한 관찰, 팩트, 니즈, 대화를 바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이 사려 깊게 설계된다면 세계적 도전을 해결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조지아는 정부와 민간 파트너, 정책수립자, 예술가들로 구성된 생태계의 일원이다. 유네스코와의 협력(유네스코/유럽연합의 '문화·창의산업 강화와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 협력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범 프레임워크 지원' 프로그램 아래)을 통해 조지아는 창의 집단 홍보에 관한 지역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 자치 단체들과 동료간 협력을 해왔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조지아는 지역 당국을 위한 방법론과 정책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가의 창의 공간, 허브 및 집단을 위한 지원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문화·창의산업의 기초 연구와 인식 제고 활동에 힘입어 창의 산업을 위한 국가 전략 개발을 목표로 하는 크리에이티브 트윈스트 이니셔티브로 이어졌다. 관련 정책을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니즈에 맞게 설계한다면 상호작용, 학습, 창의성 및 참여를 촉구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크리에이티브 조지아는 기관과 개인 모두를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며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성과가 있었다. 트빌리시는 2021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되었고, 미디어 아트를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창의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문화·창의산업에 위대한 챕터의 시작을 의미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르마 라티아니

크리에이티브 조지아 국장

- **계속 진행중인 역량 구축, 교육, 기술 개발 및 지식 이전.** 코로나19로 인해 정책 수립이 복잡해졌고 그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식이 등장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동료간 학습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연구센터나 관찰기관을 통해 가치를 더함.** 이들은 역량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 정부 기관, 학술 기관 및 시민사회와 교차 포트폴리오 참여를 장려하는 훈련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가 이미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크로아티아의 개발 및 국제관계연구소, 슬로베니아의 예술문화센터 네트워크,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의 문화 및 관광 통계 개발 전략계획(통계부서 창설 포함) 등이 있다.
-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목적이 만들어짐.** 질적 및 양적 데이터 등 수집된 문화 통계와 정보의 기준선을 만들고, 그 수집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공공 투자가 그렇듯이, 문화의 경우도 설득력 있는 해석에 의존한다.
- **데이터 뒤에 사람이 있음을 인식.** 많은 당사국들이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수립자는 데이터에 의해 정책 개발과 의사 결정을 하되,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지식 생산 및 공유에 관한 몇 가지 고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글상자 1.4).

#### 글상자 1.4 • 지식 생산 및 공유에 대한 지역적 관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는 고무적인 데이터 수집 이니셔티브가 등장했다. 괄목할 만한 사례로서, 코스타리카는 문화청소년부가 유엔개발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가 문화권리정책(National Policy of Cultural Rights, 2014-2023)에 부합하는 문화 및 청소년 행정 기록 시스템(Culture and Youth Administrative Records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구 데이터를 세분화할 수 있는 양질의 통계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문화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보여준다. 코스타리카의 접근법은 '모든 숫자의 뒤에는 경험자들이 있다'라는 놀라운 전제에서 시작된다. 이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참여해, 통계를 수집 및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만드는 정부의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에콰도르에서는 문화 전망기구 설치와 종합문화정보시스템(Cultural Comprehensive Culture Information System, SIIC)의 시행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문화의 기여, 문화 고용, 공공지출, 문화 활동 및 시설, 예술과 문화 교육 등 문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했다. 종합문화정보시스템 도구는 사회, 경제, 교육 등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인, 단체 및 기업이 공공지원에 등록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예술가 및 문화관리자 고유 기록(Unique Record of Artists and Cultural Managers) 플랫폼을 포함한다. 또 다른 도구는 문화와 창의성의 경제적 기여를 측정하는 문화 위성 계정(Culture Satellite Account)이다. 전반적으로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는 문화·창의 이니셔티브의 공식화와 전문화 촉진을 위해 사용된다. 이들은 또한 조세, 인센티브, 관세 면제와 관련해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므로 정책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실험과 혁신을 위해 문화 데이터를 사용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로 멕시코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멕시코 창의 지도(Mapa Mexico Creativo)는 문화를 위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Culture)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문화 센터, 영국 문화원,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기금 및 미주개발은행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2017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공식 데이터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정량적 조사 및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여 멕시코의 창의경제를 지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세 가지 하이브리드 방법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후 지도와 데이터를 상호 시각화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향후 복제 가능하고 미래 지역 지도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의 개방형 방법론을 공유하는 툴박스도 만들어졌다.

출처: Costa Rica QPR, Ecuador QPR, Mexico QPR.

## 결론 및 권고사항

혼란은 비상사태를 야기하고, 비상사태는 혁신과 개혁을 불러온다. 코로나19 상황과 회복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정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다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고 문화·창의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분야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문화 분야 공공 투자 감소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MONDIACULT 2022)는 문화 정책을 전지구적 도전 과제에 적용시킬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광범위한 정책 스펙트럼에 걸쳐 공공재로서의 문화 통합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문화 거버넌스는 각 분야별로 따로 형성되지 않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협업과 교류를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통합적이고, 참여적이며, 횡단적인 과정이 많아질수록 정책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조정과 명확한 역할 및 책임이 필요하며, 이는 공식적인 입법과 역량 구축에 의해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와 더불어 협약은 문화·창의분야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결과를 가능케하는 탄력적이고 적용 가능한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다음 권고사항은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협약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부는 권한있는 기관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부문을 포함하는 다부문 간 다층적 협업을 향상함으로써 문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접근법을 장려해야 한다.
- 정부는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고, 전체 문화·창의 생태계에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계층의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정부는 문화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연관성을 고려하고, 디지털 적응, 성평등, 포용 및 기후 변화와 같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촉진에 대한 횡적 과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정책과 실행 계획을 선택해야 한다.
- 정부는 공공 투자 전략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민관 자금조성 메커니즘을 활용하며, 문화 고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교육, 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 정책을 설계하여, 문화·창의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보유해야 한다.
- 정부는 모두를 위한 사회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고 문화·창의분야 복원력 구축을 위한 복지 지원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 정부, 시민사회 및 연구 기관은 데이터 수집과 표준화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역량 구축 및 동료간 지식 교류를 조성하며, 증거 기반 정책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향상해야 한다.
- 유네스코는 통계연구소 및 기타 유관 국제·지역 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데이터 생성 및 검증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표 개발을 포함해 전세계적 차원에서 문화·창의분야의 지식 생산 및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문화·창의 분야에 대한 지식 생산과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데이터 수집 및 각국의 문화·창의 분야에 대한 통계 생성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미디어에서의 다양한 의견 보장

루이스 A. 알보르네스<sup>1</sup>

### 핵심 발견

- ▶▶▶ 2006년 이후 전 세계의 미디어 자유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정보 접근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2009년 40개국에서 2019년 126개국으로 늘어났다.
- ▶▶▶ 많은 국가들은 양질의 공공 미디어를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매체 (community-based outlets)와 지역 미디어를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 콘텐츠 쿼터는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도구이지만(당사국의 68%가 사용), 많은 국가의 방송사들은 지역 제작물 부족으로 인해 자국 콘텐츠 쿼터를 준수하는 데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 온라인 서비스는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에 비해 규제가 덜한 편이지만, 미디어 규제 당국은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문형 비디오 및 더 복잡한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관할을 넓혀가고 있다.
- ▶▶▶ 대부분의 당사국(87%)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소관을 가진 공공 서비스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디어가 유포하는 내용을 통해 특정 사회 집단의 부재, 과소 대표성 또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
- ▶▶▶ 미디어의 성차별은 스크린 안과 밖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디어의 성평등을 모니터링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증거에 근거한 대응 조치가 부족하다.
- ▶▶▶ 코로나19 팬데믹은 허위 정보의 확산, 언론 매체의 폐쇄, 특정 집단에 대한 책임전가로 이어졌다.

1. 마드리드카를로스3세대학교 연구조교인 요셉 페드로와의 협업으로 작성함.

경과

다양성 증진



**87%**  
당사국은 다양성을 증진하는 공공 서비스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음



**68%**는 자극 콘텐츠, 언어 및 사회 집단을 위한 쿼터를 사용함

지역 미디어 채널



몇몇 국가에서는  
1) 자금조달  
2) 허가권 완화  
3) 규제 폐지 등을 통해 지역사회 미디어를 지원함

모니터링 증가



규제 당국의 주문형 비디오에 대한 모니터링 증가

정보에 대한 접근



더 많은 국가들이 정보법을 적용하고 있음

2009년 40개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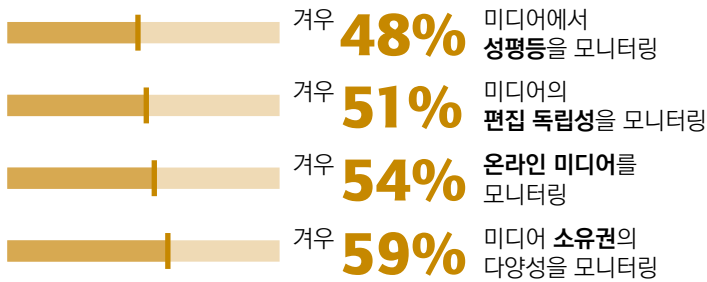


2019년 126개국으로



도전

국가별 모니터링 격차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미디어 채널과 프로덕션이 폐업함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는 감소함



지역 콘텐츠

콘텐츠 쿼터는 지역 제작물 부족과 지역 창작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해결책은 아님



미디어 독점

미디어는 종종 소수의 기업과 영향력 있는 가문들의 통제 하에 있음



대표성

여성, 소수 민족 및 장애인은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표현됨



소유권

미디어 소유권 집중의 제한, 투명성 보장 및 지역 미디어 지원



대표성

스크린 안과 밖에서 다양한 대표 대상의 설정



지역 제작물

미디어 매체가 콘텐츠 쿼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역 창작물을 재정적으로 지원



모니터링

미디어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에 투자

권고 사항



## 핵심 지표

### 미디어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 서론

오늘날에는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클릭 몇 번이면 전 세계의 문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아날로그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지역 콘텐츠의 생성, 접근 및 발견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네갈 출신의 기업인 아와 지라드는 아프리카 음악을 온라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2017년 범아프리카 음악을 위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도(Deedo)를 만들어 이 이슈를 직접 해결했다. 이 플랫폼은 1,200만 곡이 넘는 음악을 프랑스, 영국과 더불어 아프리카 6개국에 제공한다. 디도의 계획은 이 플랫폼을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19개국을 포함한 27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년 만에 디도는 아프리카 음악 산업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하나의 노래, 하나의 영혼'이라는 이니셔티브(사용자가 선택한 비영리 단체에 구독료의 5%를 기부하는 것)를 통해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사용가능해야 하고 또 이 콘텐츠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결국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재 뉴미디어 소비는 전통 미디어 소비의 두 배에 가깝다.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라디오를 제치고 음악을 듣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매체가 되었다. 그러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소비는 2012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라디오의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미디어 사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이후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텔레비전 시청률은 전 세계적으로 67%에서 85%로 상승했다(GWI, 2021).

#### 시리즈 및 영화는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하고 확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매체가 문화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만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들의 역할 역시 중요해진다. 미디어는 시청각적으로 해석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리즈 및 영화는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하고 확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이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창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미디어 시스템은 소수 집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하나의 행위자나 집단이

###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사회적 해석을 지배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해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다원적 미디어 시스템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는데 중요하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다양성과 미디어의 관계를 고찰한다. 미디어 다양성은 공공, 민간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콘텐츠와 관련된 범주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미디어 다양성 사슬에는 공급 다양성(소유권과 노동력의 다양성 포함), 콘텐츠 다양성(형식 또는 프로그램 유형, 인구통계학적 및 관점 다양성) 및 노출 다양성(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청중 노출)의 세 가지 범주의 연결고리가 있다(Napoli, 1999).

미디어 시스템의 다양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 세가지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AI-bornoz and García Leiva, 2019).

- 콘텐츠의 제작, 유통, 홍보 및 전시 등이 소수의 이해당사자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 콘텐츠는 가치, 정체성 및 미학과 관련하여 다중성(유형), 균등성(각 유형의 대표성) 및 상이성(유형 간 차이의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Stirling, 1998, 2007). 이는 외국 문화의 문화적 표현 뿐만 아니라 각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범위의 집단들을 반영해야 한다.
- 시민과 사회 집단은 자신이 선택한 광범위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의 창작과 유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민과 사회단체(그리고 그들의 접근권과 참여권)는 미디어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심장부라 할 수 있다. 각양각색의 미디어 매체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묘사해내고, 또 누가 접근하는지에 대한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은 사회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다양성의 여러 면모를 다룬다. 먼저 미디어 자유, 다원주의 등 미디어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와 더불어,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미디어 다양성 정책은 확실한 데이터 없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은 미디어 다양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장은 넓은 의미의 미디어를 다루지는 않지만 다중 플랫폼 환경에서 이용가능한 방송(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창작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공공 미디어 서비스(PSM) 중심이었던 2015년 및 2018년 글로벌 리포트와는 달리, 이 장

에서는 민간, 상업 및 커뮤니티 매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 일관: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심각한 도전**

**자유 - 다양성을 위한 필수적 구성 요소**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서문에 따르면 '사상,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더불어 미디어의 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이 사회 내에서 번영할 수 있게 해준다'. 다양한 사회집단의 표현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미디어 자원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2020년 195개국과 15개 자치령의 자유 상태를 평가하는 2021년 세계 자유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자유 및 독립 미디어의 존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그림 2.1).(Freedom House, 2021)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미디어 자원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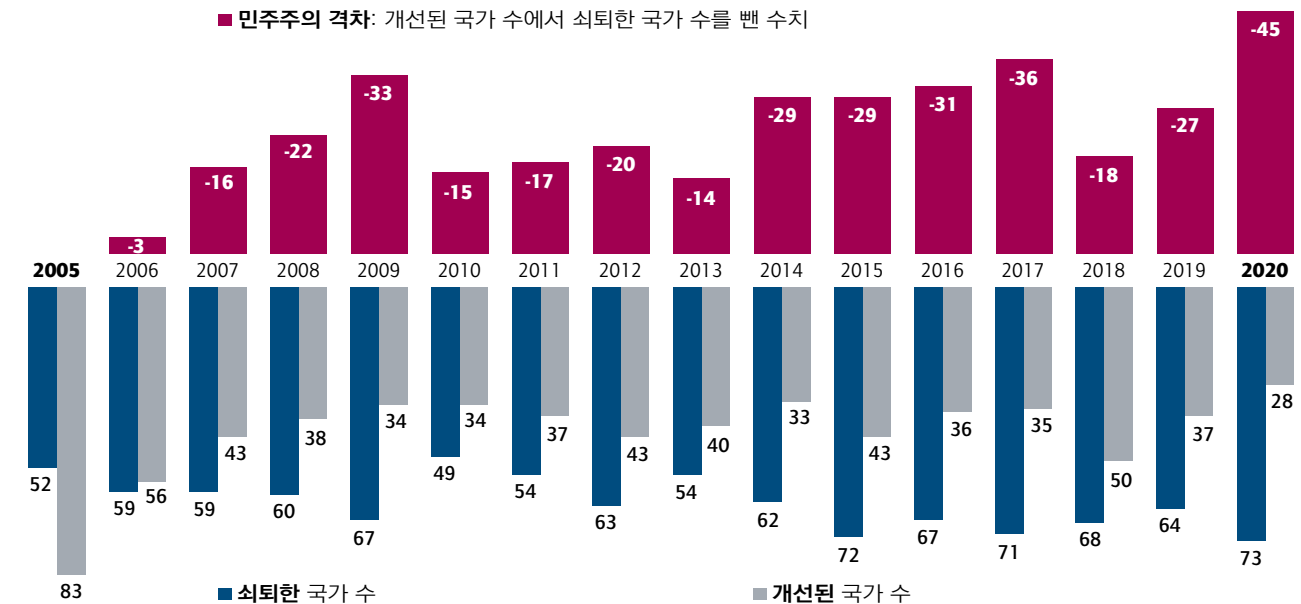
이러한 트렌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짜 뉴스의 확산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던 2020년에 심화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적어도 130개국에서 미디어가 제한되었음을 발견했다(RSF, 2021).

표현의 자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ATI)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는 국가의 수는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찾거나, 받고, 전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며, 유엔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의 세부목표 16.10(정보에 대한 공개 접근 보장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기본적 자유로 명시하고 있다(UNESCO, 2019c).

그림 2.1

**민주주의 쇠퇴의 15년**

지난 15년 동안 세계 자유 지수(Freedom in the World)가 매년 하락한 국가가 개선된 국가보다 더 많았다.



출처: Freedom House(2021).

2009년 40개에 불과했던 관련 법률은 2019년 126개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베트남과 짐바브웨의 정보 접근과 자유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협약 당사국들의 보고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국가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부에서 법안을 설계하고 그 시행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2009년부터 정보권리법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는데(World Bank, 2020a), 이는 아마도 2016년에 강력한 규제 시행을 위해 5년간 미화 1억 2,100만 달러를 정보부 예산으로 배정한 덕분일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64개 구역에서 교육 매뉴얼과 공익 광고 등이 만들어졌으며, 그 시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2만 명 이상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 임원이 채용되고 임명되었다. 또한 모든 수준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러나 디지털 지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사생활 보호권 사이에 상충되는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보 요청을 추적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4년 동안 일부 국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보 제공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문화적 표현의 자유 역시 확대되었다. 한편 이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와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 전역의 홍보 활동을 통해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높이고, 온라인 증오, 허위 정보 및 선전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강화' 하기 위해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와 민주적 대화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만든 이유이다. 프랑스에서도 2018년 정보 조작을 방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 벨기에, 불가리아 및 핀란드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증가를 위한 정책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소비하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지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사생활 보호권 사이에 상충되는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 누가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보를 공유한 배후에 누가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미디어 지형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소유권이 소유의 손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미디어 다원성 및 미디어 자유 센터는 28개 유럽 회원국과 알바니아 및 터키에 대한 2018-2019년 결과를 담은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Media Pluralism Monitor)> 제3판을 발간했다(Brogiet al., 2020). 이 연구 결과는 기본적 보호 및 시장 다원성, 정치적 독립성 및 사회적 포용성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걸쳐 미디어 다원성과 미디어 자유가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또한 뉴스 미디어와 온라인 영역에서 미디어 소유권이 집중된 것이 미디어 다원성에 큰 위험을 야기한다고 결론지었다.

안타깝게도 미디어 산업에서 독과점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2019년

말 발표된 국경없는기자회의 연구와 미디어 소유 모니터(Box 2.1) 데이터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미디어는 경제 및 정치 엘리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나 가족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시청자 집중과 크로스 미디어 소유권, 소유권 집중에 대한 규제 보장의 결여(집중과 효과적인 구현을 제한하는 법률의 관점에서), 미디어 소유자의 다른 분야 참여, 그리고 미디어 소유자의 투명성 부족과 미디어 기업의 재무 정보 부족 또한 확인했다(RSF, 2019).

소유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미디어 독점 및 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며, 이용 가능한 매체의 다양성을 장려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합병이 미디어 다원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미디어 합병 제도가 수립되었다.

### 글상자 2.1 • 미디어 소유권 모니터

미디어 소유권 모니터(MOM)는 미디어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경없는 기자회에 의해 시작된 세계적인 연구 및 지지 이니셔티브이다. 모든 관련 매스미디어(언론, 라디오, 텔레비전 부문 및 온라인 미디어)의 소유자 명단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지도작성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주요 미디어 소유자와 회사를 조사하여 미디어 소유권뿐만 아니라 시청자 접근 범위와 의견 형성에 관련된 미디어 유형과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디어 소유권 모니터는 또한 시장 상황과 법적 환경을 정성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미디어 다원화에 대한 위험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를 제공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디어 소유권 모니터는 미디어 소유권 집중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21개 국가가 미디어 소유권 모니터에 가입되어 있다.

출처: RSF(2021)

합병을 완료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은 통신기후행동환경부 장관(the Minister for Communications, Climate Action and Environment)에게 통보해야 하며, 장관은 일정 조건 하에서 미디어 합병을 승인, 거부 또는 허용할 수 있다.

### 노동 인구 다양성 이슈는 비즈니스 문헌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데 다양성이 '비즈니스에 좋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누가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역시 중요하다. 노동 인구 다양성 이슈는 비즈니스 문헌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데, 다양성이 '비즈니스에 좋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양한 성별이 대표직을 구성하는 것은 수익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맥킨지의 연구는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이 상위 4분위에 있는 기업은 하위 4분위의 기업보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25% 더 높았다'는 점을 보여준다(Dixon-File et al.,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인력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실질적인 개선은 규제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규제 당국은 스크린 상의 다양성 이슈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성평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크린 바깥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Block, 2021). 반면 영국의 경우 인력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은 영국방송통신규제기관(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의 소관이지만, 비평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벤치마킹과 심층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신규제기관이 미디어 인력 다양성의 이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캐나다(글상자 2.2)와 호주와 같이, 인력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긍정적인 국가 사례도 있다. 공영방송인 호주방송사는 스크린 상은 물론이고 스크린 밖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 글상자 2.2 • CBC/라디오 - 캐나다 - 다양성, 포용성 및 반인종주의

2019년 12월부터 CBC/라디오-캐나다의 다양성과 포용성 워킹 그룹은 대표성 및 직장 문화 영역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이어진 반인종주의 시위의 물결로 인해 CBC/라디오-캐나다는 반인종주의 공약과 다양성 및 노동 포용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CBC/라디오-캐나다의 대표인 캐서린 타이트(Catherine Tait)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캐나다와 국영방송사를 포함한 많은 기관 내에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보도자료에는 보다 대표성 있고 포용적인 인력 구축을 위한 야심찬 신규 채용, 유지 및 승진과 같은 목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표성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성 및 포용성 활동에 의해 지원된다.

- 관리자의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교육 의무화
- 3개 대상 집단(원주민, 가시적인 소수 인종집단 및 장애인) 안팎의 후보자를 보다 잘 식별하기 위한 자원 투입
- 포용적인 뉴스룸과 원주민 지역사회의 콘텐츠 및 보도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제공

이 성명은 직원과 콘텐츠 모두에 현대 캐나다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8-21 다양성 및 포용 계획을 언급함으로써 마무리되며, 이를 통해 주요 다양성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까지,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작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사실적(factual) 외 주제적 프로그램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의적 역할을 다양성 배경을 지닌 사람이 맡게 될 것이다.

출처: CBC/Radio-Canada(2020).

데이터와 목표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표 기반 조치는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소유권 제한에서 책임 보장까지

미디어 소유자와 관리자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회를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보 제공과 지식 전달의 능력을 가진 미디어를 공공재로 볼 수 있다는 더 폭넓은 개념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미디어 소유자와 관리자는 미디어 소유권, 자금 출처, 인력 채용 정책 및 프로그래밍 전략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민에 대해 책임이 있다(OHCHR, 2011).

그러나 그러한 책임기준이 항상 존중되지는 않는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방송 미디어 소유자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국가 차원에서 이를 촉진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책임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언론위원회, 윤리강령, 옴부즈퍼슨 등) 연구에 따르면 공공 미디어는 민간 미디어에 비해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해 선진국에서 더 큰 규제를 받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위스 공영 방송사는 옴부즈맨을 고용해야 하며, 네덜란드는 옴부즈맨 위원회를 설치했다(Eberwien et al., 2018). 공공 부문에 준하는 미디어의 책임에 관한 조치의 중요성과 시행을 온라인과 국경을 넘어 운영하는 언론사를 포함해서 세계 모든 지역의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2016년 노르웨이가 제정한 미디어 소유권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유형의 미디어 회사가 책임감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범을 정한 좋은 사례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개인 소유이지만 국가로부터 언론 지원을 받는다. 노르웨이 미디어 당국은 이 법을 통해 소유권 구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화한 다음 해당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 법은 일간지,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전자 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협력 계약을 통해 이들 회사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듯 노르웨이는 단순히 소유권 제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에게 그들이 소비하는 미디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극소수 국가만이 소유권 집중을 제한하거나 미디어 소유권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미디어 소유권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모든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소유권 확인 신고서(소유자가 공직을 맡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포함)를 매년 문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 제공자는 또한 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이전 연도에 받은 자금의 금액과 사용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2018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따라 이 정보는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는 한 방송사가 여론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단일 방송사와 그 계열사가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미디어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소유권의 집중을 제한하거나 투명성을 보장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는 이 이슈가 보다 광범위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Mitch Rosen / Unsplash.com

# 다

양성은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소관하는 일의 핵심이다. 우리는 115개의 공공 미디어 서비스(PSM) 기관들을 대표하여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160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모든' 시청자가 자신의 생활, 문화, 경험을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표현하거나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회원들은 유럽의 창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매년 콘텐츠에 190억 유로(미화 21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 TV 콘텐츠만해도 150만 시간 이상을 제작하고 있다. 유럽의 공공 서비스 미디어 기관에서는 많은 분량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차별화된 내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장려한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공영방송이 가장 먼저 나서 예술가 및 그들의 경험에 발언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 취소된 예술 행사를 돕고, 예술가들의 노출을 확대했다.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협약은 또한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오늘날 세계화된 플랫폼 환경에서는 미디어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원하는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협약은 이 기본적 가치가 문화적 표현을 번영시킬 수 있다고 글로벌 사회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콘텐츠 검색을 가능케하고, 균형잡힌 보도를 보장하며, 전 세계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엘 큐런  
유럽방송연합 사무총장

##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 실행 가능성: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 매스컴 또는 '근접' 미디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매스컴은 종종 공익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고 전형적으로 시골이나 빈곤 도시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방송은 공공 서비스와 상업 미디어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처럼 이 방송은 시민 참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UNESCO, 2011),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물론 주류 미디어에서 향상을 수 없는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지역사회 미디어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지속적인 재정 확보의 결핍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 산하 국제 미디어 지원 센터가 사하라 인근 아프리카 지역의 근접 라디오 방송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Myers and Harford, 2020).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중반까지 실시한 우간다와 잠비아의 8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프로그램을, 특별 쇼 방송,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돕기 위한 공중 보건 메시지를 방송하며 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중요성을 증명했다.

지역사회 미디어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지속적인 재정 확보의 결핍으로, 이는 폐업과 그에 따른 미디어 다원주의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8개 라디오 방송국은 게스트가 무료 출연하는 토크쇼, 정부가 지불하는 공공 방송, 시청자가 충분히

1. '지역 라디오'라는 용어는 특정 지역 또는 언어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유형의 영리 또는 비영리 커뮤니티 및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일컫는다.

많은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상업 광고와 지원금 등 다양한 재정 조달 덕에 더욱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라디오 방송국이 상업적 혹은 유료 콘텐츠와 자체 독립 프로그램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금의 필요성으로 인해 지역사회 미디어가 독립성을 포기하는 부분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해당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은 자원 조달을 위해 부가 사업을 하거나 지역사회 기금을 모금하여 광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라디오 아카데미인 도이체벨레아카데미(Deutsche Welle Akademie)가 개발한 모델에 따르면 미디어의 존립은 수익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한 미디어 매체가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논의한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은 자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유리한 법적 체계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방송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방송국이 존재함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네트워크의 일부이기 때문에 존속 가능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주요 목표가 수익창출이 아니라 운영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자 하는 전환기의 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중소 미디어 매체에 특히 유용하다. 이 모델은 경제, 정치, 콘텐츠, 기술 및 지역사회 등 여러 차원에 걸친 미디어 생존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지표를 식별해왔다(Deselaers et al., 2019; Moore et al., 2020).

지원금 문제와 별개로 지역사회 미디어는 종종 당국이나 규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행동의 제약을 받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예: 방송권역 또는 광고에 대한 제한). 일부 규제는 지역사회 미디어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단지 기존 규제가 지역사회 미디어의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지난 4년간 공공 정책이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의 생존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하나의 사례는 방글라데시로 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결과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의 수가 증가했다(글상자 2.3).

### 지역사회 미디어는 종종 당국으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일부 나라에서는 국가가 지역사회 미디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공동체 미디어 기금(CBF)이 원주민 및 소수민족 방송 서비스와 디지털 커뮤니티 방송을 위해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2020년 동안 지역사회 방송 재단은 232개 단체에 미화 약 1,550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 글상자 2.3 • 지역사회 라디오의 설치, 방송 및 운영 정책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을 위해 보다 수용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고 시도해왔다. 2008년 지역사회 라디오 설치, 방송 및 운영 정책은 2017년에 업데이트되었으며, 새로운 버전은 2018년에 발표되었다.

지역사회 라디오는 신탁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국은 하루 총 방송 시간의 10%를 라디오 광고에 할애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은 또한 기존 및 미래의 모든 라이선스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영구 라이선스를 통해 소유자는 두 개의 방송국을 더 설립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지역사회 방송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방글라데시에는 현재 17개의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18번째 방송국이 최종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처: Bangladesh QPR.

2019년 아르헨티나는 수년간 '임시적으로' 운영이 허가된 라디오 방송국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데 이어 2020년 중반 국가통신국에서 양질의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지역 사회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과 원주민 방송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쟁 개발 기금 1백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ENACOM, 2020).

페루와 멕시코 또한 소외된 사회 집단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페루의 지역 사회 라디오 방송국은 17개에서 62개로 증가했고, 지역 사회 텔레비전 방송국은 2개에서 23개로 늘어났다. 이는 방송사업 운영 비용 납부 면제, 그리고 처리 경비에 대한 할인 및 면제 등의 조치를 제공하는 허가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 데 따른 것이다(Peruvian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2020).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원주민 및 지역 사회 라디오 방송국을 지원하고, 유네스코와 유럽연합 프로그램인 '문화·창의산업 강화와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 협력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지원'에 따라 원주민 콘텐츠를 공공 및 상업 미디어에 결합하려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원주민 콘텐츠의 통합을 촉진하는 규정을 개발하고, 원주민 및 지역 사회 라디오 방송국을 인가해 미디어를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사항과 과제는 다음과 같은 다른 맥락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라디오 라이선스 신청 과정의 복잡성; 라디오 라이선스 신청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종종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잠재적 이점보다 크다는 점; 라디오 방송국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부족; 그리고 상업 및 대중 매체에서 원주민 콘텐츠의 결합에 대한 표준 규정의 부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내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을 위한 원칙 선언문'이 다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문화다양성 - 지역 사회와 미디어가 제작한 콘텐츠 포함뿐만 아니라-이 또한 원주민, 아프리카 후손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의 직접 참여로 표방되어야 하며, 이들의 참여 영역은 리더십, 오피니언, 프로젝트 디자인, 의사 결정 및 기타 관련 직책을 아울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3월, 선언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제공하기 위해 후속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공공 미디어, 정부 기관, 시민단체, 원주민 및 지역 사회 미디어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참가자들이 시청각 제작, 성평등 접근법, 주류 언론으로 진입,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 및 클라우드펀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원주민 및 지역 사회 라디오를 위한 가상 학교를 설립하도록 이끌었다.

코로나19의 전면적, 장기적 영향을 여전히 파악해야 하지만, 미디어 집중과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알제리, 캐나다, 콜롬비아, 핀란드, 프랑스,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스웨덴 및 동티모르 등의 나라들도 자국 내에서 지역 사회와 독립 언론 매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또는 규제 조치를 사용했다. 이는 더 많은 지역 기반 행동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소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당사국 사이에 널리 퍼져있음을 나타낸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활발한 역할을 한 지역 사회 기반 미디어 사례와 독립 및 지역

사회 기반 미디어를 지원하는 추세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기상황으로 인해 많은 미디어, 특히 지역 사회 기반 미디어가 유통 및 광고 부족으로 인해 폐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지역 사회 미디어 협회가 2020년 4월 지방 언론사의 폐업을 막기 위해 정부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Sweney, 2020).

그와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으며, 보건 위기 보도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이는 지역 목소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어졌다(Media Diversity Institute, 2020). 그로 인해 신뢰할 만하고, 책임감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미디어를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 위기의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가운데, 미디어 집중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제한할 필요성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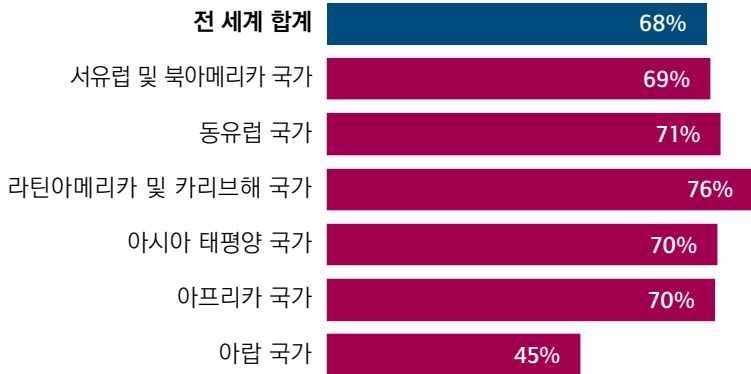
###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대표성, 창작 및 유포 이슈 해결

미디어 다원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작자가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방송하는데 그친다면 미디어 운영자의 수의 증가가 곧 콘텐츠의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콘텐츠를 규제하거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또는 법령이 소관하는 권한을 가진 공공 서비스 미디어를 설립하여 미디어에서 시청각 콘텐츠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당사국의 87%(선진국 94% 및 개발도상국 84%)가 이러한 공공 서비스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리포트 제2판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2

시청각 미디어 관련 자국 콘텐츠 규제를 가진 당사국



출처: BOP Consulting(2021)

대부분의 당사국(68%)에는 시청각 미디어에 대한 자국 콘텐츠 규제가 존재하며, 여기에는 유의미한 지역적 차이가 없다(비록 아랍 국가들은 절반 미만만이 콘텐츠를 규제하며, 이는 다른 지역 국가들이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규제를 가진 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림 2.2)

콘텐츠 규제는 여러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모든 형식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 다른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열 위원회가 그들과 상반된 의견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1) 지역 및 지방 방송사, (2) 언어적 다양성, (3) 소외 집단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래밍 및 (4) 사회 문화 프로그래밍을 지원함으로써 편성에 있어 콘텐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지원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당사국들은 사회 문화 프로그램(어린이, 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요구와 기대를 가진 인구 집단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한다고 보고한다. 반면 소외된 집단을 위한 언어 다양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데 개발도상국이 특히

이런 경향이 심하다(표 2.1). 이러한 경향은 특히 소외된 집단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소외된 커뮤니티에게 그들을 위한 미디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해야겠지만, 주류방송에서도 이들을 다루며 다수-소수자 격차를 줄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글로벌 리포트의 이전 두 에디션에서 언어에 대한 강조가 핵심 트렌드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지원에 비해 사회문화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원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하게 유지되는 지역 콘텐츠 쿼터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서 지적했듯이, 콘텐츠 쿼터는 각 국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수단이다(UNESCO, 2018). 쿼터제는 유럽 내 상영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할리우드 영화에 대응하기 위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영화 시장에 현지 제작 작품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입하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1927년 영화 현장(Cinematograph Films Act of 1927)을 통해 영화관의 스크린 쿼터를 설립한 영국이 선구자라 할 수 있다 (Albornoz and García Leiva, 2019).

표 2.1

방송 편성의 콘텐츠 다양성을 촉진하는 정책 및 조치

	지역 및/또는 지방 방송사	미디어 프로그래밍의 언어적 다양성	소외된 그룹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래밍	사회문화 프로그래밍
전 세계 합계	68%	60%	54%	74%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81%	75%	88%	94%
동유럽 국가	59%	53%	47%	65%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71%	47%	41%	82%
아시아 태평양 국가	40%	50%	50%	60%
아프리카 국가	74%	74%	52%	70%
아랍 국가	73%	45%	45%	73%
선진국	71%	68%	71%	77%
개발도상국	67%	56%	46%	73%

출처: BOP Consulting(2021)



자국 콘텐츠 쿼터는 수십 년 후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적용되면서 증가세를 보였고,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동일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원래 지역에서 제작된 작품들의 대중적 접근 보장만을 목적으로 했던 콘텐츠 쿼터의 논리는 현재 일부 국가에서 특정 언어, 지역 독립 제작자 또는 특정 텔레비전 장르를 선호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모든 지역의 국가들은 콘텐츠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그림 2.2). 그러나 콘텐츠 규제가 적용되는 미디어 유형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상파 TV, 유료 TV, 라디오 및 심지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쿼터도 가지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 중에는 어떤 유형이든 이 분야에서 콘텐츠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독립 제작자들을 지원하고 외국 콘텐츠 소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몇 가지 쿼터 기반 제도를 시행했다. 예를 들어 '해외 프로그램 쿼터'는 반년 단위로 외국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가 해외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단일 국가에서 제작된 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다른 제도는 독립 제작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국 총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로 의무 편성하여 제작자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이 제도는 2004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성공한 거래지침(Terms of Trade)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지침은 상업 방송사가 독립제작자들에게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의 독립 프로덕션 분야가 텔레비전 프로덕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Oliver and Ohlbaum, 2018).

우루과이의 시청각 미디어 규제는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과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에게 자국에서 제작하거나 공동 제작하는 작품(광고와 자체 홍보 제외)을 전체 프로그램의 60% 이상 할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자국의 콘텐츠 쿼터는 수십 년 후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적용되면서 증가세를 보였고,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동일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방송 전파로 로컬 음악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확립된 지 1년 후 우루과이 음반 제작자 협회는 라디오에서 로컬 아티스트의 출연이 방송시간의 30% 이상까지 늘었다고 밝혔다(EI Observador, 2018). 우루과이는 또한 '시리즈 우이(Series Uy)'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고

미화 114,000 달러의 상금을 걸고 자국 소설 창작의 활성화를 시도중이다.

나미비아 역시 자국 미디어 수단을 통해 자국 작품들을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유럽연합 프로그램인 '문화·창의산업 강화와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협력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지원'에 따라, 교육 예술 문화부는 지역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나미비아의 경우 2018년 방송 강령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콘텐츠 프로그래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 글상자 2.4 • 우간다 - 방송 미디어에 있어서 지역 콘텐츠의 증가

2013년 우간다 통신위원회(Uganda Communications Commission, UCC)는 모든 무료TV 방송사가 지역 콘텐츠 수준을 높이고, 국가 문화,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증진하며, 고용 창출 및 지역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훈령을 발표했다. 인가받은 무료 지상파 방송사는 황금 시간대에 평균 70%의 프로그램을 우간다 콘텐츠로 구성해야 한다. 그 70% 중에서 50%는 드라마 프로그램, 10%는 지역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5%는 스포츠 프로그램, 그리고 5%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인가받은 유료 TV 방송사는 매년 최소 20%의 우간다 TV 콘텐츠를 보장해야 한다. 2019년 우간다 통신 위원회는 뉴스, 시사, 종교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지역 콘텐츠 측정 방법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우간다 미디어에서 현지 콘텐츠의 비중은 2018년 평균 30%에서 2019년 말 50%로 증가했다.

이렇듯 안정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이 분야의 지원금 부족을 지적하고 대부분의 자국산 시청각 콘텐츠가 품질이 낮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우간다 통신위원회, 우간다 전국방송협회 및 우간다영상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지역 콘텐츠 쿼터에 대한 간담회에서 몇 가지 이슈가 제기되었다. 콘텐츠 제공자들은 무료 방송사가 송출하는 저렴한 외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과 자국 콘텐츠에 행해지는 높은 수준의 저작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자국 콘텐츠 제작 비용이 높은 점, 그리고 국제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2020년에는 이러한 비판을 해소하고 양질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우간다 제작사와 개인 제작자들이 장편 영화,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텔레비전 드라마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간다의 시청각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과 콘텐츠 제작 향상을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지원금 신청에 60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초기 기금으로 약 20만 달러가 조성됐으며, 우간다 통신위원회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미 시작했다.

출처: UCC(2015, 2020 and 2021), Glencross(2013), Ssempijja(2013), Mutegi(2017), Balancing Act(2019).

인가받은 방송국이 지역 콘텐츠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나미비아 통신 규제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994년 저작권법 개정은 지역 콘텐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 개정안은 나미비아 창작자들의 작품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이들이 예술 작업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는 방법들을 포함하여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지역 콘텐츠 또한 나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콘텐츠 쿼터를 실현하는 것만이 마법의 해결책은 아니다. 첫째, 콘텐츠 쿼터만으로는 아티스트의 재정적 성공을 자동적으로 성취할 수 없다. 둘째, 주목받는 시청각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스튜디오 쇼와 같은 작품을 구입하거나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그 결과, 많은 방송사들이 자국 콘텐츠 쿼터를 준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콘텐츠 쿼터의 시행뿐만 아니라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에 점점 더 관심을 돌리고 있다(글상자 2.4).

코로나19 팬데믹의 끔찍한 결과 중 하나는 진행 중이던 시청각 제작이 전 세계적

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몇몇 정부는 자국 콘텐츠 쿼터를 중단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고, 이는 자주 중요한 사회적인 논쟁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상업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가 12개월 상당의 상업 방송세를 환급받았으며, 무료 및 유료 텔레비전 방송사의 자국 드라마, 어린이 및 다큐멘터리 콘텐츠 쿼터를 2020년에 한해 중단했다. 호주 콘텐츠를 55% 편성하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제작 중단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지만, 자국 생산자들 사이에는 쿼터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콘텐츠 쿼터를 간소화하게 되면, 제작 산업 내에서 4,600개의 일자리와 141시간의 문화적으로 중요한 콘텐츠가 손실될 수 있다(Karp, 2020; Meade, 2020).

콜롬비아에서는 자국 콘텐츠 쿼터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평일 황금시간대 지역 콘텐츠 비중이 70%에서 20%로 줄어들었다. 이는 여러 미디어 이해당사자들(콜롬비아 배우 협회, 제작자 및 학계)과 정당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조치는 나중에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 의해 뒤집혔다. 판사들은 자국 스크린쿼터 축소가 대중 통신에 따른 급여 권리에

영향을 미쳐, 시청각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인, 출연자 및 작가 등의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위기가 지역 텔레비전 채널들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그들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확대를 승인했다.

일부 국가에서 임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쿼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포트 2018년 출판물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지역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으로 콘텐츠 쿼터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은 반면, 해외 콘텐츠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움직임은 뒤쳐져 있다. 이런 트렌드는 콘텐츠의 언어적 다양성을 향후 장려함으로써 일부 역전될 수 있다고 보인다.

###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 콘텐츠 쿼터를 위한 새로운 영역?

모든 지역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무료 TV 및 라디오에 비해 유료 TV 및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표 2.2). 이는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와 공영 방송 서비스를 위해 설계된 콘텐츠 쿼터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표 2.2

시청각 서비스를 위한 자국 콘텐츠 쿼터

	무료TV	유료TV	라디오	주문형 비디오
전 세계 합계	58%	34%	53%	30%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92%	81%	85%	77%
동유럽 국가	84%	56%	72%	6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38%	13%	38%	3%
아시아 태평양 국가	55%	41%	55%	32%
아프리카 국가	57%	14%	46%	8%
아랍 국가	19%	6%	19%	6%
선진국	88%	71%	83%	73%
개발도상국	45%	18%	40%	11%

출처: BOP Consulting(2021).



© Kobe Subramaniam / Unsplash.com

## 인류

훌륭한 이야기들은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고, 어디에서나 사랑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를 보며 우리는 훌륭한 스토리텔링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다른 나라, 언어, 문화의 이야기가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실려 현지로부터 전달될 때, 이들은 전 세계 시청자들과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류의 테마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세계 도처에서 로컬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한다.

어쨌든 자원과 영상화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될 때 더욱 많은 신인 영화인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영화인들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창의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것이 넷플릭스가 새롭고 다양한 인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이유이다. 작년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커뮤니티 출신의 창작자들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창의적 형평성을 위한 넷플릭스 기금을 설립했다.

넷플릭스는 아프리카 영화 산업을 소개하려는 유네스코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영화 산업의 트렌드, 도전 및 성장을 위한 기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와 넷플릭스 단편영화 공모전인 '재해석된 아프리카 민간설화'를 포함하여, 예술 창의 콘텐츠 유통에 넷플릭스를 활용하기 위해 다른 투자를 보완한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우리 회원들이 스크린을 통해 그들 자신과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목소리를 발굴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신형 영화 제작자들에게 글로벌 규모의 시야를 제공하여, 영화 산업이 더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포용적으로 변화도록 다음 세대 영화인들을 위해 토대를 쌓는 것이다.

전 세계의 창작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지역 문화와 진정한 스토리텔링을 포용하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지속적인 유산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창의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리, 시간대 및 언어를 초월한 멋진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불러들여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 벨라 바야리아

넷플릭스 글로벌TV 부사장

이러한 유형의 수단에는 콘텐츠 쿼터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개별화된 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접근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가 지역 제작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이는 새로운 추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0년 말(Grece, 2021)까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가입자가 1억 4,000만명에 달했고, 공공 및 유료 TV 서비스의 콘텐츠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훈령(2018)은 유럽 작품 홍보와 관련하여 보강된 규칙들을 담고 있다(Albornoz and García Leiva, 2021). 제13조 제1항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가 '콘텐츠 목록 중 유럽 작품이 30%를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훈령은 또한 국가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직접 투자 및 국가 기금 출연을 포함하여 유럽 작품 제작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훈령 내용을 그들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정부는 넷플릭스나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5%를 유럽 영화와 시리즈에 투자하도록 규정하는 시청각 통신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이 중 70% 이상은 독립 제작자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40% 이상은 스페인어나 자치단체의 공용어로 제작된 영화에 할당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연간 수입의 20%에서 25%를 지역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 중 85%는 프랑스어 콘텐츠에 지출된다(EAO, 2020; Keslassy, 2021).

유럽 이외 국가들도 주문형 비디오 시장의 상승에 대응하여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규제 프

레임워크인 오디오 및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2020)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입형 주문형 비디오(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 목록의 30%를 지역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

호주에서는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이 가입형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20%의 지역 콘텐츠 쿼터를 부과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1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20년 11월 출범한 미디어개혁 녹색서(Media Reform Green Paper) 역시 스트리밍 서비스가 호주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지역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Australian Government, 2020).

###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운영자에게 현지 제작 콘텐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이다

캐나다의 경우 전통적 미디어 방송사들은 수입의 30%를 캐나다 콘텐츠에 지출해야 한다. 2020년 말 정부는 자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스포티파이 포함)이 수입의 일부를 캐나다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제안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위원회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업체가 의무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영어, 프랑스어, 토착 언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2</sup>.

2021년 2월 멕시코에서는 제작한지 25년 미만의 멕시코 창작물을 대상으로 가입형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15% 쿼터를 부과하는 연방 영화 및 시청각법을 새로 제정하기 위한 발의안이 마침내 상원에 제출됐다.

2. [www.canada.ca/en/canadian-heritage/services/modernization-broadcasting-act/faq.html](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services/modernization-broadcasting-act/faq.html)

이러한 법안은 주문형 비디오 회사들이 전 세계 작품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품 제작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한다. 이것은 더 다양한 콘텐츠가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에 오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작품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더 많은 관객들에게 매력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언어적 다양성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언어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지역 관객의 출신과 규모에 따라, 그리고 정보와 통신 기술의 사용에 따라, 미디어 시장의 기능이 언어적 다양성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유럽은 전형적인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유럽시청각기구(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EAO)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영어를 사용하는 텔레비전 채널의 존재감이 상당한 가운데에도 유럽연합 시민들은 텔레비전에서 평균 19개 언어를 접한다(EAO, 2018).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아랍어, 터키어, 만다린 중국어, 히브리어, 타밀어, 우르두어 등 35개의 다양한 방송 언어(TV 채널과 주문형 서비스를 합해서)가 사용되어 가장 다양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언어에 접근가능한 다른 유럽 시장으로는 스웨덴(27개), 독일(26개), 스위스(25개), 폴란드(24개) 등이 있다.

콘텐츠 쿼터는 프로그래밍에서 언어적 다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사용된다. 지역에 따라 그 수는 다르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선두에 있다. 그러한 조치로는 다른 언어로 제작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벨기에 등), 소수 언어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하는 자금 운영(스페인 등), 미디어에서 언어 콘텐츠에 대한 공유 쿼터제의 설립(캐나다 사례 등) 등이 있다.

이 보고서에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시청각 미디어의 언어 쿼터를 설정한 국가의 비율은 아랍권 38%, 아프리카 46%에서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78%, 동유럽권 84% 까지 다양하다. 이들의 경우는 미디어 편성에 있어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보다 지역적 격차가 두드러진다(그림 2.3). 일부 국가에서 보다 폭넓은 트렌드를 보이는 이러한 정부 조치는 다문화적이고 다국어를 사용하는 국민 특성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Uribe-Jongbloed and Salawu, 2018).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방송국은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상호 이해, 단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로망슈어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슬로베니아에서는 문화부가 소수민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수민족 언어 방송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 출신의 소수민족과 로마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위한 공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국가 미디어 협의회는 200여 국적의 자국 시청자를 위해 뉴스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18개로 늘렸다.

시청자의 국적과 규모에 따라 그리고 정보와 통신 기술의 사용에 따라, 미디어 시장의 기능이 언어적 다양성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19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2022-2032년을 국제 토착 언어 10년으로 선포한 데 이어, 10년간의 전 세계적인 행동 계획의 기반을 닦은 2020년 로스피노스 선언(차폴테펙, Chapoltepek)은 원주민 미디어의 발전과 인정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원주민 미디어에 의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토착 언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점유율을 높여 전체적으로 미디어에서 원주민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주민 이슈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미디어 창작을 위한 기술적, 조직적, 재정적 자원의 접근성 향상과 미디어 전문가의 역량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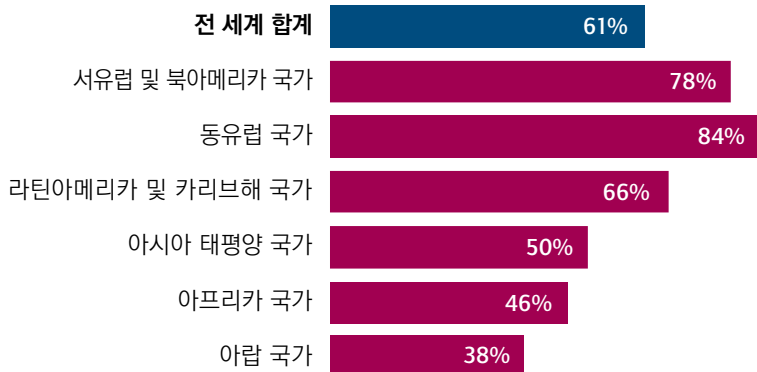
로스피노스 선언(차폴테펙, Chapoltepek)을 이끌어낸 국제 토착 언어의 해(International Year of Indigenous

Languages)의 맥락에서 공공미디어연합(Public Media Alliance, 공공 서비스 미디어 조직 관련 세계 최대 협회)은 공공 미디어가 현재 토착 문화 및 언어의 공정한 표현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고려했고, 전 세계 방송에서 원주민의 언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되는지 그 정도를 확인했다. 토착 페루에서는 47개 토착 언어 중 3개 언어(케추아, 아샤닌카, 아이마라)로 프로그램이 제작된다. 라디오 뉴질랜드는 영어 위주로 제공되던 서비스에 마오리족 언어인 테 레오 마오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MA, 2019).

몇몇 긍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 여전히 언어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종종 현실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는 단일 언어 및 단일 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Uribe-Jongbloed and Salawu, 2018). 토착 언어 미디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소수 민족 공동체는 미디어 지형에서 자국어의 존재를 확보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원주민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장애물 때문일 수도 있다. 원주민 지역사회가 미디어 지형에 접근할 때 직면하는 법적 장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몇 가지 사례가 있다. 2021년 6월, 과테말라에서는 원주민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법적 차별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청문회가 열렸다. 이 사례는 4명의 마야 원주민이 두 비정부 단체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으로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가 회부한 것이다.

그림 2.3

시청각 미디어의 언어 쿼터



출처: BOP Consulting(2021)

## 사회 집단의 미디어 표현: 일부 진전되었으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여성, 인종 및 종교 소수자, 이민자, 장애인, 50대 이상, LGBTIQ등을 포함한 다른 사회 집단의 문화 및 미디어 콘텐츠에서의 표현은 특히 민감한 이슈이다. 미디어에서의 차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고정관념에 따라 인물을 묘사하거나 또는 특정 집단이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과소 표현되는 방식을 포함한다.

미디어에서의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고정관념에 따라 인물을 묘사하거나, 또는 특정 집단이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과소 표현되는 방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지만 (World Bank, 2021) 미디어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 설령 장애인들이 등장할 때에도 이들은 피해자이거나 장애를 극복한 주목할 만한 영웅처럼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장애의 다양한 범위 또한 미디어 묘사에서 도외시된다(Media Smarts, no date).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사회 라디오에 장애인 출연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지역 사회 라디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공공 서비스 미디어에서 안정적인 임금 근로를 준비하며) 프로듀서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해 교육의 장을 제공했다(Stewart et al., 2019). 탄자니아에서는 영국방송협회(BBC) 미디어 액션이 탄자니아 젊은이들을 겨냥해 '니암비(Niambie, Tell me)'라는 쇼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장애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슈를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에 대한 오명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증명하였다<sup>3</sup>.

3. '라디오를 통한 관점의 변화(Changing views through radio)'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inclusive->

여성 또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과소 표현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젝트(Global Media Monitoring Project)<sup>4</sup> 6판에 따르면, 주체 및 원천으로서 여성의 표현은 2015년 24%에서 2020년 25%로 1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쳤다(GMMP, 2021). 플랜 인터내셔널(2019)이 발행하고, 20개국에서 56편의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를 분석한 '리라이트 허 스토리'(Rewrite Her Story) 보고서도 여성 캐릭터가 리더로 표현되는 비율이 27%에 불과해, 남성 캐릭터의 4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 여성들의 열망에 영향을 미친다. 세네갈 출신의 젊은 여성이 보고서에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젊은 여성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야망을 잃을 수 있다.'

성평등의 성취는 미디어가 의미있게 존재하고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방송에서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과소 표현되며,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특히 뉴스와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발언 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EBU, 2021). 픽션에서는 여성의 등장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과 연령 차별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여성이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화면상에서의 시간 점유율은 8%에 불과하며(Nielsen, 2021), 그 추세는 다른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계속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방송연합(EBU)의 성평등 및 공공서비스미디어 보고서 제3판은 더 나은 성별 균형 성취를 위한 유럽의 공공서비스미디어의 책무를 명확히 강조한다. 이 연구는 프랑스에서 성별에 따른 발언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시청각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것과 BBC가 시작한 '50:50 평등

[futures.org/tackling-stigma-and-discrimination-with-radio-shows/](https://futures.org/tackling-stigma-and-discrimination-with-radio-shows/)

4.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회(WACC)의 주요 활동과 세계 뉴스 미디어에서 성별에 대한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되는 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글상자 2.5), 모범 사례 및 학습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유럽 프로젝트 '미디어 산업의 진보한 성평등(Advanced Gender Equality in Media Industries)' 프로젝트 등 여러 좋은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EBU, 2021).

성평등 성취는 미디어가 의미있게 존재하고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성차별은 민간 미디어에서 더 심각한 경향이 있다(McCracken et al., 2018). 민간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부분을 표현해야 하는 의무나 경향이 덜한 편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최소한 뉴스 미디어에서만은 보다 성적으로 평등한 민간 미디어 분야가 되도록 선도하고 있다. 유엔 여성미디어협정(UN Women Media Compact)은 작품의 소재와 주제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다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이슈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민간 미디어 회사들을 한데 모았다. 미디어 파트너에게 성평등 및 여성 권리 이슈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성 이슈에 대한 보도 증가, 고정관념과 편견 타파, 미디어에서 여성의 수 증가(리더십과 의사결정 직위 포함) 등이 있다. 이 장에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보급을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또한 미디어 콘텐츠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픽션에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근의 활동을 보고했다. 불가리아에서는 전자미디어위원회가 2019-2020년 여성과 남성의 평등 촉진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통해 성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고 있다.

## 글상자 2.5 • 우리의 세계를 공정하게 대표하는 미디어 콘텐츠 - '50:50 평등 프로젝트'

'50:50 평등 프로젝트'는 우리의 세상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저널리즘과 미디어 콘텐츠 창출을 추구하는 혁신적 이니셔티브다. 2017년 영국 BBC 런던 뉴스룸에서 탄생한 이 프로그램은 BBC의 단일 프로그램에서 출발해 26개국 101개 파트너로 구성된 세계적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는데 현재는 670여개의 BBC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드라마, 스포츠, 뉴스 등 모든 장르에서 여성이 50%를 차지하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한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는 방송 기관, 신문 출판사, 고등 교육 기관 및 서로 다른 분야의 대기업을 포함한다.

BBC 직원은 각 파트너의 업무내용과 업무형태를 50:50으로 맞추고, 각 파트너 조직과 긴밀히 협력하여 50:50 시스템을 테스트할 소규모 파일럿 그룹을 만든다. 일단 시스템이 만족스러우면 BBC는 파트너가 조직 전체에 걸쳐 그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돕는다. 50:50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5(성평등)와 10(불평등 감소)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한다.

첫 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BBC팀은 전체에서 50% 이상의 여성 비율을 달성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처음보다 34% 증가한 것이다. 지난 3년간 모니터링 이후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40% 미만인 팀이 없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BBC뿐만 아니라 BBC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콘텐츠에 여성을 50% 포함하는 도전에 참여한 이후, 2021년 3월에 41개 조직 중 절반이 성공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의 비율은 31%이다.

2020년 10월, BBC는 50:50 모니터링이 민족성과 장애의 표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220여개의 공공 기업이 이제 50:50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소수 민족 및 장애인 기여자의 출연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출처: BBC (2021).

이 계획에는 한쪽 성에 국한되어 편파적인 사회 및 행동 양식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트렌드 분석뿐만 아니라 성 고정관념의 존재를 식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송 광고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빈 영화 연구소 드레부호포럼(drehbuchFORUM)과 FC글로리아(FC Gloria, 여성 영화 제작자들을 지원하고 연계해주는 비영리 협회)가 공동으로 시나리오 공모전, '그녀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될 수 있다'(If she can see it, she can be it!)를 주최하고 있다. 두 단계로 진행되는 이 공모전은 작가들이 일반적인 진부함을 넘어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여성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다른 지역 미디어에서 성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미디어에 여성이 더 적

게 등장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GMMP, 2021).

아르헨티나 정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별의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에서 성별 표현의 형평성'은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미디어에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intersex person)에 대해 1% 이상의 쿼터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더 나아가, 민간 언론사에게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규정은 또한 '성평등 증명서(gender equity certificate)'를 취득한 사람들을 특별 우대 한다.

소수 민족 역시 미디어 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소수 민족의 출연은 대개 지배 집단의 편견에 따라 전형적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황금 시간대에 방송된 스페인 TV 시리즈를 분석한 결과, 총 723

명의 캐릭터 중 아시아인은 1.8%에 불과했다 (Marcos Ramos et al., 2019).

더 나아가 소수 민족 출신 배우들은 연기할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고정관념에 따른 단순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텔레비전에서의 인종차별이 시청자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이집트 전망기구(Egyptian Observatory for the Elimination of Racism, 2018)와 같은 감시 단체들은 미디어에서 인종차별적 표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일부 국가들은 이에 따라 미디어 규정을 변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튀니지 의회는 2018년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인종차별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종 차별을 정의하고 인종 차별법에 위배된 경우에 받게될 처벌을 규정한다. 튀니지는 아랍권 국가 중 가장 먼저 이 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모든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Fassatoui, 2021).

### 텔레비전에서의 인종차별이 시청자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디어에서 소수자를 더욱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출연에서 배제하는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 전 세계 언론 보도가 대부분 코로나19로 도배된 반면 여성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크게 축소했다. 실제로 세계 보건 전문가의 46%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여성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기사 중 27%에만 등장한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이 강화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GMMP, 2021). 게다가, 소셜 미디어에 허위 정보가 난무하면서, 특정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보건 위기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기도 했다.

글로벌 사진 및 마켓 플랫폼 '아이엠(EyeEm)'이 지적한 바와 같이, 뉴스 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피드를 장악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은 뉴스 제공 업체들의 이미지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 미디어들이 불쾌함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의 이미지 선택은 시각 콘텐츠가 스토리의 최전선에 있을 때 해로운 내러티브가 얼마나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입증해왔다.(Holder, 2021). 많은 경우 아시아 출신이나 이슬람교 상징을 착용한 사람들의 스톡 이미지가 맥락과 상관없이 팬데믹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특정 그룹이 바이러스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다(Jeanné and Miller, 2020). 이러한 사건들은 미디어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글로벌 위기의 결과를 장기적으로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이러한 발견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걸음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필수적인 조직과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는가?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정책 및 조치에는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는 대개 국가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그 조치는 자기 규제 메커니즘(지침 및 행동 강령의 채택)과 공동 규제(미디어 관리자와 공공 당국 간의 역할 공유)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규제 당국이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선진국(87%)과 개발도상국(86%) 간 또는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 한 가지 쟁점은 규제 당국이 정치 권력과 언론 대기업들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정책 및 조치에는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규제 당국의 독립성은 많은 국가에서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그림 2.4) 유럽, 북미, 아프리카 국가에 독립적인 기관이 더 많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역적 차이가 있다.

언론규제기관이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유럽시청각기구(EAO)가 유럽 9개국의 방송 및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규제 당국의 독립성에 대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법에 의해 보장된 독립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은 여전히 정치적 간섭에 노출될 수 있다(Cappello, 2019).

규제 기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법률의 약점이나 공백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규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는 규정이 서면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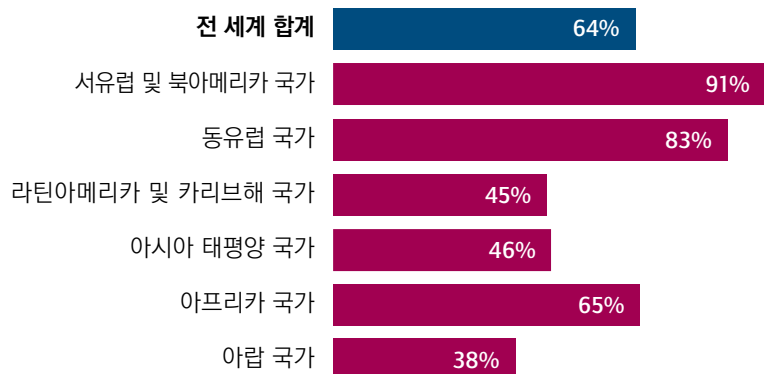
### 기존 미디어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변화하는 모니터링 도전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미디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모니터링하는 미디어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특히 서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규제 당국은 공공 및 민간 미디어를 대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라인 미디어는 가장 적게 모니터링을 받아 서유럽과 북미는 64%, 아시아와 태평양에서는 33%에 그친다(표 2.3).

하지만 미디어 모니터링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미디어 관련 기관은 책임 영역을 확장하는 트렌드를 보여준다.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 심지어 우편 부문까지 규제하는 영국의 영국방송통신규제기관(Ofcom), 혹은 통신,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감독하는 호주 통신 및 미디어 관리국을 포함하여 이를 '책임지는' 규제기관들은 오늘날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통신 연구소와 남아프리카 독립 통신 기관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포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림 2.4

#### 독립 미디어 규제 기관의 존재



출처: BOP Consulting(2021)



표 2.3

미디어 규제 당국이 실시하는 모니터링 영역

	공공 미디어	지역사회 미디어	민간분야 미디어	온라인 미디어
<b>전 세계 합계</b>	<b>79%</b>	<b>64%</b>	<b>73%</b>	<b>54%</b>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86%	71%	86%	64%
동유럽 국가	80%	73%	73%	6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71%	64%	71%	50%
아시아 태평양 국가	78%	44%	67%	33%
아프리카 국가	85%	65%	75%	60%
아랍 국가	67%	56%	56%	44%
<b>선진국</b>	<b>85%</b>	<b>74%</b>	<b>81%</b>	<b>63%</b>
개발도상국	76%	59%	69%	50%

출처: BOP Consulting(2021)

표 2.4

미디어 규제 기관의 책임

	방송사, 콘텐츠 제공자 및 플랫폼의 라이선스 발급	사이버 폭력, 가짜 뉴스, 혐오발언 등 공공민원 접수 및 해결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미디어의 성평등에 대한 모니터링	미디어의 편집 독립성에 대한 모니터링	미디어 소유권의 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
<b>전 세계 합계</b>	<b>81%</b>	<b>65%</b>	<b>65%</b>	<b>48%</b>	<b>51%</b>	<b>59%</b>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93%	71%	79%	50%	64%	71%
동유럽 국가	80%	67%	80%	33%	33%	5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79%	43%	21%	36%	36%	57%
아시아 태평양 국가	67%	67%	56%	56%	44%	56%
아프리카 국가	85%	75%	75%	60%	65%	60%
아랍 국가	78%	67%	78%	56%	56%	56%
<b>선진국</b>	<b>85%</b>	<b>70%</b>	<b>78%</b>	<b>44%</b>	<b>48%</b>	<b>59%</b>
개발도상국	80%	63%	59%	50%	52%	59%

출처: BOP Consulting(2021)

기능적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수립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규제 기관이 방송사, 콘텐츠 제공자 및 온라인 플랫폼에 라이선스를 발급할 책임이 있는 반면, 편집 독립성 및 미디어 소유권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이다. 54개 개발도상국 중 50%, 27개 선진국 중 44%만이 미디어의 성평등을 모

니터링한다고 보고하는 등, 특히 미디어 매체에서의 성평등 모니터링은 소홀시 되고 있다(표 2.4). 미디어에서 성평등을 모니터링하는 국가는 벨기에를 들 수 있다. 2020년 10월, 시청각물최고위원회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CSA-Belgium, 2020)의 시청각 산업에서 스크린 외부의 성평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

했는데, 고위직 인사(약 20%) 및 기술직(약 20%)에서 여성의 비중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권력에 대한 접근, 수평적 분리, 위라벨, 그리고 산업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 차별 및 폭력 등 네 가지 주요 핵심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성평등을 의미 있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탄자니아에서는 국제 여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협회 탄자니아지부(IAWRT) 또한 성평등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에 따르면, 공영방송에서 여성들은 고위 편집자 및 관리직에서 심각하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는 국제여성라디오텔레비전협회가 이 분야의 성평등을 더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모니터링 하는가는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 여부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국가 미디어 당국 다양성 모니터(Medienvielfaltsmonitor der Landesanstalten für Medien)를 통해 미디어 다양성의 발전을 조사하고 미디어사와 언론 복합 기업의 의견 형성 능력을 분석한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견 형성 시장 점유율(54.6%)의 절반 이상을 5개 미디어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명백히 미디어 집중 효과를 유발하며, 그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이 미디어 다원주의를 위해 증거에 기반한 조치를 설계하는 데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가 한국방송의 다양성 수준(플랫폼, 채널, 콘텐츠)을 분석하는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미디어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출연진의 젠더, 성적 지향, 연령,

직업, 언어, 외국어, 장애, 결혼 및 육아와 관련한 특성 분석, 성 다양성, 유료 미디어 플랫폼의 채널 다양성 및 미디어 소유권의 다양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디어 다양성의 정확한 실태를 포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유네스코는 스웨덴의 추가 예산 지원금을 받아 국가들이 기능하는 미디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유네스코가 시행하고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이 후원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통한 기본적 자유 증진(Enhancing Fundamental Freedom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프로젝트 중 2단계의 일환으로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디어 다양성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는 40명 이상의 미디어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고정 매개변수 집합을 사용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미디어 다원성의 지도작성을 위한 자원 및 기준선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 매체의 다양성, 규제 당국의 독립성, 균등 분배와 접근성, 책임성, 자금과 청중 점유율, 인구통계학, 관점, 인력 다양성 및 소비의 다양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매개변수는 다양한 미디어 시스템의 복잡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디어 다양성의 정확한 실태를 포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제에 맞서 경험을 공유하기

미디어 규제 기관은 문제를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촉진하고, 규제 도전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기 위해 지역 플랫폼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규제 기관 플랫폼은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활동에는 연례 전략 및 업무 프로그램 제작과 이벤트 조직 등이 포함된다.

1998년에 설립된 아프리카 통신 규제 기관 네트워크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뉴스레터 La lettre du RIARC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2020년 10-12월 뉴스레터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협회가 규범을 실행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코트디부아르와 모로코 규제 기관 간의 협력 협정 체결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2020년 온라인 총회에서 시청각 분야의 규제를 위한 이베로 아메리칸 플랫폼(PRAI)은 코로나19가 시청각 분야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의 미디어 규제 기관의 통합을 비준했다. 2021년 PRAI는 처음으로 두 가지 온라인 공개 모임을 조직했는데, 각각 이베로-아메리카의 미디어 스크린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과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소통 권리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코폰 미디어 규제 당국 네트워크(Francophone Network of Media Regulator)는 2020년 미디어 규제 및 교육에 관한 첫 번째 하계 대학을 열었다. 이 행사는 튀니지 규제 기관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현재의 시청각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응하고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했다.

## 결론 및 권고사항

언론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미디어 소유자나 관리자의 다양성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디어의 다양성과 미디어 속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년 동안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양질의 공공서비스 미디어를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기반 미디어 매체를 지원하고, 온라인 주문형 비디오 영역으로 규제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미디어 매체의 사유화, 특히 디지털로의 이동은 미디어 지형을 변화시켰다. 온라인 미디어의 규제와 모니터링이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뒤쳐져 있는 반면 각국은 온라인 미디어 영역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디어 매체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을 지우거나, 특정 집단의 비중이 적거나, 편견을 반영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쿼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부 국가들이 지역 제작 증가를 위한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쿼터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미디어 소유권에 집중되는 일은 여전히 흔하다. 언론의 자유는 축소되었다. 여성이 인류의 절반을 대표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노동력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주인으로서, 미디어 콘텐츠의 출처나 주체로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소수자들 역시 비전형적인 형태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번성하는데 있어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미디어 다양성에 관하여

- 미디어의 소유권 집중의 정도를 파악하고 제한해야 한다.
-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의 운영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이들을 강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 미디어 전문가는 스크린 안과 밖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 미디어 매체는 여성과 소수자도 의사 결정 직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자기 규제 평등 정책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투명한 미디어 소유 제도가 촉진되어야 하며, 시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에 관하여

-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및 재정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콘텐츠 쿼터를 포함한 통합적인 일련의 조치는 미디어 시스템에서 독립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자국 콘텐츠의 존재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미디어 매체는 젠더 전환적 콘텐츠와 더불어 다양한 언어로 콘텐츠를 지원함으로써 여성과 소수자의 공정하고 균형잡힌 표현을 보장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다른 국가의 에이전트 간의 작품 교환 프로그램 구현, 공동 배급 협정 수립, 또는 다른 국가의 창작자 또는 작품을 위한 공간 제공을 통해, 청중은 세계 각지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사회 집단과 지역사회의 존재뿐만 아니라, 민족, 성별, 기타 문화 및 사회인구통계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미디어에서 콘텐츠의 다양성(픽션 및 논픽션)을 결정하기 위해 주기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 잘 기능하는(well-functioning) 미디어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더 나은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창의산업을 포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오조마 오차이

### 핵심 발견

- ▶▶ 인터넷 접근 가능성의 부족, 디지털 리터러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플랫폼/알고리즘의 불균형적 지형, 지속가능하지 않은 보수 체계 등으로 인해 정보화 격차는 점점 더 명백하고 다각적으로 증가한다.
- ▶▶ 코로나19는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문화·창의산업(창작, 생산, 유통 및 소비의 형태 포함)의 운영 환경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시켰다.
- ▶▶ 대다수 국가가 문화기관과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규모, 지리, 성별 측면에서) 디지털 창의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 지침과 이와 관련된 로드맵(국가 차원에서 널리 적용되어야 하는 로드맵), 그리고 새롭게 채택된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에도 언급된 것이다.
- ▶▶ 국가의 디지털 전략은 종종 문화·창의분야에서의 특정한 우려와 요구를 해결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부처(또는 미디어 및 방송을 담당하는 부처), 무역 및 산업에 관한 부처(또는 저작권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민간의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그리고 기타 관련 부처와 지역 전략 관련 부처 등 부처간 협업이 활성화된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
- ▶▶ 디지털 경제에서 문화 콘텐츠의 주요 배급사들은 일부 콘텐츠의 제작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문화적 표현의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의 활동(the operations of these large companies)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규제들 중 상당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과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활동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62.1% 2020년  
기준, 전체 매출  
스트리밍에서  
발생 비율



문화 콘텐츠의  
주요 배급사들은  
창작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디지털화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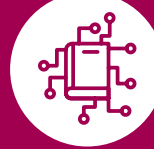
당사국은  
문화 기관 및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



국제 표준  
디지털 국제 표준의 대두

- 2021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권고안
- 2019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에 관한 개방형 로드맵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지도가  
높은 음악과  
시각 예술 작품을  
이미 창작하고  
있음

도전

불평등



디지털화가 현존하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음:

- 인터넷 접근의 부족
- 디지털 문맹
- 창작자에 대한 불공정한 급여
- 여성에 대한 과소대표성

정책과 데이터



문화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에서 소외되어 있음

디지털 미디어 접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함

코로나19 팬데믹



창의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작, 유통 및 접근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온라인 활동이 폭증했다:

넷플릭스 시청 시간:

69,444분에서 584,222분

스포티파이 청취 시간:

38,052분에서 196,917분

종사자의 다양성



자국 디지털 문화 및  
창의성 시장에서 디지털  
종사자(e-players)  
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당사국들은 절반 미만에  
불과함

지속가능성



디지털 기술은  
거대한  
환경의 발자국  
(environmental  
footprint)을 남김



정책

다양하고 다분야의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적  
디지털 로드맵의 준비



정보화 격차

접근성 증가 및  
디지털 기술의 구축



보수

온라인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



다양한 콘텐츠

지역 콘텐츠 대상  
투자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검색  
발견의 용이성 향상

권고 사항

## 핵심 지표

디지털 창의성, 기업 및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표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및 조치

### 서론

2021년 3월, 30세의 나이지리아 예술가 제이콘 오시나치(Jacon Osinachi)는 디지털 아트 마켓플레이스인 슈퍼레어(SuperRare)에서 그의 디지털 드로잉을 35,000달러 이상에 팔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제한된 디자인 팔레트를 사용하여 서술적인 삽화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제이콘 오시나치는 아프리카 최고의 크립토 아티스트(cryptoartist)가 되었으며, 그들의 작품은 블록체인에 등록되고 대체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로 판매되고 있다. 오시나치는 NFT로 그의 예술을 판매하는 방법을 탐색하는데 2년이 걸렸고, 마침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이 분야가 활성화되었다.

NFT가 향후 대부분의 디지털 아티스트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크립토아트는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문화 및 창작 현장에 뛰어 들었다. 이런 현상은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독특한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연결된다. 이러한 NFT는 미술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가 향후 디지털 아트가 인수되고 거래될 방식으로 보고 있다. NFT는 특정 예술작품의 소유권을 담고 있는 정품 인증서와 같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예술작품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작품을 몇 개 생성할지, 그리고 그 중 몇 개가 '원본'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NFT는 '원본 대

복사본'의 아날로그 위계질서를 재창조하여, 원본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재)행사를 허용하고 그로 인한 시장이 형성된다.

예술가들이 그들의 예술작품의 개성과 가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인터넷 상의 누구나 시장에 접근해 NFT를 구매할 수 있다. 수익금 대부분은 예술가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다. 판매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들이 구매한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마다 예술가들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NFT는 재정적 독립과 세계적 영향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암호화폐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금융투기의 위험성과 NFT가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 소비의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 문화적 표현의 창작, 유통 및 접근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맥락이 바뀌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문화적 표현의 창작, 유통, 접근 등의 맥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인공지능(AI)<sup>1</sup>, 블록체인, 확장현실(XR, 증강현실, 가상현실, 합성현실 등과 같은 몰입형 기술) 등 급속한 기술 진보로 문화·창

1.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은 AI 시스템을 '자능적 행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추론, 학습, 인식, 예측, 계획 또는 제어의 측면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의산업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에 입각하여,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목적은 새로운 기술과 장치의 출현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2017년 당사국 총회가 채택한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 지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변화는 창작분야(creative sector)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주자(players)와 새로운 논리의 등장으로 이어졌으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특히, 관련 공공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문단5)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인해 파생되는 생산량의 비율을 말한다. 디지털 경제와 문화·창의산업은 창작자, 출판사, 청중 및 기술 기업 간의 관계를 재정 의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이슈를 소개하면서 상당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WEF, 2018). 문화적 표현(영화, 비디오, 음악 등)의 창작 및 제작에 관여하는 전문가와 기관은 대형 플랫폼, 소셜 미디어 및 장치(예: 휴대 전화 및 휴대용 태블릿)에 참여를 주도하고 있다(UNCTAD, 2019). 디지털 경제와 문화·창의산업의 가치사슬이 점점 더 얽히고 설켜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와 문화·창의산업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2021년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창의경제의 해로 선포한 유엔총회 결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 개발과 같은 창의경제의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창의경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득을 최적화'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기술의 부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및 대면 모임 제한)은 문화·창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 장의 첫 번째 섹션은 이러한 기술들이 가져온 변화와 도전을 분석하게 된다. 이번 장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섹션은 문화·창의분야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빠른 기술 발전을 다루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 지역 및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전략, 정책 및 조치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또한 디지털 환경 및 플랫폼 소유 집중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정보화 격차, 다양성과 포용의 부족과 같은 몇 가지 거대한 문제에 대해 강조한다.

**변화하는 기술적 맥락:  
새로운 기회, 새로운 정보화 격차**

**디지털 채택 및 소비의 트렌드**

온라인 활동은 지난 수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시청 시간이 2016년 69,444분에서 2021년 584,222분으로 증가했으며, 페이스북 로그인 수는 거의 두 배(70만에서 130만으로), 구글 검색(240만에서 480만으로), 유튜브 조회(280만에서 500만으로)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이어져 문화·창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플랫폼과 신기술(특히 AI, 증강현실, 가상현실 및 블록체인)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채택과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 활동 증가로 이어져 문화·창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2020년 세계적 봉쇄 조치로 인해 창작자들의 저작권료 수입이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글로벌 컬렉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시장에서 주문형 비디오 구독이 증가하는 등 디지털 시장으로의 급격한 전환(증가율 16.6%)으로 이러한 상황이 나아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디지털은 여전히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보여 전체 글로벌 디지털 수입(collections)의 4분의 1(26.2%)을 약간 웃돌았다(CISAC, 2021). 그러나 음악 산업의 경우, 전 세계 음반 수입의 62.1%가 스트리밍에서 생성된다. 스트리밍 수입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2020년 물리적 수입 4.7% 감소와 공연권 수입 10.1% 감소 등 다른 형식의 수입 감소를 상쇄하

고도 남는다(IFPI, 2021b). 팬데믹은 또한 전자책을 다시 유행시켰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한때 독서의 미래라고 선전했던 전자책은 2014년 정점을 찍은 이후 6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지만, 2020년 상반기에 자국 및 해외 매출이 17% 증가하는 등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 상승세를 누렸던 오디오북 판매량은 상반기 42%나 급증하며 2019년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이 두 포맷의 판매 합계는, 2020년 상반기에만 총 1억 9천 9백만 파운드(약 2억 6천 4백만 달러)에 달해 각국의 출판사들이 디지털 판매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했다(Nielsen Book Research, 2020).

따라서 팬데믹은 이 보고서 시리즈의 2018년 제2판이 발행되었을 때 이미 잘 성장중이던 문화·창의 분야 콘텐츠의 유통과 접근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표 3.1, 표 3.2). 그러나 유통을 넘어 플랫폼은 다른 방식으로 문화·창의 생태계에 참여하기도 한다.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은 그들 본연의 유통 역할 외에도

표 3.1

1분 동안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데이터의 량, 2016년과 2021년

변수	2016*	2021**
페이스북 로그인	701,389	1,300,000
넷플릭스 시청 시간	69,444	584,222
새 트윗	347,222	381,532
스냅 공유	527,760	2,985,000
애플에서 앱 다운로드	51,000	234,817
아마존 매출(미국달러)	203,596	508,699
구글 검색	2,400,000	4,812,040
스포티파이 청취 시간	38,052	196,917
인스타그램 게시물	38,194	64,320
유튜브 조회수	2,780,000	5,039,650

출처: BOP Consulting(2021).



창작과 제작 분야에 뛰어 들었다. 또 다른 예는 9천만 명의 독자와 작가로 구성된 전 세계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소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인 Wattpad.com으로, 작가에게 그들이 게시한 연재 콘텐츠의 독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의 지오폰(Jio phone, 글상자 3.1)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문화·창의 산업의 다른 기술 동향에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접근성이 포함된다. 이는 기술을 통해 더욱 지속가능한 문화·창의 산업의 기회를 어떻게 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3.2

매달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16~64세 인터넷 사용자(2020년 3분기)

콘텐츠	% 사용자, 전 세계
온라인 비디오 시청	91%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청취	51%
브이로그 시청	73%
온라인 라디오 방송국 청취	47%
팟캐스트 청취	44%

출처: Global Web Index(2021).

확장현실(XR) - 증강, 가상 및 혼합 현실과 같은 가상 및 물리적 세계를 결합한 다양한 몰입형 기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넓은 용어 - 또한 콘텐츠 소비의 경험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게임(포켓몬 GO에서 처럼)과 일부 문화 행사(아바타 및 홀로그램 공연)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은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창작자들을 문화·창의 산업으로 끌어들이며,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음악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XR 기술은 특정 지역의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보화 격차

가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특히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참여가 늘어난 것과 관련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상호적인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XR 기술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관객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몰입형 기술은 사용자로부터 더 많은 개인 정보를 모으고 화면 기반 상호작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늘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몰입형 미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상업적 시도가 개인의 웰빙(well-being)을 보호하는 관행에 역행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WEF, 2018).

본 장의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NFT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트렌드이다. NFT는 소규모 예술가들이 마침내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이 알리고 인정받으며, 합리적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상당한 온실 가스 배출은 공개적인 논쟁거리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NFT의 창작은 200kg이 넘는 지구 온난화 탄소에 상응하는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자동차를 약 1,000km 주행하거나 비행기가 2시간 동안 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Akten, 2020).

최근 몇 년 동안 시를 통해 창작된 음악, 시각예술, 그밖의 예술 작품이 많은 주목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8년, 프랑스의 화가 오비우스(Obvious)가 만든 작품인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Portrait of Edmond de Belamy)'이 크리스티 경매에 나와 432,500달러에 팔렸다.

### 글상자 3.1 • 문화·창의산업의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 및 제조업체

2017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뭄바이에 소재한 인도의 다국적 기업)는 인도 시골 지역에 새로운 지오(Jio) 모델을 무료로 배포하여 자국 전화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전화기는 보증금 1,500 루피(약 20 달러)에 제공되었으며, 3년 이내에 전화기를 반환하면 환불이 가능해 지오 네트워크의 회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 전화기는 통화나 채팅 등 전통적인 전화 기능 외에도 음악과 영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고 무제한의 4G 데이터를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연구에 따르면 출시 6개월 만에 1억 개 이상의 지오가 출하되어 인도의 문화 콘텐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Counterpoint, 2017).

하드웨어와 더불어, 릴라이언스 인터넷 패키지는 한 달에 몇 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를 들어, 릴라이언스 플랫폼의 신규 사용자를 기준으로 총 인터넷 가입자 수는 몇 달 만에 4억 2,600만 명에서 5억 2,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인도 통신 규제 당국의 2018년 보고서 참조).

'지오 효과(Jio Effect)'는 인도를 2018년 기준 세계 데이터 소비량 1위로 급상승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지역 언어로 된 음악과 영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도 콘텐츠의 관심(profile)과 조회수가 높아진 영향이 컸다. 한 예로, 2019년 인도의 음반사와 영화 스튜디오 T-시리즈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 면에서 유튜브 스타 퓨디파이(PewDiePie)를 앞지르기까지 했다. 2021년 10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선불로 1,999루피(약 26달러)와 60달러의 월 할부금을 내는 저가형 4G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이 제품은 영어 이외에 인도 내에서 사용되는 10개 언어로 빠르게 번역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더 많은 인도 시민들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작품은 6세기에 걸친 15,000개 초상화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을 통해 창작되었다. 이러한 작품의 서명은 기술(AI와 결합된)과 인간의 창작과정 간의 협업을 나타내는 수학 공식의 형태를 가진다. 이 작품의 창작자들은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2027년까지  
팝송 상위 40곡을 만들고,  
2028년에는 크리에이티브  
비디오를 찍으며, 2049년에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쓰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시각예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0년 센소리움과 뮤버트(Sensorium and Mubert, AI-음악 생성 플랫폼)는 JAI:NO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공연에 AI DJ를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 JAI:NO는 100개 이상의 음악 장르와 분위기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의 흐름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센소리움은 JAI:NO이 다양한 청중과 관중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McGlynn, 2020). 이 기술은 DJ나 음악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 두 '진짜' DJ 사이를 순식간에 전환할 수 있어 클릭 몇 번만으로도 다른 DJ로 그 모습과 음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많은 의미를 가진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2027년까지 팝송 상위 40곡을 만들고, 2028년에는 크리에이티브 비디오를 찍으며, 2049년에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쓰게 될 것이다(WEF, 2018). AI는 데이터가 제공하는 패턴으로부터 통찰력을 갖추고 가치 사슬 전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온라인 콘

텐츠의 더 빠른 태그 지정, 비디오 편집 자동화 및 심지어 흥행 예측을 위한 스크립트 분석을 수행하는 등 문화·창의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유통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도 AI를 활용하여 플랫폼의 과거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취향이나 관심을 예측한다.

기술의 윤리는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과 사용의 원칙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소수의 AI 강대국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sup>2</sup>의 창작뿐 아니라 문화·창의의 가치 사슬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도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규제를 약화시켜 국가 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 가치사슬의 핵심 활동(창작, 유통, 마케팅 등)을 AI가 지원하는 기계에 맡길 경우, 문화·창의산업에 있어서 일자리, 인재 및 혁신 측면에서 잠재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해 특정 역할이 기술자들에 의해 대체될 예술가들과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AI 기술이 발달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디지털 환경 조성 능력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위험이 있다.

새롭게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에 강조된 바와 같이 'AI 기술은 문화·창의산업을 풍족하게 해준다. 그러나 언어, 미디어, 문화적 표현, 참여, 평등의 다양성과 다원성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의 세력이 문화 콘텐츠, 데이터, 시장 및 소득의 공급을 독점하게 할 수도 있다.' (문단 3c)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18년 G7인공지능 미래를 위한 공동비전(G7 Common Vision for the Future of Arti-

2.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4조 2항에 따르면, '문화 콘텐츠'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되거나 표현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cial Intelligence) 회의에서 합의한 원칙 중 하나는 신뢰와 채택을 높이기 위해 AI 혁신을 진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는 권고안이 회원국들이 정부, 학술 기관,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 산업, 노동자 조직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합의, 특히 '교육 프로그램 및 전략을 미래의 업무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의 필요 사항에 맞추기 위한 기술 집합 요구 사항의 격차의 해소'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 것을 상기시킨다. 문화·창의산업의 경우 이는 의사 결정자, AI 기술자 및 문화 분야 실무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함으로써 AI가 창작자와 향유자(audiences)에게 광범위하고 평등하게 혜택을 주고 힘을 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가 2017년 세계 최초로 국가 AI 전략을 발표한 이후, 2020년 12월 기준 3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문서를 발표했다(Stanford University, 2021).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AI 전략 및 계획에서 문화·창의산업이 빠져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추세이며, 이는 (AI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이 분야의 특정 우려와 요구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다양한 면모를 가진 정보화 격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년층(15~24세)의 경우는 69%에 달했다. 이는 또한 청년층의 3억6,900만 명, 전체 인구의 37억 명이 오프라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이기도 한다. 유럽이 인터넷 사용량이 가장 많았고(83%) 아프리카는 가장 적었으며(29%)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체 사용자 대비 청년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ITU, 2020). 2020년 4월 유네스코는 가상 토론을 통해 문화·창의산업의 현주소와 팬데믹으로 인해 제기되거나 악화되는 도전들을 조망하고 전 세계 문화 분야 종사자

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운동인 리질리아트(ResiliArt)를 시작했다(4장 참조).

아프리카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흐름에 대한 토론을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정보화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현상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는 우려가 많다. 아프리카에서 증가하는 정보화 격차는 도시 인구의 77%가 4G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반해 농촌의 경우 22%에 불과해 도시와 농촌 창작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드러난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데이터가 있는 국가 중 40%는 인구의 절반 이하만이 파일을 복사하거나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에 대한 낮은 이해와 접근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이다(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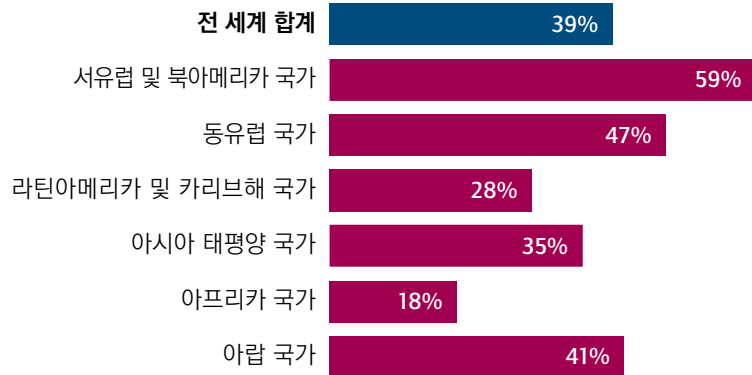
정보통신 기술(ICT)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사용한 영역이지만 행동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세계 기록은 33억으로 2019년에 비해 51% 증가했다(Rossow and Metzger, 2020).

그동안의 정보화 격차는 인터넷 접근성의 부족(인프라 또는 비용의 부족), 기본 디지털 리터러시 및 망 중립성 결여 등의 요인에 의해 판단되어 왔다<sup>3</sup>. 인도 등 국가에서 2016년 데이터 서비스 규제에 대한 차별

3.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예컨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온라인 상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처리할 필요를 의미한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경쟁, 표현의 자유의 증진, 인터넷 전송의 표준화를 위한 것이다. 콘텐츠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펴뜨릴 수 있고, 소비자는 정부나 기업의 간섭 없이 서비스 이용 및 콘텐츠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다.

그림 3.1

기본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인구 비율



출처: ITU(2020) / BOP Consulting(2021)

적 관세 금지법을 통해 강력한 망 중립성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미국(2018년 오픈 인터넷 규제가 폐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과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 접근 서비스 및 최종 사용자의 권한<sup>4</sup> 조항에 있어서, 데이터 트래픽을 동등하고 차별 없이 보호하는 것이,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 지침에서 명시한 대로 데이터 트래픽 관리 관행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인터넷 접근성, (사용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망 중립성 및 디지털 기술의 결합은 디지털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창의 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행에는 사용자의 트래픽을 느리게 하거나, 우선순위를 지정하거나, 대역 폭을 제한하기 위해 헤비 유저를 탐지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지역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 접근성, (사용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망 중립

4. 경쟁적인 내부 전자통신 시장에서 최종 사용자 권리 보호는 선택, 가격 및 품질 등과 같은 소비자 편익을 포함한다.

성 및 디지털 기술의 결합은 디지털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창의 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접근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강력한 디지털 경제와 경쟁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인력,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금융 포용력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생태계 창조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GDP의 약 1.1%를 디지털 투자에 지출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평균 3.2%를 지출한다(Ghanem, 2020). 디지털 관련 투자는 문화·창의산업을 넘어서고 있으며, 문화·창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디어 및 통신을 관리하는 문화 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공공 투자 결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깃허브(GitHub)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갖춘 전문가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디지털 및 코딩 기술 동향을 살필 수 있다. 깃허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한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호스팅 및 관리 서비스로 유료 프로페셔널 계정과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위한 무료 계정을 제공한다.

깃허브 옥토버스 현황 보고서(GitHub State of the Octoverse Report, 2021)에 따르면 깃허브 상위 이용자는 북미와 아시아에 주로 존재하고, 이용자의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멕시코, 나이지리아와 같은 몇몇 남부 저개발 국가(Global South countries)에서 사용자 증가가 가장 빠르다(GitHub, 2021). 그림 3.2와 3.3을 함께 보면 급격한 성장이 곧 높은 절대값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디지털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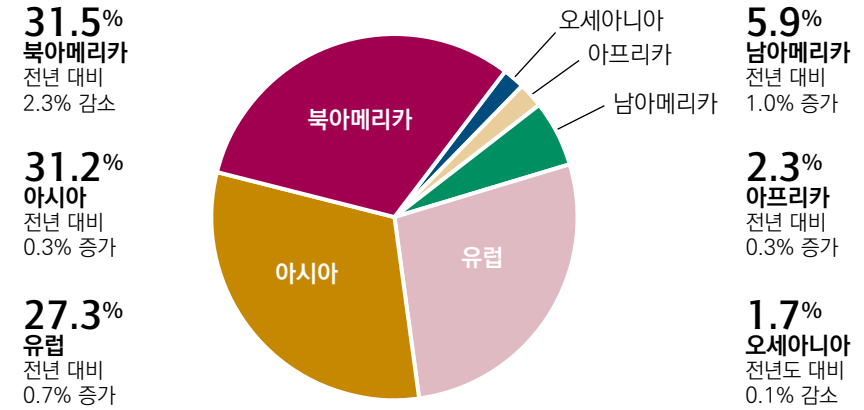
국가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자국 불평등 역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디지털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낮다. 국제노동기구(ILO)의 7개국(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연구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는 전형적으로 평균 근로자보다 젊으며, 대부분은 남성이다. 앞서 말한 국가들의 해당 분야 노동자 중에서 여성은 30%에 그쳤으며, 낮은 여성 참여도의 원인으로는, 차별, 성별 고정관념, 직업적 분리 및 여성의 공식적인 취업 기회 부족 등이 있다(ILO, 2020c).

다이스(Dice, 미국에서 900만 개 이상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기술 전문가용 데이터베이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000명 이상의 기술자 중에서 히스패닉 및 라틴계 응답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78%)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백인 응답자들은 가장 적은 차별(9%)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Dice, 2021).

정보화 격차를 주도해온 전통적인 요인(소득 불평등, 성별, 연령 등) 외에도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점점 더

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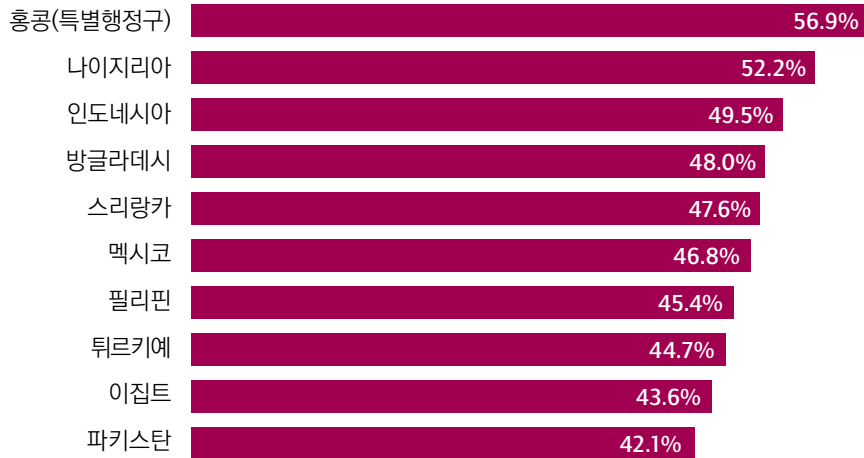
2020-2021년 대륙별 깃허브(GitHub) 실제 사용자



출처: GitHub(2021).

그림 3.3

2020-2021년 깃허브 사용자 증가\*



\*이 데이터에는 100,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국가 및 지역 포함.

출처: GitHub(2021).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또 다른 요인이 추가될 위험이 있다.

과점의 위험이 그것인데, 전통적인 매체들이 가졌던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능이 재현될 수 있으며, 스펙트럼 용량이 방송 출력을 제한하고 소수의 TV나 라디오 회사들이 콘텐츠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점 현상은 국가 차원이 아닌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협약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상위 20개 디지털 음악 배급사(표 3.3) 중 6개국에 두드러진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상위 20개 디지털 배급사 대부분(20개 중 15개)을 차지하며, 월간 사용자 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형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넛지(digital nudges)'(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요소) (Birhan, 2020)가 사용자들이 플랫폼의 수익성을 높이거나 플랫폼 소유자(영리 기

표 3.3

음악 분야 상위 20개 디지털 유통사(혼합 시청각 서비스 포함), 2020년

순번	서비스	국가	월간 사용자	연도	형태
1	유튜브	미국	2,000,000,000	2020	오디오/비디오
2	뮤지컬리	중국	689,200,000	2020	오디오/비디오
3	아이치이	중국	570,000,000	2020	오디오/비디오
4	텐센트비디오	중국	482,960,000	2020	오디오/비디오
5	비보	미국	400,000,000	2016	오디오/비디오
6	스포티파이	스웨덴	320,000,000	2020	오디오
7	쿠구	중국	296,510,000	2020	오디오
8	아이하트라디오	미국	275,000,000	2019	오디오
9	큐큐뮤직	중국	238,780,000	2020	오디오
10	가나	India	185,000,000	2020	오디오
11	사운드클라우드	독일	175,000,000	2019	오디오
12	빌리빌리	중국	172,000,000	2020	오디오/비디오
13	쿠워	중국	125,000,000	2020	오디오
14	지오사븐	인도	104,000,000	2019	오디오
15	넷이즈클라우드뮤직 (163뮤직)	중국	82,440,000	2020	오디오
16	튤인	미국	75,000,000	2019	오디오
17	판도라	미국	63,500,000	2019	오디오
18	애플뮤직	미국	60,000,000	2019	오디오
19	아마존뮤직	미국	55,000,000	2020	오디오
20	양가미	레바논	21,000,000	2019	오디오

출처: BOP Consulting (2021).

업의 경우)의 가치 및 맥락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것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넷플릭스, 아마존, 스포티파이와 같은 기업들의 최근 활동은 지역 콘텐츠에 집중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사실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이 회사들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현지 문화를 바탕으로 현지 언어를 사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개발한 신규 콘텐츠의 약 절반은 미국 밖에서 생산된 콘텐츠이며, 2021년 기준으로 약 38%가 비영어 콘

텐츠이다(2018년과 2020년 사이에 비영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렸다). 다른 예로 2020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크린 연맹(SASFED)이 설립한 코로나19 영화 및 텔레비전 구호 기금을 들 수 있다. 독립 제작자 협회와 넷플릭스는 다른 구호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크린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세번째 심의중에 있다. 넷플릭스와 유네스코는 공동으로 2021년 10월 '아프리카 이야기, 재해석하다'라는 주제로 세계적 규모의 단편영화제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전역에서 개최했다. 수상자들은 업계 전문가에게 훈련과 지도를 받게 되며, 아프리카 고유의 이야기를 전하는 단편영화를 만들고 2022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기 위해 7만 5천 달러의 제작 예산이 지원된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에서는 세계적인 스트리밍 대기업이 기존의 플랫폼 중심 모델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 다양성(그리고 이를 통한 수익의 보다 공정한 분배)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플레이리스트에 올라오면 그 노래가 생성하는 스트림 숫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별 플레이리스트를 분류하고 작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편집 팀을 두는 것은, 지역 아티스트의 노래 소비에 30% 이상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Serne, 2020).

넷플릭스, 아마존, 스포티파이와 같은 기업들의 최근 활동은 활동은 지역 콘텐츠에 집중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지속 불가능한 보수 모델

정보화 격차 및 다른 불평등과 관련한 문제점 외에도 디지털 환경의 현재 수익 모델은 대부분의 예술가들에게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록 예술과 창의성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역설적이게도 보수를 받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

스트리밍 가치 격차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 음악 콘텐츠에서 뽑아내는 가치와 창작물을 만들고 투자하는 이들이 창출하는 수입 간에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격차는 전 세계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Lawrence, 2019). 스트리밍 가치 격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튜브의 광고 지원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특히 예술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닌 다른 많은 사용자들이 만든 스트리밍에서 기인한다.

지난 글로벌 리포트 이후 유튜브는 스포티파이 등과 경쟁하기 위해 2018년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출시하여 음악 산업으로 창출하는 수입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대응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시장 선두주자인 스포티파이의 1억 4천 4백만 명의 유료 가입자와 비교하여 2020년 약 2천만 명의 유료 가입자에 불과할 정도로 확장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여러 유튜브 서비스와 콘텐츠 유형(유료구독, 광고 지원 공식 아티스트 채널 및 사용자 생성 스트림)은 스트림당 지불액이 매우 다르다.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유료 구독 서비스는 광고 지원 스트림보다 스트림당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유튜브가 그동안 사용자의 상당 수를 유료 음악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은 스트리밍 가치 격차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악 산업 웹사이트인 Trichordist가 2020년에 발표한 연례 '스트리밍 프라이스 바이블(Streaming Price Bible)' (2019년 데이터 기준)에서 유튜브 콘텐츠 ID (사용료 지불을 할당하기 위해 음악을 식별하기 위한 구글의 시스템에서 이름을 따옴)가 전체 스트림의 51%를 생성하지만 전체 오디오 스트리밍 수입의 6.4%만을 생성한다고 보고했다(Trichordist, 2020).

그러나 스트리밍 가치 격차는 또한 디지털 음악 분야의 더욱 광범위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작곡가와 연주자들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 수입이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음악가들이 이전에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투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더욱 부각되었다. 팬데믹 이후 음악가들은 스트리밍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충분히 작업을 할 정도의 수입을 얻지 못했다.

문제의 일부는 음반사와 음악가들 사이의 오랜 긴장과 관련이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는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걷

고 있던 세계 음반 산업을 수익과 성장으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플랫폼이 일정 수입을 가져간 후에도, 스트리밍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반사이다(일반적으로 35%~45%). 스트리밍이 음반사의 재정 상태를 개선했지만, 플랫폼 자체(Spotify 포함)는 종종 수익성이 없을 경우가 많다(Businesswire, 2021).

팬데믹 이후 음악가들은 스트리밍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충분히 작업을 할 정도의 수입을 얻지 못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플랫폼이 여전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스트리밍의 경제성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를 들어 스트림당 단일화된 가격은 없다. 대신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부터의 음악가들이 받는 금액은 몇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무료구독자와 유료구독자의 비율,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하는 지역 등이 영향을 준다. 국제 시장에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는 각 국가 상황에 적합하고, 현지 스트리밍 경쟁업체(예를 들어 인도의 지오사브(JioSaavn)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독료를 책정해야 한다. 이러한 지리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 스포티파이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영국에서 월 13달러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6달러 이상, 인도네시아에서는 3.50달러 미만, 인도에서는 1.70달러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었다. 광고 수입은 각 국가에서 국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부과하는 액수와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Pastukhov, 2019).

대다수의 스트리밍 사이트는 로열티가 할당되는 '플랫폼 중심'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소규모 활동이나 음악가에 대한 문제

를 증폭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모델에서 사용자는 청취하는 음악에 대한 로열티를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스트리밍 수익이 전체 플랫폼으로 모이고 음악가들의 로열티는 플랫폼 상의 아티스트들의 전체 시장 점유율에 따라 할당된다(자연스럽게 소수의 주요 국제적인 아티스트와 활동에 유리하다).

몇 가지 혁신적인 변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프랑스의 국제 스트리밍 플랫폼 디저(Deezer)는 지배적인 플랫폼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스트리밍 지불 분배 방식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사용자 중심 결제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음악가들과 소규모 음반사들은 그 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Serne, 2020). 하지만 분명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며, 이는 전 세계 공연자들이 겪는 문제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의뢰해 2021년 6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장 중심 모델과 사용자 중심 모델은 어떤 이유에서든 음악가뿐만 아니라 세션 음악가(non-featured performers)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Castle and Feijo, 2021).

보수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가치의 집중이다. 예를 들어 전자책(e-book) 판매 수입 상위 40개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익의 20%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의 65%는 서유럽, 북미 및 아시아에서 발생했다(Statista, 2019). 게임산업의 경우 2019년 전체 게임 수입 기준 상위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독일)이 세계 100위권 수입의 70%를 차지한다. 중국에서만 전 세계 게임 매출 전체의 4분의 1을 올리고 있다(Newzoo, 2020).

지금까지 제시된 일련의 도전과 이슈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과 조치에 따라 평가받고 해결돼야 한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다층적 노력

### 국제 및 지역 수준의 새로운 협력

2017년 협약 당사국 총회는 문화·창의 산업의 디지털 환경 변화를 인식하여 변화된 맥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로서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 지침'을 승인하였다. 당사국들은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19년 당사국 총회에서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에 관한 개방형 로드맵이 개발 및 채택되었다(그림 3.4). 개방형 로드맵은 이 영역에서 명확한 성과와 구체적인 참조 활동을 제시한다.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문화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개방형 로드맵을 채택한 이후 당사국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두 번의 자리를 마련했다. 2019년과 2021년에 열린 회의에서, 26개 당사국(전체 협약 당사국 중 17%)이 국가 로드맵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지만, 불과 3개 당사국(퀘벡주를 포함한 캐나다, 독일 및 대한민국)만이 협약 사무국과 국가 로드맵을 완전히 공유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정보 공유는 국가들이 이 과정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게다가 유네스코가 받은 정보의 대부분은 서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당사국들로부터 온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그리고 아랍 국가의 당사국들에 의해 공유된 정보는 거의 없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문화적 표현에 미

그림 3.4

디지털 이슈에 관한 협약 이정표



치는 영향에 대한 현실적 대응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거버넌스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도전은 이전 장에서 논의된 대형 플랫폼 및 기타 측면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공공 부문에서 문화·창의산업의 시장 집중과 독점적 추세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 플랫폼 독점 기업은 단순한 고무 독점 기업(rubber monopolist)과는 다르게 주요 유통 채널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21세기 경제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에 대한 독점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만의 특정 기능이 존재한다.

#### 리나 칸

전직 오픈마켓연구소 법률정책국장이자 현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위원장 (TANK Magazine, 2018)

개방형 로드맵과 더불어 유네스코는 지역 및 국가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전 세계적 규모의 규범 개발에 착수하여 신기술이 인류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유네스코 총회는 2019년 11월 제40차 회의에서 AI의 윤리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도구를 권고안 형태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유네스코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다문화 및 다원주의적 노력을 경주하여, 2021년 11월 제41차 총회에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문서화 과정은 AI가 창작한 예술을 포함한 윤리적 딜레마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권고안은 원칙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영역 중 하나로 문화를 포함해야 하는 도구로서 협약을 인용하고 있다. 권고안은 AI 기술이 문화·창의산업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지만, AI 기술의 사용은 또한 미디어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의 손에 문화 콘텐츠, 데이터, 시장 그리고 소득의 집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문화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은 이 분야의 포용적 정책 수립을 위한 모델이 될 것이며, 점점 영향력이 약해지는 관계 기관의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 공개 협의, 개최국과 개최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지역의 온라인 협의, 협력사가 주관하는 공개 심의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이것은 결국 회원국들에 의해 협상된 권고안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수준에서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개발하는 데 협력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 모로코에서는 아프리카 인공지능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의 결의안에는 청년들의 역동성을 포용하고 이들이 문화·창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창의경제 발전을 위해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연합(AU) 정보통신 기술 장관들은 2019년 샤름 엘 셰이크 선언(Sharm El Sheikh Declaration)을 채택하여 '포부 5 : 강력한 문화적 정체성, 공통 유산, 가치 그리고 윤리를 가진 아프리카'를 포함한 아프리카 연합 어젠다 2063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디지털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이 전략은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략 내 행동 요점(action points)에는 AI에 대한 아프리카의 공통적인 입장을 연구하기 위한 AI 관련 워킹그룹의 설립, 아프리카 전체의 역량 구축 프레임워크 개발, 어젠다 2063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협력할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권고하는 AI 싱크탱크 설립 등이 포함된다. 이후 이집트가 의장을 하고, 우간다가 부의장으로, 지부티를 조사위원으로 하는 워킹그룹이 설립되었다.

### 인공지능(AI) 기술이 문화·창의산업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AI 기술의 사용은 또한 소수의 손에 문화 콘텐츠, 데이터, 시장 그리고 소득의 집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 기관 및 개인을 위한 AI와 관련 기술의 도전과 기회를 알리고 탐구하기 위해 2019년 개최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인공지능 지역포럼 등 여러 지역 모임들이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열렸다. AI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세션 중 하나에서, 패널들은 지역 문화 데이터 생태계 조성,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및 네트워킹, 그리고 (이러한 기술에서 나오는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화를 위치시킴으로써) AI 전략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 문화부처의 체계적인 포용을 요구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유럽의회 문화교육위원회가 문화·창의분야 AI 활용에 관심을 갖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지만(Caramiaux, 2020) 2021년 발표된 인공지능 계획 조정안(Coordinated Plan on Artificial Intelligence)은 문화·창의산업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많은 지역과 소지역이 협력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전문성과 자원의 다양하고 상호보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협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창의산업의 전략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통해 문화·창의분야가 이러한 기술에 깊이 영향을 받은 분야로 간주되어 협력적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 수준의 다양한 전략

당사국들은 위에서 설명한 디지털 전환과 전 세계 및 지역 프레임워크에 비추어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였다.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조직이 문화·창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기관이 폐지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디지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공공 기관과 문화 분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됨에 따라 문화·창의산업의 요구, 관점 및 전망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연구의 결과 중 하나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창의분야에서도 유럽연합 내 대부분의 AI 스타트업 회사가 거대 테크 회사(tech giants)가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기술적 해결책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 즉 거대 테크 회사는 많은 분야에서 AI 관련 연구와 혁신에서 필수적인 자원 제공자로서 입지를 굳혔고, 결과적으로 문화·창의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의 시장 집중을 초래했다(Caramiaux, 2020).

다음의 분석은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에 관한 개방형 로드맵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세 가지의 서로 관련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의해 실시되었다(표 3.4).

협약 당사국들은 디지털 환경에 문화·창의산업을 적응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채택했다. 이것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표 3.4

세 가지 분석 프레임워크의 상호 관련성: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에 관한 개방형 로드맵,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로드맵 성과 1		로드맵 성과 2		로드맵 성과 4	
<p>규제 프레임워크, 문화정책 및 조치는 정보에 입각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환경의 도전을 충족하도록 설계되거나 수정됨</p>		<p>다양한 디지털 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창의성, 기업 및 시장 지원 정책 및 조치</p>		<p>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및 역량 강화</p>	
<p><b>로드맵 활동</b></p> <p>1.1 디지털 문화·창의분야 전반의 매핑 작성 수행</p>	<p>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검증 방법</p> <p>5.1 디지털 산업의 다양한 주제</p>	<p><b>로드맵 활동</b></p> <p>2.1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와 다양한 창의적 분야에서의 메타데이터 사용에 대한 다양한 창의적 표현 및 그 접근성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수행</p>	<p>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검증 방법</p> <p>6.3 데이터 및 정보 동향</p>	<p><b>로드맵 활동</b></p> <p>4.1 문화·창의분야의 특정 디지털 기술 격차를 검사 및 파악</p> <p>4.2 문화가치사슬의 지속적인 변화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창의분야의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수립</p>	<p>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및 역량 강화</p> <p>6.3 데이터 및 정보 동향</p>
<p>1.2 공무원, 민간 분야, 시민단체 (여성 및 청소년 단체 포함)로 구성된 전국단위의 팀 구성 및 회의회 개최</p>	<p>5.1 디지털 산업의 다양한 주제</p>	<p>2.2 예술적 실험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창의성과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 제공</p>	<p>5.3 디지털 창의성 및 역량</p>	<p>4.2 문화가치사슬의 지속적인 변화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창의분야의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수립</p>	<p>5.2 산업 및 기관의 디지털 전환</p> <p>5.3 디지털 창의성 및 역량</p> <p>6.2 디지털 리터러시</p>
<p>1.3 규제 프레임워크, 문화정책 및 문화 분야 전략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수립</p>	<p>6.3 데이터 및 정보 동향</p>	<p>2.3 디지털 문화·창의분야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 제공</p>	<p>5.3 디지털 창의성 및 역량</p>	<p>4.3 창작과 실험을 통해 대중의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및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문화 및 미디어 기관이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p>	<p>6.2 디지털 리터러시</p>
<p>1.4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창의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문화정책, 문화 분야 전략 및 행동 계획(action plans)의 설계, 수정 또는 시행</p>	<p>5.2 산업 및 기관의 디지털 전환</p>	<p>2.4 지역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발견·유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 및 알고리즘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정책 및 조치의 설계</p>	<p>6.1 자국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p>	<p>4.4 디지털 리터러시 및 기술을 지원하는 문화협력 프로그램 설계 및 시행</p>	<p>6.2 디지털 리터러시</p>
<p>지속가능발전 목표</p>	<p>4 질 높은 교육</p> <p>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p> <p>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p> <p>17 목표 달성률 위한 파트너십</p>	<p>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p> <p>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p> <p>17 목표 달성률 위한 파트너십</p>	<p>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p> <p>17 목표 달성률 위한 파트너십</p>	<p>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p> <p>17 목표 달성률 위한 파트너십</p>	<p>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p> <p>17 목표 달성률 위한 파트너십</p>

첫째,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지털 계획을 수립한 국가들이 있으며, 일부 사례의 경우 이것이 더 광범위한 국가 디지털 전략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세네갈 디지털 전략 2025 (Senegal Digital Strategy 2025)는 문화·창의산업을 포함한 우선순위 경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스트리아, 코모로 및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했으며, 문화·창의분야를 위한 독립적인 디지털 전략을 개발하는 대신 해당 분야 산업 전반에 걸쳐 시행될 국가 디지털 행동 계획에 문화적 요소를 포함했다.

협약 당사국들은  
문화·창의산업을 디지털  
프레임워크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채택했다

벨기에, 캐나다(퀘벡), 칠레,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들은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지털 계획을 수립하거나 디지털 문화를 핵심 역할로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정책을 업데이트했다(글상자 3.2). 2020년 9월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개발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Digital New Deal Cultural Content Industry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차세대 콘텐츠 개발 투자를 유도하며,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문화 기술과 인력의 역량 구축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퀘벡의 디지털 문화 계획(Quebec's Digital Cultural Plan)은 지역 문화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계획은 퀘벡이 자국의 경제에 문화가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 환경이 디지털 기술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020년 칠레의 문화예술유산부는 공공 문화 기관이 수행한 20년간의 작업을 조사하고, 디지털 문화 네트워크, 접근과 참여, 시민과 문화유산의 연계, 그리고 능력과 기술 등, 미래의 네 가지 우선순위를 요약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 어젠다를 작성했다. 이 어젠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유네스코의 작업을 영감의 원천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문화와 디지털 환경에 관한 부처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이 어젠다는 문화 콘텐츠를 촉진하는 문화부의 디지털 플랫폼

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약속, 성(gender)에 대한 관점과 원주민의 믿음에 대한 포용, 지적재산권 보호, 디지털 웰빙, 그리고 표현, 형평성, 포용 및 차이에 대한 자유 등을 포함한다. 이와 동시에 문화예술유산부는 칠레 최초의 국가 AI 정책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문화 데이터 관리 등 분야별 업무도 수행했다.

콜롬비아는 2020년에 시작한 오렌지 디지털 전환 정책(Orange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기술 역량 구축을 통해 문화·창의 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영역을 포함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경제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콜롬비아 오렌지 경제(Colombian Orange Economy)와 연결되어 있다.

### 글상자 3.2 • 아랍에미리트 문화 어젠다와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31

아랍에미리트의 문화 어젠다 2031은 7개의 전략적 목표와 75개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문화적 표현의 접근성과 발견용이성을 향상시키고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젠다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디지털 환경이다. 강력한 디지털 환경을 지원하는 주요 전략적 목표는 고품질의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며,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창의산업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어젠다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창의산업의 현대화에 직접 기여한다.

- 문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고품질 및 효과적인 인프라, 생태계 및 규제 제공
- 문화시장(디지털 및 비디지털) 구축 지원
- 문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시스템 평가

지금까지 프리랜서 및 시민사회와 함께 워크숍을 여러 번 개최하여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업무 측면에서 이들의 필요성과 도전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각국의 모범 사례를 포함한 IP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나아가 아랍에미리트 국가인공지능전략 2031과 국가인공지능프로그램(National Progra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내에서는 인공지능(AI)과 최첨단 기술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새로운 세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목표는 모든 학생, 학교 및 대학이 교육, 프로젝트 및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스마트 시스템과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교육 분야와 학생들을 위한 AI 기술의 사용은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등교육에서도 AI 기술과 현대 기술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출처: United Arab Emirates QPR.



© Luis Benito / Unsplash.com

## 문

화·창의분야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디지털화를 목격했다. 디지털화가 문화 생태계의 혁신과 혼란 모두를 가속화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불일치를 해결해야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전환에 불리한 예술가, 창의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문화기업의 91%가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0년 9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전략(Growth Strategy for the Digital New Deal Cultural Content Industry)'을 발표했다. 민관 투자와 디지털 역량 구축에서부터 정보화 격차 해소, 공공 디지털 콘텐츠 확대 등 다양하고 과감한 방안이 채택됐다.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소통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에 더욱 힘쓸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격차를 파악하고 관련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문화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지지해 왔다. 예를 들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점자, 음성해설 및 수화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2021년에만 회원 수를 84% 늘렸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였다.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대면할 기회가 줄고, 정신 건강을 다스려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적 다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기운을 북돋아 준다.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가 멈췄을 때 우리는 예술에서 위안을 찾았다. 유네스코 평화의 예술인으로 위촉된 소프라노 조수미는 '팬데믹 이후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술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황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창의산업의 특정 발전 분야를 다루는 정책이 있다. 디지털 콘텐츠 가격 책정 분야를 예로 들자면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및 몰타는 디지털 및 종이 도서 가격에 단일 도서 가격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러한 감소는 2018년 유럽연합(EU)이 전자책 및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인쇄된 책의 세율과 조화시킬 수 있는 회원국들의 권리를 비준한 것과 일치한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통해 유럽연합은 또한 2021년까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지역 콘텐츠 쿼터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이 지침을 통해 회원국은 유럽

연합 내에서 제공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지역 콘텐츠를 최소 30%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장 참조).

세 번째 카테고리에는 문화·창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디지털 및 여타 전략이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감비아와 나이지리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sup>5</sup>은 콘텐츠 유통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 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정책은 특히 나이지리아와 같이 지역 콘텐츠 쿼터와 함께 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더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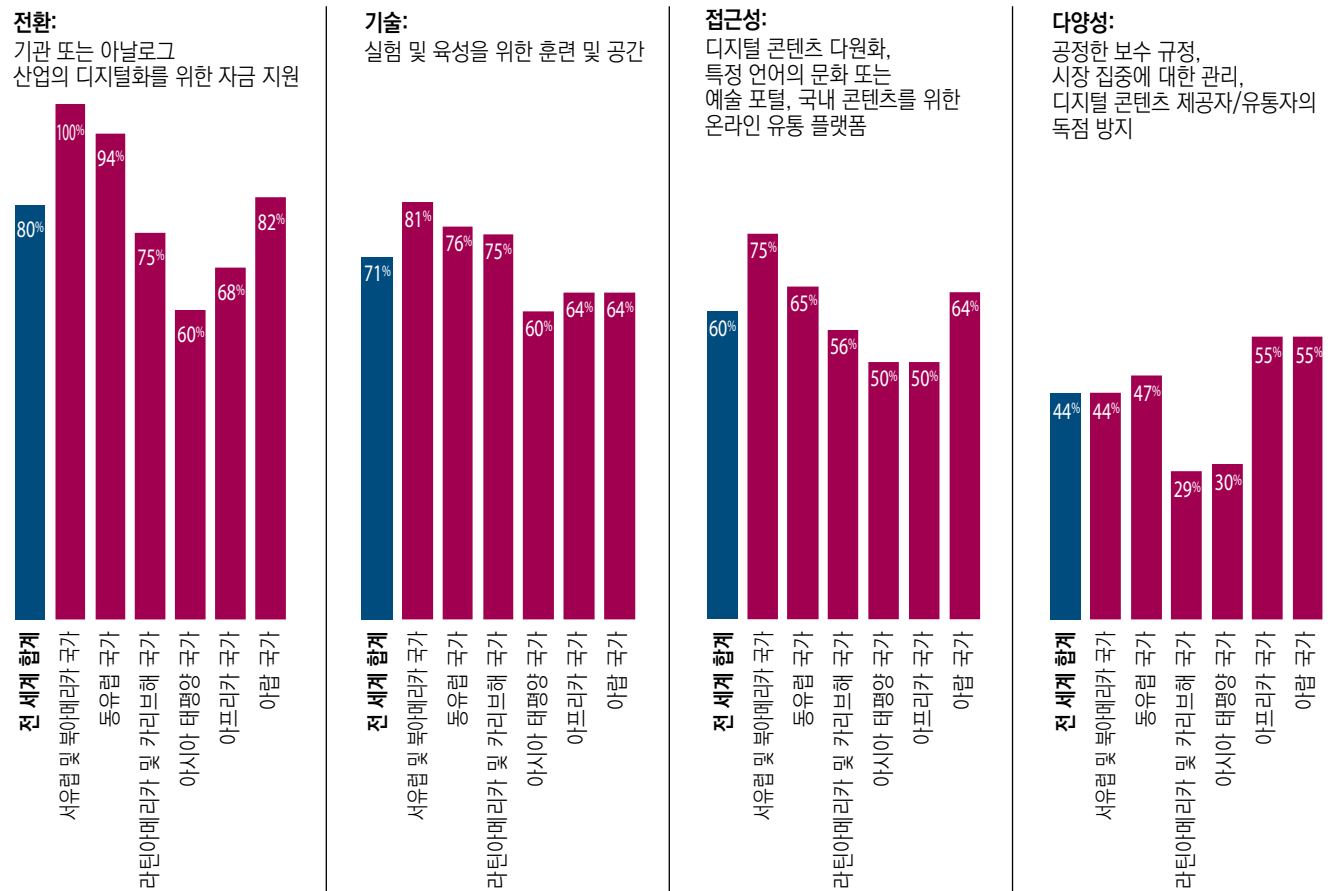
은 지역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디지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를 향상시키는 더 강력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 프레임워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2018 디지털 파키스탄 정책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조항은 비록 이러한 분야가 메인은 아니지만 문화·창의산업과 연관성이 있다.

그림 3.5에 나와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채택한 전략이나 로드맵에 더하여, 문화·창의산업 그리고 해당 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의 국가(80%)들이 채택한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주요 초점으로 보인다.

5.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텔레비전의 전송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그림 3.5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



출처: BOP Consulting(2021).

이러한 트렌드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디지털 창의성과 기술 증진(국가들 중 71%)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국에서 생산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접근성 및 발견용이성 향상(60%), 자국 디지털 문화·창의 시장에서 모든 규모의 디지털 종사자(e-players)에 대한 다양성 증진(44%) 등이다. 다만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만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이 자국에서 생산된 디지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것에 비해 약간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행위자들(e-players)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자 시도하는 소수의 당사국들이 있다

디지털 행위자들(e-players)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자 시도하는 소수의 당사국들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지지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당사국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문화 콘텐츠의 접근성과 발견용이성을 높이는 정책, 조치 및 전략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다. 동시에 시장에서 서비스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에서는 디지털 종사자(e-players)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정책이 더 보편적이다.

### 디지털 격차 해소

#### 문화 기관의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환경 측면에서 당사국들이 채택한 가장 두드러진 개입은 문화 기관의 디지털 전환과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 글상자 3.3 • 코로나19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Stay at Home)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창의적 분야에 대한 이집트의 지원

이집트 문화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모든 유형의 문화적 표현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사회적 거리두기...내 손 안의 문화(Stay at home... Culture Between Your Hands)'를 시작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집트인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창의적 분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행사에는 아랍 및 클래식 음악 콘서트, 다큐멘터리, 책, 발레 공연, 박물관 가상 방문 등이 포함됐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문화부의 유튜브 채널은 24만 시간 이상이 재생됐고, 전 세계 28개국 이상에서 3천만 명이 시청했다.

사람들이 도서 포털을 통해 출판물을 읽거나 다운로드하면서 문화부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6만41건으로 급증했다. 문화부 홈페이지를 통한 박물관 및 갤러리 가상 방문도 매우 인기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출처: Egypt QPR.

것이다. 협약에 따른 최근 보고에서 그러한 조치들은 80%의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그중 선진국의 경우 97%, 개발도상국의 경우 70%가 이를 채택하였다.

디지털 도구를 통해 국가들은 다양한 문화적 표현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는 2018년과 2019년에 영화, 사진, 오디오 컬렉션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편 영화, 만화, 다큐멘터리를 디지털화하고 저장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캐나다, 독일, 대한민국, 리투아니아에서도 자국 영화(national cinema)를 홍보하고 배급하기 위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집트, 노르웨이, 카타르,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들은 국립도서관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작업을 시작하여 여러 언어로 된 지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발견을 용이하게 했다(글상자 3.3). 그 외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정보와 문화 콘텐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털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박물관,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archives)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검색 포털인 쿨투르풀(Kulturpool)을 만들었다. 이 포털을 통해 오스트리아 문화 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공 디지털 자원과 카탈로그 전반에 접근할 수 있다. 유사한

이니셔티브가 아제르바이잔(창의적 아제르바이잔 플랫폼, Creative Azerbaijan Platform), 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나, Slovákiana), 터키(디지털 극장 정보 시스템, Digital Theatre Information System)에서 시행 또는 개발되고 있다.

콜롬비아 문화부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우루과이의 문화 기관 및 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네스코의 국제문화 다양성기금(IFCD)과 미주개발은행의 지원을 받는 라틴아메리카 영화 전용 무료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인 레티나 라티나(Retina Latina)를 개발했다. 전 세계 카탈로그의 8%를 보유한 레티나 라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에게 라틴 아메리카 영화의 다양한 파노라마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리뷰, 예세이, 인터뷰를 통해 이 지역의 영화 제작사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며, 멀티미디어를 통해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디지털 창의성 및 역량 증진

디지털 전환이 문화·창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디지털화된) 새로운 창의적 생산 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분야와 관련된 조치에 훈련 및 역량 구축이 포함될 수 있지만, 문화·창의 기관이 디지털 기술과 자원을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킹 및 여타 수단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최근 보고서에 참여하는 92개 협약 당사국 중 71%가 이 분야에서 조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선진국의 77%, 개발도상국의 67%).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수는 적었지만, 그림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원과 자금 지원을 채택했으며, 이어서 역량 구축 프로그램, 네트워크 및 육성기관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 유형의 이니셔티브는 문화·창의 산업의 전통적인 참여자들이 그들의 작품과 경험을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의 작품 유통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예술, 문화, 대민서비스 및 스포츠부는 2020년에 디지털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미화 130만 달러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점과 같은 온라인 유통 및 통신 채널을 개발하기 위해 출판사와 현대미술관에 보조금을 제공했다.

또 다른 일련의 행동(예: 육성기관, 경쟁, 플랫폼 및 네트워크)은 창의적인 디지털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퀘벡(캐나다)의 문화 기업 개발 협회(Société de Développement de Entreprises Culturelles, SODEC)는 새로운 소비자 행태로 인한 도전을 해결하고, 새로운 설계 및 유통 도구의 잠재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디지털 또는 비즈니스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튀니지 디지털 문화 경제를 위한 튀니스 국제 센터는 문화 분야의 실험, 지원 및 보급에 대한 연구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문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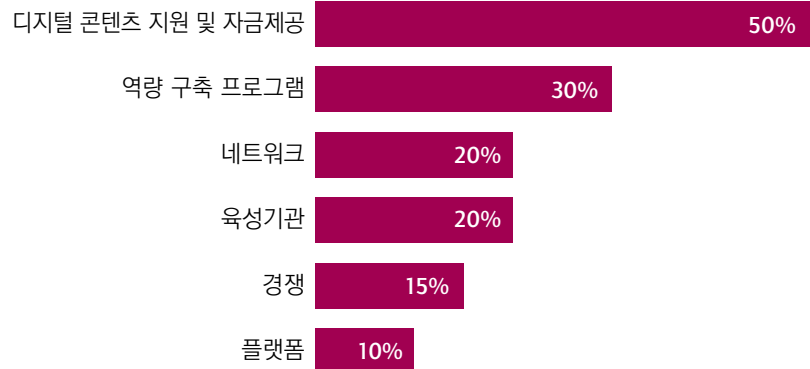
야의 혁신 프로젝트와 스타트업을 위한 육성기관이다.

라트비아에서는 2014-2020년 문화 정책지침 '창의적 라트비아(Creative Latvia)'에 따라 문화·창의산업의 새로운 기업 출현과 기업가정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산업 육성기관이 설립되었다. 육성기관은 라트비아 투자개발청이 문화경제재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

하고 있으며, 2021년 기업가와 사업 아이디어 개발자 845명이 신청해 이전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렉트릭 사우스(Electric South)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글상자 3.4).

그림 3.6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디지털 창의성과 역량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Source: BOP Consulting (2021).

### 글상자 3.4 • 일렉트릭 사우스(Electric South)

일렉트릭 사우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설립된 비영리 기업으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VR)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내러티브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베르타 재단, 포드 재단 및 남아공 스포츠 예술 문화부 등 아프리카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멘토링과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리지널 콘텐츠가 과소평가받지 않도록 자금 지원과 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었다.

일렉트릭 사우스는 보츠와나,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잠비아 및 짐바브웨 등 여러 나라의 스토리텔러들을 지원하기 위해 VR 연구소와 워크숍을 조직했다.

참가자들이 360° 단편 영화를 만들어 실질적인 제작과 협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VR 해커톤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후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렉트릭 사우스는 아프리카 최초의 무료 온라인 VR 축제인 일렉트릭 아프리카(Electric Africa)를 개최하여 VR 콘텐츠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현실 및 새로운 차원을 선보였다.

출처: [www.electricsouth.org/](http://www.electricsouth.org/).

남아프리카음악권리기구(SAMRO)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라이브 음악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모빌리티 펀드(Digital Mobility Fund)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라이브 음악 프로젝트인 '콘서트 SA(Concerts SA)'를 개발했다. 남아프리카 음악권리기구는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지연 방송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음악가들의 제안서를 받고 있다. 2021년 9월 제3차에서는 431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전국에 걸쳐 총 70건의 보조금을 지급했다(약 13만8천달러 예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2018-2020)의 일환으로 문화·창의산업의 혁신을 위해 젊은이들에게 디지털 기업가 정신을 위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2020년 4월 '디지털 주간' 동안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젊은 인재 발굴을 위한 2개 대회가 열렸다. 수상자들은 기업 설립과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부르키나베 경제사회 발전기금(Fonds Burkinabé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et Social)의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금은 5천만 프랑(약 85,000 달러)이다. 이 프레임워크 내에 와가두구(Ouagadougou)와 보보-디올라소(Bobo-Dioulasso)에 두 개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이 설치되었다.

창작자와 중소기업가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플랫폼의 또 다른 사례는 슬로바키아에서 찾을 수 있다. 슬로바키아 비즈니스 에이전시와 과학기술 정보센터(교육과학연구체육부 산하)가 학습 혁신을 위해 '팩랩(FabLabs)'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예술가, 디자이너, 학생 또는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로 더 많은 실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캠프, 워크숍 및 발표가 포함된다. '콘텐츠 임팩트(Content Impact)'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이니셔티브이다. 문

화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최첨단 기술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문화기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콘텐츠 임팩트' 사업은 다양한 기술(AI, 몰입형 기술, 퍼포먼스 기술 등)에 대한 5개 강좌를 운영하며, 창작자가 진흥원의 시설과 최신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8개 프로젝트를 5개월간 지원한다.

###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 지침에 따라 당사국은 인터넷 사용 및 디지털 도구 습득에 관한 디지털 리터러시, 공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정보에 접근, 관리, 이해, 통합, 소통, 평가 및 창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UIS, 2018). 이는 창작자나 문화 분야 종사자가 아닌 대중과 관객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 분야의 진전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4.4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청년과 성인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는 여러 국가에서 주목하는 분야로 보인다. 창작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개요는 1장을 참조할 수 있다. 플랑드르 정부(벨기에)는 교육, 인식 제고 및 지식 교환을 통해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기 위해 미디어위즈(Mediawijs,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지식 센터)를 설립했다. 몇몇 다른 당사국들은, 문화·창의산업의 디지털 기술 격차를 식별하기 위해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예술가와 창작자가 참여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협의를 이용했다.

멕시코에서는 공공단체인 디지털 문화센터(Centro de Cultura Digital)가 게임 분야의 훈련, 창작 및 실험을 위한 공간으로 게임 라보라토리(Laboratorio de Juegos)를 설립했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 전문직 종사자 및 다양한 커뮤니티를

자기관리 방식으로 연결해 디지털 역량 향상, 평등 강화, 네트워크 구축, 시민 인식 증진 및 혁신과 기업가정신 지원 등을 위한 포용적인 프로젝트이다.

###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는 많은 국가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8년 '디지털 문화(Digital Culture)'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지금까지 이는 그 지역의 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해 팟캐스트와 웹 시리즈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가상 교육 도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문화부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 창작자 전원에게 제공한 도구로서 최초의 디지털 내러티브 매뉴얼을 만들었다.

교육 커리큘럼에 코딩의 도입도 일상화되고 있으며, 덴마크, 에스토니아, 영국,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교육 수준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다.

비정부 기구 씨어터데이프로덕션(Theatre Day Production)은 기술 기반 훈련 프로그램 '여성시청각교육(Women Audio Visual Education, WAVE)'을 운영한다. 2019년 여성시청각교육은 팔레스타인 젊은 여성들의 기업가적, 창의적 및 기술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애니메이션, 드라마 및 스토리텔링을 통합했다. 이는 유네스코 사브리나 호 '다음은 당신: 창의적 여성 역량 증진(You Are Next: Empowering creative Women)' 이니셔티브로 디지털 창의 산업의 젊은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기회이다. 씨어터데이프로덕션은 참가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찾아내고, 새롭게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여성들 고유의 콘텐츠가 향후 국제 페스티벌과 시장에서 유통되고 기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이다.



© Ahmad Odeh / Unsplash.com

## 나

는 운이 좋게도 싱어송라이터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내 음악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지역사회를 즐겁게 하고 영감을 주는지 느끼는 것 만으로도 즐겁다. 하지만 나는 예술가 이상이 되고 싶다. 나는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재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만 작품에 대해 공정한 대우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한 예술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다.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는 사업이다. 물론 그 사업은 부자, 유명인, 권력가들의 이야기로 넘쳐난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성공할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젊고 열정 있는 예술가 지망생들 말이다. 코로나 위기에서 알 수 있듯 창작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삶을 살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자동차, 가족을 부양할 최소한의 생계를 잃었다. 생업을 위해 라이브 콘서트와 공공 엔터테인먼트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봉쇄는 특히 잔인했다. 여성 창작자들도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아 성평등을 위한 사명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다.

이제 회복의 길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제작자, 방송인, 디지털 서비스, 정부 정책 입안자 등 예술가와 창작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은 탁상 공론이 아닌 행동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금은 젊은 창작자에 대한 투자, 디지털 세계를 위한 강력한 권리,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 그리고 저작권 이슈를 자주 외면하는 정부의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플레이 그리고 공정한 보수, 이들이 우리의 행동을 부르고 있다.

문화는 미래 세대를 위한 부의 원천이다. 특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지역인 아프리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코로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아프리카는 문화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제 작가 및 작곡가 단체연합(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부회장,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성 라디오(WOMan Radio)' 프로젝트의 설립자와 같은 역할에 전념하고 있다. 나는 이 보고서가 모든 곳의 창작자들의 삶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이본 차가 차카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부회장

##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규제 프레임워크

### 공정한 보수 보호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 지침은 당사국들이 권리자의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조한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작 지원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오직 소수의 당사국들만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예술가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2020년, (게임 및 웹툰 디지털 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인정된) 직원 및 콘텐츠 개발자의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 산업 종사자 및 웹툰 작가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오직 소수의 당사국들만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예술가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에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한 '셰어 위드케어(Share with Care)'라는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알려주고, 소비자들이 저작권 규정을 위반한 불법 웹사이트에서 합법적인 인터넷 서비스로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소비자가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를 최대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셰어위드케어'는 검색 엔진 '필름파인더(FilmFinder)'를 개발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어떤 플랫폼에서 그들이 원하는 시리즈나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다.



검색 엔진은 또한 SF애니타임(SF Any-time)과 같은 소규모 및 지역 플랫폼도 호스팅한다. 이번 정책은 2018-2019년 사이 불법 다운로드 건수가 2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세어워드케어' 홈페이지 방문 건수도 급증했다.

케냐에서는 음악가가 받던 보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음원을 휴대폰 벨소리로 내려받을 때 음악가가 받는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벨소리에 대한 자국 소비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자국 음악가들의 벨소리 음원 수입이 늘

어나게 되며, 이러한 규정은 케냐 저작권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말라위 저작권 협회에 의해 설립된 온라인 상점은 예술가와 창의 분야 전문가들이 음악, 책, 비디오, 게임 및 기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가와 뮤지션이 수입을 늘리고, 창작 콘텐츠의 제작, 홍보 및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적 행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통신사 MTN 우간다는 아프리카 고객들에게 음악 스트리밍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타이달(Tidal)과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우간다의 음악가들은 전 세계적인 콘텐츠 유통의 혜택을 받고, 음악의 유통 기간을 늘리며, 수익창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오늘 현재 300명 이상의 우간다 음악가들이 이 플랫폼에 가입했다.

유럽연합은 또한 2019년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글상자 3.5)을 통해 저작권법을 디지털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음악가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콘서트를 하는 경우 콘텐츠가 페이스북의 트래픽을 유도하여 광고 매출을 올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의해 관련 지침이 입법화된다면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 글상자 3.5 • 유럽연합 창작자의 공정 보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보기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안은 창작자의 부당한 보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준다. 디지털 시장의 작가와 예술가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수 원칙을 포함함으로써 창작물 및 콘텐츠의 디지털 판매 수입에 대한 투명성 제고 조치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일부 웹사이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셜 미디어가 콘텐츠 필터를 설정하여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뉴스 제공 사이트가 언론 출판사에 제공하는 금액 때문에 4년에 걸쳐 논의되었다.

이 지침은 2019년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회원국들이 지침의 요건에 부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년(2021년 7월까지)의 시간을 주었다.

지침은 세계의 주요 영역을 다루게 된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된 예외사항 업데이트(예를 들어 교육적 사안 등)
- 콘텐츠에 대한 접근 확대(예를 들어 확장된 일괄 라이선스 등)
- 콘텐츠의 디지털 시장을 개선(예를 들어 관리자가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건 등).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플랫폼에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권리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전에 게시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침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인터넷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는 우려가 있다. 허용과 침해의 범주를 구분하기 어렵고,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 문제로 과도한 필터링을 하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우려는 회원국에 의해 법안이 제정될 때 유의하지 않으면 소규모 사이트나 개인의 경우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지침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제17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이용 권한에 대한 기본 필터링과 결합하여 플랫폼에서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흐름을 증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불균형한 통제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Dusollier, 2020).

### 공연 종사자들은 시장 중심의 로열티보다 더 많은 가치를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져다준다

음악의 경우 주요 디지털 플랫폼은 '린백(lean back)' 소비<sup>6</sup> 모드와 함께 제한적 상호작용 및 완전 상호작용 모드를 결합하게 된다. 이는 상호작용 스트리밍을 라디오의 대안으로 만드는 옵션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위탁 연구에 따르면(Castle and Feijóo, 2021) 공연 종사자들은 시장중심의 로열티 지급 방식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져다 준다. 이 연구는 '공중 송신 로열티(communication to the public royalty)'의 형태로 스트리밍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공정한 보수 원칙이 보다 잘 충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6. 팬 데이터로부터의 서비스로 알고리즘에 따라 도출된 '린백(Lean back)' 플레이리스트.

이는 어떠한 레코드 계약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아티스트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공연자들이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에 의해 수집되고 분배될 것이다. 스트리밍에 대한 이러한 보상은 부가적이고, 현재의 '공중 송신' 로열티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현재 로열티 제도에 의해 보상되지 않지만 공연 관계자들이 스트리밍 플랫폼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인정할 것이다. 스트리밍 보수 솔루션을 통해 회원국은 생산자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존의 집단적 관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연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Castle and Feijóo, 2021).

온라인상에서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려는 시도는 기술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이다. 호주가 최근에 업데이트 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 대표적인 사례로 테크 회사(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가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 미디어 소스의 콘텐츠 공유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한다. 3년 간의 공개 질의 및 토론 끝에 2021년 2월 최종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어 미디어 및 기술 기업들이 규정 밖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플랫폼에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필요한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최종 제안 중재(final offer arbitration)'를 시행했다. 집필 당시 시점에서 구글은 '구글 뉴스 쇼케이스 (Google News Showcase)'를 통해 뉴스 출판사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70여개의 호주 뉴스 출판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Google, 2021). 페이스북은 당초 호주 내 모든 뉴스 콘텐츠를 차단하던 가운데 현재 '페이스북 뉴스 (Facebook News)'를 출시하고 공

익 저널리즘을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했으며, 미디어 기업들과 거래를 체결하고 있다(Ward, 2021). 그러나 규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협상은 항상 의견 불일치로 가득했다.

온라인상에서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려는 시도는 테크 회사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이다

찬성론자들은 테크 회사의 권력을 규제하고(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반대론자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는 위험성과 테크 회사로 인해 사용자들이 뉴스 미디어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뉴스 미디어가 직면한 딜레마와 비슷하다. 호주에서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통해 뉴스 미디어는 테크 회사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조건을 얻었다. 뉴스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예술가들 역시 작품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플랫폼에서의 노출로 인해 이익을 얻기도 한다. 유사한 법률이 예술가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면서도 플랫폼에서의 그들의 존재감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면, 전문 단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플랫폼에서 작품을 내리는 대신 테크 회사가 그들의 작품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협상해야 한다.

###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

디지털화는 국내외 수준에서 세금 정책과 행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제도가 지역 콘텐츠를 홍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영화사업자, 방송사, 영상배급사, 주문형서비스 제공자가 영화지원법을 통해 영화산업 진흥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독일 영화 진흥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연방 영화위원회가 제공하는 시청각 지원 조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13년 7월 독일 내에 본사가 없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에게 영화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 독일은 첫째, 주문형 영화 접근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특히 영화 배급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을 근거로 이 조치를 정당화했다. 둘째, 독일은 단일 사업장에서 다른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세계적 주문형 비디오 플레이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확대의 목적은 기존 제도와 철학의 명맥을 잇는 것이다. 독일에서 영화사가 제공하는 영화를 소비하게 되면 영화 제작과 배급 등 다양한 문화적 목적을 지원하는 정부 소유 기금의 수입에 기여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영상 공급에 대한 세금 수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상 자금은 1,300만 유로(미화 1,460만 달러)에 달한다(EAO, 2016).

조세의 다른 측면을 살펴 보면 2018년 10월 유럽 이사회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전자 출판물에 감세, 초감세 또는 제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에 동의하여 전자 및 종이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칙의 조정을 가능하게



전자책과 디지털 신문의 부가가치세 인하와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화 및 미디어 정책 조치를 시행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온라인 또는 인쇄물로 전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독립적인 의견 형성에는 다양한 출판 지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책의 문화적 가치는 인쇄된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니카 그뤼터스  
독일연방 문화 및 미디어부 장관(Börsenblatt, 2019)

했다. 이 결정의 결과로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디지털 판본의 부가가치세율(2019년까지 19%)을 인쇄물 및 (인쇄된) 출판물의 부가가치세율인 7%와 일치시켰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정부가 전자책에 부과하던 20%의 부가가치세인 ‘독서세’를 없애자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되었는데, 아마존은 2020년 5월 1일 킨들 전자책 가격에서 이 금액을 없애고 (항상 비과세인) 종이책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달 방식과 관계없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세 인하율을 일치시켜 사업자 간 불필요한 경쟁적 차이를 피하고(EY Consulting, 2009) 온·오프라인의 공급과 소비의 다양성에 더 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온라인 콘텐츠의 발견용이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 지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의 온라인 유통과 콘텐츠 발굴 능력의 향상은 온라인 플랫폼과 상품 및 서비스의 권리자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예술가는 기술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플랫폼은 콘텐츠가 검색되는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발견용이성(Discoverability)은 인터넷 또는 플랫폼 검색을 통해 무엇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은 수많은 다른 플레이어들로 붐비는 경쟁적인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이 어떻게 해야 눈에 띄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Desjardins, 2016). 예를 들어 자체 제작 콘텐츠와 타인의 콘텐츠를 함께 다루는 플랫폼의 경우, 제3자의 콘텐츠보다 자신이 소유권을 지닌 콘텐츠의 발견성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 또한 플랫폼이 콘텐츠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

에게 이익이 되는 콘텐츠의 발견용이성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술가는 기술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플랫폼은 콘텐츠가 검색되는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보수와 관계없이 디지털 시장의 이러한 특징도 철저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AI를 기반으로 한 추천 알고리즘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들은 시행 중인 메커니즘과 그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월 스포티파이의 ‘음성 콘텐츠와 배경 노이즈를 포함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과 ‘처리된 오디오 신호 콘텐츠를 기반으로 재생 가능한 콘텐츠를 식별하는 방법’ 등 ‘오디오 신호로부터 음악 취향 식별’이라는 주제로 특허를 받았다(Stassen, 2021).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작가, 작곡가 및 연주자의 창작 작업이 하나의 제품으로 전락하지 않고 시스템의 핵심으로 남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의뢰한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성 제고는 문화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가 된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목표이다(Castle and Feijóo, 2021).

2020년 캐나다는 캐나다 콘텐츠의 창작, 제작 및 발견용이성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통신 분야를 관할하는 법률을 검토했다. 권고안에는 상업적 권리의 유지를 위해 제작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방송사가 캐나다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다양한 스크린 기반 콘텐츠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을 보다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글상자 3.6 • 프랑스어권 문화 콘텐츠의 온라인 발견용이성에 대한 프랑스-캐나다 퀘벡 공동 보고서

2020년 11월 프랑스어 문화 콘텐츠의 온라인 발견용이성에 대한 프랑스어권 퀘벡 평가단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평가단은 창작자, 제작자, 방송인, 유통인,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대표 등 문화 사슬의 다양한 연결고리에서 온 약 100개 조직의 활동가들을 만났다. 보고서는 온라인 문화 이용의 발달이 콘텐츠 접근의 ‘플랫폼화(platformization)’를 동반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주로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도입된 문화정책들에 수많은 도전을 제기한다.

도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의 국제적 특성
- 관찰 및 통제에 대한 국가적 수단에 도전하는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및 홍보 메커니즘
- 문화인과 규제 기관에게 더 큰 민첩성과 적응력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혁신 속도

프랑스어와 퀘벡 프랑스어 콘텐츠의 온라인 가용성 및 발견용이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교육, 인적 및 재정적 자원, 문화 분야에 적합한 도구의 가용성, 다양한 유통망 연결의 기술 및 규정 변경 등이 있다. 이러한 도전은 음반, 시청각 및 영화, 책, 공연예술, 시각예술, 음악학 및 유산 분야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전 세계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프랑스와 퀘벡 간의 공유 전략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주요 플랫폼의 국제적 범위를 고려할 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출처: Franco-Quebec mission on the online discoverability of Francophone cultural content, 2020.

다른 권고로는 캐나다 및 외국 온라인 공급자 간 더욱 공정한 세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캐나다 콘텐츠의 발견용이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의 채택이 포함된다.

온라인 문화의 이용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에 비해 더 빠르게 발전했다

프랑스어 문화 콘텐츠의 온라인 발견용이성에 대한 프랑스어권 퀘벡 평가단의 보고서(글상자 3.6)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문화의 이용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에 비해(많은 당사국들이 그러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발전했다.

주요 국제 플랫폼은 직접적 이익이 없을 경우 현지 콘텐츠 홍보와 가시성 확보에 거의 관심이 없다. 이러한 플랫폼은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 플레이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콘텐츠 홍보에 대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어권 퀘벡 평가단은 시청각 플랫폼(스마트 TV, 로쿠 또는 애플TV 및 음성스피커 포함)에서 사용되는 전달 장비가 서비스와 콘텐츠의 발견용이성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시장에서 특정 플랫폼에 대한 사전 설치 접근은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이므로 지역 서비스와 콘텐츠를 강조하겠다는 플랫폼의 약속을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 장제에 대한 규제 범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권 퀘벡 평가단은 우선적으로, 알고리즘의 효과에 대한 투명성의 의무에 기초한 예방 조치를 제안한다.

### 데이터 및 정보 동향

규제의 필요성에 더하여 플랫폼에 의한 특정 데이터의 사재기는 의사결정자와 관리자가 플랫폼이 지역 콘텐츠 발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침해한다. 플랫폼에 의한 수집되는 방대한 사용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관리자들은 그들의 발견용이성 및 보상에 관한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의 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들은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다(Franco-Quebec mission, 2020).

사용자와 장치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기업과 정부에 의해 수집되고 데이터 분석 및 기술 확산의 발전과 결합되어, 사람들의 행동과 조직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OECD, 2019). 플랫폼에서는 상업적 이유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게다가 시장 조사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동향에 대한 보고서와 연구를 생산하지만, 이것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돈을 지불해야만 공개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실로 인해 정책 수립이 데이터 정보나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진행될 위험이 있으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적 표현에 대한 디지털 접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에 대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해 통계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협약 당사국은 35%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

비율이 50%를 약간 넘는 지역은 아랍,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들이다.

소수의 국가만이 알고리즘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분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트렌드가 있다. 이에 대한 한 사례는 유럽 시민들에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존재를 알릴 권리를 부여하는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다. 2019년 나이지리아 데이터 보호 규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다.

문화적 표현에 대한 디지털 접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에 대한 최신 데이터로 된 통계나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협약 당사국은 35%에 불과하다

2019년 10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음악서비스 산업자들은 '음원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료 정산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부문을 통해 저작권 사용정보를 수집해 시장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결론 및 권고사항

글로벌 리포트의 이전 판에서 지적했듯이 디지털 환경의 기술적 변화는 문화적 표현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다양성 관련 정책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창출한다. 협약의 원칙과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정교하고 횡단적이며 역동적인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 장은 협약 당사국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 당사국들은 공공단체(문화부를 비롯하여, 통신, 방송, 기술, 통상, 산업 및 지적재산 관련 당국, 예술위원회 등등)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포함한, 문화·창의분야의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디지털 전략 또는 계획이 작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정부 및 문화 분야 이해당사자 모두는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활용 능력에도 우선순위를 두어 역량 구축 및 기타 지원이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서 개인이나 그룹이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 당사국들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발견용이성을 증진하고 지역과 국가의 문화적 표현을 위한 기회들을 더 많이 제공하는 정책과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 당사국들은 시민단체 및 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가 및 문화매개자의 공정한 보수에 기여하는 정책과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 문화·창의산업에 대해 정부와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은 (전 세계적 플랫폼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데이터의 투명성과 가용성을 높이고, 증거가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 문화·창의산업이 디지털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및 기술 분야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화 분야의 국제 협정은 특히 여성,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개발과 관련된 명확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 당사국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로드맵의 설계와 시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 과정은 동료 학습과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당사국들은, 입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관련한 측면들을 고려해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을 자국 내에서 이행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유관한 국제적 및 지역적 논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문화·창의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의 환경 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공공 및 민간 행위자 모두에게 장려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개방

마우리시오 델핀

### 핵심 발견

- ▶▶ 시민단체는 문화·창의분야를 관리하고 역량구축, 지지, 정책개발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 분야의 활동에 기여한다. 이들은 공공 영역의 도움을 가장 적게 받는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분야간 연계를 구축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홍보하는 최전선의 활동가가 된다.
- ▶▶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참여적 대화의 장이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문화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한 의사 결정, 모니터링 및 평가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 문화·창의분야에서 데이터 개방의 원칙과 접근법의 사용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당사국이 참여하는 다중 데이터 수집 및 보급 전략은 시민 참여와 혁신을 조성하는 데에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 ▶▶ 국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간의 협업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이지만, 국가 이하 수준에서 지역 당국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가 참여적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더 강력한 결과물을 달성하여 협약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 ▶▶ 시민사회 내의 구조나 조직의 수준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매우 불균등하다. 이와 비슷하게,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국가 및 국가 이하 수준에서 상당히 적은 공적 지원을 받는 등 기금의 접근성에 있어 지속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이 디지털 환경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역량, 접근성 및 기술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경과

참여적 거버넌스



90%

당사국들이 시민단체와의 대화의 장을 구현

공적자금



78%

당사국들은 시민단체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훈련 및 멘토링



71%

당사국들은 시민단체를 위한 훈련 및 멘토링을 지원하거나 조직한다고 보고

도전



그러나 시민단체가 공동 의사결정과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코로나19 팬데믹



유네스코 리질리언트 운동은 세계적인 논의를 조성함

275 가상 토론회 115개국 이상에서 열림



그러나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터넷 연결성과 디지털 기술의 부족은 디지털 적응을 방해함

공공-민간 파트너십



협업에 대한 제1장벽: 자금 부족



겨우 35% (net) 조사대상 시민단체 만이 현행법이 공공기관과 그들을 협력하도록 한다고 생각함



지방정부수준 24%

국가 수준 61%

투명성



많은 시민단체들은 문화정책의 결정이 전반적으로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함



개방형 거버넌스

지속가능하고 참여적인 메커니즘과 그 평가를 위한 투명성, 책임성 및 신뢰의 조성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 제도를 포함해, 모든 단계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육성



역량구축

시민 참여, 디지털 기술, 관리 및 기금 모금에 관한 시민단체의 역량 구축



혁신

개방형 데이터 원칙 구현 및 공유 정보 시스템 개발

권고 사항



## 핵심 지표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

시민사회는 자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협약의 시민사회 이행에 관여한다

### 서론

#### 문화 거버넌스 개방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의 라자레티 유적지(Lazareti Complex)와 풀라의 로이스 커뮤니티 센터(Rojc Community Centre), 포곤-자그레브 독립문화청소년센터(POGON-Zagreb Centre for Independent Culture and Youth)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모두 참여적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현하는 크로아티아 사회문화센터이다. 라자레티 시민들이 시 행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협업 의사 결정 공간인 '라자레티 플랫폼(Platform for Lazareti)'을 구축했다. 로이스 커뮤니티 센터는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시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센터에서 운영되는 협회 대표와 시 대표 간에 공식적인 책임을 분담했다. 포곤에서 참여 거버넌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지역 당국과 시민사회와의 연맹인 연합연맹운영도시에서 의사 결정은 동등하게 이루어졌다.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이 지원하는 '문화 기관의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쿨톨라 노바 재단(Kultura Nova Foundation)에서 제작한 가이드북 <두잇투게더(Do it together)>(Vidović, 2018)는 크로아티아 지역에 대한 경험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 자원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위한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책임 할당, 참여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 활용, 모든 참여적 노력의 유기적인 부분으로서의 갈등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패를 평가하고, 통제 메커니즘과 제재방식을 제시하며, 유연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가이드북은 시민 지식(거버넌스 혁신을 목표로 조직된 시민의 경험에 의해 생성된 지식)의 체계화 및 이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문화를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시민 단체의 지침 원칙이 어떻게 개방성에 기여하는지 보여준다.

문화정책 수립에 대한 현대적 참여적 접근은 참여에 대한 좁은 관점을 넘어 훨씬 광범위한 시민 노력을 통합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또한 문화정책 결정에 대한 현대적 참여적 접근법이 어떻게 좁은 관점을 넘어 문화 거버넌스 개방을 목표로 하는 훨씬 광범위한 시민 노력을 통합하여 공동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은 이러한 전략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1. 이 장에서는 국가의 권력에 압력을 가하는 참여의 질을 지칭하기 위해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부코프스키(Buchowski, 1996)의 '시민사회'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저자는 '일종의 대항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민사회에 내재된 사회제도'가 형성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제11조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핵심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원칙으로 삼는 것은 물론 이 국제 법적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특별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반영한다. 시민사회 참여를 광범위한 사회구성의 일부로 간주하고 문화 거버넌스의 참여, 협력, 투명성 및 책임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탐구하고 문화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협약의 목표(정보에 입각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시스템)와 '열린 정부'<sup>3</sup> 패러다임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관성을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미묘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은 또한 당사국이 참여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 대화 및 교류를 위한 메커니즘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 협약에서는 시민사회를 '비정부 기구, 비영리 단체, 문화 분야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예술가 및 문화 공동체의 작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부분적으로 민간 부문을 직접적인 범위 밖에 두고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 공공 부문 및 시민 행위자들과 광범위한 연합 또는 파트너십을 구성한 경험이 있는 매우 이질적인 이해관계자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열린 정부는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투명성, 책임성, 참여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아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 정책과 실행에 기반한 거버넌스 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OECD, 2016). 이 장에서는 '열린 정부'와 '개방형 거버넌스'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Millard, 2018). 그러나 열린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를 지칭하는 것이고, 개방형 거버넌스는 그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방형 거버넌스를 향하여:  
시민사회의 운영 환경 보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협약은 시민단체가 지역, 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이행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당사국이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시민단체 운영의 조건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전제조건을 파악한다. 후자는 참여적 메커니즘의 구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다른 차원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다룬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수준과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시민사회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 장은 당사국의 4년제 정기보고서(QPR)

및 기타 공개 출처와 협약 증진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는 유네스코 설문조사에 의존한다. 이 설문조사는 2020년 가을에 개발되었으며 협약의 정기 보고, 유네스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국제문화다양성기금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직, 리질리아트<sup>4</sup> 토론 주최자를 포함한 1,300개 이상의 단체에 전송되었다. 그러한 표적 샘플링<sup>5</sup>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협약 이행에 직접적으로 관

4. 리질리아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장 토론을 통해 문화·창의분야의 현황을 조망하기 위해 전 세계 문화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유네스코의 글로벌 운동이다.
5.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한 것은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서 사용된 설문조사와 다르다. 2018년 설문조사는 더 광범위한 문화·창의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송부되었다. 이번 2022 글로벌 리포트를 위해 설계된 설문조사에서는 62개국 158명의 시민단체가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대다수(52%)가 자신을 비정부단체라고 정의했으며 문화 네트워크(25%)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3분의 1(34%)이 단체를 20년 이상 운영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선진국(63%)에서 훨씬 더 높았으며, 개발도상국의 단체 중 43%는 설립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주요 활동 분야는 시각예술(68%), 문화·창의 산업분야 전반(59%) 및 영화 및 시청각 예술(50%)이었다.

련된 시민단체의 인식을 평가하는 데 여전히 유용하다. 설문조사 응답은 광범위한 일반화를 허용하지 않으며 당사국의 정기 보고서 및 새로운 추세와 대조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시민단체의 운영 환경에 대한 일면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그림을 완성, 확장 또는 도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게 한다(응답자의 69%를 나타냄)<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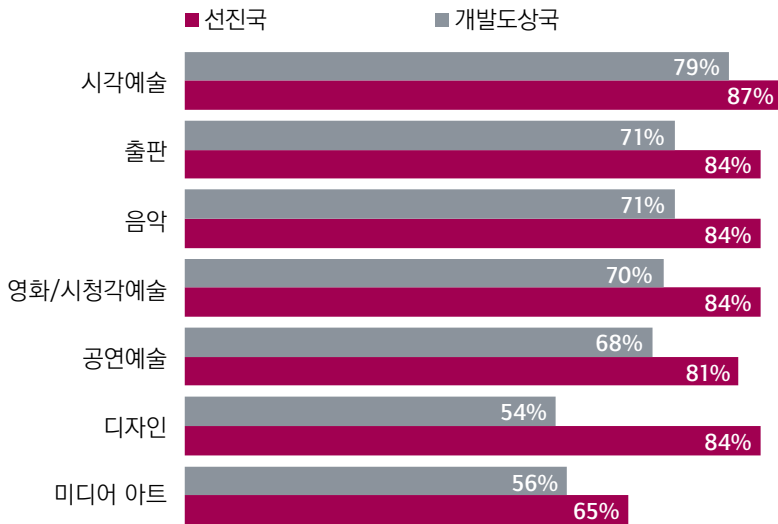
**문화·창의분야의  
복잡한 시민사회 구조**

시민사회가 소통과 교류를 위한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은 기관에 제공되는 환경(civic space)의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이며 다양한 환경은 예술적 창작과 예술적 자유뿐만 아니라 대화, 연합 및 파트너십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집단 행동을 조직하고, 더 나은 작업 조건을 협상하며, 예술가와 문화분야 종사자에게 유리한 입법 및 규제 환경을 보장하는 전문단체 및 노동조합의 존재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당사국은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기존의 전문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해 보고했다. 전문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된 분야는 시각예술이며, 출판, 음악, 영화/시청각 예술, 공연예술이 그 뒤를 이었다. 디자인, 미디어 아트 분야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진국은 모든 문화 영역에서 개발도상국보다 전문단체의 비율이 더 높으며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디자인 분야이다(그림 4.1). 미디어 아트의 경우, 관련 전문단체의 수가 적은 것은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라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분야별 예술가와 문화분야 종사자를 대표하는 전문단체 및 노동조합



출처: BOP 컨설팅(2021)

6. 가장 많은 응답은 아프리카(30%)와 서유럽 및 북미(27%)에서 나왔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16%), 아시아와 태평양(16%), 동유럽(6%), 아랍 국가(4%)가 그 뒤를 이었다.

협약은 문화 거버넌스를 다룰 때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 내부와 외부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별도로 운영되어 온 분야(가령 문화와 건강, 문화와 폭력 예방, 문화와 표현의 자유 등) 간의 횡단

적 교류와 새로운 연결성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정책이 다른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다른 정책분야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장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종류의 연결은 문화 분야 시민단체를 통해 가

능해진다.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문단체가 있는 경우 이는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진한다.

노동조합과 같은 전문단체는 다양한 수준에서 동시에 여러 문제에 대해 작업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하위 분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권, 공식화, 사회 보호, 건강 및 안전 표준, 훈련 및 성평등과 같은 횡단적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 배우 연합(Union of Bulgarian Actors)은 공연예술 분야의 모든 문화적 표현의 보호 및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건강, 퇴직 및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회원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대화 메커니즘 및 공공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단체도 문화정책 결정 및 모니터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글상자 4.1).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이슬란드 예술가 연맹(Federation of Icelandic Artists)이 국립 통계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와 협력하여 정부가 정보에 입각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문화·창의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문화분야 노동자 조합과의 협약 개정으로 문화분야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부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 글상자 4.1 • 예술가 지지 - 창의성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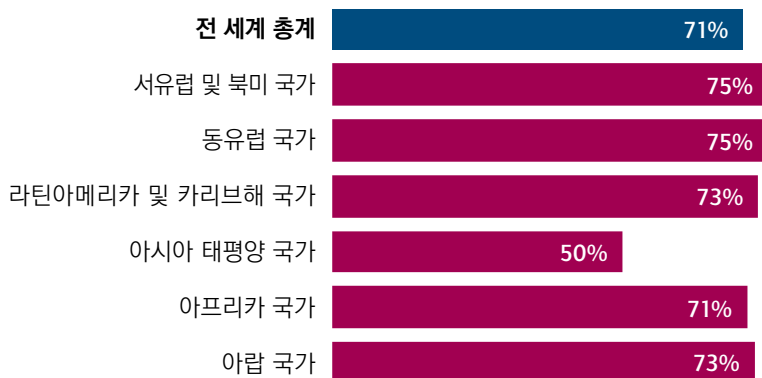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창의 산업 노동 조합(신디카시-SIN-DIKASI)은 국가의 문화·창의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했다. 언론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노동법규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프리랜서의 93%는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프리랜서의 79%는 월경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프리랜서의 86%는 지불 지연이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38%는 매우 비공식적인 업무 관계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보고했다(59%는 서면 계약서가 없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디카시(SINDIKASI)는 프리랜서 서비스 계약 수립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업무 설명, 시간 및 지급 메커니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위스에서는 라디오 및 TV 수신료 폐지를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에 따라 스위스공연협동조합과 Swissperform(저작인접권 협회)가 2017년에 'No Billag, No Culture(빌라그 없이는 문화도 없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지역 라디오 및 지역 TV 방송국에 대한 자금 조달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70개의 협회와 11,000명 이상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통해 문화·창의 분야 종사자들에게 최신 소식을 알렸고, 이 캠페인은 소셜 미디어와 전통 매체에서 긍정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다른 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의 대화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고무적인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2018년 71.6%의 유권자들이 기금 삭감에 대해 반대하게 되었다.

\*빌라그는 1998년부터 라디오 TV 수신료 징수를 맡은 스위스 회사이다  
출처: 인도네시아 4년제보고서, 스위스 4년제 보고서

#### 그림 4.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시민단체의 커뮤니케이션, 지지 및 기금 마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공공 기관에서 조직하거나 지원하는 교육 및 멘토링 기회



출처: BOP 컨설팅(2021)

####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된 기술 개발 지원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환경을 활성화하는 다른 촉매로는 인식 제고, 교육, 역량 구축 및 멘토링 등이 있다. 강력한 역량과 기술은 수행한 작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동료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동향과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당사국의 71%는 시민단체가 커뮤니케이션, 지지 또는 기금 모금의 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교육 및 멘토링 기회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했다(그림 4.2)

대표적인 예로는 아르헨티나 국립예술기금에서 지원하는 문화경영교육부터 영화, TV,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스크린 스킬 아일랜드 등 전담기술 및 경력개발 단체가 있다.

### 시민 참여 사례들, 전략적 및 제도적 커뮤니케이션, 정보 및 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문화정책 결정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91%). 이 결과를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신 안되겠지만, 응답자들은 글로벌 리포트(UNESCO, 2018)의 이전 판에서 확인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공공 부문에 참여하고 정책 개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증진하고 전략적 및 제도적 커뮤니케이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조직되고 전 세계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리질리언트 회의를 분석한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여러 방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글상자 4.4). 이는 새로운 관객에게 다가가고 정책 결정 및 평가를 위한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기 위해 대화 및 교류를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전히 오프라인(UN, 2021a)인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 및 연결은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파악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전 세계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시민사회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기술한 조치(전체의 약 66%)를 분석한 결과, 이니셔티브의 4분의 1이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한 문화 영역과 평생 교육 관점에서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창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부르키나 파소, 콜롬비아, 쿠바, 사이프러스,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멕시코, 팔레스타인,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의 시민단체들은 모든 유형의 활동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계획과 조치를 보고했으며, 이는 특히 역량 강화에서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정부가 예술과 문화·창의분야에서 특정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계획의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다(1장 참조).

###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이니셔티브의 4분의 1은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역량 강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참여는 노력이 중복된다기 보다는 공공 조치를 보완하는 데(예를 들어, 새로운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또는 지역에 접근하고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와 시청각 예술 분야의 공공 프로그램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같은 분야에 시민단체가 만든 프로그램은 많았다. 따라서 공공 조치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협력 파트너가 우선순위로 파악한 분야에 시민단체가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정 문화 영역에 대한 역량 강화 외에도 시민사회는 문화·창의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관리, 비즈니스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국

제문화다양성연합연맹, 유네스코 독일위원회, 멕시코 비정부기구(NGO)인 Creatividad y Cultura Glocal, U40 네트워크, 칠레 및 파라과이 문화다양성 연합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협약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페인어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우간다의 미디어여성협회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 및 관리에서 젠더 관점에 초점을 맞춘 교육 모듈을 개발했다. 동아프리카 문화개발(CDEA)의 창의경제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Culture and Development East Africa's Creative Economy Incubator and Accelerator)는 동아프리카의 예술가와 창의적인 기업가의 기술 및 비즈니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국가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자원은 (인적자원,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또한 언급되지만) 자금지원이다. 아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여에는 다양성이 있어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전략과 그들과 공공정책의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원보다는 현지, 지역, 국가 수준의 정부가 시민사회 자체의 다양성을 다루기 위한 포용적인 전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 인프라, 정책이 균일하지 않고 불평등하다면 국가기관과 파트너가 되고 문화정책 수립의 기회 및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불평등해진다. 또한 우리 회원들은 시민사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문화·창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당사국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불평등한 거버넌스 수준에 대해 보고한다”

글로벌 리포트 2022년 판을 위해 시민사회 대상 조사에서 받은 응답 내용(2021)



© Fernand De Carne / Unsplash.com

# 시

각예술은 문화를 창조하고 사람들 사이의 지식과 소통의 다리를 만드는 데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술가들은 코로나19 펜데믹의 확산으로 영향을 받는 많은 분야 중 하나이다. 미술관이 폐쇄되고 예술 재료의 부족(특히 미술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직업과 생계를 잃었다. 사람들이 즐기던 예술가들의 창작물과 그 아름다움도 사라졌다. 여러 달 동안 우리 모두에게 슬프고 어두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창작자이다. 우리는 붓질로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디지털 세계에서 급진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정보 기술 분야의 전문가이자 시각예술가인 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소통하기 위해 예술가와 작업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나는 이 계획을 해시태그 art stay safe(#artstaysafe)를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으로 시작했다.

이 계획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예술가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이 계획을 기반으로 카타르 최초의 가상 전시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의 예술가들이 예술을 발전시키고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 코로나19의 위기는 물리적으로는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예술가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이 위기로부터 부를 창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시작한 계획과 공동의 행동으로 촉발된 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현재의 도전을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 무나 알-바더

시각예술가/큐레이터

## 시민단체를 위한 자금 확대와 다양화 - 지속적인 과제

시민단체가 지적인 바와 같이, 자금 조달은 여전히 핵심 과제이다. 자금 부족은 시민단체가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금이 부족하면 인적자원의 가용성이 떨어지고 네트워킹 및 협업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하는 것을 권고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7.17이 추진하는 개방형 거버넌스 및 참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충족시킨다. 또한 사용가능한 공적자금의 수준은 신청 비용, 엄격한 보고 및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 이는 역설적으로 시민단체를 더 불안정하게 한다.

자금 부족은 시민단체가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국가 자금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시민사회 조사에서 가져온 간략한 정보는 많은 시민단체가 향후 기존의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시민단체의 76%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심각하게(48%) 또는 보통으로(28%)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선진국(68%)보다 개발도상국(80%)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당사국(78%)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를 지원하는 자국의 공적 자금 계획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상금 및 보조금(안도라,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특정 기금 및 관련국가 예산(인도, 인도네시아, 말라위, 몽골, 아랍에미리트, 탄자니아 연합), 시민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네트워킹, 교육을 결합한 지원 프로그램(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공적 자금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고되는 등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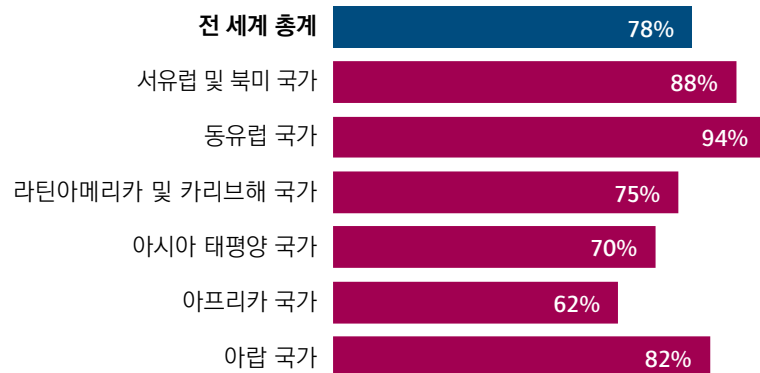
공적 자금 지원 계획을 보고한 선진국(87%)과 개발도상국(73%) 간의 차이를

보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더 집중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글상자 4.2). 이러한 차이의 이면에 있는 주요 요인(예: 법적 제약, 공공 자원에 대한 낮은 할당 등)을 추적하는 것도 향후 관련 조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개발도상국 시민단체가 다양한 자금 출처를 모색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선진국 시민단체의 57%가 하나 이상의 자금처를 갖고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비율이 73%에 달한다.

그림 4.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지원하는 공적 자금 조달 계획



출처: BOP 컨설팅(2021).

### 글상자 4.2 • 니제르의 시민참여 지원

니제르에는 유럽 연합이 자금을 지원하고 계획부(the Ministry of Planification)가 시행한 'Programme d'Appui à la Societé Civile'(시민사회 지원 프로그램, PASOC)이 있다. 두 번째 단계인 PASOC II(2012-2016)에서는 여성 및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개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국 4개 지역에서 적극적인 시민권과 기본적 인권(문화발전에 대한 권리 포함)을 촉진하는 소액 보조금을 통해 비정부기구 및 협회의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 확대와 보다 효과적인 공공정책 간의 연계를 강조하며,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기여를 더 많이 드러내고 취약계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니제르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화를 강화하고, 시민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그들의 활동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열린 정부 관행과 원칙(투명성, 참여 및 책임)과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성취하는 긍정적인 연결을 강조한다.

출처: 니제르 QPR

조사에 응답한 개발도상국의 시민단체 중 민간부문, 다자간, 양자간 또는 시민단체, 유네스코 또는 기타 유엔기구에서 자금을 조달한 비율이 더 높았다(그림 4.4). 그러나 선진국의 51%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의 21%만이 자체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러한 주요 차이는 개발도상국의 시민단체가 회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상업적 벤처 기업을 창출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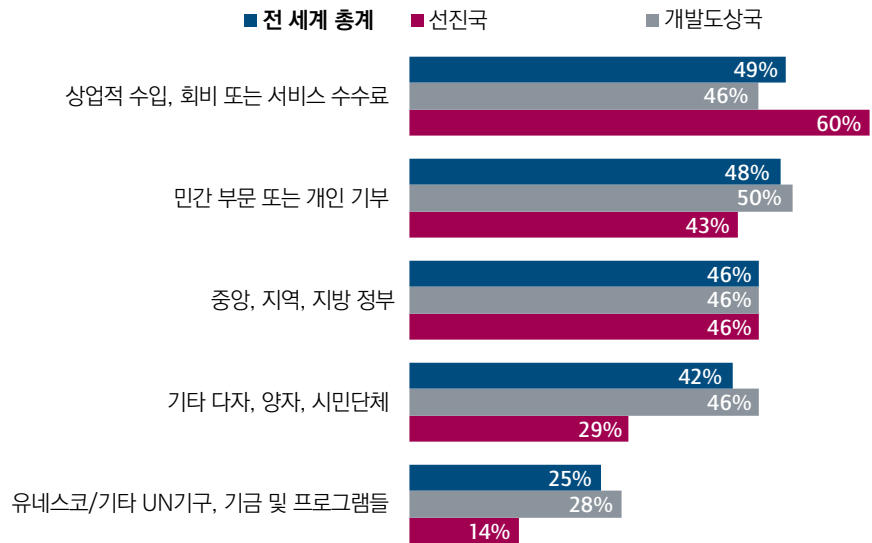
### 지원 환경 조성 및 유지

협약은 문화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입법과 규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유엔 지침서 '시민 공간의 보호와 증진(Protection and Promotion of Civic Space)'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열린 시민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공개 토론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거나 대화 채널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의견 차이나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활기찬 미디어 지형을 특징으로 한 공간을 뜻한다(그림 4.5). 따라서 국가의 책임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당국과 서로 의견을 표현하고, 모이고, 어울릴 수 있는 '법률적 및 정책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에서부터 더 나은 제도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이르기까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련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UN, 2020a).

몇몇 협약 당사국들은 이를 위해 법률 및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거나 개정했다. 2017년 이후 그러한 조치를 보고하는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창의성을 위한 정책이 잘 확립된 국가들과 정책 수립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들 간의 참여적 거버넌스 격

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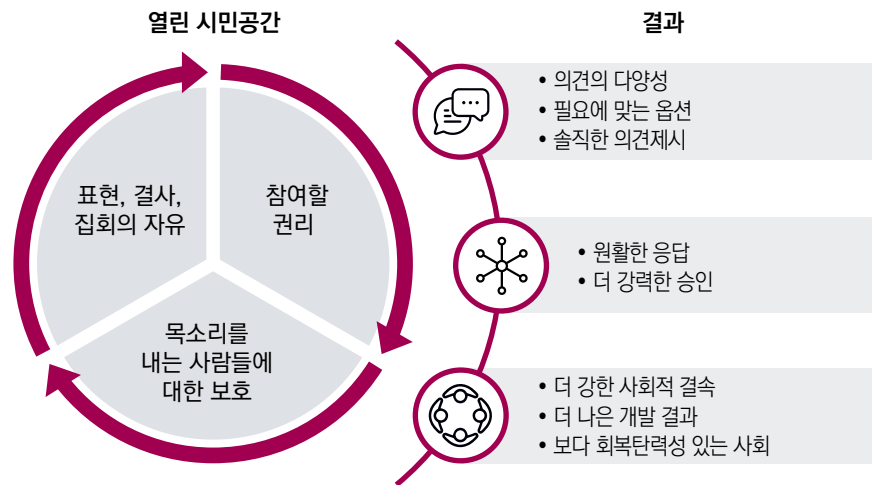
### 광범위한 영역별 자금조달 유형



출처: BOP 컨설팅(2021)

그림 4.5

### 열린 시민공간의 더 나은 결과 도출



출처: UN(2020a)

차가 좁혀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협약이 지지하는 문화정책 수립 원칙이 보다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법률에서는 공공과 민간 섹터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문화·창의 협회 및 조직을 구체적으로 공식화하거나, 모든 시민단체(CSOs)의 법

적 지위 획득을 촉진하기도 한다(카메룬, 에콰도르). 다른 국가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에티오피아는 시민사회단체 선언문(Organization of Civil Societies Proclamation) 제정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시민단체(CSOs)가 국내외 자금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고,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창출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에스와티니에서 승인협정(Recognition Agreements)은 협회, 기관 또는 회사의 형태로 문화·창의적 행위자들과의 업무 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기술적 및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문화 청소년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Youth)와 지역사회개발부(the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는 문화·창의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벨리즈의 국가 문화정책 2016-2026(National Cultural Policy 2016-2026)에 따르면 음악 분야의 권리 수집 및 관리 기관의 설립과 더불어(특히 문화·창의 분야에서 여성의 전문적 통합과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단체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여, 문화·창의 산업의 여러 분야에 걸친 실무자 조직의 설립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진정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입법 및 규제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이슈에 대해 보고한 당사국은 거의 없었으며, 전국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 이러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당사국 역시 전혀 없었다.

시민단체의 운영 환경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할 두 가지 지표는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능력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의 투명성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조사 응답자 중 35%(순긍정)<sup>7</sup> 만이 기존 법률과 규제에 근거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공공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답변한

7. 순 긍정적 동의는 진술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한 비율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비율을 뺀 총 비율이다. 부정적인 결과는 동의하지 않거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동의한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시민단체의 27%(순긍정)만이 국가의 입법 및 규제 환경이 그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선진국의 경우 57%(순긍정)에 달한다. 더욱이 문화정책 입법이 이루어지고 제정되는 방식이 대체로 투명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 시민단체가 더 많다(-2% 순긍정). 결과적으로 시민단체를 위한 지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적 접근과 전략, 공공 및 시민 역량의 강화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를 보여준다.

### 문화를 위한 개방형 거버넌스 원칙 활용

이 협약은 당사국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환경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문화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열린 정부의 패러다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립하였다(Meijer et al., 2012; Fumega, 2016). 열린 정부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연구, 모범사례 공동개발, 테스트 및 시행과정에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Bason, 2010). 이는 참여 원칙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력, 개방형 거버넌스의 토대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협업의 한 형태로서 시민혁신<sup>8</sup>을 촉진하고,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동창조<sup>9</sup>를 증진하고자 한다(Concha and Naser, 2012).

8.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민주적 이슈와 도전을 목표로 조직된 시민 또는 시민 주도 조직이 추진하는 혁신의 흐름을 의미한다.

9. 공동창조(co-creation)란 협업과 실험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을 말한다. 이는 다양한 지식의 원천을 결합하여 근본적으로 초학제적이고 새로운 지식관리 방법으로 이해된다(Zurbruggen and Gonzales, 2015).

참여는 범위의 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과정에 대중의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 패러다임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비용을 통제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고, 공공정책 수립에 대한 접근에 있어 형평성을 보장하며, 자원 할당과 공공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Concha and Naser, 2012). 문화 거버넌스와 열린 정부 사이의 연관성을 인지하면 더 강력한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Delfin, 2021). 한 가지 좋은 사례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부르키나파소는 문화, 관광, 스포츠 및 레저 분야에 대한 정책과, 문화 및 관광에 대한 국가 전략 설계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정책 개발을 위한 국가 지침과 결을 같이 하여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협의와 대화 과정을 위해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시민사회의 참여로 아이디어 교환과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전용 공간 조성, (계획 및 모니터링, 기금 모금, 사업 관리 및 성평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이 1,000명 이상의 행위자에게 행해졌으며, 지방 문화 정책의 설계 및 시행에 대한 교육이 700명 이상의 행위자에게 행해졌다. 참여는 범위의 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과정에 대중의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이를테면 의사결정에 있어 대중과 협업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IAP2, 2020).



참여는 단순히 시민사회에 정보를 알려 주고 자문하는 과정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 스펙트럼을 넓히고,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권한을 부여하면 (그리고 참여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받아들이면) 모든 참여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더욱 투명하고 협력적인 과정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동참할 수 있다(Atenas et al., 2020). 문화·창의분야에서 개방형 거버넌스 원칙과 실행은 여전히 미미하지만 (글상자 4.3)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지원 환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고도로 포용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열린 정부 원칙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창의분야에서 특정 집단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 토론과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위한 포용적 포럼의 성공적인 사례는 리투아니아의 문화 포럼(Culture Forum)이나 폴란드 문화국가회의(National Conference on Culture)에서 찾

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자문기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후에 네트워크와 새로운 시민기구의 형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 예로 탄자니아에서는 창의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를 통해 창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졌다.

### 투명성과 개방형 데이터를 통한 공공 가치 창조

열린 정부 관점에서 투명성과 참여의 관계는 필수적이다. 참여과정의 투명성 정도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Ramírez-Alujas and Cruz-Rubio, 2021). 협약에 따르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교환은 투명성의 원칙에 따른다(‘정보와 투명성’ 제9조). 결과적으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은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고, 투명한 기

관의 구축과 모든 수준에서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핵심 목표로 인식한다.

투명한 과정과 참여적 과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수준의 참여가 과정, 의사결정 또는 책임 할당의 투명성을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제출한 4년제 정기 보고서는 투명성에 관해서는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응답한 당사국 중 70%가 정부자금 및 예술가들을 위한 국가보조금과 상금에 관련하여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이 조치의 상세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투명한 과정과 참여적 과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과정, 의사결정, 책임 할당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조사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문화정책 입법이 투명하게 수립되고 제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정기보고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시민사회 협력 사례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조치는 거의 없었다.

### 글상자 4.3 • 열린 정부 관행의 지도작성 및 문화적 어젠다와 연결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과 같은 국제기구는 거의 10년 동안 모든 분야에 걸쳐 열린 정부 관행을 홍보하고 지도작성해 왔다. 78개 국가와 76개 지방정부가 구성한 다국적 이니셔티브인 열린정부파트너십은 국가 및 지방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열린정부파트너십은 회원국들과 함께 강력한 조직 인프라를 개발했고, 참여와 공동창조의 표준과 전용 툴키트를 포함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메커니즘과 도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열린정부파트너십은 예술과 문화 분야를 위한 전문 정책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열린 정부를 위한 4,225개 이상의 국가적 약속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된 약속이 19개에 불과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Delfin, 2021).

이 약속에는 브라질 문화에 대한 국가 정보 및 지표 시스템의 통합이나 필리핀 원주민에 대한 국가 위원회의 지방 입법 및 정책 결정 기구에 원주민의 의무적 대표성에 대한 정책 시행과 같은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열린정부파트너십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은 정보 접근, 역량 구축, 전자 정부, 재정 개방, 개방형 데이터, 재정 정책에 대한 공공 참여, 예산 출판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과 연관된다. 문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이들은 디지털 전환, 발견용이성, 가용성 및 다양성, 원주민, 문화 유산 및 성 평등과 관련이 있다. 열린 정부와 문화 거버넌스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협업과 중요한 혁신 잠재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출처: [www.opengovpartnership.org](http://www.opengovpartnership.org); [ogp-participation-co-creation-standards](http://ogp-participation-co-creation-standards).

이는 국가적 수준에서 '안전하고, 규제되지 않으며, 포용적이며,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공공 업무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활기차고 자유로운 시민 공간'이 보장되도록 정치 과정 참여와 의사결정 관행 및 과정의 투명성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UN, 2020a).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는 당사국과 시민단체가 투명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및 데이터 생성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유럽독립공연예술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Performing Arts)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업 환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2021년 4월 국제문화다양성연맹은 협약이 아직 널리 비준되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과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IFCCD, 2021). 슬로바키아에서는 문화·창의 산업 포럼을 위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어느 지역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해당 분야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방형 데이터<sup>10</sup>를 실행하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데 문화·창의분야 역시 이 과정을 육성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Delfin, 2021). 어느 작지만 중요한 조직은 대부분 문화 지표에 접근하고 프로젝트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개방형 데이터 포털을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통한 문화에 대한 정보와 표현의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도서관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은 개방형 데이터 실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 목표는 이러한 영역에서 개방형 데이터 실행을 촉진하는 글로벌 네

트워크인 OpenGLAM<sup>11</sup> 운동과 일치한다(McCarthy and Wallace, 2018).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인 문화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데이터 실행을 촉진하는 명확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Delfin, 2021). 변혁적인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문화 통계와 더불어, 문화·창의분야의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조정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방형 데이터는 지방,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문화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데이터 실행을 촉진하는 명확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협약 추진을 위한 활동 및 계획들에서 개방형 정부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몇 가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고 답변한다. 여기에는 공공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데이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공개하는 문제, 협약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협약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현재의 연구는 개방형 데이터가 일반적인 개방형 데이터 사용자(언론인, 변호사 및 민간 기술자)를 넘어 지방 단위에서 일하는 풀뿌리 조직들과 관련이 있도록 더 유용하고 연관성

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Zahuranec et al., 2021). 비록 조사 결과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문은 문화·창의분야의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공공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창의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Meyrick and Barnett, 2020; Zurbriggen and González, 2015).



문화 분야는 통계 데이터가 잘 제공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활동 프레임워크 안에서 조차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 데이터는 예를 들어 기준 상황, 목표 설정 또는 데이터 지표를 제시하는 데 필수적이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 상황과 맥락을 분석할 수 없다. 데이터는 협약의 추진에 있어 필수적이며, 당사국들로 하여금 고유한 문화적 표현들을 창조, 생산, 보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조건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2022년 판 글로벌 리포트를 위한 시민사회 설문지 응답자, 2021년

협약은 국가 및 지방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어젠다를 촉진하도록 강조한다. 이는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평화, 정의 및 강력한 기관'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6(세부목표 16.10), 자원(전문성, 지식, 기술, 자금 등)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모델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장려하는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세부목표 17.16 및 17.17)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진한다.

10. 국제 공개 데이터 헌장(2021년)에 의하면 개방형 데이터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특성을 갖춘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

11. '열린 갤러리, 도서관, 아카이브 및 박물관'은 문화유산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적 접근을 통해, 연결 및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적 이니셔티브이다.



또한 협약의 정보 공유 및 투명성에 관한 운영 지침(2019년 6월 개정)과 더불어 당사국들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로드맵 설계 및 시행을 담당하는 팀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등 2017년 이후 협약 운영 기관들이 내린 결정도 실현할 수 있다.

###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는 시민사회 행동의 영향

####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에 대해 높아지는 목소리

문화 거버넌스 참여는 모든 단계의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1장 참조). 당사국의 90%가 고무적이게도 문화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대화 메커니즘을 구현한다고 선언했으며, 선진국(97%)은 개발도상국(87%)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시민사회 조사 응답자의 77%가 자국 정부기관의 문화정책 협의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수치는 실제 현장의 경험과 비교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사국이 대화 메커니즘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그 범위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 수집을 목표로 하는 메커니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국의 운영 메커니즘을 보고한 대부분의 당사국은 협의를 통해 시민단체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리질리아트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었고(글상자 4.4), 국가 수준에서 시민단체 대표 및 개별 전문가와의 대화를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의회(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이탈리아, 자메이카, 리투아니아)와 같은 상설 기구를 설립했다.



© Johannes Breitschaft / Unsplash.com

**크**로아티아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특히 문화·창의 산업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은 참여를 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가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당국은 4주간의 전면 봉쇄를 제외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문화공간과 기관을 계속해서 열어주었다. 비록 제한된 인원만 수용할 수 있더라도 영화관과 극장, 박물관, 도서관, 콘서트홀은 문을 열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코로나19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임시 제도와 조치를 마련했으며, 이제 코로나19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회복력 있는 문화 창의분야의 발전은 2030년까지의 국가개발계획과 국가회복계획에서 다루어져 왔다.

크로아티아는 유네스코 리질리아트 운동에 참여했으며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회의(MONDIACULT 2022)를 앞두고 다른 나라와 함께 일련의 토론에 참여하기를 열망한다. 이 운동은 시민사회의 협약을 외부 감독하고 협약 당사국의 개방성을 되살렸다. 또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역할과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장려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회의의 준비 과정에서 리질리아트 운동이 2022년에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격차 및 기회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회의는 유네스코 회원국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문화적 다양성과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함께 성찰하고 노력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저자로 참여했던 <글로벌 리포트 문화정책의(재)구성> 초판은 이러한 성찰의 귀중한 데이터이다.

#### 니나 오블렌 코르지네크

크로아티아 문화부 장관

#### 글상자 4.4 • 리질리아트 - 예술가를 위한, 예술가에 의한 국제적 움직임

코로나19 팬데믹은 예술가 및 문화분야 종사자, 시민단체(CSOs)의 상호작용과 발전의 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CIVICUS, 2020). 이에 유네스코는 전 세계 문화예술단체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리질리아트, 온라인 토론을 통해 문화·창의산업과 분야의 현황을 밝히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275개 이상의 토론을 만들어냈고, 115개 이상의 국가가 연사 또는 사회자로 대표되었다. 전 세계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이 운동을 자신의 도전과 제안, 혁신적인 활동을 여과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우선적인 플랫폼으로 여겼다. 시민단체의 상당한 참여는 이 운동의 주요 특징이었다. 전반적으로 리질리아트 토론의 41.7%가 시민단체에 의해 조직되거나 공동 조직되었다. 2021년 3월 31일 현재, 토론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52%)와 아랍 국가(52%)의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에 의해 주도 또는 공동 주최되었다. 리질리아트 운동의 주요 발견은 집단 행동, 참여 과정 및 공공 협의가 전 세계 시민단체의 주요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 **네트워킹:** 일부에게 코로나19 봉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화상 회의의 도움을 받아 예술 및 문화 커뮤니티에서 전례 없는 네트워킹 시대를 예고했다. 지역, 국가 및 국제 동료와의 이러한 동맹은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집단 행동을 위한 추진력을 창출했으며, 예술 창작에 다시 불을 붙였다.
- **참여 과정:**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려는 조치와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위기로 인해 드러난 불안정성을 견지한 시각을 가지고 발표자들은 코로나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문화 예술계의 일부 참가자에게 위기는 문화정책 수립 및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맺기에 있어 보다 포용적인 시대를 여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 **데이터 필요성:** 전 세계 문화 분야 종사자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문화·창의 분야의 포괄적인 체계화를 지지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창의적 가치 사슬에서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잘 보았고, 이것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저평가와 국가의 지원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간주되었다. 참여 과정과 공공협의를 통해서 문화생태계의 적절한 확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과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기관 체계화가 코로나19 이후 우선순위에 올랐다.

- **디지털 영역에서의 보수:** 온라인 상의 예술 작품이 디지털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지더라도 충분한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일치가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 부족,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의 최소 재생당 보상,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부족, 예술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지불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수익 전환으로 만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네스코가 리질리아트 주최 측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심층 분석한 결과 100건의 권고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문화생태계에서 시민사회의 상대적 위치 및 역할과 직결된다. 정보 및 시민사회와의 피드백 공유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를 넘어서 참여 정책 수립(특히 코로나19 이후 회복 계획의 설계 및 구현과 관련한), 문화·창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위한 명확한 등록 메커니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 수준에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전담 지원 등이 있다.

유네스코는 리질리아트 x 세계문화장관회의를 통해 리질리아트 운동을 확장하여 2022년 9월 멕시코가 주최하는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회의 준비 과정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요구, 격차 및 기회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리질리아트 x 세계문화장관회의에 관심 있는 이해당사자 누구나 세계문화장관회의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전체 권고사항은 제8차 당사국 총회 정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creativity/files/sessions/8cp\\_inf8\\_covid19\\_resiliart\\_en.pdf](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creativity/files/sessions/8cp_inf8_covid19_resiliart_en.pdf).

일부 국가에서는 회의와 연례 포럼을 열었고(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간다), 다른 국가에서는 정기 또는 비정기 회의와 워킹그룹을 조직했다(벨로루시, 부르키나파소, 쿠바, 덴마크, 케냐). 시민단체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체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의 18%는 지지, 정책 개발 및 협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프리카는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했다. 또한 짐바브웨 신탁(Nhimbe Trust)은 문화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입법 검토를 위한 헌법 조정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입법 및 지지 추적기(Tracker)를 개발했다. 추적기는 특히 예술가 및 문화분야 종사자에게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개입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간의 프로젝트팀(TF)과 협업하여 일하는 시민단체 컨소시엄은 예술적 자유, 결사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문화 관련 분야에서 제안된 입법 개정안의 영향을 설명하는 성명서와 정책 개요를 개발하기도 한다.

부르키나파소의 문화예술관광부는 문화 분야의 새로운 레퍼런스 프레임워크 개발에 시민사회 네트워크, 관계자 협회 및 노조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공공 정책 수립, 전략 및 운영 분야별 계획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광범위한 협의와 피드백 세션이 포함된다. 새로운 분야별 정책인 국가문화관광전략과 2018-2021년 두 가지 행동 계획이 채택된 후 시민단체는 참여 실행을 위해 국가전략운영위원회에 가입했다.

향후 몇 년 동안 당사국과 시민단체의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대화 메커니즘(워크숍, 포럼, 위원회, 워킹그룹, 프로젝트팀(TF) 등)의 효과 및 결과,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고 문화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어떻게 장려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향후 몇 년 동안 당사국과 시민단체의 중요한 과제는 대화 메커니즘의 효과와 결과, 그리고 시민사회 참여를 어떻게 장려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약은 참여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및 시민단체가 채택한 전략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핵심적인 국제적 법적 프레임워크가 된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수준에서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6.7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실제로 당사국의 85%는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과 조치가 수립되었다고 보고

했다. 시민사회 조사에서 참여자의 76%가 새로운 정책을 개선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지지 캠페인 또는 노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시민단체 참여도에서 개발도상국(71%)과 선진국(86%)의 차이가 났다. 지역 단위에서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는 훨씬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시민사회 조사 응답자 중 절반만이 참여를 보고했으며, 선진국(64%)과 개발도상국(43%)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단체가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가능하고 동등한 환경에서 혜택을 얻도록 하는 도전과제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지역 단위에서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는 시민사회 설문 응답자 중 절반만이 참여를 보고함으로써 훨씬 덜 중요해 보인다.

소수의 당사국에서는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단체와의 문화정책에 대한 공동 설계 과정을 설명했다(오스트리아,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에서 발견된 사례를 보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는 이와 관련하여 선두적인 지역으로 보인다. 파라과이의 문화부 장관은 부문별 문화정책 공식화를 위해 문화 기술 테이블에 기꺼이 참여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준비했다. 페루의 후닌(Junín) 지역을 위한 지역문화계획 초안 작성에는 9개 지방에서 열린 지방문화회의를 통해 모인 5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주요 대표와 지역 지도자의 참여로 지방분권 과정이 원주민의 문화, 상호문화성, 권리에 대한 지역 전체의 대화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칠레는 분권적 상향식 접근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검토 과정을 이용하여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참여 아키텍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90회 이상의 회의가 지방에서 열렸으며, 4,000명 이상의 문화 행위자가 참여했다. 연례적인 지역 및 국가 문화회의와 함께 새로운 지역별 및 분야별 정책을 형성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문화정책의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아르헨티나 문화부의 문화관리사무국은 문화 핫스팟(Puntos de Cultura)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10년 가까이 계속된 작업과 6차례의 순방을 통해 전국 1,00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포용, 지역 정체성 및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예술적, 문화적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사회단체 및 문화협회에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조금과 지원을 제공한다. 법적 지위가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지원 대상 단체의 40%가 풀뿌리 조직이었고, 약 50%가 '빌라(villas)'(비공식 정착촌)에 위치하여 지리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반둥(bandung)의 창의경제위원회는 문화정책과 창의도시 개발에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또 다른 사례이다(Larasati and Gu, 2020). 반둥의 성공은 지역 활동가와 비정부 기구, 글로벌 정책 어젠다를 지역적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며, 이는 선진국 전문가(western intermediaries)를 통한 정책 이전보다 틀림없이 더 효과적이다.

조직 역량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입법 및 규제 환경이 공공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7%(순긍정)가 자신의 조직이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정책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작업가설은 현재 정책 환경의 특징이 규제 프레임워크가 약하는 점이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정책 수립 과정에 영구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상호 연관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정부 리더십에도 견제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계획도 부족

분하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과 규정의 부재 또는 부족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및 협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다른 수준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정책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소수 시민단체 중 19%는 기여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2%는 정부가 그들을 참여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고 느꼈고, 22%는 참여를 요청받지 못했다. 이것은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지원 실행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당사국이 제출한 4년제 정기보고서 중 최소 92%는 시민사회가 정보를 제공했으며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더 많은 시민사회 참여를 보고했다.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창의 분야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조건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정 목적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시민단체의 기여를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안은 또한 당사국이 시민단체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된 시민사회 양식을 포함하여 새로운 글로벌 리포트 도구를 개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민사회 양식은 다양한 국가의 환경과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다재다능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당사국이 제출한 4년제 정기보고서 중 92% 이상은 시민사회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시민단체 작성 양식을 제출한 당사국의 77%가 포함되며, 나머지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시민단체가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다수의 이해당사자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한다(글상자 4.5). 모든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정교화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다수의 이해당사자 협의에 참여시켰고,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참여(92%)가 선진국(84%)보다 더 많았다고 보고했다. 칠레, 팔레스타인, 파라과이, 폴란드, 르완다, 슬로바키아, 우간다 같은 당사국은 코로나19 시기에 시민단체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이 기간 동안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양식을 사용한 원격 참여 보고를 했다. 문화·창의 분야와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상황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 글상자 4.5 • 정기 보고를 통한 참여 정책 모니터링 활성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국(Sida)이 자금을 지원하는 '기본적 자유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의 재구성' 프로젝트(2018-2022)는 국가 및 지역 수준 정책 모니터링에서 16개 개발도상국의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강화했다. 공공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다수의 이해당사자 팀을 구성하고 자국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현황을 보고하도록 교육했다. 이러한 참여에 대한 보고 과정은 부처간 대화와 분야간 네트워킹을 위한 새로운 공간과 기존 정책 환경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포함한 향상된 기술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지식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말리에서 이 프로젝트는 관련 국가 행정, 지방 및 지역 당국,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협의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이끌었다. 페루에서는 문화부와 성평등 담당 공공기관 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상담회 및 교육 워크숍을 통해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나 각자의 분야(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에 대해 배우고 공동 지지 전략 탐구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진행 중인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의 산업, 예술, 문화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창의적인 사람들이 오랜만에 이 과정에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사하는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는 것,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실제로 당신이 말했던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Macdonald Macdee Chidavaenz-가수, 음악 프로듀서이자 인터넷 음반사 디렉터)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알제리, 모리셔스, 팔레스타인, 세네갈에서 전국적인 의견 취합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전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지역의 참여를 촉구하는 지역 발전의 접근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알제리는 보고 과정에 지역적 관점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했다. 몇몇 율라야(wilayas) '지역' 출신 대표가 최초의 다수 이해당사자 협의에 참여했고, 이후 구성된 국가대표팀에는 율라야의 대표도 포함됐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문화부와 라말라에 있는 유네스코 현장사무소가 라말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에서 다수의 이해당사자 협의를 개최했다.



© lucas law / Unsplash.com

## 문

문화·창의산업은 예술, 디자인, 패션, 영화, 사진, 공연예술 등의 재능 있는 창작자가 구상한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청년과 여성에게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꿈이 있고, 창조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신념을 저버리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창작자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라고 충고하지만, 문화·창의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우호적인 정책 부재, 시장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전문 역량 부족 등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MoTIV는 창의경제의 잠재력에 영감을 받아 팬데믹 상황에서 조직되었다.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의 창작자들 가운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끈다. 목표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본격적인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야망으로 무장하여 2021년 11월 청년의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영광스럽게도 유네스코-방글라데시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 창의경제 국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우간다 캄팔라에 위치한 통합 창작 스튜디오와 메이커 공간을 통해 젊은 창작자를 위한 도구, 교육, 시장 및 가치 사슬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각 프로젝트에 70%의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성평등에 전념하고 있다. MoTIV는 이미 970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에 기여했으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채택은 제조 기술에서 자동화와 데이터 교환을 향한 4차 산업 혁명 사용의 방대한 가능성을 강화하는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경제의 해를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했다. 패널의 한 젊은 여성은 창작자로서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였으며 축하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슬픈 현실이지만 지금이 창의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완벽한 신호이기도 하다.

### 자페스 카와구치

우간다 Creations Limited 팀장

수집 요청으로 인해 많은 시민단체가 '보고에 대한 피로감(reporting fatigue)'을 겪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증가했다. 모든 수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간결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장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참여에 대한 평가의 예는 더욱 드물다. 케냐는 창의경제 워킹그룹의 설립을 통해 고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문화·창의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문화 법안을 평가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워크숍을 조직했고, 이후 의회에 제출했다.

모든 수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간결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수준을 연결하는 상호교차 협력(cross-level partnership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당사국은 특히 지역 단위에서 시민 참여 관행과 방법론을 위한 역량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공공 참여의 스펙트럼에 대해 평가하는 것과 같이 참여 관행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도 필요하다(IAP2, 2020). 모범 사례를 인식하고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질적 수준과 효과를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우선순위 주제 및 개입 형태 시도

역량 구축, 지지, 정책 개발은 시민사회 조사에서 주요 평가요소이다. 이 외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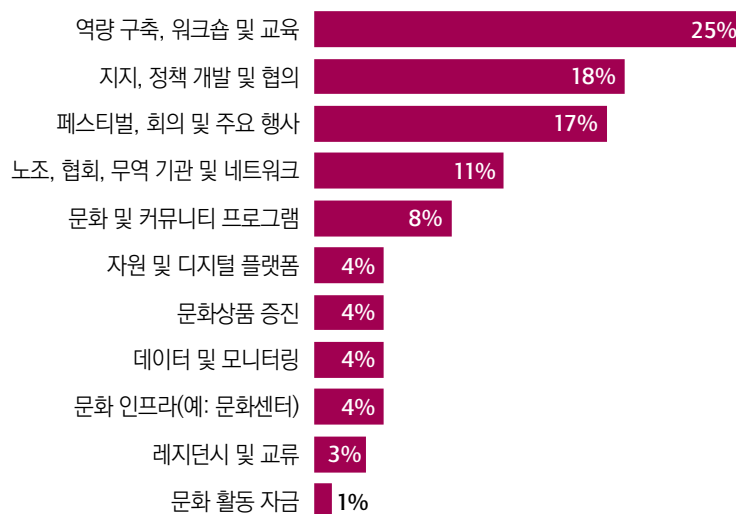
시민단체의 참여는 제작, 생산, 유통,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광범위한 기타 활동에 특히 중요하다. 여기에는 행사 조직(페스티벌 및 회의), 지지, 네트워킹, 문화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지원,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자원 및 인프라 제공, 데이터 수집 또는 모니터링 참여가 포함된다(그림 4.6).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가 여러 주제와 문화적 영역에 걸쳐 횡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치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말라위의 문화기금은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동시에 민주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실무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예술과 문화에서 여성과 소녀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러한 주제 교차점은 교차 분야 연계를 발전시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이다. 그들은 문화의 횡단성을 언급하고, 잠재적인 공공 및 시민 개입의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하며,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 간 대화와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진전시킬 수 있다. 시민단체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 보고한 조치 중 가장 빈번한 분야는 성평등과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이다. 시민단체가 보고한 모든 조치의 42%에 불과하지만(나머지 58%는 덜 구체적), 이러한 패턴은 시민단체가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틈새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적 자유, 디지털 기술, 저작권 또는 환경과 같은 정책 영역은 훨씬 뒤쳐져 있다. 이는 국가 수준(시민단체가 모니터링 노력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에서 여전히 시민사회가 행동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6

#### 유형별\* 시민단체의 활동 보고



\*다수 또는 일반적인 활동을 설명하는 조치는 집계되지 않음.  
출처: BOP Consulting(2021).



그러나 시민사회가 저작권 정책 수립에 참여한 몇 가지 예가 있다. 남수단에서는 유네스코와 유럽연합 프로그램 '문화·창의 산업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지원'에서 창작 지원에 참여하는 풀뿌리 조직(특히 청년 사이에서)이 자국 최초로 미래 지식재산 법안에 대한 협의에 참여했다. 분석의 사례를 확장해서 시민단체가 보고한 모든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면, 문화·창의 분야를 제외하고 유일한 주요 차이점은 그들의 두 번째 주요 정책영역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계획에 분야들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점이다(이를 통해 그러한 지지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지 증명).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sup>12</sup>의 네 가지 목표는 특히 선진국의 시민단체 이니셔티브 간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가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며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시민단체는 지역 단위에서 특히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과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활동의 약 30%가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아랍 국가의 시민단체는 국가 수준에서 문화·창의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 가치 사슬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문화 영역을 대상으로 한 이니셔티브 중(보고된 이니셔티브의 절반) 시민사회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절반은 영화, 시청각 및 공연예술이었고, 음악(18%), 시각예술(15%), 출판(14%)이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시민사회 조치(보고된 조치의 3분의 1 미만)에서는 여성과 청년이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가장 큰 대상 집단(각각 약 30%)이며, 아프리카계 후손이나 원주민과 같은 취약계층 또는 소수계층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시민단체가 보고한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경우(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6%가 청년과 관련이 있는 반면, 8%만이 성평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격차는 가장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 문화 영역이나 정책 영역에서 일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주요 우선순위는 여전히  
공공 당국 및 다른 출처와  
새로운 매커니즘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보다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향후 몇 년 동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주요 우선순위에서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향상과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 기타 인권 증진(표현의 자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호)은 어젠다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요 우선순위는 여전히 공공 당국 및 다른 출처와 새로운 매커니즘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상향식 접근을 통해 참여적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간의 구조적으로 고정되고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류는 매우 관련성이 높으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질적인 이해관계자(특히 소외집단)가 포함되려면 이러한 논의

과정의 투명하고 포용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이고 근거가 충분한 열린 대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 케냐는 사용자 친화적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및 피드백 매커니즘으로 전환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 데이터 정책을 요구한 최초의 국가이다.

당사국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파트너십을 교류와 공동창조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공공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및 기타 시민단체와 더욱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는 특정 정부가 협약과 관련된 활동에 시민단체를 유의미하게 참여시켰는지를 결정하는 양적 및 질적 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각 이해관계자의 성과에 대해 공동으로 합의된 매개변수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공공-시민단체 파트너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파트너십 지수 또는 추적기를 개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검색 가능성과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입각한 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시민단체의 주요 관심사이며 향후 정책적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 파트너십, 네트워크 및 협업

시민단체는 자체 이니셔티브 외에도 이 영역에서 보고된 수많은 이니셔티브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협업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 이전 글로벌 리포트에서 '네트워크는 지지를 포함한 공유 이니셔티브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는 시민단체가 많은 조직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공통의 목소리를 낼 때 더욱 강력하다. 또한 상호 지원(peer support), 학습 및 자원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업무의 중복을 방지한다'고 언급했다(UNESCO, 2018).

12. 목표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 지원(목표 1),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적인 흐름을 달성하고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 이동성 증가(목표 2),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화 통합(목표 3),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목표 4).

파트너십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보고한 조치 중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은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파트너십 모델(52%)이었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3분의 2(61%)는 중앙 정부 수준에서, 24%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보고되었다<sup>13</sup>.

또한 시민단체가 전국적 네트워킹 구축을 주도하면서 국토 전반에 걸쳐 변혁적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시민사회 조사의 표본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 상대적으로 적지만, 30%에 가까운 시민단체가 정책 어젠다에 대응하고 특히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행동 분야 외의 조직과 협업한다고 선언한 것이 흥미롭다. Red U40 멕시코 네트워크가 잘 확립된 예이다. 이는 협약의 인지도를 높이고 협력 프로젝트와 프로세스를 조성하여 멕시코 연방 32개 주에 걸쳐 국가 및 지방 이해관계자를 연결한다. 네트워크의 유연성과 확장성은 시민단체가 국가 또는 국제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개발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낸다.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21개의 국제 단위 문화 네트워크는 ‘국제 문화 네트워크의 가치(The Value of International Cultural Networks)’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그들의 존재 이유를 상기하고, 국제 협업 촉진, 새로운 아이디어 테스트, 경험 및 자원 공유, 풀뿌리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데 있어서 그들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ENCC, 2016).

참가자들이 협업의 장벽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설문 응답에서 자원 부족을 자주 언급했다. 소수의 시민단체 응답자만이 역량 구축을 요구했지만 자금을 늘리고, 포럼과 회의를 조직하고, 국가의 국정 전략(national government strategies)에 더 잘 부합하며, 중앙 정부로부

터 협업에 대한 더 강력한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 협약의 법적 업무 참여

협약 당사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은 시민사회포럼이다. 2017년부터 협약 본회의 의사결정 기구인 당사국총회는 매 회기마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문화·창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종사자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도전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국제 어젠다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시민사회포럼은 당사국의 작업과 향후 활동을 알리기 위한 공동 권고사항을 만들어낸다.

2019년에 발표된 주요 권고사항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으로부터 현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에서 전통적인 이해관계자를 지원하며, 콘텐츠 제작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법률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민단체는 문화 상품, 서비스, 관계자의 흐름과 관련된 모든 국제 무역 협상에서 세금을 전액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창작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개발도상국 창작자에 대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우려는 2021년 6월에 92명의 시민단체를 모은 가장 최근의 포럼에서 반영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배경으로 개최되었으며, 국제사회에 문화·창의 분야를 회복 계획에 완전히 통합하여 포스트 2030 글로벌 개발 어젠다에 문화 관련 목표를 국제 수준에서 포함하도록 촉구했다. 포럼은 또한 개별 시민단체를 전문성과 파트너십으로 하나로 묶을 것을 요구했다. 포럼에서 시민단체의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는 시민사회와 당사국이 공유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협약 관리기관 사이에 보다 영구적인 조

정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창의 분야를 회복 계획에 완전히 통합하여 포스트 2030 글로벌 개발 어젠다에 문화 관련 목표를 국제 수준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협약의 법적 작업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다른 보완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각 관리기관의 회의에는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춘 항목이 포함된다. 2017년부터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사무국과 시민사회 대표 간의 실무회의도 위원회의 매 회기 전에 조직된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시민단체에게 활동 보고서<sup>14</sup>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지만, 활동 보고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거나 모니터링하려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제한된 재정 및 기술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당사국과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조정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몇 년 동안 협약 관리기관의 업무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몇몇 시민단체는 협약이 지지하고 몇몇 당사국이 자국 내에서 채택한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이 더 나아가 국제적 수준에서 협약의 자체 거버넌스에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13. 전체 11%만이 2019년 6월 여러 당사국과의 파트너십을 언급했으며 초국가적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다.

14. 최신 보고서는 2019년 6월 당사국 회의에 제출되었으며 [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creativity/files/7\\_cp\\_inf\\_11\\_en.pdf](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creativity/files/7_cp_inf_11_en.pdf) 에서 볼 수 있다.

## 권고사항

이 장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이 제시된다.

-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을 포함하여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및 창작 분야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정책, 조치 및 코로나19 회복 계획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시민단체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 당사국과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가 문화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정보시스템과 효율적인 협력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한 입법 및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당사국들은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참여와 투명성과 책임의 차원들을 연결함으로써 시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 거버넌스에 있어 열린 정부의 원칙과 이행을 실천해야 한다.
- 당사국과 시민단체는 개방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참여와 공동창조에 대한 기존의 표준을 채택하여 모든 수준(리더십 포함)에서 기술과 역량을 높이고 창의성을 위한 정보에 입각한 상황별 및 목적 지향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 당사국은 전문단체와의 협업을 촉진하고 취약한 그룹의 시민단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거나 비인기 문화 영역 및 정책 영역을 촉진시키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당사국과 시민단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방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인식해야 한다. 혁신적인 지방의 실천이 국가 전체에 걸쳐 복제되고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은, 당사국이 특히 지역 수준에서 시민의 참여 및 참여를 이끌기 위한 역량 구축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 당사국과 시민단체는 참여적 대화와 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활동, 도구 및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당사국은 포스트 코로나19 회복 계획을 포함하여 협업 및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시민단체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자금 제도를 구현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2030 어젠다에 따라 새로운 협업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보완적인 자금지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
- 당사국과 시민단체는 기존의 참여적인 대화와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사용, 효율성,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 모니터링,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모델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시적인 참여 메커니즘에서 영구적이고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목표 2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 Reena Kallat, *Waver Chronicle*, 2015, electrical wires, speakers, circuit boards, 10 min single channel audio\*



## 목표 2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의 공평한  
접근, 개방 및 균형을  
독려한다

우대조치를 포함한 국가의 정책과 방안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무역유통을 증진시키고,  
전 세계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이동성을 증진시킨다.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0 불평등 감소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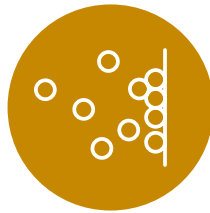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조약 및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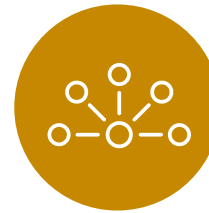
경과

- 국외 이동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조직은 교육, 자금 및 정보 제공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는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무역협정에 있어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음



도전

- 이동성과 관련해 개발도상국들은 지속적으로 비자 및 자금이라는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
- 세계 무역 시장이 개발도상국의 문화 서비스에 개방될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음
- 최근 몇 년간 어떠한 우대조치도 무역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음



권고 사항

-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디지털로 액세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성을 재고하고, 우대조치 체계를 통해 이동성 불균형을 보완함
-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원조에 투자하고, 다각화된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원해야 함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대조치를 승인하고 무역 협정에서 데이터 흐름에 관한 약정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데이터 요구사항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발급된 비자 및 여행 금지령 현황
-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유통무역
-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무역 원조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이동성 다시 상상하기

아누파마 세카르

### 핵심 발견

- ››› 이동성을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직업적 궤적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정부와 자금 제공자들의 점진적 이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문화정책 전략과 법적 체계 구축에 있어 예술의 국제화 원칙 하에서 예술가들의 국외이동을 지지하고 있다.
- ››› 자금의 불평등한 분배와 과중한 비자 규제로 인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 ››› 지난 4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들과 다른 문화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의도치 않은 외부효과를 촉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선진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극히 미약하다.
- ››› 문화 분야에 있어서 국가 간 이동성은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있어 시민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책 분야 중 하나이다.
- ›››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동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증가하고, 관련 자문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동성에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동성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비용 상승과 건강 인증이 새로운 접근 장벽을 만드는 반면, 보다 디지털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동성을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국외이동: 지역 예술가들의 해외 출국  
국내유입: 외국 예술가들의 입국

경과



**83%**

당사국들이 국외이동을 지원한다고 보고



그리고 **57%**

당사국들이 국내이동을 지원한다고 보고



국내유입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 제도, 문화 인프라 및 비자 정책 활성화가 필수적임

시민사회는 문화분야의 과도기적 이동을 적극 지원함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이동성 정보 거점숫자가 증가함

도전

이동성의 지속적인 세계적 불균형

예술가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들은, 자금, 비자, 정보, 교육 및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선진국 여권 소지자는 평균 **169** 개국에서 비자 면제를 받음



**79%** 국제 예술가는 유럽과 북미에 거주하고 있음



개발도상국 여권 소지자는 평균 **86** 개국에서 비자 면제를 받음



개발도상국 예술가들에 대한 새로운 우대조치 없음

지역간 연결성의 열악한 곳이 있어 개발도상국 간의 이동성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음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교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보조금은 디지털로 바뀌었고, 문화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음

그러나 디지털에 집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비대칭적 접근성으로 인한 불평등
- 불공정한 임금으로 인한 인재 유출
- 물리적 이동성으로부터 자금 이탈

여행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제한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문화적 이동성은 향후 몇 년 동안 영향을 받을 것임



더 나은 이동성

더 높은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동성을 다시 상상함



행정 지원

자금 지원과 더불어, 예술가를 위한 행정 지원 제공



대표성

이동성 기회에 대해 평등한 대표성 보장



근접

개발도상국 간의 지역 내 이동에 대한 지원 개선

권고 사항

## 핵심 지표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 특히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운영 프로그램

#### 서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뤼셀에서 열리는 무셈의 탕 포르 카사블랑카 페스티벌(Temps Fort Casablanca à Moussem)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2018년 2월, 카사블랑카 소재 문화 실무자 마리아 다이프(Maria Daïf)는 소셜미디어에 벨기에 무셈 페스티벌 주최자에게 공개 항의글을 게시했다. 무셈 페스티벌의 모로코 파트너 단체인 투리아 & 압델라이즈 타지 재단(Fondation Touria et Abdelaziz Tazi)과 루진 아트 스페이스의 디렉터인 다이프는 오프라인 행사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아 7명의 모로코 댄서 및 안무가들과 카사블랑카에서의 현대무용 활동과 홍보에 대해 나누는 대화에서 좌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동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생각했고, 페스티벌에 참여해 자신의 도시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이벤트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유럽 당국이 우리가 그들의 국경을 넘는 것을 승인한다(사실 대부분의 경우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Daïf, 2018).

모로코에서 벨기에를 여행하려면 쎅겐 비자(Schengen visa)가 필요하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흔한 단기 체류 비자 중 하나이며,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모로코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마리아 다이프는 과거 유럽 문화기관의 초청으로 20여개국의 비자를 받아 유럽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

다. 이번에도 20년 전의 첫 급여 명세서까지 포함해 까다로운 비자 신청 절차를 성실하게 마쳤다. 일반적으로 증명 서류는 재정 안정을 증명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형식적으로 요구된다.

협약 비준을 통해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더 나은 이동성을 약속한다.

다이프는 8일 간의 단수 입국 비자를 받았다. 이는 무셈 초청장에 명시된 작업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간이다. 작업이 끝난 후 바로 귀국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보였다. 단 몇 시간만 늦어도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협박은 아니지만 확실히 환영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는 비자를 신청하면서 매년 같은 답변과 증명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다이프에게는 유럽 문화기관에서 초청을 받아 여러 나라를 방문했던 지난 20년 동안 쎅겐 비자를 발급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 피부로 와닿는 일이기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예술가의 이동성 제한에 반대하는 내부고발자 역할을하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그녀가 겪은 일이 그해의 유일한 사례나 최악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을 여행하는 다른 많은 예술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여기

에는 무셈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2005년 벨기에와 유럽연합(EU) 양 측에 의한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Daïf, 2018). 협약 비준은 당사국들이 개발도상국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이프의 결정에 대해 개발도상국 전역에서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는 비자 거절이나 과도하게 짧은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이프의 공개 항의서와 관련해 수백 명의 문화 분야 종사자가 쎅겐 비자 발급 어려움 때문에 아티스트 레지던시, 회의, 기타 단기 교류 방문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공유했다. 2019년 네덜란드 갤러리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쎅겐 비자 신청이 거부된 이집트 시각예술가 모하메드 알라나, 2018년 밀라노에서 열린 엘리트 모델룩 패션쇼에서 공연하지 못한 튀니지 DJ 하이템 브리키의 경우가 그렇다(Crétois and Atia, 2019).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대중에게 공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차후에 비자를 신청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는 협약이 채택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문화분야 종사자들은 선진국 업계에 접근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 진출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융통성과 배려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동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이다. 이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로써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아야 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에서 인정된 기타 권리와 일치한다. 예술가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의 권리는 1980년 유네스코의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는데, 이는 모든 회원국에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행 및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여 다른 문화와의 광범위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UNESCO, 1980). 이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도 ‘과학 및 문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인정했다(UNGA, 1966).

창작 분야의 이동성은 예술가 및 문화분야 종사자가 새로운 직업 기회, 협력자, 청중 및 시장에서 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을 채택하면서 기존 1980년의 권고안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실제로 이 협약은 창작자가 세계 시장과 국제 유통망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정책과 조치를 장려하는 동시에, 예술가,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예술가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국제 협력을 도모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동의 자유는 예술적 자유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종종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따라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 장의 목적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협약에 의해 제공된 정책 프레임워크가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해외 이동성을 얼마나 넓히고 심화시켰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이동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과 조치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립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약속이다: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외 진출 및 국내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로, 이동성 정보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설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 특히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운영 프로그램으로, 이동성 기금과 문화 행사 및 교류 시설, 시민단체(CSOs)가 시작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예기치않게 직면한 문제점을 포함해 이동성과 관련된 기존과 새로 발생한 어려움을 살펴볼 것이다. 2018 글로벌 리포트에서 확인된 4가지 이동 장애 요인(국제 안보 조치, 복잡한 비자 절차 및 높은 신청 수수료, 불충분한 취업 허가 규정, 자금 및 지원 부족)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섯 번째 주요 장애물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제한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물리적 이동성을 대체하는 디지털 도구 사용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 취소되지 않은 46개의 주요 국제 영화제 중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로 진행하거나, 또는 완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했다(BOP 컨설팅, 2021). 여기서는 이동성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이러한 발전의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여행 제한 조치가 끝나고 물리적 이동성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이동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대응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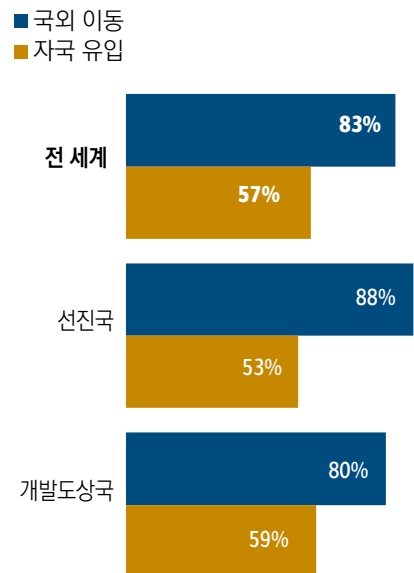
**예술가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불균형은 여전히 있다**

### 국외 이동 지원의 점진적 증가

오늘날 많은 정부가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공적으로 이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 제공 당사국 중 83%는 국외 이동(해외 여행을 하는 자국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을 지원한다고 보고한 반면, 57%만이 외국 예술가의 자국 유입(방문 초청 또는 허용)을 지원한다고 보고했다. 흥미롭게도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좀 더 높은 비율로 자국 유입에 대한 일종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한 협약의 구체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 53%만이 자국 유입을 지원했다.

그림 5.1

예술가와 문화분야 종사자들의 국내외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



출처: BOP 컨설팅(2021)

국외 이동을 지원하는 것은 훨씬 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의 참여(문화 외교와 국가 브랜딩 포함)를 촉진하거나, 수출 진흥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문화 이니셔티브 발전과 같은 몇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다. 후자는 예술의 국제화 원칙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문화 정책 전략과 예술 분야의 촉진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더욱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 문화유산부의 '칠레 엘 문도(Chile en el Mundo, 세계의 칠레)' 프로그램은 외교부 산하 수출진흥기관인 프로칠레(ProChile)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화 전략의 일부로 창의 산업 분야에서의 이동을 지원한다.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문화전략뿐만 아니라, 모잠비크의 국가 문화정책 입법인 결의안 12/97호에도 이동성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관광부가 문화상품 수출 활성화와 모잠비크 예술의 국제화를 위한 주요 행사에 문화 분야 종사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티모르의 국외 이동 지원은 문화의 국제화 전략을 위한 국가 정책에 포함되어 있고, 고등교육과학문화부의 문화예술부장관이 관광산업부 및 외교협력부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외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공적자금 지원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유명한 국제 페스티벌, 비엔날레 및 예술 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세네갈과 같은 나라에서 시각예술, 공연예술, 시청각 분야 종사자에게 큰 혜택을 준다.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세네갈 문화

통신부에서는 자국 영화 및 시청각 산업 진흥기금으로 전 세계 38개 영화제에서 186명의 세네갈 영화 제작자와 영화 분야 종사자의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282,000 달러를 지출했다. 아르메니아 역시 국가 및 문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문화 교육)의 예술가들이 국제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공적자금의 다른 목표는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아트 레지던시에서 지내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해외 여행 및 국제 마켓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적 협업과 공동제작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가들이 해외 외교 행사에서 국가를 대표하도록 지원하며,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종사자가 관련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국외 이동지원 공적 프로그램에서 수요자 중심의 여행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i-포르투누스(i-portunus)' 이동성 제도가 이에 속한다.

한정적인 정규 자금 지원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다 행정적인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1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개인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예산의 한계로 이러한 보조금이 흔하지는 않지만 베냉 예술문화기금과 같은 주목할 만한 예외도 존재한다.

한정적인 정규 자금 지원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다 행정적인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알제리 문화부가 쟁건 비자를 신청하는 자국의 예술가에게 제공하는 추천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더 성공적인 발급, 더 빠른 처리 기간, 심지어 수수료 면제도 가능해졌다 (글상자 5.1).

### 글상자 5.1 • 알제리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쟁건 비자 신청 프로세스 촉진

2018년 알제리 문화예술부는 쟁건 비자를 발급하는 알제리 주재 대사관들과 협정을 체결했다. 그 협정은 알제리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신청 절차 촉진과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여 예정인 알제리 문화 분야 종사자나 이를 후원하는 시민 단체는 문화예술부 협력교류국으로부터 쟁건 비자 취득을 위한 권고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추천장이 도입되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음악가, 배우, 작가, 시인, 시각예술가 등의 직업군에서 70여 건의 쟁건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았다.

문화예술부는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외교부와 문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알제리 주재의 다른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대사관과도 유사한 협정을 진행 중이다.

출처: 알제리 QPR.

여러 국가에서  
국외 이동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기존 법적 및  
운영 프레임워크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다른 구조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외에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몇몇 국가 간의 문화협력 협정에서 이동성 차이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성 제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상자 5.2). 지나치게 복잡한 신청 과정, 불분명한 선택 기준, 한정적인 도달 범위 및 영향, 수혜자와 협력 시민단체의 재정적 부담 등이 도전과제에 포함된다.

이러한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몇몇 국가에서는 국외 이동을 위한 법률 및 운영 절차를 대규모로 개선한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의 경우 국외 이동을 위한 기금 지원 체계가 2019년에 '예술, 혁신 및 문화정책 연구소'가 공개 모집을 거쳐 특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지원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위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결정은 특별기술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새로운 제도는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2017년 이동성기본법(Organic Law of Human Mobility)은 이민법, 외국인에 관한 법률, 귀화법, 여행 서류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규정과 제도를 하나의 법적 문서로 통합하여 예술가들이 해외에서 에콰도르를 대표할 때 여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리투아니아 문화부는 2018년 채택된 문화 국제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각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는 예술

가와 문화 분야 전문인력의 이동성을 향상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적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동성에 대해 보다 조직적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2000년 7월 룩셈부르크의 모든 문화 분야를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기관으로 걸쳐: LX(Kulture: LX)가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주요 국제 문화 행사에 룩셈부르크의 참여를 도모하고, 해외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투어 및 전시회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 글상자 5.2 • 공적 자금 지원 이동성 프로그램 평가

몇몇 당사국들은 자국의 공공 자금 지원을 받은 국제 이동성 프로그램 및 협력 협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이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음의 네 가지 평가 결과는 문화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이동 지원 활동 및 행정상의 도전과제를 드러내고, 이동성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베카르 컬투라(Becar Cultura, 문화 보조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르헨티나의 원조 제도(2016-2019) 평가에서 얻은 두 가지 핵심 교훈은 지속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과제를 가리킨다. 자금 지원은 공식 및 비공식 문화예술단체의 경영을 강화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목표에는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제도는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시행됐다가 2018년과 2019년에 보류되어 예술가의 이동성 지원 가능성이 낮아졌고, 해외 여행이 수반되는 훈련 활동 참여가 더 어려워졌다. 그로 인해 수혜자들이 받은 교육을 다시 지역 사회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되었다.

부르키나파소와 벨기에의 왈로니 브뤼셀 지방정부 간의 오랜 양자간 협력 협정(1998년부터 운영)을 살펴보았을 때, 협력시민단체들이 이동성을 포함해 프로젝트를 수행 자금을 수월하게 마련하기에 충분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는 자금 지원이 프로젝트 후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칠레에서는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국립문화예술진흥기금(Fondart)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국가 간 이동(작품의 국제화)의 필요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평가한 결과, 신청과 지원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했다. (1) 복잡한 신청서 및 온라인 플랫폼, (2) 주관적으로 보이는 평가 기준, (3) 지원 요청 범위 내 지역 집중, (4) 일부 특정 예술 분야에 우선권 부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서 양식을 단순화하고 과정을 개선하고, 프로젝트 신청 시 잠재적 수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절차의 법적 근거에 더 많은 투명성을 적용하고, 지역 및 예술 분산 전략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i-포르투누스(Portunus)' 이동성 제도의 초기 단계(2018-2020)에 대한 2019년 운영 연구에 따르면 1,780 달러에서 4,000 달러 사이의 이동성 보조금을 받은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의 337명의 예술가는 주목할 만한 영향을 받았다. 이들 중 97%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했고, 94%는 새로운 관객 및 무대나 전시공간을 개발했으며, 94%는 새로운 공동 제작 및 작품을 개발했으며, 49%는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또한 제도의 향후 단계를 위해 행정 프로세스 단순화를 권장했다. 권장된 개선사항에는 보다 간결한 신청서 양식, 가능한 경우 간소화된 비용 옵션으로 수혜자에게 2회 분할 지급, 의무적이지만 간단한 보고 절차,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책임있는 이동성을 위한 재정 지원의 확대가 포함된다.

출처: QPRs of Argentina, Burkina Faso and Chile; European Commission (2020a).

## 자국으로의 이동성에 대한 불균등한 지원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선진국은 자국 예술가에게 국가 간 이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가 그들의 영토로 오는 것을 환영할 것을 약속한다. 그 이행은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0.7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동성에 대한 우대조치는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가 훈련과 네트워킹에 접근하고, 작품을 해외에 발표하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대조치라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메커니즘은 국제 무역 용어에서 차용한 아이디어로, 협약의 고유한 특징이다. 제16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조항은 문화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는데, 창작 활동의 특성상 막바지에 급하게 제작 참여를 위한 신속한 비자 처리를 필요로 하거나 저임금 프로젝트로 진행되는(항상 지급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의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동성에 대한 우대조치는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가 훈련과 네트워킹에 접근하고, 해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더 균형잡힌 문화 교류와 더 다양한 문화 지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따라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한 차등 대우 원칙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0.a에 대응한다).



© jana müller / Unsplash.com

협약 및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이행의 맥락에서 볼 때, 우대조치가 여전히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예술가들의 자국 유입을 지원해주는 국가의 긍정적인 사례들이 있다. 어느 지역으로든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정기적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제도, 문화 인프라 시설 및 이민 정책 활성화의 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일부 목적지는 다른 목적지에 비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 개발도상국 간(같은 대륙이든 아니든) 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자국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더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어서 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진다. 반면 선진국으로의 이동은 문화, 국제 원조, 다국적 협력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된다.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는 이동성 기회에 접근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는데, 이 경우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급은 일회성 제도에서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기적 노력은 불가리아 국립문화기금의 문화 접촉 '이동성' 프로그램이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예술 아카데미의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같은 개별 종사자의 단기 방문이나 레지던시 체류에 대한 정기적인 여행 지원 체계의 형태가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창작물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도 있다. 스위스 개발 협력 기관이 스위

스로의 이동 자금을 지원하는 남부문화기금(Süd Kultur Fonds)도 포함된다. 이동성은 또한 스위스예술위원회 프로 헬베티아(Pro Helvetia)에서 시작된 라틴 아메리카와 스위스 사이의 코인시덴시아(COINCIDENCIA) 문화 교류 프로그램 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지원하는 발트해 문화기금과 같은 지역 중심 프로젝트로 지원되기도 한다.

일회성 제도의 경우 선진국 대사관을 통한 특별 자금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그 예로 나이로비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스웨덴 연구소는 2019년 12명의 케냐 예술가들이 스톡홀름을 방문하여 역량 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후원했다.

위와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 간의 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바베이도스와 가나,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와 중국 등 최근 몇 년간 체결된 양자간 문화 협력 협정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일부 국가기금 이용이 가능하다. 제3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드물지만 카리브해 이동성 기금(프랑스문화원의 아프리카 및 카리브 문화 협력 미션)과 같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다. 이 경우 카리브해 국가에 거주하는 문화 분야 종사자가 다른 카리브해 국가(또는 캐나다, 미국의 플로리다 및 루이지애나)를 여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국제 제도는 '앤티모빌리티(ANT Mobility)'라는 스위스예술위원회 프로 헬베티아(Pro Helvetia)의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남부의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활동을 위해 개인과 예술 단체에게 여행 지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퍼스트!(Mobility First!)'는 캄보디아 리빙 아트와 협력하여 21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 실무자에게 아시아 내 여행을 지원하는 아시아 유럽재단(ASEF) 프로그램이다.

자금 지원 외에도 외국 창작물을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충분한 문화 인프라 시설은 자국 유입에 필수적이다. 예술 페스티벌, 예술가 창작 스튜디오 및 프로그램, 컨퍼런스, 예술 시장 및 아트 박람회는 어떤 목적지로든 장기적인 이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들이다. 선진국에서는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해 레지던시와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규모 있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페스티벌과 예술 시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 발전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몽골의 울란바토르 국제 영화제는 울란바토르 주지사, 울란바토르 문화예술부, 시민단체 및 몽골 예술위원회 등의 공동 노력이다. 2019년 영화제에는 50여 개국 60여 명의 영화인들이 모여 국제협력 확대와 현지 영화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지난 4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페스티벌과 예술 시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시작한 '인도네시아나(Indonesiana)' 문화 플랫폼은 문화 활동 조직 간의 더 나은 조직과 협업을 촉진한다. 2018년 플랫폼이 시작된 이후 31개 페스티벌이 이 플랫폼에서 열렸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아프리카 공연예술 시장은 현재 국가 재정을 통해 총 지출의 거의 4분의 3(73%)을 총당하는데, 주로 프랑코포니 문화부, 아비장의 자치구, 프랑코포니 국제기구와, 민간 후원자들로부터 나온다.



임시 이주 제도(temporary relocation initiatives)는 자국 유입을 지원하는 독특하고 중요한 형태의 문화 인프라 제도로,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해외로 이주하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이다. 안전한 공간 제공과 망명 예술가 보호를 포함한 이 주제는 예술적 자유에 관해 다른 제10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 개발도상국 출신의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면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들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렵다. 온더무브(On The Move)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으로의 이동성 자금 지원 가이드를 완성한 시점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약 250개의 장학금과 기회의 목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Guevara, 2019). 자금 지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항공료나 기차 요금은 지원하지만, 비자 수수료, 숙박비, 일당과 같은 이동에 관계된 일련의 비용까지는 거의 지원되지 않는다. 또 다른 장애물로는 많은 기회가 일회성 계약이어서 지속가능한 협업 구축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Bourdin, 2019).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는 지역 내 여행조차도 쉽지 않다. 모리셔스의 비영리 파타지(pARTage)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를 증명한다. 이 제도는 인도양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예술가를 영입하는데 관심은 있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대신 모리셔스에 거주하거나 고국에서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선진국의 예술가를 주로 초청한다. 개발도상국 간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요인은 전통적으로 선진국으로의 이동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동성이 '서구' 협력자의 초청이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는데(Le Sourd, 2019)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떻게 우선시되는지

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진국의 엄격한 비자 정책을 창의적으로 우회하려는 데에서 발생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익한 결과는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목적지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스크 커넥션(Risk Connection)의 예술가는 난민 신분인 예술가에 대한 생겐 비자 거부를 감안하여 브라질과 나이지리아로의 여행을 고려하거나 선택했다(Akkermans, 2021).

지역 내 이동 경로가 제약적인 데에는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열악한 지역 연결성은 예술가들이 지도에서 가까운 목적지로 향할 때에도 추가적인 여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우처럼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Bourdi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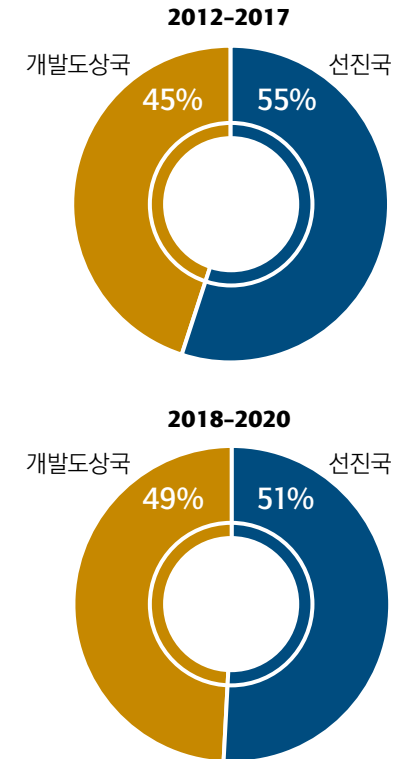
이동성은 접근성뿐만 아니라 대표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들이 14개의 저명한 예술 비엔날레에 오랜 시간 동안 초청받고 활동한다면 세계 무대에서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적 척도가 될 수 있다. 아트넷(Artnet) 선정 세계 20대 비엔날레 & 트라이엔날레 순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비엔날레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현대 미술을 위한 국제적인 쇼케이스로서 주요 비엔날레가 미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예술가의 작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경력에 도움이 된다. 동시에 이러한 플랫폼은 끊임없는 변화와 적응의 구조를 나타낸다.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선정된 14개의 비엔날레에 출품된 예술가의 출신을 조사한 결과, 2018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대다수가 여전히 선진국을 대표했다(그림 5.2).

중단된 마라케쉬 비엔날레를 제외하고 2018-2020년 같은 비엔날레에 출품된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발도상국 작가들의 대표 점유율이 4% 상승되

어(그림 5.2와 5.3) 느리지만 긍정적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5.2

13개 주요 미술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의 출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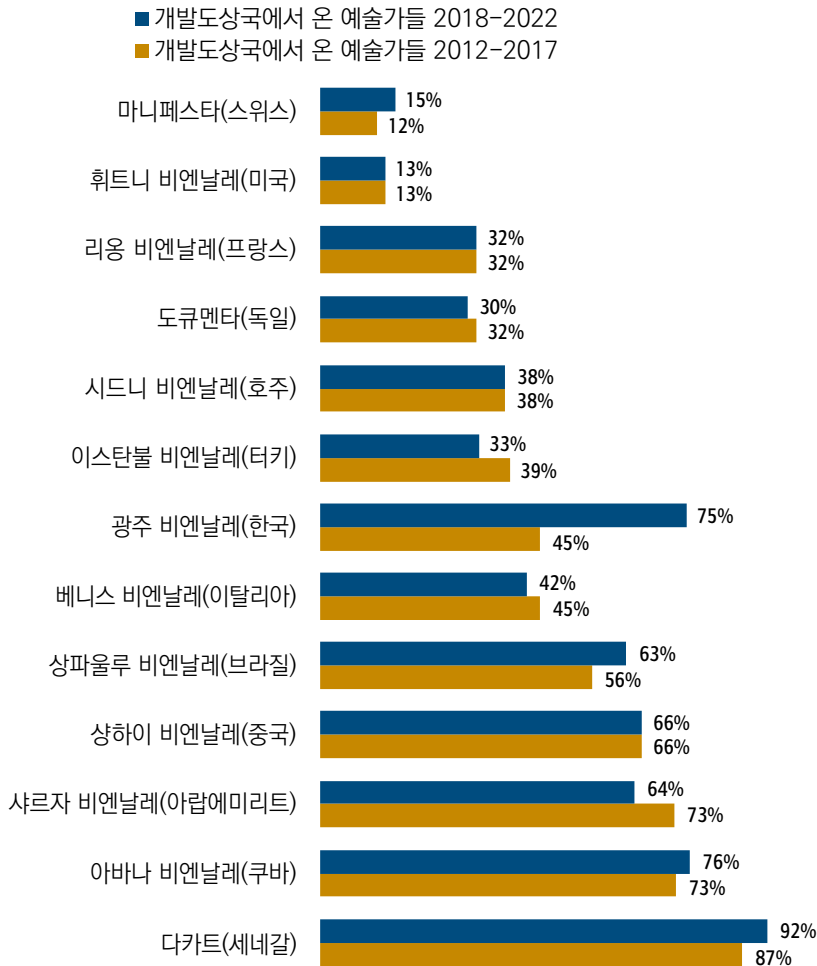


출처: BOP Consulting(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포함된 모든 비엔날레에서 개발도상국 예술가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도큐멘타(독일), 이스탄불, 샤르자, 베네치아 비엔날레 모두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광주 비엔날레는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의 대표성이 45%에서 75%로 높아지면서 단연 돋보였다. 브라질, 쿠바, 세네갈 비엔날레가 개발도상국 예술가의 비중을 높인 몇 안 되는 비엔날레라는 것이 흥미로운데, 대표성 증가는 아마도 이동성 영역 내에서 개발도상국 간 협력이 증가한다는 신호일 것이다.

그림 5.3

13개 주요 미술 비엔날레 참여 작가의 선진국/개발도상국 비율



출처: BOP Consulting (2021).

게다가 대표성 증가가 반드시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의 물리적 이동성 증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예술 및 문화 행사만이 이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행사에 자비로 참여해야 하거나 행정 절차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술가들의 비용과 노력을 경감해준다.

### 국외 이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장벽

앞서 언급한 고무적인 발전은 예술가의 전문적 궤적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국가 간 이동을 이해하는 데 느리지만 긍정

적인 진전을 가리킨다.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 각국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특권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며, 특히 개발도상국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크게 다음과 같다:

- 자금, 비자, 정보, 교육 또는 문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 불가능 또는 어려움
- 국경 안보
- 기존의 관세, 금융 및 기타 규정

## 이동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세계적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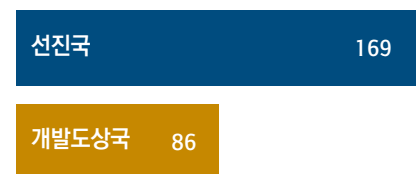
같은 맥락에서 2018년 유네스코의 4년제 글로벌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1980년 권고안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은 그리 놀랍지 않다. "일부 긍정적인 발전과 제한적이거나 무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발도상국 출신의 예술가가 선진국으로 여행하는 것은 1980년보다 더 어렵다(Neil, 2019)."

불행히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전지구적 이동성 흐름을 추적한 수치는 없다. 이 문제를 위해 2018 글로벌 리포트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권의 장단점을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매년 사전 비자 없이 여권 소지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목적지의 수에 따라 전 세계 여권의 순위를 매기는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 2020에 따르면, 선진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평균 국가의 수는 169개국에 달하고, 개발도상국 출신들은 평균적으로 그 절반만 입국할 수 있다(그림 5.4). 즉,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세계 인구의 70%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림 5.4

개발도상국/선진국별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가능한 평균 국가 수\*



\*헨리 여권 지수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여권의 순위를 매긴다. 이 수치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평균 수를 나타낸다.

출처: Henley & Partners Passport Index (2020), BOP Consulting(2021).

이처럼 2018 글로벌 리포트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세계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 여권 소지자는 70개국 미만으로만 무비자로 접근할 수 있어 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그림 5.5).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광범위하게 봉쇄했고 그 결과 이동성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팬데믹의 1차 대유행 동안 선진국의 여권 소지자들조차도 새로운 공중 보건 프로토콜로 인해 높은 이동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의 해외 출국은 2020년 1월 184국에서 1년 후 75개국 미만으로 급감했다. 위기 상황으로 인한 독특한 결과는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 분야 종사자 모두 해외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짧게나마 비슷한 제약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sup>.

### 비자 정책: 여전히 예술가의 이동에 가장 큰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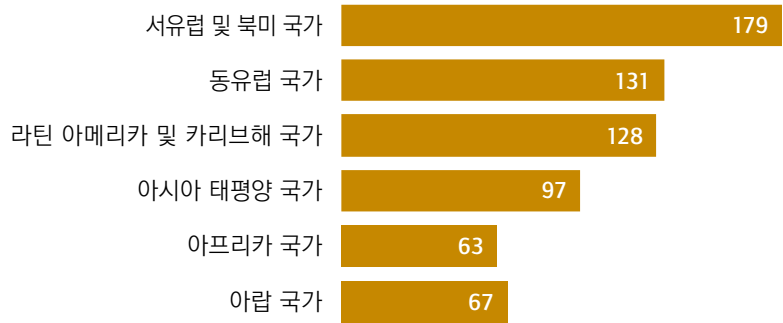
자금과 문화 인프라 시설 외에도 비자 정책은 지난 4년 동안 각국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을 규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다.

비자 정책은 문화 분야 종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의 종사자에게 지속적인 장애물로 남아 있다. 유럽에서는 2019년 쟁쟁한 비자법 개정안이 2016년 '국제 문화 관계를 위한 유럽연합 전략 수립'에서 요구했던 문화 비자 프로그램 창설에 미치지 못했다(European Commission, 2016). 팬데믹으로 물리적 이동이 중단되었지만 예술가의 비자 문제는 여전히 시급하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유럽연합-영국 무역협력협정에서 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혜택이 사라진 이후의 유럽에서는 더욱 그렇다(Damaso, 2021). 협정에는 영국 내에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1. 2021년 4월 27일 '문화의 소리(Voice of Culture, 유럽연합 문화 분야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대화) 온라인 회의에서 제기된 요청.

그림 5.5

### 지역별 여권 소지자가 입국 가능한 평균 국가 수



출처: Henley & Partners Passport Index(2020), BOP Consulting(2021).

는 용역 서비스 공급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조항과 유럽연합 전역에서 허용되는 비즈니스 방문자 활동을 표준화하는 몇 가지 사소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연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우대도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다(Lexology, 2021). 각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급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가가 독일이나 스페인에서는 공연을 하려면 공연 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만 프랑스나 네덜란드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음악가들은 악기와 장비를 운송하고, 유럽연합에서 투어를 할 경우 복수 취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추가 서류 작성이 필요한데 이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Dray, 2021). 음악가들의 항의가 있은 후 2021년 8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영국 음악가들이 유럽 내 19개국을 무비자로 순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인 협회는 그 면제가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투어에만 적용되며 승무원, 운전자, 카르네(carnet, 자동차가 유럽 각국의 국경을 통과할 때의 무관세 허가증), 이동 장비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협회는 유럽연합과의 보다 포괄적인 비자면제 협정을 요구한다(The Strad, 2021).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자 신청 절차는 이동성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술품의 고용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그들이 본국으로의 귀환을 보증할 보증인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예술가의 낮은 직업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비자 제도는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예술가에게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혼자 활동하는 예술가의 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자 신청 절차는 이동성 불균형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대사관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비자 발급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영사관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비자 처리 센터들 또한 문화 분야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특정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 안보 관행은 예술가의 이동성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 출신 예술가의 비자 발급은 여전히 어렵다. 이는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알레포의 마지막 사람들>의 시리아 제작자 카림 아비드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아비드는 201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는데, 그 이유는 시리아 아랍 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한 정부의 여행 금지 때문이었다. 대중의 항의와 캠페인이 이어졌고, 아비드는 항소 후 비자를 발급받았다(Verhoeven, 2021).

개인의 이동성에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프리뮤즈에 따르면 2020년에 유럽에서 적어도 9명의 예술가에게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Freemuse, 2020b). 여행 금지는 대부분 사법 결정에 따른 것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특히 예술가들이 성별, 정치, 종교에 관한 도발적인 작업으로 잘 알려진 경우에 그러한 결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가 용이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협약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를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자 면제, 비자 절차 간소화, 비자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한 조항의 이행은 여전히 부족하다.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무역협정의 맥락에서도 우대조치는 제한적이다. 2008년에 체결된 카리포럼-유럽연합 경제동반자협정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예술가나 관광비자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카리브해 예술가들이 유럽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카리포럼 국가의 문화 분야 종사자는 오직 생겐 지역으로만 무비자 여행이 가능했고, 보수를 받는 작업 기회는 없었다(Burri and Nurse, 2019).

따라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우대조치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유발하는 몇 가지 조치에 불과하다. 그 이유로는 데이터 격차 및 국가와 수혜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성 부족 등이 있다.

###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무역협정의 맥락에서도 우대조치는 제한적이다.

2019년 11월 유네스코가 카리포럼 사무국과 협력하여 바베이도스에서 이틀간 협약 제16조에 따른 약속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온 문화 및 무역 종사자와 범정부 및 정부관리 30명이 모였다. 이번 워크숍은(CARIFORUM EU) 경제동반자협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카리브해 지역 출신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잠재적 기회와 의미를 평가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은 또한 관련 정책이 보안 문제와 경제적,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럽연합과 카리포럼 모두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이동성 장벽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유럽연합 전역의 경제적 수요 충족과 자격 또는 비자 요건에 대한 쉬운 지침을 제공하는 '원스톱 스톱(one-stop shop)'의 필요성이 포함되었다.

비자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만 선진국 종사자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관세 규정, 부가가치세(VAT), 근로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및 기구/장비 이동과 같은 많은 행정 부담은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 통합 지역에서도 이동성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든다. 사회복지와 연금을 둘러싼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예술가들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ATA 카르네 국제 세관 문서와 같이, 기구와 장비를 가지고 여행하는 예술가를 포함하여 최대 1년 동안 비부패 상품의 면세 및 면세 임시 수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ATA 카르네의 가격은 이동되는 품목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 문제로는 항공사 보안 제한(악기와 장비 운송의 어려움 증가)과 국가 재정, 보안 또는 여행 규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의 현금 인출 제한, 35세 미만의 튀니지 시민이 해외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 등이 그 예이다(Bourdi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영국을 포함하여 창의적인 인재 유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국가에서 예술적 공로에 기반한 장기 비자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2019년 두바이는 문화 비자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창작 및 문화 산업의 예술가와 기업가에 대한 장기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이 비자는 유망한 아랍인과 세계 창작가를 두바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의 일부이다. 작가, 시인, 화가, 예술가, 서예가, 배우 등이 10년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 두바이 정부 기관인 두바이 문화예술청과 외국인 레지던시 총국이 이 비자를 감독하기로 합의했다(UAE, Government Portal, 2021).



© Rawpixel.com / Shutterstock.com\*

# 문

화가 국경을 넘을 때 종종 공정한 대표성과 교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프로젝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현재에도 이동성 기회는 문화적 맥락과 선호도, 단체를 조직하는 기관의 인식론적 틀을 바탕으로 한다. 그 예로 캄보디아 왕립 발레단이 해외를 방문한 것은 문화적 이동성과 관련된 도전을 의미한다.

1971년 캄보디아 왕립 발레단은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뉴욕에서 공연을 했다. 이것은 냉전 시대의 정치적 격동기에 이루어진 문화 외교 행위였다. 타임스퀘어에 있는 댄서들의 흑백사진이 그 순간을 기념한다. 불과 몇 년 후인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주의 지배 하에 있었고 문화적 이동성에 대한 모든 개념은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캄보디아 예술가는 더 이상 국제 교류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2013년 캄보디아 리빙 아트(비정부 예술 단체)는 시즌 오브 캄보디아 페스티벌을 위해 왕립 발레단을 뉴욕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파트너십, 우정, 그리고 지지를 통해 우리 팀과 나는 캄보디아 왕국에서 미국으로 125명의 예술가를 데려올 수 있었다. 오랫동안 우리, 우리의 고국, 우리의 문화에 대한 내용은 외부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우리는 시즌 오브 캄보디아 페스티벌을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많은 파트너와 동료들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원해 준 덕분에 신식민주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다방면의 문화교류의 흐름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

문화적 이동이 공익을 위해 시행될 때 우정과 연민, 인간성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다. 위기의 시기에 우정과 연결은 회복력의 구성 요소이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 여행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18개월 동안 동안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교류, 학습 및 소속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계몽적인 도전과제였다. 이동성과 문화적 이동성의 미래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겠지만 사람 간에, 맥락을 고려한, 국경을 초월한 학습의 원칙은 그대로일 것이다.

## 포은 프림(Phoeun Prim)

캄보디아 리빙 아트 전무이사

2021년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주요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능있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크리에이티브 비자' 계획을 공개했다(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Abu Dhabi, 2021).

외국 예술가들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슷한 지원이 다른 국가에도 존재한다. 시청각 제작 및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최대 2년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콜롬비아, 또는 예술가의 뛰어난 실적을 요구하는 프랑스 등이 그 예다. 캐나다에서는 예술가가 시민권을 취득한 나라와 호혜관계가 있을 경우 특별 예술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베를린은 2015년 독일 정부의 난민정책의 영향으로, 아랍 예술가들의 허브가 되었다(Unicomb, 2021).

비자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지만, 선진국 문화 종사자에게도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협약 및 1980년 권고안의 정신에서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최종적인 조치로써 의도된 것은 아니다(장기적으로 제3국에서 위험에 처한 예술가 제외). 오히려 그러한 이동성은 예술가의 전문적인 발전과 협약이 요구하는 문화 교류의 균형 모두에 필수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비자 및 취업 허가 협정이 영구적인 이동 패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창작 분야의 역동성을 훼손하는 두뇌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기 방문을 위한 문화 또는 예술가 비자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외국 창작자를 국가에 유치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제 지원이 존재한다.

터키에서는 단기 체류(최대 1개월)에 대하여 예술가 특별허가증이 있으며, 라트비아에서는 14일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예술가가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허가 없이도 간편하게 입국하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외국 공연자는 불가리아와 쿠바에서 문화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스웨덴에서는 이민위원회에서 일부 예술가, 협업하는 기술자, 그 외 투어 담당자까지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리스트에 포함했다. 벨기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리셔스에서 연극,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 분야의 모델들과 전문 연예인들은 취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벤트 기획자 및 무대 디자이너를 포함한 시각 관련 매니저가 특별직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콜롬비아에서 이벤트에 참석하는 예술가는 이벤트 참가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운동선수, 심사위원, 출품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영화 제작업체에 무비자 입국처럼 특별 면제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경우 예술가들이 난민으로 입국할 경우 취업허가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로코와 니제르,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프랑스와 세네갈과 같은 양자간 문화 협력 협정에 따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가된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예술가 비자나 비자 면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모든 예술가에게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문화 분야 종사자는 일상적으로 관광 비자를

출장에 사용한다. 역설적으로 일반적인 비자 규제 완화가 창작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020년 아프리카 개발 은행의 5번째 연례 비자 개방 순위 리포트에서 알 수 있듯이 서아프리카의 국경은 지난 5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의 아프리카인들에게 점점 더 개방되었다.

예술적 재능에 기반한 장기 비자가 최근 창의적인 인재 유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다.

2019년 6월 유럽연합의 공통비자법 개정으로 문화 분야 종사자 단기체류와 같은 합법적인 여행객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부 개정안이 나왔다. 변경 사항에는 출국 6개월 전 비자 신청, 비자 신청서 온라인 제출, 비자 거부에 대한 항소, 비자 거부 이유와 항소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25세 이하 여행자에 대해 비영리 단체의 세미나 및 문화 행사에 참석할 경우 비용 면제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정 중 일부는 스위스 문화다양성 연합이 2019년 리포트에서 문서화한 것과 같이, 일상적으로 보고된 비자 관련 이동성 장벽에 절실히 필요한 개선을 제공한다(Abbühl, 2019). 이 리포트는 쇼나 레지던시에 참석하려는 문화 분야 종사자가 쎅겐 지역 및 스위스의 단기 체류 비자 또는 취업 허가를 거부한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비자 신청 절차상의 도전과제와 기타 행정 요구 사항에 주목하고 있다. 스위스 연합은 이 협약을 이행함으로써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해 국가 당국에 로비를 하고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 공적 자금과 문화 인프라 시설의 공백을 메우는 시민사회 행위자

위에서 언급한 진전 및 도전과제는 누가, 어떻게 이동성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를 언급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문화 분야의 국가 간 이동은 시민단체가 협약 이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정책 분야 중 하나이며, 이는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시민사회가 보고한 조치 중 가장 높은 비율(21%)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자세한 내용은 4장 참조).

시민단체는 여행 보조금 관리, 정보 배포, 교육 프레젠테이션 및 네트워킹 플랫폼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예술가에게 더욱 유익한 비자 제도를 장려하는 데 중요한 지지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가 공적 자금 지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자금 격차를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키체인지 프로젝트는 음악계에서 성차별을 줄고, 쇼케이스와 네트워크 형성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처럼 음악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음악가들에게 투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콘서트 남아프리카 공화국(Concerts SA)의 뮤직 모빌리티 펀드이다. 마지막으로, 위맥스(WOM-EX, 월드 뮤직 엑스포) 아카데미는 아티스트와 기타 음악 분야 종사자가 국제 서킷과 시장에 접근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이동성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사례가 많다. 핀란드의 프레임(Frame) 프로그램은 작품이 전시되는 장소로 예술가들이 여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핀란드의 현대 예술

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문화교육부의 보조금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사이프러스에서는 교육문화체육청소년부 및 사이프러스 청소년 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파이토리오 예술가 레지던시 2020을 주최했다.

모프라닷의 보조금, 문화자원(AI-Mawred AI-Thaqafy)의 목적지 제도(Wijhat) 등 다른 시민단체의 제도들 역시 지역 내 연결을 강화하는데, 이는 아랍 지역 내 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가와 문화 행위자에게 최대 8,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글상자 5.3). 다른 예로는 아시아 내 여행을 지원하는 캄보디아 리빙 아트(Cambodia Living Arts), 여행 보조금과 아프리카 내 여행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아트 라인스, 아트 무브즈 아프리카, 트랜스 사하라 예술 이동 기금 등이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문화공간 감비디가 시작한 루트 데 아트(Route des Arts, 예술의 길)가 전시공간 간 파트너십을 육성해 지역 예술가의 작품 전시 루트를 만들어 아프리카 통합을 촉진한다.

### 글상자 5.3 • Wijhat - 아랍 지역의 이동성과 예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 자원(AI-Mawred AI-Thaqafy) 프로그램

아랍 지역에서 예술가와 문화 행위자들은 국내외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자금 공급 부족, 비자 취득의 어려움, 창의적 제작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 조직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예술가들이 경력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노출을 얻고, 더 많은 관중에게 다가가며,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문화자원(Culture Resource)은 아랍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고 국내외 문화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지역 비영리 단체이다. 2019년 문화 자원(AI-Mawred AI-Thaqafy)은 위에서 설명한 이동성 문제의 대책으로 목적지(Wijhat)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아랍 지역 내외를 여행할 수 있는 예술가와 문화 행위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25~30개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원(AI-Mawred AI-Thaqafy)은 2020년과 2021년에도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신청자들이 잠정적인 여행 날짜를 표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청 감소 등으로 최근 2년간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2019년에서 2021년 보조금이 61건을 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중 44개의 보조금이 개인에게, 17개 보조금이 단체에게 지급돼 총 수혜자는 140명으로 늘어났다. 제공된 보조금 유형을 분류하면, 41개가 국제 이동에 제공되었고 20개가 지역 여행에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지원대상자가 레지던시에 참석하는 것(23개의 지원금 제공)이었으며, 15개의 지원금이 페스티벌 참가를 지원했다.

출처: <https://mawred.org/artistic-creativity/wijhat/?lang=en>: Culture Resource (AI-Mawred AI-Thaqafy) 'Wijhat 2019/2021 Quantitative Data'

시민단체가  
공적 자금 지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자금 격차를  
메우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의 경우 특정 주제 또는 인구통계학적 우선순위를 주요하게 둘 수 있다. 35세 미만의 젊은 종사자, 소수자 집단, 주변 지리적 위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온 네덜란드의 프린스 클라우스 펀드(Prince Clause Fund)의 이동성 보조금이 그 사례이다.

많은 시민단체는 페스티벌, 레지던시, 아트 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조직한다. 2017년에 시작된 태국의 방콕 국제 공연 예술 회의, 쿠바 카과요재단의 전문 개발과 훈련 프로그램의 워크숍 및 갤러리, 멕시코의 플라게빠게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시, 모로코 라바트의 음악회의 플랫폼을 위한 비자, 아프리카 중동 음악 회의 플랫폼(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에서 모로코로 여행하는 음악가들이 세계 기획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도록 후원), 이집트 카이로의 컨템포러리 이미지 컬렉션 레지던시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민단체 활동이 모여 개발도상국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술 생태계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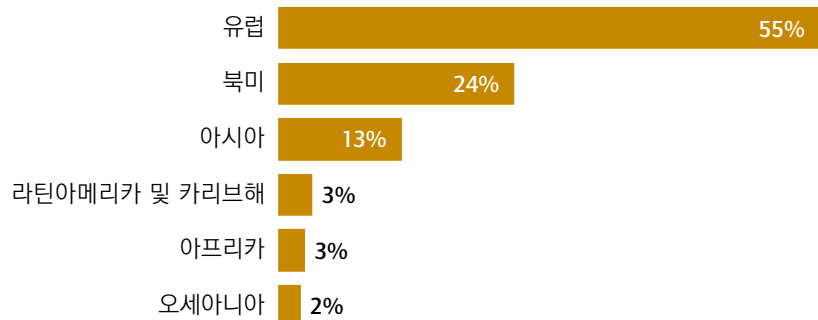
예술가의 레지던시 시설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용가능성이 낮는데, 이는 더 많은 외국 창작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 정보가 화폐가 될 때: 공적 자금의 긴급한 필요성

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중요 문화 인프라의 불균등한 분배 또한 개발도상국 내 여행을 방해한다. 예술가의 레지던시 시설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용가능성이 낮는데, 이는 더 많은 외국 창작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2020년 트랜스아티스트 플랫폼에 공개된 1,435개의 해외 예술가 레지던시 중 55%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북미에 24%가 있다. 오직 13%의 레지던시만이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암울한데, 전체의 3%만이 이 지역에 위치한다.(그림 5.6)

그림 5.6

### 2020년 트랜스아티스트 플랫폼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위치



출처: TransArtists(2020).

정보와 수용력 격차는 계속된다. 디지털 시대에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제적 기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 정보마저 예술가들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Neil, 2019). 이는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활동가와 단기 자금을 의존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경우에도 신청과 행정 절차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국가 간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는 화폐로 기능한다. 종종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는 이동성 기회를 쉽게 포착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정보와 조언에 의존한다. 이동성의 수혜를 확대하려면, 특히 국제적 노출이 적은 신규 수혜자들을 위해, 웹사이트, 안내데스크, 자금 지원 가이드 및 전문 컨설팅 기관과 같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정보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은 많은 선진국에서 잘 구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 4년간 유럽과 북미에서 이동성 정보 제공처의 수가 증가했다. 시스템은 여행 보조금, 예술가의 레지던시, 국제 워크숍, 비자, 사회보장, 보험, 세금, 저작권을 포함한 복잡한 실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 센터와 웹사이트이다. 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언어

와 영어로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 허브는 독립적 조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존 공공 기관의 일부이거나 시민단체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On The Move, 2021).

자문 서비스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자국 유입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오스트리아의 공공 자금 지원 스마트 모빌리티(SMartAt Mobility) 안내 데스크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32시간의 상담을 제공했다. 2019년까지 그 숫자는 연간 197시간으로 6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조언을 받은 문화 분야 종사자의 3분의 2는 오스트리아인이 아니었으며(무국적자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지역 출신 포함), 그들의 질문은 보험, 세금, 비자 규정, 노동법에 관한 것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 차원으로 제공하는 공적 정보와 자문 서비스는 부족한 편이다. 다행히 시민단체가 이 격차를 메꾸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 기반 네트워크, 협회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가 벨기에에 본사를 둔 온더무브(On The Move)로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예술가에게 전지구적 이동 기회를 나열한 무료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이동성 자금 가이드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랍 국가의 지역 자금 상황에 대한 유일한 설명을 제공한다(글상자 5.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북아프리카 문화 이동성 지도가 있다. 이 웹사이트는 아랍 지역의 창의적인 프로젝트와 관련 전시회가 포함된 아카이브와 예술가와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의 풍부한 문화 제공에 대한 지식 전파에 도움이 된다.

이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또 다른 기여 사례로는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IETM)의 펀드 파인더(Fund Finder) 제2판(Le Sourd, 2019), 국제레지던시협회가 제공하는 전세계 예술 레지던시 온라인 지도, 유럽 공연예술 고용주 협회 연맹 펄(Performing Arts Employers' Association League Europe)에서 제공하는 비자 및 법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가 있다. 주목할 만한 지역 이니셔티브는 '문화 기금 감시망(Culture Funding Watch)'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초점), '뮤직 인 아프리카(Music in Africa)'와 공공 및 민간 단체가 사이트에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무

료 협업 도구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예술 레지던시 지도(Map of Artistic Residencies)이다.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향해

이동성을 재해석하는 작업은 팬데믹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부분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장벽에 대응하고 공정한 협력과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현재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불균형, 작업방식과 기대의 차이는 공정한 국제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이동성의 문화 간 도전과제를 해결해가는데 대한 조언도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다. 이 분야의 탁월한 이니셔티브는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와 온더무브가 더치컬처(DutchCulture)와 협력하여 2018년에 공동 기획한 '궁금함과 욕망 너머: 예술계의 더 공정한 국제 협력을 위해(Beyond Curiosity and Desire: Towards Fairer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the Arts)' 툃킷이다. 이는 역사적, 정치적 관계와 예술가의 문화 인프라 시설 및 작업 조건의 현저한 차이 등 국가 간

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소를 다룬다(van Graan, 2018).

문화분야에서는 환경적 넘어선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극적으로 고려한다. 쿤스텐펀트(플랑드르 예술 연구소)는 '국제화(재)구조화: 예술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일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이동성의 잠재적인 부정적 측면을 철저히 조사했다. 예술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작업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점이 드러난다.

- 일부 문화분야 종사자가 생계를 위해 과도하게 이동하는 역설적 상황;
- 정해진 작업 시간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작업하는 동안 지역 환경과 의미 있는 연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
- 제도적 시장의 압박 없이 일할 수 있는 대체공간 부족;
- 브뤼셀에 본부를 둔 포암(Fo.AM)이 제공하는 가족 거주 프로그램과 같이 워라밸을 촉진하는 이동성 기회를 찾는 도전과제;
- 소수민족 문화권이나 일부 지역의 예술가들이 느낄 수 있는 '정형화된 이국적 기대치를 충족시켜 국제적 기회를 확보해야한다'는 압박감(Janssens, 2018).

### 글상자 5.4 • 지역 이동 자금 지원 지형도

온더무브의 지역 가이드는 개발도상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성 기회와 제도에 대한 정보(국가, 지역 또는 국제)를 제공한다.

온더무브의 '문화 이동성 자금 가이드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는 비영리 단체인 아르케토피아(Arquetopia)와 멕시코개발재단(Foundation for Development) 공동으로 2018년에 출판되었으며 97가지 실질적인 제도를 포함한다. 이 중 39%는 국가 또는 지역 제도이며, 나머지는 국제 자금 지원을 받는다.

2019년판 아프리카 문화 이동 자금 가이드에는 129개의 정보가 나와 있으며, 그 중 4분의 1만이 아프리카 단체 또는 기금에서 제공된다. 이 가이드는 온더무브 및 아트무브스아프리카(Art Moves Africa)와 프랑스문화원(Institut Français)이 함께 하는 국제적 수준의 시민단체-공공 파트너십의 좋은 예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MENA)에 대한 문화 이동 기금 가이드의 최신 3판 또한 프랑스문화원(Institut Français)과 협력하여 2020년에 출판되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63개의 이동 지원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이 중 4분의 1은 국가 또는 지역 제도와 단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출처: On The Move(2018, 2019, 2020).

\* 언론인, 활동가를 위한 지원과 위험에 처한 예술가를 위한 지원 제외.

분쟁 지역의 예술가에게 다른 종류의 고정관념이 적용되기도 한다. 작품에서 전쟁이나 갈등을 다룰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Le Sourd, 2019). 보다 총체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 제공자는 배심원단과 동료 심사 패널의 확대를 고려해야 하고(IFACA, 2019), 관련자들 간의 균형잡힌 수평적 관계와 문화 간 소통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면 환경을 고려하거나 디지털 기능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이동성 제도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다. 유네스코의 2020년 <위기에 처한 문화(Culture in Crisis)> 정책 가이드에서 강조했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UNESCO, 2020f).

문화 분야의 '친환경 이동성'은 현재 진행 중인 작업으로, 종사자의 여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생태 발자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책임과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에라무스(Eramus)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기준 평가를 시작하고, 환경 중심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디지털 솔루션과 철도 여행을<sup>2</sup> 촉진하는 등 교육 및 문화 이동성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후 변화 시대에 항공 여행을 장려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대응으로 기차 여행과 장기 체류가 전 세계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결과는 엇갈린다. 예를 들어 세계 모든 지역의 철도 연결성이 좋은 것은 아니며, 국경 분쟁이나 보안 문제로 횡단이 어려운 경우(북아프리카)도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의 '창의적 기후리더십 프로그램(Creative Climate Leadership)' 프로그램과 같이 기후 활동을 위한 지식과 역량 구축도 우선시된다.

### 코로나19와 디지털 제공의 기하급수적 성장

문화 분야 내에서 온라인 연결은 오랫동안 단기 여행과 대면 만남의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2020년과 2021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디지털 영역은 국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이 되어 '항공 여행에 있어 비자 제한, 비용, 탄소 발자국 없는 국가 간 문화 상호작용'을 허용했다(Bennoune, 2021).

일부 여행 보조금은 디지털 보조금으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어 문화원과 프린스 클라우스 기금의 아프리카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인 모션 이동성 기금 2019(In Motion Mobility Grants)'는

불과 1년<sup>3</sup> 만에 '인 모션 디지털 기금(In Motion Digital Grants)'으로 바뀌었다.

레지던시와 예술 페스티벌은 가상으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은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수입원을 가져다주었다. 2020년 6~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예술제는 디지털 랩 아프리카와 손잡고 가상 플랫폼에 오른 모든 예술가에게 수수료를 제공했고, 작품의 공정한 디지털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VR과 다른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접근 가능한 예술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지 탐구했다. 온라인 공연예술 축제 다시 연결하기(Re-Connect Online Performance Festival)나 바스티아라이브(Basita.live)는 예술가가 라이브 또는 사전 녹화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수익창출 가상 공간이다. 새로운 프로젝트 형식은 팬데믹에 의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처하고 이동성의 장기적인 재고를 구상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색하도록 권장되었다<sup>4</sup>. 핀란드의 코네(Kone) 재단과 같은 단체들도 가상 레지던시를 제공하여 예술가들이 보조금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Kone Foundation, 2020).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상 이동성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넘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자금도 제공되었는데, 여기에는 독일 연방외교부와 독일문화원의 국제구호기금 2020과 같은 이동성을 촉진하는 자금이 포함된다. 이러한 투자는 창작 분야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스위스 예술 위원회 프로헬베티아(Pro Helvetia)가 전 세계 예술가를 대상으로 내놓은 '가까운 거리(Close Distance)' 공모사업은 두 달 만에 591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국경을 넘는 여행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화 분야 종사자가 국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형태의 이동성으로 급격한 전환은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 전 세계 인구의 46%가 여전히 디지털 접속 오프라인 상태로 매우 비대칭적. 36억 인구의 대다수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UNESCO, 2020b);
- 디지털 협업 기술과 도구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형태의 특권 형성;
- 물리적 여행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만남의 단점은 디지털 공간에도 존재;
- 인터넷에 대한 의존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한 급여 문제를 악화(10장 참조). 이동성이 예술가의 막대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창작 분야에서 높은 인재 유출 가능성(유네스코, 2020f);
- 디지털 도구(비디오 스트리밍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탄소 발자국에 대한 특별한 연구는 거의 없음;
- 몇몇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특히 공적 제도를 통해), 이동성에 관련된 자금과 기회에서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
- 여행 욕구 감소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 교류의 감소(Shindhelm, 2020);
- 여행 및 대면 접촉을 위해 적립된 자금이 창작 분야, 특히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유형의 제도로 영구적으로 전환될 위험;
- 레지던시의 수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중단기적으로 감소.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익손실,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의 어려움, 비상 자금을 위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한 폐쇄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Res Artis and UCL, 2020)

2. Erasmus+, Creative Europe 및 European Solidarity Corps의 효과적인 '친환경' 조치는 유럽의회 보고서 참조

3. [www.britishcouncil.org/arts/sub-saharan-africa/\\_inmotion](http://www.britishcouncil.org/arts/sub-saharan-africa/_inmotion)(Accessed 1 November 2020)..

4. 스위스예술위원회 'Close Distance' 제목하의 프로젝트: Seeking New Cultural Formats 참조

## 결론 및 권고사항

붕쇄된 현재 상황에서 미래의 세계적 이동성을 언급하는 것이 역설적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문화 이동성을 위한 보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재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에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검사, 검역 또는 보험 비용, 항공권의 재발급 또는 취소 수수료, 귀국이 안전하지 않을 때 연장하는 레지던시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이동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행에는 소위 '백신 여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백신 도입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동성에도 불균형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디지털에 집중하다보면 물리적 이동 기회가 감소하여 유의미한 세계적 문화 교류를 해칠 수 있다.

붕쇄와 여행 금지와 같은 물류 및 규제 장벽이 완화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해외에서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로 자국에 머무르고자 할 것이다. 그 밖에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에 대한 두려움 역시 특정 목적지로의 여행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다<sup>5</sup>.

팬데믹이 진정된 후 여행 조건이 개선된다면 기존의 경제, 보안, 비자 등의 문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들에게 불균형한 기회 제공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예술가의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예술가의 이동성 기회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유네스코, 공공단체, 시민단체는 우선 과제 영역과 개선 제안을 명시했다. 다음 권고사항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술가의 국가 간 이동성 개선을 위한 잠재적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 이동의 자유가 개발도상국의 문화 실무자들에게 곧 일상적인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권고사항은 이동성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가는 팬데믹 이후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약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사국에 대한 요구는 분명하고 명확하다. 일단 보전법이 완료되면, 국가는 국제 여행이 재개되는 즉시 예술가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약속을 상기해야 한다.
- 개발도상국은 예술가의 국외 이동을 위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예: 비자 신청 강화 지원서 확보).
- 정부는 특히 예술가의 출신 관련 고정 관념이나 편견 또는 예술적 자유의 한계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비자 발급이나 여행 금지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한다.
- 정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 공유 네트워크 증대와 지역 및 대륙 내 이동성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
- 2018 글로벌 리포트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는 이동성 기회에 대한 지식과 지침을 생산하는 시민단체 이니셔티브(특히 개발도상국에 기반을 둔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야 한다. 그들의 역할은 이동성으로의 점진적인 복귀를 위한 새로운 제도과 지침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중요하다.

- 정부는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디지털 기술 향상과 일회성 프로젝트를 넘어선 장기적인 가상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 자금 제공처는 이동성에 대해 기존의 방침에서 좀더 융통성을 발휘해 지원해야 한다. 이동성 제도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자금의 성평등한 분배를 보장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물리적 가상 혼합 이동 방식의 올바른 균형을 촉진하고, 심사위원 및 동료 간 리뷰 패널을 확장하여 예술가의 보다 다양한 문화간 대표성을 보장한다.
- 정부와 민간기업은 환경친화적 이동성 활동(예: 장기간)과 이동성 인프라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환경세를 시행하거나 디지털 참여로 직접 참여를 대신하는 것은 안된다. 후자는 이동성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예술가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 정부, 기금 및 레지던시는 장기 레지던시나 장기비자가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대안적인 이동성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해야 하며, 육아와 다른 책임이 있는 문화종사자의 수요 또한 존중해야 한다.
- 유네스코는 정부 공무원 대상(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조치(Preferential Treatment)제도에 대한 교육훈련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5. Scoping calls, BOP Consulting (2020).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적인 흐름: 여전히 일방적인 무역

리디아 들루모

### 핵심 발견

- ››› 문화 상품의 국제 무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는 지난 3년 동안 정체되어 왔다. 국제 교역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문화 서비스에 개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 개발도상국의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 대한 무역원조의 결핍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의 지속적인 불균형을 야기하고, 문화·창의분야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증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을 제한한다.
- ››› 개발도상국 간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출 및 우대조치의 증가는, 선진국과의 제한된 무역에 대응하여 서로에게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코로나19는 디지털 무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영역을 포함한 문화 서비스의 무역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 데이터 측정, 데이터화, 보고 방식의 일치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트렌드 분석, 그리고 거래되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
-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관행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노하우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경과

문화 상품

2005년 이후 수출이  
두 배로 증가되어  
**US\$271.7**  
십억 달러(2019년 기준)

2005

2019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은  
거의 세배가 되어  
**US\$144.5**  
십억 달러(2019년 기준)\*

2005

2019

문화 서비스

2006년 이후 수출이  
두 배로 증가되어  
**US\$117.4**  
십억 달러(2019년 기준)

2006

2019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가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서,  
**US\$47.9**  
십억 달러(2019년 기준)

\* 인도와 중국은 이러한 수출의 최소 40%를 차지함

도전

개발도상국



지난 3년간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에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정체됨

최빈국의 교역량은 전 세계 문화상품  
교역량의 0.5% 미만임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원조의 부족은 지속적인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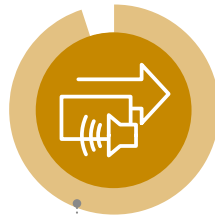


선진국



시각예술과  
출판의 경우,  
거의 배타적으로  
선진국간의 교역만이  
이뤄지고 있음

선진국들은 문화  
서비스 무역을  
아직도 주도하여  
전체 수출의  
**95%**를  
차지함



코로나19 팬데믹

팬데믹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투자 격차를 더욱 심화함



전 세계 음악 매출은  
음악 스트리밍으로  
인해 7% 증가함

무역 및 참여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디지털화는 하나의 기회가 됨

우대조치를 승인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선진국의 12%만이 우대  
조치를 승인했다고 보고함



균형 잡힌 무역

선진국:

- 개발도상국을 위한 무역 원조 증가
- 우대조치 강화
- 개발도상국과 노하우 교류



정보 시스템

모든 국가:

-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 시스템 개선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 흐름을 평가



시장 개방

개발도상국:

- 외국인 직접투자 다양화를 위한 분야별 접근방식 채택
- 다른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시장 개방

권고 사항

## 핵심 지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정보 시스템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을 평가

### 서론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활동과 세계적 교류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 결과 문화·창의분야가 갑작스럽게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문화 활동이 활발한 활동을 유지하고 국경을 넘어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인아웃 페스티벌(In/Out Festival)은 코인시덴시아(COINCIDENCIA, 스위스와 남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주최로 진행되는 흥미로운 이니셔티브이다<sup>2</sup>. 이 프로그램은 2017년 스위스예술위원회 프로헬베티아(Pro Helvetia)가 남미에서 스위스의 예술을 홍보하고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후로 라틴 아메리카와 스위스 예술가들에 의해 3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

전지구적 팬데믹에 적응하기 위해 2020년 9월 이곳에서 진보적이고 실험적이며 즉흥적인 온라인 음악 페스티벌이 조직되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다민족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의 11개 예술 프로젝트가 코인시덴시아(COINCIDENCIA)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선보이며 새로운 페스티벌 형식을 제시했다. 다양한 기관, 레이블, 페스티벌, 레지던시 및 플랫폼이 협력하여 '독특한 크로스 플랫폼 이벤트'를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5일 동안 콘서트, 비디오 아트, DJ 세션, 몰입형 시청각 공연, 음악과 다른 예술 장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작품, 인터넷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 음악 및 문화

지식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워크숍 등을 가상으로 접할 수 있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만 2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접속했다<sup>3</sup>.

(음악 공연부터 시청각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제공하는) 온라인 페스티벌의 조직은 스위스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어떠한 우대조치를 주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실제로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이를 비준하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실무자,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우대조치를 주기로 약속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문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가 상업적 가치와 관계없이 특정한 속성, 용도나 목적을 가지거나, 문화적 표현을 구현하고 전달하는 활동, 상품, 서비스를 뜻한다고 언급했다(제4.4조) 2009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FCS)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책, 잡지, 멀티미디어 제품, 녹음, 영화, 비디오, 시청각 프로그램,

램, 공연, 패션 등을 포괄하는 서로 다른 문화 분야로 분류한다(UIS, 2009). 문화상품의 무역은 국경을 넘는 물리적 재화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문화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무형이며 '그 자체로 문화적 물질적 재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을 촉진한다'고 본다(UIS, 2009). 여기에는 양국의 법인간, 개인간의 문화 서비스 거래를 포함한다. 해외에서 공연하는 밴드, 국제 영화사나 음반사의 해외 계열사 설립<sup>5</sup>, 외국 회사로부터 구입한 음악 다운로드 등이 그 예다. 따라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은 물리적 상품이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 서비스로 간주된다.

위 예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측면에서 디지털 보급 및 접근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가속화되었는지 보여준다.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봉쇄'로 인해 제대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문화 활동(무용, 음악, 연극, 페스티벌 등 라이브공연)은 중단되었다. 대부분의 공연장과 극장이 폐쇄되어 공연 및 상영 과정이 온라인에서만 가능해졌다. 수년 전에 이러한 변화를 단행했던 음악 산업은 팬데믹 앞에서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1. [www.inoutfestival.com](http://www.inoutfestival.com).

2. [www.southamerica.prohelvetia.org/en/coincidencia](http://www.southamerica.prohelvetia.org/en/coincidencia)

3. 글로벌리포트 제3 개정판을 위해 2021년 10월 프로헬베티아가 보고한 데이터.

4. 2009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내 문화분야 항목: 문화 및 자연 유산; 퍼포먼스와 축제; 시각예술과 공예; 출판과 언론; 오디오비주얼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무형문화재(UIS, 2009)

5. 해외 계열사: '한 국가나 유럽연합과 같은 하나의 권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해당 국가나 권역 외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받는 기업' (Eurostat, 2019.)

## 글상자 6.1 • 카리브해 국제 창의 교류(ICEC)

카리브해 국제 창의 교류(ICEC) 온라인은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제한이 있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카리브해 지역의 문화 창의분야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이 수출 전략과 유럽 및 아시아의 시장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 간 콜렉티브에서 시작했다. 이 콜렉티브는 예술과 문화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업 플랫폼으로 자메이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는 유네스코의 트랜스컬투라(Transcultura) 프로그램에 속한다. 문화 창의산업의 국제적 발전에 있어 개발도상국 출신의 창의적인 시민으로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개발도상국 간 콜렉티브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무역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공동 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134개의 개발도상국을 연결한다.

ICEC는 전아프리카 크리에이티브 익스체인지(PACE)와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아프리카의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전 분야의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선보이는 행사와 플랫폼으로 2년에 한번씩 열린다. 이것의 목표는 아프리카 경제에서 문화와 창의 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 두었다. 이는 개발도상국 간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와 훈련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수출 조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처: <https://en.unesco.org/fieldoffice/havana/transcultura>, [www.panafricancreativeexchange.co.za](http://www.panafricancreativeexchange.co.za)

2020년에 세계 음악 수익은 216억 달러(2019년 대비 7% 증가)에 달했고, 유료 구독을 포함한 총 스트리밍 수익은 음악 수익의 62.1%를 차지했다(IFPI, 2021b).

결과적으로 국제 문화 거래가 증가하는 비율은 '디지털 전달 무역'<sup>6</sup>으로 알려진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상품의 형태를 취한다. 한 예로 서비스 국제 무역이 적용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온라인 음악을 구입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018 글로벌 리포트는 문화 서비스의 국제 무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은 문화 상품의 국제무역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계속 검토하는 한편, 문화 서비스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역할

(글상자 6.1),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무역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수집의 시차로 인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주요 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 조치의 사례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중 일부만 기술되었다. 가능한 한 이 장은 문화 활동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팬데믹의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 계획들의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

### 불균등한 투자 및 무역 환경

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극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2020년 전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sup>7</sup>가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UNCTAD, 2020c). 또한 같은 해 모든 분야에서 상품 무역이 6%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서비스 분야의 국제 무역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컸다. 모든 서비스의 국제 무역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16.5% 감소했다(UNCTAD, 2021b). 이 감소는 남은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문화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2030 어젠다의 목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1년(기준) 이후  
최빈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전 세계 상품 수출에서  
1% 이하에 불과했다.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는 국제 무역을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엔진'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7.11은 세계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출 점유율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약은 각 당사국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하고 균형잡힌 문화 교류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면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정 분야에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고,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 전 세계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17.11이 설정한 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세계적 수출에서 최빈국(LDC)의 점유율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2011년(기준) 이후 최빈국의 점유율은 변함없이 전 세계 상품 수출에서 1% 이하에 불과했다(ECOSOC, 2020).

6.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자 형식으로 원격 전달되는 국제 거래(UNCTAD, 2020b).

7. FDI는 외국 직접 투자자 또는 모기업에 의한 장기적인 관계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통제를 반영하는 투자로 정의됨. FDI는 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함(OECD, 2021g).



2018년 전 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30%로 지난 10년간 정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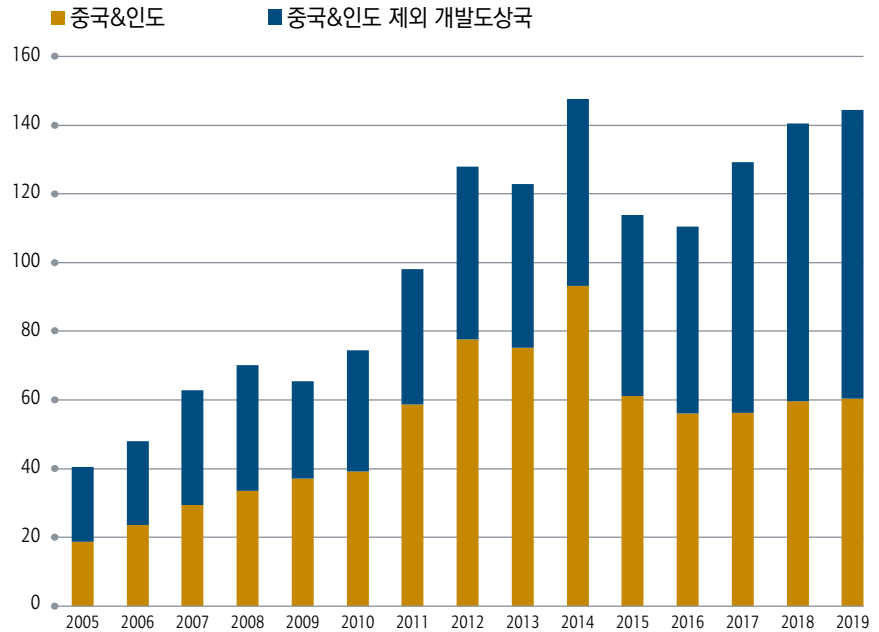
문화 상품<sup>8)</sup>에만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7.11의 내용면에서 보면, 2011년과 2018년 사이에 최빈국의 문화 상품 무역이 미화 1억 6,260만 달러에서 미화 2억 7,45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출에서 점유율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동일 기간 동안 그 비율은 세계 문화 상품 무역에서 0.5% 미만을 차지했다. 또한 최빈국의 문화 상품 거래는 수년 동안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했다. 때문에 이 거래가 생활을 크게 개선하거나,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할 안정적 수입을 제공하지 못했다.

최빈국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심각한 구조적 장애에 직면한 저소득 국가들인 반면, 개발도상국은 상위 고소득 국가(예: 중국)에서 하위 소득 국가(예: 부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최빈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수출액은 2005년 미화 405억 달러에서 2019년 미화 1445억 달러로 거의 세 배 증가했다. 그림 6.1은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 수출 전체의 최소 40%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문화 상품의 수출은 이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미화 1,47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이 기간 동안 중국 경기 침체로 전 세계 문화상품 수출액이 2015년보다 크게 줄었다.

8. 이 장에서 실시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 분석에서 문화상품에 관한 데이터는 국제 연합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COMTRADE)의 세관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문화서비스에 관한 데이터는 세계무역기구(WTO)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했다.

그림 6.1

2005-2019년 개발도상국의 문화상품 수출(미화 10억달러)



출처: Data from UM COMTRADE-DESA-UNSD/UIS, February 2021.

2017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문화상품 수출이 반등하면서 2019년은 2014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문화 상품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개발도상국조차도 상황은 좋지 않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큰 증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비스(주로 비즈니스 및 금융 서비스)의 세계적 수출에서 최빈국의 점유율은 1%(0.8%)에 이르지 못했다. 2018년 전 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30%로 지난 10년간 정체되었다. 대부분의 최빈국들은 국제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서비스 통계 분야에서 안보이는 영역이다.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추적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외국인직접투자는 자국 투자 수준을 보완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개발과 새로운 생산 능력 육성할 뿐 아니라 자국 기업들의 새

로운 국제시장 진출을 돕기 때문에, 가장 개발친화적인 투자원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0.b 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최빈국을 포함하여 필요성이 가장 큰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재정무역을 증가시키도록 장려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7.3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 재정 자원을 여러 곳에서 동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주는 모든 분야에서 투입된 자원을 모니터링한다. 문화·창의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의 할당량을 조사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류 수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데이터는<sup>9)</sup> 외국인직접투자, 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 간 협력에 대한 지표 17.3.1을 국민 총소득의 비율로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된다(UN, 2017).

9. '외국투자 유입은 다음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공개한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감소시키는 거래를 줄이는 등의 무역을 의미한다(OECD, 2021g).

각국은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의 주요 범주에 해당하는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를 수집한다. 결과적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는 영화, TV 프로그램<sup>10</sup>, 기타 창작, 예술 및 오락 활동의 여러 그룹으로 구성된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 범주에 해당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2는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선진국의 문화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31억 2,734만 달러)이 개발도상국 투자액(13억 2,164만 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유출)를 비교한 결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선진국에서의 유출<sup>11</sup>은 미화 26억 달러, 개발도상국에서 유출은 미화 12억 달러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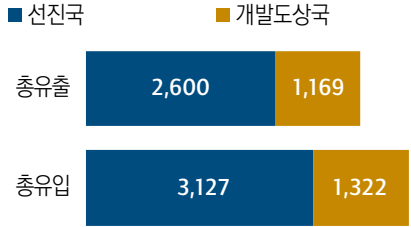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05년에는 주로 선진국으로 유입되었지만(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61.3%), 2018년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54.3%를 차지했다. 다만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는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의 39.4%로 지난 10년간 투자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라틴아메리카가 11.8%로 그 뒤를 이었다.

10. 이 범주는 고객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대중 관람 목적의 라이브 공연, 이벤트 또는 전시물의 제작 및 홍보, 참여, 그리고 예술 제품 및 라이브 공연의 제작을 위한 예술적, 창의적, 기술적 기술의 제공 등이 있다(DESA, 2008)..

11. '유출 유량은 정보를 공개한 분야의 투자자가 외국 경제 기업에 대해 투자를 늘리는 거래를 의미한다(OEDC, 2021g).

그림 6.2

2014-2019년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총유입(미화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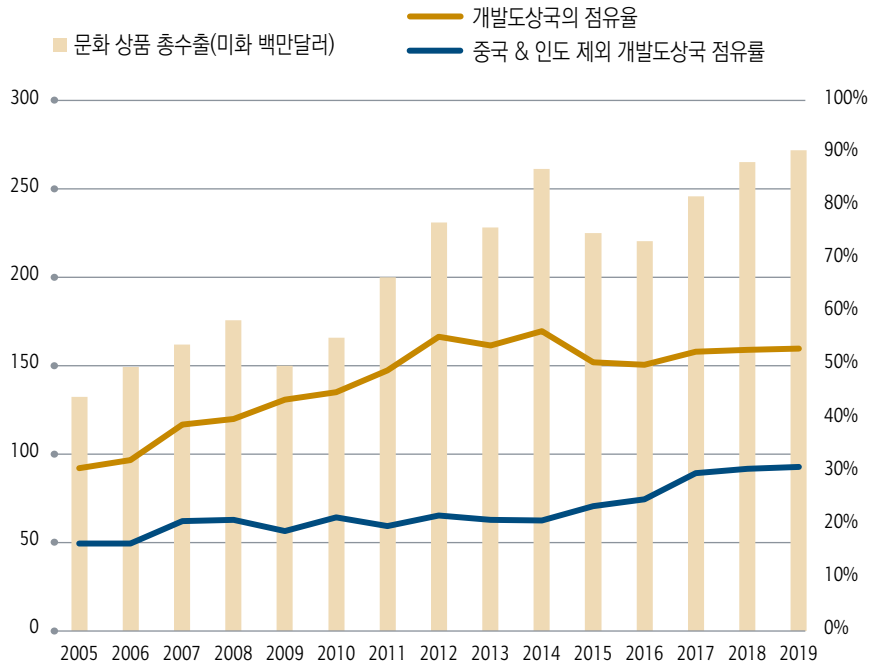


출처: International Trade Centre/BOP Consulting(2021).

아프리카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3.5%, 카리브해는 0.2%, 최빈국은 1.8% 미만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ECOSOC, 2020). 간단히 말해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선진국이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70%를 가져가는 수혜국이라는 뜻이다. 이 데이터에서는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

그림 6.3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수출 점유율의 최근 정체



출처: the UN COMTRADE-DESA-UNSD/UIS 데이터, February 2021.

는 상황에서 어떤 문화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받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화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입이 감소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다른 문화 분야보다 시청각 및 음악에 대한 투자가 우세한지 평가하려면 더욱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본 장의 국가 수출 조치에 관한 편에서 설명).

문화 흐름에서 개발도상국의 역할을 비교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교환 침체

문화 상품의 수출액은 2005년 1,323억 달러에서 2019년 2,717억 달러로 두 배 증가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급증했다.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감소하여, 2016년부터 약간 상승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체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성과에 의해 가려졌지만, 특히 2017년 훨씬 이전에 성장 이 제한적이었던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 상황은 좋지 않다.

그림 6.3은 대조적인 패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져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인도가 그 뒤를 따른다. 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개발도상국의 점유율은 약간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2016년도 사이에는 중국의 수출량 감소로 급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지분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 2004-2014년 사이 이들의 문화 상품의 국제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 정도였으나 2015년을 거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7년도에는 30%에 육박하며 안정성을 보여줬다. 여기서 의문은 개발도상국들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균형을 이루는 데 있던 도전과제들에 대한 개선을 완전히 해결했는지 여부다.

### 시각예술과 공예가 무역을 주도한다

표 6.1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선진국에서 수출되는 문화 상품의 유형은 개발도상국과 약간 차이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4년 문화 상품 수출에서 '시각예술과 공예' 비중이 40%에 달한 반면, 같은 해 개발도상국이 수출한 문화 상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에는 문화 상품의 무역에서 '시각예술과 공예'에 대한 점유율이 커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문화 상품 수출 중 3분의 2를 차지했다. 2019년 상위 3개 분야의 다른 두 범주는 두 국가 그룹(선진국의 경우 '공연 및 행사'와 '도서 및 인쇄',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연 및 행사'와 '시청각 및 양방향 미디어')에서 동일하지만 적어도 10% 이상 감소했다. 문화 상품의 수입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19년 '시각예술과 공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문화 상품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협약에 언급된 문화 상품의 흐름에서 개발도상국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문화통계 프레임워크(FCS)에서 정의한 세 가지 하위 영역을 고려할 수 있다<sup>12</sup>.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세 가지 하위 영역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류 내용이 완화되었다.

12. 2018년 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의 하위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문화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청각 및 음악에는 공연 및 행사의 일부 하위 영역과 시청각 및 양방향 미디어 영역의 음악과 영화가 포함된다.

표 6.1

2004년~2019년 분야별, 발전수준별 문화 상품의 무역

분야별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문화 및 자연유산	공연 및 행사	시각예술 및 공예	출판과 언론	시청각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및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총계
<b>2004</b>								
수출	선진국	3.0	31.9	40.2	21.8	2.8	0.3	100
	개발도상국	0.2	30.8	53.5	7.1	8.3	0.1	100
수입	선진국	3.1	31.0	40.2	19.3	6.3	0.1	100
	개발도상국	0.7	37.6	41.4	14.5	5.5	0.3	100
<b>2019</b>								
수출	선진국	3.2	10.6	66.3	13.6	6.1	0.1	100
	개발도상국	0.5	21.1	66.6	4.0	7.8	0.0	100
수입	선진국	2.9	17.8	56.4	12.1	10.8	0.0	100
	개발도상국	1.5	20.8	68.3	5.5	3.9	0.0	100

\* FCS는 2009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의 약자

출처: UN COMTRADE-DESA-UNSD/UIS 데이터, February 2021.

2005년에 선진국은 대부분의 시청각 및 음악 상품을 다른 선진국에서 수입했다 (72%). 그러나 그림 6.4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수치는 점차적으로 (특히 지난 10년 동안) 33%까지 떨어졌다. 이는 개발도상국 상품의 시장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선진국은 2005-2019년 전체 기간 동안 평균 70%의 점유율로 다른 선진국에서 시각예술 상품을 구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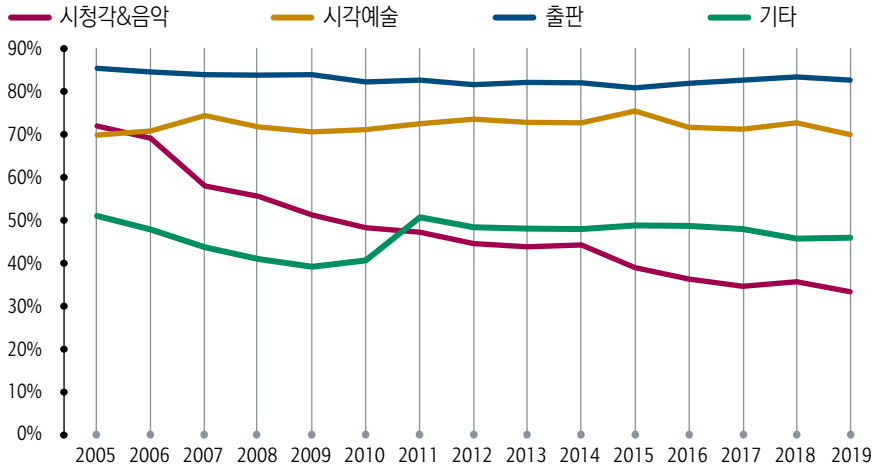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러한 무역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초기에는 녹음 CD는 다른 CD(비어있는 공CD)와 구별되지 않았고, 후자는 문화적 표현을 포함하거나 전달하는 문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시기 중간에 관세 분류가 변경되었다. 시각예술의 경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선진국은 대부분 다른 선진국에서 시각예술 상품을 구매했으며, 2005-2019년 전체 기간 동안 평균 70%의 점유율을 보였다.

출판 분야에서 책과 신문의 수입은 2005-2019년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약 80%가 주로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다.

개발도상국 간 문화 상품의 수입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6.5를 살펴보면 시청각과 음악 무역이 크게 증가했고, 출판과 기타 문화 상품 무역이 약간 증가했으며, 시각예술 분야의 무역은 감소했다.

그림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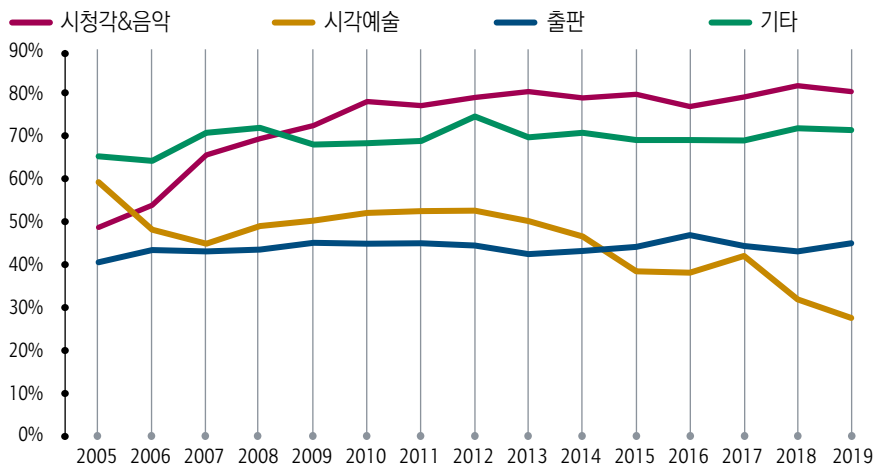
2005-2019년 선진국 간 문화 상품 수입



출처: Data from UN COMTRADE-DESA-UNSD/UIS, February 2021.

그림 6.5

2005-2019년 개발도상국 간 문화 상품 수입



출처: Data from UN COMTRADE-DESA-UNSD/UIS, February 2021.

따라서, 시각예술과 출판의 경우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시청각 및 음악 분야 수입을 점점 늘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간 문화 상품을 교환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협약이 채택된 이후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문화적 무역 균형도 후자의 무역 증가로 인한 것이다.

시각예술과 출판의 경우 선진국은 여전히 선진국 간에 문화 상품을 교환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시청각 및 음악 분야의 수입이 점점 늘어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물리적 이동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정부와 문화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문화 교류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예술 시장과 마찬가지로 문화·창의산업 역시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웠다. 문화 상품의 무역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예술은 문화 상품 교류의 핵심을 이룬다. 온라인 미술품 판매는 심지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가치가 두 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물리적 유통 경로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 분야가 물리적 교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세계적 미술 시장은 팬데믹의 타격을 심하게 받아 2019년 대비 2020년 전 세계 매출의 22%가 감소해 501억 달러를 기록했다(Art Basel and UBS, 2021).

세계 미술 시장은  
팬데믹의 타격을 심하게 받아  
2019년 대비 2020년 전 세계  
매출의 22%가 감소해  
501억 달러를 기록했다.

게다가 제작, 스트리밍 및 기타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전달이 디지털로 전환됨으로써 시청각 및 음악 교류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운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는 문화 상품의 무역이 아니라 문화 서비스의 무역에 포함된다. 시청각 분야의 경우 특히 선진국 간에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물리적 교류가 거의 없다.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선진국에서 시청각 및 음악 상품의 수출(물리적 무역으로 이해)이 50% 감소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청각과 음악 분야의 국제 무역 감소가 아니



© Alvan Nee / Unsplash.com

라 오히려 현재 대부분 문화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의 결과로 해석된다.

### 문화 서비스의 무역에서 선진국의 지속적인 강세

문화 상품의 무역에 관한 데이터는 문화 상품의 세계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점유가 약간 증가하여 안정기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국제 서비스 무역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경제의 디지털화와 함께 서비스의 교류를 측정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문화 서비스의 데이터가 향상되어 2018 글로벌 리포트 발표 당시 하지 못했던 트렌드 분석이 이제 가능해졌다.

관련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서비스의 국제 무역에 대한 통계는 흩어져 있기에, 여기서는 문화 상품 유통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 전체의 절반 이하인 76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다(UNESCO, 2018).

2009년 유네스코 문화 통계 프레임워크(FCS)<sup>13</sup>의 영역에 따라 문화서비스는 확장된 국제수지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두 품목이 문화 서비스 무역을 지배하고 있다. 첫 번째 서비스인 '시청각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는 전자로(electronically) 전송되는 영화 제작, 라디오, TV 프로그램 또는 음악 공연 녹화와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한 유료 TV 서비스에 대한 일부 온라인 구독도 시청각 서비스에 속한다. 아마존과 같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영화 플랫폼 구독은 종종 기업의 다른 주요 활동(무료 배송 서비스에 따라 분류되거나, 시청각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아마존 프라임)). 두 번째는 통신사와 유사 서비스 제공자를 포괄하는 '정보 서비스'이다(UN et al., 2012). 다른 범주에는 시청각 및 관련 제품의 복제 및 배포 라이선스, 광고 서비스, 건축 서비스, 예술 및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2019년 전 세계 문화 서비스 수출액은 1,174억 달러로 2006년의 두 배에 달했다.

2019년 전 세계 문화 서비스 수출액은 1,174억 달러로 2006년의 두 배에 달했다. '정보 서비스'는 2019년 425억 달러로 2006년보다 3배 이상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는 최대 문화 서비스 분야로 남아 2019년에는 가치가 70% 증가하여 479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문화 서비스의 무역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치도 과소평가된 것이다.

2006년과 2019년 사이에 상당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문화 서비스는 여전히 전체

무역 서비스 중 2% 미만을 차지했다. 그림 6.6을 보면 선진국은 여전히 문화 서비스 무역시장을 크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실적을 유지해 문화 서비스 총 수출의 평균 95%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전체 문화 서비스 수출의 약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이 제한된 데이터(특히 중국 포함)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유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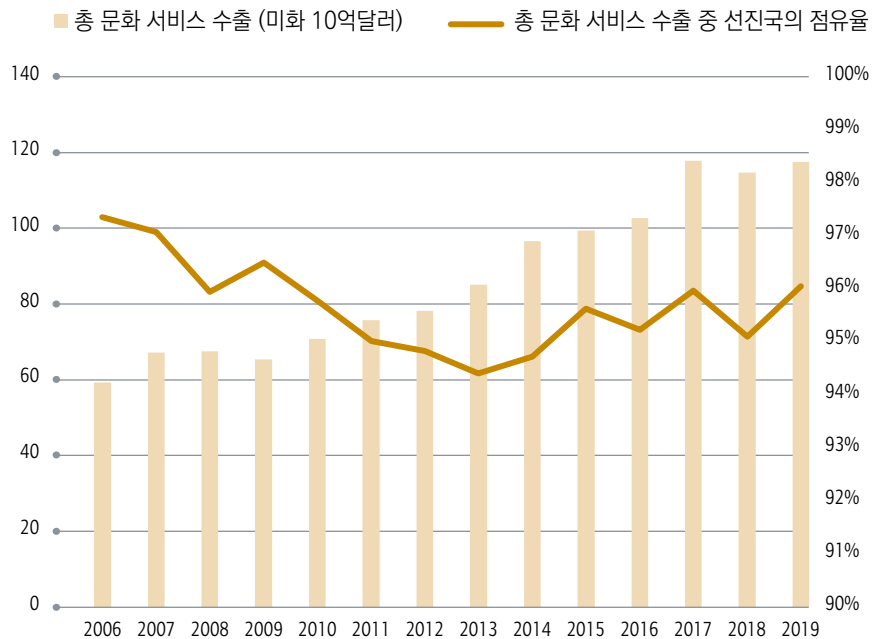
문화 서비스는 전체 무역 서비스 중 2% 미만을 차지했다. 선진국은 여전히 문화 서비스 무역을 크게 지배하고 있으며, 문화 서비스 총 수출의 평균 95%를 차지하였다.

파트너 국가의 문화 서비스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문화 서비스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국가를 알려준다. 문화 서비스의 수입 데이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시장을 개방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파트너 국가별 데이터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33개국에 한정되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은 주로 그들끼리 문화 서비스를 수입한 반면, 문화 서비스의 교류는 6배나 많았다. 2006년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문화 서비스는 전체 수입의 5.8%에 불과했고, 2018년에는 7.6%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데이터가 제공된 모든 유형의 문화 서비스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2018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수입에서 7.3%의 비중을 차지한 '정보서비스'는 2006년에 비해 1% 미만정도 높아졌다.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의 경우 2006년과 2018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의 점유율은 더 불규칙했다. 평균적으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점유율은 3%에 불과했다.

그림 6.6

2006-2019년 전체 무역량에서 문화서비스 수출, 총 무역량, 점유율



출처: WTO database (2021), www.wto.org/english/res\_e/statis\_e/tradeserv\_stat\_e.htm.

13. 국제수지 서비스 확대 코드에 의해 정의된 문화 서비스. P39(UIS, 2009).

예를 들어 '시청각 및 관련 제품의 복제 및 배포 라이선스'와 같은 일부 문화 서비스 교류에서 선진국의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이 범주에는 영화, TV 시리즈 또는 음악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수수료와 요금(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형태)이 포함된다(UN et al., 2012).

### 시청각 및 관련 제품의 복제 및 배포 라이선스와 같은 문화 서비스 교류에서 선진국의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이 부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상당한 취재가 가능한 기간) 선진국 사이에서(99%) 거의 독점적으로 국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분야에 개발도상국이 부재한 점이 우려되는데, 이는 판매와 라이선스의 이점을 활용하고, 문화·창의분야의 혁신을 자극하며, 신제품 개발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는 라이선스 수익의 불공평한 거래를 만드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복제와 지적소유권 보호의 부실로 해당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염려를 표했다.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강력한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청각 창작 콘텐츠의 불법 이용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불법 복제 행위가 영화와 시청각 산업 수익의 50%에서 75%에 이른다고 주장한다(유네스코, 2021c).

도서를 복제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문화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글상자 6.2는 저작권 침해와 싸우고 도서 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이니셔티브를 보여준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저작물의 입지를 높이고 저작권 침해를 줄여 저자의 수입을 보호하게 된다.

비공식 활동과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결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기에 이러한 사항은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저작자 권리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글상자 6.2 • 인도네시아 파트너십 프로그램 - 출판

2019년 인도네시아 출판협회는 창의경제위원회(Bekraf)의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 도서의 해외 라이선스 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도서 판권을 판매해 구매자들이 책을 번역하고 자국이나 해외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국제도서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와 외국 출판사 간의 협약으로 42권의 책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판권이 판매되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인도네시아 서적의 시장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 불법 복제의 위험을 줄이며, 새로운 독자에게 다가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이러한 수출 조치는 번역본의 제공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문학에 대한 국제 시장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Indonesia QPR (2020).

### 무역 조치: 국제 시장 진입의 촉진 또는 방해?

이 장에서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무역 관련 조치와 정책을 살펴본다. 첫째는 무역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이다. 무역관세, 또는 '자국으로 수입된 상품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수출된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sup>14</sup>은 수출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수입국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관세 인하와 철폐는 국제 물류 무역에서 가장 빈번한 우대조치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10.a.1 - '관세가 없는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sup>15</sup>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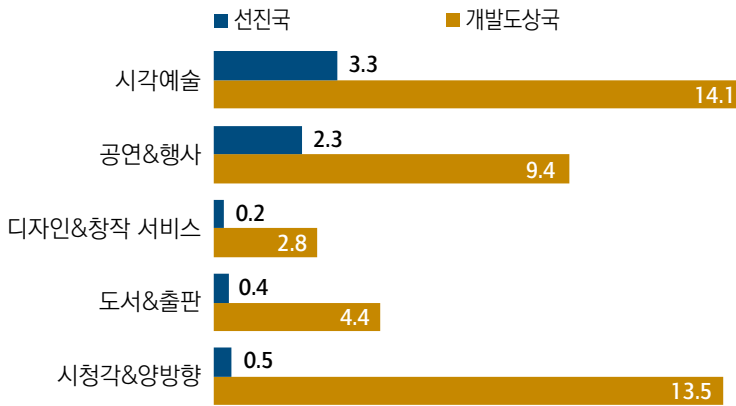
세계무역기구(WTO)<sup>15</sup>는 무역에 참여하는 나라에 무역 협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계 무역에는 몇가지 원칙과 규칙이 통용된다. 협약은 문화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이 창의적 표현을 구현하거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물건이 문화상품에 속한다. 관세 데이터에 기반하여(이전 섹션에 활용한) 문화 상품의 국제 무역에서 WTO 정의가 적용된다. WTO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최혜국(MFN)이다. 이는 한 국가가 특정 상품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면 동일한 상품에 대해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비차별 원칙이다. 이러한 관세에는 구속력이 있다. 각국이 제품에 적용될 최대 관세를 제정하고 양자간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OECD Glossary. <https://stats.oecd.org/glossary/index.htm> (Accessed 28 May 2021)...

15. 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2\\_e.htm#seebox](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2_e.htm#seebox) (Accessed 15 May 2021).

그림 6.7

## 문화분야별 도메인별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최혜국 적용 관세-종가관세 평균



출처: WTO / BOP Consulting(2021), 관세및통계통합분류표에 따른 평균 문화 관련 상품 라인에 근거함

그림 6.7은 문화 영역 및 국가별 최혜국 적용 관세(및 발전 수준)에 대한 2020년 수치를 기준으로 문화 상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를 보여준다. 그 결과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문화 상품에 대한 관세가 현저히 낮았다. 이것은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유리하다는 의미다. 선진국에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상품 관세가 다른 문화영역에 비해(1% 미만) 각각 3.3%, 2.3%로 더 높았다. 개발도상국에서 시각예술과 시청각 및 양방향 미디어의 상품은 각각 14.1%, 13.5%로 상당히 높았다.

2017년에는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2018 글로벌 리포트와 이 리포트 사이의 트렌드 분석은 할 수 없다. 다만 20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세 인하 여부를 차기 발간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세는 다국적 또는 양자간 무역 협정에서 회원국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 감면이 이뤄진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설립 협정(AfCFTA)을 수립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문화 상품 무역에서 관세가 철폐되었다. 모리셔스와 중국

의 무역 협정은 문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2021년 1월 협정이 발효되면서 모리셔스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중국 관세선의 96%까지 철폐돼 사실상 문화 상품에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원조는 지난 10년간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거의 30%를 차지했지만, 문화 활동과 관련한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다.

문화 서비스와 문화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 관련 조치는 무역원조이다. 무역원조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부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개방 무역으로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무역 역량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의 한 유형이다. 이는 무역 전략이나 협상을 개발하고, 자국과 세계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혹은 산업과 해당 분야에 투자하여 수출을 다양화하고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적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의 형

태를 취할 수 있다. 무역원조는 이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세계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선진국의 약속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고려된다. 이는 무역원조 증대와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8.a.와도 일치한다. 무역원조는 개발도상국에게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제공한다.

최근 협약 이행을 보고한 75개국 중 8개국만이 무역원조 지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개발원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무역원조가 전체의 30% 가까이 차지했지만 문화 활동과 관련한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다(그림 6.8). 개발도상국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이 제도적, 법적 프레임 워크나 무역원조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 분야에서 무역원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불평등한 무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이 결과는 현재의 무역원조 측정 시스템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바와 같이, '라디오/텔레비전/인쇄 매체'는 무역원조와 관련하여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협약의 정의에 부합하는 유일한 범주이다<sup>16</sup>. 앞으로는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과 같은 다른 문화적 표현과 관련된 범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16. 다른 문화 관련 코드인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포함되는데 협약의 관점에서는 관련성이 부족하다.





© Jr Korpa / Unsplash.com

# 문

화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공 정책을 통해 문화, 창의성, 혁신 및 문화 실험에 대한 계획과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들은 예산의 일부를 예술 훈련 및 예술과 문화의 증진과 후원에 투자했다. 선진국의 발전을 단지 경제의 관점에서만 보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제도권 문화와 그 반대의 문화, 즉 혁신을 위한 문화나 집단의 표현문화는 사회전반의 웰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공정책의 달성을 위한 사회의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사회는 또한 기술, 과학, 교육, 연구, 실험,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시민 참여가 활발한 공공 영역에 투자했다. 국제기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에 '문화' 소프트웨어가 장착되는 것은 이것이 교차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시민과 사회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적화된 실행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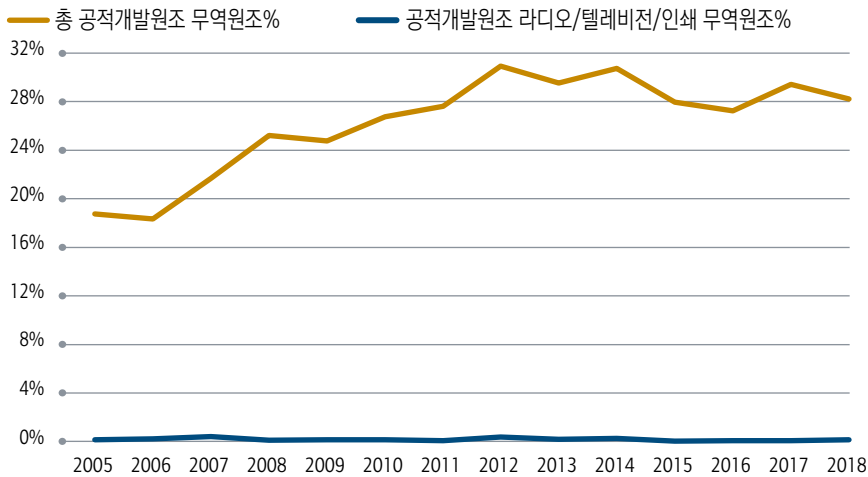
국가 예산이나 국제기구 예산과 관계없이 자원을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원은 예술 교육 및 문화, 전통 보존, 집단 창작을 위한 문화시설 건설 및 개조, 역사적인 건축 유산 홍보, 충분한 교역량을 위한 지역 훈련, 예술 및 문화 사업 자금 지원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자금 지원 외에도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모두가 공유하는 시장과 기회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 아브라함 비센테

카보베르데 공화국 문화창의산업부 장관

그림 6.8

## 2005-2018년 공적개발원조 및 라디오/텔레비전/인쇄 매체 무역원조



출처: OECD 공적개발원조 데이터베이스에서 BOP 컨설팅이 취합한 데이터에 근거함(2021).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는 앞서 무역원조가 이루어지는 문화 분야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d)의 채권자신고제도(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목적 코드 목록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문화에 대한 무역원조가 새로운 범주를 만들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디오/텔레비전/인쇄 매체'는 전체 무역원조의 0.5%에도 미치지 못했다(그림 6.8).

관세 및 무역원조 외에도 무역 조치는 문화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문화 서비스 무역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우대조치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전략을 설계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새로운 무역 정책 대책이 일반적인 문화 서비스 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 규제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관리하는 정책

조치의 유형과 해마다 발생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OECD, 2021f). 여기에는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80%를 차지하는 48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37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며, 주로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으로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러시아 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이 포함된다. 한 국가에서 서비스 무역에서 제한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면, 문화 서비스의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텔레비전과 방송, 영화 서비스, 녹음 서비스 등 22개 분야를 아우른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서 2020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OECD, 2021f).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넘는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설계했다. 다만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시청각 분야와 컴퓨터 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무역 제한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제한적인 정책 조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계 기업의 유치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외국인 계열사 무역통계(FATS, Foreign Affiliate Trade in Service)는 외국인 소유 회사의 형태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동 제작 영화나 해외 영화 촬영을 위해 외국인계열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영화 제작에서 매우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한 조치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서의 민간부문 투자 육성을 줄인다면 협약에 따라 우대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과 방송 분야에서는 13개 나라에서 국경을 넘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안했다. 시청각 녹음기록물의 경우 19개 국가에서는 국경을 넘는 공급을 위해서 현지 주재를 조건으로 두고 있다(OECD, 2021f).

###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시청각 분야와 컴퓨터 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무역 제한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무역 정책과 조치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강화하거나 제한하여 전체적인 흐름에 균형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수출 전략 및 조치

당사국이 제출한 2017-2020년 4년제 정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수출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만 혜택을 주는 우대 조치는 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조치는 공동 제작 협정, 재정조치, 교육 또는 네트워킹을 포함한 수단을 통해 한 국가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 제16조에 따르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국 시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즉 이러한 조치는 비호혜적이고 주요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편익이다(우대조치로 간주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장 참조). 이는 예술가나 문화 분야 사업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는 개발도상국의 국가 기관에 대한 재정적 원조 또는 기술 지원의 형태를 취한다.

이 분석에서 다뤄진 74개국 중 20개의 개발도상국만이 우대조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제시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국은 문화 상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우대조치보다는 일반적인 무역협정을 주로 보고했다.

### 개발도상국에만 혜택을 주는 우대조치는 흔지 않다

4개의 선진국(알바니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만이 개발도상국에 우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설립된 프로젝트에는 아프리카 및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과 함께 영화 산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베를린 국제영화제(Berlinale) 세계 영화기금이 포함된다(글상자6.3).

#### 상호 거래로의 전환 - 개발도상국 내부 전망

2017년 이후 개발도상국 간의 문화적 교류에 유리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특별 우대 조치를 승인했다고 보고한 개발도상국이 19개국이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는 전시나 관련 행사에 참석할 때 예술가와 그들의 자산에 적용되는 임시 수입품에 대해 특별 우대(보통 상대국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를 시행했다. 2020년 부

르키나파소와 세네갈은 영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간의 교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또 다른 예이다. 2018년 골든 아프리카 국제 영화제(GAIFF)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이란을 포함한 소캅카스 지역의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국경을 넘는 지역 공동 제작(C2C), '장편 영화 프로젝트 및 워크인 프로그레스마켓(Work-In-Progress Markets)'을 시작했다.<sup>17</sup> 이 장의 뒷부분에 또다른 예시가 등장한다.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수출 조치들이 종종 있다. 아직 수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와같은 협정을 도입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레소토에서는 국가개발공사와 통상부가 협력해 문화분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출전략을 설계하고 있다. 페루도 같은 목표를 염두에 두고 대외 문화 정책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

특별 우대 조치를 승인했다고 보고한 개발도상국은 19개국이다.

#### 글상자 6.3 • 베를린 국제영화제 세계영화기금 - 국제 공동 제작 및 시장 접근 지원

개발기관 또는 재단은 종종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재능, 기술, 역량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문화 가치 사슬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세계영화기금이 그 사례로, 독일 연합 문화 재단, 독일 문화원, 독일 연방 외교부, 독일의 제작자들과 협력해 설립한 지원 형태다. 2004년에 출범한 이 기금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동 제작 자금을 지원하고 배급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영화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캅카스 지역의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표준 기금 외에도 사하라 이남 지역의 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영화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세계영화기금(World Cinema Fund Africa)과 같은 추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2016년 이후 13개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아프리카-독일 공동 제작은 유럽 시장에 대한 특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감독이나 배우의 영화가 유럽 관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따라서 더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기여한다).

출처: Germany QPR(2020).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에서 시청각 분야가 가장 많은 수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선진국의 75%, 개발도상국의 61%를 포함하여 66%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루과이 시청각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는 국제 공동 제작을 촉진하여 우루과이 영화의 국제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이 조치를 통해 외국 영화 제작을 장려할 수 있다.

17.. www.gaiff.am

첫 번째는 현금 리베이트로 우루과이 현지 기업과 공동 제작을 하는 외국 기업은 투자한 예산에 따라 적격 비용의 최대 25%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외국 및 현지 기업과 공동 제작이 영화영상예술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제작 수출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게 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우루과이 영화 공동 제작을 촉진하여 우루과이 영화 공동 제작이 국제 시장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 세계에서 영화와 TV 시리즈를 제공하는 세계적 스트리밍 및 주문형 비디오(VOD) 플랫폼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애플TV+,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훌루, HBO 맥스, 넷플릭스 등 대형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 영화를 위한 무비(Mubi) 같은 전문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3장 참조). 영화의 경우 대부분의 콘텐츠 목록은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콘텐츠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야 한다(해당 국가의 시청각 분야에 대한 할당량 기준). 많은 유럽 국가와 호주, 캐나다 또는 그와 같은 할당제를 제정한 다른 나라에서 외국 기업들은 현지 제작자, 배우 및 업계와 함께 영화를 공동 제작하여 현지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

61%의 국가에서 수출 지원 조치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두번째 분야로 '시각예술과 음악'을 꼽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적 음반 분야는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와 기타 형태의 디지털 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다른 문화 산업보다 좋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라이브 음악 분야는 쇠퇴했다<sup>18</sup> 2020년 국경 봉쇄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라이브 공연과 페스티벌을 금지하면서 아티스트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

협력 협정에 이어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을  
포함한 금융투자는 선진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치이자  
전략이다.

모로코음악수출국(MoMEX)은 팬데믹이 음악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 산업에서 음악가와 기타 종사자를 지원할 새로운 방법 모색의 필요성을 느꼈다. 모로코음악수출국은 2016년 국제 무대에서 모로코의 예술가를 홍보하기 위한 공공 수출 사무소로 시작되었다. 설립 이후 아프리카 공연 예술 마켓(코트디부아르), 바벨 메드 뮤직(프랑스), 애틀랜틱 뮤직 엑스포(카보베르데), 위맥스(WOMEX, 월드 뮤직 엑스포)(유럽), 공연예술전문가협회(미국) 등 국제 음악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주요 음악제에 참가했다. 모로코음악수출국은 모로코와 해외에서 음악이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음악 분야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전 세계 문화 상품의 균형잡힌 무역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7.11의 달성을 돕는다.

### 보다 수출 친화적인 접근

개발도상국은 특정 분야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모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르는 조치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는 2018년에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되는 법령을 채택했다. 개발도상국은 수출 지원을 위해 선진국보다 더 넓은 범위의 조치를 사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문화적 표현을 다루는 협력 협정 또한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 중국과 니제르는 시청각, 출판, 도서관, 전시회 등의 분야에서 정보와 전문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문화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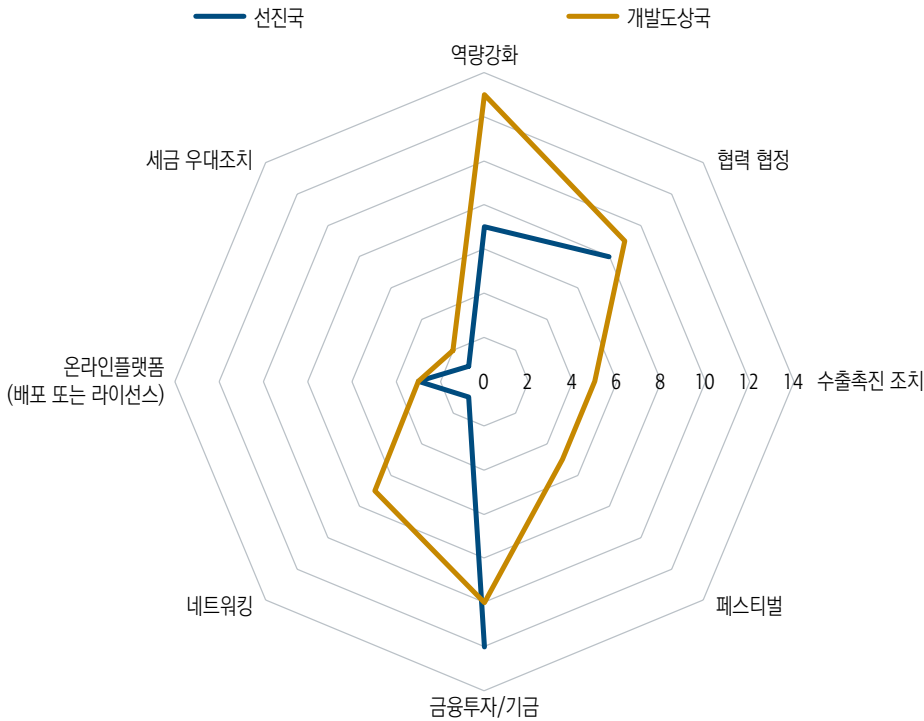
그림 6.9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보다 균형잡힌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출 조치의 유형을 설명해준다.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성 등 금융투자자와 협력 협정이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치이자 전략이다. 2017년 프랑스와 튀니지는 프랑스-튀니지 시청각 작품 제작을 위한 양자간 기금을 설립했고, 2018년 칠레와 독일은 영화 공동 제작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두 경우 모두 제작된 영화는 유럽 시장에 대한 특권을 갖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수출 촉진 조치나 페스티벌은 보고된 바 없다.

세금 우대조치는 세금 환급이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에콰도르는 문화 상품의 수입에 대한 감세 또는 면세를 시행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세금 혜택을 도입했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협정(ATIGA)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영화, 공연예술 작품, 자료 기록여부에 관계없이 기타 시청각 제품, 미술, 사진저작물' 문화 상품 수입세의 감세 또는 면세 조치를 마련했다.

18. 유네스코 리포트는 문화·창의산업 중에서 어떤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지 증거를 제공한다.(Bop Consulting, 2021)

그림 6.9

개발 수준에 따라 이행되는 수출전략 및 조치의 개요



출처: UIS(2021).

2016년에 체결된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협정(ATIGA)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사이 관세품목의 99% 이상에 대한 아세안 내 수입 관세를 없애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모든 상품의 관세품목 99%에 대해<sup>19</sup> 수입 관세를 0%에서 5% 사이로 줄여 문화 상품에 대한 혜택을 마련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더욱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취약 국가들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정책과 프로그램 조치를 마련했다. 일부 중소도개발도상국(SIDS)은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려고 시도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22% 증가하여 2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밖에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창작 및 예술 사업을 목표로 한 바베이도스가 대표적인 예다(UNCTAD, 2021c).

개발도상국은 특히 문화 분야 기업가, 시민단체, 현지 제작 회사 또는 인큐베이터의 디지털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디지털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협력 협정을 통해 촉진될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통합될 것이다.

19. 동남아시아국가연합관세검색 <https://tariff.finder.asean.org/index.php?page=atiga> (Accessed 19 November 2021)

많은 경우에 개발도상국은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 수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언급했으며 이는 문화 상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에스와티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가이드 작성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더욱 축소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취약한 국가들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 정책과 프로그램 조치를 취했다.

레소토에서는 수출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 분야 종사자의 기업가적 역량과 디지털 기술을 향상시키는 여러 교육 프로젝트가 고안되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무역센터(ITC)에서 시행하는 감비아 청년 역량 강화 프로젝트<sup>20</sup>는 디자인, 미디어 예술, 공연예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공예, 패션, 관광과 같은 일부 경제 분야의 청년 기업가에게 집중한다. 2017년에 시작된 5년 프로그램은 감비아가 수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취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문화·창의산업의 젊은 종사자의 기술에 투자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UN)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를 통해 설립한 다국적 기구인 국제무역센터(ITC)에 의해 수행된다. 교육활동에는 참가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도 포함된다. 네트워크 개발 및 역량 강화 조치의 또 다른 좋은 예는 글상자 6.4에 제시된 와가두구의 필름랩으로 시청각 분야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영화의 제작과 유통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 www.yep.gm.

## 글상자 6.4 • 와가두구 필름랩

와가두구 필름랩(Ouaga Film Lab)은 서아프리카 최초의 영화 개발 및 공동 제작을 위한 인큐베이터이자 연구소이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아프리카 대륙과 그 이상의 젊은 종사자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참가자는 우수 작품을 공유하고, 아프리카 출신 젊은 창작자(감독 및 프로듀서)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선정되는 경우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현지 자금 조달, 국제 공동 제작 제도, 영화 개발에 필요한 모든 측면을 지원하는 멘토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멘토들은 주로 아프리카 출신의 국제 전문가로, 젊은 종사자의 기술 역량을 고무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제1회 필름랩은 2016년 유럽 영상산업기구(European Audiovisual Entrepreneurs, EAVE), 파리의 프랑스학사원,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영화 분야의 국제, 현지 및 외국 기관들과 협력하며 프랑스학사원의 영화 지원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열렸는데, 시네마 팩토리(Fabrique Cinéma), 시네마테크 아프리카(La Cinémathèque Afrique), 상상연구소(Institute Imagine), 모로코 아가디르의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FIDADOC) 및 튀니지의 사우스라이팅(Sud Écriture) 등이 함께 했다. 또한 스위스, 독일, 국제프랑코포니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해외 개발 기관 현지 사무소의 재정 지원도 받았다. 다른 파트너들도 이후에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

2020년에는 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 프랑스어권 5개국 부르키나파소, 기니, 코트디부아르, 콩고 공화국, 르완다에서 온 세 편의 다큐멘터리와 두 편의 픽션 영화가 포함되었다. 와가두구 필름랩은 네트워크 수출 조치가 역량 강화 및 훈련을 결합하여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향상시키려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돕는 좋은 예이다. 선진국이 개발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더 나은 균형과 더 다양한 문화·창의적 표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출처: [www.ouagafilmclub.net](http://www.ouagafilmclub.net)



© africa924 / Shutterstock.com\*

## 결론 및 권고사항

지난 10년 동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문화 상품의 세계 무역이 다소 개선되었지만(세계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점유율 증가), 실제로 혜택을 본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제한된 범위의 문화 상품만 포함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개선은 거의 없었다. 선진국은 주로 다른 선진국에서 특정 문화 상품을 계속 수입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도 그들간의 문화 상품의 교류를 늘렸다. 이는 개발도상국 간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수출 조치가 증가해 세계 수준에서 더 균형잡힌 무역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교류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트렌드를 측정하기 위해 문화 상품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도 있다. 4년제 정기보고서의 분석은 문화 교류의 디지털화에 대한 몇 가지 유망한 사례(대부분 시청각 및 음악 분야)를 보여주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다. 무역 장벽과 세계 시장으로의 참여 문턱이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디지털화는 기회이다.

외국인직접투자자와 관련해 집계된 데이터는 트렌드 분석에 용이하지 않아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적절하다. 무역 원조를 통한 문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협약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우대조치가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협력 협정을 맺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한 분야는 시청각분야였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국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의존하는 시청각 산업의 전세계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다른 문화·창의분야의 문화적 표현과 생산에서 세계적 교류의 역할이 적을 수는 있지만,

대신 지역 및 국제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선진국은 여전히 전 세계 문화 서비스의 무역을 지배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입하는 개발도상국의 문화 서비스에 대한 개선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실제 데이터 분석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측정, 보고 및 다양한 측정 기관 간의 조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결과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부분적 특성에 의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이벤트와 교육, 가상 갤러리, 온라인 공연이 증가했고 이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유통이 급속도로 디지털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새로운 관행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보급의 디지털화와 함께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강화되어 전체 문화적 가치 사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평가하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은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으로 이어진다.

정부와 공공단체의 경우:

-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 무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지원을 하는 등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특히 선진국의 행동이 요구된다;
- 필요한 경우 시청각 분야를 넘어 개발도상국과 협력 협정 또는 공동 제작을 하는 등 다양화를 고려한다. 특히 선진국의 행동이 요구된다;
- 공적개발원조 및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를 포함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무역 평가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

-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 과제에 대한 정책과 대응을 재조정하거나 업데이트한다. 이를 통해 문화 무역을 개선한다.;

-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양화하고 문화·창의산업을 목표로 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정부 및 국제 기구의 경우:

-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분야 기업가에 힘을 실어주고 역량과 기술을 향상시켜 그들의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 더 나은 접근성과 경쟁력을 갖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통계국(UNS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의 국제문화서비스 데이터 생산 능력 강화한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의 인식을 높이고, 우대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강화한다.

문화기관, 언론, 지역 및 국제 시민단체의 경우: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상품 및 서비스가 자국 및 국제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문화협력, 공동제작,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문화 분야 종사자를 양성한다;
- 전 분야에 걸친 문화 관련 종사자 간에 전문 네트워크와 실무 커뮤니티를 조성해 동료간 학습 및 지식 공유를 촉진한다;





# 다양성 보호: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타당한 공공의 정책목표를 여전히 추구할 수 있는 여지의 존재

베로니크 게브르몽

## 핵심 발견

- »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체결된 25개 무역협정 중 대부분(84%)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들이 문화 분야에서 실권할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 이 무역협정들 중 15개가 협약의 당사국들 사이에서 독점적으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협정만이 협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체결된 25개 무역협정에 중 대부분은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무역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 » 전자상거래와 깊이 관련된 새로운 세대의 무역협정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서명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조항은 향후 협상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
- » 협약은 무역 포럼에 비해 비무역 포럼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적어도 40개의 다국적 및 지역 법률문서가 협약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 » 지금까지 협약 당사국들은 인공지능과 추천 알고리즘이 편견을 반영하고 지역 콘텐츠의 가시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 » 세금 문제 역시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구시대적인 세금 제도는 자국과 외국의 문화·창의산업 사이에 막대한 불균형을 만들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외국 경쟁사가 자국 과세 제도로부터 면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 개발도상국 우대조치에 관한 협약의 제16조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동 생산 협정을 제외하고는 무역협정 및 기타 국제 법률문서에서 폭넓게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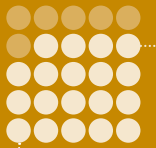
여기에 언급된 모든 협정 및 법률문서들은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체결되었음

경과

다양성 증진



**25** 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적 파트너십이 체결되었으며(적어도 하나의 당사국이 협약에 참여), 그 중:



**19** 개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함

**1** 개만이 협약을 명료하게 언급

다국적 법률문서



적어도 **40** 개의 다국적 및 지역 법률문서가 협약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중:



디지털 환경

적어도 **17** 개에는 디지털 환경에 관련된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

**2** 개는 디지털 상거래를 전담하는 차세대 협정임

**10**

개는 문화와 디지털 환경을 연결함

**10**

개는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연결함

**1**

개는 인공지능의 윤리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임

**15**

개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장을 가지고 있으며:

**5**

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 없는 약속을 포함하며...

그리고 4개는 문화적 조항이 없음

- + 디지털 문화 교류 개선
-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보격차 감소

- 디지털 환경에서 당사국들이 지역문화 콘텐츠를 증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

도전

양자간 협정



체결된 양자간 투자 조약 85건 중, 문화 조항이 포함된 것은 **5**건뿐임

우대조치



선진국들이 서명한 그 어떤 협정에도 우대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새로운 시너지



협약과 프레임워크 간의 협업이 필요한 부문:

- 지적재산
- 과세
- 인공지능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는 다국적 기업이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 세금 불평등을 가지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임



전자상거래

무역 협정 중 전자상거래의 차별금지 조약의 범위에서 문화 분야는 제외



불평등

선진국: 개발도상국 우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정책 조항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공공 정책을 설계하는 당사국의 역량을 보호하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



데이터

일각에서 당사국이 문화 부문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방식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흐름 약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권고 사항

## 핵심 지표

무역 및 투자 협정은 협약을 설명하거나 그 목적을 이행

기타 협정, 선언, 권고 및 결의안은 협약을 참조하거나 그 목적을 이행

### 서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와 보존, 노동 권리, 성평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차세대 협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회원국은 모두가 무역 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무역으로 나아가는데 전념하고 있다. 11개 회원국 중 8개 국은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당사국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협상은 미미하지만 그 원칙, 특히 경제적, 문화적 발전 측면의 상호보완성에 영감을 받았다.

칠레의 경우 외교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부 등 다른 기관과 오랫동안 협상한 끝에 문화 분야에 '보호'의 개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러한 유보 조항은 문화 정책에 적용할 칠레의 주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하여 이 조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위의 무역 약속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국가의 서비스 제공자나 투자자로 영역을 확장하지 않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투자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자율성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시청각 협력 협정과 같은 문화·창의분야에서 양자간 혹은 다자간 국제 협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협약의 주권 원칙

(제2조)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제21조에 따라 다른 국제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이 협정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다루는 유일한 다자간 조약이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러한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협정에 속한다. 이 협정은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및 통신과 같은 분야를 포괄한다.

이 협정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다루는 유일한 다자간 조약이면서, 이러한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협정에 속한다.

다양한 분야에 속한 원칙이 서로 겹치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자들은 다른 문서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조항을 포함시켰다(제20조 및 21조). 제20조는 이러한 관계를 '상호지원, 보완 및 비종속'의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목적을 이행한다. 협약이 다른 조약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조약의 어떤 것도 다른 조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제21조에 관련해 당사국이 '다른 국제 포럼에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홍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과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상호 협의한다. 또한 다른 국제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언급하거나 문화적, 상업적 차원 모두에 대한 우대조치를 설명하는 규정을 강조한다.

국제법 시스템의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기술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권리를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에 미치는 영향과 결합된다. 따라서 다른 국제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법을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리포트의 이전 버전에서 확인된 모든 포럼은 타당성을 가진다. 디지털 기술은 초기에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에서 당사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포럼, 수단 및 조항을 포함해 더 넓은 접근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 흐름을 다루는 국제 포럼은 이처럼 확장된 접근 방식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환경에서 주로 디지털 제품이나 콘텐츠로 묘사되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 상품 및 서비스는 이제 데이터 교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인코딩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와 제품은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국은 다른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홍보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류에 대한 노력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체성, 가치 및 의미의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이중적 성격의 인식(문화적 및 경제적)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이나 디지털 도구로 생산된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토론이나 협상의 초점은 종종 문화 상품 및 서비스(그리고 문화나 문화의 다양성에서 훨씬 더)에서 벗어나 데이터(데이터 순화, 보호, 현지화) 또는 인공지능(AI)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 활용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미래가 일부 분야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전환을 멈추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 장은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21조의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다른 국제 포럼과 관련된 연구 및 분석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무역 및 투자 협정, (2) 기타 협정, 선언, 권고 및 결의. 세번째 부분에서는 우대조치에 관한 제16조의 이행을 살펴볼 예정인데, 선진국이 무역 협정이거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국제 포럼

에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편은 지침의 19항에 명시된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다루는 다양한 법적 도구 간 상호보완성과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당사국의 이니셔티브를 특별히 주목할 것이다.

### 무역 및 투자: 문화 교류에서 데이터 무역까지

협약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정체성, 가치 및 의미의 매개체로 인식'(제1.g조)은 당사국이 무역 및 투자 협정을 협상할 때 주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당사국은 오랫동안 예외, 면제 또는 유보 같은 문화적 조항을 협약에 포함시켜 왔다. 조항들은 문화 분야에서만은 당사자간 협정범위를 제한해 특정 문화 정책(국가 및 지역 문화적 표현 또는 산업을 지원)의 이행하는데 정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사국은 필요할 때 새로운 공공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최근에 일부 당사국은 이러한 문화 조항을 제정할 때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는 추세다. 몇몇 사례에서 이러한 조항들은 전자상거래나 무역 협정의 장에 포함되었다. 이 접근 방식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의 19.4항을 반영한다. '[c] 제21조의 의무와 일치하여[...]' 당사국 또한 국제 양자간, 지역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문화적 조항 도입에 대한 고려를 촉진하도록 권장된다[...]'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하는 전자상거래의 상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당사국은 또한 '필요시 새로운 공공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포함하도록 권장한다(19.5항). 이 지침은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과 이해관계자가 각국의 정책 공간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세부목표 17.15를 반영한다.

### 국제 무역의 새로운 트렌드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관찰된 무역 협정의 두드러진 트렌드는 두 가지였다. 첫째, 대부분의 새로운 무역 협정은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관련 15개 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7.2 참조). 둘째, 최근 전자상거래 전용 차세대 협약이 등장했다. 관련 협정의 분석은 아래와 같다. 두 경우 모두 당사국의 약속이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할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부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의 관점에서 약속을 공식화하는 방식에 있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당사국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을 협상할 때 위험 요소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항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문화 분야에 광범위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이라는 용어는 설명되는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이 장에서 구별없이 사용된다. 일부 저자는 두 용어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설명된 무역협정을 읽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조항은 데이터의 흐름(디지털 무역의 핵심 요소)을 촉진하고 적절한 규제 환경(예: 개인정보 보호)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을 촉진, 확장 및 보안하기 위한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다른 조항들은 더 나아가 관세 같은 특정 무역 장벽을 금지하는 구속력을 가진 의무를 만들어 낸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교류를 크게 개선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에서 칠레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항들은 음악가, 영화 제작자, 작가, 예술가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고 그들의 창작물을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의 특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당사국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국은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첫 번째 조항은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약속<sup>2</sup>인데, 점점 많은 당사국에서 이를 협약에 포함시키는 추세다. 문화 분야에서 이러한 약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면, '국가 및 지역 문화 콘텐츠의 가시성 및 발견 가능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여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지침 16.1항).

수십 년 동안 각 국은 비차별 원칙이 문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항을 개발해왔다. 무역 협정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약속을 다루므로, 문화 조항들은 디지털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

어 현지 콘텐츠 제작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로 남아 있다. 이는 여러 당사국들에게 오랫동안 달성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향후 과제는 이 공공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각국이 문화 콘텐츠 관련 데이터에 통제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콘텐츠 목록의 자국 콘텐츠 비율 또는 추천 알고리즘의 자국 콘텐츠 데이터 비율은 공공 의사 결정자와 매우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무역 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표 7.1에 제시된 세가지 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는 사례로 사용된다. 이는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무역협정은 전자상거래를 다루므로 문화 관련 조항은 디지털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 콘텐츠의 제작, 생산, 보급에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 선호도와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소비자를 만족시킬 문화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만드는 데 사용된다.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 제19.11조는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9.12조는 당사국이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표 7.1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조항	제19장 디지털 무역
19.11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가간 정보 전송	어떤 당사국도 해당 활동이 당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국경간 전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제19.1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당사국의 투자, 투자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한다].
19.12 전산시설의 위치	당사국은 당사자가 해당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사자 영역에서 전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설치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19.16 소스 코드	1. 당사국은 자국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의 개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또는 소스 코드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전송 또는 액세스를 요구할 수 없다. 2. 이 조항은 당사국의 규제 기관 또는 사법 당국이 다른 당사국의 개인에게 특정 조사, 검사, 검토, 집행 조치 또는 사법 절차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또는 해당 소스 코드로 표현된 알고리즘을 보호하고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적용된다.

2.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의한 바와 같이 비차별은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정책 결정에 핵심 원칙이다. 국제 경제 통합의 과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원칙이다. 국적을 이유로 선택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참가자들을 하나로 구속하기 때문이다.

협약 당사국은 무역협정에 나타나는 기술 조항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조항은 그들이 선택한 문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교류의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19.11조와 19.12조를 살펴보면 데이터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는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은 무역 약속이 온라인 문화 콘텐츠의 제작, 생산 및 보급을 안내하기 위해 플랫폼이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문화 정책 및 조치의 시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콘텐츠 목록 지역 콘텐츠 할당량을 설정하는 법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제한하는 어떤 무역 약속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문화적 다양성 자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스코드를 다루는 조항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의 위험성은 당사국이 더이상 어떤 문화정책을 모니터 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예로 만약에 당사국이 자국/지역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이나 추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더 이상은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19, 16조의 두번째 단락은 특히 중요한데, 이것은 당사국의 규제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다른 당사국이 특정 검사나 조사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소스코드로 표현되는 알고리즘을 보존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락에서 당사국이 자국 콘텐츠의 온라인 홍보를 목표로 하는 미래 문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

운 일이 될 것이다.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에 대해 논평하는 한 관찰자가 소스 코드 조항에서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캐나다가 무엇을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조항은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전송 및 현지화를 다루는 다른 조항과 이러한 사항은 점점 커지는 디지털 경제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Scassa, 2018).

때문에 협약 당사국이 무역 협정에 나타나는 기술 조항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조항들이 (그들의 표현에 따라) 선택한 문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 양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25개의 자유 무역협정 또는 경제 파트너십(하나 이상의 협약 당사국 포함)이 서명되었다. 이 25개의 협정 중 15개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장을 포함하고 있고 2개는 디지털 상거래 전용이다. 이러한 무역협정의 다른 장에 언급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다른 조항과는 관계없이,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당사국이 서명한 협정의 최소 68%는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약속을 포함한다.

###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chapter)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디지털 무역에 관한 독립적인 장(chapter) 또는 절(section, 표 7.2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을 포함하는 15개의 협정 중 5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약속을 포함하는 반면, 4개는 디지털 환경에서 현지 콘텐츠, 문화 산업, 예술가 또는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화적 조항이 없다. 칠레-브라질 자유무역협정(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한민국-중앙아메리카 5개국 자유무역협정,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등이 그렇다. 이 4개 협정은 협약 당사국의 15~10%가 관련있는 것이다(호주, 브라질, 브루나

이,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대한민국, 베트남). 그러나 서비스 또는 투자에 관한 장의 부록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일부 당사국은 디지털 환경에 적용되는 문화적 보호를 공식화했다.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약속을 담은 다섯 번째 협정인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에는 전체 협정의 범위에서 문화산업을 배제하는 일반적인 예외조항이 포함되었다. 캐나다는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 예외를 '기술적 중립'으로 규정했고, 멕시코는 이 조항이 당사국에게 '합법적 목표를 보호하거나 추구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러한 예외조항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당사국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은 당사국이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위해 이 일반 면제에만 의존하는 경우 보복권<sup>3</sup>도 제공한다. 이 조항의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보복권은 예외의 사용을 방해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의 채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장이나 절을 포함하고 있지만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약속은 없는 10개의 협정이 있다. 이 중 6개는 유럽연합이 서명한 것이다. 이 협정 중 4개(표 7.2에서 갈색으로 표시)는 유럽연합이 디지털 환경에 비추어, 서비스 및 투자 무역에 대한 약속에서 시청각 분야를 제외하기 위해 이전 무역협정에서 일관되게 사용하던 문화 조항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준다.

3. 다른 회원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는 분쟁 해결기구의 사전 승인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면 고소인은 위반에 대응하여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비공식적으로 '보복' 또는 '제재'라고 한다. 그러한 의무 중단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표 7.2

2017년~2020년  
서명된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 조항 개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 또는 절 및 비차별적 대우에 대한 약속 있음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 또는 절 있음, 비차별적 대우에 대한 약속은 없지만 문화 부문에서 다른 약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화적 조항(예외, 면제, 유보) 있음

협정	당사국	서명 날짜	전자상거래(또는 디지털무역) 장/편			
			전용 장 또는 편 있음	비차별적 대우에 대한 약속	문화적 조항	
1	유럽연합-영국 무역 협력 협정	유럽연합(27), 영국 2020년12월30일	2020년 12월 30일	✓	✗	✓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20년11월15일	✓	✗	✗**
3	유럽연합-남미공동시장 협회 협정 (원칙적 합의)	유럽연합(27), 남미공동시장(4)	2019년7월12일	✗		
4	유럽연합과 베트남 무역 협정	유럽연합(27), 베트남	2019년6월30일	✓	✗	✗
5	호주-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 자유무역협정	호주, 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	2019년3월26일	✓	✗	✗
6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호주, 인도네시아	2019년3월4일	✓	✗	✓ 일반예외
7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캐나다, 미국*, 멕시코	2018년11월30일	✓	✓	✓ 일반예외 + 보복조항
8	칠레-브라질 자유무역협정	브라질, 칠레	2018년11월22일	✓	✓	✗
9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공화국 간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27), 싱가포르*	2018년10월19일	✓	✗	✗**
10	유럽연합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	유럽연합, 일본*	2018년7월17일	✓	✗	✓
11	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과 조지아 간 자유무역협정	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 조지아	2018년6월28일	✓	✗	✗
12	새로운 원칙적 유럽연합-멕시코 협정	유럽연합(27), 멕시코	2018년6월28일	✓	✗	✓
13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설립 협정 (AFCFTA)	54 아프리카 국가(47)	2018년3월21일	✗		
1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2018년3월8일	✓	✓	✗**
15	대한민국-중앙아메리카 5개국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2018년2월21일	✓	✓	✗
16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호주, 페루	2018년2월12일	✓	✓	✗
17	중국-몰디브 자유무역협정	중국, 몰디브*	2017년12월8일	없음	없음	없음
18	유럽연합과 아르메니아공화국 간 포괄적이고 강화된 동반자 협정	아르메니아, 유럽연합(27)	2017년11월24일	✓	✗	✗
19	아르헨티나-칠레 자유무역협정	아르헨티나, 칠레	2017년11월2일	✗		
20	콜롬비아-남미공동시장 경제보완협정	콜롬비아, 남미공동시장(4)	2017년7월21일	✗		
21	보다 긴밀한 경제관계에 관한 태평양 협정(PACER Plus)	호주, 쿡 제도*, 키리바시*,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017년6월14일	✗		
22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지아 간 자유무역협정	중국, 조지아	2017년5월13일	✗		
23	엘살바도르-에콰도르 무역 협정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2017년2월13일	✗		

\*협약 당사국이 아님. \*\*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다른 장 또는 편에서 공식화된 유보.( )협약 당사국 수.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공화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F절(Section F)을 비롯한 부분의 이행률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9조는 전자 수단을 사용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가 해당 장의 의무 범위에 포함되며, 예외의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중 하나는 시청각 분야로 해당 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유럽연합이 일본, 멕시코, 영국과 체결한 다른 세 가지 협정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약속 범위에서 일부 문화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훨씬 더 명확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 전자상거래라는 제목의 장에는 방송 서비스 또는 시청각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분야에서 디지털 무역 관련 시행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스 코드 또는 데이터 순환에 관한 조항이 계약에 통합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처럼 명시적인 표현은 해당 분야에서 국가의 규제 권한을 보호해준다. 프랑스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각 분야를 지원 및 규제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무역 자유화 범위에서 시청각 분야를 배제한다. 이는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프랑스에 따르면 기술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시청각 분야를 배제한다고 한다. 이는 전송 모드에 따라 특성이 바뀌지 않는 모든 시청각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제를 옹호하면서, 프랑스는 유럽연합과 함께 협약의 발효에 의해 만들어진 역동성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당사국의 신중한 접근을 반영한다. 이 조약은 16개 국가가 함께하는데, 그 중 9개가 협약 당사국이다. 국내총생산(GDP)과 관련 가장 중요한 글로벌 무역협정이고 향후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자상거

래 장에 포함된 17개 조항 중 일부를 고려해볼 만하다.

협약의 목적과 원칙은  
협약의 서문에 드러날 수는  
있으나 이는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는 의무 규칙이나  
문화적 예외가 아니다.

첫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장(chapter)에는 무차별적 시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이 장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항은 서비스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과 부록의 의무에 언급된 보호, 제한 및 예외,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보호, 제한 및 예외 중 일부는 문화 서비스와 관련되므로 디지털 환경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이 분야에서 행동할 권리를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무역에 대한 주요 항목은 구속력이 있지만 당사국이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각 경우에 각주는 하위 단락의 목적상, 합법적인 공공 정책 시행 필요성의 결정은 시행 당사국에게 달려 있다고 명시한다. 예를 들어 당사국은 문화 콘텐츠의 보급과 관련된 데이터에 접근하고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특정 문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무역도 촉진할 수 있다.

### 양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 관련 장에 등장하는 문화 조항

디지털 무역 문제를 넘어 표 7.2와 7.3에 열거된 23개 협정에 통합된 문화 조항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첫째, 유럽연합과 아르메니아 공화국 간의 포괄적이고 강화된 파트너십이라는 협정만이 협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유럽연합의 경우 국가 그룹) 간에 15개의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목적과 원칙은 다른 유형의 문화 조항에 반영될 수 있다. 일부 협정에서 관련 권리는 서문에만 요약되어 있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 무역 지역 설립 협정(AfCFTA)이 그러하다. 서문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포함한 분야에서 합법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규제할 권리와 당사국의 유연성'을 언급하고 있다. 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문은 해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강제 규칙이나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는 문화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협정들(23개 중 19개)은 일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하고 문화 분야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예외, 면제, 유보 및 제한된 약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나아간다. 이는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체결된 양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의 84%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조항은 (각국의 정책 공간에 대한 존중) 지속가능발전목표 17.15 달성에 기여한다.

둘째, 40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19개 협정 중 10개(표 7.3에서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에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 또는 면제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 일본, 남미공동시장,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유럽연합 무역 협정에서 서비스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에는 합법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포함한 당사국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협정에는 관련 장의 범위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와 국경을 초월한 무역에 관한 특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 7.3

2017년~2020년  
서명된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의 2005년 협약 및  
문화관련 조항에 대한 참조 개요

협정에는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 또는 면제가 포함됨.

협정에는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 또는 면제가 포함되지  
않지만 기타 문화적 조항은 이행의 범위를 제한함.

협정*	협약에 대한 명시적 언급	문화적 조항		
		일반적인 예외/면제	유보	제한적 약속
1 유럽연합-영국 무역 협력 협정	X	✓	✓	X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X	X	✓	✓
3 유럽연합-남미공동시장 협회 협정(원칙적 합의)	X	✓	✓	✓
4 유럽연합과 베트남 무역 협정	X	✓	X	✓
5 호주-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 자유무역협정	X	X	✓	X
6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X	✓	✓	✓
7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X	✓	✓	✓
8 칠레-브라질 자유무역협정	X	X	✓	X
9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공화국 간 자유무역협정*	X	✓	X	✓
10 유럽연합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	X	✓	✓	X
11 홍콩(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과 중국, 조지아 간 자유무역협정	X	X	X	✓
12 새로운 원칙적 유럽연합-멕시코 협정	X	✓	✓	✓
13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설립협정(AfCFTA)	X	X	X	X
1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X	X	✓	✓
15 대한민국-중앙아메리카 5개국 자유무역협정	X	X	✓	X
16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X	X	✓	X
17 중국-몰디브 자유무역협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8 유럽연합과 아르메니아공화국 간 포괄적이고 강화된 동반자 협정	✓	✓	X	✓
19 아르헨티나-칠레 자유무역협정	X	X	X	✓
20 콜롬비아-남미공동시장 경제보완협정	X	X	X	X
21 보다 긴밀한 경제관계에 관한 태평양 협정(PACER Plus)*	X	✓	✓	✓
22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지아 간 자유무역협정	X	X	X	✓
23 엘살바도르-에콰도르 무역 협정	X	X	X	X

\*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하나 이상 포함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은 문화 산업을 협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일반적인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서비스 및 투자 무역에 관한 장에서는 협정이 당사국이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는 창의적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할 때 방해하는 요소로 기능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사국 간 또는 투자자 간 독단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 간, 서비스 및 투자 거래의 위장된 제한에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따른다. 보다 긴밀한 경제관계에 관한 태평양 협정(PACER Plus)도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협정의 문화 현황

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차세대 무역협정이 2019년에 등장했다. 현재까지 3개의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그 중 2개는 협약의 3개 당사국(호주, 칠레, 뉴질랜드)이 참여하고 있다: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글상자 7.1)과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2003년 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및 금융 서비스 조항을 대체)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협정이다. 이 협정은 협약 당사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향후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협정은 특히 광범위하며, 디지털 무역에 대한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에는 3개의 부록 외에 16개 단위로 나뉜 70개 조항이 있다.

### 2019년 전자상거래 전용 차세대 무역협정 등장했다.

협정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조항은 협력이나 정보 교류에 대한 의도 정도만을 언급하는데 그친다.

다른 조항은 특히 비즈니스와 무역 촉진, 시장 접근성 확보, 차별적 조치 방지, 데이터 무역 촉진을 목표로 하는 약속을 포함

한다. 문화 분야에 대한 세 가지 협정의 공통점은 방송 분야에서의 무차별 시행에 대해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특정 우려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 글상자 7.1 •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서 디지털 문화상품의 이중성 고려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의 조항은 문화 및 창의성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한다. 당사국은 교류를 도모하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며, 방송 내용을 규제하거나 창작 예술을 지원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등의 분야에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서문에서 당사국은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규제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둘째, 혁신과 디지털 경제에 관한 부분은 '사회경제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혁신, 창의성, 기술의 이전과 보급의 중요성'을 주장한다(제9.2조). 같은 절에서, 당사국은 '국경 간 데이터 무역과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 중심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제9.4.1조)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및 공개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이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내용이 권장된다. (a)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한다. (b) 정보, 지식, 기술, 문화 및 예술의 보급을 촉진한다. (c) 경쟁적,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촉진한다'(제9.4.2조). 이러한 이유로 당사국은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및 메커니즘에 대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9.4.3조). 다른 관련 조항은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다루는데, 이는 모든 사람과 기업이 디지털 경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제11.1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 기회를 확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여기에는 '원주민 간을 포함한 문화 및 인적 연계 강화'가 포함되어야 한다(제11.1.2조).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는 당사국이 문화 분야에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제3.3조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와 관련한 이행을 방송분야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은 당사국 간 독단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 제한을 구성하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둔다. 이에 따라 당사국이 창작 예술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제15.1.4조).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목적을 위해, '창작 예술'은 '연극,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한 공연예술, 시각예술 및 공예, 문학, 영화 및 비디오, 언어 예술,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토착 전통 관행 및 현대 문화 표현, 디지털 양방향 미디어 및 하이브리드 예술 작품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또 다른 예술 형태를 탄생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활동, 이러한 예술 형태와 활동에 대한 연극 및 기술 개발도 포함한다.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과 호주-싱가포르 협정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가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반면, 미국-일본 협정은 그냥 단순히 '이 조항의 어떤 것도 당사국이 외국 자본의 참여 수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일본 및 호주-싱가포르 협정에서 문화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으며, 당사국의 이행에 디지털 문화 상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의 경우 당사국은 이 협정이 문화 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해 더 잘 인식하는 듯하다.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의 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동일한 당사국이 다른 무역 협정에서 채택한 접근 방식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런 점에서 뉴질랜드가 지난 15년 동안 여러 다른 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일반적인 예외가 영향력을 지닌다. 그 예외는 디지털 환경, 특히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보호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일반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관 이전에 이의신청 맥락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에 대한 유사한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이전에 수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협정 범위에서 시청각 분야를 분명하게 배제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듯하다.

###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양자간 및 지역 협정이나 일부 당사국이 선호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선행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에 관한 협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에서 제안한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Samantha Weisburg / Unsplash.com

## 창

의경제는 세계경제에서 활약을 보이는 분야로 지적재산과 창의성이 아이디어와 혁신의 시장에서 거래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도서, 음악, 예술, 공예, 영화 및 텔레비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에게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창의성을 소비하거나 창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평등하게 가진 것은 아니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는 창의경제에 대한 투자가 불균등하다.

창의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며 융합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그 규모는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수공예품을 대체하거나, 장인의 물건을 시장에서 직접 구경하거나, 라이브 음악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화는 디지털 세계에 인간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디지털 세계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다 포용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도전과제에 대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문화·창의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의 세계 무역에서 더 평등한 기반을 갖추므로써 달성될 수 있다.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하고 차등한 대우를 도입하고, 창의경제 수출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배당금은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고, 혁신을 도모하며, 젊은이와 여성을 포함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화유산과 다양성을 보존하고 증진함으로써 우리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세상을 향한 추진력을 구축하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자. 많은 생명과 더 많은 생계가 우리의 성공에 달려 있다.

### 레페카 그린스팬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사무총장

##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지적소유권 체제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시작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프로그램은 몇 년 동안 보류되어 왔지만 최근 중요한 변화가 눈에 띈다. 2017년 12월, 75개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촉진에 있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촉진하는 데 세계무역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성명서는 또한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향후 세계무역기구 협상을 위한 탐색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WTO, 2017). 2018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중 다보스의 두 번째 전자상거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이번에는 76개 서명국의 '전자상거래 무역 관련 세계무역기구 협상 개시 의사'를 확인했다(WTO, 2019d).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G20) 정상회의에서 24개국이 서명한 '디지털 경제에 관한 오사카 선언'은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을 고무하기 위한 '오사카 트랙'을 출범했다. '디지털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데이터는 점점 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명국들은 이전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국제 정책 논의에 참여하기'로 다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제안해왔다. 일부 협상 당사국이 제안한 내용은 이전

의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협정에서 옹호했던 입장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시청각 서비스를 불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WTO, 2019b 및 2019c).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시행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투명성 원칙' 채택을 제안하면서, 문화콘텐츠 소비량과 하위 예술가의 관련 소득 격차인 '가치격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13조에는 아날로그 환경에 대해 규정한 예외와 제한이 디지털 환경으로 이월되고 적절하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보호 저작물의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WTO, 2019a). 이러한 제안은 디지털 영역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지적소유권 체제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무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관련 환경에서 협약을 이행하는 지침을 통해 당사국이 인정할 바 있다.

반면 같은 맥락에서 호주, 베냉, 중국,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 다른 협상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일부 문서에는 문화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제출한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문서를 통해 당사국들이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목표와 원칙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안서와 결을 같이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 이행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무역, 투자 분야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추진한다. 그러나 당사국이 디지털 교류와 이 분야의 협력

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의 규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를 언급할 때, 그럼에도 문화다양성 보호의 필요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협상은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제21조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서로 협의'하는 데에 기회가 될 수 있다.

### 양자간 투자 조약의 문화 조항

마지막으로, 양자투자협정(BITs)에서 문화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체결된 85개 양자투자협정 중 문화 조항이 포함된 것은 5개에 불과하다. 협약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여러 투자 조약에도 문화 관련 조항은 드물다. 실제로 캐나다,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는 문화 분야(특히 방송)의 투자에 대한 통제를 문화적 주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 조건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무역 및 경제 파트너십 협정보다 투자 조약에서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장려하는 당사국이 더 적을 것이다.

헝가리가 각각 벨라루스, 카보베르데와 맺은 두 협정에는 투자 및 규제 조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조항에 따르면 협정 조항은 당사국이 영토 내에서 규제를 통해 다양성 증진 및 보호 등 정당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상호 촉진 및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은 규제권에 관한 제11조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여러 투자 조약에  
문화 조항은 드물다.

아르헨티나와 일본의 투자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내국민 대우 측면에서 방송산업 투자 관련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는 자국법에 의해 자국민에게, 국제법에 의해 타국민에게 우대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위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관련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몰도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을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문화 산업 종사자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제외하는 일반 예외를 포함한다.

**무역 및 투자협정 이상:  
기타 법률 문서와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의 홍보**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협약, 목표 또는 원칙을 설명하는 다른 국제 포럼의 법률 문서나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는 당사국은 거의 없다. 따라서 아래에 나열된 법률문서와 기타 문서는 협약 제21조를 이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전체 목록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트렌드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를 위해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협약 혹은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직접 언급하는 40개 이상의 국제법률문서(대부분 구속력이 없는)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서 외에도 협약 또는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언급하는 다양한 국제 또는 지역 기관의 여러 보고서, 연구 또는 기타 비법정 문서가 있다. 이 본문 중 약 절반이 협약을 명백하게 설명한다. 협약이 무역 협정보다 비무역 포럼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본문의 약 4분의 1은 문화와 디지털 환경을 다루고, 4분의 1은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4개의 문서는 문화와 창의성을 위한 도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창의 산업의 역할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공동으로 발간한 「지방 정부, 지역사회 및 박물관을 위한 가이드-문화 및 지역 개발: 영향력의 극대화」에 반영되어 있다.

협약이 무역 협정보다  
비무역 포럼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제 법률문서**

이 협약은 유엔총회(UNGA), 유엔인권이사회(HRC), 세계관광기구(UNWTO),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 및 프랑스어권 세계의회(APF), 그리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등 12개의 국제문서에 적용되었다.

2013년 이래로 유엔총회(UNGA)는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몇 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 가지 결의안에는 협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국가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시장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약의 조항을 고려하여 [...] 국제 시장에 대한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접근을 촉진하도록' 장려한다(UNGA, 2018a, 2020a and 2021). 2021년 결의안은 또한 각국에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총회는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관한 두 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UNGA, 2018b and 2020b).

비록 이러한 결의안들이 이 협약에 분명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성명에서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의 목적과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2013년 이래로  
유엔총회(UNGA)는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몇 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인권이사회(HRC)와 관련해 문화 분야에서의 유엔 특별보고관 권한을 갱신하는 2018년 결의안에서는 협약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사회는 서문에서 '문화다양성과 국제 문화 협력에 관한 유엔 체제 내 선언, 특히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을 준수하고 그리고 '협약 당사국 규모 증가'를 호의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경우 회원국들은 관광과 문화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세 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2017년 관광 및 문화에 관한 무스카트 선언의 서문과 관광 및 문화에 관한 2018년 이스탄불 선언이 협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2019년 관광 및 문화에 관한 교토 선언은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협약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관광 및 문화 행정 대표의 '문화적 표현과 내재적 가치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최첨단 문화관광사업에 반영된 혁신적인 정책 및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내용에는 '도시 계획 및 관광지 관리에서 전체적인 목적에 맞도록 지역 공동체와 민간 및 공공 분야의 참여를 도모하고, 일상생활에 뿌리를 둔 전통과 문화표현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권한 강화와 책임 있는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 관리를 재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대한 다른 언급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오랜 동맹을 맺은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 및 프랑스어권 세계의회(APF)의

회원국들이 채택한 여러 문서에 나와 있다(글상자 7.2). 이러한 단체의 최근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기술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끝으로, 2019년에 채택된 세계지방정부 연합 더반(Durban) 정치 선언에는 협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는 지역 정체성의 핵심 요소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네 번째 기둥으로, 전지구적 연대를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언문은 창의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 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이 사람 중심의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축이라고 덧붙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4차 산업혁명이 기술진보를 넘어설 것'이라 확신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 지역 법률문서

표 7.4에 수록된 대부분의 법률문서는 문화의 발전정책으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문화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선언문에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을 요구하기도 한다. 문화 산업은 종종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행동 계획(2019-2021)에서와 같이 특정 조항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양측이 문화 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부와 기업 공동체가 문화 산업 및 무역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특히 디지털 환경의 문화적 다양성과 콘텐츠와 매우 관련이 있는 세 가지 권고 사항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2018년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국가는 콘텐츠의 온라인 배포에서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할 의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콘텐츠 제작 및 보급 과정에서 중개자의 역할에 따라 적절한 보호 수준과 의무 및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 다원주의와 미디어 소유권의 투명성에 관한 2018년 권고는 '각 주는 미디어에서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대표할 것은 물론 미디어 콘텐츠의 가용성, 발견 용이성 및 접근성을 촉진하는 규제 및 정책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디어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같은 목적과 방향을 향한다고 볼 수 있다.

### 글상자 7.2 •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 및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2017년 7월 아비장 선언에서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 회원국들은 '네트워크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원성을 보장하고 창작 자금 조달과 작가들의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생태계의 거버넌스에 공공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협약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비장 선언과 관련된 행동 계획에서 국제프랑코포니기구 회원들은 '의지와 협약을 이행하는 수단을 모아서 언어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창의산업에서의 실험에 도움이 되는 조건은 물론 문화적 표현의 제작, 보급 및 촉진을 위한 가장 진보된 기법으로 모든 산업에서 창작자를 양성한다(장학금, 레지던시, 멘토링, 비즈니스 육성 시설, 보조금)'는 요구를 명시하고 있다. 2018년 10월 예레반 선언에서 국제프랑코포니기구 회원국은 '특히 문화적 예외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에 시민단체의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관한 협약과 운영 지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7일 아비장에서 열린 프랑스어권 세계의회(APF)가 채택한 프랑스어 커뮤니티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결의안에서 이 협약을 언급하며, '온라인에서 프랑스어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의 번역]

표 7.4

2017년~2020년 채택된 제도 중 2005년 협약과 그 목적 또는 원칙을 설명하는 사례

기구		문서의 유형	채택 연도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 그룹 (ACP)	국가정상회담	나이로비 응구부 야 파모자 선언	2019
	문화부장관 회의	나마메 선언 '아시아·태평양 방송연합 문화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및 다양화'	2019
	문화부장관 회의	브뤼셀 선언	2017
아시아 유럽 회의(ASEM)		세계적 도전과제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의장 성명서	2018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의장 성명서	2017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예방문화 수용에 관한 욱야카르타 선언	2018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정상회의		베이징 선언 - 중국 - 아프리카의 더 강력한 공동체를 향한 미래	2018
		행동 계획 (2019-2021)	2018
유럽평의회-장관 위원회(45-46-52)		해방의 힘으로 인터넷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권고사항	2018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권고사항	2018
		미디어 다원주의와 미디어 소유권의 투명성에 대한 권고사항	2017
남-동유럽 문화장관회의		제6차 각료회의의 선언	2020
		제5차 각료회의의 선언	2019
		제4차 각료회의의 선언	2018
		제3차 각료회의의 선언	2017
유럽연합(EU)	유럽연합 이사회	지속가능발전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	2019
		평생학습 핵심역량에 대한 권고사항	2018
	유럽연합의회	문화 접근의 구조적 및 재정적 장벽에 대한 결의안	2018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규정 제안(2021-2027)	2018
		유럽 연합의 미디어 다원주의와 미디어 자유에 대한 결의안	2018
		2016년 터키 위원회 보고서 결의안	2017
		국제문화관계를 위한 유럽연합 전략을 향한 결의안	2017
		유럽 문화유산의 해 결정(2018)	2017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 설립 규정 이행에 대한 결의안(2014-2020)	2017
	유럽연합이사회 및 유럽연합 의회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2018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디지털 시대의 소수민족 및 미디어에 관한 탈린 지침	2019
남미공동시장(MERCOSUR)		선언-XLV 문화부장관 회의	2019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과 별개의 조직이지만, 2018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제13조는 미디어 다원주의에 대한 이사회의 2018 권고사항과 일치한다.

이 지침에는 '회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주 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들의 콘텐츠 목록에서 유럽 작품의 최소 3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그러한 작품의 중요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유럽 작품 제작에 재정적 기여를 '해당 지역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제2장 참조).

마지막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2019년에 채택한 디지털 시대의 소수민족 및 미디어에 관한 탈린 지침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기구는 '디지털 시대의 다수 및 소수자 커뮤니티 간 및 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다원적 논의를 위한 구조와 프로세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운영'하는 과제를 해결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협약을 포함한 여러 법적 수단을 언급하며, 인권에 대한 소수자별 특수한 측면이 다양한 국제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준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설명은 다른 국제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이 효과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협약 제7조 2항을 인용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나라와 세계의 다른 나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며, 국가는 소수 민족에 대해 그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약 제6.1조, 제6.2a조, 제6.2조를 인용하여, 당사국이 규제 조치와 '공공 서비스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 등 '자국 내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

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를 강조하면서, 설명문에는 '유효한 미디어 다원주의의 실현은 다양한 미디어 유형과 콘텐츠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표적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채택된 이러한 새로운 지역 기구 외에도 혁신에 대한 창의 산업의 기여를 촉진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문화 예술 전략 계획 2016-2025와 같은 기존 이니셔티브의 최근 발전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1995년에 창설된 남미공동시장 컬처(MERCOSUR Culture)는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2006년에 체결된 이베로-아메리카 문화 헌장은 해당 지역 국가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재정적하기 위해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했다.

### 양자간 협약

몇몇 당사국은 문화·창의산업을 포괄하는 문화 협력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러한 합의가 협약의 제16조와 수렴될 때, 장 뒷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대조치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협정은 협력의 형태로 간주되거나, 제21조의 더 넓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 중 일부는 분명하게 협약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인도, 이스라엘, 파나마 및 스위스와의 여러 양해각서 외에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체결했고 알바니아, 불가리아, 중국, 헝가리, 멕시코,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니지와 함께 개발된 9개의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상호 이해와 상호 교류 및 참여를 촉진하는 등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문화 협정을 체결한다. 크로아티아는 지금까지 48개의 양자간

협정과 25개의 양자간 프로그램을 체결했으며 현재 시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예술가의 국제적 가시성과 새로운 기회 및 시장에 대한 접근에 관한 협정의 기여를 인정한다. 이러한 성격의 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이익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협정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예술가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가의 국제적 가시성과 새로운 기회 및 시장에 대한 접근에 양자간 문화 협정의 기여를 인정한다.

개발도상국 간 문화 협력 협정 역시 문화 협약 이행에 기여한다. 바베이도스, 세네갈,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등이 그 예이다. 1983년 체결된 문화 협력 협정을 이행하는 바베이도스-쿠바 공동위원회의 최근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문제가 어떻게 점차 이런 유형의 관계에 통합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실제로 영화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는 상호 협력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 바베이도스는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 협력 협정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협정을 맺음으로 해서 영화, 방송, 공연예술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기관끼리 연결하거나 또는 협약 당사국을 연결하는 문화 협력 이니셔티브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퀘벡(캐나다) 정부는 웨일즈(영국), 플랑드르(벨기에), 바스크 지방(스페인)과 협력 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프랑스-퀘벡 미션은 프랑스어 문화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려는 작업이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의 내용에 기여하려는 또다른 사례이다.

## 관할권

글로벌 리포트의 이전 판에서 협약을 언급한 국제 또는 지역 관할권의 여러 사례를 확인했지만,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제출된 새로운 사례에는 그러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조에 대한 유럽위원회(EC)의 두 가지 결정은 문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국제 또는 지역 관할권에 제출된 사례에서 협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탈리아-영화 제작사 세금공제’의 2017년 사례에서 유럽위원회(EC)는 영화 분야의 문화적 잠재력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했다. 이 조치는 2008년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7.3조(d)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영화 제작사 세금공제)를 수정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제도는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작품에 대한 국가 원조 위원회의 2013년 서신을 근거로 내부 시장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치는 협약 자체와 특히 국가 차원에서 당사국의 권리를 규정하고 공공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포함하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2018년 ‘프랑스-프랑스 공연 제작을 위한 국가 지원’ 사례에서 유럽위원회(EC)는 공연예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

토했다. 이전에 동일한 조치가 승인되었으며 2018년 사례는 지원 제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판매되는 티켓에는 3.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공연 제작, 배급, 공연장 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공연예술기업에 재분배 된다. 유럽위원회(EC)는 유럽연합조약의 167.1조 및 167.4조를 회상하면서 ‘연합은 회원국의 국가 및 지역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문화 개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특히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려하기 위해 ‘조약의 다른 조항에 따른 행동에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방안은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조약 제107.3.(d)조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따라 제도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했다. 유럽위원회(EC)는 프랑스 엔터테인먼트 세금 제도가 해당 조항과 호환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제도는 국가차원에서의 당사국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의 범위에 속한다.

## 다양한 문서, 연구 및 보고서

위에서 확인한 문서 외에도 다양한 국제 및 지역 기구가 발행한 15개의 문서가 협약 또는 협약의 일부 원칙과 목표를 설명한다. 이 문서의 대부분은 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다룬다.

협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문서는 주로 이미 언급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가져온 것이다. 프랑스어권 세계의회(APF),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럽연합(EU) 이사회 및 유럽위원회(EC)가 그것이다. 유럽-라틴 아메리카 의회도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단체들의 문서들도 있다. 그러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하나의 문서에만 협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부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상임위원회는 방송단체 보호에 관한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2017년에 발표된 정의, 보호 대상, 부여될 권리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개정 통합 문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촉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포함한다.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약 당사국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로 (a) 계약 당사국은 자국법 및 규정을 개정할 때 이 조약에 따라 채택된 모든 조치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협약 제21조의 목적에 따라 국제법을 일관되게 발전시키려는 당사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 비문화적 포럼에서의 협약의 관련성: 조세 및 인공지능(AI)

협약 제21조의 정신과 내용은 당사국에게 문화 분야 이외의 포럼에서 목적과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다른 분야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세 및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논의가 그 예이다.

조세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행 중인 업무는 문화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주제가 항상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18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는 ‘디지털 전환은 사람들이 서로간, 사회간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다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직업과 기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책 영역에서 여러 긴급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기술한다(OECD, 2018b).

이 보고서에는 시청각 콘텐츠의 온라인 및 물리적 배포에 대한 프랑스의 세금에 관한 사례 연구를 제외하고는 문화적 고려 사항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압박을 증가하며,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익성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금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OECD, 2020b), 문화 분야에서의 특별한 영향은 협약 당사국들의 동의가 더욱 필요하다. 향후 몇 년 동안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다국적 기업에 활동 국가별로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계적 최저세율 원칙은 궁극적으로 문화·창의분야에서 더 평등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2021년 6월, 선진경제국(G7)은 디지털화의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조세 개혁의 핵심요소와 관련한 협정을 열었다. 여기에는 다국적기업에 활동 국가별로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계적 최저세율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의 구현은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문화콘텐츠 플랫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청 타깃층 국가에 수익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문화·창의분야의 더 평등한 교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를 제외한 일부 국제기구에서 인공지능을 반영하거나 기술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문화·창의산업이 받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유엔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UN, 2019)는 인공

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된 문화 분야의 구체적 도전과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0년에 채택된 디지털 협력 로드맵(UNGA, 2020c)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네스코를 제외한 일부 국제기구에서 인공지능을 반영하거나 기술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문화·창의산업이 받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업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2019년 인공지능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며 이는 문화적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내, 사회와 경제 간, 특히 경제 변화, 경쟁, 노동 시장의 전환, 불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디지털 보안의 영역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 원칙에서 ‘인공지능 행위자는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법치,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유, 존엄성과 자율성,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 비차별과 평등, 다양성, 공정성, 사회 정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이 포함되지만 권고사항에 문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이 주최한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해 모인 협약 당사국은 이 연합을 활용하여 향후 몇 년 동안의 의제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부처가 파트너십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는 참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다른 조직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작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경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제작, 생산 및 유통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WIPO, 2020b)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작업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적절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지적재산권(IP)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경제 및 문화 시스템의 혁신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적재산권(IP)과 관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WIPO, 2020b).

당사국이 이러한 국제 기구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본문에는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여러 내용이 포함된다. 문화는 또한 권고사항이 다루는 11개 정책 행동 영역 중 하나로, ‘회원국은 문화적 표현에 대한 다양한 공급과 다중 접근을 촉진하고, 특히 추천 알고리즘이 지역 콘텐츠의 가시성과 검색 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98항).

당사국은 또한 예술, 문화·창의산업의 인공지능 보고서를 포함하여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의 작업을 고려할 수 있다(Kulesz and Dutoit, 2020). 또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평의회가 공개한 여러 문서는 인공지능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당사국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촉진하는 데에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최근 유럽에서 이와 관련된 동향은 다음과 같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의뢰한 '온라인 콘텐츠 필터링 또는 조정을 위한 알고리즘의 영향'에 관한 2020년 9월 연구,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알고리즘 시스템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020년 4월 회원국 장관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그 사례이다.

협약 당사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의제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포함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특별 포럼은 국제적으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캐나다 문화유산부가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성에 관한 다중 이해관계자 워킹 그룹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 중 세 가지 주제가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온라인의 다양한 콘텐츠 생성, 접근 및 검색 가능성; 콘텐츠 창작자의 공정한 보수와 경제적 생존 가능성; 온라인 콘텐츠 알고리즘 처리 영향의 투명성이 그것이다. 이니셔티브에는 4개의 협약 당사국(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과 시민단체(국제문화다양성연맹, 음악 작가, 작곡가 및 출판인 협회(SACEM), 프랑스문화다양성연합), 민간 부문(구글, 넷플릭스, 디저(Deezer), 버블(Vubble))과 유럽시청각기구(EAO)가 참여한다.

### 우대조치: 협약 당사국을 위한 미완성 사업

개발도상국의 우대조치에 관한 제16조는 이 협약에서 가장 구속력 있는 조항 중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 원칙을 이행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0과, 이보다 구체적인 세부목표 10.A에 따라 문화·창의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제16조의 적용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선진국에 의해 제공된다. (2)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된다. (3)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 (4)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및 예술가,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 또는 실무자와 관련이 있다. (5)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속은 의무적으로 결과를 유발하는데, 선진국이 단순히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만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6조에 규정된 우대조치는 좁은 무역의 의미보다 넓다'. 결과적으로 당사국이 우대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적 프레임워크는 무역, 문화 또는 무역과 문화적 차원의 조합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 무역 협정: 잃어버린 기회

제16조 관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18.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대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수행된 약속도 그럴 수 있다.

이 글로벌 리포트의 2015년 판에서는 당사국(주로 개발도상국)에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강조했다.

2018 글로벌 리포트는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새로운 의정서가 서명되지 않았지만, 자유무역협정 내 문화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방송과 시청각 부문에 대한 우대조치가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체결된 양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 중 제16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직 대한민국-중앙아메리카 5개국 자유무역협정에만 시청각 공동 제작 및 서비스에 관한 부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분야의 시청각 공동 제작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 및 경제 교류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 제작 계약의 협상을 '협약에 있어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하지만 오로지 자체 조건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되는 데에 동의한다'. 이와 같이 협약 당사국은 문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우대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무역 협정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최혜국 우대에 대한 조약의 예외로 문화 협력 또는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의 체결 및 이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보권을 포함시킨 3가지 협정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칠레-브라질 양자간 무역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유럽연합과 아르메니아 공화국 간의 포괄적이고 강화된 파트너십 협정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18장이 조약(제96조)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이 (a)문화협력과 문화 교류; (b)예술과 예술가의 이동성과 문화 분야의 역량 강화, [...] (f)유네스코와 같은 국제포럼에서의 협력'(97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협약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19장의 '시청각 및 미디어 분야 협력'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조항에서 우대조치는 발생하지 않는다.

### 협약 당사국들은

문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우대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무역 협정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그러므로 협약 당사국인 개발도상국은 문화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진국의 양보를 얻는 무역협정 협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선진국이 협약 당사국일 때, 제16조에 따라 우대조치를 주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2017년 11월 9일과 10일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방송연합 문화장관회의(ACP) 브뤼셀 선언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선언은 '국제 포럼 내에서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하며, 특히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을 협약한 바 있다. 특히 국제 및 지역 무역 협정과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지원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더 최근에는 나이로비 응구부 야 파모자 선언에서 2019년 12월에 열린 정부고위급이 참석한 제9차 정상회의는 '문화 상품 및 예술가와 같은 실무자에게 국제 시장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촉구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무역 협상의 매력이든 다른 협력 프레임워크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해 제16조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유럽연합-남미공동시장 협정의 무역 부분 본문처럼 문화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협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16조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서명자들은 이러한 잠재력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당사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자극함으로써 협정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공동 제작 협정 및 관련 기금: 우대조치의 작은 발전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 제작에 참여할 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만든 협정이나 기금은 조건에 따라 우대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제16조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당사국들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2016년부터 중국, 요르단, 우크라이나와 공동 제작 조약을 체결했다. 공동 제작된 작품은 연방 및 지방 기금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으며, 방송 목적의 국가 콘텐츠로 인정된다. 이 협정들은 분명하게 협약을 설명한다. 프랑스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우루과이와 체결한 공동 제작 협정도 비슷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도 (각각 칠레와 멕시코와) 공동 제작 협정 체결을 보고하고 있다. 호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와 공동 제작 협정을 맺어 각 파트너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에 접근해 영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이탈리아, 페루와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했는데, 공동 제작된 모든 영화가 각 서명국에서 국가 상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협정은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공동 제작에 참여하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에 기여할 수 있다.

우대조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제작 기금 측면에서 관련 사례 중 하나는 프랑스-튀니지 영화 작품의 공동 제작을 위한 양자간 기금이다. 덕분에 3년 동안 18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었고, 이 중 2개가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서 상영되었다.

### 글상자 7.3 • 문화 협력의 일환으로 우대조치

문화적 측면에서 우대조치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예술가 또는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특권을 제공하는 문화 협력 협정이나 국가 문화 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협정이나 정책은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다. 협약 사무국은 제16조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14개 조치에 대해 대략적 목록을 제안했다.:

1. 공동 제작 계약
2. 제작 및 후반 작업 지원
3. 배급, 방송, 상영 지원
4. 번역, 자막 지원
5. 재정 조치
6. 페스티벌 및 기타 문화행사
7. 훈련
8. 교류 및 네트워킹
9. 시민사회 지원
10. 공공 문화 단체의 이동성 기금
11. 영토 진입 촉진
12. 예술가 레지던시
13. 포상 및 기타 형식의 인정
14. 국제 이니셔티브 지원

출처: UNESCO, Preferential Treatment leaflet, 2020.

또 다른 예로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세계영화기금을 들 수 있다. 이 기금은 독일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제작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그 결과 2016년부터 13개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었다.

개발도상국 간 공동 제작 협정이 동등한 개발 수준의 국가 간에 체결될 때 우대조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협약의 목표 중 하나인 광범위하고 균형잡힌 문화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훌륭한 노력이다. 예를 들어 부르키나파소와 세네갈은 영화 및 시청각 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서로 돕기 위한 의정서를 개발했다. 2020년 의정서는 공동 제작 및 영화 교류 협정에 의해 보완된다.

앞서 언급된 몇몇 조치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우대조치에 관한 제16조는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화 우대조치의 14가지 범주(글상자 7.3)를 고려할 때, 선진국의 기존 이니셔티브를 제16조의 조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향후 몇 년 안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조약이 채택될 당시 협약이 개발도상국에 기대했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망한 이니셔티브는 독일이 주도하는 '공정문화' 프로젝트이다. 이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촉진하며, 지역 및 지역 시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와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공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잡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우대조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 결론 및 권고사항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의 여러 부문과 모든 수준에서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장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많은 당사국이 이행하는 광범위한 법적 문서와 기타 이니셔티브에 설명된 것과 같이 몇 가지 일관성 있는 행동의 예가 포함되어 있다. 무역협정에 포함된 문화 조항, 지역협력기구가 수행하는 문화정책조치, 문화·창의산업 발전에 관여하는 도시나 지역 행위자를 한자리에 모으는 포럼 등에 일부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에 제시된 모범 사례로 인해 협약의 원칙과 목적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은 영역이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처럼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이중성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일부 무역 협정에서 그러하다. 협약 당사국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와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실무자(및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게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약속을 존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창의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성장은 협약과 다른 포럼 간, 특히 지적재산권, 조세 및 시등과 새로운 시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아직은 그 속도가 더디다.

이와 관련해 다음 권고사항이 사항이 요구된다.:

- 당사국은 특히 무역협정에서 협상하는 국제 법률문서에서 협약에 대한 언급을 늘려야 한다.
- 당사국은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장에 포함된 비차별 약속의 범위에서 문화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
- 당사국은 데이터 무역 시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는 문화 분야에서 작용하거나 문화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암묵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해 진행 중인 자유무역기구 협상에서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당사국이 조세 및 시와 같은 분야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국제 포럼에 참여하는 경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해당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홍보해야 한다.
- 선진국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의 우대조치에 관한 제16조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 제도, 법적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무역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목표 3

#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 목표 3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을  
가짐을 인식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문화를 전략적 차원에서 통합한다.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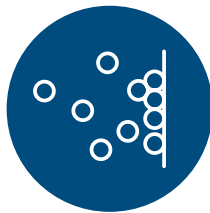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과 계획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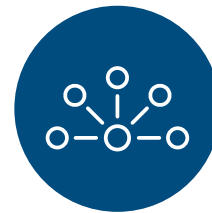
경과

- 국가개발계획과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에 있어서 문화의 기여도는 널리 인정받고 있음
- 도시 및 문화 개발 어젠다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음
- 문화 및 창의성은 협력 프로그램의 핵심 개입 영역으로 성장함
- 동료학습(peer-learning)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



도전

- 문화·창의산업의 잠재력과 우선순위는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음
- 기후 행동에 있어서, 문화적 표현과 창의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개발 원조는 극단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과 시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은 제한적으로 배정됨



권고 사항

- <2030년 어젠다>의 총체적 구현을 위한 분야 간 협력
- 정책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문화·환경 연계를 주류화에 편입
- 코로나19 복구 계획을 포함한, 국제협력의 문화 및 창의성에 대한 자금 지원 증가
- 평가 역량 및 지식 공유 강화



데이터 요구사항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 및 창의성에 대한 공공투자
- 문화적 참여와 생산의 사회적, 영토적 분배
- 문화·창의산업의 환경적 영향
- 문화의 영역별 분류에 따른,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공식적인 개발 원조



#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잠재력

야리 카마라

## 핵심 발견

- ▶▶▶ <2030년 어젠다>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반적인 프레임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많은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몇 안 되는 구체적인 행동방침은 <2030년 어젠다>에 영감을 받았다.
- ▶▶▶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에서, 문화·창의분야는 특히 사회통합의 영역에서 문화적 성과(65%)를 진 전 시키는 능력이 있고 사회 변혁(63%)의 동력임을 인정받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가개발계 획과 전략은 문화·창의 산업의 경제적 잠재력(54%)을 활용하기도 한다.
- ▶▶▶ 문화·창의분야에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사고방식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에는 이를 위한 투자가 매우 빈약하다. 문화·창의분야는 지속가능한 문화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자 체적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 ▶▶▶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이 수립되었고, 다국적 단체(개발은행 포함)는 문 화·창의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대 개인 기부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이 분야에 공공 다국적 자금 지원에 비해 거의 두 배를 기부했다.
- ▶▶▶ 전반적으로 개발원조의 불과 0.23%만이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 할당된다. 더구나 코로나19 관련 불황이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 협력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할 수 있다.

진행 트렌드



경과

개발 결과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식별함:



개발 자금



다국적 단체의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하지만 그들은 개발에 투자된 자금의 절반만을 민간 부문에 의해 개발도상국에 제공



**17%**의 국제문화다양성 기금에 대한 기여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나눔

도전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보고서와 전략들은 문화 분야의 역할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음

문화가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겨우 **13%**의 자발적으로 생산된 국가 보고서만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의 횡단적 역할을 인정함

국제문화다양성기금 기여

국제문화다양성기금은 출범하였으나 기여금이 감소하고 있음



2020년에는 협약 당사국 중 35%만이 기여함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계획에서 문화 분야를 간과할 위험이 있음  
개발 원조의 감소가 예상됨



개발 원조



겨우 **0.23%**의 공식 개발 원조만이 문화와 레크리에이션에 사용됨(2018년 기준)



기후 행동

기후 행동 및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한 창의성에 투자



모두를 위한 문화

포괄적이고 공정한 문화 참여 지원



혁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창의성 및 혁신 증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취

총체적인 정책 접근법 및 파트너십 개발

권고 사항

## 핵심 지표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및 계획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이 포함된다.

개발협력 전략에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방침이 포함된다.

정책과 조치들은 문화자원의 분배와 자원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을 위해 형평성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창의 분야를 강화한다

### 서론

2021년에 독일은 더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더 큰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업데이트했다. 독일 예술과 미디어 분야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의 동인(drivers)'으로 기능한다(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2021). 이 전략은 문화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일 뿐만 아니라,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본 것이다. 이 전략은 문화가 여러 영역과 매우 강력하게 횡단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은 사회적 결속을 위한 토대를 강조하고, 문화·창의분야는 도시를 재생하고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 문화를 통해 독일이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과 국제적 대화를 나누는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독일의 종합적인 정책 비전은 정부가 문화·창의분야를 통해 어떻게 사회 변화를 추동하려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유엔의 문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유엔 사무 총장 보고서에도 언급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 활용 정책 참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UNGA, 2021).

### 2005년의 협약과 지속가능한 개발

2015년 유엔총회(UNGA)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는 그간의 국제사회에서 채택했던 개발 어젠다 중 가장 야심차고 종합적인 것이다. 그것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측에 대담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개별적 접근 방식에서 '다차원적이고 상호연결적이며 더 보편적인 어려움을 탐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UNDP, 2020). 2030 어젠다는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대응 방식을 제시하면서, 문화가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은 시도하지 않았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전문은 문화적 다양성이 얼마나 전 세계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구성하게 하며, 인간의 선택 범위를 늘림으로써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확장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정의한 인간의 개발에 기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협약은 또한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사이의 연결 고리를 구축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협약은 문화가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 경제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혜택을 발생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협약 제13조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모든 개발 정책을 만들 때 문화를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제14조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문화를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는 개발의 과정에서 사회, 경제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혜택을 발생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개되고 전 세계에서 사회적 불평등, 갈등 및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정책 실행에 있어서 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간의 연계성을 높이려는 실행수단으로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가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2030 어젠다(표 8.1)>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표현이 '개인, 그룹 및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되었으며, 문화적 내용을 지닌 표현'(제4조)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에 의해 가치, 의미,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표현력은 사회를 해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문화적 표현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에 필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게 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량은 사회의 중심 가치들을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왜 문화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지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당사국들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는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와 문화적 표현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과 어떻게 통합되고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집중해서 볼 것이다. 또한 이 장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문화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알아보면서, 문화 자원의 분배와 포용적이고 형평성있는 접근방식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검토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속의 문화 어젠다?

문화적 표현이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주요 계획 문서에 문화·창의분야가 역동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서 얼마나 문화가 개입되어 있는지 평가할 때에는 문화,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문화가 동원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s, NDP)과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es, NSDP)을 검토

한 결과, 2017년 이후로 문화는 대체로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개입되고 있었다.

### 문화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진전과 도전

2030 어젠다 채택 이후 지속가능성 계획은 국가개발계획과 점점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개발전략 문서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의 국가 계획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르고 있다(DESAs, 2019). 지난 10년 동안 국가개발계획을 포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시 대두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Chimhow et al., 2019). 이 장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들이 채택한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을 포함해, 개발도상국에서 127개 문서 중 대다수(72%)를 채택하였다(선진국에서는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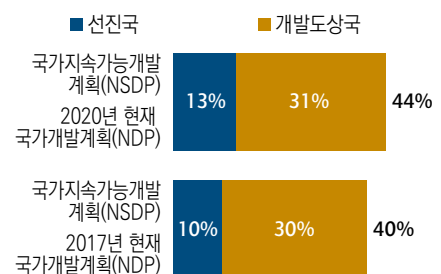
### 2030 어젠다 채택 이후 지속가능성 계획은 국가개발계획과 점점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88%는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에서 문화의 전략적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63%는 문화·창의산업의 전략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모든 계획에 당연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81%), 아프리카(76%)의 개발도상국은 문화·창의산업을 하나의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층적 분석 결과 더 미묘한 상황이 보이는데, 2020년 44%의 계획 문서들만이(현재까지의 모든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 포함) 협약에서 제시하는 문화적 목표들을 포함시켰다(예: 다양한 문화 상

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중점, 혹은 문화적 표현 지원). 이는 2017년 이후 불과 4%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문화적 표현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그림 8.1).

그림 8.1

협약에서 제시하는 문화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의 비율\*



\* 한자리수로 반올림함.  
출처: BOP Consulting(2021)

전반적으로 정체성, 사회적 결속, 웰빙 및 개방성 측면에 있어서 문화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공통된 이해가 있다. 그러나 2030 어젠다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연결하고자 한 국가들은 문화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조적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경제적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2030 어젠다를 문화 정책과 연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든 차원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에서는, 유엔 국가별공통평가(UN Common Country Assessments, UNCCA),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프레임워크, 코로나19 국가 영향 평가 및 복구 계획 또는 자발적 국가보고(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UNESCO, 2021b)와 같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메커니즘에 문화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Matteo Catanese / Unsplash.com

# 영

화 <허니랜드> 촬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북마케도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인 브레갈니카 강에 대한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가 베컬리지의 외딴 산악 마을에 사는 야생 꿀벌 사육사 하티즈데 무라토바를 만났을 때 완전히 계획이 바뀌었다. 하티즈데는 벌들은 절대로 벌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꿀의 양보다 더 많이 채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인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반은 나를 위해, 반은 너를 위해'이라는 황금률을 적용한다면 인간과 자연 사이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가 하나의 종(species)으로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은 너무나 극적이고 빠르게 변화하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점점 커졌다. 인류가 전에 한 번도 직면한 적이 없는 세계적 위기와 비교해, <허니랜드>에서 다룬 환경과 사회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통계 뒤에는 실제 사람과 자연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세계적인 위기가 크다고 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바꿀 수 없는 이슈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영화가 이슈를 시각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주며 시청자가 해결책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더 나은 세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타마라 코테브스카, 류보미르 스테파노프**  
수상작 다큐멘터리 영화 <허니랜드>의 감독

## 문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회적 차원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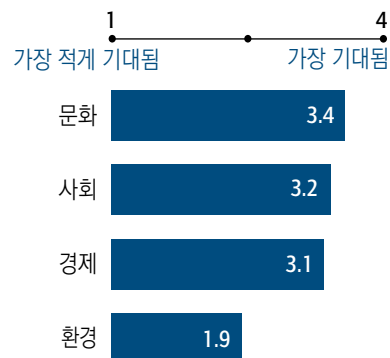
그러나 문화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에 어떻게 통합되었는가에 대한 2016년과 2020년 사이의 검토에서, 문화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그간의 접근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의 2030 어젠다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정기보고서(자발적 국가보고, VNR)는 문화에 대한 각국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략적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각국의 보고서 중 63%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정에 문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13%의 국가만이 문화의 횡단적 역할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문화·창의산업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UNESCO, 2021a).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문화산업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30 어젠다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문화를 적용시키는 많은 방법을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세부목표에 문화를 적용한 것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문화의 역할을 고려하는 정도는 미미했으며, 특히 문화·창의산업의 역할은 더욱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발적 국가보고 과정에서 문화·창의 분야를 세부목표와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팔라우는 2030 어젠다에서 세부목표 11.4를 제외하고는 문화와 지속가능성 간의 연결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유럽연합은 자발적 국가보고(VNR)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기 위해 '공개적 협력'을 전문가 그룹에 요청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0).

자발적 국가보고(VNR) 내에서 문화를 우선시하는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이 문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4년제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특

히 아랍 국가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문화적 성과를 추구하는 트렌드는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으며, 환경적 성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그림 8.2).

그림 8.2

기대 성과에 따른 국가지속가능개발 계획에 문화의 포함 정도



출처: BOP Consulting(2021)

문화적 성과는 주로 문화 인프라, 문화 참여와 및 접근, 그리고 혁신 및 예술가 지원과 관련이 있다. 핀란드에서는 역동적인 문화 생활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문화 참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2019년 정부 프로그램에는 문화 서비스의 접근성과 문화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는 목표를 포함했다. 이는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문화 활동 보조금 및 문화기관 공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동티모르는 창의성을 독려하고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부 다른 국가(노르웨이, 스웨덴)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사회적 결속을 복돋우고 불평등과 싸우며 취약한 그룹과 소수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문화는 이러한 것들을 국가의 주요 관심사로 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특히 서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강하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2016-2019)에서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문화를 사회의 핵심 영역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성평등과 사회적 결속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니제르에 있어 문화는 사회적 진보를 위한 도구이자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의 도구이다.

### 글상자 8.1 •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보루로서의 문화

사헬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말리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폭력적 극단주의가 전례없이 증가했다. 문화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국제협력공사(GIZ)와 협력하여 시행한 '문화와 인본주의(Donko ni Maaya)' 프로젝트는 관용, 용서 및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문화적 원천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문화 기관들을 지원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도시 예술의 공급을 향상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말리 공동체와 민족이 존재하는 수도인 바마코에 초점을 맞췄다. 예술가들은 젊은이들에게 극단주의적 입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격려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집트에서 문화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인 비전 2030에 따라 '사회의 긍정적 가치 증진'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시민권과 결속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문화 및 예술 행사를 통해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변방의 커뮤니티가 문화 제공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시작된 '순회 극장' 프로젝트는 사회적 영향을 위해 문화적 표현이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다. 문화 서비스가 부족한 마을과 작은 마을을 순회하는 전문 연극 공연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는 2021년 초에 시작되어 20개 주에서 325일간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Egypt QPR, Mali QPR, 'Donko ni Maaya' project page [www.giz.de/en/worldwide/76553.html](http://www.giz.de/en/worldwide/76553.html)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 및 포용 정책에 대한 흥미로운 화합도 있다. 노르웨이 문화 평등부 내의 특정 부서는 평등 및 비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문화다양성 및 기타 문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시도한다.

문화·창의분야의  
경제적 잠재력과 부족한  
자금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문화와 교육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감안할 때 문화가 교육을 목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각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 포용과 교육에 기여하는 도서관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가 보고되고 있다(알제리, 코모로, 핀란드, 이라크, 페루, 베트남). 극단주의가 늘어나는 가운데 긴장을 완화하고 문화 간 대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글상자 8.1). 일부 국가는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예술, 건강 및 웰빙의 새로운 정책 영역(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리투아니아)이 부상하고 있다<sup>1</sup>. 지역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네스코와 i4Policy가 시작한 #DontGoViral 캠페인은, 공개 라이선스 콘텐츠를 지원하고 지역 언어로의 번역을 크라우드 소싱하면서 라디오와 TV를 통해 배포해서 45개 아프리카 국가의 커뮤니티에 도달했다.

경제적 성과는 검토를 거친 계획의 겨우 절반을 넘은 경우(54%)에서만 명시되었기 때문에 3위를 차지했다.

1.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에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있어 예술의 역할에 대한 증거에 대한 관찰 리뷰를 발표했다(Fancourt and Finn, 2019).

## 글상자 8.2 ·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 개발 무기

콜롬비아는 경제개발부문에 '오렌지 경제'라 불리는 문화·창의분야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자 하고 있다. 문화부 내에서 창의성과 오렌지 경제를 전담하는 특정 차관을 두었다. 2019년 국가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해당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가 포함되었다.

통상산업부 및 개발은행 방콜덱스(Bancóldex)와 부처 간 및 부문 간 강력한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지원 및 투자 메커니즘이 자리를 잡았다. 국가무역진흥기관인 프로콜롬비아(Procolombia)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 흐름의 촉진을 담당했다. 2018년과 2019년에 창의 기업들은 수출에서 미화 3억 1,7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이 부문에 미화 11억 9,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창의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생산성 공장' 제도에 통합되었다.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역동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도 있다. 콜롬비아 개발금융공사(Finder)는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부문에 대한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방콜덱스(Bancóldex)는 문화·창의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오렌지 채권을 출시했다. 종사자들은 공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새로운 문화 이니셔티브를 위한 종자돈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이 종자돈 덕분에 1,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출처: Colombia QPR

개발도상국에서 문화를 더욱 추구하는 추세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랍 국가에서 특히 문화·창의분야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매개체(vector)로 간주된다. 따라서 문화 부문의 고용 및 소득과 관련된 목표가 다수의 계획 문서에 언급된다. 탄자니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로 확인된 문화·창의산업은 처음으로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다.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지원 환경이 취약한 일부 당사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적 관심으로 인해 창의경제(케냐, 말리)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었다. 다른 국가들은 최초의 문화·창의산업 전략을 개발하기도 했다(에콰도르, 조지아, 아랍에미리트, 짐바브웨). 일부에서는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지원이 수출 다각화 전략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아일랜드, 자메이카). 문화 관광을 촉진하는 것은 개발 계획(알제리, 코모로, 쿠바, 아일랜드)에 해당 부문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의 국가 경쟁력

계획이나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글상자 8.2)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경제 개발 정책에서 문화·창의산업을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우루과이는 국립 연구 및 혁신 기관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 산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창의력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창의력이 인류의 본질적 요소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닫게 된다. 공동체의 역사에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문화적 창의성의 귀중함을 경험할 기회가 생기는 순간은 아주 드물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창의성을 포함하는 참되고 지속가능한 가치가 전면에 부각되는 주요 사회적, 경제적 격변기에 발생한다.”

시모나 베르고치 박사  
슬로베니아 문화부 문화유산국 비서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문화의 경제적인 기여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역량도 충분치 않다.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경제적인 잠재력이나 이 분야의 부족한 자금력에 대한 이해에 있어 정책입안자들 간의 격차가 있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개발<sup>2</sup>의 경제적 차원에 대한 보고에 문화 부문을 포함하는 자발적 국가보고(VNR)는 거의 없으며, 경제 전체를 고려할 때 문화 부문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문화의 사회변혁적 역할 또는 문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자발적 국가보고(VNR)에서 많은 면을 할애하고 있다.

문화·창의분야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사회를 결집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모든 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환경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적 성과는 국가개발계획(NDP)과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에 있어 문화 정책의 성과 중 가장 저조한 지분을 드러내며 다른 세 가지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점으로 작용한다. 문화·창의분야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사회를 결집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모든 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환경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중요하데, 환경 지속 가능성 및 기후 행동과 이러한 부문의 상호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2. 2020년에 제출된 45개의 전체 자발적 국가보고(VNR) 중 25개(55%)가 이 장에서 검토되었다. 이 예시들 중 4분의 1만이 경제적 성과를 논의할 때 문화·창의분야를 언급했으며(베냉,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인도,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대부분은 지속가능발전목표 8에 따른 문화 관광 개발과 관련된 간략한 언급이었다.



© Safiu / Unsplash.com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국제 사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문화는 지역 사회, 민족, 국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동력이다. 이는 특히 뒤쳐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회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플랫폼이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능력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싶은 사회를 상상하고 구성하는 능력도 더해준다. 나에게는 이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타지키스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이 세운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이다. 이들은 문화를 매개로 그들의 모국에 통합되고자 했다. 동시에 창의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일하고, 소비하고, 생산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문화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공동적으로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조력자로 인식하는 이유다. 유럽연합은 2016년부터 문화·창의산업, 문화 간 대화 및 파트너 국가들의 문화유산에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유럽 프로젝트의 핵심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 교류와 함께 문화는 새로운 유럽연합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의 주요 목표인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열쇠이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은 창작자와 예술가를 포함한 젊은이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지속가능한 개발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효과적인 다자주의 정신으로 회원국, 유네스코 및 기타 국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그것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주타 우르필라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 파트너십 위원

## 기후 행동을 위한 창의성에 대한 투자

유엔 사무총장의 2020년 보고서(ECOSOC)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금세기 말까지 세계 온도는 3°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훨씬 초과한다(UNEP, 2020).

기후 위기의 결과를 제한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생산 및 소비 패턴의 급진적인 변화가 시급해 지면서,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정의를 결합한 주요 투자 프로그램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아이디어가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국가 및 전지구적 수준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다. 건강, 청정 에너지, 대중교통 및 농업과 같은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새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Parliament)는 '최초의 기후 중립적 대륙'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20년에 유럽위원회(EC)는 '유럽 그린 딜'을 채택했다. 같은 해에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삶의 방식을 재해석하고 그린 딜의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공동 설계하기 위해 문화 창의 생태계를 동원하는 운동인 '새로운 유럽 바우하우스(New European Bauhaus)'를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가 고무적인 메시지를 내포한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과 새로운 지속가능 모델로의 전환에 있어서 문화·창의분야의 변혁적인 힘은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 반대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은 현재 과소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당시 UN 문화권 특별보고관 카리마 베논이 강조한 바와 같다. 2020년 보고서에서 베논은 기후 변화에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은 가장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기 문화를 보호할 자원은 더 적게 가졌다고 말한다. 베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영향은 '끔찍한 기후 문화적 격리정책

과 재앙적인 "편집" 과정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희생자인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적 흔적이 대부분 소멸하게 될 것이고, 반면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의 흔적은 보호되고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Bennoune, 2020a).

###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과 새로운 지속가능모델로의 전환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문화·창의분야의 힘이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대응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학계와 정책계 모두에서 기후 행동과 관련하여, 아직 미개척 분야인 문화의 변혁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원인은 삶의 가치 및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은 가치와 관련해 지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준다. 또한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토지 황폐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인지적 적응'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특히 유럽, 북미,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정부와 시민 단체는 문화적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기후 변화 보고서 및 전략에서는 해당 분야의 역할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네스코-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공동 후원하는 문화, 유산 및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전문가 회의가 2021년에 개최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7차 평가 보고서와, 발행이 임박한 도시와 기후 변화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 힘을 실었다. 주요 목표는 기후 완화 및 적응에 있어 문화의 역할에 대한 지식 평가를 통해 기후 과학에서 문화의 부가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오늘의 ‘혁신 물결’ 전략은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유럽 그린 딜은 그 이상이고, 시스템적인 변화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참여, 폭넓은 지원, 많은 혁신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새로운 유럽 바우하우스(New European Bauhaus)를 출범시키는 이유이다. 새로운 유럽 바우하우스 운동은 과학과 기술의 세계와 예술과 문화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창의분야를 동원하려는 포괄적인 정책 대응을 고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문화미디어위원회(Feder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Media)는 환경 요구조건을 정해 보조금과 자원 효율적인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하고, 독일에서의 지속가능한 영화 및 TV 제작을 위한 과학 기반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후원하는 모든 문화행사와 자체위원회는 생태 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몇몇 다른 국가들도 유의미한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는 임시방편인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2019년부터 기후 변화의 시대에 도시의 사회적, 공간적 이슈에 대한 변혁적 과정을 주도하기 위한 예술과학적 연구에 관한 협력 연구소인 쿨투르탱크스텔레(Kulturtankstelle, '문화 주유소') 이니셔티브에 매년 미화 17만 3천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시민단체는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맞서 문화·창의분야를 동원하는 데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다. 어소시에이션 말리 컬처(Association Mali Culture)는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를 교육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원과 보호 지역에서 인터랙티브 공연을 제작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역의 지식과 관점을 넓히기 위해 문화유산 관련 대화에 예술을 동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프리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 변화 및 재난 위험 감소의 도전을 해결한 무형문화유산 실천 사례를 연구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7개국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유네스코의 '지역 및 토착지식시스템(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system)'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의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지역적 접근 방식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유사하게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는 필요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에 기여하는 이니셔티브가 있었다. 쿠바의 누네스 히메네스 자연 및 인류 재단(Núñez Jiménez Foundation of Nature and Humanity)은 문화 활동을 할 때 토착 지식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연계하기 위해 문화부의 다양한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2021년 멕시코에서 영국문화원은 '기

후 위기 해킹: 미래는 원주민'<sup>3</sup>이라는 제목의 문화 해커톤을 조직했다. 이 해커톤의 목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문화토착적 해석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콜롬비아 문화부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과의 균형을 강조하는 '굿 리빙(Buen Vivir)'이라는 토착 공동체가 고유한 개발 패러다임에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자발적 국가보고(VNR)를 분석해 보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으로서 문화·창의산업이 가진 잠재력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발도상국은 종종 환경적 도전에 대한 대안적 솔루션으로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문화·창의산업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기

3. [www.britishcouncil.org.mx/hackear-la-crisis-climatica](http://www.britishcouncil.org.mx/hackear-la-crisis-climatica)

울이지 않고 있다. 군소도서개발국 팔라우는 2019 자발적 국가보고(VNR)에서 팔라우 문화와 전통이 환경 파괴에 맞서 싸우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주장했다. 팔라우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지구의 내일을 생각한다'는 문화 생태학적 윤리를 바탕으로 입국객들이 팔라우에서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여권 서약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팔라우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약>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팔라우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경우를 보면 기후 행동을 위해 예술과 창의성이 문화유산 및 지식과 결합할 수 있는 숨겨진 잠재력이 있다. 팔라우 여권 서약은 한 광고 회사가 개발했다(Medel, 2020). 영화, 음악 및 문화와 같은 분야도 기후 변화 조치를 위한 강력하고 증폭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글상자 8.3 • 문화·창의분야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 영국예술위원회와 줄리의 자전거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역시 공공 부문의 판도를 바꾼 바 있다. 이들은 2012년 환경 보고와 계획을 자금 지원의 필수 사항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문화기관이 되었다. 영국예술위원회는 비정부기구인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와 협력하여 환경 정책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환경 영향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냈다. 줄리의 자전거는 문화기관들이 저탄소 관행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 강화 활동을 펼쳤다.

2018-2022 자금 지원 대상에는 828개의 문화 단체가 포함되었다. 그들은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스(Creative Green Tools)'라는 탄소 계산기를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 폐기물 발생, 여행 킬로미터 등을 보고했다. 2019년에 문화 부문이 탄소 발자국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에너지 소비(81%)와 폐기물 발생(11%)이었다. 탄소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조치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설치, 일회용 플라스틱 제거 및 이동 감소가 포함된다. 배출 감소에 대한 모든 기여가 중요하지만, 기관들의 10%만이 필요한 감소 수준에 발맞춘 정책 또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Arts Council England, 2020.

#### 기후 행동을 위한 전지구적 창의 연합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평균 미화 7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으로 제작된 영화 한 편은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2,840톤을 생성하며 이는 2,709에이커의 삼림이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이다'(albert et al., 2020). 기후 위기에 집단적으로 대처하고자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은 자발적인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뭉쳤다. 2019년에 시작된 지속가능한 행동을 위한 창의산업 협약(Creative Industries Pact for Sustainable Action)은 2030 어젠다와 파리 협정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 국가 및 지역 기후 전략과 일치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서명기관은 녹색 생산 및 소비 프로세스와 영화 및 TV 산업과의 협력을 위해 채택된 조치에 대해 자체 보고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그들은 또한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광범위한 문화적 변화를 달성할 것이다. 영화사, 공공기관, 협회, 회원 기반 조직 및 영화 학교가 서명에 참여했다. 2021년 5월까지 이 협약에는 북미, 유럽 및 아프리카에서 90 여개의 기관이 서명했다. 그밖에 프랑스의 에코프로드(Ecoprod), 독일의 그린필름패스(Grüner Filmpass), 영국의 앨버트(albert) 등이 주목할 만한 국가 영화 제도다. 오늘날 대부분의 제도는 점진적으로 자발적 변화를 보여준다. 2020년 재설계된 독일의 그린필름패스에는 이제 몇 가지 필수 조치가 포함된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영화 제작(광고, TV, 장편 영화 등)에 대한 벤치마킹 데이터의 부족과 국제 제작 전반에 걸친 공통 표준의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많은 업계 참여자들은 의무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환경 지속가능성에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Bigger Picture Research, 2020).

출처: <https://creativeindustriesspact.com>, [www.ecoprod.com](http://www.ecoprod.com), [www.ffhsh.de/en/film\\_commission/Green-Filming-Badge.php](http://www.ffhsh.de/en/film_commission/Green-Filming-Badge.php), [www.wearealbert.org](http://www.wearealbert.org).

두 번째 트렌드는 문화·창의분야도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과 같은 국가가 최전선에 있다(글상자 8.3). 선진국의 여러 자금 지원 기관에는 현재 환경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종종 수혜기관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원을 수반한다. 자금 지원 기관의 요구 사항은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반영하려는 문화기관의 의사결정자에게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Julie's Bicycle, 2018). 그러나 종종 저개발 국가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 기관은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Creative Carbon Scotland, 2017). 무료 툴킷 개발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유용한 역할을 하지만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노력과 함께 변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창의분야의 이해관계자들도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고 배출량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증 제도가 시행되어 영화, 페스티벌, 공연예술 및 녹음된 음악과 같은 부문이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탄소배출 제로(net-zero) 약속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영역의 도전은 조직과 기업이 단순히 '발상이나 준비가 잘못된 유행, 임시, 명목상의 단기 이니셔티브'를 구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Julie's Bicycle, 2018).

데이터는 문화적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실제 영향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콘텐츠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들의 탄소 발자국을 추정하고자 하지만 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추정치는 90배 이상<sup>4</su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4. 스트리밍의 영향을 정량화하는 2020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논의 중 두 가지는 Kamiya(2020)와 The Shift Project(2020)에서 찾을 수 있다.

## 데이터는 문화적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에너지 수요와 관련해 스트리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계산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스트리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Kamiya, 2020). 따라서 스트리밍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개발하고 배포해야 한다.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 또한 더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TV 스트리밍은 전화 스트리밍보다 1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Kamiya, 2020). 디지털화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환경에 무해한 것은 아니며 디지털 절제에 대한 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2030 어젠다 실행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의 부문 간 상호작용 강화

국가개발계획(NDP)과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에 문화적 목표를 포함하는 것과 그 효과적인 실행은 부분적으로 국가 조정 메커니즘에 문화부처 또는 기관을 포함하는 데 달려 있다. 전반적으로 2030 어젠다의 총체적 비전은 과거보다 훨씬 대규모의 범정부적 접근을 촉발했으며 상당한 수의 부처 간 위원회가 만들어졌다(DESAs, 2020). 당사국은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의 63%만이 문화·창의산업의 전략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76%는 이러한 산업을 담당하는 주체 및 기관들이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의 설계 및 구현에 관여한다. 이는 문화·창의분야의 요구는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그 잠재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분야가 발전하는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트리아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부문 간 영향을 촉구하기 위해 문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하는 일련의 행사를 열었다. 협약을 통해 부처 간 대화가 증가했고 그 결과 정부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화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부문 간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조정 메커니즘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에스토니아 2021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에스토니아 문화회의소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비정부 이해관계자들로만 구성되며 매년 4~5회 회의를 갖는다. 리투아니아 문화부는 7개 부처와 통계부의 협력으로 국가개발계획의 문화 우선순위를 구현하기 위해 기관 간 실행 계획을 조정한다.

또 다른 추세는 문화 정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정부예술기관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마찬가지로 퀘벡에서는 부서 및 기관의 82%가 문화 생활에 대한 접근 및 참여를 향상시키는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퀘벡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네스코가 수행한 검토에 따르면 문화 정책이 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환경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상당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2019b). 따라서 국가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처 간 플랫폼 설정을 지원하고 문화 및 공공 정책 추적기와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기구의 전략적 행동 영역이 되었다.



© USGS / Unsplash.com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나의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네스코를 포함한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가 번영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에는 국가 주권이 위협을 받거나, '국가적' 또는 다수의 문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문화적 권리보다 다른 이익(종종 개발)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권리를 구현하는 것이 개인과 지역사회의 웰빙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결속과 평화에 이르게 된다. 국제적 표준은 국가가 여성, 토착민, 소수자, 취약한 개인을 포함한 특정 인구 집단 권리의 특별한 보호를 승인하고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약의 해석과 이행이 이 분야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권 기준의 정보를 항상 참고해야 한다. 유네스코와 유엔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내 임무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문화적 권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모든 토론과 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일찍이 1987년에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국가는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환경, 생계 및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문화적 권리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동맹이자 자원이다. 국가와 국제사회가 다양한 개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지혜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경험은 개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전달 및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가 존중되어야 하며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그들의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개인 및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

협약을 이행하다보면 문화는 더이상 하향식(top-down) 개념이 아니다. 문화적 권리를 널리 알리는 데 내 권한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 시의적절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몇 년 동안 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알렉산드라 잔타키**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 모니터링 및 평가

문화가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에 통합되면 일반적으로 문화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그들의 권한을 보다 세부적인 대상과 구체적인 목표로 나누게 된다. 따라서 문화와 관련한 정책 포트폴리오의 모니터링 정도에 따라 문화와 관련한 성과를 얼마만큼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된다. 문화적 결과는 다차원적 특성으로 인해 측정하기 어렵다.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문화의 다양한 기여를 모니터링하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문화 2030 지표를 개발했다(UNESCO, 2019a). 문화개발지표모음(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Suite)와 같은 이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 프레임워크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결합한다.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과정과 성과를 더욱 폭넓게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제1장 참조). 그러나 지속가능개발계획에서 문화 관련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여전히 드물다. 협약 당사국이 기술한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469개 조치 중 13%만이 평가되었다. 이러한 추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는 인도네시아의 문화개발 지수(Indonesia's Cultural Development Index)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문화의 성과를 측정하고 지방의 수준을 포함하여 정보에 입각한 정책 수립을 위해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문화 계획과 정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측정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규정을 개발했다.

표준 세계 국내총생산(GDP) 또는 개발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복합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요즘 대두되는 추세다. 실제로 2020 인간개발보고서는 사회가 측정하는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로부터 그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UNDP, 2020).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문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Aotearoa New Zealand) 지표는 문화적 참여, 지식의 세대 간 이전 및 소속감에 대한 지표를 통합하여 국가의 웰빙을 측정한다(Culture 2030 Goal Campaign, 2019).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복합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요즘 대두되는 추세다

### 문화 자원에 대한 분배 및 접근의 형평성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은 국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 문화를 통합하겠다고 약속한다. 2030 어젠다는 이러한 약속을 반영하여 지역 당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강조한다. 유엔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도시 및 지방 정부로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대한 32건의 자발적 지역보고(VLR)를 검토했다. 지역 수준 또는 기타 지방 수준(특히 연방 구조의 경우)은 문화 자원의 가용성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공평한 분배는 문화적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핵심이다. 정부의 참여는 사회적 결속, 경제적 활력 및 환경적 생존가능성과 관련된 결과의 구체적인 달성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 국가적 상황과 지방분권화의 실제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자원과 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역정책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사용가능한 자금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방정부, 영토 및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자금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현지화하는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2020).

## 도시와 문화 발전의 상호 연결

전 세계의 도시가 점점 다문화되면서 도시를 하나로 묶는 결속 수단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 분권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도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1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제공하는 데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 문화정책을 개발하거나 전략에 문화를 통합한 지방정부의 수는 제공되지 않지만, 해당 부문의 정책 네트워킹 및 학습 활동 수준이 높다는 것은 관심 증가의 지표이다. 201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베니스에 문화 및 지역 개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머코슈데이즈(Mercociudades), 유럽의 유로시티즈(EuroCities),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네스코의 시티즈 플랫폼(Cities Platform), 크리에이티브 시티즈 네트워크(Creative Cities Network)와 같은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창의성을 활용한 매우 활발한 도시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2020년에는 도시 지도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가상공간으로 소집되어 로마 헌장을 발족했다. 이 헌장을 통해 전 세계의 가맹 도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의 문화 자원을 발견, 생성, 공유, 향유 및 보호하기로 약속했다(Roma Capitale and UCLG Committee on Culture, 2020). 세계은행과 유네스코 역시 '도시, 문화 및 창의성(2021)'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문화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전에 국가 차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다루는 다양한 지역적 조치가 있지만 환경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지역 계획의 문화적, 차원은 종종 도시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인 문화적 창의적 활력과 관련이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유네스코 창의 도시인 뉘른베르크의 복구 노력에 반영되고 있다.

멜버른은 도시의 창의적인 문화를 보여주고 덜 알려진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지역의 이야기와 시청각과 디자인을 이용해 멜버른 전역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 외에도, 지역 편의 시설과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방문하도록 장려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30 어젠다 이행에 대한 자발적 지역보고(VLR)에서 중국의 더칭(Deqing) 지역은 빈곤 퇴치(지속가능발전목표 1) 진행 경과를 평가하기 위한 '100%의 주민이 문화시설에 4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추적하는 지표를 포함했다(Culture 2030 Goal Campaign, 2019). 문화의 경제성은 지역 브랜딩과 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지역 전략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특히 유산의 진흥을 통한, 때로는 문화산업 허브 개발을 통한 문화 관광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라치오 지역은 고용, 수입 및 관광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과 3년 계획을 개발했다(Cavallini et al., 2018).

문화산업 기반 재생 프로젝트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가 어떻게 상호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이다. 응답 국가의 73%가 지역, 도시 또는 농촌 수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이러한 트렌드는 특히 서유럽 및 북미(88%),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82%)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참여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슬로베니아의 마리보르(Maribor)에서 대학생과 주민들은 역사적 중심지에서 가까운 옛 감옥을 상업 및 문화시설로 개조하는 초기 단계에 참여했다.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협의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행계획을 알리는 데에 성과를 보였다. 멕시코 문화부는 멕시코시티 당국과 협력하여 도시, 생태 및 문화 계획을 결합한 차풀테펙 산림 문화 프로젝트(Chapultepec Forest Cultural Project)의 개

발을 시작했다. 유명한 멕시코 예술가 가브리엘 오로스코(Gabriel Orozco)가 디자인한 생물문화공원은 도시 내에서 문화 및 환경 계획을 결합하는 도전에 나서야 하는 흥미로운 경험일 수 있다.

### 문화 참여율에 대한 농촌-도시 격차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역량 개발에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지역 개발에 문화를 통합하는데 중요한 동인(driver)으로 작용한다. 콜롬비아는 오렌지 경제법 하에서는 개발 계획에 문화와 창의성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한 지자체장들과 지방정부들에 조언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아르헨티나의 국가 창의 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지역 창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54개 도시의 지역 공무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 영토 형평성의 개선, 문화접근성의 향상

문화 자원과 인프라의 공평한 분배는 영토 개발의 핵심이며 창의성이 번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문화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이러한 자산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가 작품을 창작, 생산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관객이 문화 생활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전반에 걸친 문화 접근의 형평성은 국가 및 지역 통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에 가장 비교해볼만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유럽 연합 문화창의 도시 모니터(EU Cultural Creative Cities Monitor)에는 가장 가까운 문화 장소에서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2015년 유럽통계청(Eurostat) 수치에 따르면 유럽 도시의 문화 참여율은 69%이고 농촌 지역은 57%이다.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

로베니아)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 참여율 격차가 5% 미만으로 문화 자산의 균형잡힌 분배를 보여준다(Montalto et al., 2019). 다른 지역의 트렌드는 상세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유네스코 문화 2030 지표는 향후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참여율에 대한 농촌-도시 격차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농촌 지역의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모두 주요 도시 지역 외부의 문화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새로운 농촌 개발에 관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National Target Programme on New Rural Development)을 통해 특히 농촌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역 '생활문화(Cultura Viva)'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국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페루, 우루과이)에서 커뮤니티에서의 문화적 삶을 강화한 실적을 가진 시민단체를 지정하고 지원하여 '문화 핫스팟(Puntos de Cultura)'을 만들었다. 이러한 핫스팟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이벤트와 자원의 허브가 된다. 또한 지역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거나(알제리, 세네갈, 동티모르) '문화나눔' 제도로 외딴 지역에도 예술 공연을 보장하거나(한국), 독서를 자극하기 위해 배치된 모바일 도서관 및 서점(중국, 이집트, 이라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하이델베르그(Heidelberg) 창의도시(독일)는 '러스트포리브(Lust4Liv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도심 전체에 소규모 야외 축제를 개최하고, 도시의 교외를 통과하는 트럭 위에 설치된 모바일 무대를 운행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소외라는 과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영토에 걸쳐 도서관의 더 나은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보고되는 것은 고무적이다(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여러 선진국에서 먼 지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해 전용 기금, 보조금 또는 혁신적인 제도를 수립했다(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호주는 고립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예술 기금을 운영하고, 오스트리아의 포어아를 베르크(Vorarlberg) 주는 해당 지역 출신의 예술가들이 돌아와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복귀 보조금(Comeback grant)'을 제정했다. 아일랜드는 주요 도시 지역 외부에서 영화 촬영을 장려하는 흥미로운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은 우선순위 지역의 시청각 활동에 기여하는 제작물에 추가 세금 공제를 적용한다.

획일적이지 않고 보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 분야 종사자의 기술을 강화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페루의 문화적 거버넌스 프로그램은 소규모 북부 지역 사회에서 지역 자치단체의 문화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및 영토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인재 풀을 유지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이촌현상에 대응한다. 리투아니아는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 모델을 참고로 지역 커뮤니티에 문화정책 및 자금 지원 권한을 부여하고, 코스타리카는 커뮤니티 문화 관리자께 특정한 교육을 제공한다.

### 포용성은 다양성을 의미한다

훌륭한 문화재를 가진 지역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취약계층(청소년, 고령자, 소수인종, 이민자, 장애인, 원주민)이 문화재에 접근하거나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다(글상자 8.4). 조사 대상 국가 중 81%가 불우하거나 취약한 그룹의 문화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이러한 트렌드가 드문 편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76%)보다 선진국(90%)에서 더 일반적이다. 유럽 및 북미와 같은 지역은 사회적 포용과 결속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의 활성화를 우선시했다. 당연히 그

### 글상자 8.4 • 토착민의 목소리에 플랫폼을 제공하기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호주, 캐나다, 핀란드는 원주민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다. 호주는 가치 사슬을 따라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 및 현대 문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투자한다. 호주 국립영화방송학교(AFTRS, Australian Film, Television and Radio School)의 원주민 이니셔티브는 원주민 미디어 실무자를 교육하거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장학금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주요 크리에이티브 위치의 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니셔티브에는 재능 있는 토착 스크린 스토리텔러를 지원하기 위한 작문 워크숍이나 영화 제작에 오지에 있는 원주민 여성을 소개하는 '이야기 그리기(Drawing out Story)'와 같은 파일럿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업계 수준에서 호주의 국영 방송사는 원주민의 영상 표현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이 제작한 콘텐츠로 원주민 전문 방송 NITV(National Indigenous Television)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토착 제작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토착 콘텐츠에 직접 재투자된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국립 영화 위원회(National Film Board, NFB)는 캐나다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 국가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 권고에 따라 원주민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

제작 생태계에서 토착 영화 제작자를 위한 시스템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국립영화위원회(NFB)의 실행 계획은 토착 자문 그룹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제도적 변화, 산업 리더십, 제작 및 배급 분야에서의 33개의 약속을 포함한다. 국립영화위원회의 제작 예산 중 15%는 토착 예술가들의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 2020년까지 NFB의 온라인 토착 영화 컬렉션에는 모든 캐나다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300개 이상의 영화가 포함되었다. 또한 계획에 따라 토착 영화 '와이드 어웨이(Aabiziingwashi, Wide Awake)'를 전국적으로 1,300회 이상 상영했다. 이 계획에 따라 국립 영화 위원회(NFB)는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원주민의 관점을 학교에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경험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UN 토착 언어 10년(2022-2032)'에 대한 지침으로 2020년에 채택된 전략적 로드맵인 로스 피노스 선언(Los Pinos Declaration)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다.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Nothing for us without us)'라는 슬로건 아래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와 원주민 언어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Australian QPR, Canada QPR

러한 지역의 국가들은 취약계층과 소수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장애인을 포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널리 추진되었다.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3 마라케쉬 조약(2013 Marrakesh Treaty) 등이 그 예다. 이 분야의 조치는 조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 공공 문화 공간의 물리적 접근성에 관한 법률, 장애를 가진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관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불가리아 문화부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통합 예술교육을 보장하고 장애인체를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

함으로써 국가장애전략을 실행한다. 모잠비크에서는 문화부가 장애 여성에게 예술과 공예 교육을 제공한다.

인구에 이민자 또는 이민자 출신을 포함하는 것은 많은 국가(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에서 계속되는 추세다. 비정부 주도의 사례는 스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라이브 음악협회인 펫찌(PETZI)는 다른 음악협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및 이벤트 구조를 보다 다양하고 덜 차별적이게 만들기 위해 음악 산업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성 로드맵을 만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81%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한 그룹의 문화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무자들이 문화·창의분야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유럽 국가의 주목할 만한 지역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다. 반대로 일부 국가(아르메니아, 에콰도르, 아일랜드)도 집단이주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치를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포용을 위한 조치는 선진국에서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흥미로운 조치를 시행했다. 바베이도스는 청소년 성과 달성 공인 및 시각예술 프로그램(Youth Achieving Results Performing and Visual Arts Programme)를 통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해당 분야의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며, 디지털 미디어 영화 프로젝트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청각 및 미디어 산업 관련 업무를 훈련한다. 또 다른 카리브해 국가인 자메이카는 국가 문화·창의산업 부서 내에 청소년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분야의 젊은이들이 문화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상황에 처한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치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이라크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협력하여 어린이 연극과 영화 제작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민단체(CSOs)는 청소년 관련 조치의 설계 및 구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뮤직 크로스로드 말라위(Music Crossroads Malawi)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마다가스카르 출판 협회(AEdiM)는 불우한 자폐 아동의 독서를 장려한다.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필름 액터 어소시에이션(Zanzibar Film Actor Association)

은 농촌 영화 실무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농촌 문화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도시의 목소리와 비전에서 영화 제작을 탈중심화시킨다.

###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문화와 창의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를 요구하는 2030 어젠다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17에 따라 협약은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강화된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요구한다. 이 의무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문화를 양자간, 지역 및 국제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 및 프로그램에 통합함으로써 가능하다.

### 협력 전략에서 문화와 창의성의 포지셔닝

조사 대상 국가의 거의 절반(49%)이 창의성과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역할을 인식하는 공여국 또는 수혜국으로서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33%)보다 더 많은 개발도상국(56%)이 문화를 개발 협력에 통합했다고 보고하므로 이 분야에서 여전히 상당한 진전의 여지가 있다.

문화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나 메커니즘을 포함한 개발협력을 가진 공여국은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다. 스위스 개발협력(Swiss Development Cooperation)은 예산의 약 1%를 파트너 국가와 함께 문화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2019년에는 시민단체에 할당된 금액이 미화 620만 달러였다. 스웨덴은 문화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개발협력의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그래서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을 통해 유네스코와 함께 16개 파트너 국가의 문화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디어 다양성, 예술적 자유, 문화·창의분야의 성평등을 포함한 전지구적 지식 생산 및 공유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점차 지분을 높여가는 아프리카에 대해 문화·창의분야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다.

문화는 여러 방법으로 국제협력 전략에 통합될 수 있다. 하지만 협약 제14조에서 요구하는 역동적인 문화 부문을 촉진하기는 커녕 모든 방법이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가들은 종종 외교 및 안보 정책, 자국 문화 상품의 무역 진흥 및 국경 밖의 문화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관련된 목표를 결합한다. 네덜란드의 2021-2024년 국제문화 정책(외교부, 대외무역개발협력부, 교육문화과학부 포함)의 사례는 국제 문화협력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다른 목표 중 정책 분야는 개발 초점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 산업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et al., 2020).

전통적으로 문화 연구소를 통해 문화 협력 자금을 조달한 국가들 사이에서 개발기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 문화는 이제 연방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책임 하에 개발협력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독일의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과 해당 개발 기관인 독일국제개발협력기관(GIZ)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Franco and Njogu, 2020). 2018년부터 프랑스 개발청(AFD)은 협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화·창의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AFD, 2020).

비전통적 공여국의 문화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협약을 참고해 2016-2019년 중기 개발 지원 및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에 문화 다양성 보호를 포함했고, 이탈리아의 개발기관은 2017년부터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는 활동을 구현했다.



© Martijn Baudoin / Unsplash.com

# 기

후 비상 사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려면 전지구적 연대, 협력, 조정 및 대화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멕시코의 수도로서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도시와 함께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집단적 회복력의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접근은 복지국가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중요성을 다시 부여하는 정책과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단순한 사업 기회로 간주한다면 과학 활동, 연구의 발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존재하게 되며, 이렇게 권리가 축소된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들의 혁신적 정신보다 상업적인 잠재력이 더 가치를 두게 된다.

우리 사회가 완전히 재건되기 위한 개요를 수립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는 국가가 인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책에서 이를 보장하며 문화적 권리를 전략적 행동의 핵심에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건강 및 환경 위기 속에서 문화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환경적 웰빙과 관련하여 우리 도시의 재창조에 필수불가결할 만큼 광대한 희망을 하나로 묶는 힘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문화가 무엇보다도 정체성에 필수적이며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문화는 행사될 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련의 권리이며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불확실성과 고통의 시기에 의미, 정체성 및 공동체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으며, 예술, 표현의 자유, 공유된 관행과 지식을 통해 사람들이 고립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불안을 상상과 창의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도시를 통해 꿈꾸고 혁신할 때가 왔다. 문화적 권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창의성과 기술 발전이 도시 회복을 위한 번영의 원동력이 되는 다양한 참여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다. 다양성, 실험 및 상상력에 부리를 둔 새로운 종류의 공존이 있는 문화 생태계를 촉진하여 개인, 지역사회 및 지구를 위한 의미의 개발과 지속적인 지식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이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파르도 박사**  
멕시코시티 시장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중국이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개발된 2016-2018 실행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문화 부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몇몇 소지역 기구도 개발협력 전략에 문화를 통합했다. 문화개발 협력의 전략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활발한 이해당사자는 유럽연합(EU)이며, 이는 또한 지금까지 협약을 비준한 유일한 지역 기구이기도 하다(글상자 8.5).

### 문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동향

2018년 이후로 많은 새로운 전략 문서 또는 선언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공적개발원조(ODA) 증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0b 및 17.2를 진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마련되었다<sup>5</sup>.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는 전체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0.15%에 불과했다. 2018년 이 범주는 전체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0.23%를 차지했으며 2억 8,100만 달러에 달했다(그림 8.3).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수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전에 사용 가능했던 자금의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코로나19 관련 경기 침체로 인해 새로운 감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글상자 8.6).

2018년에는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 할당된 다국적 공적개발원조에 1,86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으며, 이 중 83%는 유럽연합(EU) 개발 협력 수단에서 나왔다.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50개 공여국 목록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데이터를 보고했다(참조: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datasubmitters.htm>). 공적개발원조 데이터는 더 넓은 범주인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서 문화·창의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력을 다루므로 유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과 함께 이러한 부문에 대한 기금을 집계한다. 공여국 예술가의 일회성 투어 및 기타 문화외교 관련 활동은 공적개발원조에서 제외된다(OECD, 날짜 없음).

## 글상자 8.5 • 유럽연합(EU) - 개발 및 협력에 있어 문화를 주류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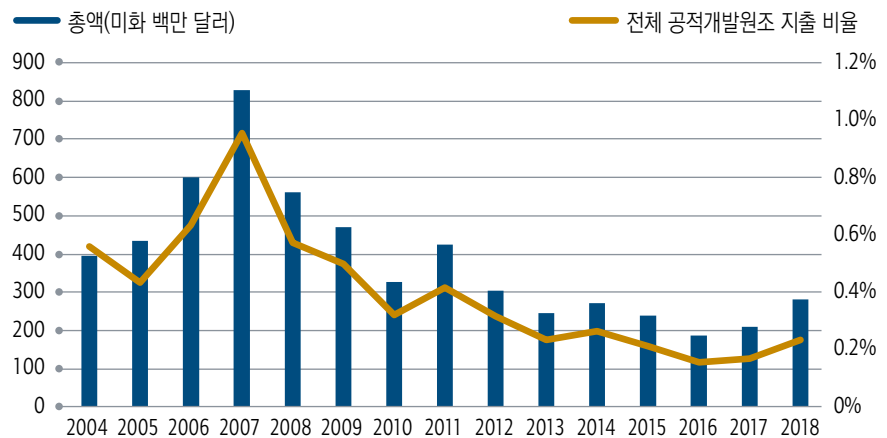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은 외부 협력 활동 및 회원국 내 문화 통합에 관한 여러 정책을 개발했다. 2016년 유럽연합 국제문화 관계에 대한 공동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유럽연합 외부 정책에서 문화를 주류화하는 이정표였다. 이 문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엔진으로서의 문화 지원을 포함하여 세 가지 작업 분야를 식별했다. 보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워킹그룹이 구성되었다(유럽위원회(EC), 2020). 미래 선언문을 위한 문화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400명의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콜로키움에 이어 2019년에 시작되었다(유럽위원회(EC), 2020b).

현재 유럽연합(EC)의 개발협력은 유럽개발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위원회(EC) 국제 파트너십 사무총장(DG INTPA, 구. DEVCO)은 유럽위원회(EC) 전반에 걸쳐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를 중앙집중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협력 문화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수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크레아티피(Creatifi)와 같은 새로운 문화 혁신 이니셔티브는 2016년부터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의 문화산업을 위한 투자 기금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레아티피는 2,300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6개국에서 문화 2030 지표의 출시를 지원하고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가 시설을 설립했다. 43명의 주요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이 시설의 풀은 12개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들고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육성하기 위해 주문형 기술 지원(정책 조언, 기술 교육 및 지식 공유)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교화를 위한 다중 이해당사자 대화 및 협의를 지원하고 1명의 국제 전문가와 1명의 자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환식 전문 지식 제공 및 교육 워크숍을 통해 파트너 국가에 권한을 부여한다. 동료 학습은 전용 플랫폼, 경험 공유 및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짐바브웨의 음악 전략을 담당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나이지리아 음악 산업 관계자들과 교류를 했고, 파나마 정책 입안자들은 칠레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신들의 창의경제 정책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자문했다.

출처: <https://ec.europa.eu/culture/policies/international-cultural-relations>, <https://en.unesco.org/creativity/activities/supporting-new-regulatory-frameworks-strengthen>.

그림 8.3

2004년~2018년에 지출된 총 공적개발원조의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비율



출처: OECD/BOP Consulting (2021).

그림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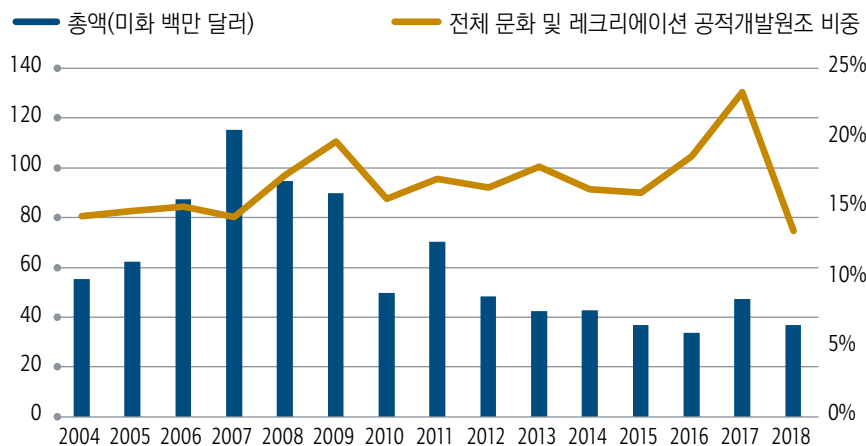
2018년 10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출처: OECD/BOP Consulting (2021)

그림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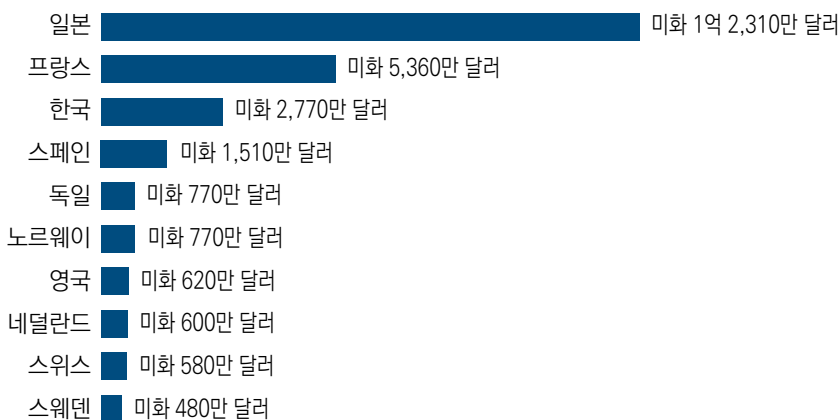
최빈국에 대한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 2004-2018



Source: OECD/BOP Consulting (2021)

그림 8.6

2018년 10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출처: OECD/BOP Consulting (2021)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2018년에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 100만 달러 이상을 할당한 유일한 다국적 기관이다. 소극적인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및 지역적 조직과 개발은행은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문화·창의분야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둔 '오렌지 경제' 작업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카리브해개발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은 2017년에 문화·창의산업 혁신 기금을 설립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은 아프리카 패션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는 '패셔노믹스(Fashionomics)' 이니셔티브를 통해 크리에이티브 부문에 진출했다. 2020년에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문화·창의산업 지원 기금을 발표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시장인 최초의 '크리에이티브 아프리카 익스체인지(Creative Africa Exchange)'를 구축했다(Afreximbank, 2020). 세계은행(World Bank)은 일부 임시 지원 이니셔티브를 구현했으며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지식 생산을 늘리고 있다(World Bank, 2020b).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상위 10위 수혜국 목록은 자금이 항상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로 향하는 것은 아님을 드러낸다. 최빈국인 콩고민주공화국만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고(그림 8.4), 2004년 이후 최빈국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공적개발원조의 평균 17%만을 받았다(그림 8.5). 한 가지 예외(덴마크를 대체한 영국)를 제외하고 상위 10개 공여국 목록은 2015년과 동일한 공여국을 보여주지만 규모의 순서가 약간 바뀌었다(그림 8.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부 수혜국은 상당한 공여국이 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분야의 프로젝트 자금의 대부분은 재단 및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같은 민간 자금에서 나온다.

5대 민간 공여기관(포드 재단, 돈 재단, 프린스 클로스 펀드, 웰컴 트러스트, 오픈 사이어티 순)는 2018년에 개발도상국에 미화 총 3,1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이 금액은 더 넓은 범주의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다국적 기금의 거의 두 배이다. 이 다섯 공여기관들의 기금은 주로 아프리카에 돌아갔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포드 재단은 지금까지 가장 큰 공여기관이며 전체 상위 5개 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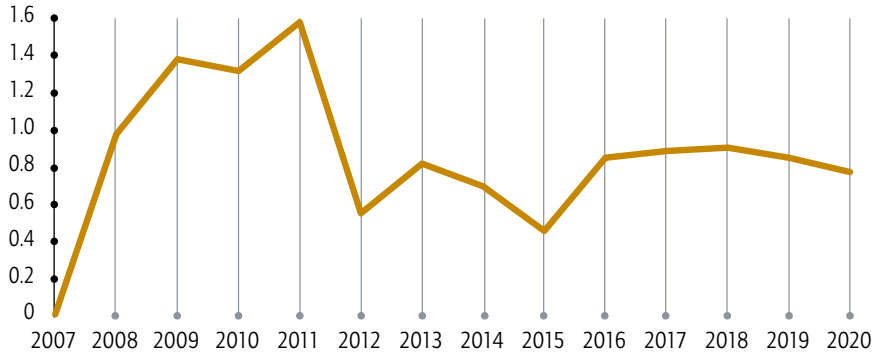
개발도상국이 주도하는 사모펀드도 등장했다. 2018년에 설립된 아프리카 문화 기금(African Culture Fund)은 부분적으로는 유명한 아프리카 예술가가 기증한 예술 작품의 판매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기부를 통해 문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 기금은 또한 국제 비정부기구(NGO) 및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2020년 말에 이 펀드는 미화 17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206명의 예술가 또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African Culture Fund, 2020, 2021). 이는 아프리카에서 자금 조달 모델의 다양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발전이다.

협약 제18조에 의거하여 형성된 자금조달 수단인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를 위한 통로이다. 문화·창의분야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공공 부문과 비정부기구(NGO)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 대한 기부는 공식 공적개발원조 수지로 계산된다. 구조적 정책 프로세스는 다른 자금 출처에서 소외되기도 하는데 국제문화다양성기금이 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특정 도구에 대한 추세를 분석할 가치가 있다. 국제문화다양성기금은 2010년에 운영되었으며 2011년에 15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금 조달이 정점에 이르렀다. 자금 조달은 그 후 상당히 감소했지만, 2015년 저점에 도달한 이후 다시 증가했다(그림 8.7). 실제로 2021년 중반까지

그림 8.7

2007-2020년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의 기여(미화 백만 달러)



Source: UNESCO (2021).

그림 8.8

2007-2020년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 가장 기여가 큰 국가



Source: UNESCO/BOP Consulting (2021).

이 기금은 2018-2019년 기간 동안 지불된 기여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으며, 따라서 2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기적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전망을 제공했다.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 대한 가장 큰 기여 중 일부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이 상위 10대 공여국(브라질, 중국, 멕시코)에 포함되기도 했다(그림 8.8).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로 개발도상국은 기부금의 17%를 제공했다. 2018년 유네스코는 문화·창의 산업을 지원하는 최초의 대규모 민간 부문 파트너십인 유네스코 사브리나 호 '다음은 당신: 창의적 여성 역량 증진'(You Are Next: Empowering Creative Women)

en)'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멕시코, 팔레스타인, 세네갈 그리고 타지키스탄에서 4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문화와 창의성을 위한 향상된 역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는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요구한다(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 목표 17.9). 협약이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위한 문화협력 프로그램에서 고무적인 트렌드를 관찰할 수 있다. 당사국의 72%는 개발도상국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일하는 시민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홍콩(중국특별행정구)과 인도네시아 간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의미있는 이니셔티브이다.

문화정책 수립에 관한 대부분의 역량 강화 협력 프로그램은 지역 및 다국적 기관과 전문 기관, 특히 국제프랑코포니기구(OIF)와 유네스코에서 자금을 지원하지만, 당사국의 57%가 이 분야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 및 시장 개발(52%)에 대한 지원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성숙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다는 아프리카의 문화개발 협력 검토에서 관찰된 내용을 반영한다(Franco and

Njogu, 2020). 프랑스 개발청(AFD)이 자금을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아프리카(Afrique Créative, Creative Africa)는 혁신적인 예이다. 그것은 9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확장할 준비가 된 문화 창의기업에 멘토링 및 지원 자금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제작된 아프리카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투자 안내 책자는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부문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Kamara and Creative Africa consortium, 2021).

일련의 협력모델 내에서 개발도상국 간 협력과 개발도상국-선진국 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적합한 관련 지식과 적용 가능한 지식을 교환하는 데 특히 특화되어 있다. 그러한 협력은 또한 더 큰 지역 소유권과 지역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협력적 접근을 촉

진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이 분야에서 특히 활동적이며 종종 구체적인 자금이 수반된다. 2014년부터 지역 문화산업 시장을 조직해 온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미문화산업시장(MICSUR)이 그 예이다. 또한 자금 지원과 지식 교환을 제공하는 이베르쿨투라 비바(Ibercultura Viva), 이베레세나(Iberescena), 이베르미디어(Ibermedia)와 같은 이베로-아메리칸 문화협력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지역의 동료간 학습은 또한 이베로아메리카국가기구(OEI)에 의해 촉진되며, 이 조직은 문화정책에서 모범적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정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워크숍을 마련한 카리브해 개발 은행도 이를 도왔다.

일련의 협력모델 내에서  
개발도상국 간 협력과  
개발도상국-선진국 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 글상자 8.6 • 코로나19가 국제적 문화협력에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속적이고 점층적인 국제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 정책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봉쇄는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문화·창의분야와 그 주체들에게 해결 과제를 던졌다.

2020년 3월부터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분야의 주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구호 기금을 시작하거나(독일, 영국) 대상 역량 강화에 추가 협력 자금을 투자한(스웨덴) 여러 기부자들이 포함된다.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몇몇 지역 조직에서도 구호 기금을 조성했다. 카리브해 개발은행은 음악, 축제 및 카니발 조직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총액 미화 10만 달러의 긴급 구호 보조금 패키지를 만들었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기타 국제 파트너는 코로나19가 문화·창의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에서 시민단체는 국제 코로나19 구호 자금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랍예술문화기금(AFAC)은 예술가 지원 보조금과 아랍 예술 문화 기금-넷플릭스 지원 기금을 배치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예술가와 종사자에게 150만 달러를 제공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아프리카리아(Africalia)는 코로나19 초기 몇 달 동안 7개국의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미화 8만 6천 달러 규모의 '크리에이티비티 이즈 라이프(Creativity is Life, 독창성은 삶이다)'를 만들었다.

협약에서 인정한 전지구적 불균형은 당사국의 국제적 연대 의무의 기초를 이룬다. 이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협력 전략 및 복구 계획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자금이 코로나19 이후 복구에 있어 낮은 우선순위로 강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4년 동안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개발협력에서 문화에 대한 명백한 새로운 관심으로 인한 평가 이슈(특히 기존 평가의 지식 관리)는 향후 개입 계획을 위한 전략적 문제가 된다. 더 많은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함정을 피하고 모범 사례를 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평가 기반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는 중앙 집중적 위치에는 접근이 매우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상태로 남아 있다. 만일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에 UN 평가그룹(UN Evaluation Group)<sup>6</sup>이 관리하는 것과 같은 문화개발 평가 보고서를 위한 정보 처리 기관이 있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문화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재단을 포함하여 공공 당국과 기타 모든 문화 주체가 문화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6. <http://www.uneval.org/evaluation/reports> 참고.

표 8.1

협약 이행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발전시키는 고무적인 방법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목표	협약 목표들	당사국의 사례
 <p>4 질 높은 교육</p>	<p><b>목표 4.4:</b>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림.</p>	 <p><b>목표 1</b>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p>	<p>케냐의 개정된 국가 교과 과정 정책에서 전문 훈련을 더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중등 학교 예술 및 스포츠 트랙을 구축함.</p>
	<p><b>목표 4.7:</b>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함. 무엇보다 [...]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함.</p>	 <p><b>목표 3</b>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p>	<p>사이프러스의 교육부는 지속가능성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및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몇 가지 조치를 취함. 그 중 하나는 학생들이 기후 변화에 관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예술가들과 과학자들과 협력하도록 하는 것임.</p>
 <p>5 성평등</p>	<p><b>목표 5.5:</b> [...]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함.</p>	 <p><b>목표 4</b>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한다</p>	<p>오스트리아 영화연구소는 영화에서 여성 감독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함. TV 제작에 대한 지침도 개정해서 여성이 핵심 크리에이티브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함. 2018년에는 여성 감독의 비율이 39%로, TV의 핵심 크리에이티브 직책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28%로 증가함.</p>
	<p><b>목표 5.c:</b> 성평등과 여성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함.</p>	 <p><b>목표 4</b>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한다</p>	<p>여성 쿼터 및 여성 아티스트의 음악 공연 접근에 관한 아르헨티나 법률에 따르면 최소 3명의 아티스트 또는 그룹이 출연하는 모든 라이브 음악공연에는 최소 30%는 여성 아티스트가 포함되어야 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디지털 환경에도 동일한 요구 사항이 적용됨.</p>
 <p>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p>	<p><b>목표 8.3:</b> 생산적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력 및 혁신을 [...]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공식화 및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함.</p>	 <p><b>목표 3</b>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p>	<p>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불가리아의 혁신 전략 (2014-2020)은 문화·창의산업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4가지 영역 중 하나로 선정함. 이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영화, TV, 음악 및 출판 분야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p>
	<p><b>목표 8.a:</b>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지원, 특히 최빈 개도국에 대한 [...] 무역 지원을 확대함.</p>	 <p><b>목표 2</b>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p>	<p>칠레 재무부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함께 서비스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 문화부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문화·창의분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사업역량과 기관 간 생태계를 강화함.</p>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목표	협약 목표들	당사국의 사례
	<b>목표 10.2:</b> 2030년까지 모든 [...]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함.	 <b>목표 3</b>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알제리의 오랑 지역극장은 병원과 소외된 지역 사회에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책을 수집하기 위해 '표를 위한 책(a book for a ticket)'이라는 주제로 극장 공연을 선보임. 2017년에는 한 소아과 병원을 위해 3,000권의 책이 수집되기도 함.
	<b>목표 10.7:</b>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함.	 <b>목표 2</b>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개발도상국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짐.
	<b>목표 10a:</b>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별 우대조치에 대한 원칙을 이행함 [...].	 <b>목표 2</b>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캐나다 연합(Coalition for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의 새로운 무역 협정 기간 동안 문화 면제(Cultural exemption)가 유지되도록 보장함.
	<b>목표 10.2:</b>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기타 재원의 흐름을 장려함 [...].	 <b>목표 2</b>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우루과이의 시청각 프로그램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리베이트와 공동 제작을 생산 수출 서비스로 간주해주는 인증서 발급을 통해 국제 공동 제작을 독려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함.
	<b>목표 11.3:</b>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함.	 <b>목표 3</b>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아시아문화허브시티(Hub City of Asian Culture)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문화도시개발사업으로 문화존 조성 및 새로운 인프라 조성, 문화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문화생산, 활동,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임.
		<b>목표 12.5:</b>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임.	 <b>Goal 3 INTEGRATE</b> <b>목표 3</b>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b>목표 12.6:</b>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함.	 <b>Goal 3 INTEGRATE</b> <b>목표 3</b>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프랑스 콜렉티브 에코프로드(EcoProd)는 영화 및 시청각 제작을 위한 최초의 탄소 발자국 계산기인 'Carbon'Clap'을 개발함. 또한 무료로 도구와 연구데이터를 제공하고 학생과 전문가를 교육하고 환경을 위한 실천과 공공 기관의 기금 지원을 지지함.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목표	협약 목표들	당사국의 사례
	<b>목표 13.3:</b>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함.	 <b>목표 3</b>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팔레스타인의 '사키야(Sakiya)' 학제 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 학자, 농부를 모아 현대미술, 생태, 자금자족이라는 지역 농업 전통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함.
	<b>목표 16.6:</b>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함.	 <b>목표 1</b>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코스타리카는 매년 문화청소년부 직원들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문화 관리 교육을 제공함.
	<b>목표 16.7:</b>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함.	 <b>목표 1</b>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부르키나파소는 공공, 민간 및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부문별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문화 정책에 대한 참여 검토 프로세스를 수립했음. 이 과정에서는 지역 행위자(Local actors)를 훈련시키고 문화정책 계획 및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를 개발했음.
	<b>목표 16.10:</b> [...]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함.	 <b>목표 4</b>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한다	스웨덴은 지식 생산, 예술가 및 언론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예술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목표 조치를 가지고 있음. 스웨덴예술지원금위원회는 예술적 자유 침해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목표	협약 목표들	당사국의 사례
	<b>목표 17.2:</b> 선진국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b>목표 3</b>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스위스는 개발협력 예산의 1%를 문화 프로젝트에 할당하기로 약속함.
	<b>목표 17.9:</b> [...]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함.	 <b>목표 3</b>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2019년에는 유네스코와 스웨덴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세 차례의 지역 트레이너 교육이 개최되었음. 교육에서는 문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재구성하는 100개 이상의 정부 및 시민사회 행위자의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동종간(P2P) 협력 메커니즘을 고취시키며 개발도상국간(South-South) 협력을 확대했음.
	<b>목표 17.11:</b> [...]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대폭 늘림.	 <b>목표 2</b>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콜롬비아 국가무역진흥원은 2018년과 2019년에 3억1700만 달러의 수출 달성을 위해 문화·창의 기업을 지원함.
	<b>목표 17.14:</b>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함.	 <b>목표 3</b> 문화를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킨다	리투아니아의 문화를 위한 기관 간 행동 계획 (2014-2023)은 인프라 갱신,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지원, 문화 생활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 향상과 같은 문화 분야에서 국가개발계획의 조항을 이행함. 다른 7개의 부처와 통계부가 이 문화부 행동 계획 이행에 참여함.
	<b>목표 17.17:</b> [...]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함.	 <b>목표 1</b>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원한다	호주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은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장려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공공 기관임.

## 결론 및 권고 사항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문서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의 통합은 2017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30 어젠다의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의 역할에 대한 개념화가 질적으로 확장된 측면이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종종 지속가능개발계획에 문화를 통합하고자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필요한 예산 배분과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문화에 대한 목표를 독립적인 전략 및 실행 계획으로 바꾸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문화·창의분야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관이 국가 조정 메커니즘에서 기능해야 한다.

문화·창의분야, 사회적 포용과 결속 사이의 상호 연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유럽,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들은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문화·창의분야의 경제력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그 잠재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 인식은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 가장 크고 시급한 도전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조치에 통합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문화 생산 및 소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때로는 공공 규정에 의해 추진된다) 문화·창의분야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더 빠르고 광범위한 기후 행동에 필요한 사고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문화적 표현이 더욱 강력하게 동원되어야 한다.

국제 개발과 관련하여 소수의 민간 공여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여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개발은행과 다국적 기구의 개발협력에 대한

문화와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미래 투자에 좋은 징조이지만, 더 넓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은 공적개발원조의 주변부로 남아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결과로 향후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창의성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혼합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출현은 보다 상업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문화·창의적 제품 및 활동은 무시할 수도 있다. 이는 여러 국가와 다국적 기구가 지원을 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다양한 정의와 개념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창의 산업' 또는 '오렌지 경제'와 같은 용어는 때때로 매우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sup>7</sup>.

그러나 협약에 의해 다루어진 전지구적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지속적이고 긴급한 조치가 가장 필요한 위기의 시기에 있다. 문화·창의적 하위 부문에 사용할 수 있는 협력 자금의 비율과 향후 몇 년 동안 추구되는 주요 결과(문화, 환경, 사회 및 경제)를 추적하는 것은 잠재적 불균형을 식별하는 데 중요하다. 이것이 국가 자금으로 수정되는지 여부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촉진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지표와 평가 도구를 설계하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데이터와 정책 평가가 여전히 주요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미래 투자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협약 당사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주요 사례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8, 불평등 감소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0,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1, 평화, 정의 및 강

력한 제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6이 있다. 교육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4와 성평등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5의 이행도 문화·창의분야에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과 협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약속이 필요하며, 책임있는 소비 및 생산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2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3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창의성이 더 많이 동원되어야 한다.

협약의 문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권고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당사국은 2030 어젠다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통합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 자발적 국가보고(VNR) 및 기타 관련 유엔 메커니즘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더욱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당사국은 지식 기반 투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 문화·창의산업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문화부 및 기타 문화 주체는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과 자발적 국가보고(VNR)의 준비에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30 어젠다에 언급된 거대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큰 틀에서의 정책 설계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 당사국은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 및 관련 문서의 참여 설계,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문화·창의분야를 담당하는 모든 계층의 정부를 참여시켜야 한다.

7. 예를 들어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오렌지 경제(Orange Economy)에 대한 한 보고서는 전통 예술 및 문화 부문과 함께 생체모방의 혁신을 다뤘다(Finley et al., 2017).

- 당사국은 또한 문화·창의분야가 그러한 계획 문서에서 전략적 부문으로 인식되는 경우 적절한 예산이 할당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당사국은 문화에 대한 접근 및 문화 생활에 취약한 그룹의 포함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문화 생산 및 참여에서 영도 형평성을 측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당사국은 역량과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 부문 간의 상호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성 불평등을 극복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적 과제를 해결한다.
- 모든 정부 계층의 문화정책 및 실행 계획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환경적 차원을 통합해야 한다. 반대로 환경 정책은 문화적 표현이 기존 모델을 재구성하고 특히 기후 행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 문화 및 환경 부문 간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당사국 및 기타 자금 조달 기관은 기후 위기에 대한 문화적 표현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을 늘려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을 기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류화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환경 요구 사항을 높이거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지역 및 국가 기관과 협력하는 세계적 기관은 스트리밍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미세 조정하고 국가가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 규제 조치를 설계해야 한다.
- 당사국은 전통적, 주변적, 하위 대체 지식, 무형문화유산, 예술 및 창의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여 기후 변화 및 다른 주요 사회적 도전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와 접근 방식을 탐구, 활성화 및 증폭하기 위해 예술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12(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및 13(기후 행동)에 대한 명시적 참조는 문화와 창의성의 힘을 발휘하고 해당 부문의 환경 및 기후 관련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기 위해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수 있다.
- 유네스코, 당사국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보고(VNR)뿐만 아니라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NSDP)에 문화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지역의 국가에 대한 지침을 추구하고 가속화해야 한다.
- 경제 및 사회 회복 계획이 문화·창의분야를 간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 문화다양성기금 및 개발은행의 자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이후 회복 기간 동안 문화협력 자금 지원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당사국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전담 국제 협력 프로그램과 기존 지식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문화개발 평가 보고서를 위한 정보 교환소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및 프로그램 평가에 추가로 투자하고 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목표 4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 목표 4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생성과 확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인권과 기본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국제 및 자국 법률을 시행하고,  
성평등과 예술적 자유를 증진시킨다

5 성평등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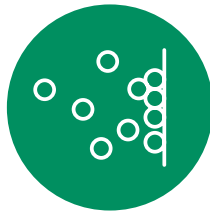
성평등

예술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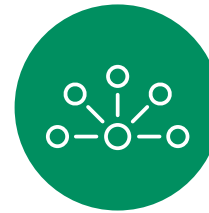
경과

- 공공 당국과 시민단체들에게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비상 조치로 인해 노동 조건과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증가함
- 예술적 자유에 관한 모니터링 역량이 증가함



도전

- 창의 분야의 직책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은 아직도 광범위하게 존재함
- 소득 보호 및 경력 전환 제도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
-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검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권고 사항

- 성평등과 다양성을 모니터링하고 소수자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을 도입함
- 예술가의 지위 향상 및 예술인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 보호 역량 구축
- 온라인을 포함한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및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통해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를 지원



데이터 요구사항

- 문화·창의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대표성 및 발전 수준
- 성별 및 문화 영역에 따라 세분화된,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등록
-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성평등: 한 걸음 전진, 두 걸음 후퇴

안나 비야로야 플라나스

## 핵심 발견

- » 문화·창의산업의 성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의 높은 비율이 증명하듯, 성평등은 점차 문화·창의 분야의 우선순위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을 위한 행동은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한 도전과제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 »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데이터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그러나 기존의 증거는 여성들이 리더십 직책에 있어 대표성이 부족하고, 공적 자금을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그들의 성과는 같은 일을 하는 남성들에 비해 비가시적이며 훨씬 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성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혔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성평등이 주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 » 시민단체들은 성평등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진전시키고, 여성 예술가들과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을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 » 영화 산업은 음악 및 출판(각각 13%), 공연예술(9%)에 비해 성평등 조치(65%)를 옹호하고 혜택을 주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9년 전 세계 60개 주요 영화제 주요 영화 부문 수상의 3분의 1(33%) 정도만 여성 예술가와 제작자에게 돌아갔다. 최우수 감독상과 최우수 각본상의 4분의 1 미만(24%)이 여성에게 수여되었다.
- » 게임 산업의 여성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30%에 불과하다. 이것은 일부 창의 산업(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관련 산업)에서 여성이 적게 드러나는 한편, 전통적으로 더 불안정한 산업에서는 많이 드러남을 확인시켜준다.
- » 젠더의 다양성과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창의분야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영역이다.

경과

성평등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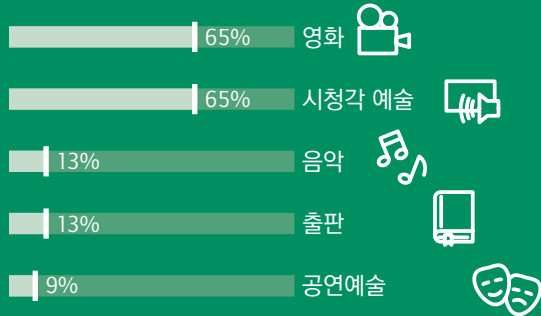
**77%**

의 당사국이 성평등에 대한 정책 또는 조치에 대해 보고

시민단체는 성평등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들의 행동 중 21%가 성평등에 관해 다룸

분야별 경과

정부 및 시민단체가 시행하는 성평등 이니셔티브:



도전

여성의 노동력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예술 또는 문화위원회를 이끌고 있지만,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함



2017년 기준, 10개의 주요 직책 중 평균 3명이 여성이었고 7명이 남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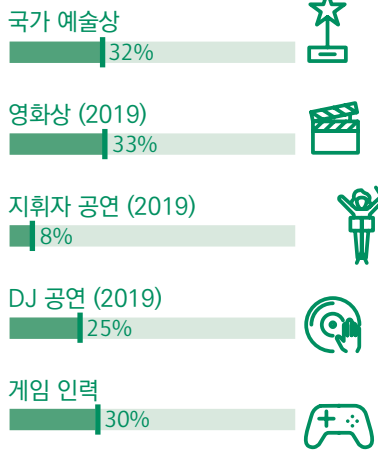


2020년 기준, 4명은 여성, 6명은 남성이었으나, 이는 지역별로 커다란 격차가 있음

게다가 변화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 정책의 27%만이 여성의 의사결정 직책에 대한 접근을 지원함

여성의 대표성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게 유지됨:



코로나19 팬데믹



**48.1%**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업무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고용 감소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음

평등에 관한 데이터



겨우 **53%**의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하여 해당 부문의 성평등을 모니터링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는 **17%**로 지역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성평등

채용, 승진, 자금지원 및 수상에 관한 우대정책 적용



노동환경

단기계약, 장시간 근로 및 임금격차와 같은 문화 분야의 불안정한 노동관행 철폐



데이터

성평등과 성 다양성을 향한 진전 상황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정책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률의 채택 및 강화

권고 사항

## 핵심 지표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문화미디어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참여 및 접근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다.

### 서론

2017년 미투(#MeToo) 운동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하룻밤 사이 미투 운동과 이에 관한 해시태그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가정, 직장, 공공장소, 인터넷 공간에서 젠더기반 폭력이나 차별을 경험한 이들과 연대하고 표현할 수단을 제공했다. 이 운동이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지배했던 산업 분야에서의 고충을 공유하기 위해 주연급 여배우들이 나섰고, 그 결과 미투 운동의 흐름이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전 세계 모든 계층과 직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영화 및 창작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적 위법행위, 젠더에 기반한 불평등, 침묵의 문화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경종을 울렸다.

문화·창의분야의 정책 수립 등 미투 운동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투(#MeToo)가 문화계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졌다. 스웨덴 노동환경청(Swedish Work Environment Authority)과 평등 옴부즈맨(Equality Ombudsman)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였다. 연극계에서는 정부에 성희롱 및 기타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치를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스웨덴예술위원회는 스웨덴의 여러 지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적인 변화를 일으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는 모든 종류의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조직에 관한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연화계의 성평등을 옹호하는 스웨덴영화연구소(Swedish Film Institute)는 2018년 칸 영화제에서 국제 세미나인 '두번째 테이크: 미투(#MeToo)의 다음 스텝(Take Two: Next move for #MeToo)'을 열어 국제적 차원의 옹호를 더욱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여성이 직면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길에 있는 강간범(Un violador en tu camino)' 공연은 여성 살인 및 젠더 기반 성폭력에 맞서 전 세계 여성들을 결집했다. 칠레의 페미니스트 공연예술 단체 라스테시스(LASTESIS, The Thesis)는 2019년 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철폐의 날을 맞아 산티아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 플래시몹을 기획했고, 이후 6대륙 54개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그 노래와 안무를 따라하여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sup>2</sup>.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고 정부 차원의 즉각적 대응이 요구되면서 문화·창의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및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회복 정책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팬데믹이 문화·창의산업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정부 조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UNESCO, 2020f).

여성 창작자와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 성평등을 현실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문화·창의산업의 성평등 달성이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그리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화·창의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및 다양한  
성정체성을 지닌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회복 정책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 한 걸음 앞으로

2007년부터 성평등은 유네스코의 두 가지 글로벌 우선순위 중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결속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 특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의 다음과 같은 약속에 의존한다.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 집단이 여성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의 문화적 표현을 창의,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

1. 리스크 커넥션의 예술가. 예술가 프로필: 칠레 라스테시스 <https://artistsatriskconnection.org/story/lastesis> (Accessed 22 October 2021).  
2. 400개 이상의 Un violador en tu CAMINO 공연 위치는 [HTTPS://UMAP.openstreetmap.fr/es/map/un-violador-en-tu-camino-20192021-actualizado-al-2\\_394247#3/57.47/-2.99](https://umap.openstreetmap.fr/es/map/un-violador-en-tu-camino-20192021-actualizado-al-2_394247#3/57.47/-2.99)에서 확인할 수 있음.(2021년 10월 22일 접속) - 페미니스트 지도제작자 Geochicas(2021)가 시작한 프로젝트

또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1980)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성의 창의성 개발과 다양한 예술 활동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조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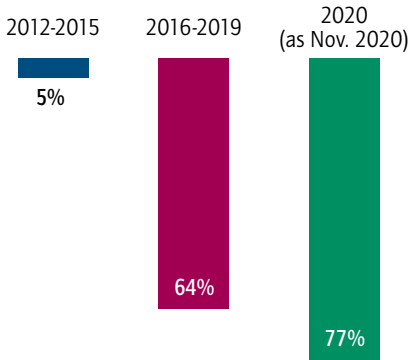
시간이 흐르면서 성평등은 기본적 인권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소로서 그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전 버전의 글로벌 리포트 이후 국가들은 문화·창의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5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2020년에 협약 당사국은 여성이 창의경제에 접근하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적 표현의 스펙트럼에서 여성이 대표되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책을 보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평등은 기본적 인권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소로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림 9.1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평등이 보고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첫 번째 보고 주기(2012-2015)에 이 주제에 대한 세부 정책에 대한 보고는 5%에 불과했다. 두 번째 보고 주기(2016-2019)에 당사국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보고하도록 권장되었으며, 제출된 보고서의 64%에는 성평등에 관한 정책이 하나 이상 포함되었다. 2020년에 시작된 세 번째 보고 주기의 경우, 협약의 모니터링 지표와 완전히 일치하는 새로운 보고 양식이 지렛대 효과를 가져왔다. 이 주기의 첫 해에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 보고서의 비율이 7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9.1

당사국들이 4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의 비율(%)별로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 및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의 진행상황



참고: 2020년의 비율은 2020년 후반에 제출된 새로운 4년제 정기보고서의 수치가 커서 기본 수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유네스코 2021d에 포함된 비율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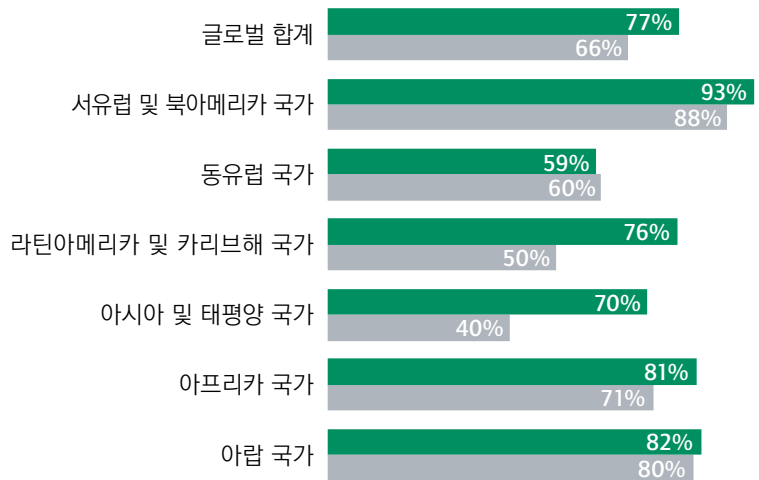
출처: BOP Consulting(2021).

각 국의 정부가 보고한 조치 중 일부는 문화·창의분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평등 전략, 새로운 법률 조항 및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분야의 성평등 증진

그림 9.2

지난 4년간 지역별 문화 생활에 있어 여성의 전면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또는 조치들

- 여성의 전면적 문화생활 참여 지원
-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창의적인 기업가로서 여성의 인식 및 발전 지원



출처: BOP Consulting(2021).

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 대사관은 스타트 AD(startAD, 액셀러레이터), 자이드 대학교와 함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중소기업 여성 기업가를 위한 6개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코모로 정부는 2018년 국가 성평등 정책을 수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문화를 통합했다. 또한 니카라과는 국가인력개발프로그램(National Human Development Programme)의 행동 방침에서 성평등을 직접 다루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연구소는 문화 활동에서 전 연령대(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공평한 참여(50%-50%)를 우선시 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평등 분야에 표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화 분야에 특정 조치를 포함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정책 외에도 문화·창의분야의 성평등 증진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당사국은 여성을 예술가나 문화 분야 전문가, 창의적인 기업인으로 인식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것보다(66%, 예컨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코칭, 멘토링, 펀딩에 대한 동등한 접근, 차별 금지 정책 시행 등),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관객이나 소비자로서의 여성을 문화 생활 전면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고한다(77%, 예컨대 문화 상품 등에 대한 접근성 등). 이 비율은 각 목표별 조치의 균형을 보이는 동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지역을 단계로 세분화하면 이 수치는 더 미묘한 결과를 보인다(그림 9.2). 이 장의 뒷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13개 국가 사례를 기반으로 문화 참여가 실제로 남녀간에 동등하게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영화산업은 성평등 조치를 지지하고 혜택을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기보고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여성을 문화 분야 창작자나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s)보다 소비자로서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창의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업적인 접근이나 예술 현장 및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대화에 창의적으로 기여할 기회가 더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인해 여성이 전문적이라는 인식이 어렵고 그로 인해 온전한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보고서 작성 중 이루어진 미투 운동에 의한 대중인식 제고와 관계없이 영화·

시청각 분야는 문화 분야에서 국내외 정부나 시민단체가 시행하는 성평등 이니셔티브를 주도했다(65%). 2015년에 첫 번째 글로벌 리포트가 발간된 이후의 추세를 돌아해보면 영화산업은 성평등 조치를 지지하고 혜택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증가한 관심의 혜택을 받은 다른 창작 분야는 음악 및 출판(각각 13%) 그리고 공연예술(9%) 순이었다.

2020년 1월부터 당사국은 정부 및 공공 문화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보고할 수 있었다(글상자 9.1). 즉 수정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작성한 4년제 정기보고서의 89%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리 및 비영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시민단체가 수행한 조치나 이니셔티브를 포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보고한 성평등 조치의 수가 높았다(모든 시민단체 조치의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창의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은 성평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출된 4년제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은 세계 전역에서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정부와 시민단체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문화적 표현은 다름을 포용하는 편견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함으로써 젠더 규범과 관계에 이익을 제기했다. 실제로 여성 및 다양한 성정체성을 지닌 예술가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대규모로 증가하는 연구는 문화적 표현의 변혁적인 힘을 지적한다. 예술과 창의산업은 젠더 규범을 형성하고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대치에 이익을 제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MacNeill et al., 2018).

**글상자 9.1 • 소마 북카페 독서 이니셔티브**

2008년에 설립된 소마 북카페(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는 문학의 허브이자 여가, 문화, 학습을 위한 공간이다. 서점, 카페, 이벤트 공간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출판 행사, 예술문화 행사,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한다. 소마는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을 대화, 통합 교육 및 평생 학습을 위한 '언어'로 사용한다.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은 페미니스트, 특히 여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소마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허스토리(Herstories)'는 탄자니아 페미니스트 운동 연합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페미니스트 스토리텔링, 문서 및 아카이브 플랫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이니셔티브는 25개의 여성 권리 단체와 함께 주류 관객이 접근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디어를 사용하여 여성의 역사를 발굴, 보존 및 보급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4개의 페미니스트 연구 및 창의적 글쓰기 워크숍을 기획했다. 소마는 페미니스트 온라인 TV를 통한 페미니스트 소통과 운동을 구축하는 가운데 문학과 예술이 갖는 역할에 대한 대화를 주도한다. '울리자 와헨가 다다(UlizaWahenga Dada(할머니들에게 물어보세요))'는 스와힐리 해안을 따라 여성의 이야기를 찾고 조명하기 위한 예술보존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가들은 레지던트 교육과 멘토십에 참여하고 해변에 위치한 유적지에서 여성 역사에 대한 최종 전시를 공동 기획하게 된다.

출처: United Republic of Tanzania QPR, www.SOMABOOKCAFE.COM.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는 여성, 소수자, 모든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배척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표현의 변형 잠재력(transformative potential)에 관한 문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문화·창의분야는 '타인'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다양성에 대한 공감, 존중, 환영하는 마음을 키우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되었다(MacNeill et al., 2018; Bielby and Bielby, 1996). 2021년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재하고 로마에서 개최된 'G20 on Culture'는 G20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를 주제로 한 회의였다. G20 문화 장관 회의의 로마 선언은 사회적으로 문화·창의분야는 '건강 및 삶의 질에 기여, 사회적 포용 촉진, 성평등 및 여성 권한 부여, 지역 사회 자본, 행동 변화 확대 및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전환,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위한 생활 환경의 질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제1.4조).

문화·창의분야에서 성평등의 경제적, 사회적, 상징적 가치가 공공 및 정치적 의제에 대한 사후 고려사항으로 취급되기보다는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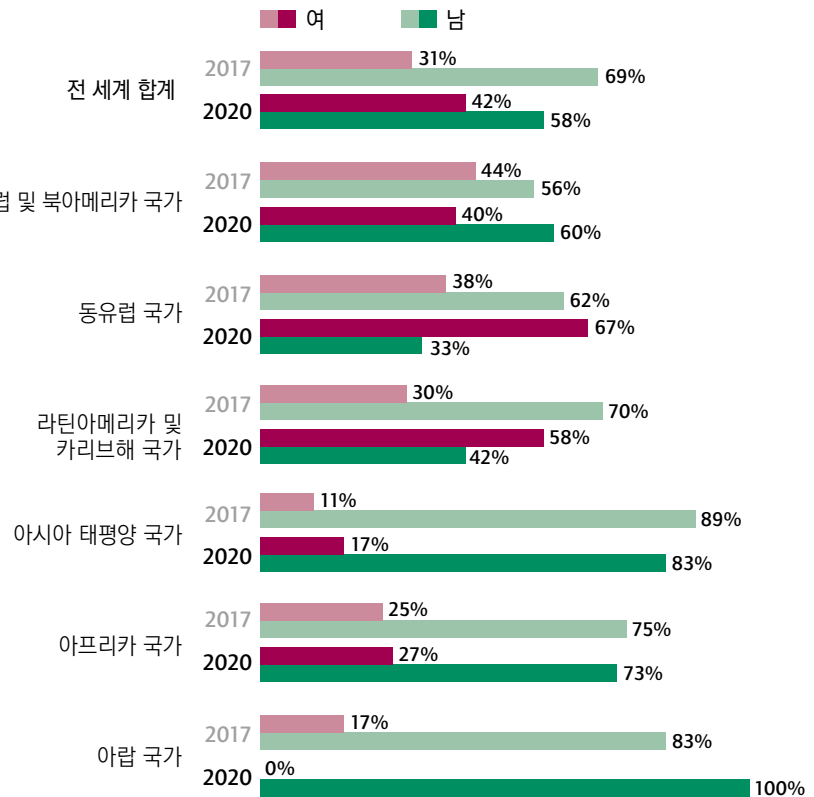
### 경력사다리 오르기

이전 글로벌 리포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다양한 노동인구 측면에서 특히 관리직이나 의사결정직에 대한 여성의 접근은 성평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문화 노동인구 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화적 표현과 소비의 불평등 및 권력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Allen et al., 2017).

이는 문화산업분야의 여성 및 다양한 성정체성을 지닌 예술가나 창작자들이 남성과 동일한 창작의 자유를 받지 못하기 때문

그림 9.3

협약 당사국의 국립문화예술위원회 기관장의 남녀 성비



출처: IFACCA/BOP CONSULTING(2021).

이다 (Vozab and Zember, 2016; Allen et al., 2017). 더욱이 문화 생산을 뒷받침하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 논리는 여성과 소수자 구성원을 포함한 문화 노동자가 편향된 표현 형식을 재생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분야에서는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이야기를 우선시할 수 있다(Allen et al., 2017).

여성과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문화분야에서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따른 성공 여부는 거버넌스 모델과 젠

더 변혁적 실천<sup>3</sup>과 더불어 명시적 젠더 전문가(예: 젠더 고문)를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모아 관련 정책을 구현 및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Hillenbrand et al., 2015). 궁극적으로 젠더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젠더 변혁적 접근 방식은 여성 개개인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하며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는 권력의 역할과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Hillenbrand et al., 2015).

3. 젠더 변혁적 접근 방식을 통해, 유네스코는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창의분야 및 산업에서 젠더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젠더별 정책을 이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rainingcentre.UN-WOMEN.ORG>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단계는 성평등을 담당하는 부처, 정부 기관 및 의회 기관과 관련이 있다. 협약 당사국의 99%가 관련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72%는 해당 기관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와 관련이 있다고 선언했다.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는 자메이카(문화·젠더·엔터테인먼트·스포츠부)와 멕시코(문화사무국 내 젠더 부서 포함) 등에서 보고됐다.

간단히 말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0명인 곳에서 평균적으로  
6명은 남자, 4명은 여자이다.

리더십 직책 같은 경우 지난 몇 년간 성평등을 위한 옹호 및 정책 수립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그림 9.3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3년 동안 국립예술기관이나 문화위원회를 이끄는 남녀 성비의 격차가 줄어들어 여성의 효과적인 전면적 참여와 모든 리더십 직책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지속가능발전목표 5.5). 그러나 아직도 여성(2017년 31%에서 2020년 42%로 권력 점유율이 높아짐)에 비해 남성이 대다수의 리더십 직책을 맡고 있다(58%). 간단히 말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0명인 곳에서 평균적으로 6명은 남자, 4명은 여자이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거의 동등한) 유망한 진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선진국은 평등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비해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40%에 못 미친다. 아시아 및 태평양,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기껏해야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은 승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아직도 성다양성은 부족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은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 조직 문화는 늦은 시간에 자주 발생하는 문화 활동(예: 콘서트, 연극 공연), 순회공연의 필요, 주로 무급 초과근무를 많이 요구하는 프로젝트성 킷 이코노미(gig economy) 등의 특성으로 인해 긴 근무 시간을 선호한다. 여성이 가정에서 더 많은 가사 및 돌봄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활동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적합한 경향이 있다. 여성의 일상적 현실에 맞는 근로조건과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 없이는 이 분야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어렵다. 남성에게 가사일을 장려하는 제도 부족, 포괄적인 육아휴직의 부재 등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는 문화 분야의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성 멘토의 부족, 인맥의 부족, '유리천장'(여성의 경력 발전 제한) 등이 여성 문화전문가의 경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Villarroya and Barrios, 2019).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전 세계에서 보고된 문화 정책 중 여성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창의적인 기업인이 의사결정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27%에 불과하다.

첫 번째 과제는 여전히 더 많은 여성이 예산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핵심 인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글상자 9.2). 더 복잡한 두 번째 과제는 개인 수준을 넘어 더 많은 여성이 리더십을 맡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 조직과 창의적 생태계의 근무조건을 해결하는 젠더 변혁적 접근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다.

### 문화 고용의 젠더 격차 해소

남녀 비율의 격차를 해결하고 문화·창의 분야의 자금 지원 및 기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측면에서의 정책 채택은 지속가능발전목표 5.c에 기여한다. 측정 유형 및 각각의 관련 예는 다음과 같다.

특히 시민단체가 가장 자주 보고한 메커니즘은 여성 예술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종종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전시나 축제와 같은 예술 행사 기획이었다.

### 글상자 9.2 • 호주예술위원회, 여성 예술가들에게 투자

2017년 11월, 호주 정부의 예술 자금 지원 및 자문기관인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the Arts)는 활동 중인 전문 예술가의 삶과 근무조건을 추적하는 연구 시리즈 중 여섯 번째인 '예술품 만들기: 호주 전문 예술가의 경제 연구(Making Art Work: An Economic Study of Professional Artists in Australia)'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호주 여성 예술가는 여전히 남성 예술가보다 수입이 적다. 소득 격차는 이전 조사(2009) 이후 좁혀진 25%로 호주 노동력 전체의 성별 임금 격차인 16%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호주예술위원회의 자체 보조금 데이터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남성 지원자가 여성 지원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호주 일부 예술 형식(특히 음악)의 리더십 직책에서 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호주예술위원회의 리더십 프로그램에는 지속적으로 여성이 지원하고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는데 이는 여성 예술 지도자에 대한 위원회의 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Australia QPR.

예를 들어 문화부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헤초포르무헤레스(Hecho por Mujeres, 여성이 제작)는 페루 최초로 여성 감독의 장편 영화를 선보이는 영화제다. 페루 내에서 연간 개봉되는 장편영화 중 여성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 5~8%에 머무는 등 지속적인 영화계의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도에 출범했다. 2018년과 2019년에 거쳐 본 영화제는 10개 지역의 40개 이상의 장소에서 페루 작품 150편 이상을 상영했다. 프로그램은 예술가 및 영화 제작자와의 만남,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졌다. 르완다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시네 여성 르완다(Ciné FEMMES RWANDA)가 주최한 우루사로 국제여성 영화제가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변화, 경제 성장을 위한 창의산업의 역할을 촉진하고 영화제작 분야의 새로운 여성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파나마의 파나마 여성페스티벌(Fémina Festival in Panama)은 영화, 연극, 시각예술, 공예, 스탠드업 코미디, 음악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성 창작자들을 위한 워크숍, 마켓플레이스 및 토크쇼를 운영하는 다층적 행사이다.

여성 예술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 행사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여성창의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정책이다.

여성창의인재 지원을 위한 정책 중에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많이 보고되었다. 흔히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정책은 종종 여성이 창조하거나 생산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년부터 말리의 문화협회인 코테코흐(Coté Cour)는 여성예술(Artis Femmes) 프로젝트를 통해 조명 디자인, 세트 디자인, 극작가, 연출, 예술경영, 특히 연극 분야에서 100명 이상의 여성을 교육했다. 협회는 여성 동문들

이 취업 시장, 페스티벌 및 기타 예술 레지던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성 동문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뮤직 크로스로드 짐바브웨(Music Crossroads Zimbabwe)'에서 여성 예술가를 위한 기술 향상 워크숍을 제공한다. 이 이니셔티브의 결과로 짐바브웨 음악가연합의 '여성 데스크(Women's Desk)'가 전국 여성음악가의 이익과 여성 역량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식별하는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2018년 유네스코 사브리나호 '다음은 당신: 창의적 여성 역량 증진(You Are Next: Empowering Creative Women)' 이니셔티브가 문화 분야의 다면적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그리고 2년 동안 멕시코, 팔레스타인, 세네갈, 타지키스탄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에게 기술적, 창의적, 기업가적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 및 과정을 제공하며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단련한 4개의 뛰어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했다. 이 프로젝트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연극의 날 프로젝트(Ayyam Al Masrah)이 개발한 기술 기반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 시청각 교육'으로 참가자들에게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법과 즉흥 연주, 캐릭터 분석 및 개발을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는 법을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아트 아카데미'는 비정부 기구인 기술협력개발청(ACTED: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 설립한 박트리아 문화센터(Bactria Cultural Center)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젊은 여성 문화 기업가에게 코딩, 디지털 제작 및 기업가정신 과정을 제공했다.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으로는 여성 예술가 지지 행사, 포럼, 대회 및 시상식이 있다. 이라크 문화·관광·고대유물부는 시, 소설 및 문학 비평 분야에서 아랍 지역 여성 작가의 노출 증진을 목표로 매년 나지크 알 말라키가 여성 문학 창의상을 기획한다. 국제행사인 시상식을 통해 아랍 국가 간

의 문화교류 촉진 및 문학시장 확장을 도모한다. 마찬가지로 알제리 문화부와 통신부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 하에 여성 예술가의 이름을 딴 국내외 문학예술 창작 관련 상을 제정했다. 또한 알제리 정부는 여성 예술가와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을 육성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문화 및 기타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통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을 국립여성관측소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리질리아트(ResiliArt) 이니셔티브는 2020년 4월 유네스코에서 시작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예술가를 위한, 예술가에 의한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여성에게 글로벌, 지역 및 국가 토론을 주도하고, 문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제를 설정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과거와 현재의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이에 유네스코는 팬데믹 기간 동안 서아프리카 문화 분야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8월 디지털 캠페인 '회복력 있는 목소리: 서아프리카 여성 크리에이터'를 시작했다.

다른 유형의 도구로는 문화기관, 의사결정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참여에 관한 법률 및 규제 개발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특정 쿼터 및 목표도 포함된다. 알바니아 사회복지청년부와 재정부의 알바니아에 있는 UN 여성국가사무소와 협력하여 연간 및 중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젠더 예산 원칙을 도입하려 앞장섰다. 목표는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성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이니셔티브의 혜택을 받는 24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는 문화부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9년 12월 여성 쿼터 및 여성 예술가의 뮤지컬 행사 접근에 관한 법률 제27539호가 채택되어 성별, 젠더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최소 3명의 예술가나 음악 단체가 참여하는 라이브 음악행사에서 최소 30%가 여성이거나 스스로 인식하는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들이어야 한다.



코로나 시국의 가상 뮤지컬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9년 멕시코 문화부는 남녀 평등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세우는 문화 프로그램에 적용할 컨셉 가이드를 제공하는 국립 프로그램 '에퀴타티바(Equitativa)'를 도입했다. 가이드는 모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반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창작, 생산, 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창작자의 작품을 가시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우대 조치로 설계되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및/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시청각분야에서 이러한 조치의 목표는 핵심 크리에이티브 위치에서 동등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예로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Screen Australia), 스크린 아일랜드(Screen Ireland), 오스트리아 영화협회(Austrian Film Institute),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및 노르웨이 영화협회(Norwegian Film Institute)가 시행한 이니셔티브가 모두 자금 지원 결정을 성평등과 연결시켰다. 그 결과 배당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분야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유엔국제노동기구(ILO)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영화, 텔레비전, 방송 산업의 90개 이상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이 조직되는 방식, 산업의 특정 조직 역할 및 다양한 고용 사이의 연관성, 성희롱의 패턴을 분석했다. 또한 업계의 근본적인 성 불균형을 해결하는 조치와 함께 폭력 및 괴롭힘을 예방, 해결 그리고 근절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ILO, 2020b).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연극영화 분야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Hulki Okan Tabak / Unsplash.com

## 문

창의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려면 성별에 따른 기회의 차이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말해 공정성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력을 높이고 존중과 관용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평등을 실현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형평성을 향한 길을 정립하고 낙관론의 원천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형평성 달성에는 연기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에게 자기계발이나 지식 확장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것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동일한 인정과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그들은 성별,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다른 총위를 구분하는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고 그들의 근무 조건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과정과 성취를 강조함으로써 피부색, 외모, 성적 취향이 재능과 발전에 대한 열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이다. 우리의 현실을 인지하고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 역사와 반성을 바탕으로 더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 창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어느 분야라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감명을 주어야 한다.

**알릿자 아마리시오 마르티네즈**  
배우, 유네스코 원주민 친선대사

또한 정부는 새로운 의무를 핀란드영화제 단에 도입하여 공공자금이 들어간 제작 과정에 지켜야 할 법적 의무, 괴롭힘 방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보장하게 했다. 동일한 조항은 2020년부터 교육부 모든 운영 보조금에 적용되었다(박스 9.3). 또한 시청각 분야에서 방글라데시정보부는 업계 내 모든 종류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 및 텔레비전 연구소를 통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프랑스 문화부는 성적 및 젠더 기반 폭력과 괴롭힘에 대처하고자 시청각 및 영화 업계의 정규직과 임시직을 위한 법적, 심리적 경보 및 청취 부서를 만들었다.

여성과 다양한 성적체성을 가진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로 설립되고 주요 배우,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와 함께 옹호 그룹으로 활동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는 공유된 경험을 이용하여 경력 장애물을 식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할 지렛대를 집합적으로 반영한다. 한 예로 감비아에는 '여성 과 문화 발전을 위한 젠더 언론인 네트워크(Network of Gender Journalists for Women and Cultural Advancement)'가 있다. 약 9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는 여성과 문화에 관한 약 26개의 기사를 발표했다.

세계 어디서나 문화·창의산업 업계에서 여성의 직업이 인정과 찬사를 받기는 훨씬 더 어렵다.

한편 '연결된 라틴 아메리카(Conectadas Latinoamérica)'는 여러 라틴 아메리카 도시의 여성 예술가, 관리자, 프로듀서 및 기술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영화시청각 산업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로는 업계 평등 및 다양성에 대해 성찰하고 투쟁하는 데 전념하는 프랑스의 콜렉티프(Collectif) 50/50과 경력을 쌓으려 노력하는 여성 영화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둔 여성영화르완다(CinéFEMMES RWANDA)가 있다. 지역 수준에서 뮤직HH우먼(musicHH-women)은 독일 함부르크 최초 여성 음악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로 고위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규정된 역할과 고정 관념을 극복하며 음악산업에서 여성의 존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여성의 문화생활 향상

국가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 성별로 가장 많이 분류되는 것은 예술문화 행사 및 활동 참여 양상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수집된 데이터 세트를 온전히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지구적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프리카나 아랍 국가와 같은 지역은 지리적으로 균형잡힌 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증거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협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5.c의 이행을 위한 지표로 여성의 문화활동 참여율을 정확하게 측정한 13개국<sup>4</sup> 중 호주와 캐나다는 85%(2018)와 87%(2016)로 여성 문화 참여율이 가장 높은 두 선진국이다.

### 글상자 9.3 • 핀란드 교육문화부의 성평등 정책

미투 토론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필요성에 동기부여를 받은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2018년 핀란드 문화·창의분야의 성평등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에서 다룬 질문에는 핀란드 예술문화 현상이 성적 또는 젠더 기반 괴롭힘 및 부적절한 행위에 취약한 이유가 포함되었다. 큐포레 문화정책연구센터에서는 연구 진행 후 최종 보고서 〈여자도 남자처럼 활동해! 문화계 직장에서 평등과 복지를 향상하는 법(She plays like a man! How to strengthen equality and wellbeing at work in the cultural field?)〉을 2019년에 출판했다. 이 보고서는 최신 통계와 모범 사례 외에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웰빙을 증진하고 더 평등한 근무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자금 지원 신청서에 평등 계획서를 포함하고, 위법 행위의 경우 금융 제재와 함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알림.
- 문화·창의분야의 성평등 현황에 대한 지속적 데이터 수집 및 출판
- 관리자/리더/감독자를 위한 성평등 교육
- 시대에 뒤떨어진 성 전통, 고정 관념, 천재 신화 등의 해체 - 그 누구도 타인을 억압할 권리가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 소명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근무조건은 보장되어야 함

핀란드 교육문화부가 2019년에 수행한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는 운영상의 성평등 및 차별을 촉진하기 위해 2020-2023 포용 지침을 채택한 것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교육부의 모든 운영 보조금에는 성평등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모든 수혜자가 운영에서 성평등 및 차별 금지를 홍보하고 보고하며 작업이 성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6년 협약 이행 관련 정기보고서에서 젠더는 핀란드의 예술문화정책 주제가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출처: Finland QPR, [www.cupore.fi/en/publications/cupore-s-publications/the-girl-plays-like-A-MAN](http://www.cupore.fi/en/publications/cupore-s-publications/the-girl-plays-like-A-MAN).

4. BOP 컨설팅의 리서치에 포함된 13개국: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두 경우 모두 이 비율은 여성이 남성 참여율보다 약간 높았고 뉴질랜드(70%), 스위스(69%), 한국(67%), 멕시코(61%), 페루(60%)에서는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문화 활동의 유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이를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문화 생활에 참여하는 이유와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 활동에 관심이 더 많음을 시사하지만 그들이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결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유럽연합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재정을 더 많이 고려하기에 영화관, 라이브 공연, 유적지 등에 더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stat, 2021b). 대한민국, 싱가포르 및 스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여가 시간, 기존 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 휴양 시설, 함께할 친구, 파트너 또는 가족, 문화 행사 참석 경험 등의 결여를 기타 요인으로 지목한다. 사회적 규범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여가 활동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 평등한 기회를 위한 요구

세계 어디서나 문화·창의산업 업계에서 여성의 직업이 인정과 찬사를 받기는 훨씬 더 어렵다. 영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업무가 남성의 업무보다 주목받지 못한다(Simonton, 2004). 또한 남성성이 창의성과 연결된 현실과 이 상황이 어떻게 여성을 보다 권위있는 창의적 역할에서 소외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Hesmondhalgh and Baker, 2015). 여성의 재능과 장점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다(Harvey and Shepherd, 2016). 이러한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중이 줄어

그림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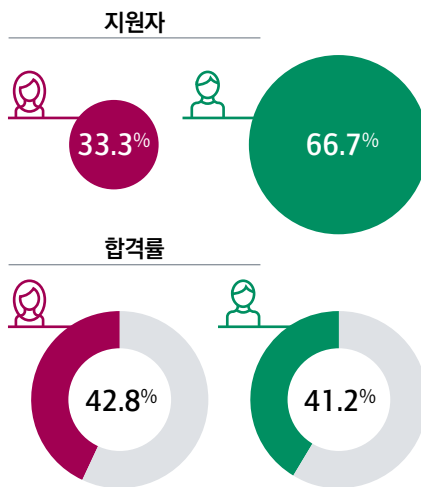
2019년 주요 영화제의 여성 수상자 및 여성 심사위원 비율



출처: BOP CONSULTING(2021)

그림 9.5

2020년 미디어 보조금의 성별 균형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1).

해당 분야별 여성 참여도

분야	지원자 비율	합격 비율
TV - 각본가	37%	41%
TV - 감독	28%	40%
기획·개발 (싱글&슬레이트) - 각본가	38%	40%
기획·개발 (싱글&슬레이트) - 감독	34%	37%
선택적 배급 - 각본가	38%	33%
선택적 배급 - 감독	23%	22%
트레이닝	n.d.	55%

든다는 것은 이 경력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여성이 더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UNESCO, 2014; Berridge, 2019).

이는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도 반영되었는데 국립 예술상 수상자 중 여성은 32% 이하로서 선진국(37%)과 개발도상국(29%)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글로벌 리포트를 위해 60개 주요 영화제의 여성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주요 영화부문의 상 중 약 3분의 1(33%)만이 여성 예술가와 프로듀서에게 수여됐다. 감독상과 각본상 부문에서는 4분의 1 이하(24%)가 여성에게 수여됐다.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진전은 그림

9.4와 같이 심사위원의 남녀 비율이 거의 동등(47%)한 수준인 점이다.

세계적으로 결정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영화시청각 산업을 지원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크리에이티브 유럽-미디어 프로그램(Creative Europe - MEDIA Programme)의 최근 유럽 통계에 따르면 여성 전문가의 대표성은 여전히 적다. 훈련 참가자의 50% 이상이 여성인 반면, 선택적 배급 지원 제도에서 선정된 20편의 영화 중 6편만이 여성 감독이었다(European Commission, 2021). 또한 이 수치는 2020년에 프로그램의 전체 지원자 중 33.3%만이 여성임을 나타낸다(그림 9.5).

남성 지원자(42.8%)보다 여성의 합격률이 약간 높지만 남성 지원자가 여성 지원자보다 많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여성 영화/TV 감독 및 작가 지원을 유치하고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화 속 성평등은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다. 아프리카 중부, 동부 및 서부에서 영화계의 여성 비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짐바브웨를 포함한 여러 아랍어 및 영어권 국가에서는 30% 이상의 여성 전문가가 카메라 앞과 뒤에서 고무적인 역동성을 보여주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술직은 남성이 담당한다. 영화 전문가의 87%가 화면에서 보여주거나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제한이 있거나 스스로 제한을 두게 된다고 응답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UNESCO, 2021c).

상업적 논리는 주요 영화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여성을 창의적 역할로 올리려는 계획을 포함한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방해한다. 스웨덴영화산업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여성 감독이 젠더를 다르게 묘사하거나 현재의 젠더 규범에 도전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보고했다. 큰 예산은 종종 더 제한적인 예술적 통제와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관습을 깨뜨릴 기회가 적다. 여성 프로듀서들은 여자 주인공 캐릭터를 호감 가는 여성, 즉 육체적으로 매력적이고 순종적이며 의견이 없는 인물로 그려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들은 또한 여성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양립할 수 없는 촬영장에서의 긴 시간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문화계 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불만을 반영함). 즉, 상업 프로덕션의 더 많은 여성의 존재가 카메라 뒤에서 그들의 표현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꼭 여성의 실제 삶의 경험을 보

여주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여성 캐릭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트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더 나은 근무 조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Jansson & Wallenberg, 2020). 따라서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성별이 카메라 뒤에서만 아니라 화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영화계의 규범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음악 산업, 구체적으로 클래식 음악에서는 남녀 지휘자 비율의 불균형이 극명하다. 바흐트랙(Bachtrack<sup>5</sup>, 글로벌 온라인 클래식 음악 행사 목록 플랫폼)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한 지휘자 100명 중 단지 8명만이 여성이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8배 증가한 수치이지만, 창의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진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저조한 비율이 우려된다.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성별이 카메라 뒤에서만 아니라 화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영화계의 규범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15년과 2016년에 여성 작곡가 대상으로 국제 조사를 실시했지만 주로 호주, 북아메리카 및 유럽(응답자 225명 중 84%)에서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SNS, 사회적 자본, 온라인 가시성, 가족 지원, 외부 지원 등이 계속해서 그들의 경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nnekam et al., 2019).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보조금과 자금 지원 기회, 가시성을 향상하기 위해 작곡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성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보다 야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5. www.bachtrac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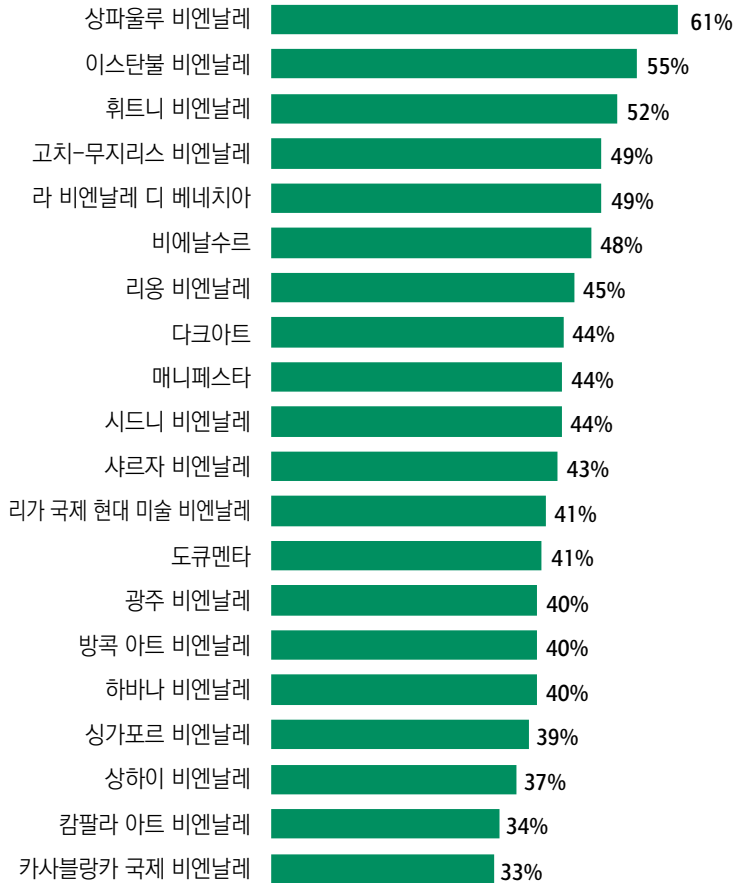
시각예술 분야는 여성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표현에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음악 장르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여성 아티스트의 비율은 2016년 15%에서 2019년 25%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균형이 맞지 않는다. 또 기존 데이터에 따르면 대규모 페스티벌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공연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당연히 여성 예술감독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이나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페스티벌은 여성 공연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성평등과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위해 현 상황을 개선할 방향을 제시한다.

시각예술 분야는 여성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비중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스탄불 비엔날레, 베네치아 비엔날레, 샤르자 비엔날레, 다코아트(DAK'ART) 및 하바나 비엔날레와 같은 아트 비엔날레는 여성 큐레이터와 여성 예술가의 참여를 크게 향상시켰다. 2015-2017년 동안 상기 비엔날레에는 26%(하바나 비엔날레)와 43%(이스탄불 비엔날레) 사이의 여성 큐레이터와 예술가가 있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들의 대표성은 40%(하바나 비엔날레)에서 55%(이스탄불 비엔날레) 사이로 향상되었다. 그림 9.6은 20개 국제 비엔날레에서 참여하는 2천여 명의 작가와 큐레이터를 고려해 여성 작가와 큐레이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수치는 증가했지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여성 예술가와 큐레이터가 더 많이 참여한 행사는 상파울루 비엔날레(브라질), 이스탄불 비엔날레(튀르키예), 휘트니 비엔날레(미국)뿐이다. 남녀 전문가와 예술가에게 균형잡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나머지 17개의 비엔날레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림 9.6

2018년-2020년 20개 국제 아트 비엔날레에 있는 여성 예술가 및 큐레이터 비율



출처: BOP Consulting(2021).

국제 데이터로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연구에 따르면 졸업 직후 기회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2018년 2월 프랑스의 평등고등위원회(Haut Conseil à l'Égalité)에서 문화예술 분야 남녀 불평등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분야 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여성(60%)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성보다 덜 활동적이고, 임금도 덜 받고, 문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도 않고 책무도 덜 맡게 된다. 동등한 역량과 책무에 대해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18% 적게 벌고 있다. 고임금 직업의 상위 1%에서 27%만이 여성인 반면, 하위 10%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 중에는 57%가 여성이다.

비율은 분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공연예술 분야에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대표된다.

- 공연예술을 준비하는 학생의 52%
- 현직 예술가 31%
- 작품이 무대에서 표현되는 작가의 11%
- 운영직의 18%
- 1980년부터 수상 경력이 있는 예술가의 4%~12%

또한 공공 보조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23%만이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다. 동등한 능력과 책무에 대해 공연예술 분야의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27%

적게 벌고 있다(Haut Conseil à l'Égalité, 2018; EENCA, 2019).

이 통계는 극명한 성별차를 보여주며 문화계에서 지속적인 성별 구분이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특정 창의적 노력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성별과 관련이 있다. 빅 데이터와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미디어가 여성의 창의성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조사한 결과,<sup>6</sup> '노래하다', '노래했다', '춤을 추다', '춤을 추었다'와 같은 단어는 여성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제작했다', '연출했다', '그렸다'는 남성을 지칭할 가능성이 더 컸다. 그러나 미투 운동 이후 창작분야 내에서 여성이 더 자주 언급되는 것 외에 일부 창의적 활동은 성 중립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창의적 노력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성별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 '집필했다', '제작했다', '연출했다'라는 단어는 더 이상 '그(남성)' 뒤에 오는 경향이 없는 반면, '연기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여성과 더 관련이 있다(영화나 연극에서 어느 역할을 '연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게임 같은 영역에 대한 보고에서는 성 불균형이 지속된다(Nesta, 2019).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고용 과정에서 더 큰 투명성과 절차가 있는 환경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Conor et al., 2015; De Vuyst and Raeymaeckers, 2019). 특히 문화·창의산업에서 대규모 조직을 제외하고는 입소문과 평판에 기반해 작업을 확보하거나 할당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상대적으로 이례적이다.

6. 이 분석은 2000년-2018년 The Guardian 신문에 게재된 50만개 이상의 기사를 기반으로 한다(Nesta, 2019).

## 코로나19: 두 걸음 후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은 코로나 시국에서 중요하다. 코로나는 전 세계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문화 분야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UCLG 문화위원회, 2020; EY Consulting, 2021). 예술직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이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했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여성 문화 인력에 미친 세계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일반 여성 인력에 대한 데이터조차도 부족하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전반적인 추세는 문화·창의산업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일부 특정 연구가 등장하고 있지만, 인구 통계나 성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문화·창의산업 관련 연구는 불충분하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제한적인 가용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상황은 암울해 보인다. 유엔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과 국가 소득 그룹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 손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세계적으로 2020년 여성의 고용 손실은 5.0%, 남성의 3.9%이다[...] 모든 지역에서 여성은 이 위기 가운데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비활동적 상태가 될 가능성, 즉 노동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다.'(ILO, 2021c)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여성 고용률이 48.1%<sup>7</sup>로 숙박·음식서비스 48.8%, 교육 65.4%, 의료 및 사회적 지원 75% 등과 함께 여성 고용률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근무시간이 7.6% 감소했다(WEF, 2021a). 문화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였으며 지원 후 노동 소득(정부 소득 개입 제도 이후 소득) 손실은 젊은 노동자, 여성, 자영업자 및 저숙련·중숙련 노동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컸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실시한 영화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여성 프리랜서의 수가 연초 대비 51%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남성의 경우 5% 감소)(Florisson et al., 2021).

코로나는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모든 근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창작자의 개인의 삶과 경력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는 유급 직업의 공식 교대와 무보수 돌봄 노동의 비공식 교대라는 속담인 '2 교대' 책임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 자녀가 있는 여성은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남성이나 부양 자녀가 없는 여성과 남성보다 팬데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학교와 보육원의 폐쇄로 인한 더 큰 '2 교대'는 근무시간 능력을 감소시켰고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력 중도 이탈률을 증가시켰다. 가정에 자녀가 있는 여성은 직업안정에 대한 불안도 더 높았고 일과 조직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가사 부담(육아 등), 쉽게 얻지 못하는 일과 삶의 균형, 생산성 저하, 부적절한 재택사무실 환경이나 장비, 비정규 근무 시간(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등으로 인한 재택의 어려움을 경험했다(WEF,

2021a).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의 봉쇄 이후 문화·창의분야의 프리랜서 및 자영업 여성 전문가들은 돌봄 책임을 고려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CCEBA and FLACSO Argentina, 2021).

코로나는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모든 근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창작자의 개인의 삶과 경력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팬데믹은 또한 많은 사설 예술 공간, 문화 프로젝트 및 프리랜서 기반 협업, 특히 여성의 비공식 근무 조건으로 인해 문화적 고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강조했다. 문화·창의분야의 자영업 비율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문화 분야 종사자의 절반 이상(64%)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2020년에 80% 이상의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UNESCO et al., 2021). 2020년 EU 전역에서 문화 노동자의 3분의 1(33%)이 자영업자였으며, 이는 전체 고용 평균의 두 배이다(14%). 그러나 국가 간의 차이는 상당하다(네덜란드 47%, 루마니아 16%). 여성은 또한 문화 분야에서 남성 대비 상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여성 68%, 남성 83%, Eurostat, 2021a). 이는 소득이 시장 혼란(코로나 시국과 같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유한 69개국에서 집계한 데이터(WEF, 2021a).





© Noah Buscher / Unsplash.com

# 민

주주의 사회는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평등에 의존한다. 세계 문화개발은 역동적이고 도전적이며 독립적인 힘으로 작동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이 스웨덴 문화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문화다양성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문화·창의분야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계인권선언문과 그에 따른 인권 문서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 사회 계약을 명시한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성평등은 인권을 증진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차원이다.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은 여성이 자신의 문화적 표현을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당사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권력과 영향력의 평등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목표는 문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평등한 상황에서 창의성이 발현되고, 그 창의성은 번영하는 문화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예술적 자유의 행사라는 맥락에서 성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권의 이러한 기본적인 측면을 증진하는 것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코로나로 인한 제재와 봉쇄로 인해 문화·창의산업과 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평등과 예술적 자유 모두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다. 창의경제와 일자리 기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질의 근로조건, 공정한 보상 및 견고한 저작권 체제의 세계적 구현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것은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문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문화기반시설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는 협약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 및 특정 문화 정책 개발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의 결과를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자가 문화부 장관으로서 이행해야 할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지넷 구스타프스도터  
스웨덴 문화부 장관

팬데믹은 많은 사설 예술 공간, 문화 프로젝트 및 프리랜서 기반 협업, 특히 여성의 비공식 근무 조건으로 인해 문화적 고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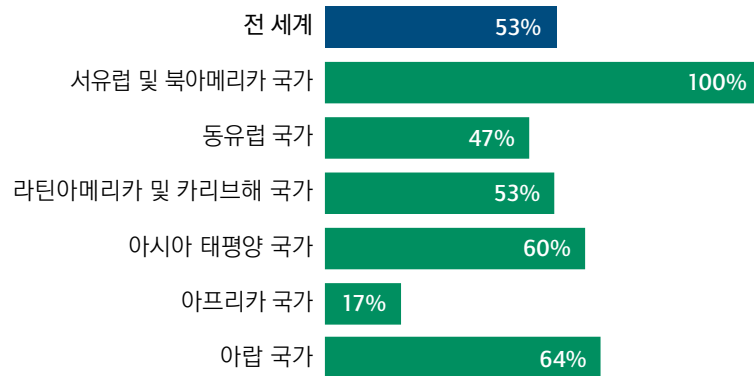
문화·창의분야는 봉쇄 조치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게임산업은 이익을 얻은 유일한 산업이었다(EU-28에서 매출 +9%, EY Consulting, 2021). 그러나 게임산업의 여성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30%에<sup>8</sup> 불과하다.

당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2021)이었던 카리마 베누네(Karima Bennoune)는 '코로나19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대격변'이라고 경고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급격한 증가는 차별 없이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다(Bennoune, 2021). 2020년 프리뮤즈(Freemuse)는 예술가의 성별, 성적체성, 성적 취향 및 인종을 포함하여 오프라인과 동일한 이유로 온라인상의 괴롭힘, SNS에서의 위협이나 공격을 받는 예술가의 증가 추세를 문서화했다. 또한 2020년 예술가 기소의 45%는 코로나와 관련된 예술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성별 구분은 보고되지 않음)(Freemuse, 2021, 자세한 내용은 10장 예술적 자유 참조). 또한 팬데믹은 관객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광범위한 사용은 디지털 성격차를 확대했다.

8. Statista. 2014-2021 전세계 게임 개발자의 성별 분포 [www.STATISTA.COM/ STATISTICS/453634/ GAME-DEVELOPER-GENDER-DISTRIBUTION- worldwide/](http://www.STATISTA.COM/ STATISTICS/453634/ GAME-DEVELOPER-GENDER-DISTRIBUTION- worldwide/)(2021년 9월 17일에 접속)

그림 9.7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과 여성의 문화생활 참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역별 정기적 데이터 수집 및 배포



출처: BOP Consulting(2021)

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여성의 불균형한 접근으로 인해 남성 대비 여성의 낮은 온라인 접근성은 여성의 창의성과 예술에 대한 온라인 참여에 있어 격차가 벌어졌다. 전 세계 추정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남성 인구의 5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여성 인구의 48%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총 동등성 점수 1에서 성별동등성 점수가 0.87인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2013년 이후 성평등 점수는 약간 감소했다(ITU, 2020).

###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성별로 구분된 데이터의 부족은 유네스코가 글로벌 리포트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판에서 강조한 지속적인 문제이다. 데이터 부족은 지식 부족을 의미하며 이는 임의적인 조치 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보에 입각한 문화 정책은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생태계 내에서 창의경제의 활력과 수백만 명 남녀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53%의 국가가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과 문화 생활에 여성의 참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및 배포한다고 보고한다. 개발도상국의 43%만이 이러한 측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차이는 상당하다. 그림 9.7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간에도 가시적인 격차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종종 부분적이고 산업에 따라 다르며(전체 문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님)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성별로 구분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유네스코가 글로벌 리포트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추세를 확인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이 없는 본 연구가 정책 결정에 제공하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에 성평등 달성에 기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모범 사례는 전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1년부터 교육문화부가 여성부 및 기타 공공 기관과 함께 공공, 정치 및 문화 생활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창의경제에 대한 기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프랑스문화부는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의 성평등 관측' 제9판을 발간했다. 2016년부터 칠레는 문화 분야의 성 불평등, 격차 및 장벽을 분석하기 위한 제도적 평가를 수행해 왔다(글상자 9.4 참조).



© Tobias Ahelger / Shutterstock.com\*

추세를 파악하고 포괄적인 창의분야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평가할 때 기존 데이터의 단편적 특성은 또 다른 도전과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문화통계에 가장 경험이 많고 성평등 측면에서 가장 앞선 국가의 데이터조차도 창의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프로필(사회적, 경제적 배경, 민족, 장애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이 교차성은<sup>9</sup> 문화 기관, 예술 자금 지원 구조 및 창의적 생태계에 의해 배제된 사람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남녀 문화 분야 종사자의 고용 패턴에 대한 통계 또는 창의 분야에서 여성 근로자의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질적 방법의 사용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부족한 것은 체계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다. 추세

9. 법학자 김벌레 크렌쇼(Kimberlé Crenshaw)가 만든 교차성이라는 용어는 여러 불평등(성별, 민족성, 성적 취향, 연령 등)이 사람들의 삶, 특히 소수자의 삶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 글상자 9.4 • 우선순위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평가 - 칠레

2016년부터 칠레 문화예술유산부는 여성의 예술분야 참여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이러한 연구는 성 불평등을 강조하고 여성이 창의적인 활동이나 대중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접근하기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리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2020년 칠레의 16개 1차 행정구역 중 하나인 오하긴스(Libertador General Bernardo O'Higgins) 지역에서 여성 및 성평등 지역 장관 사무국과 문화예술유산 지역 장관 간의 협력 협정 체결이 있었다. 본 협정은 여성의 지원 절차와 가용 자금 수여 및 집행 참여 촉진, 쇼케이스 공간 생성과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을 통한 여성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기업가의 경제적 자율성 강화, 그리고 여성 개발과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조직적 지원 수립을 목표로 한다.

출처: Chile QPR.

를 파악하고 포괄적인 창의 분야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평가할 때 기존 데이터의 단편적 특성은 또 다른 도전과제를 야기한다. EU 회원국들은 2019-2022년 '문화를 위한 작업 계획'에서 문화·창의분야의 행동 우선순위로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2020년 3월 유럽위원회(EC)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데 있어 문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인정

하는 성평등 전략 2020-2025를 발표했다. 2020년 11월, 독일 유럽연합이사회의장국 하에 처음으로 성평등이 이사회의 문화 의제에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중 하나에 따르면 '성별 분류 데이터는 문화 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0b). 문화·창의 산업(및 문화 분야)의 성별 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의 부족은 또한 EU 회원국 성평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워킹그룹의 개방형 방법(Open Method of Coordination Working Group)'이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다. 문화 통계에서 더 많은 성별 분류 데이터와 국가 간 데이터 수집을 통합해야 한다(European Union, 2021).

### 새로운 개입 영역

지난 몇 년 동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입 영역이 등장했다.

그 중 하나는 인종, 경제적 지위, 언어, 종교, 연령 및 장애와 같은 다른 형태의 차별과 성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교차성 프레임워크와 관련이 있다. 문화적 권리와 함께 누구도 배제되지 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사용되는 교차 렌즈는 문화 분야의 여성 대상 정책에 미묘한 차이를 제공한다. 협약의 일부 당사국은 이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EU의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의 지원을 받아 특히 문화·창의분야의 소수자 커뮤니티에 속한 여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그 결과는 사회적취약계층과 슬로베니아의 로마인 공동체나 독일어권과 같은 소수 민족 여성이 전면적으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트로 구현되었다. 그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현대 섬유예술 및 디자인 학교(OLOOP Ljubljana Institute)에서 실행한 드러난 손 - 인간 및 사업 성과(Razkrite roke - Poslovni in HUMANI uspehi)로, 여성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가 직물 및 기타

### 글상자 9.5 • 몬테네그로의 문화계 LGBT 전략

몬테네그로의 국가적 LGBT 전략(2013-2018)은 LGBT에 대한 대중인식과 사회적 수용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성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개방적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부는 LGBT 커뮤니티가 공공 장소에서 표현되는 방식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화 프로그램은 안나린드재단(Anna Lindh Foundation), 유벤탐타스와 퀴어 몬테네그로(Juventas and Queer Montenegro)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와 포드고리차에 있는 동시대예술센터(Center of Contemporary Art) 및 시립문화센터 부도토모비치(Budo Tomović)와 같은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 및 구현되었다. 여기에는 LGBT 아티스트를 보여주는 사진 전시회와 소수 민족 정체성의 문화적 표현에 초점을 맞춘 공개 토론이 포함되었다. 논바이너리 성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창작자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게 예술 현장을 공개하는 것은 몬테네그로에서 성 다양성의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었다. 이 전략은 공공 문화기관이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성 소수자들이 만들거나 참여한, 그리고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창의적 콘텐츠를 포함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했다. 또한 LGBT 창의성을 기념하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지원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는 더 다양한 문화와 창의적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포괄적인 사회적 맥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출처: Montenegro QPR

예술 매체로 작업하면서 디자인, 교수법, 인도적 지원 및 마케팅에 있어서의 기술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마음을 열고 닫힌 환경에서 벗어나 집단과 공동체에 통합되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는 또한 이러한 그룹, 문화 및 언어를 보여주어 편견을 없애고 낙인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추세는 남녀 간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체성과 선호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여 성다양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는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다(글상자 9.5).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국립시각예술 전시회는 전시회 등록 시 성별란에 '기타' 옵션을 포함함으로써 성별의 이분법적 개념을 확장하고자 했다. 또한 국립음악원은 음악가와 밴드의 논바이너리(non-binary) 등록부를 설립했다.

에과도르에서는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가족의 모임인 크리살리스(Crisalys)와 트랜스젠더 여성 그룹인 뉴카 트랜스(Nuca Trans, We Trans)가 논바이너리 성적체

성을 표현하고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했다. 예술 행사를 통해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부 포럼에 참여함으로써 여성 및 LGBTIQ+ 청소년,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등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것이다. 아이슬란드의 걸스 락!(Stelpur rokka!, Girls Rock!)은 음악과 평등 교육을 통해 여성, 트랜스, 퀴어 및 인터섹스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자원 봉사 단체이다. 5년 동안 400명 이상의 여성이 활동에 참여했으며 70개 이상의 밴드를 결성했다<sup>10</sup>. '걸스 락!(Girls Rock!)'이 소속된 '걸스 락 캠프 동맹'은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캠프가 있는 청소년 중심의 예술사회 정의단체의 국제 네트워크이다. 걸스 락 캠프는 아이슬란드외교부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토고에서도 기획되었다.

따라서 문화·창의산업은 참가자, 청중, 정부, 시민단체 및 활동가를 참여시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더 큰 성평등과 다양성에 기여한다.

10. www.stelpurrokka.is.

남녀 간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성다양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는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흐름이다

25년 동안 세계 최대 LGBTQ<sup>11</sup> 미디어 옹호 단체인 GLAAD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퀴어인이 등장하는 TV 등장인물 노출을 추적해 왔다. 2019년에 미디어에서의 LGBTQ 인물 및 이미지 노출에 대한 미국 비-LGBTQ 시민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LGBTQ 이미지에 노출된 사람들이 LGBTQ인과 그들의 이슈를 더 수용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LAAD와 넷플릭스도 2020<sup>12</sup>년 6월에 멕시코와 남미 5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68%)는 LGBTQ 커뮤니티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LGBTQ 응답자 중 87%는 이러한 영화와 프로그램은 2년 전보다 해당 커뮤니티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답했다 (Townsend and Deerwater, 2021). 이러한 결과는 창의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변혁적 효과를 강화하고 인권과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적 표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결론 및 제언

최신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으로 가는 과정의 현주소는 68%로 2020년(-0.6% 포인트)보다 낮다. 이대로라면 세계적으로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135.6년이 걸릴 것이다(WEF, 2021a).

유엔은 2021년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창의경제의 해'로 선언했다. 창의경제(또는 오렌지경제)가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 빈곤 퇴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창출,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성과 젊은이의 삶의 질 향상 및 권한 부여, 국가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감소 등 지속가능한 개발의 3가지 차원과 2030 어젠다 달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sup>13</sup>.

문화 및 미디어 분야 없이 2030년까지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5를 향해 전략적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창의경제에 고용된 사람의 대부분이 18-25세 사이의 여성과 젊은이들이며<sup>14</sup>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이기 때문이다(BOP Consulting, 2021). 또 다른 이유는 해당 분야가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가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여 성별 규범 및 관계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협약에 명시됨). 따라서 문화 및 미디어 분야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여성과 성별이 다양한 예술가가 문화적 권리를 행사하며 성공적인 창작 경력을 쌓는 것을 막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평등은 문화·창의분야의 우선순위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들은 여성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 그리고 여성의 문화 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책과 조치를 보고했다.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리더십 역할의 성평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제 창의산업의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권리, 자금 지원, 경력 기회 및 전문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투 운동과 같은 최근 몇 년 동안 달성된 발전은 문화·창의산업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Corbat and González,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같은 최근 위기는 성별 격차가 몇 개월 사이에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여성과 성별이 다양한 창작자가 다시 소외되었고, 개인적 그리고 업무적 손실에 노출되었다. 모든 지역이나 창의분야가 동일한 수준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평등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여성에 대한 데이터 부족은 창의적인 직업에서의 성평등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다. 이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한 데이터와 평가는 해결되어야 하는 전체적이고,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문제들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Vaccarone, 2019). 정량화 가능한 추정치와 기존 연구의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성평등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13. 결의안 A/RES/74/198.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35223?ln=en> (2021년 8월 13일 접속)

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창의경제의 해. <https://en.unesco.org/commemorations/international-years/creativeeconomy2021> (2021년 8월 13일 접속)

11. 본 섹션에서는 GLAAD 연구와 일치하는 용어 사용.

12. [www.glaad.org/whereweareontv20](http://www.glaad.org/whereweareontv20).



© Tran Thanh / Unsplash.com

성다양성은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함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새로운 영역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문화 생활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LGBTIQ+ 예술가의 권리를 점점 더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보다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입증된 영향을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다른 영역에는 학제성과 교차성이 있다(지속가능발전목표 5 & 4, 지속가능발전목표 8 & 10).

협약 이행에 관한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강조한 조치와 정책에 시청각 분야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성 불균형과 어려움이 있는 다른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채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시청각 분야에서 수행된 모범 사례와 이니셔티브는 다른 분야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코로나의 영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므로 여기에 설명된 것과 같은 정책 및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시민사회 및 정부간 조직은 성평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여 앞으로의 어려움(기후 변화와 같은)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명확한 젠더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의사결정 과정에 도입하면 성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 정책 및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Hillenbrand et al., 2015). 조직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과 조치를 개발,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젠더 전문가(예: 젠더 고문)와 여성이 창의적인 직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창의분야와 산업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젠더 변혁적 접근 방식에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아래 권고사항에는 시급한 조치이기도 한 단기적 권고사항과 장기적인 젠더 변혁적 조치가 포함된다. 단기 조치는 본질적으로 더 정량적이며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창의 분야(예: 게임산업) 내 리더십 위치에서 여성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기 조치는 자금 지원의 접근성도 다룬다. 장기적인 젠더 변혁적 조치는 창의분야에서 여성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규범, 태도 및 제도화된 규칙을 다룬다. 이는 단순히 성 불평등의 증상만이 아니라 성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다룬다.

정부(문화부, 예술위원회, 자금 지원 기관, 지역 및 지방 당국)

- 여성이 문화 생활에 전면적으로 기여 및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문화 및 미디어 분야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착수하고 제공한다.
- 지방,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연구 결과 및 기타 데이터를 활용하여 리더십의 평등을 달성하고 문화 프로그램에서 자금 및 대표성을 확보하며 문화 분야에서 나이, 민족, 사회적 및 경제적 배경, 신체 장애와 상관 없이 여성의 가장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증거기반 정책 및 조치를 개발한다.
- 참여적 문화 정책은 여전히 규범이 아닌 예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문화·창의산업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다수의 이해당사자 접근 방식을 우선시한다.
- 경력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 민족 배경을 가진 여성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 이주 여성, 유색인종 여성, 장애 여성, 소외된 지역 사회 여성 및 LGBTIQ+

개개인을 지원하여 교차 접근을 우선시한다.

- 의사결정자의 직책에서 여성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 스스로가 탁월해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장려한다.
- 성평등을 저해하며 문화 생활에 기여하고 참여할 여성의 권리와 성별이 다양한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법률을 철폐한다.
- 단기 계약직, 가사 돌봄 책임과 양립할 수 없는 긴 노동 시간(일반적으로 무급), 기회 부족 및 임금 격차와 같은 문화 분야의 불안정한 노동 관행을 없앤다.

문화기관, 미디어 및 시민단체(비정부 기관, 학계, 민간 기업):

- 조직 내부와 문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평등 진행 상황을 영구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양적 및 질적 연구를 실행한다.
- 조직과 문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달성될 때까지 채용, 승진 및 포상에서 적극적 조치를 적용한다.
- 특히 여성이 심하게 과소대표되는 창의분야(예: 디지털 환경)에서 전용 자금을 수반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수립한다.
-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저해하는 성별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설계한다.

정부간 조직:

- 국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원과 비교가능성에 대한 기여 등 전 세계 문화·창의분야에서 성평등을 향한 진전에 대한 지식 생산과 공유를 모니터링 및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훈련 및 역량 구축에 있어 지속적인 옹호 및 인식 제고 노력에 참여하고 문화 정책에서 성주류화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며 문화·창의분야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젠더 변혁적 조치를 제공한다.
- 2030 어젠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로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성주류화를 촉진한다.



© Shilpa Gupta, *For, in your tongue, I cannot fit*, 2017-18. Photograph by Pat Verbruggen.  
Sound installation with 100 speakers, microphones, printed text and metal stands,  
commissioned by YARRAT Contemporary Art Space and Edinburgh Art Festival \*



# 제10장 창작의 자유 지키기

사라 와이어트

## 핵심 발견

- ▶▶▶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했지만, 2020년에도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등 보호법과 실행 사이의 단절이 여전히 심각하다. 보호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호법은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과 구체적인 이행 체계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
- ▶▶▶ 문화권 및 인권 옹호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위협에 처한 예술가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제공을 포함해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모니터링하고 옹호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
- ▶▶▶ 예술적 자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에 있어 지속적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인권과 모든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 ▶▶▶ 지난 4년 동안, 54%의 당사국들은 새로운 경제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 경제 조치를 수정하여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조치를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 ▶▶▶ 여러 국가에서 예술가들의 공정한 급여, 보수,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노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 ▶▶▶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기존 작업 환경의 불안정성이 악화됐다. 국가들은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려 노력해 왔다.

예술적 자유의 구성은:



1 예술적 표현의 자유



2 예술가의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

경과

입법



신성모독과 명예훼손법과 같은 유해한 법률은 많은 나라에서 철폐되었음

인권과의 관계



예술적 자유가 국가 인권의 프레임워크와 전략에 통합되고 있음

그리고 문화 단체와 인권 단체들 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

예술가의 지위



54%의 국가가 예술가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경제적 조치에 대해 보고함



예술가들의 지위 향상을 통해 이들에게 다른 노동자들과 비슷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함

도전

데이터 및 정보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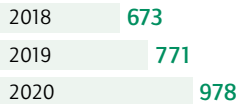


진전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자유라는 용어는 아직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이해를 얻지 못함

지속적인 정보 격차는 보다 표적화된 정책 개발을 저해함



예술가에 대한 공격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검열에서 살해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예술적 자유에 대한 도전이 더욱 심화됨: 예술가들의 소득이나 사회적 보호가 갑자기 사라졌고, 때때로 코로나19 조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함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영역의 예술적 자유가 점점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협업

부처 간, 그리고 여러 이해당사자 간 협업 조정



시민사회

특히 가장 어려운 지역의 시민단체를 지원



입법

예술인 지위법 채택 및 개정, 그리고 인권법 안의 예술적 자유 포함



온라인에서의 자유

온라인에서의 예술적 자유 보호 보장

권고 사항

## 핵심 지표

창작, 표현 및 문화생활 참여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수립과 실행

### 서론

한 영국 2인조 뮤지션은 국내외에서 소규모 라이브 공연을 하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급작스레 아무런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주 수입원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이미 수입이 별로 없었고 홍보를 위한 무료 공연을 많이 했기에 의지할 자원도 없었다.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한 정부가 그들과 같은 예술가들에게 긴급 구호를 제공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다. 그때까지 그들은 친구들이 기증한 음식에 의존해야 했고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이 재난을 피하려면 헬프 뮤지션(Help Musicians)의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했다. 이 독립적인 자선 단체는 2020년 3월부터 영국 전역에서 1,100만 파운드(약 1,460만 달러)가 넘는 경제적 어려움 기금으로 19,000명 이상의 음악가를 지원했다<sup>1</sup>.

2인조 뮤지션은 이미 온라인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방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시작했다.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시청자가 후원하지는 않았다. 공연 제한이 완화되면서 2인조 뮤지션은 살아남았지만 투어나 공연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해도 값이 어려울 큰 빛을 안고 있다. 그들은 늘 불안정하고 과소평가된 음악계에서

의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대중과 정부가 위기 속 예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위기를 통해 예술가가 공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음악가차사슬에서의 변혁이 일어나길 바란다.

### 예술적 자유를 살펴보면 한 지역의 인권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술가들이 직면한 이러한 어려움은 문화·창의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한 금액을 동원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술가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암시한다. 더욱이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생계를 꾸려갈 기회가 모든 예술가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2018년 글로벌 리포트 발간 이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황폐해지고 2021년 12월 기준 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특히 문화 분야는 (1장에서 설명한)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는 정부의 위기 대처를 비판하는 작업을 하다가 구금된 경우가 많다는 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Freemuse, 2021).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예술가들은 대부분의 문화 분야 업무의 비공식적 특성으로 인해 수입은 물론 의료보험 또는 고용보험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글을 쓰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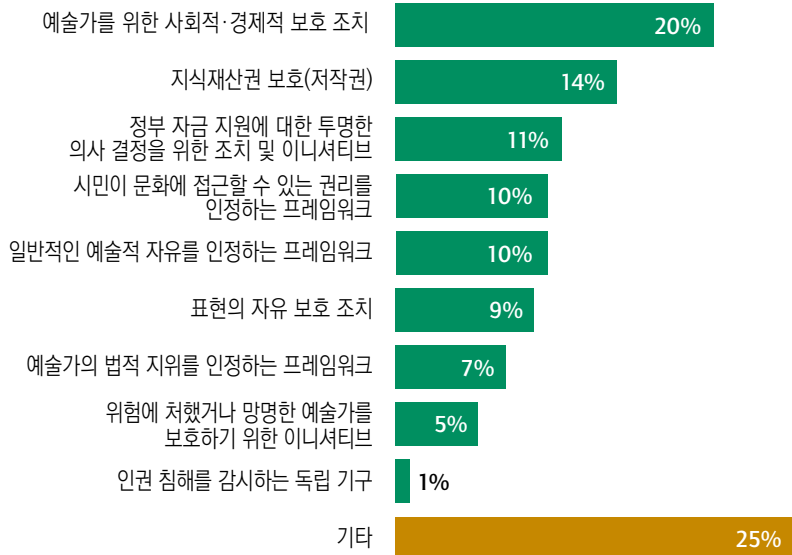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문화분야의 어려움은 기존 문제에 대한 대중의 더 넓은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 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적 자유에 대한 권리의 노력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2018년부터 정부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가 항상 직면해 온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지위법(Status of the Artist laws)과 메커니즘을 제정했거나 준비 중이다. 예술적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 검열, 정치적 간섭 또는 비정부 행위자의 압력 없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상상, 창작 및 배포할 수 있는 자유이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5조 1항 (a)). 이처럼 예술적 자유는 문화권의 기본적 측면이며 예술적 자유를 살펴보면 한 지역의 인권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장에서 언급했듯이 2018년 글로벌 리포트 이후 4년제 정기보고서 프레임워크는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도록 재설계되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당사국의 예술적 자유 이행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과 조치, 그리고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과 조치를 다루는 두 가지 주요 지표에 따라 측정된다.

1. www.helpmusicians.org.uk/

그림 10.1

## 예술적 자유와 관련하여 보고된 조치의 유형



출처: BOP Consulting(2021).

따라서 당사국이 예술적 자유와 관련된 조치의 이행에 대해 특정 질문을 받은 것은 최근의 보고 기간(2018-2020년)이 처음이며, 이전 글로벌 리포트와 비교해 새로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입법 및 조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개선되었지만 예술적 자유에 대한 모니터링은 몇 가지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용어가 151개 협약 당사국 간에 아직 공통된 이해가 없다는 점이다. 예술적 자유에 대해 보고된 114개 조치 중 20%가 예술가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보호와 관련된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는 14%이고, 25%는 예술적 자유라는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 취약계층의 문화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조기 예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되었다(그림 10.1).

유네스코는 정부, 시민단체 및 예술가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과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예술적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활동으로는 2021년 4월 나미비아(Namibia)의 빈

트후크(Windhoek)에서 세계 언론 자유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예술적 자유에 대한 국가 훈련이 있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유네스코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예술적 자유를 옹호하는 데 중요한 발전을 도모했다.

유네스코 <1980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와 협약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정의와 사회적 지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예술가를 위한 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항상 명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예술적 자유를 측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권고는 국가가 예술가를 정의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법적·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 권장사항은 작품의 창작과 보급을 포함하여 문화적 표현을 증진하고 예술가가 자

신의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정의한 협약 제7조와 함께 한다. 결과적으로 이 권고와 협약은 고용 및 노동권, 근로 조건 보장, 정보 접근 및 기본적 자유 보호와 관련된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국제적·지역적 인권 메커니즘과 결합하여 예술적 자유를 증진 및 보호하고 국가가 조치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적 도구를 형성한다(글상자 10.1).

예술적 자유의 증진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창작하는 동안 생존에 필요한 자유나 사회적·경제적 조건 없이는 예술가가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적절한 지원 수단의 부족으로 일부 사회 집단 또는 지역의 예술가가 창작하기 어려우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 학계나 비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보고한 조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2018년 글로벌 리포트 이후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관한 발전과 정책 변화를 다룬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 장은 위기 속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다원주의와 민주적 과정의 활력을 상실한다. 예술적 자유의 생태계는 교육, 문화 발전, 사회경제적 수준, 웰빙, 삶의 질 및 사회적 결속력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20년 11월에 시작된 디지털 시대의 예술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선언문

## 예술적 표현의 자유 보호: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

### 법과 실행 사이의 지속적이고 우려스러운 불일치

대부분의 협약 당사국은 헌법과 법률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며 법률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종 이 권리를 예술적 자유에 적용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주로 뉴스 매체가 직면한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인에 대한 많은 공격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는 있지만 법률 상에서 이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면 예술적 자유가 간과되거나 덜 중요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유네스코에 제출된 4년제 정기보고서에서 거의 모든 협약 당사국(150개 국가와 유럽연합(EU) 포함)은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또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기에 그들의 작품이 전파되고 공연화되거나 대중이 문화 생활에 제한없이 접근하고 예술 작품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전 글로벌 리포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술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 남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법과 실행 사이에 우려할만한 단절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는 전 세계 창작분야 전반에 걸쳐 예술가를 향한 공격에 대한 연간 통계를 생성하는 기관인 프리뮤즈(Freemuse)의 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예술가와 문화분야 종사자에 대한 검열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공격, 즉 투옥, 구금 및 기소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두 증가했다. 신체적인 공격과 위협, 온라인 상의 공격, 작업금지 및 공연 중단, 라이선스 거부,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포함해 다른 형태의 억압이 대부분의 학대를 구성한다.

## 글상자 10.1 • 예술적 자유와 관련된 UN 제도

세계 인권 선언(1948)

- 표현의 자유(제19조)
- 사회보장(제22조)
- 노동과 공정한 보수(제23조)
- 정신적, 물질적 이익 보호 권리(제27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1966)

- 유리한 근로조건(제7조)
- 노동조합 결성(제8조), 사회보장(제9조), 문화 생활 참여(제15조)
- 예술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받을 권리(제15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1966)

-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저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제19조)

멕시코 시티 문화정책 선언문(1982)

- 예술가의 창작활동에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제27조)
- 예술적, 지적 창조를 촉진 및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확립한다(제28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1996)

-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자는 판매나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저작물의 원본 및 사본을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누린다(제6조).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

-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인정(제8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시청각 퍼포먼스에 관한 베이징 조약(2012)

- 공연자의 경제적 권리와 별도로,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양도된 후에도 공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공연 또는 라이브 공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공연 사용 방식에 의해 생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공연의 공연자로 식별되도록 주장하는 권리
- 시청각 고정물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왜곡, 훼손, 또는 기타 공연 수정에 반대하는 권리(제5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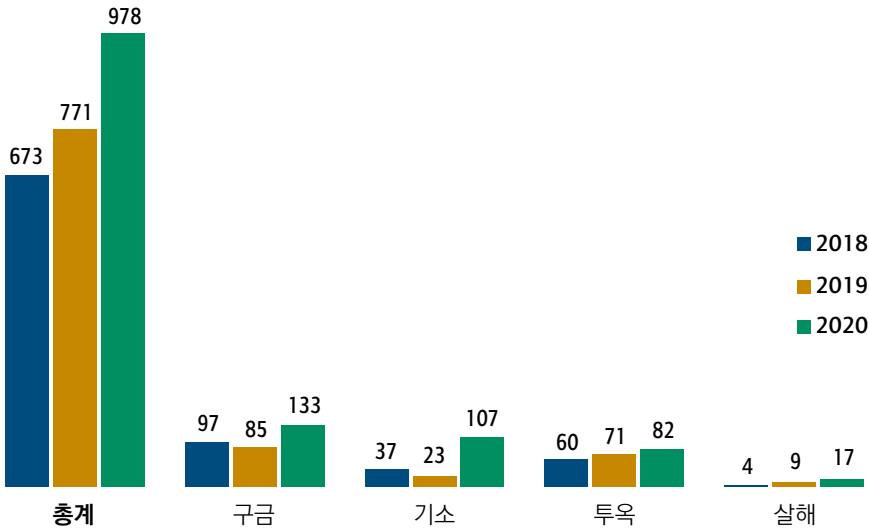
- 목표 8.5 - 동일 임금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 목표 8.8 - 노동권 및 근로조건 확보
- 목표 16.10 - 정보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접근 보호

유엔국제노동기구(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 및 권고 (206호) (2019)

-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근로 환경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제4조)
- 직업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성평등을 추진하는 접근 방식을 개발할 필요성(협약 제4조)
- 광범위한 개인보호 범위(협약 2조) 및 민간 및 공공분야 관계없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경제 모두에서 '업무중, 업무 관련하여, 또는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폭력 및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협약 제3조)
-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폭력과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는 분야나 직업 및 작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 채택(권고 제9항)

그림 10.2

2018년-2020년, 예술적 자유에 대한 공격



출처: 프리뮤즈 예술적 자유에 대한 연간리포트, 2019-2021.

이런 높은 수치는 부분적으로 프리뮤즈와 같은 곳의 모니터링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격 횟수가 실제로 높을 가능성도 있다(어쩌면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음).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많은 국가에서는 검열 기관이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검열 위원회의 승인 없이 노래와 영상을 발표한 예술가가 형사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결국 (지역 및 국제법에 위배되는) 사전 검열로 귀결된다. 실제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구체적으로 언급했듯이 사전 검열은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임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여야 한다(Shaheed, 2013). 이처럼 예술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예술적 자유에 대한 제한적 조치가 아니라 보호적 조치를 취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필요성이다.

예술적 자유의 퇴보는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 상태가 쇠퇴하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모니터링 대상인 170개국에서 학문과 문화의 자유가 3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Alizada et al., 2021). 예술적 자유의 침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예술가가 기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관객의 능력에 명백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티오피아 예술가 하찰루 훈데사(Hachalu Hundessa)는 역사적 불의에 초점을 맞춘 노래 때문에 2020년 6월 의문의 공격자들에 의해 총살당했다(Ayana, 2020). 그의 죽음으로 폭력적인 봉기가 일어났고 2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 사례는 예술가의 생명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고 정치적으로 노출된 예술가의 살해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폭력 단체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국 안팎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때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시행된 새로운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 국가는 거의 없었고 몇 년 전에 통과된 법안을 언급한 국가도 있었다. 또한 최근의 보고 기간 동안 보호를 위한 기본권으로서 예술적 자유를 위한 입법을 확대했다고 보고한 국가가 없다는 사실도 유감이다.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예술적 자유 부문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mas HAM)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2021년 5월 하원에서 승인되었다(UNESCO, 2021e).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현재 유네스코와 함께 관공서에서 예술적 자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칭찬할 만한 유사한 조치에 대한 보고가 부족한 것은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이 제한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예술적 자유를 보호하는 조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글상자 10.2 • 스웨덴의 예술가에 대한 혐오 표현 및 위협 대처**

스웨덴 보조금위원회(Swedish Arts Grants Committee)의 2017년 근로 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예술가의 3분의 1 이상이 위협, 폭력 및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스웨덴 정부는 혐오 표현과 위협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위협은 관객이 특정 유형의 작품과 사회적 논평을 박탈당함에 따라 예술가뿐만 아니라 민주적 대화, 대중적 참여 및 예술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 검열로 이어졌다. 이에 맞서 스웨덴은 혐오 표현의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지식,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 언론인과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한 더 큰 국제 협력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출처: Sweden QPR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반드시 데이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국가의 헌법이 예술적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록 중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불행히도 이것이 기본적 자유의 침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sup>2</sup>. 이러한 요소들은 분석을 복잡하게 하여 오늘날 예술적 표현에 대해 명확한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 입법 단계

앞서 언급한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특히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유해한 법률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법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일부 국가는 신성 모독 또는 종교에 대한 모욕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했다.

이전 글로벌 리포트는 명예훼손, 모욕, 테러 및 신성 모독에 관한 법률이 예술적 자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지하고 오용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명예훼손법의 검토는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에 관한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4호에서 명시적으로 권고하여 그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했다(Human Rights Committee, 2011).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우려가 남아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법률의 공식화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 시에는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반대의견을 침묵시키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2. 프랑스 상원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22개 주에서 예술적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다(Sénat Français, Direction de l'Initiative Parlementaire et des Délégations, 2016)



법령집에서 신성 모독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는 것은 신념에 대한 공격이 아니며 하나의 가치관을 다른 가치관보다 우선시하려는 의도도 아니다. 이는 단순히 신성 모독 개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그 개념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 특정 종교에 대한 충성과 융합되었던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탠튼 (David Stanton)  
법무부장관, 2019년 9월에 시아나드 에이리안 (Seanad Éireann, 아일랜드 상원)과의 대담

이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그러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신성 모독이나 종교 모욕과 관련된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했다(Cuny, 2020). 프리뮤즈는 2020년 보고서에서 종교가 (정치와 외설에 이어) 예술가를 침묵시키는 세 번째 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종교 단체에서 항의하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작품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고 밝혔다(Freemuse, 2020c).

유사하게 형사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정부 및 각료들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며, 종종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모욕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2020년 프리뮤즈는 감옥이나 벌원에 수감된 전체 예술가의 약 절반이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기소되었다고 보고했다(Freemuse, 2020c). 코로나19 시국 동안 수많은 예술가들이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침묵을 지켰다. 프리뮤즈에 따르면 '최소 65명의 예술가가 자국의 전염병 조치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투옥되었다'(Freemuse, 2021).

감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몰디브 등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긍정적인 발전을 보였다. 아프리카인권위원회(ACHPR)가

2019년에 발표한 아프리카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에 관한 원칙 선언은 아프리카 연합(AU) 회원국들이 법령집에서 형사상의 명예훼손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ACHPR, 2019). 2018년에 채택된 르완다의 새로운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을 범죄화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르완다, 대통령실, 2019). 카자흐스탄에서는, 명예훼손을 범죄화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2020년 6월 채택되었는데, 비록 민법에 의해 여전히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 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Kumenov, 2020).

노르웨이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북유럽각료회의<sup>3</sup> 의장직을 맡는 동안 '노르딕의 포용적 문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북유럽 출신 예술가들이 무대에서 동등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화 정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법과 실행을 통해 보호해야 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으로부터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와 수많은 권고 사항이 공유되었다(Arts Council Norway, 2020b). 노르웨이는 또한 2021년 6월 외교정책과 개발 정책에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 전략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예술적 자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술가의 국내외 권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 예술적 표현의 자유 모니터링

예술적 자유를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기본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감시 기구의 부족으로 인해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 북유럽각료회의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페로 제도, 그린란드, 올란드도 구성된다.

현재 협약 당사국의 경우 절반 정도(53%)가 불만을 접수하거나 예술적 자유에 대한 침해 및 제한을 모니터링하는 독립 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신고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0.3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33%부터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 75%까지 지역별 비율이 매우 상이하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신고할 곳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NCHR)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넘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한다. 소수의 국가인권위원회(NCHR)가 예술적 자유를 권리로 규정하는 반면, 대부분은 표현의 자유라는 넓은 범위 내에서 권리의 위반을 포함한다. 그런 국가 중 하나가 감비아이며, 2017년에 독립적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예술적 자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피해자 보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NHRC, 2020).

예술적 표현의 억압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옹호하는 권리 단체는 상대적으로 적고, 조직 간의 협력 부족으로 투쟁이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가의 안전을 위한 합동 플랫폼과 유엔 실천계획(언론인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것과 유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데 전적으로 전담하는 조직(연구 및 옹호, 거주 및 이주 보조금, 위험에 처하거나 망명 상태에 있는 예술가와 문화 노동자에게 안전한 장소 제공)은 대부분 북반구, 특히 독일, 스칸디나비아, 영국,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덴마크의 '프리뮤즈(Freemuse)', 핀란드의 '위험에 처한 예술가(Artists at Risk)', 노르웨이의 '이코른(ICORN: 국제 난민 도시 네트워크; International Cities of Refuge Network)', 미국의 '위험에 처한 예술가 연결망(Artists at Risk Connection)', 독일의 '마틴 로스 이니셔티브(Martin Roth Initiative)', '국제펜클럽(PEN International)' 등이 포함된다.

아랍 국가의 예술적 창의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 단체인 '문화 자원(AI-Mawred AI-Thaqafy)'과 같은 주목할 만한 조직도

있다. '예술지지(Stand for Art)' 프로그램은 위기에 처한 예술가들에게 생활비, 항공료, 법률 지원, 의료비 등 재정적 지원과 아랍 국가 및 해외 국가의 레지던시를 지원한다.



국제 예술인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의 권리나 상황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동료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모든 동료들이 직면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디아 칸(Deeyah K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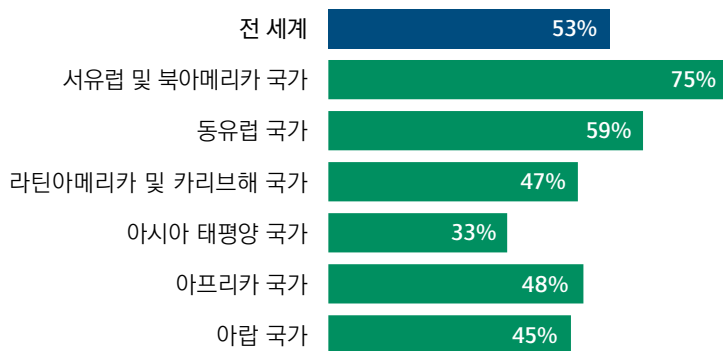
예술적 자유와 창의성을 위한 유네스코 친선 대사, 2020년 4월 15일 유네스코 리질리아트(ResiliArt) 온라인 토론 '예술가와 창의성, 위기를 넘어서' 연설 중

재정과 전문지식에 관한 제한된 자원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예술적 자유가 일관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 작업이 더 큰 문화 프로그램의 일부일 때, 인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이 작업이 인권 프로그램 내에 있을 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전문 지식은 문화분야에 대한 지식이 적은 미디어 권리 옹호에 있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위기와 억압의 증가는 일부 조직의 활동을 폐쇄하거나 축소해야 했으며 이는 시민 공간이 축소되는 일반적인 세계 패턴의 일부이다. 유엔의 2020 인권을 위한 행동 방안(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인 '최고의 열망(The Highest Aspiration)'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민사회 행위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대화에 참여하며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고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정치, 경제 및 사회 생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UN, 2020b).

그림 10.3

예술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제한에 관한 불만사항을 접수 및 모니터링하는 독립기구



출처: BOP Consulting(2021)





외국 자금의 제한, 외국 대리인 등록 요건,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일반적인 위협, 인권 단체를 테러와 연결하려는 시도 등 시민단체에 대한 압력은 다양하다 (Buyse, 2018). 이러한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인권을 지키고자 할 때 시민단체의 업무 범위가 제한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예술적 자유를 위해 일하는 조직이 부족하기에 일부 예술가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역량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21년 스웨덴예술위원회는 스웨덴국제개발기구(Sida)가 지원하는 3년 짜리 프로젝트 ‘예술적 자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예술가들이 위협이나 괴롭힘 없이 자신의 작품을 창작, 전시 및 배포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에 지원금을 제공하며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춘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 수준에서 역량과 네트워킹을 늘리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예술가의 근로조건 개선 방법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지식을 개발할 것이다. 따라서 협업은 (예술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 보호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6.10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네스코는 또한 예술적 자유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17년 재설계된 이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유네스코 아슈버그 (Aschberg) 프로그램은 예술적 자유에 대한 역량 구축 데이터를 개발하고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네시아 및 나미비아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2021년에는 역량 강화, 법률 설계 또는 개정, 연구 및 모니터링,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소통 및 인식 제고를 통해 예술적 자유를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간 기술 및 재정 지원의 새로운 구성 요소가 프로그램에 추가되었다.



© Austin Neill / Unsplash.com

**예** 술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 보장, 사회 혜택 및 작업의 보수에 대한 국가의 인정 같은 (일찍이 다른 분야에서 오래 전에 싸워서 얻은) 권리들은 문화 분야, 특히 문화예술 활동이 다른 종류의 경제 활동처럼 생산적인 산업이라는 개념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는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심각한 위기는 처음에는 가장 취약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안타깝게도 예술가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팬데믹은 문화적 표현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동시에 음악가 등 전반적인 예술가에 대해 불호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팬데믹 한가운데서 우리 에콰도르 문화부는 음악가들이 어머니의 날 주말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했으며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거리에서 세레나데를 연주하며 그날의 주인공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우리의 제안은 공중 보건의 불필요한 우려와 조치로 무산되었고,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절망적인 음악가들에게는 공감하는 이는 전혀 없었다.

마찬가지로 예술가가 일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그들 역시 사회적·경제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추세는 주요 통신 및 케이블 TV 다국적 기업의 논리로 확장된다. 최근에 다른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다국적 기업 중 하나가 에콰도르에서 음악 및 시청각 콘텐츠 제작자를 대표하는 집단을 고소하기로 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한 종류의 창작물에 대한 청구는 남용이라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예술가가 우리 사회의 삶과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예술가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모든 시민과 동등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후안 페르난도 벨라스코(Juan Fernando Velasco)**

싱어송라이터이자 전 에콰도르 문화부 장관

## 문화권 옹호자로서의 예술가



법률 전문가와 예술가 사이의 더 큰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계가 권리와 정의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법조계는 예술적 실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야마맘 알주바이디(Yaman Alzubidi)  
유럽문화실(AI-Zubaidi, 2020)

최근 몇 년 동안 더 넓은 인권 프레임워크에 예술적 자유를 포함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예술적 자유와 유엔 메커니즘, 특히 표현의 자유와 문화권 특별보고관과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s) 간의 참여가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비정부기구의 의견은 당시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빗 카예(David Kaye)가 발표한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 내에서 예술적 자유의 중요성을 탐구하였다(Kaye, 2020). 같은 해 문화권 특별 보고관이었던 카리마 비나운스(Karima Bennoune)는 보고서에서 (예술가 포함) 문화권 옹호자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인권 운동가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Bennoune, 2020b). 글상자 10.3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적 자유는 여러 지역 인권 문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예술가가 인권 운동가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고, 정치 참여로 인해 예술적 자유가 침해되거나 심지어 위협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연결고리를 만들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권 운동가와 예술가를 연결하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나 권리 옹호 등 서로 다른 요구와 지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다(Cuny, 2020). 그러나 이러한 그룹 간의 지식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 글상자 10.3 • 지역별 인권 규범에서의 예술적 자유

- 미국 인권 협약 (1969), 제13조(1)
-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CHPR), 표현의 자유 및 아프리카 정보접근 원칙 선언 (2019), 원칙 10
- 아랍인권헌장 (2004), 제42조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000), 제13조

것이 있다. 즉, 인권 보호 프레임워크 내에서 일하는 전문 지식과 예술문화 노동자의 특정 요구 및 과제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구성하는 것은 예술적 자유를 동등한 중요성의 인권 문제로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술적 자유를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유엔 메커니즘  
사이에 긴밀한 참여가 있다

예술과 인권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긍정적인 반향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일반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들은 문화 정책 관련 조직들과 공유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이점은 짐바브웨에 기반을 둔 범아프리카 시민단체 '님베 트러스트(Nhimbe Trust)'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020년도에 님베 트러스트는 2019년에 발효된 헌법 개정 과정에서 예술적 자유의 범위를 탐구한 정책 문서를 발간했다. 그 권고에는 입법적 변화가 예술적 자유의 보호를 포함해야 하고 추가 수정은 정부가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벨기에의 '컬처 액션 유럽(Culture Action Europe)' 네트워크도 기본적 권리로서 예술적 자유를 포함하여 예술에 대한 접근과 문화 참여를 지지한다. 2021년 3월,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가 주최한 '시민사

회의 날'의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으며, 유럽 연합법에 따른 회원국의 법적 의무에 대한 핸드북 등 예술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여러 권고사항을 유럽위원회(EC)에 제시했다(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9).

## 증가하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지역 및 국가 이니셔티브의 수

인권 단체의 활동에 예술적 자유를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인권 시민단체(CSOs)는 지식, 경험 및 협력을 공유함으로써 문화권 옹호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아프리카 인권옹호자 네트워크(Pan-African Human Rights Defenders Network)는 예술가를 포함한 인권운동가의 작업을 홍보하는 소지역 그룹의 연합체이다. 2021년 4월 그들은 아프리카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와 예술의 역할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2019년 12월 유럽 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세이프 헤븐스 컨퍼런스(Safe Havens Conference; 문화 창작자, 언론인 및 학계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10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아마니:아프리카 크리에이티브 보호 네트워크(Amani: Africa Creative Defense Network)'가 나왔고, 이 중 5개의 조직은 아프리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전한 피난처(placement)는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의 숨통을 터주고,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네트워크는 모니터링, 경고 및 개입(법률 지원, 옹호, 내부 재배치 및 심지어 초국가적인 재배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Cuny, 2020).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인권, 예술적 자유, 문화 정책에 관한 조직들 간에도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라틴아메리카 개방 및 개발 센터(Center for the Opening and Development of Latin America)'와 프리뮤즈가 아메리카 대륙의 예술적 자유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이 있다. 이 프로젝트와 라틴아메리카의 예술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탐구하는 스페인어 팟캐스트 펜아메리카의 위험에 처한 예술가 연결망(PEN America/Artists at Risk Connection: ARC) 시리즈인 '¡El Arte no Calla!'(예술은 침묵하지 않는다)와 같은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예술적 자유에 대한 작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0년 말 지역 네트워크 포럼아시아(Forum Asia)와 위험에 처한 예술가 연결망(ARC)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워크숍인 메콩문화허브(Mekong Cultural Hub)에서는 아시아의 예술적 자유를 탐구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예술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보고서와 일련의 권장 사항이 작성되었다(ARC, 2021). 더 나은 예술 생태계를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인도네시아 조직 코알리시(Koalisi, 연합)는 2020년도에 협약의 예술적 자유에 관한 유네스코 주도의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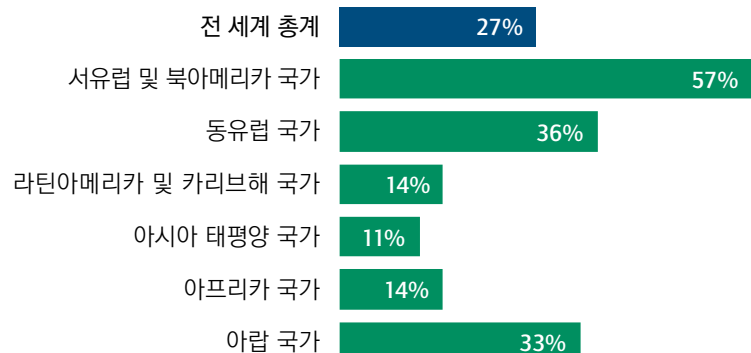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선진국에 기반을 둔 이니셔티브와 병행하여 실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앞서 언급한 프리뮤즈와 국제펜클럽(PEN International)으로 두 기관 모두 국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21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국제작가협회 국제펜클럽은 표현의 자유를 수

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광범위한 회원을 조직했다. 2017년에 설립된 펜아메리카의 위험에 처한 예술가 연결망(ARC) 프로그램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대표와 함께 예술적 자유에 관여하는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17년도에 설립된 네트워크 플랫폼 오스트리아예술권리정의(Arts Rights Justice Austria)는 국가의 예술적 자유 침해에 대한 기록을 체계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고 국내외적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예술적 자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억압적 관행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국가 내의 네트워크 및 협력 플랫폼은 예술 분야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며 필요한 다양성과 행동을 반영하는 예술적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데 적합하다. 미디어의 자유에 비해 예술적 자유를 위해 일하는 조직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이니셔티브의 성장은 유망하다. 또한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언론인의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위한 역량 구축 활동은 이미 150개국의 23,000명의 심사위원, 검사, 기타 사법 관계자 등을 동원한 유네스코 심사위원 이니셔티브와 같이 예술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 구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그림 10.4

지난 4년간 위험에 처하거나 망명 중인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이 개발하거나 지원한 이니셔티브들



출처: BOP Consulting (2021).

### 안전한 피난처와 도시는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위험에 처한 예술가를 돕는 것은 여전히 예술적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안전한 피난처(placement)는 단기 일자리라 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의 숨통을 터주고,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27%의 당사국만이 예술가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구축했거나 지원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그림 10.4에서 볼 수 있듯이,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같은 일부 지역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

안전한 피난처와 관련하여, 예술가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직과 인권 운동가를 지원하는 조직 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움직임도 보인다. 여기에는 '옹호자보호(ProtectDefender.eu)'와 '최전방 옹호자(Front Line Defenders)'가 포함되는데 둘 다 일반적으로 인권 운동가를 위한 캠페인을 하며 예술가와 문화권 활동가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한 조직이다. 2019년 2월, '아프리카옹호자들(African Defenders)'은 아프리카 대륙 내 피난처를 제공하는 예술가를 포함한 인권 운동가를 위한 아프리카 기반 이동지원프로그램인 '우분투 허브 시티(Ubuntu Hub Cities)'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아비장,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캄팔라, 프리토리아, 튀니스 등 6개 도시에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예술가들이 자신의 대륙에서 망명할 곳을 찾을 수 없을 거란 편견에 맞선다. 그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51명의 운동가가 지원을 받았다.

이코른(ICORN: 국제 난민 도시 네트워크)은 위험에 처한 작가, 언론인 및 예술가를 위한 장기적이지만 임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남아 있다. 네트워크에는 브라질, 유럽, 멕시코 및 미국의 70개 이상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피난처의 절반 이상을 제공한다. 헬싱키의 '위험에 처한 예술가(Artists at Risk)' 네트워크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10개국에 레지던시를 두고 있으며, 본국을 떠난 예술가들이 네트워크와 기술을 구축하여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3년부터 시작된 스웨덴 말뫼의 '세이프 헤븐스(Safe Heaven's)' 프로젝트는 망명 예술가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술가, 비정부기구(NGOs) 및 공무원의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는 박해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변호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고려되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이 망명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박해 받는 예술가들이 작업을 이어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의 행동과 지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UNESCO, 2020d).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오랜 기간의 망명 생활로 추가적인 외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 내에서 안전한 장소를 제공받는 혜택이 요구된다

특히 고국의 갈등으로 망명을 강요 받는 예술가들은 더욱 취약하다. 일부는 수용국에서는 모든 망명 신청자와 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리허설 공간 비용, 재료 구입, 에이전트 고용 및 기타 수수료와 같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 비용을 감당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방된 예술가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식별하고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창의성과 문화를 유지하는 데 특히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작곡작사가 협회는 체류 기간 동안 스웨덴 예술가와 동등한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가능한 경우,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오랜 기간의 망명 생활로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입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지역 내에서 안전한 장소를 제공받는 혜택이 있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는 파나크펀드(Fanak Fund)는 아랍권 분쟁 지역의 예술가와 문화 활동가, 그리고 해당 지역에 망명 중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예술가를 지원한다. '아나하우나(Ana Houna)' 프로젝트를 통해 다후크(이라크), 이스탄불, 레바논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3~6개월 정도의 숙소, 직장 및 작업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한다.

## 디지털 환경의 어려움

예술적 자유에 대해 더 중요해지는 분야는 디지털 영역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영감과 예술적 교류는 물론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 배포 및 판매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젠더 문제를 탐구하는 행동주의 예술 작품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검열 위협을 초래한다. 더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장르와 지리적 지역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이 부상하는 가운데 예술가는 본인 작품을 자체 검열하거나 청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업적인 형식으로 조율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민간 기업도 문화 콘텐츠 규제에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온라인에서 유해한 콘텐츠(성적 학대, 폭력 선동 및 혐오 표현)를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인터넷 회사는 부적절한 데이터가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 글상자 10.4 • 독일 -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지원하는 여러 이니셔티브

독일 정부는 국내외에서 수많은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통해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한다. 집권연합의 2018년 협정은 '문화 및 과학, 미디어 및 교육에 관한 정책은 열린 사회, 의견의 자유, 과학 및 예술적 자유를 위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용기 있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전 세계의 예술가, 지식인, 언론인, 과학자 및 학자들의 위험을 감안하고 우리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망명자를 포함한 예술적, 과학적 자유, 언론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책임은 2018년 마틴 로스 이니셔티브(Martin Roth Initiative)의 외교연구소(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와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의 공동 프로젝트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들은 예술적 자유 증진 분야의 국내외 실천가를 위한 자문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이벤트 등의 활동을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박해를 받고 있는 국가에서 온 40명 이상의 예술가들을 도왔으며, 그들 중 약 60%는 독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예술가가 귀국할 수 있을 때까지 자국 밖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귀국이 불가능한 경우 주최국에서 작업의 기반을 닦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다.

한편 2019년 베를린은 이코른(ICORN)과 함께 박해받을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에게 수여되는 펠로우십 옐토펜 베를린(Weltoffenes Berlin: 범세계주의적 베를린)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적 삶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문 프로젝트와 함께 베를린의 문화 행위자와 협력하여 매년 12~18개의 펠로우십이 수여된다.

출처: Germany QPR.

이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사용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에 플래그를 지정하는 조합을 통해 수행된다. 특히 로봇은 시각 데이터를 다룰 때 구어체와 유머의 미묘함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AI) 사용이 복잡하다(Kaye, 2020). 또한 사용자 알람에 의존하게 되면 여론에 의한 검열이 발생할 수 있다. 두 가지 형태의 콘텐츠 삭제는 규범에 도전하는 예술, 특히 여성, LGBTQ+ 개개인 및 기타 소수자가 제작한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경우, 예술가는 삭제할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한 기업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이 삭제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항소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는 예술가와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예술에 참여할 기회가 거부된 관객에게 마비 효과를 줄 수 있다.

### 디지털 검열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검열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관한 원칙을 수정하며 온라인에서의 자유를 포함했다. 특히, 국제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당화되지 않고 데이터가 '임박한 위험, 사망 또는 심각한 위협의 실제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하지 말라고 국가에 요청했다(ACHPR, 2019). 여성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폭력에 관해 유네스코가 의뢰한 대규모 글로벌 연구의 일부인 125개국 901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거의 4분의 3이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Posetti et al., 2021). 여성 예술가

의 상황이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 예술적 자유에 관한 비정부기구(NGOs)는 콘텐츠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 플랫폼에 로비를 하고 있으며 예술가에게는 디지털 검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펜아메리카의 '온라인 폭력 현장 지침서'와 프리뮤즈의 '디지털 톨킷'이 포함된다. 분명한 것은 디지털 검열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2월, 제1회 '대규모 콘텐츠 관리(Content Moderation at Scale)' 컨퍼런스가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단체, 옹호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규모 개인 워크숍의 형태를 취했다. 본 컨퍼런스는 콘텐츠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에 관한 산타클라라 원칙<sup>4</sup>의 공식화로 이어졌다. 이 원칙에 따라 기업은 콘텐츠 지침 위반으로 인해 삭제된 게시물과 계정 정지수를 게시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조직은 2019년에 12개 회사가 원칙을 승인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레드잇(Reddit)은 이 원칙을 완전히 이행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6개의 예술적 자유에 관한 단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인 '예술을 지우지 마세요(Don't Delete Art)'<sup>5</sup>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검열된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가상 갤러리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SNS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예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일련의 원칙을 만들었다.

직접적인 검열 외에도 온라인 영역에서는 학대와 괴롭힘을 야기한다. 여성 예술가 경우 특히 성적취향이나 성 불평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때 온라인에서 더 취약해진다. 프리뮤즈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혐오적 온라인 학대 및 위협에 매우 취약'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은 예술가가 온라인상 위협과 협박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여성은 특히 이러한 괴롭힘과 검열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종종 사회의 보다 급진적이고 목소리가 높은 분야의 견해에 의해 주도되는 커뮤니티 사용 정책에 따라 결정을 외부에 위탁한다(Freemuse, 2019). 예를 들어 많은 정부는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품위' 관련 규제 등을 사용한다.

### 여성 예술가 경우 특히 성적 취향이나 성 불평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때 온라인에서 더 취약해진다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리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규제가 너무 많으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규제가 없으면 잘못된 정보와 유해한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2021년 5월 3일 발행된 유네스코 이슈 브리핑 '디지털 시대의 투명성과 책임성(Letting Sun Shine 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igital Age)'에서는 인권에 대한 불균형한 제한을 초래한 국가의 콘텐츠 과잉 규제와 혐오 표현 및 허위 정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방임 사이의 제3의 방법으로 투명성 강화를 제시한다(UNESCO, 2021f).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은 유해한 법안이 철폐되었고 인권 단체들의 예술적 자유를 위해 벌인 투쟁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예술적 자유의 풍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4. [www.santaclaraprinciples.org](http://www.santaclaraprinciples.org).

5. <https://dontdelete.art>.

## 특별한 권리가 아닌 평등한 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예술에 대한 대중 인식은 생산적이지 않은 '놀이'나 사랑의 노동으로, 보수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어도 수행될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견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들고 배포할 자유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야에는 당연시 되는 것들, 곧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사회복지와 보호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권을 부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2019년에 의뢰한 52개 회원국과 3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NGOs)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기반의 한 '예술가를 위한 문화 및 노동 조건 연구'에서는 전 세계 예술가들이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술가가 미래 수입과 본업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Neil, 2019).

## 전 세계 예술가들이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많은 국가에서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가 있다. 2018-2020년 기간 동안 예술적 표현의 자유 증진과 관련된 조치보다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보호와 관련된 조치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 프리랜서, 비정규 계약 및 저임금 또는 무보수

문화 분야의 프리랜서 근로자 비율이 다른 분야보다 더 높다. 유엔국제노동기구(ILO)는 유럽의 창의분야 근로자의 30~50%가 자영업자이며 개발도상국에서는 40~60%로 증가하였고 여성이 남성

보다 프리랜서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정한다(Galian, Licata, & Stern-Plaza, 2021). 프리랜서 계약과 불규칙한 계약이 늘어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저임금의 만연, 심지어 무보수로 일하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 프리랜서 계약과 불규칙한 계약이 늘어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보장되지 않는다

여러 국가에서 최저 임금을 도입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아일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Ireland)는 2022년 말까지 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도입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예술가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들의 가치를 알며 전문 협상 및 계약 단계를 더 능숙히 이끌 수 있다고 느끼길 원한다. 이 정책을 통해 예술가도 동등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식을 장려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Arts Council Ireland, 2020b).'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급여와 조건을 보장하는 공정 근로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공정한 업무 관행을 보장할 스코틀랜드의 문화유산 공공기관으로 확장된다(Scottish Government, 2020). 웨일스 예술위원회(Arts Council Wales)는 업계 최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최소한 국가의 최저 임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dmund, 2019). 유사하게 리투아니아에서는 2018년 협정 각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에서 고용한 문화 노동자의 급

여가 평균 임금의 최소 90%에 도달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많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일반적인 노동에 적용되는 필수 기준 미만의 소득으로 인해 건강, 실업, 퇴직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다. 특정한 예술 형식, 가령 무용수는 조기를 은퇴해야 하고 음악가는 외부에서 인식되지는 않지만 음악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미한 손 부상 등 직업적 건강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문화 노동자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며 예술가의 사회적 보호는 국가의 사회적 보호의 위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는 특정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와 그렇지 않은 조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예술가의 지위 향상

예술인 지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표 10.1). 이는 예술가가 문화 노동자로 간주될 권리와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경제적 이점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초한 유네스코 <1980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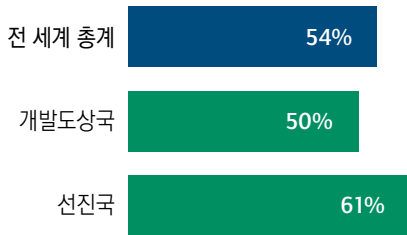
87개 국가 중 54%가 지난 4년 동안 새로운 경제 조치 또는 수정된 경제 조치를 채택하여 예술가의 지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유사한 조치에 추가되는 점진적이고 고무적인 추세이며 2020년 코로나19의 도래와 함께 추가적인 자극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50%)보다는 선진국(61%)의 수치가 약간 높다(그림 10.5).

이러한 국가 중 하나는 스페인으로 2019년 1월 예술인 법령을 구성하는 조치에 대한 왕립 법령이 승인되어 '급속도로 변화하는 작업 환경, 특히 문화적 소명이 오해받는 작업'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75개의 조치를 도입했다. 여기에 '문화 분야 종사자는 종사자는 공정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에는 창작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비활동 시의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과 문학계의 중요한 소득인 저작권을 통한 소득의 양립, 연금법 상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제도 등이 있다(Rico, 2019).

### 그림 10.5

2017-2020년에 예술가의 지위를 고려한 경제적 조치를 채택하거나 개정한 국가



출처: BOP Consulting (2021).

사이프러스, 오만, 폴란드, 세네갈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거나 고려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폴란드에서는 전문 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안이 2021년 의회의 입법 절차에 회부되었지만 입법 진행이 더디거나 예술 분야 내 자금 또는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구현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술인 지위법에 따라 관련 실용적인 조치와 자금이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인 지위법의 핵심 요소는 예술가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많은 국가에서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공식적인 직업적 지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술가를 더 잘 정의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최근 페루에서는 예술가와 공연자에 관한 법률을 확대하여 ‘예술가’ 자격을 갖춘 직업의 전체 목록을 제공했다. 일부는 기존의 범주를 벗어나 노동, 도덕적, 재정적 권리 자격에 대해 명확히 했다. 마찬가지로 2019년 알제리에서는 창의 분야의 180개 직업이 사회복지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표 10.1

### 전 세계 예술가의 지위법

국가	관련 법령
오스트리아	법적 사회 보험을 위한 독립 예술가 기부 축진을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연방법
벨기에	2002 프로그램 법률의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장
베냉	예술가 지위 법령
불가리아	자유 직업을 가진 사람과 해외에서 일하는 불가리아 시민의 사회 보장에 관한 노동법 조례
부르키나파소	예술가의 지위 법령
캐나다	예술가 지위법
크로아티아	독립 예술가의 권리와 문화예술적 창의성 증진에 관한 법률
에스토니아	창의적 인물 및 예술가 협회법
프랑스	비정기적 시스템
독일	예술가의 사회 보장법
헝가리	간소화된 공공부담담금(EKHO) 법률
라트비아	창의적 개인 및 전문적 창의적 조직의 지위에 관한 법률
리투아니아	예술 창작자와 그 조직의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전문 공연 예술에 관한 법률
룩셈부르크	독립 전문 예술가 및 간헐적 공연자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조치 및 예술적 창작 축진에 관한 법률 개정
마다가스카르	예술가의 지위 법령
말리	예술가의 지위 법령
모로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법
니제르	예술가의 지위 법령
페루	공연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한민국	예술인 복지법
슬로바키아	예술 기금에 관한 슬로바키아 공화국 국가 위원회의 법률
슬로베니아	문화분야의 자영업자에 관한 법령
스페인	예술 창작 및 촬영에 대한 긴급 조치를 승인하는 왕실 법령
네덜란드	예술가 근로 및 소득법
우루과이	예술가의 지위 및 관련 무역법

\*4년제 정기보고서 및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이행에 관한 2018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문화와 시청각에 관한 유럽 전문가 네트워크'의 2020년 보고서 '예술가와 문화·창의분야 전문가의 지위 및 근로 조건'의 내용으로 보충  
출처: BOP Consulting(2021).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저작권청(BBDA)이 예술가 회원의 저작권과 사회복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각각 기술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관광부 및 경제 재정개발부와 협력하여 저작권청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건강 보험 지원 및 사망 수당에 대한 기부금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이는 저작권 지불에서 법정

기부금을 통해 지불된다. 알제리에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며 저작권 국립사무소(National office on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지불된 로열티의 10%가 연금, 건강 및 사망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은 국립예술문학협회(Conseil National des Arts et des Lettres)의 회원 자격에 달려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가의 지위를 확인하고 인증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이용한다. 크로아티아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사회복지 자격을 얻으려면 크로아티아 프리랜서 예술가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자의 활동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를 포함하여 문화부 회원과 4명의 다른 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패널이 심사를 맡는다.

### 예술가의 사회복지 접근성 보장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 고용의 산발적이고 저임금이라는 특성은 근로자가 사회복지 혜택이 충분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에 맞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가 그 분야를 계속하거나 그 분야에 진출하는 것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재정적 수단이 없는 이들에게 문화 분야의 예술적 표현을 박탈한다는 뜻이다. 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 유엔국제노동기구(ILO)는 문화 작업의 비정형적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기여 및 비기여 메커니즘을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Galian, Licata and Stern-Plaza, 2021). 예를 들어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문화 노동의 비공식적이고 비정규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우루과이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총 근무일수가 150일 미만이라도 최소 150일의 근무일을 기여하거나 연간 4건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가는 1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8년 이래로 35개 국가에서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했다고 보고했다. 2018년에 오스트리아는 예술가의 고용과 소득 상태를 검토하여, 공정보수 전략과 사회보장, 연금, 실업수당, 보다 관대한 비상자금 조건을 개발하였다. 세네갈에서는 2019년에 450명 이상의 노동자가 문화 활동을 위한 새로운 의료혜택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인도는 기성 예술가를 위한 연금 기금과 의료 지원 기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코스타리카, 오만, 폴란드, 대한민국(글상자 10.5) 및 스위스도 예술가를 위한 사회복지 조항을 검토했다고 보고했다. 예술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유럽연합 이사회의 2019-2022 문화를 위한 작업 계획에도 포함되었으며, 이는 유럽위원회(EC)와 유럽 국가들에게 문화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제공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8). 이 작업 계획의 여러 요소는 2020년 수행한 연구와 2021년 3월에 시민사회 주도의 브레인스토밍 보고서인 '문화의 목소리(Voices of Culture)'를 포함하여 이미 실행되었으며, 예술가와 문화·창의분야 전문가의 지위와 근로 조건에 대한 권고 사항을 유럽위원회(EC)에 제시했다.

2018년 유네스코는 <1980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이행에 관해 회원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약 당사국의 42개 응답 중 11개는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특별 조항과 함께 사회 보장 조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대부분은 사회보험 및 퇴직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노동 시간 동안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실업 제도를 시행했다

소득 보장이나 경력 전환 계획을 제공한다고 보고하는 국가는 드물다. 그러나 창작 활동에는 작품 개발, 홍보 기간, 레지던시 참여 등 프로젝트 개발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기 마련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노동 시간 동안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실업 제도를 시행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벨기에에는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단축할 수 있는 다른 고용을 요하지 않고 창작개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EENCA, 2020). 여러 아프리카 정부에서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창의 산업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개발하는데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 글상자 10.5 • 대한민국의 예술인 복지법

대한민국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에 발효되어 2,500달러씩 5,500명의 예술가에게, 무려 총 2,500만달러 이상의 저소득 보조금을 전달했으며 240명의 고령 예술가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 법이 제정된 후로 21,5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았다. 2019년에 시작된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건강, 등록금 또는 거주지가 필요한 예술가에게 2.2%의 유리한 이자율로 약 4,000달러의 긴급 대출을 제공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대출액은 거의 두 배로 높였고 이자율은 절반으로 내렸다. 2019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에만 1,497건의 대출이 승인되었다. 2019년에는 산업재해 보상이 50%에서 90% 사이로 감소했고 3,236명의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았다. 2020년 5월에는 약 75,000명의 예술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무의 불안정한 특성이 인정되어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예술가들은 이제 대한민국 평균 월 소득의 약 60%에 해당하는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처: Republic of Korea QPR; Kim et al.(2020).





© Lysander Yuen / Unsplash.com

# 예

술가, 배우, 음악가, 화가, 코미디, 만화, 풍자 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용기 있게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억압된다면 어떻게 새로운 서사를 형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창작의 자유 없이는 다양한 표현을 모두가 듣고 보고 즐기고 감상할 수 없을 것이다. 창의성은 다양성을 키우고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의 자유의 본질이다. 예술적 자유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에 관한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모든 사람은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대담한 아이디어를 촉발시킨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위협, 투옥 및 공격을 받고 있다. 예술적 자유는 세계 여러 곳에서 위협할 정도로 쇠퇴하고 있다.

여성 예술가는 이러한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 젠더 정의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A/76/258)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여성의 도전과제에 전념했다. 필자가 그 보고서에서 썼듯이 페미니스트 예술가와 활동가들은 규범과 관행을 파괴하고 재구성하고 사회문화적 서사와 권력 구조에 도전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과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는 대화를 촉발하려고 한다.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종교적 해석, 전통적 가치,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이용하여 여성과 성별 불응자의 예술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한다. 여성 예술가와 여성 권리에 대한 예술 작품도 온라인에서 불균형적으로 검열되고 있다. 검열은 종종 SNS 플랫폼의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일관되지 않은 콘텐츠 관리 정책에 의해 촉진된다. 여성 및 LGBTQI 아티스트가 자체 검열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공간이 주요 문화 교류의 장이 된 코로나19 시국 동안 더 악화되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으로서 임무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깊이 헌신하고 있다. 예술은 선택이 아니라 여성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성의 창의성이 무시된다면 성평등과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약속은 충족될 수 없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유네스코, 유엔 인권 시스템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예술가가 붓을 사용하고, 노래를 부르며, 시와 산문을 창작 및 출판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두려움 없이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아이린 칸(Irene Khan)

의견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 조합의 자유 및 단체 교섭

많은 전문 분야는 더 나은 급여, 복리후생 및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 교섭에 의존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가들이 집단 행동을 할 권리가 없어 해당 분야를 전문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1980년 권고보고서 및 노동 조건 보호에서 전문직 및 노동 조합 조직의 역할을 인정하고 예술가에게 회원이 되고 집단 행동을 취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지침 원칙 VI. 4).

일부 국가에서는 단체 교섭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고 있다

좋은 노동 관행을 수호하는 노동조합 역할의 중요성은 특히 칠레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칠레에서는 배우 조합 '시다르떼(Sidarte)'와 공연예술 플랫폼이 노동조합과 분야 대표들을 모아 보호 및 규정 준수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시다르떼는 노동법의 불일치를 식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는 일부 예술가가 추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에 법이 개정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미디어 및 창의산업 노동조합 '신디카시(SINDIKASI)'는 문화 노동자를 위한 문제와 해결책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임금, 과로, 계약체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권리, 분쟁 해결,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체 교섭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콜롬비아는 단체 교섭에 대한 행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접근을 더 잘 규제하기 위해 사회보장법을 개정했다(Cuny, 2020). 2016년 모로코에서는 음악 및 공연예술

분야와의 협의를 통해 기술자, 감독 및 중재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근로자를 포괄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이제 노동법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조직을 구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과 사회보장권의 실질적인 인정이 포함된다.

## 디지털 영역에서의 공정한 급여와 복지 보장

디지털 영역에서도 예술가의 작업 환경은 열악하다. 디지털 변혁과 혁신이 문화 분야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대중과 청중에게 더 큰 창의성을 향유하게 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온라인 및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전환은 종종 창작자에게 거의 또는 전혀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디지털 변혁과 혁신이 문화 분야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대중과 청중에게 더 큰 창의성을 향유하게 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음악 및 영화 산업이 직면한 이러한 특정 문제에 대응하여 쿠바는 2019년에 독립적인 시청각 및 영화 회사에 법적 인정을 확대하고 대부분이 민간 분야인 이 업계의 근로자에게 사회복지 권리를 확대했다. 이탈리아도 2020년 초 전국 단체 노동 협약을 갱신하면서 디지털 분야의 문화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확대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다. 파일 공유 또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을 포함하여 온라인 영역에서 매일 수백만 건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Geiger, 2014). 호주, 독일, 케냐, 노르웨이는 모두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을 수정했다고 보고한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경제적,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여 무단 사용으로부터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물의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경제적,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여 무단 사용으로부터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물의 가치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과 다양한 문화·창의분야의 궁극적인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들은 신규 또는 기존 저작권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가봉, 멕시코, 탄자니아에서는 창작자와 공무원 모두가 저작권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입법이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중과 공무원에게 저작권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 관련 문제의 조직을 개선했다고 대해 보고한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와 지부티에서는 새로운 공동 관리 조직이 설립되었다.

많은 공동 관리 조직의 결정적인 문제는 사용자가 지불을 거부할 때 저작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콜롬비아, 코모로, 우간다는 모두 저작권법 시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한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는 경찰과 우간다 영화산업 연맹(Uganda Federation of Movie Industry) 간의 고무적인 협력을 통해 우간다 경찰청 산하에 지적재산권집행



© Marius George Oprea / Unsplash.com

## 두

개의 전쟁통에(하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는 이미 시작됨) 두 개의 가면(하나는 웃고 다른 하나는 우는)을 쓰며 베이루트(Beirut)에서 연극을 하는 것은 전쟁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전쟁은 기억의 도구를 파괴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파괴하기에 예술가들은 전쟁에 저항한다. 그들은 멸망할 운명, 사람, 이야기를 취하고, 공연의 공간에서 무기과 군대가 저지른 일을 되돌려서 전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면 안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맥락을 만든다.

한 배우로서 관객들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꿈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두려움은 나의 두려움이며, 그들의 미래도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문학적이거나 오락적인 연극을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실생활에 몰입하는 것은 창작 에너지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예술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 고유한(지적 및 예술적) 에너지를 공유하는 시인, 시각 예술가, 음악가, 비디오 제작자 및 기타 예술가와 교감하면 문화를 재창조하고 사람들의 어려움과 희망을 전달할 수단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에게 필요한 도구(공간, 장비, 물류)를 제공하고 수련과 작업 보급에 필요한 시설과 그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후원이 창의성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면 추후에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명확한 목표는 다양성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문화적 욕구를 자극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촉진하는 것이다.

**로저 아사프(Roger Assaf)**

배우 겸 연극 연출가

단(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Unit)이 설립되었다.

케냐에서는 201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 관리 조직 개편, 예술가의 재판매권(resale royalty right, 추급권) 포함돼 온라인 저작권 조항과 함께 저작권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S)에 대한 유럽의 저작권 지침 반영하여 창작자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접한 작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단 접근을 차단하여 예술가와 대형 테크 회사 간의 공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한다. 지침 17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무단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관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유럽 시민의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와 예술인 지위법 및 예술가의 사회복지 접근성 개선은 디지털 환경을 포함하여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가 진지하게 고려되기 시작했다는 유망한 신호이다. 이러한 개선은 문화 분야의 이미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비추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Velizar Ivanov / Unsplash.com

## 문

문화·창의분야는 사람들에게 유연하고 독립적인 작업의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성장 중인 고용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일부 근로자, 특히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는 사회적 대화 참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 산업 보건 및 안전 또는 안정적인 보수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가는 사회 보장을 해당 분야로 확대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세계적 팬데믹과 그 사회경제적 결과로 인해 사회 보장 범위와 자금 조달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특성에 맞게 조율하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동성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문화·창의분야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성, 청년과 더불어 장애인, 이주 노동자,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사람들, 저임금 직종의 종사자, 부적절한 보호 또는 부재로 인해 불균형한 타격을 입는 비공식적 경제 근로자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어야 한다.

이 분야의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노동 조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보호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보호는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양질의 노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 조직 간의 사회적 대화는 문화·창의분야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 경제는 일자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해당 분야의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유엔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 코로나19: 긴급 조치 및 경험 공유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문화계 종사자와 예술가들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개정이 시급해졌다. 코로나19는 갤러리, 워크샵, 레지던시 및 라이브 공연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1년 이상). 직업, 정신 건강 및 기타 사회적, 경제적, 복지 비용에 대한 완전한 영향은 팬데믹이 진정될 때까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Walker, 2021).

디지털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작품에 대한 지불은 물리적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온라인 제작 및 배포는 대면 행사의 수익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반면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의 성장을 촉진하여 작품의 지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대중이 봉쇄 중에도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작품에 대한 지불은 물리적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온라인 제작 및 배포는 대면 행사의 수익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봉쇄 기간에도 작품을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소중했지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s)가 지불하는 로열티가 적고, 대중 후원을 장려하기 어렵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술가는 손에 꼽는다. 팬데믹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관련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보접근과 팬데믹 대응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려움은 여러 국가에서 심각하게 축소되어 바이러스에 대한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표면적으로는 허위 정보 근절을 위해 가짜 뉴스로 인한 체포와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부의 팬데믹 정책에 대한 비판의 상대로 너무 자주 이용된다. 다른 곳에서는 위기의 시기에 합당한 제한을 과하게 초과하는 비상 입법을 시행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팬데믹을 오랜 경력의 비평가를 탄압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공장소와 모임에 대한 제재는 대중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 역시도 제한했고 이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쳤다(Jacobsen, 2020). 프리뮤즈는 2020년에 코로나19에 대해 발언한 예술가에 대한 위반 사례 65건을 보고했다(Freemuse, 2020c). 코로나19 이후 몇 년 동안 정부와 법원은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내린 결정과 인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코로나19 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일탈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법 운영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Barata, 2020).

코로나19 이후 몇 년 동안 정부와 법원은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내린 결정과 인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많은 정부는 보조금 또는 대출, 면세, 재정적 의무(예: 사회보장연금) 및 임대료 지불 연기 등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노동자와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일종의 조치를 취한 반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지원한 사례는 훨씬 적다.

팬데믹의 첫 물결에서 많은 국가와 시민 단체는 팬데믹이 문화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는 위기 동안 예술가의 다양한 요구를 결정하는 데 중요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위해 팬데믹 가운데 예술가와 소규모 문화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2020년 4월에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1,450개 이상의 응답 중 나타난 가장 큰 어려움은 고정 비용, 특히 임대료, 직원 급여 및 청구서를 충족해야 하는 필요성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2020년 5월에 국립창의구조호프로그램(National Creative Relief Program) 창설의 기초를 형성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개인 및 소기업이 팬데믹 영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2020년 4월, 유네스코는 협약 당사국이 제공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팬데믹에 대처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적하는 웹페이지인 '코로나19 대응 플랫폼(COVID-19 Response Platform)'<sup>6</sup>을 개시했다.

6. <https://en.unesco.org/creativity/covid-19>



이제 각 아프리카 국가는 예술가와 창작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도 창작 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이다. 예술가의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

아비나쉬 티럭(H.E.Mr. Arinash Teruck)  
모리셔스 예술문화유산 장관, 2020년 7월 28일 유네스코 리질리아트 '아프리카 지역 예술가의 지위' 온라인 행사 연설 중

플랫폼이 추적하는 조치 중에는 긴급 보조금, 사회 보장 혜택의 연장 및 위기 동안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State) 위원회를 포함하여 개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조치가 있다. 여러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는 관련 연구와 정책 문서뿐만 아니라 분야별 요구사항과 채택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했다.

긴급 보조금은 위기 상황에 소득을 보장하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하여 새로운 작업을 만들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재구성하는 작업 방식을 장려하는 데 최대 미화 3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89개 예술 단체에 제공했다. 그리고 팬데믹의 직접적인 결과로 막대한 소득의 손실을 겪고 있는 개인을 위해 최대 미화 3만 6,000달러의 긴급 구호 보조금도 제공했다. 또한 행사, 엔터테인먼트, 관광,接客 분야의 모든 근로자에게 12주 급여 보조금을 제공했다.

### 긴급 보조금은 위기 상황에 소득을 보장하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는 예술가도 복지와 노동력의 다른 부분에 제공되는 긴급 혜택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립 영화 및 시청각 예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inema and Audio-Visual Arts)가 아르헨티나 영화산업연합(Argentine Film Industry Union)과 영화 분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의료, 의약품 및 기타 직접 지원 비용을 위해 미화 약 64,000달러를 연속 3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지급한다(Télam Digital, 2020).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에서는 매년 해당 분야의 자영예술가에게 급여를 할당하는 예술가 급여 기금을 팬데믹에 대응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에게 총 2,200개월을 할당했는데, 이는 전년도 할당된 1,603개월에서 37%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해당 분야에 대한 팬데믹 영향의 긴급성에 국가가 대응한 혁신적인 방법의 일부일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초기 연구에서 보고된 우울증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2019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기도 (Abbott, 2021). 문화 분야에 대한 영향은 특히 심각했다. 튀르키예 음악가 및 연주자 연합(Turkish Musicians and Performers Union) 무직센(Muzik-Sen)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 100명 이상의 음악가가 음악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Tokyay, 2020). 호주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음악 산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증가했는데 이 안타까운 패턴은 다른 국가의 문화 분야에서도 보였다(Marrozzi, 2021).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예술 분야에서 증가하는 정신 건강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문화 분야의 예술가, 장인 및 전문 종사자에게 심리사회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퀘벡 예술가재단(Fondation des Artistes)에 미화 261,70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실라파 웰니스(SILAPHA Wellness)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전례 없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다. 유네스코의 공헌은 2020년 4월 코로나19가 문화 분야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조명하기 위한 가상 토론의 리질

리아트(ResiliArt) 글로벌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15개국 이상에서 1,000명 이상의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건강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허위 정보를 퇴치하는 데 있어 창의성의 역할부터 팬데믹 이후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275개의 토론이 주최되었다(41.7% 시민단체가 조직하거나 공동 조직했다).

이 위기의 교훈은 창의분야의 취약한 생태계가 미래의 충격을 견디려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위기의 교훈은 창의 분야의 취약한 생태계가 미래의 충격을 견디려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기가 닥쳤을 때 프리랜서의 숫자와 같은 해당 분야의 기존 데이터에 접근하면 해당 분야의 생존을 돕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장소, 공연장, 극장, 갤러리 등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인 만큼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잃은 예술가에 대해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국제 사회와 우리 모두가 그들의 작품을 기념하고 예술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모두를 위한 문화 생활을 촉진하고 영향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추억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카리마 베누네(Karima Bennune)  
전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2020 세이프 해브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연설 중(온라인)

## 결론 및 권고사항

이 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예술적 자유 분야의 발전을 살펴보았다.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경제적 권리(전 세계 예술가들이 여전히 안전망과 공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됨) 측면에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예술적 자유의 두 측면에서 정책적 개선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일부 국가에서 신성모독법을 없애고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 단체와 인권 단체 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후자는 예술적 자유를 위한 투쟁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가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술적 표현보다도 이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를 더 많이 보고했다. 여러 국가에서도 예술인 지위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했다.

예술적 자유와 관련된 정책과 조치에 대한 일관된 보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진행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볼 수 없다. 이러한 지식 격차를 해소하여 예술적 자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예술가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는 예술인 지위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채택하여 예술가를 정의하고 고용의 비정형적 특성을 인식하며 이 법률이 이 분야의 국제 및 지역 표준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에 관한 신규 및 개정 법률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국가, 국제 및 지역 조직과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는 현장에서 예술적 자유를 모니터링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문화권 및 인권 조직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는 피난처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 위험에 처한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장해야 한다.
- 국가는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또 특정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 및 매핑을 개선해야 한다.
- 국가는 공식적인 근로자이든 프리랜서이든 상관없이 모든 문화 노동자에게 전문가 조합의 회원이 되고 단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국가는 문화 노동자가 일반적인 노동에 제공되는 사회 보장, 연금, 건강, 실업 및 기타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의 비정형적인 작업 패턴을 인식해야 한다.

- 국가는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및 관련 보호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 창조하는 권리와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와 역량 강화 및 이 분야 관련 조치 등 예술가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한 더 큰 이해도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
- 국가는 예술적 자유가 정책 결정에 포함되도록 문화부와 사법, 고용, 노동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타 부처 간의 협력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부,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 언론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가 및 기본권을 촉진하는 기타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 기관 간에 예술적 자유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가는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예술가가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일원이 되어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문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 부록

집필자 소개  
연구 방법론  
협약  
약어  
참고문헌

# 집필자 소개



## 루이스 A.알보르네스

스페인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UC3M) 시청각 다양성 연구 그룹 소장

### 제2장 · 미디어에서의 다양한 의견 보장

스페인 마드리드의 카를로스 3세 대학교(UC3M)의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연구학과 교수로서 루이스 A. 알보르네스는 시청각 지정학 강좌를 가르친다. 그는 미디어 연구 분야의 박사 과정 부주임이자 음악산업 및 음향연구 분야의 석사 학위 담당자이다. 루이스 A. 알보르네스는 국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 협회(IAMCR)의 선출회원이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과학 학위를, 마드리드 콤포텐스 대학교에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및 광고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최근 저서로는 파워, 미디어 및 문화(Palgrave/IAMCR, 2015), 다양성과 영화 산업(UIS, 2016), 다양성 산업 시청각: 엘데사피오 문화 델실로 XXI(FCE, 2017), 시청각 산업 및 다양성: 디지털 시대의 경제 및 정책(Routledge, 2019)과 역동적인 그룹(Routledge, 2020) 등이 있다.



## 조르디 발타 포르톨레스

문화정책 및 국제문제에 관한 국제 컨설턴트 및 연구원

### 주 편집자

조르디 발타 포르톨레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로스피탈레트 데 요브레가트에 기반을 둔 문화관리 회사인 Trànsit Projectes에서 문화정책 및 국제문제의 컨설턴트, 연구원 및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지속가능한 개발, 문화다양성, 문화적 권리 및 국제문화 협력에서 문화의 역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문화위원회의 전문가이며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다양한 조직에 컨설팅을 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블랑케르나 라몬롤 대학(Blanquerna - Universitat Ramon Llull(URL))에서 국제관계 학위와 여러 대학원 과정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정치학 학사(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유럽 문화정책 석사(영국 워릭대학교)를 마쳤고, 스페인 지로나 대학교(University of Girona),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 마우리시오 델핀

페루, 태양 시민협회의 문화 관리자, 사회 연구원 및 이사

### 제4장 ·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개방

마우리시오 델핀은 시민사회, 디지털 기술, 문화 거버넌스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관리자이자 사회연구자이다. 그는 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예술 관리 및 정보시스템 설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마우리시오 델핀의 관심분야는 문화민주주의의 진화하는 개념과 시민참여와 개방적인 문화통치 사이의 관계이다. 그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인류학과 국제개발 연구 분야에서 공동 명예 학위를,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미디어,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레알다드 비주얼(Realidad Visual)(2001-2010), 페루 국립 문화 정상회의(2011-2014), 시민사회가 설계하고 유지하는 문화정보 시스템인 Culturaperu.org(2009-2015)를 공동 설립하고 감독했다. 마우리시오 델핀은 Tandem(탄뎀:문화정책 싱크탱크)의 연구원과 라 팩투라(La Factura)의 연구 개발 전략가로 일했다. 그는 바니에 스콜라(2014-2017), 미국 기구(OAS)의 개방형 정부 펠로우(2015), 라틴아메리카 개방형 데이터 이니셔티브(ILDA)의 차세대 펠로우(2020)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페루 문화단체연합(APOC) 기술서기(technical secretary)을 지냈다. 그는 또한 문화 분야의 개방적인 정부 원칙과 관행을 홍보하는 비영리 단체인 아소시아키온 시민 솔라의 설립자이자 이사이기도 하다.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유네스코 전문가 기능 프로젝트(EU/UNESCO Expert facility)의 회원이며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박사과정 중이다.



## 리디아 들루모

문화통계 부전문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 제6장 ·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세계적인 흐름: 여전히 일방적인 무역

리디아 들루모는 15년 이상 문화전문가로 활동한 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이다. 그녀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 문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문화 및 자연 유산(지속가능발전목표 11.4.1), 장편 영화, 문화 고용 및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무역에 대한 지출에 대한 방법론 및 지표 작업을 이끌고 있고 그 주제에 대한 보고서와 분석 기사를 쓴다. 2007년부터 그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관련된 측정 작업에 참여해 왔다. 그녀는 경제에서 문화 부문의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한 문화통계 및 지표에 대한 교육과 기술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고 있다. 그녀는 2009년 유네스코 문화 통계 프레임워크(FCS)의 공동 저자이다.



## 베로니크 게브르몽

국제법 교수, 라발대학교 법과대학, 캐나다

### 제7장 · 다양성보호: 협약의 프레임워크 외에도 정당한 공공의 정책목표를 여전히 추구할 수 있다

베로니크 게브레몽은 캐나다 퀘벡주 라발 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이다. 그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유네스코 의장이며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국제 관측소(OBVI/OIISIAN) 내 예술, 미디어 및 문화다양성의 공동 리더를 맡고 있다. 베로니크는 파리 1 대학교 팜테옹-소르본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부터 국제문화 및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협상 기간 동안 유네스코의 문화정책 및 문화 간 대화 분야에서 협력 전문가였다. 가장 최근 연구 및 출판물은 문화적 권리, 무역협정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취급,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화적 차원에 중점을 두었다. 2015년부터 그녀는 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유네스코 전문가 기능 프로젝트(EU/UNESCO Expert Facility)의 회원이다.



## 아리 카마라

독립 문화정책 연구원 겸 고문, 수필가 및 문학 번역가

### 제8장 ·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아리 카마라는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하는 독립적인 문화정책 연구원이자 고문이다. 그녀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 간의 연결을 전문으로 하기 이전에 광범위한 개발 개입 쪽에서 일했다. 그녀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 영국 국제개발부, 프랑스 개발청(AFD), 여러 아프리카 정부 기관에서 일했고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전 연구원이었다. 문화 분야에서 그녀는 2004년부터 유네스코와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문화다양성기금(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하고 문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식 플랫폼의 내부 구성을 지원했다. 아리 카마라는 경험이 풍부한 학제간 전문가로 Institut Free Afrik의 연구원 이자, 수필가이며 문학 번역가이다. 그녀의 업무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이다.



## 막달레나 모레노 무지카

국제예술위원회문화기관연합 사무총장

### 제1장 ·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창의분야의 구축

막달레나 모레노 무지카는 국제예술위원회문화기관 연합(IFACCA)의 사무총장으로 70개국 이상의 문화 및 정부 문화기관 부처를 맡고 있다. 그녀는 전 칠레 국립문화예술위원회(CNCA - 현재 문화 예술유산부)의 국제업무 책임자이며 국제협력에 관한 장관 자문역이었고, 당시에 칠레의 국제 예술 및 문화 전략을 감독했다. 제6회 예술과 문화 세계 정상 회담의 프로그램 디렉터를 역임했고(2014년 산티아고); 세 번의 베니스 비엔날레에 칠레의 참여를 관여했다; 칠레 이미지 재단(Fundación Imagen de Chile) 이사회 위원이었고, IFACCA 이사회에서 CNCA를 대표했다(2012-2014). 이전에 막달레나 모레나 무지카는 호주에서 일하면서 예술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하는 국가 '최고' 기구인 Kultour의 CEO였다. 그녀는 또한 창의 호주(Creative Australia)를 위한 국가 문화정책 태스크 포스(National Cultural Policy Taskforce)의 일원이었고 개발도상국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다('South Project', 2004-2008).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아시아링크 리더 프로그램(2008년)과 호주예술위원회 이머징 리더 프로그램(2010년)의 졸업생이며, 다이버시티 아트 오스트레일리아(Diversity Art Australia)(2016년-2018년)를 포함한 여러 이사회에서 활동했다. 현재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유네스코 전문가 기능 프로젝트(EU/UNESCO Expert Facility)의 회원이다.



## 오조마 오차이

나이지리아 CC Hub의 창의적 경제 실천 매니징 파트너

### 제3장 ·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및 창의산업을 포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오조마 오차이는 역량 강화,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기술 지원, 문화·창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주도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창의경제의 발전을 지원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창의경제 전문가이다. 그녀는 나이지리아의 음악 및 영화 분야에 대한 세계은행 지원과 스웨덴 예술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국제 예술, 창작 및 디지털 분야 개발 노력에 참여했다. 오조마 오차이는 영국문화원에서 수년간 근무했으며 가장 최근의 기관 직책은 2021년 10월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예술 및 창의경제 프로그램 지역 이사였다. 그녀는 영국문화원에서 2010년 퓨처 어워즈: 올해의 영펠로우 후보에 올랐으며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DEVOS 예술경영 연구소의 펠로우, 나이지리아 리더십 연구소의 어소시에이트 펠로우 그리고 아프리카 기술 및 창의 그룹의 이사회에 선임되었다. 오조마 오차이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유네스코 전문가 기능 프로젝트(EU/UNESCO Expert facility)의 회원이다.



## 아누파마 세카르

초국가적 문화협력 전문가 및 전 아시아유럽재단 문화부 이사

### 제5장 · 예술가 및 문화분야 종사자를 위한 이동성 재해석

아누파마 세카르는 개발도상국-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초국가적 문화협력의 전문가이다. 2015년부터 유럽연합/유네스코 전문가 기금 프로젝트의 회원으로서 그녀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정부를 지원하는 기술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아누파마 세카르는 아시아와 유럽의 51개국에서 문화 분야 종사자, 예술 단체, 박물관 및 공공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ASEF(아시아 유럽 재단)의 문화부서 이사를 역임했다. 그녀는 현재 동남아시아의 예술 비평을 장려하는 ArtsEquator(예술평등위원회)의 이사이다. 아누파마 세카르는 영문학과 국제학 학위를 취득했고 인도 고전무용 바라타나티암 전문 무용수이다. 그녀는 인도 시민이며 현재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다.



## 안나 비야로야 플라나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유럽문화연구자협회 회장

### 제9장 · 성평등: 한 걸음 전진, 두 걸음 후퇴

안나 비야로야 플라나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경제학과 부교수이자 젠더 연구: 문화, 사회 및 정책 박사 과정의 학술 코디네이터이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문화경제학과 문화정책 과정을 가르친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문화활동 및 참여, 문화 고용에서의 성 불평등 및 문화의 사회적 가치 등이 포함된다. 그녀는 유럽문화연구자협회(ERICarts Network) 회장이자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연구센터(CRICC) 소장이다. 그녀는 바르셀로나 대학의 '정보 및 미디어 연구의 젠더 관점'(GENDIMS)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책임자이자 ERICarts와 유럽 평의회에서 발행한 문화정책 및 동향 개요서 내 스페인 프로필의 공동 저자이다. 그녀는 문화정책 및 문화 경제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서적의 관련 챕터를 저술했다.



## 사라 와이어트

연구원 겸 국제펜클럽 부국장, 연극

### 제10장 · 창작의 자유 보호

사라 와이어트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운동가이자 연구가이다. 특히 국제펜클럽에서 표현의 자유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20년 이상 활동했고, 그 전에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아시아 연구 부서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국제펜클럽에서 그녀는 글로벌 회원 자격으로 국제별 이슈 및 위험에 처한 작가들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로서 프리뮤즈, 유럽문화행동, 펜클럽, 그리고 스웨덴 예술위원회, 유럽 평의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녀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네스코의 2018 글로벌 리포트 문화정책의 재구성 중에서 발전을 위한 창의성 향상의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장을 집필했다.



# 연구방법론

이번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2005년 94<sup>1</sup>개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96개의 4년제 정기보고서(QPR)<sup>2</sup>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이번 제3판에서 이루어진 분석은 1980년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sup>3</sup>의 이행 상황을 분석한 2018년에 시행된 유네스코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아래 참조, 이 리포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시행됨)와 다수의 최신 업데이트된 맞춤형 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했고, 그 외에도 1차 및 2차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활용하였다.

## 4년제 정기보고서의 분석

본 판에 대해 분석된 정기보고서는 20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149개 협약 당사국 중 63%으로부터 받았다. 이들 중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가 가장 적다.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국가의 당사국(59%),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각각 67%); 동유럽 국가(71%); 및 아랍 국가(79%)(그림 11.1)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당사국에

1. 협약 제9조(정보 공유와 투명성)에 따라 '당사국은 4년마다 자국 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유네스코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년마다 열리는 정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제9조의 운영지침에 설명되어 있으며, 제3차 회의(2011년)에서 당사국 총회가 승인하고 제7차 회의(2019년)에서 개정되었다. 이 지침은 또한 4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프레임워크도 포함되어 있다.
2. 두 당사국은 보고 기간 동안 첫 번째 보고서의 제출이 늦어져 두 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3. 1980년 권고안의 이행에 관한 2018년 유네스코 글로벌 설문조사는 모든 유네스코 회원국과 관련 비정부기구(NGO) 및 국제비정부기구(INGO)에 발송되었다. 총 52개 회원국, 39개 NGO 및 2개의 INGO가 응답했다.

대한 본문 안의 참조는 본 보고서의 샘플에만 특별히 적용되며,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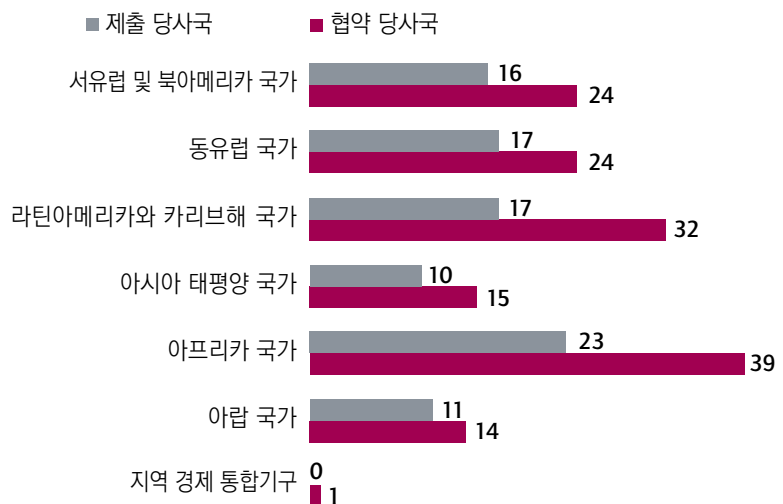
샘플에는 제출 당시 유네스코에서 사용 중인 템플릿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정기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 전략은 가장 최신 보고 형식, 즉 2019년 6월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된 형식의 정보를 기반으로 했다. 이는 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 판에서 다루는 정기보고서의 82%가 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전 보고 형식으로 제출된 나머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전체 분석에 통합될 수 있도록 내용 분석을 거쳤다.

이번 판의 결과들은 2021 정기보고서 양식에 포함된 일련의 폐쇄형 질문들에 대한 응답 분석을 기초로 했다: 일반적으로 이항(예/아니오) 또는 문화 영역<sup>4</sup>에 관해 단순하게 응답한 것이다. 따라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그림에 사용된 샘플은 정기보고서 관련 핵심 질문에 제공된 총 응답 수에 해당한다. 폐쇄형 질문을 포함하지 않는 형식으로 제출된 나머지 21개의 정기보고서는 보고된 정보의 내용 분석 대상이었다.

4.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4년제 정기보고서 프레임워크는 영화 및 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및 시각예술과 같은 문화적 영역을 파악한다.

## 그림 11.1

글로벌 보고서 제3판을 위해 4년마다 검토되는 정기보고서 개요



Source: UNESCO (2021).

폐쇄형 질문과 동일한 범주 데이터인 경우, 해당 특정 범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으로 간주하고 분석했다. 정기보고서에 보고된 관련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정성 정보 분석도 진행했다. 분석은 공통적인 특성을 식별하고, 유형 개발, 빈도를 정량화하고 트렌드 및 예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형식으로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제공된 통계의 품질을 평가했다. 최대한 데이터는 다른 외부 데이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집했다.

이 보고서 전체에서 출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는 정보가 정기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 사례 연구, 국가 사례 및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정량적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총계, 지역별 분류<sup>5</sup>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류로 표시된다<sup>6</sup>.

###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이행에 관한 2018년 글로벌 조사 분석

정기보고서의 분석은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이행에 관한 2018년 글로벌 설문조사의 데이터로 보완되었다. 설문조사에 답변한 53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42개국 이 협약 당사국이다. 그들의 응답내용은 글로벌 리포트의 여러 장에서 분석되었다. 또한 총 32개국 이 정기보고서와 그 조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정보의 삼각측량을 가능하게 했다.

5. 이 판의 지역 분류는 유네스코 선거 그룹을 따른다: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Group I), 동유럽 국가(Group II),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Group III),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Group IV), 아프리카 국가(Group Va), 아랍 국가(Group Vb).

6. 유엔 M49 통계 분류 체계에 따른다.

### 다른 주제별 데이터 활용

두 가지 주요 데이터들, 즉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정기보고서와 글로벌 설문조사 외에도, 몇몇 다른 주제별 데이터들이 글로벌 리포트 이번 판을 위해 개발되었다. 글로벌 리포트 이전 판에 대해 수행된 여러가지 분석 또한 추세를 탐색하고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반복되었다.

### 시민사회에서 수집한 정보 분석

2019년부터 시행되어 이번 판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기보고서에서 사용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4년제 정기보고서 프레임워크에는 당사국들이 시민사회 단체의 기여를 공유하는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중 79%는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한 조치 또는 이니셔티브를 포함했다(이 판에서 고려된 국가 보고서의 65%를 대표함). 이 양식의 정보는 이 판의 모든 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판의 제4장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개방'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 설문조사를 설계, 보급 및 분석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협약과 상호작용하는 1,319개의 시민사회 단체를 직접 초청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측면에서의 활동과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 표본 중 62개국 158개 시민단체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응답률은 12%였다.

### 주요 행사 분석

이번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20개 아트 비엔날레<sup>7</sup>와 60개 공인 영화제<sup>8</sup>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영화인의 성별 대표성과 이동성을 분석한다.

아트 비엔날레에 대한 데스크 리서치는 14개의 아트 비엔날레를 다룬 2018 글로벌 리포트에서 한 것과 반복되는 리서치이다. 마라케쉬 비엔날레(그 이후로 다시 개최되지 않음)를 제외하고 동일한 아트 비엔날레가 새로운 샘플에 보관되었다. 더 광범위한 국제적 균형을 위해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태평양 및 동유럽 국가의 7개 비엔날레가 샘플에 추가되었다.

7. 방콕 아트 비엔날레, 하바나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 남미 국제 현대미술 비엔날레(BIENALSUR), 아프리카 미술 다카르 비엔날레(DAK'ART), 도큐멘타(Documenta), 광주 비엔날레, 카사블랑카 국제 비엔날레, 이스탄불 비엔날레, 캄팔라 비엔날레, 고차-무지리스 비엔날레, 리옹 비엔날레, 매니페스타, 리가 국제 현대 미술 비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샤르자 비엔날레, 싱가포르 비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8. 베를린 국제 영화제\*, 탈린 블랙 나이트 영화제, 부산 국제 영화제\*, 카이로 국제 영화제\*, 카르타헤나 국제 영화제\*, 카르타고 국제 영화제\*, Cinedays (스코프제)\*, 코펜하겐 다큐멘터리 영화제(CPH:DOX), Docaviv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더반 국제 영화제, 엘 고나 국제 영화제, 유라시아 국제 영화제(아스타나)\*, 칸 영화제\*, 도미니카 공화국 국제영화제(Festival de Cine Global Dominicano)\*, 로카르노 영화제\*, 키츠뷔엘 영화제(Film festival Kitzbühel)\*, 히혼 국제영화제(Gij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과달라하라 국제 영화제(Guadalajar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홍콩 국제 영화제, 핫독스 캐나다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국제 안탈리아 국제영화제(International Antalya Film Festival)\*, 인도 국제 영화제(Goal)\*, 케랄라 국제 영화제(Trivandrum)\*,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이스탄불 영화제, 예루살렘 영화제, 카를로비바리 국제 영화제\*, 콜카타 국제 영화제\*, 키이우 국제 영화제 리스타파드 민스크 국제영화제(Listapad Minsk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마르델 플라타 국제 영화제\*, 멜버른 국제 영화제, 모렐리아 국제 영화제\*,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 Motelx-리스본 국제 호러 영화제\*, 뭄바이 영화제\*, 나무로 국제 영화제\*, 누아르영화제(코모, 밀라노)\*, 산세바스티안 국제 영화제\*, 사라예보 영화제, 상하이 국제 영화제\*, 싱가포르 국제 영화제,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Sitge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of Catalunya), 소피아 국제영화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outhby Southwest), 스톡홀름 국제 영화제\*, 선댄스 영화제, 시드니 영화제\*, 타이페이 금마장 영화제, 티라나 국제 영화제\*, 트리노 영화제\*, 토론토 국제 영화제\*, 트란실바니아 국제 영화제\*, 트라이베카 영화제 영화제, 발렌시아 국제 영화제, 시네마 조브 영화제(Cinema Jove)\*, 베니스 국제 영화제\*, 바르샤바 영화제\*,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국제 영화제작자 연맹 [FIAPF]이 승인한 영화제이다).



아트비엔날레 외에도 60개 국제영화제 수상자와 본상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데스크 리서치를 진행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연구결과가 재현됐는지를 조사했다. 이 분석은 이번 글로벌 리포트의 제5장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이동성 재해석'과 제9장 '성평등: 한 걸음 전진, 두 걸음 후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 미디어 규제기관 및 콘텐츠 쿼터 분석

미디어 규제기관 분석은 106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미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 포함되었으며, 추가로 59개국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및 확장되었다. 2018년 이후 콘텐츠 쿼터 법 조항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국가 미디어 규제기관의 거버넌스 및 목적과 관련된 법률까지 포함하도록 분석 범위를 넓혔다. 이 분석은 이번 판 제2장에 '미디어에서의 다양한 의견 보장'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 국가개발계획 및 지속가능개발전략 분석

정기보고서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글로벌 리포트에 포함된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NSDS)에 문화를 통합하는 전 세계 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계획과 전략이 만료된 경우 국가개발계획(NDP) 또는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NSDS)이 이전에 없었던 국가에 대한 새로운 계획 문서를 포함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최신 계획으로 대체했다. 업데이트된 분석에는 127개 당사국의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NSDS)에 대한 데스크 리서치 및 분석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65개는 2018년 글로벌 리포트를 위해 마지막으로 수행된 이후에 발표되었다. 이번 샘플 127개 중 개발도상국의 계획 문서는 92개(72%), 선진국의 문서는 35개(28%)였다.

이번 글로벌 리포트 제 8장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잠재력'의 기초가 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문화가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NSDS)에서 언급이 되는지 여부
-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NSDS)이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을 설명했는지 여부
- 문화 또는 문화 프로그램이 언급된 사회·경제·문화·환경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9. 문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4년제 정기보고서 프레임워크에서 확인된 하나 이상의 영역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2005년 10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제33차 총회는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간직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으며,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은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보편적으로 승인된 문서에서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기리고,

또한 빈곤퇴치에 역점을 둔 「국제연합새천년선언(2000)」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국제 개발정책에 있어 전략적인 요소로서 문화를 통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 및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무형적 부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특히, 소멸이나 심각한 훼손 가능성으로 문화적 표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과, 특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문화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문화다양성이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강화되고 문화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육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매체의 다양성과 함께 사고, 표현, 정보의 자유를 재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고,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임을 상기하고,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창작, 보급 및 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그들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그들의 자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수자와 토착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 생명력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문화적 표현을 육성하고 새롭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 진보를 목적으로 문화 발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문화적 상호작용과 창의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적 창의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말과 영상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특수 임무임을 인식하며,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채택한 국제문서의 규정, 특히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2005년 10월 20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 I. 목적과 이행원칙

###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 (b) 문화가 번성하고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
- (c) 문화간 존중과 평화의 문화 추구를 목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균형잡힌 세계 문화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 간 대화 장려
- (d) 민족 간 유대 형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화상호성 강화
- (e)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증진 및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
- (f)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와 개발 간 연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연계가 지닌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활동 지원
- (g)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에 대한 인정
- (h)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유지, 채택 및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재확인
- (i) 특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정신으로 국제적 협력 및 연대의 강화

### 제2조 이행원칙

####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 및 표현 정보,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거나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 2. 주권 원칙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 3.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소수자와 토착민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 4. 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초기단계에 있거나 확립되어 있는 문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수단 마련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5. 개발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보완성 원칙

문화는 개발의 원천이므로 개발의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만큼 중요하며, 개인과 국민들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 6.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및 유지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요건이다.

#### 7. 공평한 접근 원칙

전 세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그 표현 및 보급 수단에 대한 문화의 접근은 문화다양성을 진흥하고 상호이해를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 8. 개방과 균형의 원칙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때, 세계의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 II. 적용범위

###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정책과 조치에 적용된다.

## III. 정의

### 제4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아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 2. 문화콘텐츠

“문화 콘텐츠”란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 3. 문화적 표현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4.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란 그 당시 특성, 용도 또는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상업적 가치에 관계없이 문화적 표현을 구체화하거나 전달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할 수도 있다.

### 5. 문화산업

“문화산업”이란 위의 제 4항에서 정의한 문화상품 또는 문화서비스를 생산, 배포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문화정책과 문화조치

“문화정책과 문화조치”란 지방,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등을 포함한 개인, 집단, 사회의 문화적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입안된 문화 관련 정책과 조치를 말한다.

### 7. 보호

“보호”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존, 보호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하다”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 8.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성”이란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공평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공유 가능성을 말한다.

## IV.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반규칙

1.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및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문화조치를 채택하고, 또한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정책과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 제6조 국가적 수준에서의 당사국 권리

1. 각 당사국은 제4조 제6항에서 정의한 문화정책과 문화조치의 틀 안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a)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
  - (b)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국내 문화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기회를 국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조치
  - (c)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독립적 문화산업과 활동이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생산, 보급 및 배포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d) 공공 재정지원 제공을 위한 조치
  - (e) 비영리 조직, 공공기관, 민간기관, 그리고 예술가와 기타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 증진하며, 또한 그들의 활동에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정신을 고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
  - (f) 적절한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 (g) 예술가 및 그 밖의 문화적 표현의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 (h) 공영방송 활용을 포함한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 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1.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에게 다음 사항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a)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 (b) 자국 영토 내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의 접근
2. 또한 당사국은 예술가 및 그 밖의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문화 공동체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중요한 기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그들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

1. 이 협약 제5조와 제6조를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할 위기 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1 항에 규정된 상황에 처한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들을 제23조에 따른 정부간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위원회는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 9조 정보공유와 투명성

당사국은:

- (a)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 (b)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정보공유를 책임지는 연락관을 지정한다.
- (c)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한다.

### 제10조 교육과 공공인식

당사국은:

- (a) 특히, 교육 및 공공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한다.

(b)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 및 국제적, 지역적 기구와 협력한다

(c) 문화산업 분야에서 교육,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창의력을 증진하고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 제11조 시민사회의 참여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8조와 제 17조에 따른 상황을 유념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양자간,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a) 당사국 간 문화정책에 대한 대화 촉진
- (b) 전문적,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문화 분야 공공 기관의 공공 부문 전략 및 경영 능력의 강화
- (c)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 및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 비정부 기구, 민간부문간의 협력강화
- (d) 신기술의 활용 촉진, 정보공유와 문화적 이해를 고양하기 위한 협력 장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 (e) 공동 제작 및 공동 배급에 관한 협정의 체결 장려

### 제13조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문화 통합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개발정책에 통합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프레임워크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측면을 장려한다.

### 제14조 개발을 위한 협력

당사국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역동적인 문화 부문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소를 위한 협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a) 다음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

- (i) 개발도상국의 문화 생산 및 배급 역량 형성과 강화
  - (ii) 개발도상국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세계시장 및 국제적 배급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
  - (iii) 가능성 있는 지방 및 지역 시장형성
  - (iv)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자국 영토 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국의 적절한 조치 채택
  - (v)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의 창작 작업을 위한 지원제공 및 이동성 촉진
  - (vi) 특히, 음악 및 영화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적절한 협력 장려
- (b) 특히, 전략과 경영 역량, 정책 개발과 시행, 문화적 표현의 증진 및 보급,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 활용, 기능 개발 및 이전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와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 (c) 특히, 문화산업과 기업 분야에서 기술과노하우 이전을 위한 적절한 장려 조치 도입을 통한 기술 이전
- (d) 다음을 통한 재정지원
- (i) 제18조에 따른 국제문화다양성기금 설치
  - (ii)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공적개발원조의 제공
  - (iii) 저금리 대출 보조금 및 기타 기금 조성 기제를 포함한 그 외 형태의 재정지원

### 제15조 협력관계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부문 및 비영리 기구 간의 협력관계 개발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협력관계는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교류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인적자원 및 정책의 개발에 역점을 둔다.

### 제16조 개발도상국 우대

선진국은 적절한 제도적 ·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활동가를 우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 제17조 문화적 표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상황에서의 국제협력

당사국은 제 8조에 따른 상황에 처한 경우 상호간,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협력한다.

### 제18조 국제문화다양성기금

1. 국제문화다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유네스코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3. 기금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당사국에 의한 자발적 분담금
  - (b) 유네스코 총회에서 동 목적을 위하여 승인한 기금
  - (c) 다른 국가, 국제연합의 기구와 프로그램, 기타 지역 및 국제 기구, 공공 및 민간단체 또는 개인들에 의한 기부금, 증여 또는 유증
  - (d) 기금의 재원으로부터의 이자
  - (e) 모금 및 기금을 위하여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 (f) 기금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그 밖의 재원
4. 이 기금 재원의 사용은 제22조에 따른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정부간위원회가 결정한다.
5. 정부간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특정한 사업을 승인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일반적, 구체적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6. 동 기금의 기부금에는 이 협약의 목적과 배치되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7. 당사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기부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9조 정보 교환, 분석 및 보급

1.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범사례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통계에 관하여 정보 교환과 전문지식 공유에 동의한다.
2. 유네스코는 사무국 내 기존 기제를 활용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 통계 및 모범사례의 수집, 분석 및 보급을 촉진시킨다
3. 또한,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영역과 관련된 여러 부문들과 정부, 민간 및 비영리 기구 등에 대한 데이터 은행을 설치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한다

4. 데이터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특별히 유념한다.
5. 이 조항에 규정된 정보 수집은 제 9조에 따른 정보 수집을 보완한다.

## V. 다른 협약과의 관계

###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1.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조약에 종속시키지 아니하면서,
  - (a)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 (b)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2.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1조 국제적 협의와 조정

당사국은 다른 국제적 장에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면서 상호 협의한다.

## VI. 협약의 기관

### 제22조 당사국 총회

1. 당사국 총회를 설치한다. 당사국 총회는 이 협약의 전체회의이며 최 고기구이다.
2. 당사국 총회는, 가능한 한 유네스코 총회와 함께, 2 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거나 정부간위원회에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당사국 총회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4. 당사국 총회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a)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출
  - (b) 정부간위원회가 제출한 협약 당사국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 (c) 당사국 총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간위원회가 마련한 운영 지침의 승인

- (d)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조치 강구

### 제23조 정부간위원회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정부간 위원회”라 한다)는 유네스코 내에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제 29조에 따른 이 협약 발효 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4 년 임기로 선출된 18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된다.
3. 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과 지시에 따라 기능하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 개에 이르는 경우,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개로 증가한다.
5.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과 순환제 원칙에 근거한다.
6. 이 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다른 책임을 침해함이 없이, 정부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 이 협약의 목적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와 감시
  - (b)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지침의 마련과 제출
  - (c) 당사국 보고서를 정부간위원회의 의견 및 요약본과 함께 당사국 총회에 전달
  - (d) 이 협약의 관련 규정, 특히 제 8조에 따라 당사국이 유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적절한 권고 제시
  - (e) 다른 국제적 장에서 이 협약의 목적 및 원칙 증진을 위한 협의 절차와 기제의 마련
  - (f)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모든 과제의 수행
7. 정부간위원회는 그 의사규칙에 따라 언제든지 공공 및 민간 기구 혹은 개인들에게 특정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8. 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규칙을 마련하고 제출한다.

### 제24조 유네스코 사무국

1. 협약의 기관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유네스코 사무국은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위원회의 문서 및 회의 의제를 준비하고, 그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보고한다.

## Ⅶ. 최종조항

### 제25조 분쟁해결

-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교섭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제 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주선이나 중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교섭이나 주선, 중개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 회부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다.
- 각 당사국은 비준·수락·승인·가입 시 상기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 제26조 회원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 유네스코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다
-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 제27조 가입

- 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비회원국이지만 유네스코 총회가 가입을 초청한 국제연합이나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모두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또한 이 협약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안 1514(XV)에 따라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지만 국제연합에 의하여 완전한 내적 자치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으며 이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해 조약 체결 능력을 비롯한 권한을 가진 영토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다음 규정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a) 그 어떤 지역경제통합기구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국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속된다

(b)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 하나 이상이 이 협약 당사국인 경우, 해당 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을 결정한다. 이러한 책임배분은 (c)호에서 규정한 통고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해당 기구와 회원국은 협약상의 권리를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위임 범위에서 회원국 중 이 협약의 당사국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동 기구의 회원국 중 하나라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동 기구는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없고,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c) (b)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책임배분에 동의한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회원국은 제안된 책임배분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i) 해당 기구는 가입서에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책임배분을 구체적으로 표명한다.

(ii) 추후 책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각각의 책임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는 그 변경사항을 당사국에 통보한다.

(d)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은 동 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전이 구체적으로 수탁자에게 표명되거나 통보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 “지역경제통합기구”는 해당 지역의 주권국가,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들이 구성한 기구로서,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약이 관장하는 사안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고, 그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자격을 갖는다.

4.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28조 연락관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 각 당사국은 제9조에 따른 연락관을 지정해야 한다.

### 제29조 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

해서만 발효한다. 그 외의 당사국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어떤 문서도 동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부가적인 것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 제30조 연방제 또는 비단일 헌법제도

국제협정이 당사국의 헌법제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음의 규정은 연방제 또는 비단일적 헌법제도를 가진 이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 그 이행이 연방 또는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 그 이행이 연방의 헌법제도에 의하여 입법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주(州), 군(郡) 등과 같은 개별 구성 단위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경우, 연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주(州), 군(郡) 등과 같은 구성단위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동 규정의 채택을 위한 권고와 함께 동 규정을 통보한다.

### 제31조 폐기

- 이 협약의 어떤 당사국도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32조 수탁자기능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서 동 기구의 회원국, 제 27조에 따른 동 기구 비회원국과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국제연합에 제 26조 및 제 27조에 따른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의 기탁 및 제 31조에 따른 폐기를 통보한다.

### 제33조 개정

- 이 협약의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개정을 서면 통보를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통보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 사무

총장은 토의 및 채택을 위해 차기 당사국 총회에 동 개정안을 제출한다.

-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 이 협약의 개정안이 일단 채택되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다.
- 이 협약의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 이상이 이 조 제 3항에서 언급한 문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개정안은 해당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조 제 3항 및 제 4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수와 관련한 제 23조의 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안은 회원국이 채택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조 제 4항에 따라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제 27조상의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다른 의도를 지닌 표현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 개정된 이 협약의 당사자
  - 개정안의 기속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아니하는 협약의 당사자

### 제34조 정본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6개 원본 모두는 동등하게 정본이다.

### 제35조 등록

「국제연합헌장」 제 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 부속사항 조정절차

### 제1조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일방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이 지명한 2명의 위원과 그 위원들에 의하여 선정된 의장 등 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2조 위원회 위원

분쟁 당사국이 둘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가 동일한 당사국들은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위원을 지명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위원을 각각 지명한다.

### 제3조 지명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국들에 의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동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당사국이 요구할 때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을 지명한다.

### 제4조 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동 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일방 당사국이 요구할 때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 제5조 결정

조정위원회는 위원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절차를 정한다. 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 당사국들은 이를 성실히 고려한다.

### 제6조 의견불일치

조정위원회의 권한 여부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가 결정한다.



# 약어

ACP	아시아·태평양 방송연합
ACHPR	아프리카인권위원회
ACTED	기술협력개발청
AEdiM	마다가스카르 출판 협회
AFAC	아랍 예술 문화 기금
AfCFTA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설립협정
AFD	프랑스 개발청
AI	인공지능
APF	프랑스어권 세계의회
ARC	위험에 처한 예술가 연결망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F	아시아 유럽재단
ATI	정보에 대한 접근
ATIGA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AU	아프리카 연합
BBC	영국방송협회
BBDA	베를린 국제영화제
BITs	양자투자협정
BOP	번스 오웬 파트너십
CARICOM	카리브공동체
CBF	공동체 미디어 기금(호주)
CCEBA	스페인 부에노 아이레스 문화센터
CISAC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COMTRADE	국제 연합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Convention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SA	시청각물 최고위원회, 프랑스
CSOs	시민단체
CUSMA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

DEPA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
DESA	유엔 경제사회국
DG INTP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 파트너십 사무총장
EAO	유럽시청각기구
EBOPS	국제수지확대서비스
EBU	유럽방송연합
EC	유럽위원회
ECOSOC	유럽경제사회이사회
EENCA	유럽문화 및 시청각 전문가 네트워크
ENACOM	아르헨티나 국가통신국
ENCC	유럽문화센터네트워크
EPA	경제동반자협정
EU	유럽연합
Eurostat	유럽통계청
FATS	외국인 계열사 무역통계
FCS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FDI	외국인직접투자
FICCD	국제문화다양성연합회
FLACSO	중남미사회과학원
Fondart	국립문화예술진흥기금(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G20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G7	선진경제국 G7
GAIFF	예레반 국제영화제
GAN	생성적 대립 신경망
GDP	국내총생산
GiZ	독일국제협력공사
GMMP	글로벌미디어모니터링프로젝트

<b>GW</b>	글로벌웹인덱스	<b>NCHR</b>	국가인권위원회
<b>HRC</b>	유엔인권이사회	<b>NDP</b>	국가개발계획
<b>IADB</b>	미주개발은행	<b>NFB</b>	국립영화협회(캐나다)
<b>IAP2</b>	공공 참여를 위한 국제 협회	<b>NFT</b>	대체불가능한 토큰
<b>IAWRT</b>	국제 여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협회	<b>NGO</b>	비정부기구
<b>ICEC</b>	카리브해 국제 창의교류	<b>NSDP</b>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
<b>ICOM</b>	국제박물관협회	<b>ODA</b>	공적개발원조
<b>ICOMOS</b>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b>OECD</b>	경제협력개발기구
<b>ICORN</b>	이코른: 국제 난민 도시 네트워크	<b>OEI</b>	이베로아메리카국가기구
<b>ICT</b>	정보통신기술	<b>Ofcom</b>	영국방송통신규제기관
<b>IETM</b>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b>OGP</b>	열린정부파트너십
<b>IFACCA</b>	국제예술위원회문화기관연합	<b>OHCHR</b>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b>IFCD</b>	국제문화다양성기금	<b>OIF</b>	국제프랑코포니기구
<b>IFPI</b>	국제음반산업협회	<b>OPOOP</b>	류블랴나 현대 섬유 예술 및 디자인 연구소
<b>ILO</b>	유엔국제노동기구	<b>OSCE</b>	유럽안보협력기구
<b>IPBES</b>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정책 플랫폼	<b>PACE</b>	전아프리카 크리에이티브 익스체인지
<b>IPCC</b>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b>PACER Plus</b>	보다 긴밀한 경제관계에 관한 태평양 협정
<b>ISIC</b>	국제표준산업분류	<b>PASOC</b>	시민사회지원프로그램
<b>ISP</b>	인터넷접속서비스	<b>PMA</b>	공공미디어동맹
<b>ITC</b>	국제무역센터	<b>PRAI</b>	시청각 분야 규제 기관을 위한 이베로 아메리칸 플랫폼
<b>ITU</b>	국제전기통신연합	<b>PSM</b>	공공미디어서비스
<b>LDCs</b>	최빈국	<b>QPR</b>	4년제 정기보고서
<b>LGBTIQ+</b>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b>RCEP</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b>MCM</b>	문화장관회의(호주)	<b>RSF</b>	국경없는기자회
<b>MENA</b>	중동 및 아프리카	<b>SAMRO</b>	남아프리카음악권리 기구
<b>MERCOSUR</b>	남미공동시장	<b>SASFED</b>	남아프리카영화 연맹
<b>MFN</b>	최혜국	<b>SDG</b>	지속가능발전목표
<b>MOM</b>	미디어소유권모니터	<b>Sida</b>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b>MoMEx</b>	모로코음악수출국	<b>SIIC</b>	종합문화정보시스템
<b>MONDIACULT</b>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 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	<b>SINDIKAS</b>	미디어·창의산업노동조합(인도네시아)
<b>MSMEs</b>	중소기업	<b>SMEs</b>	중소기업
		<b>SVOD</b>	가입형 주문형비디오
		<b>TFEU</b>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UBS** 스위스 유니언 은행  
**UCC** 우간다 통신위원회  
**UCL**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영국)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UIS**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 유엔  
**UNCTAD**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DP** 유엔개발계획  
**UNGA** 유엔총회  
**UNICEF** 유엔아동기금  
**UNSD** 유엔통계국  
**UWTO** 세계관광기구  
**VAT** 부가가치세  
**V-Dem**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스웨덴)

**VLR** 자발적 지역보고  
**VNR** 자발적 국가보고  
**VOD** 주문형 비디오  
**VR** 가상현실  
**WACC**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회  
**WAVE** 여성 시청각교육  
**WCT**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WEF** 세계경제포럼  
**WHO** 세계보건기구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TO** 국제무역기구  
**XR** 확장현실





# 참고문헌

- Abbott, A. 2021. 'COVID's mental-health toll: how scientists are tracking a surge in depression'. *Nature*, 3 February. [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0175-z](http://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0175-z) (Accessed 29 October 2021.)
- Abbühl, M. 2019. *Mobility for international artists and refused visa applications. Analysis of 'worst practices'. Summary of the Report*. Swiss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www.coalitionsuisse.ch/doss/mobility/visa\\_ma\\_resume\\_fr.pdf](http://www.coalitionsuisse.ch/doss/mobility/visa_ma_resume_fr.pdf).
-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2020.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 Catalyst for Social Link. Activity Report 2018/2019*.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www.afd.fr/en/ressources/cultural-and-creative-industries-2018-2019-activity-report](http://www.afd.fr/en/ressources/cultural-and-creative-industries-2018-2019-activity-report).
- Afreximbank. 2020. 'Afreximbank Announces \$500-Million Creative Industry Support Fund as CAX WKND Opens'. *African Export-Import Bank*, 17 January. [www.afreximbank.com/afreximbank-announces-500-million-creative-industry-support-fund-as-cax-wknd-opens/](http://www.afreximbank.com/afreximbank-announces-500-million-creative-industry-support-fund-as-cax-wknd-opens/) (Accessed 30 November 2020.)
-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2019.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Africa 2019. Banjul,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www.achpr.org/legalinstruments/detail?id=69](http://www.achpr.org/legalinstruments/detail?id=69).
- African Culture Fund. 2020. Newsletter 008: October-December 2020. [www.africanculturefund.net/en/discover-acfs-newsletter-8/](http://www.africanculturefund.net/en/discover-acfs-newsletter-8/) (Accessed 29 October 2021.)
- . 2021. 'Plus de 100 000 euros collectés lors de la vente aux enchères initiée par l'ACF et la FDCCA' [More than 100,000 euros raised during the auction initiated by the ACF and the FDCCA]. *African Culture Fund*, 20 March. [www.africanculturefund.net/plus-de-100-000-euros-collectes-lors-de-la-vente-aux-encheres-initiee-par-lacfet-la-fdcca/](http://www.africanculturefund.net/plus-de-100-000-euros-collectes-lors-de-la-vente-aux-encheres-initiee-par-lacfet-la-fdcca/) (Accessed 14 June 2021.)
- African Union. 2020. *2020 Africa Visa Openness Index*.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www.visaopenness.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VisaOReport2020-R8\\_14dec20.pdf](http://www.visaopenness.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VisaOReport2020-R8_14dec20.pdf).
- Akkermans, A. 2018. 'The Challenges of Being a Syrian Artist Today'. *Hyperallergic*, 19 July. <https://hyperallergic.com/452057/the-challenges-of-being-a-syrian-artist-today/> (Accessed 14 June 2021.)
- Akten, M. 2020. 'The Unreasonable Ecological Cost of #CryptoArt (Part 1)'. *Medium.com*, 14 December. <https://memoakten.medium.com/the-unreasonable-ecological-cost-of-cryptoart-2221d3eb2053> (Accessed 14 October 2021.)
- Albert, British Film Institute and Arup. 2020. *A Screen New Deal: A Route Map to Sustainable Film Production*. <https://wearealbert.org/wp-content/uploads/2021/03/Screen-New-Deal-Report-1.pdf>.
- Albornoz, L.A. and García Leiva, M.T. (Eds.). 2019. *Audiovisual Industries and Diversity: Economics and Policies in the Digital Era*. London/New York, Routledge.
- Albornoz, L.A. and García Leiva, M.T. 2021. VOD service providers and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an audiovisual diversity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27 no. 3, pp. 267-281. [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286632.2020.1769614](http://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286632.2020.1769614).
- Alizada, N., Cole, R., Gastaldi, L., Grahn, S., Hellmeier, S., Kolvani, P., Lachapelle, J., Lührmann, A., Maerz, S.F., Pillai, S and Lindberg, S.I. 2021. *Autocratization Turns Viral. Democracy Report 2021*. University of Gothenburg: V-Dem Institute. [www.v-dem.net/static/website/files/dr/dr\\_2021.pdf](http://www.v-dem.net/static/website/files/dr/dr_2021.pdf).
- Allen, K., Friedman, S., O'Brien, D. and Saha, A. 2017. Producing and Consuming Inequality: A Cultural Sociology of the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Sociology*, Vol. 11, No. 3, pp. 271-282.
- Al-Zubaidi, Y. 2020. *Protecting Artistic Freedom as a European Value: Bringing arts, law and decision-making together*. Brussels, Culture Action Europe. [https://cultureactioneurope.org/files/2020/05/CAE\\_Protecting-artistic-freedom-as-a-European-value.pdf](https://cultureactioneurope.org/files/2020/05/CAE_Protecting-artistic-freedom-as-a-European-value.pdf).
- Anheier, H.K., Merkel, J. and Winkler, K. 2021. *Culture, the Arts and the COVID-19 Pandemic: Five Cultural Capitals in Search of Solutions*. Berlin, Hertie School. <https://opus4.kobv.de/opus4-hsog/frontdoor/index/index/docId/3722>.
- . 2019. 'Ugandan broadcast regulator says it will enforce 70% local content quota by May 2019'. *Balancing Act*, 24 April. [www.balancingact-africa.com/news/broadcast-en/45165/ugandan-broadcast-regulator-says-it-will-enforce-70-local-content-quota-by-may-2019](http://www.balancingact-africa.com/news/broadcast-en/45165/ugandan-broadcast-regulator-says-it-will-enforce-70-local-content-quota-by-may-2019) (Accessed 23 September 2021.)
- Art Basel and UBS. 2021. *Resilience in the Dealer Sector. A Mid-Year Review 2021*. Basel, Art Basel, Zurich, UBS. <https://artbasel.com/about/initiatives/the-art-market>.
- Artists at Risk Connection. 2021. *Arresting Repression: Repression, Censorship, and Artistic Freedom in Asia*. New York, PEN America. <https://artistsatriskconnection.org/story/arresting-art-repression-censorship-and-artistic-freedom-in-asia>.
- Arts Council England. 2020. *Sustaining Great Art and Culture: Environmental Report 2018/19*. Manchester, Arts Council England. [www.artscouncil.org.uk/sites/default/files/download-file/14-01-20%20Arts%20Council%20Environmental%20Report%20201819%20FINAL\\_3.pdf](http://www.artscouncil.org.uk/sites/default/files/download-file/14-01-20%20Arts%20Council%20Environmental%20Report%20201819%20FINAL_3.pdf).

- Arts Council of Ireland. 2020a. *Life Worth Living: The Report of the Arts and Culture Recovery Taskforce*. Dublin, The Arts Council of Ireland. [www.artscouncil.ie/Publications/All/Life-Worth-Living\\_The-Report-of-the-Arts-and-Culture-Recovery-Taskforce/](http://www.artscouncil.ie/Publications/All/Life-Worth-Living_The-Report-of-the-Arts-and-Culture-Recovery-Taskforce/).
- . 2020b. *Paying the Artist. An Arts Council Policy on the Fair and Equitable Remuneration and Contracting of Artists*. Dublin, Arts Council Ireland. [www.artscouncil.ie/about/artists-pay-policy/](http://www.artscouncil.ie/about/artists-pay-policy/).
- Arts Council Norway. 2020a. *A Quarter in the Music Sector Fear Bankruptcy*. [www.kulturradet.no/musikk/vis-artikkel/-/en-fjerdedel-i-musikksektoren-frykter-konkurs](http://www.kulturradet.no/musikk/vis-artikkel/-/en-fjerdedel-i-musikksektoren-frykter-konkurs).
- . 2020b. *An Inclusive Cultural Sector in the Nordics*. [www.kulturradet.no/nordic-dialogues](http://www.kulturradet.no/nordic-dialogues).
- Atenas, J., Havemann, L., Neumann, J. and Stefanelli, C. 2020. *Open Education Policies: Guidelines for co-creation*. London, Open Education Policy Lab. <https://doi.org/10.5281/zenodo.4281363>.
- Australian Government. 2020. *Media Reform Green Paper: Modernising television regulation in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www.communications.gov.au/have-your-say/new-rules-new-media-landscape-modernising-television-regulation-australia](http://www.communications.gov.au/have-your-say/new-rules-new-media-landscape-modernising-television-regulation-australia).
- Ayana, R. 2020. 'How the Murder of an Ethiopian Singer Triggered an Uprising Against a Disintegrating Democracy'. *TIME*, 24 July. <https://time.com/5871217/ethiopia-protests-haacaaluu/> (Accessed 19 August 2021.)
- Banks, M. and O'Connor, J. 2020. 'Culture After Covid'. *Tribune*, 8 November. <https://tribunemag.co.uk/2020/11/culture-after-covid> (Accessed 11 August 2021.)
- Balancing Act. 2019. 'Ugandan broadcast regulator says it will enforce 70% local content quota by May 2019'. *Balancing Act*, 24 April. [www.balancingact-africa.com/news/broadcast-en/45165/ugandan-broadcast-regulator-says-it-will-enforce-70-local-content-quota-by-may-2019](http://www.balancingact-africa.com/news/broadcast-en/45165/ugandan-broadcast-regulator-says-it-will-enforce-70-local-content-quota-by-may-2019) (Accessed 23 September 2021.)
- Barata, J. 2020. *COVID-19: The Role of Judicial Operators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Guidelines*.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208>.
- Bason, C. 2010. *Leading Public Sector Innovation: Co-creating for a Better Society*. Bristol, Policy Press.
- 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21. *50:50 The Equality Project. Impact Report 2021*. London, BBC. [www.bbc.com/5050/documents/50-50-impact-report-2021.pdf](http://www.bbc.com/5050/documents/50-50-impact-report-2021.pdf).
- Bennoune, K. 2020a. *Climate Change, Culture and Cultural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to the Seventy-fif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A/75/298).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www.undocs.org/A/75/298](http://www.undocs.org/A/75/298).
- . (2020b). *Cultural rights defender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 A/HRC/43/50.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ttps://undocs.org/A/HRC/43/50>.
- . 2021. *COVID-19, Culture and Cultural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to the Forty-six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HRC/46/34).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ttps://undocs.org/A/HRC/46/34>.
- Berridge, S. 2019. Mum's the word: Public testimonials and gendered experiences of negotiating caring responsibilities with work in the film and television industries.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 22, No. 5-6, pp. 646-664.
- Bielby, D. D. and Bielby, W. T. 1996. Women and Men in Film: Gender Inequality among Writers in a Culture Industry. *Gender and Society*, Vol. 10, No. 3, pp. 248-270.
- Bigger Picture Research. 2020. *Green matter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film production: an overview of current practic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www2.bfi.org.uk/sites/bfi.org.uk/files/downloads/bfi-green-matters-uk-screen-sector-report-2020-v1.pdf](http://www2.bfi.org.uk/sites/bfi.org.uk/files/downloads/bfi-green-matters-uk-screen-sector-report-2020-v1.pdf).
- Birhane, A. 2020. 'Algorithmic Colonisation of Africa'. *Elephant*, 21 August. [www.theelephant.info/long-reads/2020/08/21/algorithmic-colonisation-of-africa/](http://www.theelephant.info/long-reads/2020/08/21/algorithmic-colonisation-of-africa/) (Accessed 14 October 2021.)
- Block, Peter L. 2021. *Diversity regulation in the UK broadcast industry*. Birmingham, Birmingham University. [www.bcu.ac.uk/media/research/sir-lenny-henry-centre-for-media-diversity/representology-journal/articles/diversity-regulation](http://www.bcu.ac.uk/media/research/sir-lenny-henry-centre-for-media-diversity/representology-journal/articles/diversity-regulation).
- BOP Consulting. 2021.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n the Face of COVID-19: An Economic Impact Outlook*.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863>.
- Börsenblatt. 2019. 'Ermäßigte Mehrwertsteuer auf E-Books' [Reduced VAT on e-books]. *Börsenblatt*, 13 July. [www.boersenblatt.net/archiv/1700515.html](http://www.boersenblatt.net/archiv/1700515.html) (Accessed 8 December 2021.)
- Bourdin, L. 2019. *Retracing Roots and Tracing New Routes: Mobility and Touring in North Africa*. Art Moves Africa.
- Bozkir, V. 2020. Statement to the 31s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Transcrip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3 December. [www.un.org/pga/75/2020/12/03/31st-united-nations-general-assembly-special-session-on-the-coronavirus-disease-covid-19-pandemic/](http://www.un.org/pga/75/2020/12/03/31st-united-nations-general-assembly-special-session-on-the-coronavirus-disease-covid-19-pandemic/).
- Bozkir, V. 2021. Remarks by H.E. Mr. Volkan Bozkir, President of the 7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uring High-level event on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crip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1 May. [www.un.org/pga/75/2021/05/21/high-level-event-on-culture-and-sustainable-development-5/](http://www.un.org/pga/75/2021/05/21/high-level-event-on-culture-and-sustainable-development-5/).

- Brogi, E., Carlini, R., Nenadic, I., Parcu, P.L., and de Azevedo Cunha, M.V. (2020). *Monitoring Media Pluralism in the Digital Era*.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Centre for Pluralism and Media Freedom. <https://cmpf.eui.eu/mpm2020-results/>.
- Brown, A., Carnwath, J. and Doerer, J. 2019. *Canada Council for the Arts: Qualitative Impact Framework*. Ottawa, Canada Council for the Arts.
- Buchowski, M. 1996. The shifting meanings of civil and civic society in Poland. Dunn, E. and Hann, C. (eds.) *Civil Society: Challenging Western Models*. London, Routledge, pp.77-96.
- Buckley, S. 2011. *Community media: a good practice handbook*.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15097>
- Buitrago, R., Pedro, F. and Duque Márquez, I. 2013. *The Orange Economy: An Infinite Opportunity*.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Burri, M. and Nurse, K. 2019. *Culture in the CARIFORUM-European Unio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ebalancing Trade Flows between Europe and the Caribbean?*.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68382>.
- BusinessWire. 2021. 'Spotify Technology S.A. Announces Financial Results for Second Quarter 2021'. *BusinessWire*, 28 July. [www.businesswire.com/news/home/20210728005343/en/Spotify-Technology-S.A.-Announces-Financial-Results-for-Second-Quarter-2021](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210728005343/en/Spotify-Technology-S.A.-Announces-Financial-Results-for-Second-Quarter-2021) (Accessed 29 October 2021.)
- Buyse, A. 2018. Squeezing Civic Space: Restrictions 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Linkages with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 22, No. 8, pp. 966-988.
- Cabrera Blázquez, F.J., Cappello, M., Ene, L., Fontaine, G., Grece, C., Jiménez Pumares, M., Kanzler, M., Schneeberger, A., Simone, P., Talavera, J. and Valais, S. 2021. *Yearbook 2020/2021: Key Trends, Television, Cinema, Video and On-Demand Audiovisual Services - The Pan-European Picture*. Strasbourg,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Council of Europe). <https://rm.coe.int/yearbook-key-trends-2020-2021-en/1680a26056>.
- Cabrera Blázquez F.J., Cappello M., Grece C., Valais S. 2016. VOD, platforms and OTT: which promotion obligations for European works?. *IRIS Plus*. Strasbourg,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https://rm.coe.int/1680783489>.
- Canadian Heritage. 2019. Building a Foundation for Change: Canada's Anti-Racism Strategy 2019-2022. Ottawa, Canadian Heritage. [www.canada.ca/en/canadian-heritage/campaigns/anti-racism-engagement/anti-racism-strategy.html#a1](http://www.canada.ca/en/canadian-heritage/campaigns/anti-racism-engagement/anti-racism-strategy.html#a1).
- Cappello, M. (Ed.). 2019. *The independence of media regulatory authorities in Europe*. IRIS Special. Strasbourg,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https://rm.coe.int/the-independence-of-media-regulatory-authorities-in-europe/168097e504>.
- Caramiaux, B. 2020.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Strasbourg, Secretariat-General of the European Parliament. [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29220/IPOL\\_BRI\(2020\)629220\\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29220/IPOL_BRI(2020)629220_EN.pdf)
- Castle, C. L. and Feijoo, C. 2021. *Study on the artists in the digital music marketplace: economic and legal considerations*. Geneva,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Cavallini, S., Soldi, R., Utma, M.A., and Errico, B. 2018. *How to design 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to boost local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comparative advantage: An overview of good practices*. Brussels, EU Committee of the Regions.
- CBC/Radio Canada. 2020. 'Anti-racism, diversity and inclusion at CBC/Radio-Canada'. *CBC Media Centre*, 23 June. [www.cbc.ca/mediacentre/press-release/anti-racism-diversity-and-inclusion-at-cbc-radio-canada](http://www.cbc.ca/mediacentre/press-release/anti-racism-diversity-and-inclusion-at-cbc-radio-canada) (Accessed 29 October 2021.)
- CCEBA (Cultural Centre of Spain in Buenos Aires) and FLACSO Argentina (Facultad Latinoamericana de Ciencias Sociales). 2021. *Cultura y equidad. Artes, cultura y géneros [Culture and Equality. The Arts, Culture and Gender]*. [www.cceba.org.ar/sitio/wp-content/uploads/2021/07/Publicacio%CC%81n-Cultura-y-Equidad-Julio-2021.pdf](http://www.cceba.org.ar/sitio/wp-content/uploads/2021/07/Publicacio%CC%81n-Cultura-y-Equidad-Julio-2021.pdf).
- Chimhowu, A. O., Hulme, D. and Munro, L. T. 2019. The 'New'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nd global development goals: Processes and partnerships. *World Development*, Vol. 120, pp. 76-89. <https://doi.org/10.1016/j.worlddev.2019.03.013>.
- CISAC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2021. *Global Collections Report 2021*. Paris, CISAC. [www.cisac.org/sites/main/files/files/2021-10/GCR2021%20CISAC%20EN\\_2.pdf](http://www.cisac.org/sites/main/files/files/2021-10/GCR2021%20CISAC%20EN_2.pdf).
- CIVICUS. 2020. *Solidarity in The Time of COVID-19: Civil Society Responses to The Pandemic*. [www.civicus.org/documents/reports-and-publications/SOCS/2020/solidarity-in-the-time-of-covid-19\\_en.pdf](http://www.civicus.org/documents/reports-and-publications/SOCS/2020/solidarity-in-the-time-of-covid-19_en.pdf).
- Cole, S. M., Puskur, R., Rajaratnam, S. and Zulu, F. 2015. Exploring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gender inequality and rural masculinity: A case study from an aquatic agricultural system in Zambia. *Culture, Society and Masculinities*, Vol. 7, pp. 154-170.
- Community Broadcasting Foundation (CBF). 2021. *Annual Report 2020*. <https://cbf.org.au/documents/2020/12/2020-annual-report.pdf/>.
- Concerts SA. 2020. *Digital Futures? Live streaming in South Africa*. [www.iksafrika.com/reports/Digital-Futures-online.pdf](http://www.iksafrika.com/reports/Digital-Futures-online.pdf).
- Concha, G. and Naser, A. 2012. *Datos Abiertos: Un Nuevo Desafío Para los Gobiernos de la Región [A New Challenge for the Governments of the Region]*. Santiago de Chil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www.cepal.org/es/publicaciones/7331-datos-abiertos-un-nuevo-desafio-gobiernos-la-region](http://www.cepal.org/es/publicaciones/7331-datos-abiertos-un-nuevo-desafio-gobiernos-la-region).

- Conor, B. 2021. Gender & Creativity. Progress on the precipice. Special Edition. 2005 Convention Global Report series. Paris, UNESCO Publishing.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5706>.
- Conor, B., Gill, R. and Taylor, S. 2015. Gender and creative labour. *Sociological Review*, Vol. 63, No. S1, pp. 1-22.
- Corbat, Y. and González, S. M. 2019. *Wom@rts. State of the Arts Report about the situation of women artists and professionals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sector in Europe*. [www.womarts.eu/state-of-the-arts-report/](http://www.womarts.eu/state-of-the-arts-report/).
- Council of Europe. 2020. *Manifesto on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Arts and Culture in the Digital Era*. [www.coe.int/fr/web/portal/-/manifesto-on-freedom-of-expression-of-arts-and-culture-in-digital-era](http://www.coe.int/fr/web/portal/-/manifesto-on-freedom-of-expression-of-arts-and-culture-in-digital-era).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8. Council Conclusions on the Work Plan for Culture 2019-2022. Brussel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18XG1221%2801%29>.
- . 2020a. Open Method of Coordination group of Member States' experts on the Cultur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 Final Mandate. Brussel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6161-2020-INIT/en/pdf>.
- . 2020b. Presidency conclusions on gender equality in the field of culture. 13097/20.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3097-2020-INIT/en/pdf>.
- Creative Carbon Scotland. 2017. *Scoping Study on Carbon Reduction Strategies for the Craft and Digital Content Sectors of the Arts and Creative Industries in Scotland*. Edinburgh, Creative Carbon Scotland. [www.creativecarbonscotland.com/wp-content/uploads/2018/02/Carbon-Reduction-in-the-Creative-Industries-Scoping-Report-1.pdf](http://www.creativecarbonscotland.com/wp-content/uploads/2018/02/Carbon-Reduction-in-the-Creative-Industries-Scoping-Report-1.pdf).
- Creative Ireland. 2019. *Engaging the Public on Climate Change through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Dublin, Creative Ireland. [www.creativeireland.gov.ie/app/uploads/2019/12/Engaging-the-Public-on-Climate-Change.pdf](http://www.creativeireland.gov.ie/app/uploads/2019/12/Engaging-the-Public-on-Climate-Change.pdf).
- . 2020. *Creative Ireland Progress Report 2020*. Dublin, Creative Ireland. [https://report2020.creativeireland.gov.ie/6/?utm\\_source=CI&utm\\_medium=Banner&utm\\_campaign=Rep2020](https://report2020.creativeireland.gov.ie/6/?utm_source=CI&utm_medium=Banner&utm_campaign=Rep2020).
- Creative Scotland. 2020. *COVID-19 Population Survey*. Edinburgh, Creative Scotland. [www.creativescotland.com/\\_\\_data/assets/pdf\\_file/0003/86205/COVID19-Audience-Report-Wave-2-Summary.pdf](http://www.creativescotland.com/__data/assets/pdf_file/0003/86205/COVID19-Audience-Report-Wave-2-Summary.pdf) (Accessed 13 June 2021.)
- Crétois, J. and Attia, S. 2019. 'Maroc, Algérie, Tunisie : les artistes face au « cauchemar » des visas Schengen' [Morocco, Algeria, Tunisia: artists face Schengen visa 'nightmare']. *Jeune Afrique*, 12 February. [www.jeuneafrique.com/733114/culture/maghreb-les-visas-pour-leurope-cest-le-cauchemar-des-artistes-du-sud/](http://www.jeuneafrique.com/733114/culture/maghreb-les-visas-pour-leurope-cest-le-cauchemar-des-artistes-du-sud/) (Accessed 21 December 2021.)
- Cruz-Rubio, C. N. 2014. *Hacia el Gobierno Abierto: Una Caja de Herramientas* [Towards Open Government: A Toolbox]. Madrid, Department for Effective Public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In Spanish.) [http://biblioteca.clacso.edu.ar/Espana/gigapp/20161220030611/pdf\\_1095.pdf](http://biblioteca.clacso.edu.ar/Espana/gigapp/20161220030611/pdf_1095.pdf).
- CSA-Belgium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2020. *Égalité de genre dans les métiers de l'audiovisuel* [Gender equality in the audiovisual professions]. [www.csa.be/egalitediversite/ressources-humaines-letude/](http://www.csa.be/egalitediversite/ressources-humaines-letude/).
- Cultural Ministers Council of Australia. 2009. National Arts and Disability Strategy.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www.arts.gov.au/sites/default/files/arts-disability-0110.pdf?acsf\\_files\\_redirect](http://www.arts.gov.au/sites/default/files/arts-disability-0110.pdf?acsf_files_redirect).
- Culture 2030 Goal Campaign. 2019. *Cultur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https://agenda21culture.net/sites/default/files/culture2030goal\\_high.pdf](https://agenda21culture.net/sites/default/files/culture2030goal_high.pdf).
- Culture Action Europe and Dâmaso, M. 2021. *The Situation of Artists and Cultural Workers and the Post-COVID-19 Cultural Recovery in the European Union*. Research for CULT Committee. Brussels, Policy Department for 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European Parliament). [www.europarl.europa.eu/cmsdata/234839/PE652.250.pdf](http://www.europarl.europa.eu/cmsdata/234839/PE652.250.pdf).
- Culture Resource, 2021. Wjhat 2019/2021 Quantitative Data. Unpublished report.
- Cuny, L. 2020. *Freedom & Creativity: Defending Art, Defending Diversity*.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357>.
- . 2021. Relocating Artists at Risk in Latin America. *ifa Edition Culture and Foreign Policy*. Stuttgart, ifa (Institute for Foreign Cultural Relations). <https://doi.org/10.17901/AKBP1.05.2021>.
- Daïf, M. 2018. Facebook, 4 February. [www.facebook.com/maria.daif/posts/10155356792906867](http://www.facebook.com/maria.daif/posts/10155356792906867) (Accessed 14 June 2021.)
- Delfin, M. 2021. Gobernanza cultural y datos abiertos: retos y oportunidades para los sectores culturales en el Perú [Cultural governance and open dat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cultural sectors in Peru]. Javiera, A. and Fumega, S. (eds.) *Documento de Trabajo*. Montevideo, ILDA. <https://doi.org/10.5281/zenodo.4670293>.
-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of Abu Dhabi. 2021.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 Abu Dhabi launches Creative Visa initiative'.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14 February. <https://tcaabudhabi.ae/en/media/centre/news/the-department-of-culture-and-tourism-abu-dhabi-launches-creative-visa-initiative.aspx> (Accessed 15 February 2021.)
- Department of Tourism, Culture, Arts, Gaeltacht, Sport and Media, Government of Ireland. Culture 2025 - A National Cultural Policy Framework to 2025. Dublin, Government of Ireland. [www.gov.ie/en/publication/62616d-culture-2025/](http://www.gov.ie/en/publication/62616d-culture-2025/).

- 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08.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ISIC), Rev.4.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4, Rev. 4. New York, UN. [https://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m/seriesm\\_4rev4e.pdf](https://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m/seriesm_4rev4e.pdf).
- . 2019. *Compendium of Nation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2008UNPAN99132.pdf>.
- Deselaers, P., James, K., Mikhael, R. and Schneider, L. 2019. *More than Money: Rethinking Media Viability in the Digital Age*. Deutsche Welle Akademie. [www.dw.com/en/more-than-money-rethinking-media-viability-in-the-digital-age/a-47825791](http://www.dw.com/en/more-than-money-rethinking-media-viability-in-the-digital-age/a-47825791).
- Desjardins, D. 2016. *Découvrabilité : vers un cadre commun. Fonds des médias du Canada, l'Office national du film du Canada et Téléfilm Canada* [Discoverability: Towards a Common Framework. Canada Media Fund,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and Telefilm Canada]. <https://cmffmc.ca/wp-content/uploads/2021/01/FMC-Decouvrabilite-Vers-un-cadre-de-reference-commun-3.pdf>.
- De Vuyst, S. and Raeymaeckers, K. 2019. Gender as a multi-layered issue in journalism: A multi-method approach to studying barriers sustaining gender inequality in Belgian newsrooms.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26, No. 1, pp. 23-38.
- Dice. 2021. *Equality in Tech. Technologist Perception of Race and Gender Equality and Discrimination*. [http://marketing.dice.com/pdf/2021/Equality\\_in\\_Tech\\_Report.pdf](http://marketing.dice.com/pdf/2021/Equality_in_Tech_Report.pdf).
- Dixon-Fyle, S., Hunt, V., Dolan, K., and Prince, S. (2020). *Diversity wins: How inclusion matters*. McKinsey & Company. [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diversity-and-inclusion/diversity-wins-how-inclusion-matters#](http://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diversity-and-inclusion/diversity-wins-how-inclusion-matters#).
- Dray, S. 2021. 'Impact of Brexit on UK musicians performing in the EU'. *UK Parliament: House of Lords Library*, 22 January. <https://lordslibrary.parliament.uk/impact-of-brexit-on-uk-musicians-performing-in-the-eu/> (Accessed 14 October 2021.)
- Dusollier, S. 2020. *The 2019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Some progress, a few bad choices, and an overall failed ambition*. Common Market Law Review, Kluwer Law International.
- DutchCulture. 2018. *Report on Fair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 - Funding Parties: Conventions and Practical Issues in Funding International Activities*. Amsterdam, DutchCulture. <https://dutchculture.nl/sites/default/files/atoms/files/DutchCulture%20report%20-%20Fair%20International%20Cultural%20Cooperation%202018.pdf>.
- . 2019. *Report on Fair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2 - Climate Change: Conventions and Practical Issues in Funding International Activities*. Amsterdam, DutchCulture. [https://dutchculture\\_report\\_-\\_fair\\_international\\_cultural\\_cooperation\\_2019.pdf](https://dutchculture.nl/sites/default/files/atoms/files/dutchculture_report_-_fair_international_cultural_cooperation_2019.pdf)
- Eberwein, T., Fengler, S. and Karmasin, M. (Eds.). 2018. *The European Handbook of Media Accountability*. London/New York, Routledge.
- EBU (European Broadcasting union. 2021. *Gender Equality & Public Service Media*. Geneva, Media Intelligence Service EBU. [www.ebu.ch/files/live/sites/ebu/files/Publications/MIS/login\\_only/psm/EBU-MIS-Gender\\_Equality\\_and\\_PSM-Public\\_2021.pdf](http://www.ebu.ch/files/live/sites/ebu/files/Publications/MIS/login_only/psm/EBU-MIS-Gender_Equality_and_PSM-Public_2021.pdf).
- 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20.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E/2020/57. New York, United Nations. <https://unstats.un.org/sdgs/files/report/2020/secretary-general-sdg-report-2020-EN.pdf>.
- EENCA (European Expert Network on Culture and Audiovisual). 2019. *Gender gaps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audio-visual sector)*. <https://eenca.com/eenca/assets/File/EENCA%20publications/Final%20Report%20-%20Gender%20in%20CCS%20EAC.pdf>.
- . 2020. *The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of artists and cultural and creative professionals*. <https://cultureactioneurope.org/files/2020/12/Study-on-the-status-and-working-conditions-of-artists-and-creative-professionals-Final-report.pdf>.
- El Observador. 2018. *A un año del control de la Ursec a las radios: más música uruguaya y una única multa* [One year on from the control of the Regulatory Unit of State Communications Services (URSEC) over radio stations: more Uruguayan music and a single fine.]. *El Observador*, 13 October. [www.elobservador.com.uy/nota/a-un-ano-del-control-de-la-ursec-a-las-radios-mas-musica-uruguaya-y-una-unica-multa-20181030142030](http://www.elobservador.com.uy/nota/a-un-ano-del-control-de-la-ursec-a-las-radios-mas-musica-uruguaya-y-una-unica-multa-20181030142030). (Accessed 29 October 2021.)
- ENACOM (Ente Nacional de Comunicaciones, Argentina). 2020. *Nueva línea de fomento para medios comunitarios y pueblos originarios* [New line of support for community media and Indigenous Peoples]. ENACOM, 7 May. [www.enacom.gob.ar/institucional/nueva-linea-de-fomento-para-medios-comunitarios-y-pueblos-originarios\\_n2343](http://www.enacom.gob.ar/institucional/nueva-linea-de-fomento-para-medios-comunitarios-y-pueblos-originarios_n2343) (Accessed 29 October 2021.)
- ENCC (European Network of Cultural Centres). 2016. *The Value of International Cultural Networks*. [https://encc.eu/sites/default/files/2016-09/the\\_value\\_of\\_international\\_cultural\\_networks\\_-\\_malta\\_group.pdf](https://encc.eu/sites/default/files/2016-09/the_value_of_international_cultural_networks_-_malta_group.pdf) (Accessed 29 October 2021.)
- EU (European Union). 2021. *Towards gender equality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Report of the 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 working group of Member States' experts*.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36e9028b-c73b-11eb-a925-01aa75ed71a1/language-en>.

- EUNIC (EU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 2020. 'This is not the time to invest less in culture, but rather more'. *EUNIC News*, 15 July. [www.eunicglobal.eu/news/eunic-online-talk-cultural-relations-and-covid-19-summary](http://www.eunicglobal.eu/news/eunic-online-talk-cultural-relations-and-covid-19-summary) (Accessed 14 June 2021.)
- European Commission. 2016.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Towar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JOIN%3A2016%3A29%3AFIN>.
- . 2020a. *Artists abroad - i-Portunus, the EU's First Mobility Scheme for Culture: Final Report*.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fb0d6926-b1d2-11ea-bb7a-01aa75ed71a1/language-en>.
- . 2020b. *Manifesto: Culture for the Futur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www.culturexchange.eu/system/files/2020-12/Manifesto%20Culture4Future\\_Annexes\\_0.pdf](http://www.culturexchange.eu/system/files/2020-12/Manifesto%20Culture4Future_Annexes_0.pdf).
- . 2021. *Creative Europe. Monitoring Report 2020*.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49a05a63-1b4d-11ec-b4fe-01aa75ed71a1>.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9. Recommendations of the Civil Society Days 2019. Brussels,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www.eesc.europa.eu/en/documents/conclusions/recommendations-civil-society-days-2019](http://www.eesc.europa.eu/en/documents/conclusions/recommendations-civil-society-days-2019) (Accessed 29 October 2021.)
- European Parliament. 2020. *Report on Effective Measures to 'Green' Erasmus+, Creative Europe and the European Solidarity Corps (2019/2195(INI))*. Brussels, Committee on Culture and Education (European Parliament). [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9-2020-0141\\_EN.pd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9-2020-0141_EN.pdf).
- Eurostat. 2019. *Glossary: Foreign Affiliates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Foreign\\_affiliates\\_statistics\\_\(FATS\)](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Foreign_affiliates_statistics_(FATS)) (Accessed 31 May 2021.)
- . 2020. *Culture statistics - culture-related education*. Brussels,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Culture\\_statistics\\_-\\_culture-related\\_education](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Culture_statistics_-_culture-related_education).
- . 2021a. *Culture statistics - cultural employment*. Brussels,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Culture\\_statistics\\_-\\_cultural\\_employment](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Culture_statistics_-_cultural_employment).
- . 2021b.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Database*. Brussels,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data/database>.
- EY Consulting. 2009. *The way to cultural diversity in tax policies*. Le Forum d'Avignon. [www.forum-avignon.org/sites/default/files/editeur/Etude\\_Forum\\_Avignon\\_ERNST\\_Young\\_ENG.pdf](http://www.forum-avignon.org/sites/default/files/editeur/Etude_Forum_Avignon_ERNST_Young_ENG.pdf).
- . 2021. *Rebuilding Europe: The Cultural and Creative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Crisis*. Paris, EY Consulting. [https://1761b814-bfb6-43fc-9f9a-775d1abca7ab.filesusr.com/ugd/4b2ba2\\_1ca8a0803d8b4ced9d2b683db60c18ae.pdf](https://1761b814-bfb6-43fc-9f9a-775d1abca7ab.filesusr.com/ugd/4b2ba2_1ca8a0803d8b4ced9d2b683db60c18ae.pdf).
- Fancourt, D. and Finn, S. 2019. *What is the Evidence on the Role of the Arts in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 A Scoping Review*. Health Evidence Network Synthesis Report 67.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www.euro.who.int/en/publications/abstracts/what-is-the-evidence-on-the-role-of-the-arts-in-improving-health-and-well-being-a-scoping-review-2019](http://www.euro.who.int/en/publications/abstracts/what-is-the-evidence-on-the-role-of-the-arts-in-improving-health-and-well-being-a-scoping-review-2019).
- Fassatoui, O. 2021. 'Tunisia's Law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The Mixed Results of a Pioneering Legislation. Arab Reform Initiative'. *Arab Reform Initiative*, 11 February. [www.arab-reform.net/publication/tunisia-law-against-racial-discrimination-the-mixed-results-of-a-pioneering-legislation/](http://www.arab-reform.net/publication/tunisia-law-against-racial-discrimination-the-mixed-results-of-a-pioneering-legislation/) (Accessed 29 October 2021.)
-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2021. *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Update 2021*. [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74430/1940716/1c63c8739d10011eb116fda1aecb61ca/german-sustainable-development-strategy-en-data.pdf?download=1](http://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74430/1940716/1c63c8739d10011eb116fda1aecb61ca/german-sustainable-development-strategy-en-data.pdf?download=1).
- FEP (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2021. *One Year After: Consequences of the COVID-19 Crisis on the Book Market - An Overview of 2020*. Brussels, FEP. <https://fep-fee.eu/One-Year-After-FEP-published-a-new>.
- FGEE (Federation of Publishers Guilds of Spain). 2021. *Barometer of Reading and Buying Habits of Books in Spain 2020*. Madrid, FGEE. [www.federacioneditores.org/img/documentos/260221-1-notasprensa.pdf](http://www.federacioneditores.org/img/documentos/260221-1-notasprensa.pdf).
- Florisson, R., O'Brien, D., Taylor, M., McAndrew, S. and Feder, T. 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jobs in the cultural sector - part 3. What happened to freelancers in 2020? Covid-19 and the creative economy*. [www.culturehive.co.uk/CVIresources/the-impact-of-covid-19-on-jobs-in-the-cultural-sector-part-3/?owner=CVI](http://www.culturehive.co.uk/CVIresources/the-impact-of-covid-19-on-jobs-in-the-cultural-sector-part-3/?owner=CVI).
- Finlev, T., Maguire, R., Oppenheim, B. and Skvirsky, S. 2017. *Future Landscapes of the Orange Economy: Creative Pathways for Improving Liv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and Institute for the Future (IFF). <http://dx.doi.org/10.18235/0000778>.
- Fitzpatrick, N., Cloke, J., Wilks, J., Szlezinger, S., Calow, D., Roberts, L., Stockman, E., Churney, S. and Fitzpatrick, T. 2021. 'Impact of Brexit on the Media, Sport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DLA Piper*, 21 January.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0ac1609-43e8-4f55-8fcb-251dc4c1e5af](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0ac1609-43e8-4f55-8fcb-251dc4c1e5af) (Accessed 26 May 2021.)
- Franco, P. and Njogu, K. 2020.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Supporting Activities in Sub-Saharan Africa: Mapping and Analysis*. Copenhagen, Ifa Edition Culture and Foreign Policy. <https://doi.org/10.17901/AKBP1.07.2020>.

- Freedom House. 2021. *Freedom in the World 2021: Democracy under Siege*.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1-02/FIW2021\\_World\\_02252021\\_FINAL-web-upload.pdf](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1-02/FIW2021_World_02252021_FINAL-web-upload.pdf).
- Freemuse. 2019. *Privatising Censorship, Digitising Violence: Shrinking Space of Women's Rights to Create in the Digital Age*. Copenhagen, Freemuse. <https://freemuse.org/resources/privatising-censorship-digitising-violence-shrinking-space-of-womens-rights-to-create-in-the-digital-age/>.
- . 2020a. *Digital Toolkit*. <https://freemuse.org/news/online-cartoonist-bullied-on-social-media-because-of-the-artwork-published-on-facebook/freemuse-digital-toolkit/>.
- . 2020b. *The Security, Creativity, Tolerance and their Co-existence: The New European Agenda on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https://freemuse.org/news/the-security-creativity-tolerance-and-their-co-existence-the-new-european-agenda-on-freedom-of-artistic-expression/>.
- . 2020c. *The state of artistic freedom 2020*. Copenhagen, Freemuse. <https://freemuse.org/news/the-state-of-artistic-freedom-2020/>.
- . 2021. *The state of artistic freedom 2021*. Copenhagen, Freemuse. [www.fim-musicians.org/wp-content/uploads/freemuse-report-2021.pdf](http://www.fim-musicians.org/wp-content/uploads/freemuse-report-2021.pdf).
- Fumega, S. 2016. 'Algunas Ideas Para "Debates Conceptuales Sobre el Gobierno Abierto"' [Some Ideas for 'Conceptual Debates About Open Government']. *Silvana's Blog*, 25 September. <http://silvanafumega.blogspot.com/2016/09/algunas-ideas-para-debates-conceptuales.html> (Accessed 29 October 2021.)
- Galian, C., Licata, M. and Stern-Plaza, M. 2021. *Social Protection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 Country Practices and Innovations*. ILO Working Paper 28. Geneva, ILO. [www.ilo.org/global/publications/working-papers/WCMS\\_781638/lang-en/index.htm](http://www.ilo.org/global/publications/working-papers/WCMS_781638/lang-en/index.htm).
- Geiger, C. 2014. *Challenges for the enforcement of copyright in the online world: Time for a new approach*.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Research Paper Series. München,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0791463\\_Challenges\\_for\\_the\\_enforcement\\_of\\_copyright\\_in\\_the\\_online\\_world\\_Time\\_for\\_a\\_new\\_approach](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0791463_Challenges_for_the_enforcement_of_copyright_in_the_online_world_Time_for_a_new_approach).
-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2019. *2019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Monitoring Report*. Berlin,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www.bmwi.de/Redaktion/EN/Publikationen/Wirtschaft/cultural-and-creative-industries-monitoring-report-2019-summary.pdf?\\_\\_blob=publicationFile&v=4](http://www.bmwi.de/Redaktion/EN/Publikationen/Wirtschaft/cultural-and-creative-industries-monitoring-report-2019-summary.pdf?__blob=publicationFile&v=4).
- Ghanem, H. 2020. 'Shooting for the moon: An agenda to bridge Africa's digital divide'. *BROOKINGS*, 7 February. [www.brookings.edu/blog/africa-in-focus/2020/02/07/shooting-for-the-moon-an-agenda-to-bridge-africas-digital-divide/](http://www.brookings.edu/blog/africa-in-focus/2020/02/07/shooting-for-the-moon-an-agenda-to-bridge-africas-digital-divide/) (Accessed 29 October 2021.)
- GitHub. 2021. *The 2021 State of Octoverse*. <https://octoverse.github.com/> (Accessed 10 January 2022.)
- Glencross, T. 2013. 'The 70% local TV content directive will stifle industry'. *New Vision*. May 28. [www.newvision.co.ug/news/1321166/-local-tv-content-directive-stifle-industry](http://www.newvision.co.ug/news/1321166/-local-tv-content-directive-stifle-industry) (Accessed 29 October 2021.)
- 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2020. *Towards the Localization of the SDGs: How to accelerate transformative actions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outbreak*.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Report to the 2020 HLPF. 4th Report. Barcelona,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www.uclg.org/sites/default/files/report\\_localization\\_hlpf\\_2020.pdf](http://www.uclg.org/sites/default/files/report_localization_hlpf_2020.pdf)
- Goethe Institut. No Date a. International 2020 Relief Fund for organizations in culture and education. *Goethe Institut Ghana*. [www.goethe.de/ins/gh/en/kul/sup/21900864.html](http://www.goethe.de/ins/gh/en/kul/sup/21900864.html) (Accessed 25 November 2020.)
- Goethe Institut. No Date b. International Relief Fund for Organizations in Culture and Education. *Goethe Institut*. [www.goethe.de/en/uun/auf/hlf.html](http://www.goethe.de/en/uun/auf/hlf.html) (Accessed 14 June 2021.)
- Grece, C. (2021). *Trends in the VOD market in EU28*. Strasbourg,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https://rm.coe.int/trends-in-the-vod-market-in-eu28-final-version/1680a1511a>.
- Guevara, F. 2019. Performing the fantasy of mobility while enacting the violence of immobility. L. Bonet and H. Schargorodsky (eds), *The Challenges of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st ed. Quaderns Gescènic, pp. 259-281. [www.ub.edu/cultural/wp-content/uploads/2019/10/Bonet-Schargorodsky-2019-The-challenges-of-cultural-relations-between-EU-and-Latin-America-and-the-Caribbean-1.pdf](http://www.ub.edu/cultural/wp-content/uploads/2019/10/Bonet-Schargorodsky-2019-The-challenges-of-cultural-relations-between-EU-and-Latin-America-and-the-Caribbean-1.pdf).
- GWI (GlobalWebIndex). 2021. *The global media landscape – Analysing how the pandemic has changed media habits*. [www.gwi.com/reports/global-media-landscape](http://www.gwi.com/reports/global-media-landscape) (Accessed 1 October 2021.)
- Harvey, A. and Shepherd, T. 2016. When passion isn't enough: gender, affect and credibility in digital games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 20, No. 5, pp. 492-508.
- Haut Conseil à l'Égalité (French High Council for Equality). 2019. *Gender Inequality in Arts and Culture* (In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ans les arts et la culture). [https://haut-conseil-egalite.gouv.fr/IMG/pdf/hce\\_rapport\\_inegalites\\_dans\\_les\\_arts\\_et\\_la\\_culture\\_20180216\\_vlight.pdf](https://haut-conseil-egalite.gouv.fr/IMG/pdf/hce_rapport_inegalites_dans_les_arts_et_la_culture_20180216_vlight.pdf)
- Henley & Partners. 2020. *The Henley Passport Index*. [www.henleyglobal.com/passport-index/ranking](http://www.henleyglobal.com/passport-index/ranking).

- Hennekam, S., Bennett, D., Macarthur, S., Hope, C. and Goh, T. 2019.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Managing a Career as a Woman Composer.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anagement*, Vol. 21, No. 3, pp. 4-13.
- Herim, J. 2019. 'KOICA builds biggest national museum for Congo'. *Korea Herald*, 17 June. [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617000669](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617000669) (Accessed 30 November 2020).
- Hesmondhalgh, D. and Baker, S. 2015. *Sex, gender and work segregation in the cultural industries*. *Sociological Review*, Vol. 63, No. S1, pp. 23-36.
- Hillenbrand, E., Karim, N., Mohanraj, P. and Wu, D. 2015. *Measuring gender-transformative change. A review of literature and promising practices*. [https://care.org/wp-content/uploads/2020/05/working\\_paper\\_aas\\_gt\\_change\\_measurement\\_fa\\_lowres.pdf](https://care.org/wp-content/uploads/2020/05/working_paper_aas_gt_change_measurement_fa_lowres.pdf).
- Holder, M. 2021. 'Honest Health: Our Visual Guide to Media Coverage That Doesn't Offend'. *EyeEm*. [www.eyem.com/blog/health-visual-guide-media-coverage](http://www.eyem.com/blog/health-visual-guide-media-coverage) (Accessed 5 November 2021).
- IAP2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2020. *Spectrum of Public Participation*. [https://cdn.ymaws.com/www.iap2.org/resource/resmgr/pillars/Spectrum\\_8.5x11\\_Print.pdf](https://cdn.ymaws.com/www.iap2.org/resource/resmgr/pillars/Spectrum_8.5x11_Print.pdf).
- IDEA Consult, Goethe-Institut, Amann, S. and Heinsius, J. 2021. *Research for CULT Committee -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Post-Covid-19 Europe: Crisis Effec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Brussels, European Parliament. [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IPOL\\_STU\(2021\)652242](http://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IPOL_STU(2021)652242).
- 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2019. *Artists, Displacement and Belonging (Abridged)*. Sydney, IFACCA. [https://ifacca.org/media/filer\\_public/a2/80/a28099fc-8bfd-40f5-85de-5653be5b463d/abridged\\_artists\\_displacement\\_and\\_belonging\\_english.pdf](https://ifacca.org/media/filer_public/a2/80/a28099fc-8bfd-40f5-85de-5653be5b463d/abridged_artists_displacement_and_belonging_english.pdf).
- IFCCD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alitions for Cultural Diversity). 2021. *Report on the contribution of civil society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 Asia-Pacific*. Available at <https://ficdc.org/wp-content/uploads/2021/08/IFCCD-Asia-Reportv5.pdf>.
- IFPI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2020. IFPI issues annual Global Music Report. *IFPI*, 4 May. [www.ifpi.org/ifpi-issues-annual-global-music-report/](http://www.ifpi.org/ifpi-issues-annual-global-music-report/) (Accessed 13 June 2021).
- . 2021a. *Global Music Report 2021*. London, IFPI. [www.ifpi.org/wp-content/uploads/2020/03/GMR2021\\_STATE\\_OF\\_THE\\_INDUSTRY.pdf](http://www.ifpi.org/wp-content/uploads/2020/03/GMR2021_STATE_OF_THE_INDUSTRY.pdf).
- . 2021b. *IFPI issues Global Music Report*. London. [www.ifpi.org/ifpi-issues-annual-global-music-report-2021/](http://www.ifpi.org/ifpi-issues-annual-global-music-report-2021/).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0a. *COVID-19 and the Media and Culture Sector*. Geneva, ILO. [www.ilo.org/sector/Resources/publications/WCMS\\_750548/lang-en/index.htm](http://www.ilo.org/sector/Resources/publications/WCMS_750548/lang-en/index.htm).
- . 2020b. *Policy Brief on sexual harassment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Geneva, ILO. [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dialogue/-actrav/documents/publication/wcms\\_761947.pdf](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dialogue/-actrav/documents/publication/wcms_761947.pdf).
- . 2020c. *Skills shortages and labour mig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Canada, China, Germany, India, Indonesia, Singapore and Thailand*. 'The Future of Work in ICT' project. Synthesis Report. Geneva. [www.ilo.org/global/docs/WCMS\\_755929/lang-en/index.htm](http://www.ilo.org/global/docs/WCMS_755929/lang-en/index.htm).
- . 2021a.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 Trends 2021*. Geneva, ILO. [www.ilo.org/global/about-the-ilo/multimedia/video/institutional-videos/WCMS\\_796776/lang-en/index.htm](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multimedia/video/institutional-videos/WCMS_796776/lang-en/index.htm).
- . 2021b. *Extending social protection to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 Social Protection Spotlight Brief*. Geneva. Geneva, ILO. [www.ilo.org/secsoc/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tools/Brochures/WCMS\\_791676/lang-en/index.htm](http://www.ilo.org/secsoc/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tools/Brochures/WCMS_791676/lang-en/index.htm).
- . 2021c.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Seven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briefingnote/wcms\\_767028.pdf](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briefingnote/wcms_767028.pdf).
- . 2021d. *Cooperatives and the wide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s vehicles to decent work in the culture and creative sector. ILO Brief.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No. 13. [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sse/WCMS\\_825146/lang-en/index.htm](http://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sse/WCMS_825146/lang-en/index.htm).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9707>.
- IPA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2020. *From Response to Recovery: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Global Publishing Industry*. Geneva, IPA. [www.internationalpublishers.org/copyright-news-blog/1046-from-response-to-recovery](http://www.internationalpublishers.org/copyright-news-blog/1046-from-response-to-recovery).
- . 2021. *Preliminary 2020 Publishing data Roundup*. IPA, 27 January. [www.internationalpublishers.org/copyright-news-blog/1067-preliminary-2020-publishing-data-roundup](http://www.internationalpublishers.org/copyright-news-blog/1067-preliminary-2020-publishing-data-roundup) (Accessed 28 May 2021).
- 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0. *Workshop Report on Biodiversity and Pandemics of the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Bonn, IPBES Secretariat. <https://zenodo.org/record/4311798#.YXk403ntZhE>.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or programme production and exchange*. [www.itu.int/pub/R-REP-BT.2447-2019](http://www.itu.int/pub/R-REP-BT.2447-2019).



- . 2020. *Measuring digital development: Facts and figures*. Geneva, ITU. [www.itu.int/en/ITU-D/Statistics/Documents/facts/FactsFigures2020.pdf](http://www.itu.int/en/ITU-D/Statistics/Documents/facts/FactsFigures2020.pdf).
- Jacobsen, K. 2020. 'Amid COVID-19, the Prognosis for Press Freedom is Dim. Here are 10 Symptoms to Track'. *CPJ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https://cpj.org/reports/2020/06/covid-19-here-are-10-press-freedom-symptoms-to-track/>.
- Janssens, J. 2018. *(Re)framing the International. On New Ways of Working Internationally in the Arts*. Brussels, Flanders Arts Institute. [https://wp.assets.sh/uploads/sites/4718/2019/12/KP2-EN\\_web-lowres.pdf](https://wp.assets.sh/uploads/sites/4718/2019/12/KP2-EN_web-lowres.pdf).
- Jansson, M, Wallenberg, L. 2020. Experiencing Male Dominance in Swedish Film Production. Liddy, S. (ed). 2020. *Women in the International Film Industry. Policy, Practice and Power*. Palgrave MacMillan, pp. 163-178. <https://link.springer.com/book/10.1007/978-3-030-39070-9>.
- Jeanné, E. and Miller, A.L. (2020).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How Stock Photography Shapes Unconscious Bias*. Media Diversity Institute. [www.media-diversity.org/a-picture-is-worth-1000-words-how-stock-photography-shapes-unconscious-bias/](http://www.media-diversity.org/a-picture-is-worth-1000-words-how-stock-photography-shapes-unconscious-bias/).
- Julie's Bicycle. 2018. *Creative Climate Census: Attitudes and Actions of UK Cultural Leaders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London, Julie's Bicycle. [https://juliesbicycle.com/wp-content/uploads/2019/10/2018\\_CreativeClimateCensus\\_SynthesisReport.compressed.pdf](https://juliesbicycle.com/wp-content/uploads/2019/10/2018_CreativeClimateCensus_SynthesisReport.compressed.pdf).
- . 2020.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Digital Age of Culture: Opportunities, Impacts and Emerging Practices*. London, Julie's Bicycle. [https://juliesbicycle.com/wp-content/uploads/2020/12/JB\\_Sustainability-in-the-Digital-Age-7-FULL-REPORT.pdf](https://juliesbicycle.com/wp-content/uploads/2020/12/JB_Sustainability-in-the-Digital-Age-7-FULL-REPORT.pdf).
- Kamara, Y. and Creative Africa consortium. 2021. *Investing in Africa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https://afriquecreative.fr/en/investing-in-african-cultural-and-creative-industries/?fbclid=IwAR2oR2DINNLrPBhadGUuXLYZWSzPgjeS1yQfq5CefFhqsCmAHAckjK0xqdel>.
- Kamiya, G. 2020. The carbon footprint of streaming video: fact-checking the headline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11 December. [www.iea.org/commentaries/the-carbon-footprint-of-streaming-video-fact-checking-the-headlines](http://www.iea.org/commentaries/the-carbon-footprint-of-streaming-video-fact-checking-the-headlines) (Accessed 29 October 2021).
- Kantar Public. 2021. *Arts in the Post-Pandemic Normal: 5 Macro Trends to Watch*. Singapore, National Arts Council. [www.nac.gov.sg/resources/research/digital-engagement/arts-in-a-post-pandemic-normal](http://www.nac.gov.sg/resources/research/digital-engagement/arts-in-a-post-pandemic-normal).
- Karp, P. 2020. 'Local content quotas suspended in \$54m package for Australia's coronavirus-hit media'. *The Guardian*, 15 April. [www.theguardian.com/media/2020/apr/15/local-content-quotas-suspended-in-54m-package-for-australias-coronavirus-hit-media](http://www.theguardian.com/media/2020/apr/15/local-content-quotas-suspended-in-54m-package-for-australias-coronavirus-hit-media) (Accessed 29 October 2021).
- Kaye, D. 2020. *Research Report on Artistic Freedom of Express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74876?ln=fr>.
- Keslassy, E. 2021. Netflix, Amazon Must Invest 20-25% of French Revenues in Local Content, France Government Decrees. *Variety*, June 30. <https://variety.com/2021/streaming/global/avms-france-netflix-new-rules-streamers-1235008364/> (Accessed 21 December 2021).
- Kim, D.-n., Kim, H.-s. and Kang, J.-e. 2020. 'Artists could soon qualify for unemployment aid'. *Korea JoongAng Daily*, 12 May.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05/12/economy/insurance-employment-insurance-employment-contract/20200512202605673.html> (Accessed 19 June 2020).
- Kulesz, O. and Dutoit, T. 2020. *L'intelligence artificielle dans l'art et les industries culturelles et créatives : Panorama des technologies, expertises et bonnes pratiques dans l'espace francophone* [Artificial intelligence in art and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Overview of technologies, expertise and best practices in the French-speaking world]. Paris, OIF. [www.francophonie.org/sites/default/files/2020-05/OIF\\_Guide-IA-art\\_VF.pdf](http://www.francophonie.org/sites/default/files/2020-05/OIF_Guide-IA-art_VF.pdf).
- Kumenov, A. 2020. 'Kazakhstan: Parliament Decriminalizes Slander, but Leaves Penalties in Place'. *Eurasianet*, 11 June. from <https://eurasianet.org/kazakhstan-parliament-decriminalizes-slander-but-leaves-penalties-in-place> (Accessed 14 June 2021).
- Larasati T. and Gu X. 2020. Creative Bandung: Interview with Tita Larasati. Gu X., Lim M.K., and O'Connor J. (eds.) *Re-Imagining Creative Cities in Twenty-First Century Asia*. Cham, Palgrave Macmillan. [https://doi.org/10.1007/978-3-030-46291-8\\_19](https://doi.org/10.1007/978-3-030-46291-8_19).
- Lawrence, D. L. 2019. Addressing the Value Gap in the Age of Digital Music Streaming.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52, pp. 511-543. <https://cdn.vanderbilt.edu/vu-wp0/wp-content/uploads/sites/78/2019/05/25124350/9.20Lawrence.pdf>.
- Le Sourd, M. 2019.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Artists: Mobility of Ideas and Aesthetics*. Copenhagen, Dansehallerne. [www.dansehallerne.dk/wp-content/uploads/2019/03/ILN-article\\_Marie-Le-Sourd\\_HD.pdf](http://www.dansehallerne.dk/wp-content/uploads/2019/03/ILN-article_Marie-Le-Sourd_HD.pdf).
- Le Sourd, M. and Sert, M. 2019. *Guide to Funding Opportunities for Arts and Culture in Europe, Beyond Creative Europe - 2019 Edition*. Brussels, IETM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www.ietm.org/en/system/files/publications/fund-finder\\_feb2019\\_03.pdf](http://www.ietm.org/en/system/files/publications/fund-finder_feb2019_03.pdf).
- MacNeill, K., Coles, A. and Vincent, J. 2018. *Promoting gender equality through the arts and creative industries: a review of case studies and evidence*. Victoria,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VicHealth).

- Marcos Ramos, M., González de Garay, B. and Portillo Delgado, C. 2019. The representation of immigration in contemporary Spanish prime time TV series, *Revista Latina de Comunicación Social*. No. 74, pp. 285-307.
- Marrozzi, M. 2021. 'Music industry faces mental health "crisis" as COVID-19 takes toll on vulnerable workers'. *ABC Radio Melbourne*, 28 February. [www.abc.net.au/news/2021-03-01/music-industry-facing-mental-health-crisis-workers-say/13178834](http://www.abc.net.au/news/2021-03-01/music-industry-facing-mental-health-crisis-workers-say/13178834) (Accessed 12 June 2021.)
- McCarthy, D. and Wallace, A. 2018. *Survey of GLAM open access policy and practice*. <https://copyrightcortex.org/tools-resources/survey-of-glam-open-access-policy-practice> (Accessed 1 October 2021.)
- McCracken, K., FitzSimons, A., Priest, S., Girstmair, S. and Murphy, B. 2018. *Gender Equality in the Media Sector*. Brussels,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l Policies. [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8/596839/IPOL\\_STU\(2018\)596839\\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8/596839/IPOL_STU(2018)596839_EN.pdf).
- McGlynn, D. 2020. 'The World's First AI DJs Playing AI Music Are Here'. *DJMag*, 11 December. <https://djmag.com/news/world-s-first-ai-djs-playing-ai-music-are-here> (Accessed 19 November 2021.)
- Meade, A. 2020. 'Half of kids' TV and Australian drama to disappear under new quota system, producers say'. *The Guardian*, 26, August. [www.theguardian.com/media/2020/aug/26/half-of-kids-tv-and-australian-drama-to-disappear-under-new-quota-system-producers-say?fbclid=IwAR360x2WU5IBBjUx6-jVBbyl6jpdVIGrtt2XaEUXGa2wo\\_fvojEcOl6RY](http://www.theguardian.com/media/2020/aug/26/half-of-kids-tv-and-australian-drama-to-disappear-under-new-quota-system-producers-say?fbclid=IwAR360x2WU5IBBjUx6-jVBbyl6jpdVIGrtt2XaEUXGa2wo_fvojEcOl6RY) (Accessed 29 October 2021.)
- Medel, I. L. 2020. The Palau Legacy Pledge: A Case Study of Advertising, Tourism,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Westminster Papers in Communication and Culture*, Vol. 15, No. 2, pp. 178-190. <https://doi.org/10.16997/wpcc.380>.
- Media Diversity Institute (2020). *Can Our Local News Survive COVID-19?*. Media Diversity Institute, 1 May. [www.media-diversity.org/can-our-local-news-survive-covid-19/](http://www.media-diversity.org/can-our-local-news-survive-covid-19/) (Accessed 1 October 2021.)
- Media Smarts - Canada's Centre for Digital and Media Literacy. *Common Portrayal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mediasmarts.ca/diversity-media/persons-disabilities/common-portrayals-persons-disabilities> (Accessed 20 October 2021.)
- Meijer, A., Curtin, D. and Hillebrandt, M. 2012. Open government: Connecting vision and voice.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Vol. 78, No. 1, pp. 10-29.
- Meyrick, J. and Barnett, T. 2020. From public good to public value: arts and culture in a time of crisis. *Cultural Trends*, Vol. 30, No. 1, pp. 75-90. <https://doi.org/10.1080/09548963.2020.1844542>.
- Mexico. 2020. *Declaración de Principios para la Diversidad Cultural y Lingüística en Medios de Comunicación* [Declaration of Principles for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in the Media]. [https://radioeducacion.edu.mx/wp-content/uploads/2021/02/Declaraci%C3%B3n19022021\\_sinlogo.pdf](https://radioeducacion.edu.mx/wp-content/uploads/2021/02/Declaraci%C3%B3n19022021_sinlogo.pdf).
- Millard, J. 2018. Open governance systems: Doing more with more.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35, No. 4, Supplement, pp. 77-87.
-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Digital Technologies of South Africa. 2020. *Draft White Paper on Audio and Audiovisual Content Services Policy Framework: A New Vision for South Africa*. [www.gov.za/sites/default/files/gcis\\_document/202010/43797gon1081.pdf](http://www.gov.za/sites/default/files/gcis_document/202010/43797gon1081.pdf).
- Ministry of Culture of France and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s of Quebec. 2020. *Mission franco-québécoise sur la découvrabilité en ligne des contenus culturels francophones. Rapport* [Franco-Quebec mission on the online discoverability of Francophone cultural content. Report]. <https://cdn-contenu.quebec.ca/cdn-contenu/adm/min/culture-communications/publications-adm/rapport/Decouvrabilite-Rapport.pdf>.
-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of New Zealand. 2021. *New Zealanders' Cultural Participation in 2020 and Future Participation in a Post-COVID Environment*. Wellington,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https://mch.govt.nz/new-zealanders-cultural-participation-2020-future-participation-post-covid-environment-may-2021>.
-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 of Spain. 2021. 'Rodríguez Uribe: Last year the Ministry granted 4 million euros to independent bookstores'.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 26 February. [www.culturaydeporte.gob.es/en/actualidad/2021/02/210226-barometro-habitos-de-lectura-2020.html](http://www.culturaydeporte.gob.es/en/actualidad/2021/02/210226-barometro-habitos-de-lectura-2020.html).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of Netherlands. 2020.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2021-2024*. [www.government.nl/binaries/government/documents/parliamentary-documents/2020/02/20/international-cultural-policy-2021-2024/Internationaal+cultuurbeleid+2021-2024\\_ENG.pdf](http://www.government.nl/binaries/government/documents/parliamentary-documents/2020/02/20/international-cultural-policy-2021-2024/Internationaal+cultuurbeleid+2021-2024_ENG.pdf).
- Ministry of Planning, Monitoring and Administrative Reform of Egypt. 2016.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gypt's Vision 2030*. Cairo, Ministry of Planning, Monitoring and Administrative Reform. <https://andp.unescwa.org/sites/default/files/2020-09/Sustainable%20Development%20Strategy%20%28SDS%29%20-%20Egypt%20Vision%202030.pdf>.
- Monreal Ávila, R. 2021. *Iniciativa con proyecto de decreto por el que se abroga la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y se expide la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y el Audiovisual* [Initiative with draft decree abolishing the Federal Law on Cinematography and issuing the Federal Law on Cinematography and Audiovisuals]. Mexico City, Senate of the Republic of Mexico. [https://infosen.senado.gob.mx/sgsp/gaceta/64/3/2021-02-16-1/assets/documentos/Inic\\_Morena\\_Sen\\_Monreal\\_Cinematografia\\_Audiovisual.pdf](https://infosen.senado.gob.mx/sgsp/gaceta/64/3/2021-02-16-1/assets/documentos/Inic_Morena_Sen_Monreal_Cinematografia_Audiovisual.pdf).

- Montalto, V., Tacao Moura, C., Panella, F., Alberti, V., Becker, W. and Saisana, M. 2019. *The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2019 Edit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handle/JRC117336>
- Moore, L., Hollifield, A., Jurrat, N. and De Roy, G. 2020. *Measuring Beyond Money: The Media Viability Indicators (MVIs)* (Discussion Paper). Deutsche Welle Akademie. <https://p.dw.com/p/3EsDk> (Accessed 29 October 2021.)
- Mutegi, L. 2017. 'Ugand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nts 70 Percent Local Content in New Broadcasting Quotas'. Nairobi, CIO East Africa. *AllAfrica*, 25 January. <https://allafrica.com/stories/201701250601.html> (Accessed 29 October 2021.)
- Myers, M. and Harford, N. 2020. *Local Radio Stations in Africa: Sustainability or Pragmatic Viability?*.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Media Assistance (CIMA) at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www.cima.ned.org/wp-content/uploads/2020/06/CIMA\\_Radio-Sustainability\\_web150ppi.pdf](http://www.cima.ned.org/wp-content/uploads/2020/06/CIMA_Radio-Sustainability_web150ppi.pdf).
- NACZ (National Arts Council of Zimbabwe). 2021. *Strate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s) in Zimbabwe – focus on the music sector*. Harare, NACZ. [www.natartszim.org.zw/download/situational-analysis-of-the-zimbabwe-music-sector/](http://www.natartszim.org.zw/download/situational-analysis-of-the-zimbabwe-music-sector/).
- Napoli, P.M. 1999. Deconstructing the diversity principle, *Journal of Communications*, Vol 49. No.4, pp. 7-34.
- Neil, G. 2019. *Culture & Working Conditions for Artists: Implementing the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1790>.
- Nesta. 2019. *She said more. Measuring gender imbalances in reporting on the creative industries*. <https://data-viz.nesta.org.uk/measuring-gender-imbalances-reporting-creative-industries/index.html> (Accessed 28 October 2021.)
- Newzoo. 2020. 'Top 100 Countries/Markets by Game Revenues'. Newzoo. <https://newzoo.com/insights/rankings/top-100-countries-by-game-revenues/> (Accessed 19 November 2021.)
- NHRC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20. *State of Human Rights in the Gambia. 2020 Report*. [www.gm-nhrc.org/annual-reports](http://www.gm-nhrc.org/annual-reports).
- Nielsen. 2021. *Shattering stereotypes: How today's women over 50 are Redefining what's possible on-screen, at work and at home*. Nielsen Diverse Intelligence Series. [www.nielsen.com/wp-content/uploads/sites/3/2021/03/Women-50DIS-March-2021.pdf](http://www.nielsen.com/wp-content/uploads/sites/3/2021/03/Women-50DIS-March-2021.pdf).
- Nielsen Book Research. 2020. *Books & Consumers Survey*.
- Obuljen, N. and Smiers, J. (eds.). 2006. 'UNESCO'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Making it Work', *Culturelink Joint Publication Series*, No. 9. Zagreb,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pp. 19-35. [www.culturelink.org/publics/joint/diversity01/Obuljen\\_Unesco\\_Diversity.pdf](http://www.culturelink.org/publics/joint/diversity01/Obuljen_Unesco_Diversity.pdf).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o dat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definition and coverage*. Paris, OECD. [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definition-and-coverage.htm](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definition-and-coverage.htm).
- . 2016. *Open Government: The Global Context and the Way Forward. Highlights*. Paris, OECD. [www.oecd.org/gov/open-gov-way-forward-highlights.pdf](http://www.oecd.org/gov/open-gov-way-forward-highlights.pdf).
- . 2018a. *Culture and Local Development*. Background document. Paris, OECD. [www.oecd.org/cfe/leed/venice-2018-conference-culture/documents/Culture-and-Local-Development-Venice.pdf](http://www.oecd.org/cfe/leed/venice-2018-conference-culture/documents/Culture-and-Local-Development-Venice.pdf).
- . 2018b.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Pari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93083-en>.
- . 2019. *Tax and digitalisation*. Paris, OECD Going Digital Policy Note. [www.oecd.org/tax/beps/tax-and-digitalisation-policy-note.pdf](http://www.oecd.org/tax/beps/tax-and-digitalisation-policy-note.pdf).
- . 2020a. *Culture Shock: COVID-19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Paris, OECD. [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culture-shock-covid-19-and-the-cultural-and-creative-sectors-08da9e0e/](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culture-shock-covid-19-and-the-cultural-and-creative-sectors-08da9e0e/).
- . 2020b.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Highlights*.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Paris, OECD Publishing. [www.oecd.org/tax/beps/brochure-addressing-the-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october-2020.pdf](http://www.oecd.org/tax/beps/brochure-addressing-the-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october-2020.pdf).
- . 2021a.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OVID-19 on Job and Skills Demand Using Online Job Vacancy Data*. Paris, OECD. [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an-assessment-of-the-impact-of-covid-19-on-job-and-skills-demand-using-online-job-vacancy-data-20ff09e/](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an-assessment-of-the-impact-of-covid-19-on-job-and-skills-demand-using-online-job-vacancy-data-20ff09e/).
- . 2021b. *Temporary employment (indicator)*. Paris, OECD. <https://data.oecd.org/emp/temporary-employment.htm#indicator-chart>.
- . 2021c. *How does earnings advantage from tertiary education vary by field of study?* (Education Indicators in Focus #77). Paris, OECD. [www.oecd-ilibrary.org/education/how-does-earnings-advantage-from-tertiary-education-vary-by-field-of-study\\_8a4b8f7a-en](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how-does-earnings-advantage-from-tertiary-education-vary-by-field-of-study_8a4b8f7a-en).
- . 2021d. *Purpose Codes: sector classification*. [www.oecd.org/development/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purpose-codes-sector-classification.htm](http://www.oecd.org/development/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purpose-codes-sector-classification.htm) (Accessed 1 June 2021.)

- . 2021e.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Regulatory Database*. <https://qdd.oecd.org/subject.aspx?Subject=063bee63-475f-427c-8b50-c19bffa7392d> (Accessed 15 February 2021.)
- . 2021f. *FDI Flows*. <https://data.oecd.org/fdi/fdi-flows.htm> (Accessed 12 July 2021.)
- 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 2020.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ies in television and radio 2019/20. Report on the UK-based broadcasting industry*. London, Ofcom. [www.ofcom.org.uk/\\_\\_data/assets/pdf\\_file/0022/207229/2019-20-report-diversity-equal-opportunities-tv-and-radio.pdf](http://www.ofcom.org.uk/__data/assets/pdf_file/0022/207229/2019-20-report-diversity-equal-opportunities-tv-and-radio.pdf).
- Offi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Rwanda. 2019. 'Statement on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Republic of Rwanda,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ial Twitter account*, 25 April. <https://twitter.com/UrugwiroVillage/status/1121666237069545472/photo/1> (Accessed 22 July 2020.)
-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OHCHR). 2011.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ited Nations.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 Oliver & Ohlbaum. 2018. *The impact of Terms of Trade on the UK's television content production sector: A report for the Canadian Media Producers Association (CMPA)*. <https://cmpa.ca/wp-content/uploads/2019/01/Appendix-C-Oliver-Ohlbaum-Associates-2018-The-impact-of-the-UK-te...-1.pdf>.
- On The Move. 2018. *Cultural Mobility Funding Guid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Guide to Funding Opportunities for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Brussels, On The Move. [https://on-the-move.org/sites/default/files/funding-guides/OTM\\_MFG\\_Latin-America-Caribbean\\_EN.pdf](https://on-the-move.org/sites/default/files/funding-guides/OTM_MFG_Latin-America-Caribbean_EN.pdf).
- . 2019. *Guide to Funding Opportunities for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e Professional - AFRICA*. Brussels, On the Move. [https://on-the-move.org/sites/default/files/funding-guides/OTM\\_MFG\\_Africa\\_p\\_EN.pdf](https://on-the-move.org/sites/default/files/funding-guides/OTM_MFG_Africa_p_EN.pdf).
- . 2020. *Cultural Mobility Funding Guide Focus on Arab Countries, from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MENA)*. Brussels, On the Move and Institut Français. [https://on-the-move.org/sites/default/files/funding-guides/OTM\\_MFG\\_Arab-Region\\_EN-FR.pdf](https://on-the-move.org/sites/default/files/funding-guides/OTM_MFG_Arab-Region_EN-FR.pdf).
- . 2021. *Mobility Information Points. On the Move*. <https://on-the-move.org/network/working-groups/mobility-information-points>.
- Oxford Economics. 2020. *The Economic Impact of Music in Europe*. Oxford, Oxford Economics. [www.oxfordeconomics.com/recent-releases/The-Economic-Impact-of-Music-in-Europe](http://www.oxfordeconomics.com/recent-releases/The-Economic-Impact-of-Music-in-Europe).
- Pastukhov, D. 2019. 'What Music Streaming Services Pay Per Stream (And Why It Actually Doesn't Matter)'. *Soundcharts*, 27 June. <https://soundcharts.com/blog/music-streaming-rates-payouts> (Accessed 19 November 2021.)
- PEN America. 2018. *Online Harassment Field Manual*. <https://onlineharassmentfieldmanual.pen.org/>.
- Peruvian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2020. *Rádios comunitarias crecieron en 244% durante los últimos cuatro años* [Community radio grew by 244% over the last four years]. Lima: 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www.gob.pe/institucion/mtc/noticias/300700-rádios-comunitarias-crecieron-en-244-durante-los-últimos-cuatro-años](http://www.gob.pe/institucion/mtc/noticias/300700-rádios-comunitarias-crecieron-en-244-durante-los-últimos-cuatro-años).
- Plan International. 2019. *Rewrite Her Story: How film and media stereotypes affect the lives and leadership ambitions of girls and Young women*. 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in Media. <https://plan-international.org/girls-get-equal/rewrite-her-story>.
- PMA (Public Media Alliance). 2019. *Public media & indigenous languages*, *Public Media Alliance*, 28 January. [www.publicmediaalliance.org/public-media-indigenous-languages/](http://www.publicmediaalliance.org/public-media-indigenous-languages/) (Accessed 29 October 2021.)
- Posetti, J., Shabbir, N., Maynard, D., Bontcheva, K., Aboulez, N. 2021. *The Chilling: Global Trends in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ists*. Research Discussion Paper.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223>.
- Ramírez-Alujas, A. and Cruz-Rubio, C. 2021. *Gobernando el Futuro: Debates Actuales Sobre Gobierno, Administración y Políticas Públicas*. Madrid, Centro de Estudios Políticos y Constitucionales.
- Redmond, A. 2019. 'Arts Council of Wales Sets Minimum Pay Rates'. *Arts Professional*, 10 October. [www.artspromotional.co.uk/news/arts-council-wales-sets-minimum-pay-rates?mc\\_cid=08111dd5d3&mc\\_eid=a7a90f7959](http://www.artspromotional.co.uk/news/arts-council-wales-sets-minimum-pay-rates?mc_cid=08111dd5d3&mc_eid=a7a90f7959) (Accessed 29 September 2021.)
- Regional Centre for the Promotion of Books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CERLALC). 2020. *The Ibero-American Editorial Sector and the COVID-19 Emergency*. Bogota, CERLALC. [https://cerlalc.org/wp-content/uploads/2020/05/Cerlalc\\_Sector\\_editorial\\_Covid\\_Impacto\\_052020.pdf](https://cerlalc.org/wp-content/uploads/2020/05/Cerlalc_Sector_editorial_Covid_Impacto_052020.pdf).
-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2019. *Who controls the media in Latin America?* <https://rsf.org/en/news/latin-american-media-under-control-families-economic-and-political-elites>.
-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2021. *2021 World Press Freedom Index: Journalism, the vaccine against disinformation, blocked in more than 130 countries*. <https://rsf.org/en/2021-world-press-freedom-index-journalism-vaccine-against-disinformation-blocked-more-130-countries> (Accessed 20 October 2021.)
- Res Artis and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2020. *COVID-19: Impact Survey on the Arts Residencies Field - Survey I of III. Analytical Report - September 2020*. Res Artis and UCL. [https://resartis.org/wp-content/uploads/2021/03/Res-Artis\\_UCL\\_first-survey-report\\_COVID-19-impact-on-arts-residencies.pdf](https://resartis.org/wp-content/uploads/2021/03/Res-Artis_UCL_first-survey-report_COVID-19-impact-on-arts-residencies.pdf).

- Rico, M. 2019. 'El Estatuto del artista, un feliz acontecimiento' [The Status of the Artist, A Happy Event]. *El País*, 16 January. [https://elpais.com/cultura/2019/01/16/actualidad/1547625587\\_709049.html](https://elpais.com/cultura/2019/01/16/actualidad/1547625587_709049.html) (Accessed 10 June 2021.)
- Roma Capitale and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Committee on Culture. 2020. *The 2020 Rome Charter. The Right to Participate Fully and Freely in Cultural Life is Vital to Our Cities and Communities*. [www.2020romecharter.org/wp-content/uploads/2020/05/2020\\_RC\\_eng.pdf](http://www.2020romecharter.org/wp-content/uploads/2020/05/2020_RC_eng.pdf).
- Rosow, R. M. and Metzger, C. H. 2020. *Creative Economies in the Indo-Pacific and Covid-19: The Show Must Go On*.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http://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200928\\_Runde\\_Creative\\_Economies\\_Covid19.pdf](http://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200928_Runde_Creative_Economies_Covid19.pdf).
- Safe Havens Global Live Stream. 2020. *HowlRound Theatre Commons*, 3 December. <https://howlround.com/happenings/safe-havens-global-stream-2020> (Accessed 29 October 2021.)
- Sargent, A. 2021. *Covid-19 and the Global Cultural and Creative Sector: What Have We Learned So Far?*. Leeds, Centre for Cultural Value. [www.culturehive.co.uk/CVIresources/covid-19-and-the-global-cultural-and-creative-sector/](http://www.culturehive.co.uk/CVIresources/covid-19-and-the-global-cultural-and-creative-sector/).
- Scassa, T. 2018. 'What Role for Trade Deals in an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CIGI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4 October. [www.cigionline.org/articles/what-role-trade-deals-era-digital-transformation/](http://www.cigionline.org/articles/what-role-trade-deals-era-digital-transformation/) (Accessed 29 October 2021.)
- Schindhelm, M. 2020. 'What will Culture Look Like After the Pandemic?'. *Michael Schindhelm*. Michael Schindhelm, 27 April. <https://michaelschindhelm.com/en/what-will-culture-look-like-after-the-pandemic> (Accessed 3 January 2021.)
- Scottish Government. 2020. *A Cultural Strategy for Scotland*. Edinburgh, Scottish Government. [www.gov.scot/publications/culture-strategy-scotland/](http://www.gov.scot/publications/culture-strategy-scotland/).
- Sénat Français [French Senate]. 2016. LC261 Législation Comparée - La liberté de création artistique [Comparative Legislation - Freedom of Artistic Creation]. Paris, Sénat Français. [www.senat.fr/lc/lc261/lc261.pdf](http://www.senat.fr/lc/lc261/lc261.pdf).
- Senate of Ireland. 2019. Seanad Éireann Debate - Blasphemy (Abolition of Offences and Related Matters) Bill 2019: Second Stage. *Senate of Ireland*, 25 September. [www.oireachtas.ie/en/debates/debate/seanad/2019-09-25/12/](http://www.oireachtas.ie/en/debates/debate/seanad/2019-09-25/12/) (Accessed 29 October 2021.)
- Sente, A. 2020. 'La route vers un streaming équitable reste longue et incertaine' [The road to fair streaming remains long and uncertain]. *Court-Circuit - Pôle Musiques Actuelles*, 20 May. [www.court-circuit.be/conseil/la-route-vers-un-streaming-equitable-reste-longue-et-incertaine/](http://www.court-circuit.be/conseil/la-route-vers-un-streaming-equitable-reste-longue-et-incertaine/) (Accessed 20 October 2021.)
- Shah, N., 2017. 'JioPhone: Accelerating India to Cross The 4G Chasm'. *Counterpoint*, 21 July. [www.counterpointresearch.com/jiophone-accelerating-india-to-cross-the-4g-chasm/](http://www.counterpointresearch.com/jiophone-accelerating-india-to-cross-the-4g-chasm/) (Accessed 20 October 2021.)
- Shaheed, F. 2013. *The Right to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and Creativit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755488?ln=en>.
- Silva, M. 2021. 'Supporting Australian Journalism: A Constructive Path Forward'. *Google*. <https://about.google/google-in-australia/an-open-letter/> (Accessed 19 November 2021.)
- Simonton, D. K. 2004. The 'Best Actress' Paradox: Outstanding Feature Films Versus Exceptional Women's Performances. *Sex Roles*, Vol. 50, No. 11/12, pp. 781-794.
- Snowball, J. 2020. 'How International Trade Can Unlock the Potential of the Cultural Economy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Times*, 21 January. [www.econotimes.com/How-international-trade-can-unlock-the-potential-of-the-cultural-economy-in-developing-countries-1572667](http://www.econotimes.com/How-international-trade-can-unlock-the-potential-of-the-cultural-economy-in-developing-countries-1572667) (Accessed 15 April 2021.)
- South African Cultural Observatory (SACO). 2020. *Impact Analysis: Live Music and its Venues and the South African economy during COVID-19*. Port Elizabeth, SACO. [www.southafricanculturalobservatory.org.za/impact-analysis-on-live-music-venues-and-sa-economy-in-context-of-covid-19](http://www.southafricanculturalobservatory.org.za/impact-analysis-on-live-music-venues-and-sa-economy-in-context-of-covid-19).
- Ssempijja, David. 2013. 'UCC directs TV broadcasters on local content'. *Vision Reporter*, 21 May. <https://www.newvision.co.ug/news/1320214/ucc-directs-tv-broadcasters-local-content> (Accessed 23 September 2021.)
- Stanford University.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1*. <https://hai.stanford.edu/research/ai-index-2021>.
- Stassen, M. 2021. 'Spotify's latest invention monitors your speech, determines your emotional state... and suggests music based on it'. *Music Business Worldwide*, 27 January. [www.musicbusinessworldwide.com/spotify-latest-invention-will-determine-your-emotional-state-from-your-speech-and-suggest-music-based-on-it/](http://www.musicbusinessworldwide.com/spotify-latest-invention-will-determine-your-emotional-state-from-your-speech-and-suggest-music-based-on-it/) (Accessed 17 November 2021.)
- Statista. (2019) *Global Consumer Survey*.
- Stewart, K., Spurgeon, C., and Edwards, N. 2019. *Media participation by people with disability and the relevance of Australian community broadcasting in the digital era*. Community Broadcasting Association of Australia. [www.cbaa.org.au/sites/default/files/media/Media%20participation%20by%20people%20with%20disability%20and%20the%20relevance%20of%20Australian%20community%20broadcasting%20in%20the%20digital%20era.pdf](http://www.cbaa.org.au/sites/default/files/media/Media%20participation%20by%20people%20with%20disability%20and%20the%20relevance%20of%20Australian%20community%20broadcasting%20in%20the%20digital%20era.pdf).
- Stirling, A. 1998. *On the Economics and Analysis of Diversity*. SPRU Electronic Working Paper Number 28. Brighton, University of Sussex.
- . 2007. A general framework for analysing diversity i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Interface*, Vol. 4, No. 15, pp. 707-719.

- Sweney, M. (2020). 'UK's community radio stations face closure as Covid-19 hits ads'. *The Guardian*. [www.theguardian.com/uk-news/2020/apr/22/uks-community-radio-stations-face-closure-as-covid-19-hits-ads](http://www.theguardian.com/uk-news/2020/apr/22/uks-community-radio-stations-face-closure-as-covid-19-hits-ads) (Accessed 1 October 2021.)
- Télam Digital. 2020. 'El INCAA firmó un convenio con SICA para sostener la obra social' [The INCAA signed an agreement with SICA to support social work]. *Télam Digital*, 22 April. [www.telam.com.ar/notas/202004/454977-el-incaa-firmo-un-convenio-con-sica-para-sostener-la-obra-social.html](http://www.telam.com.ar/notas/202004/454977-el-incaa-firmo-un-convenio-con-sica-para-sostener-la-obra-social.html) (Accessed 29 October 2021.)
-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2018. *Annual Report 2017-2018*. New Delhi,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www.trai.gov.in/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_21022019.pdf](http://www.trai.gov.in/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_21022019.pdf).
- The Shift Project. 2019. *The Unsustainable Use of Online Video: The Practical Case for Digital Sobriety*. Paris, The Shift Project. <https://theshiftproject.org/en/article/unsustainable-use-online-video/>.
- . 2020. *Did The Shift Project Really Overestimate the Carbon Footprint of Online Video? Our Analysis of the IEA and Carbonbrief Articles*. Paris, The Shift Project. <https://theshiftproject.org/en/article/shift-project-really-overestimate-carbon-footprint-video-analysis/>.
- . 2021. *Décarbonons la Culture! Rapport intermédiaire* [Decarbonising Culture. Interim Report]. Paris, The Shift Project. <https://theshiftproject.org/wp-content/uploads/2021/05/TSP-PTEF-Decarbonons-la-Culture-RI-mai-2021-VF.pdf>
- The Strad. 2021. 'Musicians' Union and ISM call for clarification on "short-term" visa-free tours'. *The Strad*, 6 August. [www.thestrads.com/news/musicians-union-and-ism-call-for-clarification-on-short-term-visa-free-tours/13410.article](http://www.thestrads.com/news/musicians-union-and-ism-call-for-clarification-on-short-term-visa-free-tours/13410.article) (Accessed 14 October 2021.)
- The Trichordist. 2020. '2019-2020 Streaming Price Bible: YouTube is still the #1 problem to solve'. *The Trichordist*, 5 March. <https://thetrichordist.com/2020/03/05/2019-2020-streaming-price-bible-youtube-is-still-the-1-problem-to-solve/> (Accessed 17 November 2021.)
- Tokyay, M. 2020. 'Pandemic Threatens Livelihood of Turkish Musicians, Driving Many to Suicide'. *Arab News*, 17 September. [www.arabnews.com/node/1736146/middle-east](http://www.arabnews.com/node/1736146/middle-east) (Accessed 12 June 2021.)
- Townsend, M. and Deerwater, R. 2021. *Where We Are on TV. 2020-2021*. GLAAD Media Institute. [www.glaad.org/sites/default/files/GLAAD%20-%20202021%20WHERE%20WE%20ARE%20ON%20TV.pdf](http://www.glaad.org/sites/default/files/GLAAD%20-%20202021%20WHERE%20WE%20ARE%20ON%20TV.pdf).
- TransArtists. No date. Find your residency. *TransArtists*. [www.transartists.org/en/map](http://www.transartists.org/en/map) (Accessed 14 June 2021.)
- TRC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Canada). 2015.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Canada: Calls to Action*. [https://ehprnh2mwo3.exactdn.com/wp-content/uploads/2021/01/Calls\\_to\\_Action\\_English2.pdf](https://ehprnh2mwo3.exactdn.com/wp-content/uploads/2021/01/Calls_to_Action_English2.pdf).
- UCC (Ugand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5. *Local Content Monitoring report for the first and second quarter of 2015 (January-June 2015)*. UCC Facebook page, 8 September. [www.facebook.com/UgandaCommunicationsCommission/posts/943995032305199/](http://www.facebook.com/UgandaCommunicationsCommission/posts/943995032305199/) (Accessed 29 October 2021.)
- . 2020. *UCC role in creative arts industry development;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developing standards, and facilitat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sector*. UCC Blog, 3 August. <https://uccinfo.blog/2020/08/03/ucc-role-in-creative-arts-industry-development-creating-an-enabling-environment-developing-standards-and-facilitating-the-growth-and-development-of-the-sector/> (Accessed 29 October 2021.)
- . 2021. *UCC names film content programme evaluation committee*. UCC Blog, 18 May. <https://uccinfo.blog/2021/05/18/ucc-names-film-content-fund-evaluation-committee/> (Accessed 29 October 2021.)
- 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Culture Committee. 2020. *Culture, Cities and the COVID-19 Pandemic. Part One: Documenting the Initial Measures and Drafting Challenges Ahead*. UCLG Committee on Culture Reports, No. 8. Barcelona, UCLG. [https://agenda21culture.net/sites/default/files/files/documents/en/report\\_8\\_-\\_culture\\_cities\\_and\\_the\\_covid19\\_pandemic\\_-\\_en.pdf](https://agenda21culture.net/sites/default/files/files/documents/en/report_8_-_culture_cities_and_the_covid19_pandemic_-_en.pdf).
- 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Montreal, U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91061>.
- . 2016. Cultural employment data. Montreal, UIS. <http://uis.unesco.org/en/news/cultural-employment-2016-data-release>.
- . 2018. *A Global Framework of Reference on Digital Literacy Skills for Indicator 4.4.2*. Montreal, U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403>.
- UN (United Nations). 2011. General Comment No. 34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Regarding Article 19 of the ICCPR. [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
- . 2017.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6 July 2017. Annex A/RES/71/313.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017>.
- . 2019.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65925?ln=en>.
- . 2020a.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ivic Space*. United Nations Guidance Note. Geneva, UN. Available at [www.ohchr.org/Documents/Issues/CivicSpace/UN\\_Guidance\\_Note.pd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CivicSpace/UN_Guidance_Note.pdf).

- . 2020b. *The Highest Aspiration: A 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 by the Secretary-General*. [www.un.org/en/content/action-for-human-rights/index.shtml](http://www.un.org/en/content/action-for-human-rights/index.shtml).
- . 2021a. *With Almost Half of World's Population Still Offline, Digital Divide Risks Becoming 'New Face of Inequality', Deputy Secretary-General Warns General Assembly*. Press Release. 27 April 2021. [www.un.org/press/en/2021/dsgsm1579.doc.htm](http://www.un.org/press/en/2021/dsgsm1579.doc.htm) (Accessed 29 October 2021).
- . 2021b. *Our Common Agend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www.un.org/en/content/common-agenda-report/assets/pdf/Common\\_Agenda\\_Report\\_English.pdf](http://www.un.org/en/content/common-agenda-report/assets/pdf/Common_Agenda_Report_English.pdf).
-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19. *Digital Economy Report 2019. Value Creation and Captur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Geneva, UCTAD. <https://unctad.org/webflyer/digital-economy-report-2019>.
- . 2020a. *COVID-19 drives large international trade declines in 2020*. UNCTAD/PRESS/PR/2020/037. <https://unctad.org/news/covid-19-drives-large-international-trade-declines-2020>.
- . 2020b. *Digital trade in services*. Joint ECLAC-UNSD Workshop in cooperation with WTO on Trade in Services. 9-11 December 2020, virtual.
- . 2020c. *Fact sheet #9: Foreign direct investment*.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20 - Economic trends*. New York, United Nations.
- . 2021a. Metadata 17-03-01a: Indicator 17.3.1: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South-South Cooperation as a proportion of gross national income (GNI). SDG indicator Metadata Repository.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
- . 2021b. *Global Trade Update, February 2021*. UNCTAD - Divis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odities.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tcinf2021d1\\_en.pdf](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tcinf2021d1_en.pdf).
- . 2021c. *World Investment Report*. Geneva, UN. <https://unctad.org/webflyer/world-investment-report-2021>.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2020. The Next Frontier: Human Development and the Anthropocene*. New York, UNDP.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hdr2020.pdf>
-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0. *Emissions Gap Report 2020*. Nairobi, UNEP. <https://wedocs.unep.org/xmlui/bitstream/handle/20.500.11822/34426/EGR20.pdf?sequence=1&isAllowed=y>
- UNESCO.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14029.page=144>.
- .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0521>.
- . 2014. *Gender Equality - Heritage and Creativity*. Paris, UNESCO Publishing.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29418>.
- . 2015.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05 Convention Global Report: A Decade Promoting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for Development*.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2866>.
- . 2017. *Open Road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5 Conven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410>.
- . 2018. *ReShaping Cultural Policies 2005 Convention Global Report: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0592>.
- . 2019a. *Culture|2030 Indicators*.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1562>.
- . 2019b. *Culture and Public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 of Ministers of Culture, 2019*.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1488>.
- . 2019c. *Access to Information: A New Promi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Focus edition of the World Trends i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Development. UNESCO, Par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1485>.
- . UNESCO. 2020a. Los Pinos Declaration [Chapultepek] - Making a Decade of Action for Indigenous Language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30>.
- . 2020b. *Culture & Covid-19. Impact Response & Tracker - Special Issue*. 3 July.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8311>.
- . 2020c. 'RESILIART Artists and Creativity beyond Crisis'. UNESCO, 11 April. <https://en.unesco.org/news/resiliart-artists-and-creativity-beyond-crisis> (Accessed 9 August 2020.)
- . 2020d. 'UNESCO and Malmö City Archives join forces to promote freedom of expression and artistic freedom'. UNESCO, 24 April. <https://en.unesco.org/news/unesco-and-malmo-city-archives-join-forces-promote-freedom-expression-and-artistic-freedom> (Accessed 9 August 2020.)
- . 2020e. 'ResiliArt | Africa: Status of the Artist in the Africa Region. Special Event'. UNESCO, 28 July. <https://events.unesco.org/event?id=3792552343&lang=1036> (Accessed 9 August 2020.)
- . 2020f. *Culture in Crisis: Policy Guide for a Resilient Creative Sector*.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631>.
- . 2021a. *The Tracker: Culture & Public Policy, No. 5*. Paris, UNESCO. <https://en.unesco.org/news/tracker-culture-public-policy-issue-5>.

- . 2021b. Culture: A Year Into COVID-19. *The Tracker: Culture & Public Policy, Special Issue*.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340>.
- . 2021c. *The African Film Industry: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Growth*,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9165.locale=en>.
- . 2021d.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9920.page=14>.
- . 2021e. 'Indonesi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mbraces Artistic Freedom'. UNESCO, 8 September. <https://en.unesco.org/creativity/news/indonesian-national-human-rights-commission-embraces> (Accessed 20 September 2021.)
- . 2021f. 'UNESCO initiates global dialogue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Internet companies, with release of illustrative high-level principles'. UNESCO, 3 May. <https://en.unesco.org/news/unesco-initiates-global-dialogue-enhance-transparency-internet-companies-release-illustrative> (Accessed 20 September 2021.)
- UNESCO, Ibero-American General Secretariat, MERCOSUR, OEI, IADB. 2021. *Evaluación del impacto del COVID-19 en las industrias culturales y creativas* [COVID-19 impact assessment o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Montevide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0185>.
- UNESCO and World Bank. 2021. *Cities, Culture, Creativity: Leveraging Culture and Creativity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Inclusive Growth*. Paris, UNESCO and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427>.
- UN, Eurostat, IMF, OECD, UNCTAD, UNWTO and WTO. 2012. *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010*. Geneva. Luxembourg. Madrid. New York. Paris and Washington D.C.,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UNG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6 December 1966.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9, p. 171.
- .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6 December 1966.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3, p. 3. [www.refworld.org/docid/3ae6b36c0.html](http://www.refworld.org/docid/3ae6b36c0.html).
- . 2018a.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2/229. <https://undocs.org/pdf?symbol=en/A/RES/72/229>.
- . 2018b.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A/RES/72/17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469042?ln=en>.
- . 2020a.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4/23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47705?ln=en>
- . 2020b.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A/RES/74/159.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47851?ln=en>.
- . 2020c. Road Map for Digital Cooperation: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4/821. <https://undocs.org/A/74/821>.
- . 2021.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6/214. <https://undocs.org/en/A/76/534/Add.2>.
- Unicomb, M. 2021. 'Berlin: Inside Europe's capital of Arab culture'. *Middle East Eye*, 11 October. [www.middleeasteye.net/discover/berlin-germany-europe-capital-arab-culture](http://www.middleeasteye.net/discover/berlin-germany-europe-capital-arab-culture) (Accessed 14 October 2021.)
-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2021. 'Golden visa - Long-term residence visas in the UA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1 September.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visa-and-emirates-id/residence-visa/long-term-residence-visas-in-the-uae> (Accessed 10 February 2021.)
- UN Women. *UN Women Media Compact*. [www.unwomen.org/en/partnerships/media-collaboration/media-compact](http://www.unwomen.org/en/partnerships/media-collaboration/media-compact).
- Uribe-Jongbloed, E. and Salawu, A. 2018. Minority languages, cultural policy and minority language media. The conflicting value of the 'one language-one nation' idea. Durrer, V., Miller, T. and O'Brien, D.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Global Cultural Policy*. London/New York, Routledge.
- Vaccarone, C. 2019. *All things being equal. Gender equality guidelines from public service media*. Geneva, EBU (European Broadcasting Union).
- Van den Eynde, J., Fischer, A. and Sonn, C. 2016. *Working in the Australian Entertainment Industry: Final Report*. Melbourne, Victoria University. [https://crewcare.org.au/images/downloads/WorkingintheAustralianEntertainmentIndustry\\_FinalReport\\_Oct16.pdf](https://crewcare.org.au/images/downloads/WorkingintheAustralianEntertainmentIndustry_FinalReport_Oct16.pdf).
- Van Graan, M. 2018. *Beyond Curiosity and Desire: Towards Fairer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the Arts*. IETM Toolkit. Brussels, IETM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www.ietm.org/en/publications/beyond-curiosity-and-desire-towards-fairer-international-collaborations-in-the-arts](http://www.ietm.org/en/publications/beyond-curiosity-and-desire-towards-fairer-international-collaborations-in-the-arts).
- Verhoeven, B. 2021. "'Last Men in Aleppo' Producer Kareem Abeer's Travel Visa Granted, Will Attend Oscars'. *TheWrap*, 28 February. [www.thewrap.com/last-men-aleppo-producer-kareem-abeer-travel-visa-granted-will-attend-oscars](http://www.thewrap.com/last-men-aleppo-producer-kareem-abeer-travel-visa-granted-will-attend-oscars) (Accessed 27 May 2021.)
- Vidović, D. 2018. *Do it Together: Practices and Tendencie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in Culture in the Republic of Croatia*. Zagreb, Kultura Nova Foundation. [https://participatory-governance-in-culture.net/uploads/biljeske\\_EN\\_web.pdf](https://participatory-governance-in-culture.net/uploads/biljeske_EN_web.pdf).
- Villarroya, A. and Barrios, M. 2019. Desigualtats de gènere en l'ocupació cultural a Catalunya [Gender inequalities in cultural work in Catalonia]. *Informes CoNCA*, IC17.



- Vozab, D. and Zember, A. 2016. Croatia: Does equality in representation lead to equality in content?. Ross, K., Padovani, C. (eds.), *Women in media industries in Europ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ECREA book series, pp. 72-82.
- WACC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2021. *Who makes the news? 6th Global Media Monitoring Project*. [https://whomakesthenews.org/wp-content/uploads/2021/08/GMMP2020.ENG\\_FINAL\\_.pdf](https://whomakesthenews.org/wp-content/uploads/2021/08/GMMP2020.ENG_FINAL_.pdf).
- Walker, A. 2021. '5 charts that explain how COVID-19 has affected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World Economic Forum*, 27 September. [www.weforum.org/agenda/2021/09/oecd-employment-outlook-covid-19/](http://www.weforum.org/agenda/2021/09/oecd-employment-outlook-covid-19/) (Accessed 29 September 2021.)
- Ward, M. 2021. 'Facebook News launches in Australia'. *Financial Review*, 4 August. [www.afr.com/companies/media-and-marketing/facebook-news-launches-in-australia-20210804-p58fn6](http://www.afr.com/companies/media-and-marketing/facebook-news-launches-in-australia-20210804-p58fn6) (Accessed 19 November 2021.)
- WEF (World Economic Forum). 2018. *Creative Disruption: The impact of emerging technologies on the creative economy*. Geneva, World Economic Forum. [www.weforum.org/whitepapers/creative-disruption-the-impact-of-emerging-technologies-on-the-creative-economy](http://www.weforum.org/whitepapers/creative-disruption-the-impact-of-emerging-technologies-on-the-creative-economy).
- . 2020. *Taking the Pulse of the New Economy: Chief Economists' Outlook*. Geneva, WEF. [www.weforum.org/reports/taking-the-pulse-of-the-new-economy-chief-economists-outlook](http://www.weforum.org/reports/taking-the-pulse-of-the-new-economy-chief-economists-outlook).
- . 2021a.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www.weforum.org/reports/ab6795a1-960c-42b2-b3d5-587eccda6023](http://www.weforum.org/reports/ab6795a1-960c-42b2-b3d5-587eccda6023).
- . 2021b. *Platform for Shaping the Future of the New Economy and Society: Chief Economists' Outlook*. Geneva, WEF. [www3.weforum.org/docs/WEF\\_Chief\\_Economists\\_Outlook\\_2021.pdf](http://www3.weforum.org/docs/WEF_Chief_Economists_Outlook_2021.pdf).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20a. *The Global Publishing Industry in 2020*. Geneva, WIPO. [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1064\\_2019.pdf](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1064_2019.pdf).
- . 2020b. WIPO 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PO/IP/AI/2/GE/20/1 REV. [www.wipo.int/edocs/mdocs/mdocs/en/wipo\\_ip\\_ai\\_2\\_ge\\_20/wipo\\_ip\\_ai\\_2\\_ge\\_20\\_1\\_rev.pdf](http://www.wipo.int/edocs/mdocs/mdocs/en/wipo_ip_ai_2_ge_20/wipo_ip_ai_2_ge_20_1_rev.pdf).
- World Bank. 2020a. *Bangladesh Right to Information Survey 2019*.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3734>.
- . 2020b. *Orange Economy as a Driver of Jobs for Youth. Solutions for Youth Employment Thematic Note, No. 1*. Washington, D.C., World Bank. [www.s4ye.org/sites/default/files/2020-09/Jobs%20in%20the%20Orange%20Economy.pdf](http://www.s4ye.org/sites/default/files/2020-09/Jobs%20in%20the%20Orange%20Economy.pdf).
- . 2021. *Disability Inclusion*. [www.worldbank.org/en/topic/disability#1](http://www.worldbank.org/en/topic/disability#1) (Last Updated: Mar 19, 2021) (Accessed 29 October 2021.)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2017.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WT/MIN(17)/60.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MIN17/60.pdf&Open=True>.
- . 2019a. Communication from Brazil and Argentina - Revision, INF/ECOM/16/Rev.1.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INF/ECOM/16R1.pdf&Open=True>.
- . 2019b. EU Proposal on WTO disciplines and commitmen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INF/ECOM/22.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INF/ECOM/22.pdf&Open=True>.
- . 2019c. EU proposal for WTO disciplines and commitmen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INF/ECOM/43.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INF/ECOM/43.pdf&Open=True>.
- . 2019d.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WT/L/1056.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L/1056.pdf&Open=True>.
- Zahuranec, A. J., Young, A., Verhulst, S. G. and Gazaryan, K. 2021. *The Third Wave of Open Data Toolkit: Operational Guidance on Capturing the Institutional and Societal Value of Data Re-Use*. New York, The GovLab. <http://files.thegovlab.org/The-Third-Wave-of-Open-Data-Toolkit.pdf>.
- Zurbruggen, C. and González, M. 2015. Co-creando valor público. Desafíos pendientes para América Latina [Co-creating public value. Pending challenges for Latin America]. *Revista Iberoamericana de Ciencia, Tecnología y Sociedad*, Vol. 10, No. 30. Buenos Aires, Centro de Estudios sobre Ciencia, Desarrollo y Educación Superior, pp. 143-171.

# 사진 출처

- Cover © Enrique Larios, *The Lovers*, 2019\*
- p. 16 *Be Kind*, 2020 (digital), Osinachi / Private Collection / © Osinachi. All Rights Reserved 2021 / Bridgeman Images\*
- p. 19 © Reena Kallat, *Woven Chronicle*, 2015, electrical wires, speakers, circuits boards, 10 min single channel audio\*
- p. 30 © Alina Grubnyak / Unsplash.com
- p. 32 © Ismail Zaidy, *In Touch*, 2019, Morocco\*
- p. 35 © Sasha Zaitseva, *Eden Mask*, 2021, Paris, France\*
- p. 37 © Rocca Luis César, *Daydreaming*, 2020, México\*
- p. 38 © vnwayne fan / Unsplash.com
- p. 42 © Serge Kutuzov / Unsplash.com
- p. 51 © Anuvith Premakumar / Unsplash.com
- p. 55 © Tapio Haaja / Unsplash.com
- p. 60 © Victor / Unsplash.com
- p. 65 © Joel Filipe / Unsplash.com
- p. 68 © Luis Valladolid / Unsplash.com
- p. 75 © Mitch Rosen / Unsplash.com
- p. 81 © Kobe Subramaniam / Unsplash.com
- p. 90 © Thanun Sritippcho (Note Thanun), *The waterfall of life*, 2019, Tokyo, Japan\*
- p. 105 © Luis Benito / Unsplash.com
- p. 110 © Ahmad Odeh / Unsplash.com
- p. 116 © Andrei Dinu, Alexandra Pirici, *Aggregate, performative environment*, 2017-2019. Exhibition view Art Basel Messeplatz\*
- p. 123 © Fernand De Canne / Unsplash.com
- p. 129 © Johannes Breitschaft / Unsplash.com
- p. 133 © lucas law / Unsplash.com
- p. 138 © Reena Kallat, *Woven Chronicle*, 2015, electrical wires, speakers, circuits boards, 10 min single channel audio\*
- p. 142 © Meryl McMaster, *Murmur I*, 2013, Canada\*
- p. 149 © jana müller / Unsplash.com
- p. 155 © Rawpixel.com / Shutterstock.com\*
- p. 162 © Indra Utama / Unsplash.com
- p. 171 © Alvan Nee / Unsplash.com
- p. 175 © Jr Korpa / Unsplash.com
- p. 180 © africa924 / Shutterstock.com\*
- p. 182 © Fernando Poyón, *Estrategia para no olvidar [Rub'eyal richin man yamestan] [A strategy not to forget]*, 2019, Guatemala\*
- p. 193 © Samantha Weisburg / Unsplash.com
- p. 204 © Vanessa Barragão, *Botanical Tapestry*, 2019, Heathrow Airport\*
- p. 208 © SCOWCZA, *Synthetic seabed: a new life for garbage?*, 2021\*
- p. 213 © Matteo Catanese / Unsplash.com
- p. 216 © Saffu / Unsplash.com
- p. 220 © USGS / Unsplash.com
- p. 225 © Martijn Baudoin / Unsplash.com
- p. 236 © Chiron Duong, *DIARY OF CHRYSANTHEMUM*, 2019, Viet Nam\*
- p. 240 © Victoria Villasana, *Fibonacci sequence*, 2017, Mexico\*
- p. 249 © Hulki Okan Tabak / Unsplash.com
- p. 255 © Noah Buscher / Unsplash.com
- p. 257 © Tobias Arhelger / Shutterstock.com\*
- p. 260 © Tran Thanh / Unsplash.com
- p. 262 © Shilpa Gupta, *For, in your tongue, I cannot fit*, 2017-18. Photograph by Pat Verbruggen. Sound Installation with 100 speakers, microphones, printed text and metal stands, commissioned by YARAT Contemporary Art Space and Edinburgh Art Festival\*
- p. 271 © Austin Neill / Unsplash.com
- p. 279 © Lysander Yuen / Unsplash.com
- p. 281 © Marius George Oprea / Unsplash.com
- p. 282 © Velizar Ivanov / Unsplash.com

이 간행물에 별표(\*)로 표시된 이미지는 위에 언급한 CC\_BY\_SA 라이선스에 속하지 않으며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 문화정책의 (재)구성

글로벌 리포트 시리즈는 각 국의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과 문화·창의분야가 <UN 2030 지속가능한개발 어젠다>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2년 발간되는 제3판은 두 가지 주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화·창의분야의 현황은 어떠한가? 문화 분야의 정책은 지속가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평등한 문화적 기회 및 자원 접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화해 왔으며, 이해관계자들의 협약 이행과 책임의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2015년과 2018년 발간된 보고서와 같이, 이번 제3판은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 개발 상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환경, 미디어 다양성, 지속가능발전, 예술가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양성 평등 및 예술의 자유와 같은 분야의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조명한다.

2022년 발간되는 본 보고서에 소개되는 트렌드, 우수 사례, 국가 간 격차, 그리고 권고사항은 유네스코의 <문화 정책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MONDIACULT 2022)>의 정책 토론에서 다룬만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30 어젠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공공정책 스펙트럼에서 더 넓게 문화와 창의성을 정착시킬 방안에 대해 더 나은 이해와 새로운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en.unesco.org/creativity](http://en.unesco.org/creativity)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